

목포시사

무 · 쏜 · 무 · 연

① 항도 목포

자연환경
도시발달
해운항만
역사
문화유산



목포시사

구 · 조 · 구 · 구 · 구

① 향도 목포

자연환경
도시발달
해운항만
역사
문화유산

목포시민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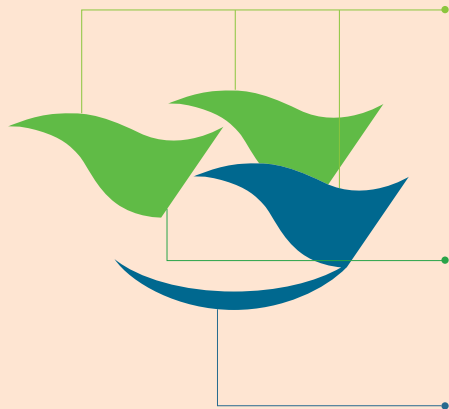
위로는 호남 옥토, 아래로는 다도해를 주름잡고 있는 우리 목포는 해산물과 농산물의 집산지요, 정서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멀리 외국으로 오고 가는 대형 선박들의 입출항은 항구도시로서의 농후한 면모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한편, 영산강 하류의 개발과 더불어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 번영과 영광의 터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포시민은 모름지기 그 몸가짐에 다음과 같이 긍지를 살려 더욱더 살기 좋은 고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목포 상징

마크



세 개의 깃발 출렁이는 파도의 모습을 깃발의 역동성으로 단순 표현하여 이미지업(Image-up) 시킴.

깃발을 세 개로 표현한 것은 동양적 삼재(천·지·인) 사상과 완전수 개념을 근간으로 육·해·공 최대의 발전 가능성을 함축하였으며,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한 관문도시 목포를 의미함.

중앙의 유달산 목포를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로 유달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함.

시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모아 목포시의 화합과 발전으로 형성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

하단의 배 세계를 누비는 배의 형태로 표현되어 개항 백년의 역사, 동북아 물류 터미널, 다도해 관광 전진 기지, 남도 행정의 요람, 서남해안의 중심 도시로서 지역 화합을 염원함.

전진하는 배의 모습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조형적 안정감을 부여함.

마스코트

청정도시 목포의 파도와 물의 이미지를 목포시의 새로운 심벌과 결합한 밀레니엄 베이비 마스코트입니다. '포포와 포미'는 목포시의 지명과 항구를 지칭하는 '포(port)'와 아름다운 '미'를 사용하여 귀엽고 발랄한 느낌을 부여한 이름입니다.



슬로건



목포 시화 / 시목 / 시조



시 화 / 백목련(白木蓮)

목련과의 교목으로 그 품격이 고매하고 같은 ‘목’자 돌림의 상통성을 갖는다. 초봄 일찍이 흰 봉오리의 꽃을 잎 먼저 피어올려서 그 자태를 자랑하여 ‘문화예술의 깊은 뜻과 순진한 목포인’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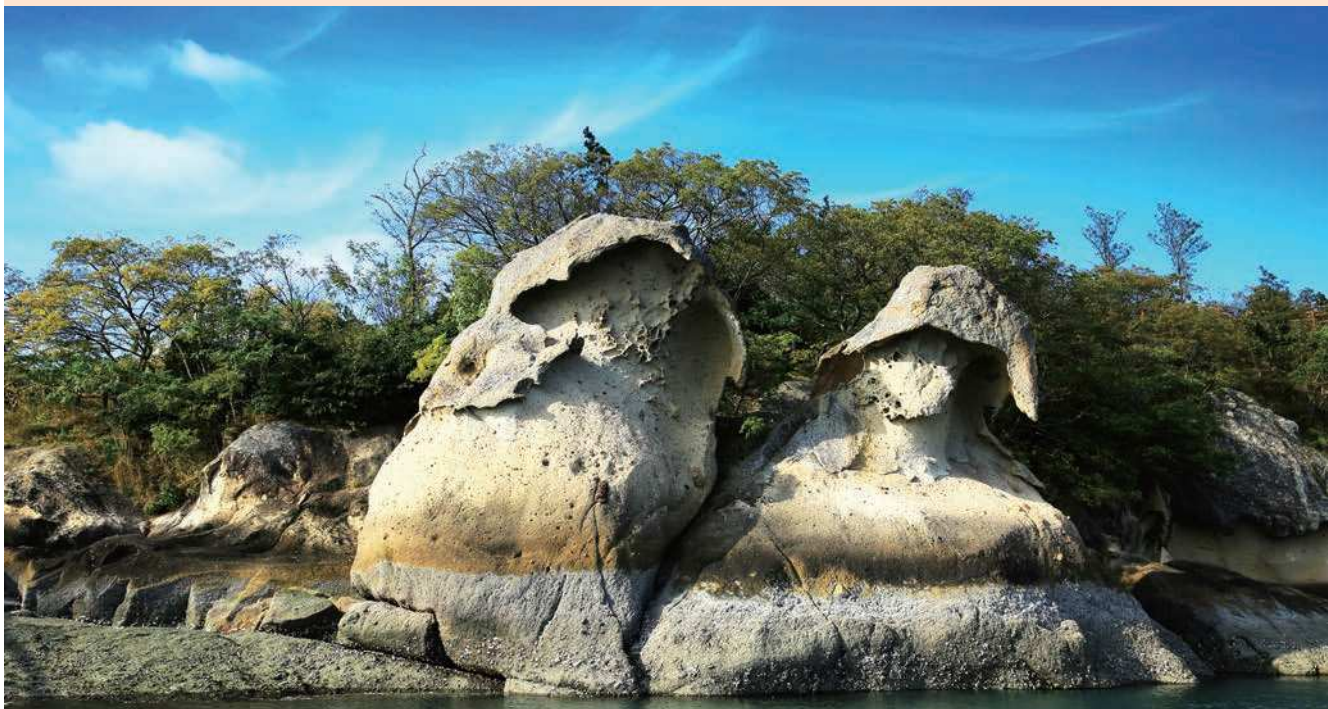
시 목 / 비파(枇杷)

장미과의 상록수로 목포 지역에서 재배되며, 꽃은 추운 겨울에 고통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특이한 생리는 인내와 끈기가 있는 목포인의 기질을 상징. 열매는 부귀와 불변을 상징하며 앞줄기는 우아한 품위를 상징한다.



시 조 / 학(鶴)

삼학도 전설에 등장하는 장수(長壽), 복록(福祿)의 길조로 순고(純高)한 신비의 자태같은 품위와 멋과 낭만의 목포 예술인의 기질을 상징한다.



목포시민의 노래

작사 권일송
작곡 목포음악협회

빛나 거라 남 녀 바다 햇빛 도 밝 아
용머리 푸른 물결 전설의 삼학

유달에 기슭 치는 파도도 높이
노적봉라는 정기 한 팔에 안고

가슴마다 여울지는 사랑과 꿈
우렁차게 나래치는 이상도 높다

가꾸며 꽃피우리 자랑의 누리

(후렴) 아 옛 뿌리 그 큰 기상 다지는 한 맘

우리는 목포시민 미더운 형제

목포의 찬가

작사 박화성

작곡 손목인

1. 목 화 꽃 - 송 이 송 이 들 녀 에 피 고 -
 2. 삼 학 도 - 사 라 저 도 전 설 은 남 네 -

푸 른 물 절 다 도 해 틀 감 돌 아 드 네
 총 무 공 가 셴 어 도 노 적 봉 그 대 로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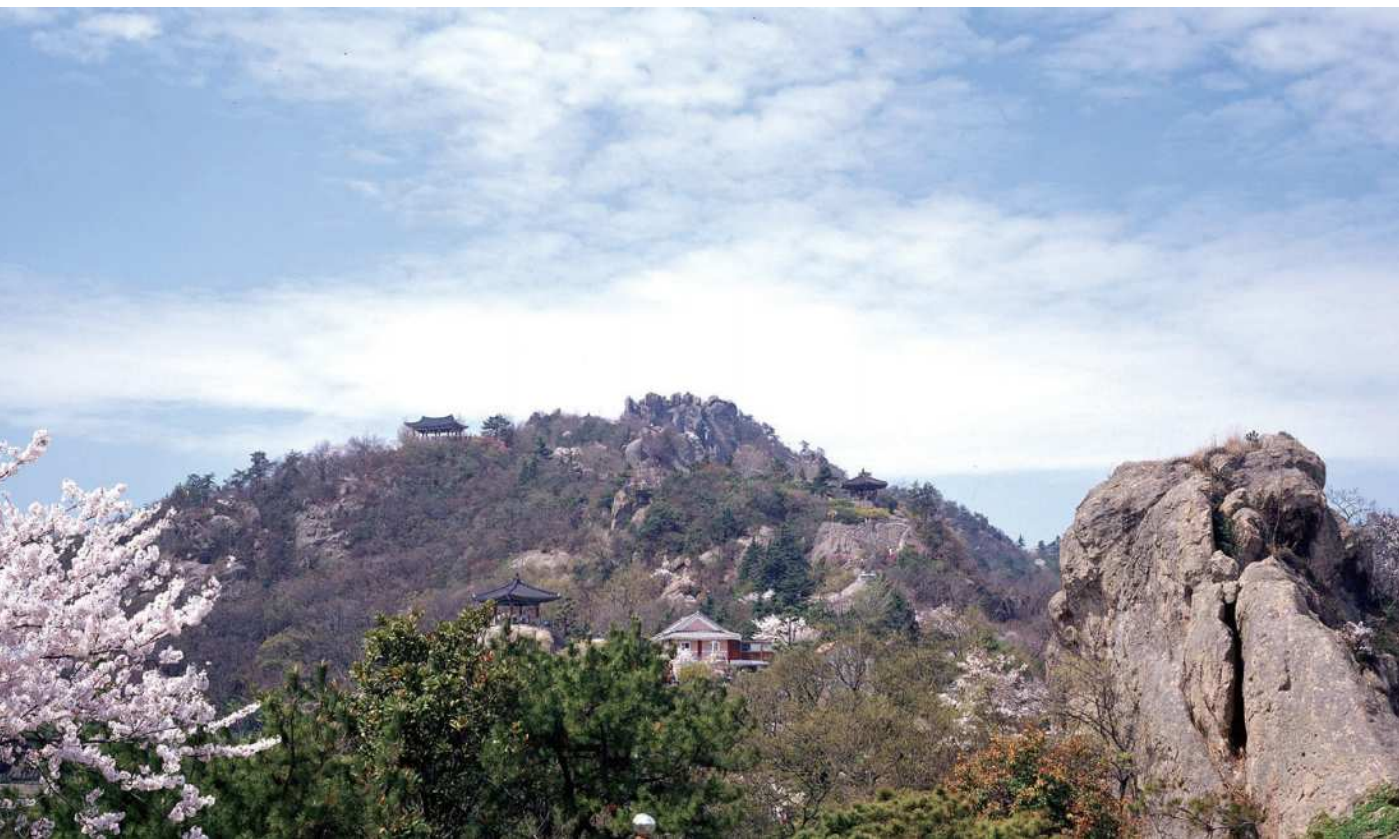
육 지 도 열 리 고 - 바 다 도 열 려 서 -
 민 족 혼 길 게 서 름 - 유 달 은 날 로 푸 르 러 -

세 계 의 사 연 들 이 오 고 - 가 는 곳 -
 그 정 신 이 어 가 는 아 들 딸 을 가 구 는

내 고 향 - 목 포 는 문 화 의 고 장 -
 내 고 향 - 목 포 는 역 사 의 고 장 -

알 차 게 뻗 어 나 갈 - 미 래 를 향 해 -
 흥 점 게 건 우 어 갈 - 결 실 을 향 해 -

나 가 자 더 나 가 자 힘 차 - 게
 더 - 힘 차 - 게 - - -



유달산



목포진 역사공원



1901년 목포 전경(목포신보사, 『개항 만 35년 기념 목포사진첩』, 1932, 목포근대역사관 1관 소장)



1932년 목포 전경(위와 같음)





1910년경 목포 전경(목포정명여중 소장)



노적봉 쪽에서 바라본 목포 전경(목포신보사, 『개항 만 35년 기념 목포사진첩』, 1932, 목포근대역사관 1관 소장)



목포진 쪽에서 바라본 목포 전경(위와 같음)





목포공립보통학교(현 북교초등학교) 주변(1923, 차순희 소장)



나주계통 상수도 확장공사 기공식장(1957, 차순희 소장)



삼학도에서 바라본 목포항



유달산에서 바라본 북항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기념하는 고하도 모충각



국도 1, 2호선 기점 기념비와 도로원표



고하도 조선 육지면 발상 기념비(1936)

| 일러두기 |

다섯 마당 『목포시사』의 구성

- 제1권 「항도 목포」는 자연환경부터 시작하여 도시형성과정, 해운항만산업, 그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목포 역사 및 문화유산을 정리하였다. 목포의 공간적 특징과 그 안에서 전개된 역사·문화의 배경, 주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제2권 「예향 목포」는 문학을 필두로, 음악·연극·무용·국악·대중가요·마당극 등의 공연예술, 미술·조각·서예·사진 등의 시각예술과 관광·체육, 민속, 종교, 교육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야별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목포 정신문화의 전개 과정과 고유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제3권 「일등 목포」는 목포의 정치, 행정, 산업 및 경제, 기업, 사회, 복지 및 의료 등으로 구성하였다. 목포 지역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분야별 형성·발전·변화 과정을 밝힘으로써 현재 목포의 사회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제4권 「터전 목포」는 목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평범한 토박이들의 이야기와 마을 유래, 그리고 목포의 주요 인물을 다루었다. 목포시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목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을 처음으로 한 데 모아 정리했다.
- 제5권 「기록 목포」는 1~3권의 부록에 해당하는 현황 자료와 목포 관련 문헌·사진·물증자료 등의 역사 자료로 구성하였다. 역사 자료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알리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훗날의 사료가 되도록 했다.

서술 범위

- 시간적 범위 : 선사시대부터 목포시사 편찬을 시작한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하한 범위로 하되, 주제별로 필요한 경우 2017년 자료까지 반영하였다.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자료 이용 시 주의 사항

- 다섯 마당 『목포시사』의 저작권은 목포시에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개인 및 기관·단체가 제작·소장한 사진 등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목차

contents



발간사 / 박홍률

축간사 / 박지원 · 윤소하 · 조성오

총론

일등 목포의 꿈을 키우자!	29
1. 간추린 목포 역사	29
2. 『목포시사』의 편찬 방향	30
3. 『목포시사』의 구성	31
4. 『목포시사』 발간 이후 관리 방안	34
5. 목포의 비전	35

개관

항구와 목포	39
1. 『목포시사』 1권 '항도 목포'의 구성	39
2. 역사 속에 나타난 목포의 항구적 전통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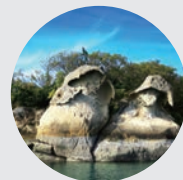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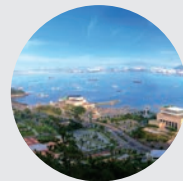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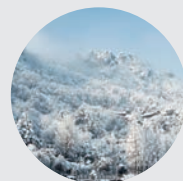
제1편 목포의 자연환경

제1장 지리 환경	49
제1절 지리적 특징과 토지 이용	49
제2장 내륙 환경	65
제1절 목포의 지형과 지질	65
제3장 기후 환경	77
제1절 목포의 기후 환경	77

제4장 해양 환경	87
제1절 목포 해양 환경의 특징	87
제5장 생물상	105
제1절 목포의 생태 경관과 갯벌	105
제2절 목포의 철새와 동식물상	113

제2편 목포의 도시발달

제1장 목포의 경계와 도시계획	123
제1절 근대도시 목포의 형성(1897~1910)	123
제2절 이중 도시 목포의 도시계획(1910~1945)	131
제3절 현대도시 목포의 재건설(1945~현재)	144
제2장 목포 인구의 수와 구성의 변화	157
제1절 인구의 기본 현황과 변화	157
제2절 인구구조와 인구 이동	177
제3장 목포 주민의 주거 환경과 생활권	189
제1절 일제강점기 생활권의 형성	189
제2절 해방 이후 산업화 시기의 주거 환경	199
제3절 생활권의 확대와 원도심의 쇠퇴	209
제4절 주거 환경과 생활권의 변화	216



목차

contents



제3편 목포항의 역사와 해운항만

제1장 목포항의 역사적 발달	223
제1절 개항에서 일제강점기까지	223
제2절 해방부터 목포신항 건설 전까지(1945~2003)	227
제3절 목포신항 건설부터 현재까지(2004~2015)	234
제2장 해운 항만과 목포 지역경제	243
제1절 목포항의 항세	243
제2절 목포항의 지역경제 기여도	253
제3장 해상 교통과 등록 선박	263
제1절 해상 교통	263
제2절 등록 선박	290

제4편 목포의 역사

제1장 목포의 뿌리	301
제1절 고종세의 '목포' 및 '목포권'과 바닷길	301
제2절 목포진(木浦鎭) 설치와 목포이야기	311
제3절 유달산과 유달봉수	325
제4절 정유재란기 이순신 장군과 고하도	337
제2장 목포의 개항기	349
제1절 목포의 개항과 각국 거류지	349
제2절 개항 초기 목포의 도시화 과정	358
제3절 개항기 목포의 노동 운동	373
제4절 대한제국기 목포의 주요 관청과 기능	384

제3장 목포의 일제강점기	395
제1절 식민지 시기 목포와 일제의 지배 구조	395
제2절 목포의 3·1운동	402
제3절 목포의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	408
제4절 성장과 차별, 목포의 눈물	424
제4장 목포의 현대	437
제1절 해방 이후(1945~1960) 격동의 목포	437
제2절 1960~1970년대 지역의 차별과 목포의 침체	449
제3절 1980년대 이후 목포의 새로운 도약	455
제4절 1980년대 목포의 민주화 운동	460
제5절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과 현재	489
제5장 목포 이야기	511
제1절 목포 최초 기록	511
제2절 일흑 삼백의 고장 목포	527
제3절 목포시사(木浦詩社)의 창립과 그 연혁	535
제4절 목포의 물 사정과 해결을 위한 노력	547

제5편 목포의 문화유산

제1장 역사 유적	561
제1절 개관	562
제2절 선사 유적	568
제3절 수군진 유적	572
제4절 근대 문화 유적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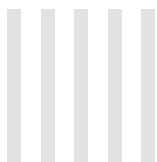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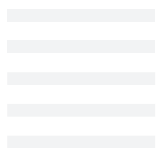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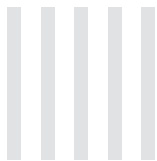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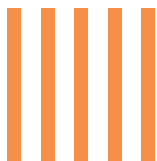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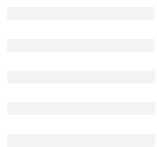


목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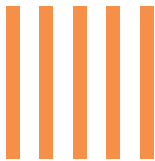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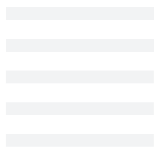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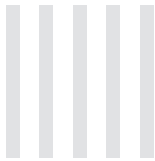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제5절 일제강점기 수탈 유적.....	602
제6절 종교 유적.....	615
제7절 자연환경 유적.....	637
제2장 근대 건축	645
제1절 목포 근대건축의 성립과 발전.....	645
제2절 주거 건축.....	653
제3절 공공 건축.....	668
제4절 학교 건축.....	683
제5절 종교 건축.....	693
제6절 금융·상업 건축.....	710
제3장 무형문화재	735
제1절 무형문화재 개관.....	735
제2절 옥장 장주원.....	736
제3절 조선장 심정후.....	739
제4절 판소리 「춘향가」 안부덕(애란).....	741
제5절 판소리 「수궁가」 박방금(금희).....	743
제6절 판소리 「흥보가」 김순자.....	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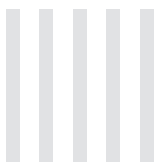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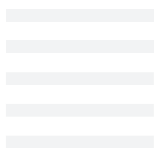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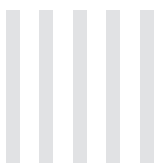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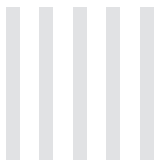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1권_향도 목포



총론



고석규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 일등 목포의 꿈을 키우자!

1. 간추린 목포 역사

120년 전 목포는 서남해의 조그마한 수군 만호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목포는 1897년 10월 자주적 개항으로 큰 전기를 맞았다.

목포는 일제강점기 전형적인 근대 도시로 손꼽힌다. 어떤 출판사의 기획물에서 ‘근대와의 만남’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그 전형적인 대상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목포였다.⁰¹⁾ 그 이유는 시골 선비 김병욱(金炳昱, 1808~1885)에서 개화 관료 김성규(金星圭, 1863~1936)를 거쳐 식민지 지식인 김우진(金祐鎭, 1897~1926)으로 이어지는 삼대의 삶이 개항을 맞는 목포의 근대와 함께 극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우진이 태어난 1897년은 목포의 근대가 시작하는 개항의 해이기도 하였다. 또한 목포는 일제강점기 근대성과 식민성이 버무려져 있는 도시였고, 1930년대에는 전국 6대도시 3대항의 반열에 오르는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대를 다루면서 목포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데는 이처럼 목포에서 근대도시 발달의 전형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방, 6·25전쟁으로 인한 격변을 거치면서 지쳐버린 목포는 다시 야당 도시라는 각인 하에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버렸다. 그러던 차에 1992년 한-중 수교가 맺어졌다. 이는 목포에 ‘서해안 시대의 개막’이란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기대 속에서 개항 백년을 맞는 지난 1997년, 제2 개항을 선언하면서 새 출발을 다짐하였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해를 마감해 가던 12월 18일 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도 부르고 싶던 이름 김대중 대통령’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날의 그 기쁨은 목포 시민들에게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고 자부심도 심어주

01)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조선생활관 3 -조선, 근대와 만나다-」, 『한국생활사박물관』11, 사계절, 2004.

었다.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른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 더욱 값진 유산이 되었다.

이후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신외항이 건설되면서 목포는 땅과 바다, 하늘을 잇는 동북아 물류의 요충으로 성장할 토대들을 마련하였다. 2004년 목포에도 고속 열차가 진입하였고, 2005년에는 남악에 신도청이 개청하면서 ‘신도청 시대’의 막도 열렸다.

이어지는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J프로젝트, ‘서남권종합발전 구상’,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등 이른바 거대 프로젝트 시대를 맞으며 부푼 꿈에 젖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2%, 아니 그 이상이 부족했다. 특히 정치적 소외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장애로 다가왔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기의 노력들은 이어졌다. 원도심·신도심 균형 발전이란 숙제를 풀어나가고 있고, 전남의 수위(首位)도시를 지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7년 목포는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2. 『목포시사』의 편찬 방향

“역사는 옛 것이지만, 낡은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이다. 그래서 되새겨 볼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목포의 지나온 역사가 남긴 빛과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보다 나은 목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목포시사』 편찬을 통해, 목포 발전을 위해 주목해야 할 지점의 과거들을 정리함으로써 미래 전략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목포의 정체성 정립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고, 살고 싶은 목포로 거듭 나게 하고자 하였다.

목포시에서는 지난 1987년에 I 차, 1990~1991년에 II차로 나누어 『목포시사』를 발간하였다. 그 때 『목포시사』는 1980년까지가 대상이었다. 그리고 1997년에 다시 1980년 이후부터 1994년까지를 대상으로 III차 『목포시사』를 발간하였다. II차와 III차는 I 차의 보완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하는 『목포시사』 전5권은 I 차로부터는 30년, III차로부터 계산해도 2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야 하였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 목포 자체가 달라진데다, 정치 지형도 달라졌고, 역사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따라서 1997년 이후 현재까지를 포함하여 사실상 목포 역사의 전 시기를 대상으로 전면 재작성해야 하였다. 이를 위해 목포시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홍률 목포시장, 상임위원 고석규 목포대 교수)를 두어 목포시(문화예술과) 직영으로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30개월이었고, 전5권의 발간에 사업비는 총 6억 3천1백만 원이었다.

『목포시사』의 서술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선사 시대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발간일인 2017년 12월까지의 사정도 필요한 경우 반영하였다. 공간적으로는 행정 구역상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인근 지역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목포지킴이들인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목포시사』, 대중과 소통하는 『목포시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다양성, 전문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집필진을 구성하되, 가급적 지역의 전문가에게 문호를 열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시사’를 지향하였다. 역사의 대중화는 요즘 대세이기도 하지만, ‘시사’야말로 공공의 역사 이른바 ‘퍼블릭 히스토리(public history)’의 대표적 영역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 일환으로 공청회도 개최하였다. 또 대중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자료·도표·그림·지도 등 시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나아가 관련 기관·단체, 연구자 및 관계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 ‘시사’ 발간에 대한 학계의 최근 동향, 타지역 사례까지 파악하여 ‘시사’ 편찬을 선도하는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목포시사』의 구성

이번 시사 편찬에서는 무엇보다 목포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먼저 목포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았다. 그렇게 찾은 키워드는 ‘항도’, ‘예향’, 그리고 ‘일등’이었다. 이를 토대로 1권 『항도 목포』, 2권 『예향 목포』, 3권 『일등 목포』로 제목을 정하였다.

제목과 관련된 목포의 특성을 각 권의 순서에 따라 간단히 정리해 보자. 먼저 1권 『항도 목포』에 대하여 살펴보자.

목포는 전남의 길목이었다. 지명 유래와 관련하여 보면,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란 데서 ‘목’이란 글자를 따와 ‘목포’가 되었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육지와 바다를 잇는 길목이 바로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이난영의 노래로도 귀에 익숙한 이 말처럼 목포는 항구도시이다.

목포가 항구이고 특히 개항을 계기로 근대도시로 성장했기 때문에 목포의 특성으로 ‘항구 도시’를 꼽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더구나 3대항 6대도시의 추억까지 가지고 있어 항구를 떼어놓고 목포를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항도 목포』가 1권의 제목이 되었다.

목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동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은 항구였기 때문에 부두 노동자들의 운동으로 나타났다. 목포의 부두노동운동은 개항한 지 5개월 뒤인 1898년 2월 임금 인하 반대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목포 부두노동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운

동이었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당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항하여 노동자가 직접 주체가 되어 생존 투쟁을 비롯한 반제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항구도시 목포는 근대의 환희를 낳는 근대 문명의 통로였을 뿐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노동운동과 같은 비판정신의 발상지이기도 하였다.

1권 『항도 목포』에는 자연환경부터 시작하여 도시 형성 과정, 해운 항만 산업, 그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목포 역사를 중심으로 장을 구성하였다. 목포 이야기, 문화유산 등도 포함하여 역사의 흔적들을 풍부하게 담으려 하였다.

2권 『예향 목포』의 키워드인 ‘예향’은 어떻게 목포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예향이란 말은 일관(一觀) 조효석 선생께서 일찍이 목포를 지칭하여 쓴 것이니 목포는 이른바 예향의 원조인 셈이다.”⁰²⁾ 라고 하여 단연 목포가 예향의 원조임을 말한다. 대체로 1960년대 초부터 예향이란 수식어를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⁰³⁾

목포는 순수 예술 190여 년의 역사로 호남 화단을 이끌어 왔기에 예향의 목포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한국 근대 극문학의 개척자 김우진과 「목포의 눈물」을 부른 엘레지의 여왕 이난영(李蘭影, 1916~1965)도 있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도 김환기부터 박화성, 차범석, 허건, 최청자에 이르기까지 다섯이나 되고, 시립으로 운영하는 예술 단체가 여섯 개나 있다.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면 부담스럽겠지만, 예향 목포답게 이를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예향을 목포의 키워드로 삼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

2권 『예향 목포』에서는 목포의 문화적 상징인 예향 관련된 주제들, 즉 문학을 필두로, 음악·연극·무용·국악·마당극 등의 공연예술, 미술·조각·서예·사진 등의 시각예술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관광, 체육, 민속, 종교, 교육 등을 다루었다.

집필에는 관련 교수, 연구자들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특히 문화 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목포예총 산하 각 예술 단체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예향의 도시 목포에서 쓰는 ‘시사’는 특별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현장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리로, 몸으로, 붓으로, 정으로, 카메라로 작업하던 예술인들이 글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주민 참여의 한 형태이기도 하였다. 다만 ‘글 쓰는 일’ 자체는 각 필자들의 전문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서술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서술의 주체 즉, 주인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진짜 글 쓰는 전문가인 김선태 교수는 목포 문학의 계보를 새롭게 정립하였고, 조은정 교수도 목포 미술의 역사를 평론가답게 세

02) 주정연, 「예향 문인의 주소」, 『목포예총』8, 한국예총목포지부, 1999, 69쪽.

03) 김병고, 「목포는 예향인가」, 『목포예총』9, 한국예총목포지부, 2000, 72쪽.

로운 시각으로 잘 정리해 주었다. 다른 전문가들도 예향 목포를 새롭게 조명할 주옥같은 글들을 게재하였다.

3권의 제목은 『일등 목포』이다. ‘항도 목포’, ‘예향 목포’는 오히려 익숙한데 ‘일등 목포’라고 하면 낯설다. 그런데 필자는 감히 항도, 예향에 더해 일등이란 표현을 덧붙이고 싶다. 현실이 힘들게 해도 꿈,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목포의 꿈, 희망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일등 목포’라는 꿈은 어떨까?

왜 ‘일등 목포’인가? 목포는 전남의 수위 도시이다. 즉 일등 도시란 뜻이다. 전남의 자치단체 서열에서 목포는 1위에 있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의 순이다. 인구는 비록 3위로 밀렸지만, 도시의 행정 서열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수위 도시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배경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1930년대 목포는 ‘전남의 현관이요 물산 집합의 중심지로 조선에서는 제3위를 점령할만한 중요항’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목포는 ‘대한민국 굴지의 상공업 도시이며 대양을 제패하려는 기세약약(氣勢躍躍)한 12만 시민’이 살고 있는 전남의 일등 도시였다.

목포는 원양 어업에 웅비할 기초를 확립하는 등 수산 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공업에서도 남한 5대 전직 공장의 하나인 목포직물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동양 3대 공장을 능가했던 한국 요업계의 총아, 행남사, 남한 제1의 규모와 생산율을 자랑하는 대동유지화학회사, 남한 굴지의 조선면화회사, 약진일로의 전남고무공업회사, 동양 유일의 대성방직주식회사 등이 있었다.

공장뿐 아니라 유통의 중심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다. 민간 해운을 좌우하며 연안을 제패한 남일운수회사, 전남 일대의 유류 분배를 담당하는 남조선미유(美油)주식회사 등이 있었고, 한국은행 목포지점은 1908년 창설된 이래 꾸준히 목포의 금융을 관리해 오고 있어 목포는 여전히 서남권 중소기업들의 금융 중심의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60여 년 전 목포는 명실상부 전남의 일등 도시였다. 아니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도시였다. 그런데 이제 다만 흘러간 옛 이야기일까? ‘일등 목포’의 꿈을 꾸자는 것은 다만 옛 영화를 말하며 위안을 삼자고 하는 뜻은 아니다. 실질적 수위로 이끌어 가자는 뜻을 담았다.

오늘날 이를 재현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하기만 할까? 지금 우리 주위를 살펴보자. 전남도청이 109년 만에 ‘광주 청사’ 시대를 접고 지난 2005년 11월 11일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대로 옮겨 개청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곳은 목포로부터 500m 떨어진 무안군에 속하지만, 사실상 목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로써 목포는 전남의 행정 일번지가 되었다.

또 2009년 6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도 광주 매곡동 시대를 마감하고 무안 남악 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이처럼 도청은 물론, 도교육청, 도경찰청 등의 기관들이 옮겨와 목포는 전남의

행정, 교육, 치안의 일번지가 되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하여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목포신외항 등 이만한 인프라가 있는 곳도 드물다. 외형적인 조건상 일등 목포의 모습은 갖추었다. 국도 1·2호선의 기점, 남북으로, 동서로 교차하는 근대 도로망의 출발점이 목포라는 데서 일등 목포의 자긍심도 갖는다.

유달산에는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하여 이름 붙여진 해발 228m의 일등[律動]바위와 심판 받은 영혼이 이동한다 하여 이름 지어진 이등[移動]바위가 있다. 유달산의 일등바위, 언제 그 이름이 붙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등바위에 목포 미래의 꿈을 실어보자는 뜻이기도 하다.

3권 『일등 목포』에는 이런 점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목포의 정치, 행정, 산업 및 경제, 기업, 시민사회, 언론, 복지 및 의료 등으로 목차를 구성하였다. 정기영 교수가 목포 기업사를 본격적으로 정리하였고, 다른 글들에도 필자들의 정성이 듬뿍 담겨 있어 더욱 소중하다.

한편, 4권 『터전 목포』에서는 생활사·문화사적인 접근을 통해 목포 시민들의 생활 문화와 삶의 경험을 생생하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온금동과 뒷개 부둣가 사람들, 오거리 사람들, 그리고 목포 토박이들의 삶을 일일이 직접 찾아다녔다. 그리하여 목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평범한 목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고자 하였다.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과 함께 만든 진짜 목포 이야기가 담겼다. 또 목포의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개도 여기에 담았다.

아울러 10년 내지 20년을 주기로 편찬되는 시사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목포시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또 정확하게 서술하기 위하여 지역사 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이런 뜻을 5권 『기록 목포』에 담았다.

특히 발로 뛰면서 찾아낸 개인 소장 자료들이 주목할 만하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새로 소개되는 것으로 사료적 가치도 매우 높다. 목포 관련 역사 자료, 인문 자료, 사진 자료들도 폭넓게 수집·정리하였고, 1~3권의 부록에 해당하는 현황 자료들도 이곳에 모아 백과사전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4. 『목포시사』 발간 이후 관리 방안

시사 편찬 후 활용 및 관리도 발간 못지않게 중요하다. 시사 편찬은 단지 5권의 책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그저 책 발간으로 끝낸다면 이를 편찬하기 위해 그동안 수집하고 생산한 각종 문건과 자료들은 물론 쌓아놓은 연구 기반들이 통째로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10년 또는 20년 후에 시사를 편찬하려면, 이번에 했던 지난한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반복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따라서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 또 기왕 만든 시사를 알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목포시사 편찬위원회는 지속되어야 한다.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시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찬 사업 종료 후 2018년 초경에 편찬과정에서 수집·촬영된 시각 자료를 대상으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여 『목포시사』의 발간을 일반에 홍보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시사 편찬에 참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설명하는 ‘목포학’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 사업이 될 것이다. 시사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용 책자 및 대중용 간추린 목포시사 등의 제작, 발간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5. 목포의 비전



그림 1 목포시 슬로건 - ‘해맑은 목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가 1996년과 1997년 2년간 우리나라 주요 15개 도시별 대기 청명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목포는 국내 도시 중 ‘공기 가장 맑은 도시’로 뽑혔다.⁰⁴⁾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982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6개 도시를 대상으로 30년간 관측한 수평면 전일사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포는 3.89kWh/m²/day로 전국 1위였다.

이처럼 목포는 하늘이 가장 맑고, 일사량 역시 전국 1위이다. ‘태양의 도시 목포’⁰⁵⁾라고 불릴 만하다. 이 점에서 따와 목포시의 슬로건은 ‘해맑은 목포 sea & sun city MOKPO’가 되었다.

04) 『조선일보』 1999. 01. 29. 「공기 가장 맑은 도시 목포」.

05) 『조선일보』 2009. 02. 11. 「‘태양의 도시 목포’ / ‘태양광지도’ 첫선 일사량 전국 1위」.

이른바 ‘해맑은’ 도시 목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이는 이미 말했듯이 항도 목포, 예향 목포, 일등 목포에 있다고 믿는다. 즉 ① 바다와 섬, 그리고 육지의 접점에서 항구도시로서 역할을 해왔던 목포의 지리적 가치, ② 자타가 공인하는 예술의 고향, 예향으로서 목포의 문화적 가치, 그리고 ③ 전남의 수위도시로서 인근에 도청과 도교육청이 있는, 정치 1번지, 교육 1번지로서 지니는 목포의 행정적 가치 등을 꼽을 수 있다.

비록 인구는 3위로 밀렸지만, 도시의 서열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1위 즉 수위도시의 지위에 걸맞은 인구규모, 경제력, 문화력, 그리고 인문정신 등을 갖추어 수위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목포의 비전을 바로 세워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정치,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당당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정치를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 거기에 목포의 꿈을 향한 일보 전진이 있다. 미국 서부의 관문 샌프란시스코도 1848년 불과 500명의 시민으로 출발했다.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일등 목포의 꿈을 키워 나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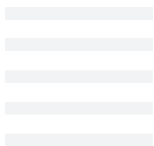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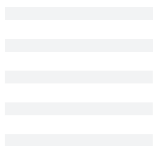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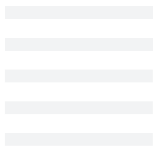
고석규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개관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항구와 목포

1. 『목포시사』 1권 ‘항도 목포’의 구성

『목포시사』 1권의 대주제는 ‘항도 목포’이다. ‘항도(港都)’는 항구도시를 의미한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1942년 이난영의 노래로 발표된 후 지금까지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을 정도로 ‘항구’는 목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목포시사』 1권은 목포가 지닌 항구적 전통과 그 발달 내력에 대한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는 차원에서 1권의 전체 주제를 ‘항도 목포’로 설정하고, 항구 도시 목포와 관련된 자연환경과 역사적 흐름을 주제별로 집필하여 수록하였다. 1권의 구성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목포의 자연환경」이다. 서남해의 길목에 자리한 목포의 지리 환경, 기후 환경, 해양 환경, 생물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삶의 환경으로서 목포의 자연 생태가 지닌 특성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목포항의 지리적 특징과 토지이용의 변천 내력, 목포의 지형과 지질의 특징, 목포의 기후 환경과 목포 주변 바다와 영산강 관련 해양환경의 특징, 목포권 생태 경관과 갯벌, 철새, 동식물상을 수록하였다.

두 번째는 「항구목포의 도시형성」이다. 일반적인 『시사(市史)』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중심으로 이루는데 이번 『목포시사』는 ‘항도 목포’라는 타이틀에 맞게 항구 목포의 도시 형성 과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인구와 공간’, ‘해운 항만 물류’를 다루었다. ‘인구와 공간’에서는 목포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항구 발달이라는 측면과 개항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와 생활권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해운 항만 물류’에서는 목포항의 개발 과정, 해운 항만이 목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운업의 발달, 관련 주요 기관 등을 수록하였다.

세 번째는 「목포의 역사」이다. 크게 ‘목포의 뿌리’, ‘목포의 개항기’, ‘목포의 일제강점기’, ‘목포의 현대’, ‘목포 이야기’ 다섯 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하였다. ‘목포의 뿌리’에서는 목포가 항구 도시로 발달하게 된 뿌리에 해당하는 주변 바닷길과 목포진, 봉수대, 고하도와 이순신 활동 부분을 다루었다. ‘목포의 개항기’에서는 1897년 목포가 개항 과정과 외국인 거류지 설치, 초기 목포가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개항 후 5개월 만에 발생한 목포 부두노동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 대한제국 시기 목포에 설치된 주요 관청과 기능을 소개하였다. ‘목포의 일제강점기’에서는 식민지 시기의 일제의 지배 구조, 목포의 3·1운동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에 줄기차게 전개된 민족운동과 항일운동의 면모를 살폈다. 또한 일제강점기 전남의 대표 도시이자 항구로 발달한 면모와 그 이면에 가린 차별의 문제도 포함하였다. ‘목포의 현대’에서는 광복 이후 격동기 목포 상황과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 침체되는 목포, 1980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목포, 5월 항쟁기와 목포의 민주화운동 과정,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하기까지의 굴곡의 현대사를 다루었다. ‘목포 이야기’에서는 향도 목포에 얹힌 여러 가지 일화와 기억할만한 사항들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대중적인 주제로 접근하였다. 목포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최초의 기록들을 정리하였고, 1혹 3백의 고장으로 불리는 목포의 특징, 유달산 자락에 자리한 목포시사(木浦詩社)에 얹힌 사연을 다루었다. 또한 목포가 전국에서 가장 물 사정이 어려웠던 사실에 주목하여 식수 해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네 번째는 「목포의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와 ‘근대건축’으로 구성하였다. 문화재의 구분은 향도 목포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선사 유적, 수군진 유적, 근대 문화 유적, 일제강점기 수탈 유적, 종교 유적, 자연환경 유적으로 세분화하였다. 향도 목포의 뿌리와 개항 이후 항구도시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유산을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지정 문화재 외에 비지정 문화유산도 모두 포함하였다. 목포가 개항 이후 조성된 근대건축이 특히 발달된 지역이라는 특성에 맞춰 ‘근대 건축’편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목포 근대건축의 특징과 주거 건축, 학교 건축, 종교 건축, 상업 건축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2. 역사 속에 나타난 목포의 항구적 전통⁰¹⁾

목포는 1897년 통상항(通商港)으로 개항되면서 항구도시로 성장하였다. 때문에 대부분 목포가 지닌 ‘항구로서의 특성’은 개항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전

01) 이 글은 필자의 논문 「목포의 해양성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한국민족문화』39,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부터 목포는 항구로서의 특성을 지녀왔고, 그 나름의 역사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를 ‘해항성(海港性)’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목포의 해항성은 주변의 영산강과 다도해가 가장 중요한 문화적 배경이 되었다. 해로(海路)와 연관된 목포의 공간적 중요성과 역할이 곧 목포의 해항성이다. 이는 목포의 지명, 조운선의 길목과 수군진의 설치, 개항 직전 목포의 상황 등과 연관시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지명과 관련된 부분이다. ‘목포(木浦)’라는 명칭 자체가 이 지역의 항구적 특성이 드러난 명칭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등 옛 문헌 기록에는 “이곳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까닭에 목포라 한다.”⁰²⁾는 지명 유래가 등장한다. 따라서 목포라는 의미는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 강과 바다의 경계를 이루는 목’이라는 뜻으로 풀이 된다. 즉, 목포는 영산강과 서남해가 만나는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 포구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을 지닌 목포는 고대부터 대외 교역로의 길목이었다. 목포가 고대부터 대외 교역로에 해당된다는 점은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 소개된 내용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나주의 서남쪽에 영암군이 있는데 월출산 밑에 위치하였다. 월출산은 한껏 깨끗하고 수려하여 화성이 하늘에 오르는 산세이다. 산 남쪽은 월남촌이고 서쪽은 구림촌이다. 신라 때 이름난 마을로서 지역이 서해와 남해가 맞닿는 곳에 위치하였다. 신라에서 당나라로 조공갈 때 모두 이 고을 바닷가에서 배로 떠났다. 바닷길을 하루 가면 흑산도에 이르고, 흑산도에서 또 하루 가면 홍의도에 이른다. 다시 하루를 가면 가거도에 이르며, 간방 바람을 만나면 3일이면 태주 영파부 정해현에 도착하게 되는데, 실제로 순풍을 만나기만 하면 하루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⁰³⁾

바닷길을 이용해 신라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암 구림 쪽에서 출발했다. 구림은 영산강 하류에 속한 포구이다. 구림 지역에서 출항한 배들은 반드시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길목에 위치한 포구인 목포를 지나가게 되어 있다. 당시 목포에 규모를 갖춘 항구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외교역상 중요한 해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후 목포는 연안과 도서들을 대상으로 물자 수송과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조운로(漕運路)로서 기능하여 왔다. 이는 목포의 해항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영산강을 통하는 조운선이 목포 해로를 따라 북상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하도(下道)의 조운이 이곳을 경유하여

02) 『신증동국여지승람』권36, 무안현 관방 목포영조. “木浦營在縣南68里……至此入海故通稱木浦.”

03) 이중환, 이익성 옮김,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9, 85쪽.

서울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⁰⁴⁾ 지리상으로 볼 때 목포는 영산강 하구를 안고 있으며, 바다로 연결되는 지리적인 요충지에 해당된다. 호남과 경상 남부 지역으로 통하는 ‘세곡 운반로’로 사용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에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수군진(水軍鎭) 설치의 근거가 되었다.

수군진의 설치 1439년(세종 21) 세종이 ‘목포가 왜적 침입의 요해처임으로 만호(萬戶)를 파견하여 병선을 주둔’하도록 재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⁰⁵⁾ 이것이 목포진(木浦鎭)의 출발점이다. 목포진에 성(城)이 조성된 것은 그보다 후대인 1501년(연산군 7) 때의 일이다.⁰⁶⁾ 조선 초기에는 ‘선상수어(船上守禦)’의 방침에 따라 수군 만호는 항상 병선을 이끌고 바다 위를 왕래하며 방어와 수색의 의무를 수행하였고, 해당된 수군진에는 군량과 군기를 쌓아 두고 있었다. 평상시에는 병선의 기항지 및 보급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현실적으로 선상 방어만으로 해상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해당 지역에 성을 축조하게 된 것이다.

목포진은 1895년(고종 32) 7월 15일 칙령 제141호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서남해의 바닷길을 지키고, 이곳을 통해 올라가는 조운선을 보호·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⁰⁷⁾ 목포진이 있었던 곳은 현 목포시 만호동(萬戶洞)이다. 목포진의 우두머리가 만호(萬戶)였기 때문에 만호진(萬戶鎭)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오늘날도 만호동으로 불리고 있다.⁰⁸⁾ 목포진의 주된 역할이 조운선을 관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만호(木浦萬戶) 조세필(趙世弼)은 조선(漕船) 30여 척을 패몰시켰고, 조졸(漕卒)도 또한 많이 빠져 죽었으니, 비록 치죄할 형률은 없으나 마땅히 중하게 다스려 뒷사람을 경계하여야 합니다.⁰⁹⁾

목포만호의 실질적인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조운선을 보호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목포진에서는 세곡을 실어 나르는 조운선을 왜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 외에도 서남해 도서와 인근 지역의 일반 행정까지도 담당하고 있었다. 1930년에 발간된 『목포부사(木浦府史)』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04)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爲木浦入于海, 下道運由此達于京.”

05) 『세종실록』 권85, 1439년(세종 21) 4월 15일(임진).

06) 『연산실록』 권40, 1501년(연산군 7) 1월 6일(을묘).

07) 『고종실록』 권33, 1895년(고종 32) 7월 15일(계축).

08) 김정섭, 『목포의 땅이름』, 목포문화원, 2003, 141쪽.

09) 『중종실록』 권8, 1509년(중종 4) 1509년 6월 8일(무진).

목포만호는 전라 18만호(기록에는 15만호) 중 오른팔로 수문장(水門長)이라 불리었다. 고하·비금·팔금·도초·기좌·안창·자은·장산·하의·암태·우이·흑산의 열두 섬을 관리하는데, 비금·팔금에는 영장(領將)을 분주(分駐)시켜 만호(萬戶)의 명을 받아 열두 섬의 병사(兵事)를 처리하게 하였다. 만호는 수군진영의 장(長)일 뿐 아니라 진영(鎭營) 소재 지구의 일반 행정도 관장하였다. 목포만호가 직접 관할한 곳은 이르면 관해(觀海)·용당(龍塘)·산정(山亭)·쌍교(雙橋)·목포(木浦)의 5구(區)로서 현 학교조합의 지역과 거의 동일하다.¹⁰⁾

‘수문장’이라는 별칭이 목포만호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 목포만호는 인근 다도해 지역의 도서를 관할했고, 육지부에서는 목포진 관할로 인정되는 마을이 별도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측 기록인 「목포진지(木浦鎭誌)」¹¹⁾에는 ‘사리호총 민호일백삼십이호(四里戶總 民戶一百三十二戶)’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때 사리(四里)는 유사 시기인 1872년 제작된 「무안목포진지도(務安木浦鎭地圖)」¹²⁾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지도에는 목포 진성 주변부에 쌍교촌(雙橋村)·용당리(龍塘里)·산정리(山亭里)·관해동(觀海洞) 마을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사리는 이 마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목포부사』의 기록과도 동일한 것이다.

목포진에서 일반 행정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 남아 있는 목포진과 관련된 선정비(善政碑)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면에 ‘행만호방공대○○덕진솔선정비(行萬戶方公大○○德賑率善政碑)’라는 비명이 새겨진 이 비는 1714년 목포진에 근무하던 만호 방대령(方大寧)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진흙을 베풀어 그 은덕을 기리기 위해 지역민들이 건립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당시 목포진의 역할은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 백성들을 진휼하는 업무까지 확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목포가 조선 시대부터 ‘항도’로서의 성격을 이미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목포의 해항성은 정유재란 시기 이 지역의 활용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1597년 이순신은 명량(鳴梁)에서 승리한 후 전력을 정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물색한 후 그해 10월 29일 목포 앞바다에 있는 고하도로 진을 옮겼다. 이곳에서 군량미를 비축하고 전선과 군비를 확충한 뒤 다음해 2월 17일 완도 고금도로 진을 옮길 때까지 머물렀다.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의 기능이 목포 앞 고하도에 형성된 것이다.

10) 목포부사편찬위원회, 『목포부사』, 목포부, 1930, 19쪽.

11) 「무안(務安)」, 『호남읍지』 10책, 1871(아세아문화사, 『읍지』4 전라도편①, 603쪽).

12) 『조선후기 지방지도-전라도편』, 서울대 규장각, 1996.

『난중일기』에는 고하도에 진을 설치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목포에 이르렀다가 보화도(寶花島=고하도)로 옮겨 정박하니, 서북풍을 막을 만하고 배를 감추기에 아주 적합했다. 그래서 육지에 내려 섬 안을 돌아보니, 지형이 매우 좋으므로 진을 치고 집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¹³⁾ 고하도는 영산강의 입구에 위치하여 해상 교통이 편리하고 영산강 연안의 곡창지에서 군량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또한 인근 도서에는 어염이 풍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었으며, 주위의 수많은 도서는 적의 침입 시 전술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도서 지방으로 피난 온 피난민을 병사로 보충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되어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⁴⁾ 이는 곧 목포의 해항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순신이 심사숙고 끝에 목포 앞바다에 있는 고하도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특징이 충분히 고려된 것이다.

고하도에 현존하고 있는 이충무공유허비에는 고하도의 해로상 특징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섬은 남쪽, 서쪽으로 가는 바닷목에 놓여 있어 오른편으로는 경상도를 끼고 왼편으로는 서울로 연결되는 되는 바, 가까이로는 군사들을 먹여 큰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멀리로는 임금이 피난해 계신 곳에 곡식을 바쳐 양식이 떨어질 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이는 나라를 위하여 깊이 꾀하고 멀리 걱정한 것이요. 우연히 한 일은 아니었다.¹⁵⁾

이순신은 목포를 배후에 두고, 목포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고하도에 수군진을 설치하였다. 고하도에 있는 이충무공유허비 기록은 이 지역의 해항성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목포의 이러한 해항성은 개항 직전 시기까지 꾸준히 유지되었다. 개항되기 전부터 목포에 많은 세곡이 집결되고, 운송되고 있었다. 『전라도관초(全羅道關草)』,¹⁶⁾ 『총관거함(總關去函)』¹⁷⁾ 등 당시 정부 기록 문서를 통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목포는 호남 지방의 전세(田稅), 대동미(大同米)를 임선상납(賃船上納) 하는 곳이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목포로 운반해 둔 쌀을 임선(賃船)에 싣고 서울로 수송하라 하여 감관(監官) 이흥기(李興基), 김세홍

13) 이순신, 노승석 옮김,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 동아일보사, 2005, 474쪽.

14) 목포문화원, 『목포고하도수군통제영』, 1995, 5~6쪽 참조.

15) 목포문화원, 「고하도유허비」, 『목포지방문화록』, 2002, 81쪽.

16) 1886년~1895년 개항 이후의 대외 상황·제반제도·문물 변화에 따른 문제들에 관해 전라도 지방에서 보고된 것에 대해 의정부에서 내린 관문(關文)을 모은 자료.

17) 1885년 3월 28일~1905년 11월 13일의 외부(外部)에서 총세무사(總稅務司)에 보낸 공문의 등첩(謄綴).

(金世泓)에게 운반을 명해 1886년 윤선미납조(輪船未納條)를 수대로 출급(出給)했다는 보고.¹⁸⁾

개항 이전 『전라도관초』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다수 남아 있다. 호남 인근 지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곡들이 목포로 옮겨져서 이곳에서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운송되는 상황이었다.¹⁹⁾ 조운선의 거점으로서 목포의 기능이 개항 직전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세곡의 운송을 위해 이미 이 시기부터 대형 윤선들이 출입하고 있었다. 희화선(希化船), 대흥윤선(大興輪船) 등 구체적인 선박의 이름도 확인된다. 1887년에는 완영(完營)에서 의정부로 “나주, 보성의 세곡윤선분배조(稅穀輪船分排條) 중 이미 목포(木浦)에 운송한 것이 7,700여 석(石)인데 윤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둘 곳이 없어 윤선의 하송(下送)을 독촉한다고 보고하자, 상해(上海)에 전보해 희화윤선(希化輪船)이 목포로 급히 가 운송해 오게 하였으니, 목포 소재 각 해읍(該邑) 감색(監色) 등에게 엄칙해 윤선을 기다리게 할 것.”이라고 조치한 기록도 남아 있다.²⁰⁾

희화선은 독일의 선박으로 당시 상해에서 직접 목포로 쌀을 싣기 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이미 1891년에 목포의 세곡을 운반해 오기 위해 일본선박인 풍도환(豊島丸)을 고용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²¹⁾

그렇다면 이러한 세곡들이 집결되고 다른 배로 옮겨져서 이동하게 되는 장소는 어디였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초대 지도 군수(智島郡守)를 지낸 오형묵(吳弘默)이 남긴 『지도군총쇄록(智島郡叢瑣錄)』 중 1897년 4월 24일 기록에 등장하는 ‘물성포(物成浦)’라는 지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형묵은 지도군 관내에 속한 압해도 등을 순행하는 과정에서 개항장으로 변모를 준비하고 있는 목포를 시찰하기 위해 잠시 들렸는데, 그 때 목포에 상륙하기 위해 내린 장소가 물성포였다. “물성포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니 여기부터 부두가 시작되는 곳이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²²⁾ ‘물성포’라는 명칭은 지명상의 의미로 보면 물류의 왕래가 매우 활발했던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역시 목포가 공식으로 개항되는 1897년 10월 1일보다 빠른 시기이다. ‘물성포’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 작업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지명만 가지고도 목포의 해항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전라도관초』, 1887년 5월 29일, 완영(完營)에서 의정부(議政府)로 보낸 문서.

19) 『전라도관초』, 1888년 6월 6일, 완영에서 의정부로 보낸 문서. “무안 등 13읍 잡곡(雜卜) 및 삼주인미(三主人米)를 목포로 수송하고 장재윤변(裝載輪便)하라는 관(關)을 받았다는 보고.”

20) 『전라도관초』, 1887년 윤4월 17일, 완영에서 의정부로 보낸 문서.

21) 『총관거함』, 1891년 9월 25일 독판통리교섭통상사무(督辦統理交涉通商事務) 민(閔)이 서리 총세무사(署理總稅務司)에게 보낸 문서. “전라도 무안목포의 세곡을 운반하기 위해 고용한 일본선박 풍도환에 대하여 총세무사는 인천 세무사에게 전칙(電飭)하여 개선(開船)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관문(關文).”

22) 오형묵, 『지도군총쇄록』, 신안문화원, 2008, 2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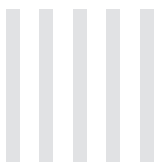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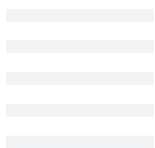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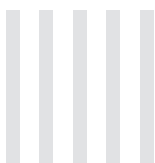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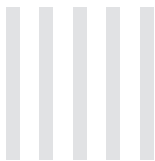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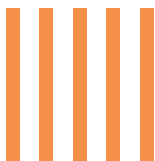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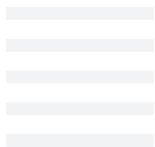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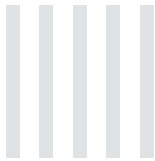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밝힌 “하도의 조운이 이곳을 경유하여 서울에 이른다.”는 목포의 해항적 기능이 목포 개항 직전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1897년 개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도시적 성격이 가미되면서, 항구도시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1편

목포의 자연환경



제1절 지리적 특징과 토지 이용

김재은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1장 지리 환경

제1절 지리적 특징과 토지 이용

1. 지리환경

1) 목포의 지리적 위치

(1) 물리적 위치

목포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서남쪽 끝자락에 바다와 영산강 하구를 접하고 있고 앞쪽 바다에는 많은 섬들이 위치한 다도해가 펼쳐져 있다. 목포의 동쪽 끝은 옥암동으로 북위 34°48'26", 동경 126°27'25"이고 서쪽 끝은 유달동의 외달도로 북위 34°49'30", 동경 126°17'29"이며 남쪽 끝은 유달동 허사도로 북위 34°44'31", 동경 126°21'43"이고 북쪽 끝은 대양동으로 북위 34°50'27", 동경 126°23'59"이다. 지적도상 목포시 전체 면적은 50.65㎢이다.⁰¹⁾

(2) 관계적 위치

목포시가 위치한 곳은 바다를 접하면서도 영산강을 연결하는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에서부터 흐르는 영산강이 남쪽과 접해 있으며 영산강을 사이로 영암군과 접하고 있다. 북쪽과 동쪽은 무안군과 연결되어 있고 무안반도의 끝에 목포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서쪽은 섬으로만 구성된 신안군과 접해 있다.

과거 영산강은 전라남도의 내륙인 나주를 거쳐 광주까지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거점이자 통로로

01) 목포시, 「Ⅱ. 토지 및 기후」, 『제55회 2015 목포통계연보』, 2015.

서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6·25전쟁이 끝나면서 경제부흥기와 농업 기술 확대와 발전을 위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목포시와 영암군 사이에 하구둑을 건설하게 되었다. 하구둑은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큰 서해안의 물리적 특징 때문에 영산강을 따라 형성된 농경지의 보호와 확대를 위해서 1978년에 착공하여 1981년에 완성하게 되었다.⁰²⁾ 이후에는 바다를 거쳐 영산강 하구를 지나 내륙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문화의 전달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바다를 접한 목포가 항구도시로서 그 기능을 가장 잘 드러냈던 때는 슬프게도 일제강점기였다.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각종 농수산물과 자원을 일본으로 수탈해 가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로 목포가 선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유입되어 많은 인구가 더불어 이전보다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895년에 일제는 이미 전라남도를 조사하여 목포가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의 지역임을 알고 목포를 거점으로 삼기로 하고 개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일제강점이 본격화를 시작하는 1910년대 이후에는 연안항로인 목포권의 영암, 영산포, 법성포, 줄포 및 흑산도, 진도, 제주도, 완도 등까지 항로를 연결하였다.⁰³⁾

이것은 나주평야 등 평야가 넓어 농산물의 생산이 많고 영산강 등 강을 통한 운반 수단을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수산물을 얻을 수 있는 황금어장이 가까이에 있어 일제강점기에는 목포가 매우 유용한 항구도시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목포시는 강과 바다를 모두 끼고 있는 세계의 유명한 다른 항구도시들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⁰⁴⁾ 과거 강과 바다를 함께 아우르는 지리적 위치는 매우 중요한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는 강과 바다를 모두 아우르는 지역이 큰 도시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지리학적으로는 반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반도라는 것이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지역만이 가지는 매우 독특한 문화와 자연 자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목포는 한반도의 남서쪽 끝에 위치하여 그동안 그 지리적 중요성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증명되었다. 자원이 풍부한 황해를 사이에 두고있고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와 매우 인접해 있어서 앞으로도 자원의 풍부함과 지리적 중요성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02) 김성수, 『영산강 하구역의 해양생태계 구조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해양환경관리공단, 2009.

03) 이기훈, 「일제강점기 도서지역의 교통과 일상생활」, 『도서문화』45,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5.

04) 최성환, 「목포의 해양성(海港性)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 『한국민족문화』39,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2) 도시의 확장 - 섬과 매립

서남해에 위치해 있는 목포시는 주변의 신안군, 영암 등과 같이 해안가 대부분의 지역을 간척에 의한 매립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에 삼학도를 비롯해서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하당신도시와 북항 일대 지역의 갯벌을 모두 매립하고 간척하여 개간한 것이다.⁰⁵⁾

목포시의 간척 사업은 일제강점기인 1899년부터 1909년까지 목포시 서산동으로부터 동쪽에 목포진터까지 또한 목포진에서부터 동쪽 섬인 송도까지 방조제로 연결하여 약 45km²의 간척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⁰⁶⁾

그 후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1953년에 남해개발지구 간척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서 서남해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였던 리아스식 해안이 단조롭게 되었지만 대신 주거를 위한 공간과 공업 지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목포시의 내부 토지 이용은 북서방향으로 확산되면서 목포 전 지역을 포함해 남해개발지구와 삼학도, 용당동, 석현동까지 확대하게 되었다.⁰⁷⁾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목포는 본격적으로 택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산정동과 용당동의 2차 택지 개발이 죽교동과 이로동으로도 확대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의 기능과 면적이 외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하당지구가 확장하게 되었고 옥암지구는 2003년에 착공하였다. 현재 목포시의 넓은 면적이 해안 매립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목포시에는 목포대교로 연결된 고하도, 놀도, 달리도 등의 6개의 유인도와 5개의 무인도가 있다.⁰⁸⁾

3) 시대별 도시 경관 및 토지 이용

(1) 일제강점기의 토지이용

일제강점기 이전인 1890년대 말부터 일제는 한국을 침탈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전라남도를 조사하여 목포가 수탈에 가장 적절한 장소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를 일제강점기인 1910년도 이후 구체화하기 이른다. 이를 위해 목포시 내에 외국인 거류지(居留地)를 조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⁰⁹⁾ 거류지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법으로 정하여 제도화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05) 목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06) 박종철, 「제13편 도시계획」, 『목포시사』 사회·산업편, 목포시, 1990.

07) 목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08) About 전남의 섬(<http://islands.jeonnam.go.kr/>) 통계에 의해 2016년 6월 30일 현재의 숫자임.

09) 최성환, 앞의 논문.

을 실시하여 도로의 폭과 지붕의 형태 및 재료 등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목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물자의 수탈이라는 구체적 목적에 따라 구체화되고 확장되어진 도시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목포는 도로의 건설과 항만 개발 등을 위한 시설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증가한 인구를 위한 가옥과 도시의 팽창이 급속하게 일어나게 되었다.¹⁰⁾

1914년 목포시 면적은 2.33km²이었지만 1932년에는 10.44km²로 4배 이상이 확장되었다.¹¹⁾ 1914년까지는 정(町)이라는 명칭을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거류지와 목포역 앞에 건설된 신개발지에 명칭을 부여했고 동(洞)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명명했었다. 하지만 1932년 8월 15일에는 인구 유입과 도시의 팽창에 따른 대대적인 도시구획 변경이 있었다.¹²⁾

일제강점기에 목포시는 항만 기능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항만을 중심으로 한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현재의 구시가지 형태의 도시가 건설되었다. 1913년에 시구개정사업(市區改正事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926년에 도시계획조사(都市計劃調査)를 실시하였다. 해안동 일대는 이미 1912년에 공업지구 지정으로 현재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¹³⁾

또한 일본인은 거류지외의 지역으로 시가지를 확대하였다. 1912년에는 온금동 일대와 1924년에는 양동, 남교동 등을 매립하고 1925년에는 연동 지역의 서북 지대인 용당리 남쪽의 간석지에 호수 공사를 하여 주변 시가지와 인접 지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1932년에는 대성동에서 대성초등학교에 이르는 지역에 방조제를 쌓고 1929년에는 역전호수를 매립하고 토지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토지 이용은 항만을 중심으로 해안동의 확장과 목포역 주변으로의 도시 확대가 일어나고 주변 지역으로의 면적 확대가 매우 큰 시기였다.¹⁴⁾

일제강점기가 끝나가던 1930년대 후반은 전쟁의 끝으로 항해가는 시점이면서도 식민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현상들이 발생한 시기이다. 1937년 자료에 따르면 행정구역은 10.44km²이고 도시계획구역은 15.138km²로 도시가 전체적으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¹⁵⁾ 이 시기의 일본인 거주지 면적과 한국인 거주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한국인이 거주했던 지역의 인구밀도가 훨씬 많아 작은 면적에 조밀하게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의 간척과 매립은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무안

10) 이기훈, 앞의 논문.

11) 1914년 자료는 1914. 04. 01. 총독부령(總督府令) 제11호 자료이고, 1932년 자료는 1932. 08. 15. 총독부령(總督府令) 제75호 자료이다.

12) 박종철, 앞의 글.

13) 같은 글.

14) 같은 글.

15) 같은 글.

군 이로읍 산정리 남북과 용당리 남쪽의 호수공사를 하여 대부분 지역을 매립하여 앞으로의 도시 확장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¹⁶⁾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목포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도시로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물자수탈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도시 계획과 토지 이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¹⁷⁾ 이 시기에 목포시는 항구와 일본인들의 거점 지구를 중심으로 지형을 일부 고려하여 토지 이용을 하였다. 현재의 목포역을 정하고 건물의 배치 등 주요 토지 이용에 채광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주요 도로와 시가지 분할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직사광을 최대한 받기 위해 주요 도로의 건설을 동서로 하였고 해안성 기후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풍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1935년에 계획된 도로망이 1984년 현재 많은 부분이 현실화되어 도로로 건설되었다.

(2) 광복 이후부터 1960대 초까지의 토지이용¹⁸⁾

광복 이후 도시 인프라는 일제강점기때 그대로인 상태에서 인구는 2배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산정동과 용당동, 유달산, 서산동, 대성초등학교 부근 지역의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주택을 확장하거나 건설하는 일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목포시의 행정 구역은 10.44㎢였고 도시계획구역은 15,138㎢였다. 이러한 혼란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6·25전쟁을 치르면서 도시의 사회기반시설은 파괴되었지만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불법 점거지가 증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내의 과밀화와 도심 주변의 국·공유지화로 인한 문제와 일본인 토지 소유지의 대성동과 산정동의 산기슭 주변이 불법 점거 지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유달산과 송도 공원의 국·공유지에도 불법 건물이 난립하였고 구 일본인이 거주하던 지역은 불법 점거자에 의해 분할되고 그것이 다시 분할되는 세분할이 거듭되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르러 토지의 세분화와 극세분화, 계획 없는 불법 점거지구는 재개발 및 정비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이때에 목포는 6·25전쟁 이후로 의·식·주 해결 문제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녹지에 조성된 삼림파괴가 매우 흔하게 자행되었다. 유달산과 송도 등 도심확장지역 주변에 있던 녹지 등은 연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행된 불법 벌채로 숲이 매우 황폐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삼학도와 송도간의 연육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산정동, 용당동, 죽교동 등에 매립공사를

16) 박종철, 같은 글.

17) 윤희철, 「일제강점기 목포 도시계획의 내용과 특징-시구개정과 시가지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25-2, 한국지역개발학회, 2013; 이기훈, 앞의 논문.

18) 박종철, 앞의 글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진행하였다. 1953년에는 현재의 남해개발지구(南海開發地區)를 조성하기 위해 송도와 삼학도 및 입암산을 연결하는 방조제 공사를 계획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목포개발 방향을 정한 매우 큰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의 토지이용¹⁹⁾

우리나라의 1960년대부터 1980년대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국가가 도시의 공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의 개편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이 매우 급격히 집중적으로 나타난 시기이다. 1962년에는 무안군 이로읍 산정리, 상리, 용당리, 연리 등을 편입하여 목포시의 행정구역이 23.19㎢가 되었고, 도시 계획 지역은 1966년 7월 14일 건설 부고시 제 2567호에 의해 41.073㎢로 확장되었다. 1969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면적 23.854㎢에서 녹지가 45.3%를 차지하여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임야 26%였다.²⁰⁾ 그 당시 만호동, 영해동, 남교동, 무안동, 호남동, 대성 1동, 대성 2동 지역은 매우 과밀한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목포시의 상업 지역으로는 만호동, 영해동, 무안동, 호남동에 형성되었고 이 지역은 주로 국도와 항만을 끼면서 각종 공공 시설과 금융 기관 등이 집중되어 있었던 지역이다.

1973년에는 무안군 삼향읍 석현리를 합병하여 행정구역이 확장되어 면적이 35.561㎢에 이르렀고, 1976년 3월 27일 건설부 고시 37호로 도시계획구역은 33.19㎢로 축소되었다. 이 시기에도 간척에 의한 매립으로 토지 개발을 하였으며 면적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었다.

1968년부터 목포시 최초로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산정·용당동 제1지구 279,028㎡(84,406평), 제2지구 237,923㎡(71,781평)을 부도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1980년대는 항만의 기능이 축소되고 전체적으로 도시의 기능이 위축되는 시기였다. 특히 이때는 아파트의 건설이 증가하였고 많은 도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매우 높은 시기였다. 지목별 토지이용에서 논과 밭이 증가하였다. 이때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장지역의 토지이용의 혼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증가하게 되었다.

1968년 공원녹지 면적이 1,553,336㎡로 목포시 전체 면적의 약 65%를 차지하였고 1인당 녹지는 9.2㎡가 되었다.²¹⁾ 또한, 유달산의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불법 점거되어 도시 경관을 해치던 지역을 연차적으로 정리하고 녹지공원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시기에 갯바위와

19) 목포시 홈페이지(<https://www.mokpo.go.kr/>)와 박종철, 앞의 글을 참고하여 인용함.

20) 목포시 홈페이지(<https://www.mokpo.go.kr/>).

21) 목포시, 『제10회 목포통계연보』, 1970.

삼학도를 잇는 1,424m의 방조제가 축조되었고 고하도에 서식하는 소나무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 이 지역에 많은 이용자가 있었다고 한다. 1976년 녹지공원은 1인당 17.7㎡로 다른 도시에 비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의 접근이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녹지공간은 유달산공원과 갯바위공원 정도였다. 따라서 면적은 넓었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4) 1980년대부터 1990년대의 토지이용

1980년대 초반에는 상업지역이 오거리 부근으로 주요 관공서와 목포역 등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목포버스터미널의 상동 이전과 시청, 경찰서, 법원 등의 용당동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은행과 각종 사무소는 중앙로로 분산되어 도시의 중심 상업 지구의 분화가 진행되었다.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와 대도시화에 따른 인구 이동은 목포시 전체에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연산동 등 대단위 아파트 주택 단지의 건설로 주민의 일상 생활권이 일제강점기의 목포항 근처에서 점차 항구에서 내륙 쪽으로 옮겨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5) 2000년 이후의 토지 이용

이 시기에 목포시는 상동에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건설되면서 목포시의 주거 생활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상동에 대규모 택지 개발과 더불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구시가지에서의 인구 이동이 급속히 가속화되었다. 또한, 대성지구 공동주택개발과 용해2지구 택지 개발, 옥암지구 개발 등 다양한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시외곽으로 주민들의 거주공간이 이전함과 동시에 구도심의 공동화는 현재 목포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옥암지구와 오룡지구의 택지 개발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 건설은 목포시에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로의 인구 이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행정구역상으로 목포 인근인 신안군이 2011년도에 청사와 연육교 완공으로 그동안 사용해 온 목원동 청사에서 압해도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동안 구도심 상권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신안군청의 이전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목포 시가지의 외곽으로의 확대는 목포시가 중요한 교통의 거점으로서 1991년에 착공한 서해안고속도로가 2001년에 완공되었고 2007년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었으며, 2012년에 남해안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이 개통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목포시 외곽을 지나는 이 고속도로는 목포시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뿐만 아니고 서울과 광주 등 전국적 규모에서 목포를 방문하기 편리하게 만들었다.

목포시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목별 토지 이용을 <표 1>에 나타내었고 면적에 따른 비율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목포시의 전체 면적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전, 답, 임야, 염전, 공장 용지 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 용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자동차가 늘어 이에 따른 기타 기반시설의 증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공원, 체육 공원, 유원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묘지 면적은 감소하고 있어 매장 대신 화장을 택하고 있는 요즘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종교 용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목별로 작성된 통계 연보의 자료는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되어 온 지번 제도에 의해 작성된 자료로 <그림 3>²²⁾에 제시된 토지 피복도는 2013년 정사 영상을 바탕으로 환경부에서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작성된 것이다. 이것을 <표 1>²³⁾에 토지 피복에 따른 면적으로 나타내었다.

22) <그림 3>에 제시된 토지 피복도는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전역을 촬영한 정사영상을 바탕으로 2013년 제작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 이 토지 피복도를 기초로 하여 저자가 편집하여 작성한 것임.

23) 목포시 통계 연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음.

표 1 2000년대의 목포시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단위: m²)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	9,097,249.0	9,076,830.0	8,938,348.0	8,781,300.0	8,597,460.0	8,439,619.0	8,405,909.0
답	3,814,684.0	3,760,190.0	3,691,246.0	3,650,274.0	3,578,298.0	3,394,096.0	3,370,181.0
과수원	4,218.0	4,218.0	4,218.0	4,218.0	4,218.0	4,218.0	6,707.0
목장용지	-	-	-	-	-	2,330.0	2,330.0
임야	12,768,950.0	12,749,913.0	12,643,716.0	12,540,816.0	12,435,158.0	12,335,661.0	12,332,622.0
염전	973,131.0	973,131.0	949,680.0	931,179.0	921,464.0	898,756.0	898,756.0
대지	9,473,895.6	9,481,667.5	9,562,984.2	9,726,585.2	10,233,656.1	10,356,353.4	10,391,241.5
공장용지	1,027,816.2	1,031,573.2	991,137.3	970,482.3	951,468.3	926,514.7	910,923.8
학교용지	1,251,903.5	1,265,303.5	1,297,290.9	1,296,978.9	1,300,071.9	1,352,698.0	1,367,008.0
주차장	-	-	30,566.7	47,959.9	52,007.4	69,181.5	73,176.5
주유소용지	-	-	44,686.5	56,016.6	59,781.6	74,643.6	80,699.6
창고용지	-	-	6,963.0	17,788.1	19,508.1	30,413.1	40,646.5
도로	4,420,453.3	4,511,398.5	4,854,721.9	4,999,591.1	5,148,822.5	5,242,976.2	5,268,176.3
철도용지	424,593.5	424,228.5	408,239.5	405,387.5	406,353.5	406,313.5	406,313.5
하천	18,598.0	18,598.0	18,155.0	18,155.0	18,155.0	18,155.0	18,155.0
제방	156,690.7	156,690.7	156,171.7	156,171.7	149,893.7	155,000.7	155,000.7
구거	683,532.5	676,993.5	665,745.4	664,371.4	669,937.0	667,292.1	667,119.1
유지	261,598.0	261,186.0	256,861.0	255,166.0	241,876.0	252,481.0	252,438.0
양아장	-	-	-	-	4,788.0	4,788.0	4,788.0
수도용지	216,174.0	215,229.0	214,563.0	213,659.0	213,426.0	213,426.0	213,473.0
공원	159,212.8	159,212.8	159,212.8	159,212.8	200,057.2	260,772.5	260,772.5
체육용지	122,755.5	122,755.5	122,755.5	122,755.5	128,352.9	219,149.9	219,149.9
유원지	-	-	-	-	-	-	-
종교용지	106,795.3	114,999.2	130,385.5	139,510.4	147,000.4	170,917.6	175,850.3
묘지	161,532.0	161,532.0	160,404.0	160,333.0	158,944.0	157,657.0	154,577.0
잡종지	1,918,649.6	2,065,758.8	1,931,603.3	1,938,161.3	2,284,008.9	2,269,834.8	2,270,767.4
합계	47,062,432.5	47,231,408.7	47,239,655.2	47,256,072.7	47,924,706.5	47,923,248.6	47,946,781.6

자료: 목포시, 『통계연보』, 2000~2014.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325,770.0	7,753,842.0	7,693,058.0	7,609,780.8	7,561,468.8	7,548,164.8	7,481,469.8	7,403,095.8
3,328,616.0	2,950,959.0	2,790,491.0	2,776,397.7	2,761,188.7	2,754,124.7	2,537,811.7	2,510,589.7
6,707.0	6,707.0	6,707.0	6,707.0	34,464.0	34,464.0	6,707.0	6,707.0
7,744.0	7,744.0	7,744.0	7,744.0	7,744.0	7,744.0	7,744.0	7,744.0
12,304,457.0	12,033,488.0	11,974,561.1	11,668,152.0	11,619,807.0	11,604,970.0	11,593,801.0	11,570,841.0
898,756.0	898,756.0	885,787.0	885,787.0	885,787.0	885,787.0	885,787.0	857,574.0
10,380,708.0	11,082,338.5	11,069,562.1	11,091,435.2	11,203,653.1	11,222,572.0	11,476,946.3	11,496,457.4
864,438.8	870,894.5	884,729.5	885,679.5	861,893.5	852,077.5	865,778.3	852,506.3
1,364,913.5	1,446,370.9	1,446,500.9	1,446,880.9	1,486,899.2	1,485,518.2	1,513,585.7	1,512,593.7
87,714.0	108,529.4	109,994.2	113,146.0	119,326.9	121,452.2	126,470.1	128,491.0
84,364.4	89,875.0	89,643.0	91,177.3	93,313.3	93,081.5	94,382.8	94,308.8
43,570.5	50,421.5	50,015.5	49,997.4	56,862.0	60,884.0	63,457.0	64,990.0
5,427,700.7	5,901,985.6	6,117,051.4	6,172,680.6	6,189,149.9	6,235,190.7	6,358,720.0	6,534,229.4
403,092.8	522,126.7	522,178.7	519,636.5	518,889.5	518,889.5	518,889.5	518,889.5
1,400,370.0	1,400,370.0	1,400,370.0	-	1,400,370.0	1,400,370.0	1,400,370.0	1,400,370.0
153,993.7	153,993.7	154,765.7	151,266.7	150,749.7	150,078.7	150,061.7	149,397.7
658,874.6	679,011.7	665,553.5	662,487.5	662,141.3	662,399.3	672,526.1	666,163.1
251,886.0	249,567.0	245,218.0	244,462.0	242,051.0	240,506.0	236,827.7	216,043.7
4,788.0	4,788.0	4,788.0	4,788.0	4,788.0	6,206.0	6,206.0	6,206.0
224,396.0	224,236.0	224,236.0	224,019.0	224,019.0	224,019.0	225,397.9	225,863.9
260,451.2	576,544.0	577,570.3	918,126.9	916,479.5	916,455.0	1,118,817.6	1,118,817.6
219,149.9	219,149.9	449,398.9	452,080.9	452,080.9	451,880.9	469,152.0	469,152.0
-	-	-	28,790.0	28,790.0	28,790.0	28,790.0	28,790.0
188,895.1	201,643.5	207,939.5	209,112.5	218,099.7	218,637.6	224,039.6	233,396.6
154,503.0	139,070.0	127,262.0	127,251.0	125,795.0	125,610.0	124,655.0	124,556.0
2,295,173.1	2,354,535.9	2,322,090.4	2,335,771.3	2,297,308.3	2,354,589.0	2,406,771.6	2,456,480.2
49,341,033.3	49,926,947.8	50,027,215.7	48,683,357.7	50,123,119.3	50,204,461.6	50,595,165.4	50,654,2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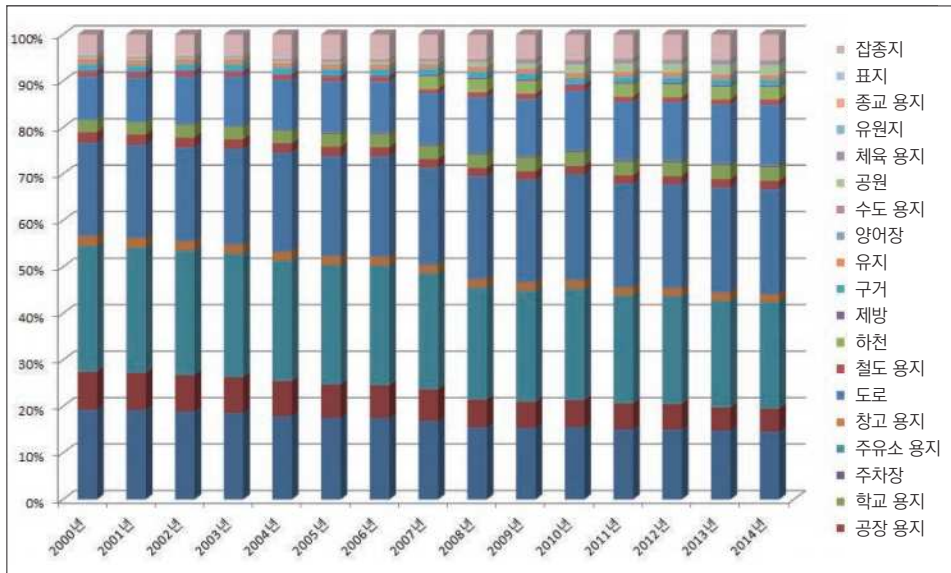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별 면적에 따른 면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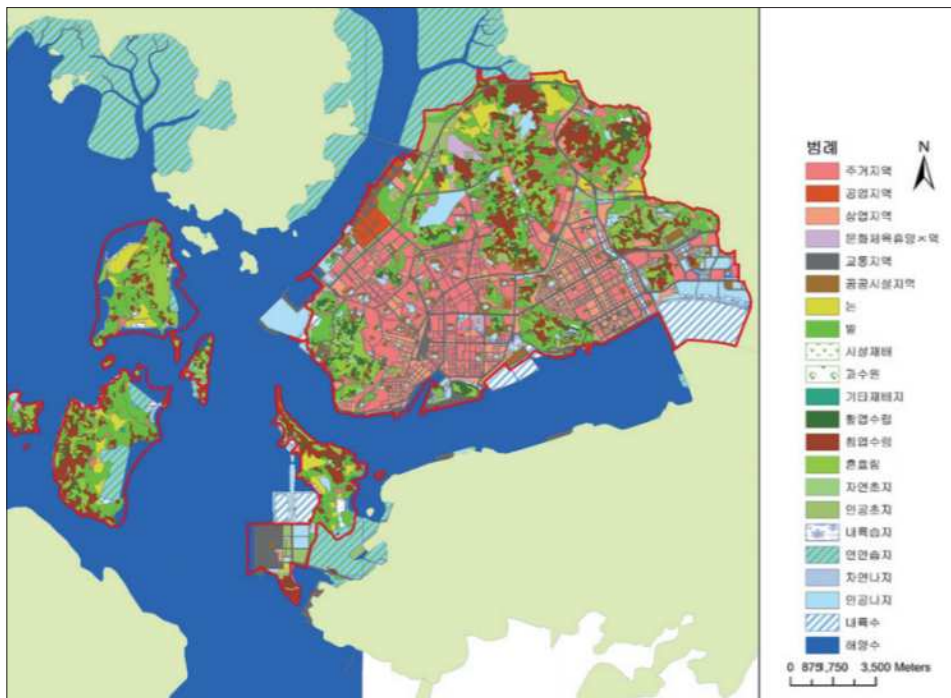


그림 3 목포시의 토지 피복도

주: 2011년 항공정사영상을 기초로 환경부 환경공간서비스자료 활용하여 편집하여 작성함.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3년의 항공정사영상으로 촬영된 자료로 작성된 토지 피복도를 보면 목포시는 주거 지역과 밭이 주요 토지 이용이다(〈표 2〉 참조). 그다음은 교통 지역과 침엽수 및 혼효림이 다음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밭과 침엽수 및 혼효림의 면적이 비교적 높은 것은 목포시 내에 섬 지역에 위치한 경작지와 삼림 면적이 넓게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제외하면 주거지역과 교통 지역이 각각 14.72%와 12.1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목포시에는 대표적 녹지이자 삼림 경관으로 알려진 유달산(228m)을 비롯하여 지적산(189m), 부주산(141m), 대박산(156m), 양을산(156m), 입암산(121m)이 위치하고 있다. 제일 높은 유달산도 200여미터 정도의 높이로 산의 대부분이 해발 고도가 낮으며 평평한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유달산은 항구에 가깝고 과거 일제강점기의 일본영사관이 산자락에 위치했을 정도로 항구를 조망하기 좋고 경관이 아름다워 목포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산이다.

목포시는 대부분이 시가화 지역으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주요 토지이용을 차지하고 도시 녹지 지역은 유달산 근처 지역과 동북쪽 지역에 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시가화 지역이자 주민이 주로 살고 있는 시가지 중심 공간에는 녹지 공간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이것은 도시의 확장에 따른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도시 내에 존재했던 녹지 공간의 상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유달산과 송도공원을 녹지 지역으로 확보하여 녹지 지역이 약 4.4km²이 확보되었고 이와 더불어 풍치지구로 약 3.9km²가 확보되어 1인당 공원 면적이 9.1m²에 이르렀다. 1957년에 발행된 『일본도

표 2 토지 피복에 따른 면적

토지 피복	면적(m ²)	면적 비율(%)
공공시설지역	1,313,466.8	2.59
공업지역	542,876.7	1.07
과수원	60,173.5	0.12
교통지역	6,146,878.7	12.13
기타나지	2,947,577.5	5.82
기타재배지	30,185.9	0.06
내륙수	1,908,591.5	3.77
내륙습지	402,133.9	0.79
논	2,128,984.2	4.20
문화·체육·휴양시설	409,864.5	0.81
밭	7,307,812.8	14.43
상업지역	4,552,279.6	8.99
시설재배지	12,806.1	0.03
연안습지	331,292.7	0.65
인공초지	2,584,293.7	5.10
자연나지	250,860.6	0.50
자연초지	641,821.4	1.27
주거지역	7,456,856.3	14.72
침엽수림	5,702,811.5	11.26
혼효림	4,361,264.5	8.61
활엽수림	1,561,422.1	3.08
합계	50,654,254.4	100.00

시연감(日本都市年鑑)에서 1940년 우리나라에 독자적으로 국유림과 채비지를 이용하여 공원을 조성하였고 전국 주요 도시에 대략 2~3개 정도의 공원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⁴⁾ 그러나 2008년 현재 목포시는 1인당 도시 공원면적이 3.1㎡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3분의 1에 머물러 오히려 퇴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0년까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약 2배인 6.0㎡로 증가시키기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실시하고자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²⁵⁾

현대 도시에서 녹지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 원인은 도시의 열섬 현상을 최소화해주거나 기후 변화, 이산화탄소 저감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본 자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도시 녹지는 생태계 서비스에 여가나 레저 활동 등 심신을 쉬고 휴식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시가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4) 도시의 미래와 경관 계획

목포시는 일제강점기인 약 100년 전에 우월한 지리적 조건으로 일본의 자원 수탈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그 시기 항만과 도시 내부의 거주지 등 미래의 도시 확장을 위한 계획을 치밀히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직까지도 목포시 구도심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6·25전쟁과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를 거치면서 지역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많은 인구의 유출과 도시의 쇠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목포시 인구의 도시 외곽으로의 이전은 생활 기반과 상권이 이동하는 연속적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도시의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목포시의 빠른 대책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목포시 외곽으로의 상권 이전과 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과 택지 개발에 따른 다양한 협의가 필요하다. 남악 택지개발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대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목포시 인구의 무안군 유출이 가속화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안군 오룡지구의 택지 개발이 대단위 아파트 개발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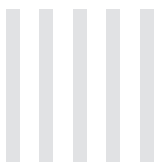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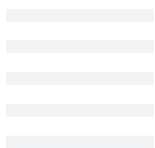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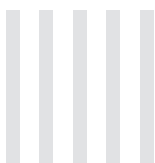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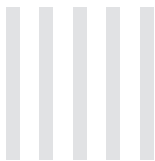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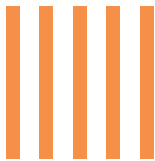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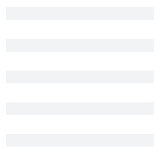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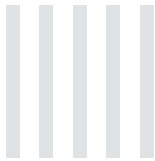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또한, 도시 내 녹지가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 및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요즘의 현상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도시라는 시스템에 생태계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24) 박종철, 앞의 글.

25) 전라닷컴(<http://jeolla.com>, 2008. 11. 13.) 「목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관련 기사 내용」.

있느냐에 따라 도시의 삶의 질이 정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 내 녹지 개발을 위해 도시 내에 위치한 유달산(228m)을 비롯하여 지적산(189m), 부주산(141m), 대박산(156m), 양을산(156m), 입암산(121m) 등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도시 녹지 네트워크를 고려할 수 있다.

김재은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1절 목포의 지형과 지질

정철환 | 전남대학교 강의교수

제2장 내륙 환경

제1절 목포의 지형과 지질

1. 지형

1) 개설

목포시는 우리나라 서남단 무안반도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에 면해 있다. 북쪽으로는 무안군과 접하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영산강을 사이에 두고 영암군과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신안군에 속하는 다도해의 여러 섬들과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목포 지역은 예로부터 내륙과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목포시 일대는 소백산맥에서 분기하여 남서쪽으로 달려온 노령산맥이 한반도 서남단까지 이르러 바다에 잠기게 되면서 형성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rias coast)이다. 따라서 원래의 지형은 해안선의 굴곡이 매우 심하고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섬들로 이루어졌으며, 간석지(갯벌)가 넓게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간척사업으로 많은 섬들이 육지와 연결되어 목포시로 편입되었으며 간석지도 대부분 사라졌다. 현재는 고하도, 놀도, 달리도 등 6개의 유인도를 포함한 13개의 섬들이 목포시에 속해 있다.

목포시 일대는 오랜 세월 동안 삭박 및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노년기 지형을 이루고 있어 낮은 구릉과 함께 영산강 및 그 지류 하천에 의해 퇴적된 충적평야가 넓게 발달되어 있다. 목포 지역의 지형적 기복은 노령산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소백산맥의 지맥인 노령산맥은 추풍령 부근에서 갈려나와 남서쪽으로 뻗어 내리면서 전주시와 순창군을 거쳐 무안군에 이르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계를 이루고, 운장산(1,126m), 모악산(794m), 내장산(655m), 방장산(743m), 문수산(621m), 불갑산(516m), 천주봉(376m) 등의 산세를 형성하고 있다. 노령산맥은 무안군과 목포시 일대에 이르러

고도가 낮아지면서 대부분 해발고도 200m 이내의 구릉을 이루고 있는데, 그 여맥이 목포를 대표하는 유달산(228m)을 비롯하여 입암산(121m), 양을산(156m), 지적산(189m)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림 1〉 참조).

목포시 일대에서 노령산맥을 이루는 낮은 산지와 구릉지는 대체로 북동쪽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옥천대의 방향 및 광주 단층의 연장 방향과 일치하고 있어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이 지형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목포시의 서쪽을 북동-남서 방향으로 지나는 광주 단층을 경계로 지형적 특징이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광주 단층 서쪽에 분포하는 선캄브리아기(Precambrian)의 변성암류 및 쥐라기(Jurassic)의 화강암과 광주 단층 동쪽에 분포하는 백악기의 화산암류의 차이로 인해 서쪽은 오늘날 바닷물에 잠겨있는 저지대가 발달하고 동쪽은 산지와 구릉지가 형성되어 육지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북동-남서 방향의 산계는 신안군 압해도를 지나 울도, 달리도, 화원반도로 이어지는데, 이 산계에서 갈라져 나온 능선들이 북북서-남남동 방



그림 1 목포시 일대의 지형(구글지도 제공)

향으로 달리며 목포시의 산봉우리들을 형성하고 있다. 목포 시내에서 가장 뚜렷한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능선은 목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석현동 대박산(156m), 용해동 양을산(156m), 용해동 입암산(121m)을 거쳐 천연기념물인 갯바위로 이어진다. 목포시와 무안군의 경계를 따라 지척산(189m), 부주산(158m), 부흥산(98m) 등으로 이어지는 능선도 북북서-남남동 방향이다. 목포시의 진산인 유달산도 압해도에서 이어지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능선 연장부에 자리하고 있다.

목포 지역은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였던 뷔름빙기(Würm Glacial Stage)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자 노령산맥의 남단부 지맥을 이루고 있던 낮은 구릉지대의 계곡과 저지대가 바다에 잠기게 되고 각 산봉우리는 육지로부터 분리·고립되어 크고 작은 섬이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서남해의 다도해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목포시 일대의 서남해 연안은 조류의 영향이 커서 곳곳에 해안 퇴적지형인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넓은 갯벌이 잘 보존되어 있다. 오늘날 목포 시가지의 저지대 대부분은 간척사업에 의한 매립지로 이루어졌다. 시가지 주변의 영산강 하구에는 연동, 북항, 대반동, 백련동, 갯바위해안 등지에 간석지가 있었다. 이들 간석지는 육상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퇴적물 공급과 염생식물에 의한 퇴적물의 집적으로 간척이 용이해져 오늘날 농경지, 주택지, 공장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목포시는 시가지 외에도 고하도, 놀도, 달리도 등 6개의 유인도와 7개의 무인도를 포함하고 있다.

2) 영산강

목포 지역의 수계는 영산강에 의해 대표되는데, 영산강은 우리나라 4대강의 하나로서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연리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남서 방향으로 흐르며 주요 지류인 황룡강, 오례천, 광주천, 지척천, 문평천, 고막원천, 함평천 등과 합류하여 광주광역시와 나주 및 목포를 거쳐 서해로 유입된다. 영산강은 총 유역 면적 3,371.4km², 유로 연장 136.0km(본류)로, 한강(482km), 낙동강(522km), 금강(396km)에 비해 유로가 짧은 편이나 많은 지류 하천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나주 평야를 관류하며 예로부터 산업과 교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약 3.09%의 완만한 하상 경사를 보이는 영산강은 하도가 자유곡류(사행천)를 하여 범람원이 하곡 주위에 발달하였고, 중·하류로 가면서 사행의 정도가 심해져 충적층이 넓게 발달하였으며 우각호를 군데군데 이루고 있다. 영산강 중·하류 지역은 수계 방향과 지질구조선이 일치하는데 이는 수계 발달이 지질구조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영산강은 하류로 가면서 하도 경사가 완만하고 하구 해역인 서남해의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예로부터 조석의 영향이 나주 부근까지 미쳐 연안 농경지에 하천 범람·농토 침식 등의 피

해를 주기도 하였으나 1981년 12월에 하구언이 축조됨으로써 감소 구역이 크게 줄어들었다.

영산강 유역은 북쪽으로는 노령산맥, 동쪽으로는 소백산맥에 의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장성군, 담양군,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목포시 등 전라남도 중서부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다. 영산강 유역은 전반적으로 직사각형의 수지상 하계망 형태를 보이며, 침식평야가 대부분이어서 퇴적층의 두께는 비교적 얇은 편이나 중·하류 유역에는 나주평야를 비롯하여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지류들이 합류하는 담양,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주, 함평 학교 등지의 지점들에서는 비교적 두꺼운 하성기원 충적층이 폭넓게 발달되어 있다. 산악지형의 발달은 미약한 편이어서 해발고도 200m 이상의 면적 비율이 19.6%에 불과하고 평균고도는 104.6m로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졌다. 영산강 유역의 평야 대부분은 퇴적, 침식 작용이 심하여 하천의 현재 하상과 거의 동일한 고도(천장천)에 있으므로 범람이 자주 발생한다. 영산강 하상 퇴적물은 상류에서는 사질 내지 사력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나 함평천 합류 지점 하류에서는 실트질과 점토질의 세립질 퇴적물이 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산강은 유역 면적에 비하여 북쪽, 동쪽, 서쪽 등 삼면에서 많은 지류 하천들이 본류로 합류하는 수계 특성과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으로 인하여 계절에 따른 유량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매년 상습적인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972~1995년에 걸쳐 영산강 유역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으로 영산강 상류에 장성댐, 담양댐, 광주댐, 나주댐 등 4개 댐이 건설되었고, 목포시 일대에 영산강 하구언, 방조제, 용수로 등이 건설되었다. 특히 무안군 옥암리부터 영암군 삼호리에 이르는 길이 4,350m, 최대 높이 20m의 영산강 하구언이 완공되면서 영산호가 탄생되었다. 영산강 유역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확장되고 농업용수가 확보되었으며 가뭄 때마다 겪었던 목포시의 용수난도 해결되었다. 또한 영산강 하구언의 완공으로 인하여 감소하천으로 피해를 입었던 농경지가 염해와 수해로부터 벗어났으며 하구언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목포~영암 간 육로교통이 훨씬 원활해졌다. 그러나 하구언에 의해 물의 순환이 차단되면서 영산호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유달산

목포를 대표하는 지형 경관 중 하나인 유달산은 해발고도(228m)는 높지 않으나 기암괴석과 절벽이 어우러져 산의 기세가 위풍당당하고 다도해 풍광과 함께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유달산은 노령산맥의 맨 마지막 봉우리이자 다도해로 이어지는 무안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산으로 지질학적으로는 응회암과 화강반암으로 이루어졌다. 유달산은 목포시 유달동, 대반동, 온금동, 죽교동에 걸

쳐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는데, 동쪽 기슭에는 목포 시가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다도해를 바라보고 있다. 산 정상에 올라서면 다도해 풍광과 목포 시가지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특히 다도해의 일몰과 목포항의 야경이 유명하다. 바위산을 이루고 있는 유달산에는 오랜 세월 자연의 풍화·침식에 의해 형성된 날카로운 암봉과 암릉이 많고 도처에 기암괴석이 산재되어 있다. 산 정상부에는 일등바위, 이등바위, 삼등바위 등이 있고 그 외에도 투구바위, 입석바위, 거북바위, 장미바위, 애기바위 등 여러 바위들이 저마다의 기묘한 형상을 뽐내고 있다. 전망과 경치가 좋은 곳에 대학루, 달선각, 유선각, 소요정 등의 많은 정자가 자리하고 있다. 산 중턱에는 가수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세워져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조각 공원인 목포조각공원이 유달산 어귀에서 들어서서 조각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이순신 장군 동상, 충혼탑, 4·19 기념탑, 난공원, 오포대 등이 있다. 또한 유달산은 서남해안 지역의 천혜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해남 화원의 일성산 봉수와 무안 왕산의 군산 봉수를 연결하는 봉수대가 설치되어 일찍부터 영산강의 목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이영으로 바위를 덮어 군량미처럼 가장해 왜군의 전의를 상실케 하였다는 이순신 장군의 설화가 전해오는 노적봉을 비롯하여 역사상 의미 있는 곳이 많다. 노적봉-서산초교 앞-신안비치호텔-어민동산-혜인여고 뒤-노적봉을 지나는 유달산 일주도로는 유달산과 함께 목포 시가지와 다도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빼어난 자연풍광과 역사적 의미 때문에 유달산은 목포 시민의 공원이자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져 있어 외지인들에게는 필수 여행코스로 인식되고 있다.

4) 갯바위

목포시 용해동 해안가에 위치한 갯바위는 인위적 요인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해안 환경에서 자연적인 풍화 과정으로 형성된 풍화혈 상태의 자연 조각품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상과 그 자연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에 천연기념물 500호로 지정되었다. 갯바위는 용해동의 입암산(121m)에서 남남동 방향으로 뻗어 내린 바위 능선이 영산강 하구와 만나며 파도의 해식작용과 염풍화(鹽風化)에 의해 바위 아래 부분이 깎여나가 마치 갯을 쓴 사람 형상을 하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남서쪽의 아버지 바위와 북동쪽의 아들 바위가 나란히 서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바위는 높이가 약 8.1m, 폭이 약 6.1m이며 아들 바위는 높이가 약 8.5m, 폭이 약 12.4m이다(〈그림 2〉 참조). 갯바위 일대의 해안 지형은 전형적인 침식지형으로 해식 절벽, 해식노치(sea notches), 타포니(tafoni) 등이 발달되어 있다.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해식 절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암석 해안의 돌출부가 파도에 의한 해식 작용으로 후퇴하면서 형성된다. 해식노치는 해식 절벽의 기저부



그림 2 갯바위 전경

에 파도에 깎여 오목하게 패여 들어간 부분을 말한다(〈그림 3〉 참조).

타포니는 암석에 대한 물리적 및 화학적 풍화작용의 결과로 암석의 표면에 형성되는 요철형의 미지형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형성되지만 주로 해안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해안지역에 나타나는 타포니의 내부에서 관찰되는 소금의 존재로 인해 염풍화가 타포니의 가장 중요한 형성 원인이라 인식하게 되었다. 타포니가 발달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암석 표면과 암석 내부의 미기후적 조건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구성 광물의 서로 다른 풍화율과 암석 내로 침투한 수분의 동결·융해로 인한 암석의 수축과 팽창 및 건습의 반복에 의해 암석 표면의 특정 부분에서 최초의 풍화가 시작될 수 있다. 특히 해안 지역에 위치한 암석에서는 지속적으로 염이 공급되면서, 염 결정의 성장에 의한 팽창 및 염의 수화작용 등에 의한 염풍화로 인하여 초기 입상붕괴와 소규모 박리(flaking)와 같은 입자 분리가 발생된다. 이때 암석의 공극, 입도, 절리 등에 의해 결정되는 투수성은 염과 수분의 암석 내부로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여 풍화를 더욱 더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번 형성되기 시작한 타포니는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입자 간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더욱 더 많은 수분과 염이 침투하게 되고, 건습이 반복되면서 염 결정의 생성과 성장에 의한 팽창 및 물의 흡수로 인한 수화작용에 따른 염의 부피 증가 등에 의해 내부 압력을 발생시켜 염풍화가 더욱 가속화된다. 아울러 암석 내부의 광물조성의 차이 혹은 층리면 또는 염리면과 같은 균열로 인해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며 성장한다. 암석 내부에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물이 광물과 화합하면서 가수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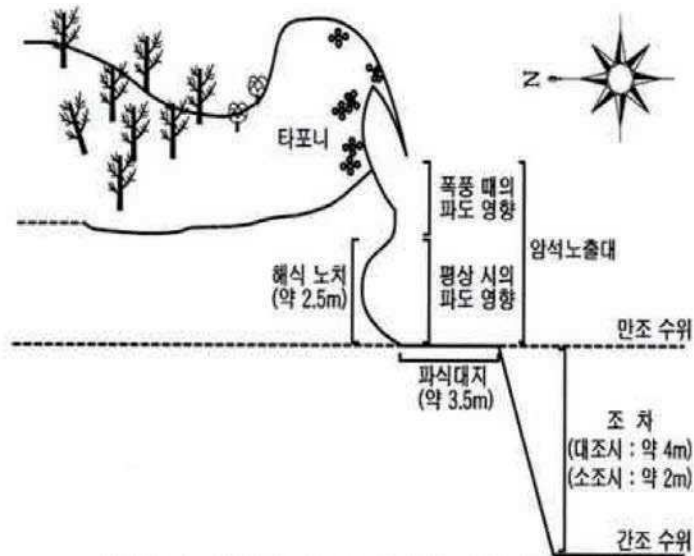


그림 3 목포 갯바위의 모식도
출전: 김해경 외, 2012.

를 일으키게 된다. 물리적 및 화학적 풍화가 더욱 진행됨에 따라 타포니가 어느 정도 크기로 발달하게 되면 인접한 타포니가 서로 합쳐져서 융합되기도 한다. 융합된 타포니에서는 암석 내부로 파고든 깊이에 비해 표면적이 더 넓어지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타포니의 융합이 지속되면서 갯바위와 같은 대형 타포니로 발달하게 된다.

유달산, 삼학도와 함께 목포를 대표하는 명승지 중 하나인 목포 갯바위는 후세에게 물려줄 훌륭한 자연유산이다. 최근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되고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갯바위의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증장기 관리 및 보존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5) 삼학도

삼학도는 원래 목포시의 만호동 앞바다에 나란히 있던 대삼학도·중삼학도·소삼학도 등으로 이루어진 섬이었으나 1960년대 간척사업으로 인해 육지가 되었다. 삼학도는 순상 형태의 구릉성 산봉우리 3개가 동서 방향으로 늘어선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최고 해발고도는 71m이다. 이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 유달산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암석은 유달산을 중심으로 목포시 일원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유달산에 젊은 장수와 그를 사랑했던 세 처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세 처녀가 그를 기다리다 학이 되었으나 이를 모른 장수가 쏜 활을 맞아 죽게 되었다. 학이 떨어진 자

리에 세 개의 섬이 솟아나 삼학도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1928년 유달산이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풍광이 아름다웠던 삼학도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낚시와 놀이를 즐겼다. 1950년대 목포항이 비좁아서 대형 선박의 정박이 어려웠기 때문에 신항 공사에 착수하면서 크게 변하였다. 1962년에는 삼학도와 입암리 사이가 매립되어 완전히 섬으로서의 모습을 잃어 버렸으며 호남제분, 한국냉동, 조선소 등이 들어서면서 섬의 자연 경관이 크게 훼손되었다.

삼학도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시행된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을 통하여 인공수로를 설치하고 다리로 섬을 연결하였다. 복원된 삼학도 공원에는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이난영 공원, 목포 요트마리나, 산책로, 대공연장, 광장, 도민의 숲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 지질

1) 개설

목포 지역은 지체 구조적으로 옥천대의 남서단부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선캄브리아기(Precambrian)의 변성암류로부터 신생대 제4기 충적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암석이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화강암체를 제외하고는 분포형태가 대체로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암층은 기반암을 이루고 있는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류, 시대 미상의 변성퇴적암류(옥천층군), 중생대 트리아스기(Triassic)에서 쥐라기(Jurassic)에 걸쳐 관입한 화강암류, 그리고 이들 지층들을 부정합으로 덮는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암류 및 화산암류, 신생대 제4기 충적층 등으로 이루어졌다(〈그림 4〉 참조). 특히 목포시 일원에는 백악기의 응회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응회암은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된 화산재 등이 쌓여서 형성되는 암석으로 화산암과 더불어 응회암이 폭넓게 분포한다는 것은 백악기 동안 이 지역에서 활발한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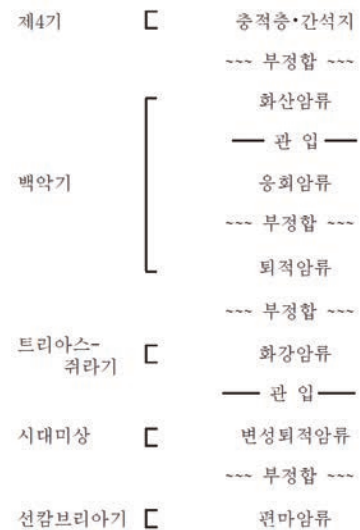


그림 4 목포시 일대 지질 계통

2) 지질각론

목포시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 중 이 지역의 기저를 이루고 있고 가장 오래된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로는 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하고 있다. 흑운모편마암은 목포시 옥암동 부주산 일대와 무안군 삼향읍 및 일로읍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흑운모편마암은 분포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립질이고 육안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엽리면이 발달되어 있으며 석영, 사장석, 정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흑운모편에 의해서 편마구조를 갖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편마 구조의 발달이 미약하여 편마암이라기보다는 괴상의 화강암체로 보여 선캄브리아기 복운모화강암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 암석이 분포하는 지역은 풍화 심도가 깊고 지형이 평탄하여 대부분 경작지로 개간되었으며 토양이 붉은 색을 띠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중생대 화강암 분포 지역의 황토색 마사토와 구별된다.

옥천층군으로 알려진 시대 미상의 변성퇴적암류는 장성군 이북에서부터 무안군을 거쳐 신안군에 이르기까지 북동-남서 방향으로 연장된 변성퇴적암대를 형성하며 나타나는데 무안군의 무안읍, 몽탄면, 청계면 지역과 신안군 압해읍의 북동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 변성퇴적암류는 변성사질암류로 석영편암, 운모편암, 규암, 석회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포시 상동 일대에는 사암, 역암, 이암 등으로 이루어진 변성퇴적암류가 소규모 분포하고 있다.

목포시 일대에 분포하는 중생대 쥐라기 화강암류로는 각섬석화강암이 있다. 이 화강암은 목포시 달동의 외달도를 포함하여 신안군의 지도 및 압해도, 해남군 화원면 화원반도 서북쪽 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각섬석화강암은 석영, 정장석, 사장석, 각섬석, 흑운모 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압쇄 구조가 발달되어 있어 엽리상 화강암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화강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암석 중 하나로, 화강암과 같은 관입암은 지하의 마그마가 기존의 암석을 뚫고 들어와 굳어져 생성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암석 생성순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에서는 시대 미상의 변성퇴적암류를 관입하고 있다.

목포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는 중생대 백악기 지층은 전술한 지층들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화산암류 및 퇴적암류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지층은 백악기동안 이 지역에서 활발했던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된 화산쇄설암류와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천 내지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암류를 포함하고 있다. 화산암류는 안산암 및 안산암질응회암과 같은 중성암류와, 유문암 및 유문암질응회암과 같은 산성암류로 크게 구분된다. 백악기 퇴적암류는 당시 이 지역에 존재했던 호수 및 하천에서 형성된 흑색 셰일, 이암, 사암, 역암, 응회질사암 등으로 이루어졌다. 목포시 연산동 일대에는 자홍색의 이암과 사암이 교호하며 나타나고 있고 이들 퇴적층에는 다양

한 크기의 역으로 구성된 역층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백악기 퇴적암류는 목포시의 섬 지역에서도 관찰되는데, 목포시의 달리도, 맥도, 울도에는 붉은색 응회암 내에 이암과 사암이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허사도와 장구도에는 사암, 이암, 역암, 응회질 역암 등으로 이루어진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는데, 연흔, 사층리, 머드칩, 하도상 구조 등의 다양한 퇴적 구조가 발달되어 있다. 목포시에 인접한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에서는 보존 상태가 양호한 세계적 규모의 수각류 공룡알 동지화석이 발견되어 국내 외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으며, 이 동지화석은 현재 목포시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화석산지들은 중요한 지질유산으로 자연사적 교육 자료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자원으로도 가치가 높다. 목포 시가지의 대부분은 응회암으로 되어있다. 응회암은 화산재와 같은 화산 분출물이 쌓여 형성된 암석으로 목포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에 폭넓게 분포한다. 한 국지질자연연구원에서 발간된 『목포도폭 지질조사 보고서(1:50,000)』에서는 목포시에 분포하는 응회암을 유달산응회암으로 명명하고 이 응회암은 유달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용당동 목포시청 부근부터 남쪽으로는 삼호읍 현대호텔 부근까지 분포하며 동쪽으로는 부흥산 일대에서 서쪽으로는 장좌도 및 고하도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응회암은 대부분 15% 내외의 화산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산력은 주로 유문암과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5〉 참조). 국지적으로 응회각력암이 나타나기도 한다. 유달산응회암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유달산과 갯바위 일대인데, 유달산 정상부와 마당바위 부근에서 잘 관찰할 수 있다. 갯바위를 구성하고 있는 응회암은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암편을 함유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층리를 보이기도 한다. 유문암은 목포시 북부의 대양동, 삼향동, 석현동 일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달리도, 울도, 장좌도 등 목포시 서쪽의 도서 지역에서도 나타나는데, 백악기의 모든 지층을 광범위하게 관입하고 있다. 백악기 후기에 형성된 이 유문암은 대부분 유백색을 띠고 있으며 장석 반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뚜렷한 유동 구조를 보여준다. 화강반암은 목포시 용당동, 이로동, 하당동, 신흥동, 상동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노적봉과 입암산 일대에서 응회암을 관입한 양상이 관찰된다. 목포시에 분포하는 화강반암은 유백색의 석기에 석영, 장석, 운모 등의 반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하도에는 응회암을 관입한 화강반암을 따라서 토굴을 파고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포대가 남아 있다. 고하도 남부의 서산초교 충무분교 부근에는 송지암(pitchstone)이 맥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송지암은 산성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하여 생성된 것으로 독특한 지방 광택을 보이는 암갈색 내지 암회색의 화산 유리질암이다. 최근 고하도에 분포하는 송지암의 암석·광물학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의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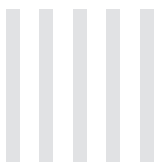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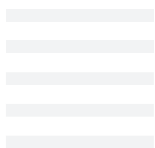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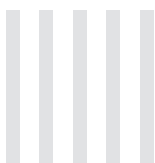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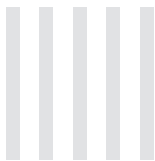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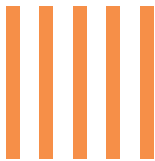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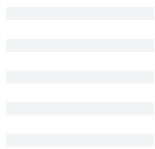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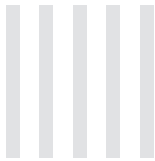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중생대 백악기를 거치며 지질학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던 목포시 일대 지역은 신생대 제3기를 지나면서 대체로 현재와 거의 유사한 지형을 갖추게 되고 신생대 제4기의 빙하기에 발생한 해수면 변동으로 인해 해안선의 변화 및 주변 해역의 해침과 해퇴를 겪으며 리아스식 해안가에는 간석지가 넓게



그림 5 목포 지역에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 응회암 암상

발달하고 저지대에는 충적층이 형성되었다. 목포 지역의 제4기 충적층은 미고결 쇄설성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규모 하천을 따라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목포 지역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크고 작은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원래는 간척지가 넓게 발달하였으나 간척사업으로 오늘날에는 많은 섬들이 육지에 합쳐졌으며 대부분의 간척지는 매립되어 사라졌다. 목포시의 목포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도심은 간척지에 자리하고 있다.

정철환 | 전남대학교 강의교수



제1절 목포의 기후 환경

오강호 | 전남대학교 강의교수

제3장 기후 환경

제1절 목포의 기후 환경

목포시는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1906년부터 목포기상대에서 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상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대기 상태를 가리키며, 기온, 기압, 습도, 구름, 강수, 시정, 바람 등의 요소로 구성되고, 매일, 매시, 매분, 매초마다 특성이 변한다. 이와 달리, 기후는 기상 현상이 장기간 축적된 자료로 30년 기상관측 자료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의 일반적 경향을 반영한다. 목포시 기후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후 관측 주기인 10년 단위로 최근 30년간 자료인 1981년부터 2010년의 관측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기온

1981년부터 최근까지 목포기상대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목포 지역의 기온 변화를 살펴보면, 연평균 기온은 13.9°C, 최저 기온은 1월 1.7°C, 최고 기온은 8월 26.1°C로 연교차는 24.8°C를 보인다(<표 1> 참조). 최근 30년간 조사 기간 중 최저 기온을 보이는 1월에 가장 기온이 낮았던 연도는 1981년으로 -0.6°C를 보였으며, 최고 기온을 보이는 8월에 기온이 높았던 연도는 2006년으로 28.0°C를 보였다. 연교차는 1993년에 21.5°C로 가장 낮고, 1984년에 27.7°C로 가장 높았으며,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평균 기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⁰¹⁾

01) 기상청, 「해양기상월보」 2012. 01.~12.

2. 강수량

강수량은 연평균 1,164mm, 월별 평균 최저 강수량은 12월에 29mm, 최고 강수량은 7월에 237mm로 건기와 우기에 따른 강수량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표 2〉 참조). 최근 30년간 조사 기간 중 월별 최저 강수량은 1988년 10월로 2mm를 보였으며, 최고 강수량은 1985년 6월로 529mm를 보인다. 연평균 강수량은 1995년에 최저 613mm, 1985년에 최고 1,737mm로 약 3배 정도의 편차를 보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⁰²⁾ 최고 강수량을 보인 1985년 6월에는 하루 100mm 이상 되는 날이 3일이었으며, 최대 185mm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3. 일조량

일조량은 연간 평균 2,135시간, 최저 일조량은 1월 143시간, 최고 일조량은 5월 216시간으로 계절에 따른 월간 일조량 차이를 보인다(〈표 3〉 참조). 최근 30년간 조사 기간 중 최저 일조량은 2003년 7월로 75시간을 보였으며, 최고 일조량은 1994년 7월로 282시간을 보였다.⁰³⁾ 일조량은 건기와 우기에 따른 강수량과 계절에 따른 태양고도의 변화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강수량과 반비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4. 상대습도

상대습도는 연평균 72.4%, 최저 상대습도는 11월 67.6%, 최고 상대습도는 7월 83.7%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조사 기간 중 최저 상대습도는 1995년 11월 51.8%를 보였으며, 최고 상대습도는 2002년 7월 91.9%를 보였다.⁰⁴⁾ 상대습도는 기온에 따른 증발량과 강수량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건기보다 우기에 높은 상대습도를 보인다.

02) 기상청, 「해양기상월보」, 2012. 01.~12.

03) 기상청, 「해양기상월보」, 2012. 01.~12.

04) 기상청, 「해양기상월보」, 2012. 01.~12.

5. 태풍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태풍은 수온 27°C 이상의 해면에서 발생하며, 중심 부근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기록된 기상청 자료를 보면, 태풍은 한 해에 평균 2.5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태풍 내습의 최다월은 8월, 7월, 9월의 순이고, 7월부터 9월에 내습한 태풍 수는 전체의 91%이며, 드물게 5월, 6월, 10월에도 내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⁰⁵⁾ 태풍의 일반적인 경로는 발생 초기에는 서북서진하다가 점차 북상하여 편서풍을 타고 북동진한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목포 지역에 영향을 미친 태풍과 태풍 경로는 대부분 서북서진하다가 북상하여 편서풍을 타고 북동진하는 정상 경로를 보인다.

6. 바람

풍속은 평균 4.34m/sec로, 가장 강한 달은 2월에 평균 5.1m/sec이며, 가장 약한 달은 6월에 평균 3.4m/sec 정도이다. 최대풍속의 경우 8월에 25.7m/sec의 남풍으로, 주로 태풍이 빈번한 시기에 최대풍속과 순간최대풍속이 높게 나타났다. 바람의 풍향은 봄, 가을, 겨울철에 대체적으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북서풍이 우세하며, 여름철에는 태평양 기단 및 태풍의 영향으로 남풍이 우세하다.

7. 기후 변화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대륙성 기단인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권에, 여름철에는 해양성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권에 있다. 목포시의 경우에도 계절에 따라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으나, 내륙과 달리 해양의 영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난다.⁰⁶⁾

기온은 내륙보다 겨울철에는 약간 높으며, 여름철에는 내륙지역인 광주 지역보다 평균 2°C 정도 낮아 일교차와 연교차가 작은 편이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연교차 변화는 0.008°C/년으로 커지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도 0.002°C/년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1> 참조). 강수량은 지난 30년간 최저 613mm, 최고 1,737mm로 약 3배 정도의 편차를 보이며, 연평균 강수량 변화는 4.7mm/년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조량은 건기와 우기에 따른 강수량과 계절에 따른 태양

05)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태풍백서」, 2011, 342쪽;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2012년 태풍분석보고서」, 2013, 368쪽.

06) 안건상, 「기후변화에 따른 전라남도 목포시의 재난재해 취약성 평가와 대응방안」, 『한국도서연구』 23-4, 한국도서(심)학회, 2011, 163~181쪽.

고도의 변화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평균 일조량 변화는 1.63시간/년으로 감소한다. 상대습도는 동계보다 하계에 높게 나타나며, 평균 상대습도 변화는 0.12%/년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상요소인 연교차, 연평균 기온, 연평균 강수량, 상대습도의 증가와 일조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상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목포 지역에도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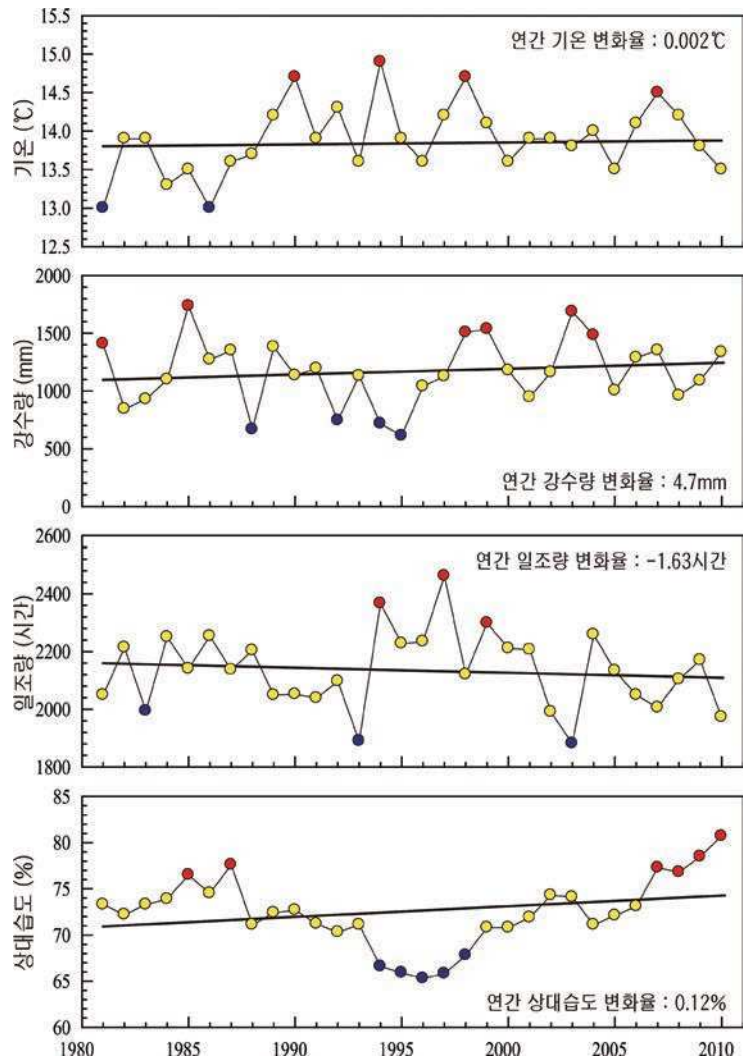


그림 1 목포 지역의 1981~2010년 동안의 기후 변화

표 1 목포시의 최근 30년간(1981~2010년)의 평균 기온 변화

(단위 : °C)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81	-0.6	1.9	7.1	11.4	16.6	21.4	26.1	25.4	21.1	15.3	6.9	3.5	13.0
1982	0.8	2.4	7.0	11.8	18.4	21.4	24.1	26.0	21.5	17.5	11.3	4.2	13.9
1983	2.0	1.7	7.5	13.3	17.9	21.3	23.8	26.2	23.1	16.7	10.1	3.5	13.9
1984	-0.5	-0.2	4.8	12.3	17.3	21.7	24.9	27.2	21.7	16.1	10.8	3.6	13.3
1985	-0.2	2.6	5.3	12.1	17.9	20.9	25.2	27.0	22.7	16.6	9.7	1.7	13.5
1986	0.1	0.5	6.3	12.4	16.5	21.1	23.2	25.8	20.5	15.0	8.9	5.7	13.0
1987	1.9	3.3	5.4	11.3	16.9	21.5	23.5	24.8	20.8	17.6	11.0	4.9	13.6
1988	2.5	1.6	5.3	11.7	17.3	21.0	25.1	25.9	22.4	17.4	9.6	4.5	13.7
1989	3.4	4.4	7.3	14.0	17.3	20.0	24.3	25.6	21.7	16.1	10.2	5.5	14.2
1990	1.5	5.0	8.4	12.1	16.7	21.4	25.5	27.5	22.8	17.1	12.9	5.4	14.7
1991	2.7	2.6	6.4	13.1	17.2	21.6	24.4	24.7	22.4	16.1	10.0	5.8	13.9
1992	3.7	3.7	8.2	12.9	16.8	20.8	25.2	26.4	22.1	16.3	9.7	5.9	14.3
1993	1.8	3.9	7.0	11.7	17.2	21.1	23.1	23.3	21.9	15.9	11.4	4.5	13.6
1994	2.5	3.2	5.4	14.4	17.7	21.1	28.5	27.8	22.9	17.3	12.5	5.6	14.9
1995	2.1	3.5	7.7	11.4	16.4	21.1	24.7	27.2	21.6	17.5	9.8	3.4	13.9
1996	2.4	1.6	5.8	10.3	16.9	21.1	24.7	26.7	22.3	16.8	10.1	4.8	13.6
1997	1.6	3.4	7.8	12.4	17.4	22.2	25.0	26.3	21.8	16.3	11.3	4.8	14.2
1998	2.3	5.2	7.5	14.6	17.7	20.8	25.4	26.5	23.2	17.8	10.6	5.3	14.7
1999	2.9	3.6	7.3	12.5	17.0	21.8	24.0	25.3	23.5	16.0	10.7	4.4	14.1
2000	1.9	1.1	6.7	11.9	16.8	21.7	25.8	26.6	20.7	16.4	9.0	4.3	13.6
2001	1.0	2.4	6.1	12.6	18.0	21.2	25.7	26.0	22.6	17.5	9.5	3.6	13.9
2002	3.8	3.3	8.3	13.6	16.9	21.8	24.7	24.8	21.7	15.7	7.6	4.4	13.9
2003	0.7	3.7	6.6	12.9	18.3	21.3	23.1	25.0	22.7	15.7	11.6	4.4	13.8
2004	1.0	4.3	6.8	12.5	17.0	21.6	25.5	26.1	21.9	15.6	10.5	4.8	14.0
2005	0.0	-0.1	4.3	12.4	18.1	22.9	25.0	26.1	23.9	16.8	11.5	0.7	13.5
2006	2.4	2.2	6.5	11.4	17.3	21.9	25.0	28.0	20.7	18.2	10.9	4.1	14.1
2007	2.6	5.7	8.2	12.2	17.9	21.6	24.2	27.2	22.4	16.8	9.6	5.5	14.5
2008	2.0	1.5	7.6	13.2	17.2	20.7	25.9	25.5	23.1	17.9	10.5	4.9	14.2
2009	1.6	4.9	7.0	12.0	17.6	21.4	23.6	24.9	21.9	17.2	9.9	3.5	13.8
2010	1.1	3.7	6.4	10.0	16.5	21.4	24.8	27.1	23.0	15.6	9.0	3.5	13.5
최저	-0.6	-0.2	4.3	10.0	16.4	20.0	23.1	23.3	20.5	15.0	6.9	0.7	13.0
최고	3.8	5.7	8.4	14.6	18.4	22.9	28.5	28.0	23.9	18.2	12.9	5.9	14.9
평균	1.7	2.9	6.7	12.3	17.3	21.4	24.8	26.1	22.2	16.6	10.2	4.4	13.9

자료: 기상청(<http://www.kma.go.kr/>) 과거 관측 자료.

표 2 목포시의 최근 30년간(1981~2010년)의 평균 강수량 변화

(단위 : mm)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1981	22	47	11	49	20	238	252	105	584	59	13	7	1,409
1982	26	23	42	74	59	20	294	86	45	54	100	22	844
1983	31	38	59	72	90	31	213	94	209	39	29	23	928
1984	13	31	8	152	38	185	210	139	204	44	46	28	1,099
1985	20	71	92	100	144	529	141	143	243	145	78	32	1,737
1986	26	47	71	39	108	299	145	167	210	79	14	66	1,271
1987	55	39	79	60	82	102	439	328	37	48	74	6	1,350
1988	21	18	53	45	125	142	147	61	19	2	19	14	665
1989	119	98	54	25	64	179	418	190	162	12	54	6	1,381
1990	38	91	46	75	110	178	279	138	81	32	53	15	1,135
1991	33	41	110	115	24	170	352	176	110	6	23	35	1,194
1992	20	28	93	58	71	16	104	141	136	5	28	44	744
1993	23	61	56	17	95	99	171	399	30	59	103	19	1,131
1994	28	21	16	29	74	80	15	194	27	146	48	39	717
1995	38	31	30	72	54	141	108	65	33	10	19	13	613
1996	35	19	130	28	27	287	190	77	94	52	67	34	1,041
1997	7	12	70	64	78	146	253	255	23	7	135	77	1,126
1998	52	46	80	117	111	383	175	154	304	50	30	5	1,508
1999	42	32	149	57	116	122	277	280	324	103	15	21	1,535
2000	31	8	21	6	40	222	204	322	235	30	50	6	1,177
2001	48	80	19	32	29	270	172	103	55	79	16	45	946
2002	37	15	32	106	79	97	201	385	109	53	28	23	1,162
2003	42	42	75	195	148	136	402	369	170	36	50	22	1,687
2004	30	36	28	52	86	217	375	351	226	5	39	37	1,484
2005	18	39	64	56	82	210	197	143	69	19	51	55	1,003
2006	16	34	28	109	247	192	333	178	55	21	34	42	1,288
2007	8	68	89	27	129	31	192	223	427	101	7	51	1,351
2008	63	17	64	62	151	295	112	96	30	19	39	14	961
2009	29	42	43	48	97	123	466	74	46	54	32	35	1,088
2010	28	98	89	141	100	53	264	344	127	39	10	44	1,336
최저	7	8	8	6	20	16	15	61	19	2	7	5	613
최고	119	98	149	195	247	529	466	399	584	146	135	77	1,737
평균	33	42	60	69	89	173	237	193	147	47	43	29	1,164

자료: 기상청(<http://www.kma.go.kr/>) 과거 관측 자료.

표 3 목포시의 최근 30년간(1981~2010년)의 평균 일조량 변화

(단위 : 시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1981	142	123	184	179	217	148	197	182	184	187	145	163	2,049
1982	153	177	200	201	223	245	163	215	208	208	100	120	2,214
1983	128	148	154	166	221	193	123	194	154	182	168	163	1,994
1984	163	158	208	195	230	176	160	229	181	246	193	113	2,250
1985	182	119	186	213	190	170	208	246	175	159	143	151	2,141
1986	176	174	196	219	247	170	141	247	175	219	154	135	2,253
1987	162	160	152	193	237	222	104	156	204	176	187	184	2,137
1988	154	120	163	211	226	149	185	247	196	228	183	142	2,204
1989	113	112	209	210	219	159	163	210	146	222	139	149	2,049
1990	130	114	187	189	176	142	183	250	161	215	175	131	2,052
1991	147	129	152	215	222	140	116	176	181	253	186	122	2,039
1992	117	175	121	187	255	202	164	211	155	221	166	121	2,097
1993	104	153	192	201	209	161	104	121	181	215	121	127	1,890
1994	155	149	193	186	203	172	282	252	265	200	183	126	2,367
1995	158	189	189	209	241	191	157	238	125	191	207	134	2,228
1996	155	185	154	218	229	100	200	240	222	216	140	176	2,235
1997	172	172	207	229	221	225	178	262	257	242	147	150	2,462
1998	119	145	202	166	169	143	188	179	184	220	213	192	2,121
1999	173	182	140	239	273	226	164	192	155	182	187	187	2,299
2000	113	184	216	234	224	156	197	226	138	175	163	185	2,211
2001	135	153	208	247	200	124	204	216	225	176	193	127	2,206
2002	129	176	186	181	155	240	121	115	206	190	167	124	1,990
2003	138	139	181	172	181	164	75	143	186	233	134	135	1,881
2004	168	199	214	209	182	164	182	216	134	255	188	148	2,258
2005	130	132	214	255	255	188	144	167	133	192	193	130	2,134
2006	140	139	223	179	149	179	95	232	177	237	146	153	2,049
2007	132	182	164	214	236	141	133	194	118	215	180	98	2,006
2008	119	201	206	204	218	105	150	222	172	203	154	152	2,104
2009	142	126	194	236	266	191	123	171	200	239	148	134	2,170
2010	148	121	128	188	215	157	138	187	187	190	189	124	1,973
최저	104	112	121	166	149	100	75	115	118	159	100	98	1,881
최고	182	201	223	255	273	245	282	262	265	255	213	192	2,462
평균	143	155	184	205	216	171	158	205	180	210	166	143	2,135

자료: 기상청(<http://www.kma.go.kr/>) 과거 관측 자료.

표 4 목포시의 최근 30년간(1981~2010년)의 평균 상대습도 변화

(단위 : %)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81	71.3	73.1	66.6	74.8	70.9	76.9	83.5	80.5	76.4	70.1	66.0	70.0	73.3
1982	73.2	70.1	69.1	71.4	75.9	72.8	79.4	80.0	69.6	72.9	65.8	66.4	72.2
1983	72.7	67.0	70.5	70.8	71.8	74.6	84.2	81.4	79.9	71.0	65.9	70.1	73.3
1984	61.8	68.7	62.0	73.8	74.6	81.8	87.8	82.2	77.8	69.8	72.4	74.1	73.9
1985	67.7	74.0	70.8	71.2	78.9	81.7	86.8	82.1	80.5	77.5	73.4	73.9	76.5
1986	72.4	70.2	73.7	65.9	72.9	80.9	86.8	80.2	80.6	73.9	65.7	70.7	74.5
1987	68.0	75.7	77.4	73.3	77.0	79.3	90.6	91.0	80.5	75.0	71.4	72.1	77.6
1988	69.3	71.0	67.5	68.0	70.1	79.5	80.2	76.3	73.0	64.3	66.4	68.0	71.1
1989	72.9	71.3	67.8	65.7	72.5	76.4	81.3	75.8	76.5	68.5	70.0	69.6	72.4
1990	65.2	71.0	69.9	65.4	74.1	78.5	81.1	76.5	78.9	70.7	73.2	67.9	72.7
1991	66.6	71.1	72.9	65.6	69.7	77.5	84.5	79.5	74.4	63.5	61.6	67.6	71.2
1992	67.9	67.1	71.7	67.2	70.3	71.9	83.0	77.0	73.3	65.0	63.3	65.6	70.3
1993	64.6	64.8	65.6	63.1	72.3	80.1	82.4	83.2	74.0	65.6	71.2	65.8	71.1
1994	65.7	66.5	60.8	62.3	69.0	74.0	74.4	73.7	62.6	63.0	64.4	63.2	66.6
1995	65.9	63.0	63.9	62.9	68.9	78.0	82.3	77.7	65.0	58.4	51.8	53.1	65.9
1996	54.3	58.8	54.9	54.5	55.1	76.6	80.8	74.2	71.6	67.8	65.0	70.4	65.3
1997	61.7	60.6	61.2	62.5	68.0	70.2	80.0	74.8	63.1	58.6	65.7	63.2	65.8
1998	64.3	63.5	61.6	74.2	66.9	69.2	67.6	78.6	74.5	69.1	63.7	60.3	67.8
1999	64.1	65.0	63.4	66.3	68.4	74.2	79.8	79.3	81.1	71.5	68.5	67.8	70.8
2000	70.1	65.5	65.5	61.3	71.2	78.4	82.2	78.5	80.1	68.6	65.2	62.5	70.8
2001	68.1	66.2	63.7	65.2	75.1	84.2	86.2	79.9	70.8	73.4	65.8	64.3	71.9
2002	72.0	67.4	67.3	70.2	81.3	76.9	91.9	86.4	74.7	66.0	64.7	72.7	74.3
2003	71.6	74.1	70.7	72.4	74.0	75.3	84.3	79.9	76.6	67.4	73.4	69.1	74.1
2004	71.7	65.2	62.5	63.7	76.1	75.1	82.2	76.7	76.9	66.3	70.1	66.1	71.1
2005	70.0	71.3	68.7	66.3	67.2	78.4	83.8	79.9	76.6	67.4	63.0	72.9	72.1
2006	71.0	68.5	64.6	70.9	76.9	78.6	85.6	78.6	74.7	73.3	65.0	69.2	73.1
2007	66.8	75.7	74.4	70.1	74.9	82.9	87.6	85.7	86.9	74.9	70.1	78.1	77.3
2008	74.2	66.9	74.0	73.4	76.5	85.2	88.1	83.1	78.9	73.2	74.0	73.8	76.8
2009	77.0	79.0	72.9	73.3	75.7	81.5	90.1	84.8	80.3	72.6	77.1	77.6	78.5
2010	80.1	77.7	78.3	73.7	79.9	83.6	91.7	90.5	84.0	78.1	74.0	76.2	80.7
최저	54.3	58.8	54.9	54.5	55.1	69.2	67.6	73.7	62.6	58.4	51.8	53.1	65.3
최고	80.1	79	78.3	74.8	81.3	85.2	91.9	91	86.9	78.1	77.1	78.1	80.7
평균	68.7	69.0	67.8	68.0	72.5	77.8	83.7	80.3	75.8	69.2	67.6	68.7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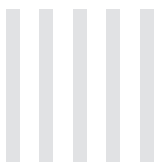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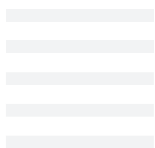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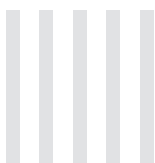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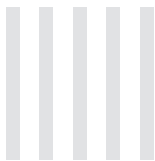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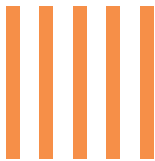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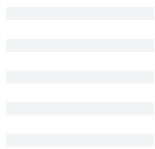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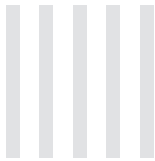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http://www.kma.go.kr/>) 과거 관측 자료.

표 5 최근 30년간(1981년~2010년)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발생 빈도

(단위 : 개)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81						2.0	1.0	1.0	1.0				5.0
1982							1.0	2.0	1.0				4.0
1983									1.0				1.0
1984							1.0	2.0					3.0
1985						1.0	1.0	2.0	1.0				5.0
1986						1.0		1.0	1.0				3.0
1987							2.0	1.0					3.0
1988													0.0
1989						1.0	1.0						2.0
1990						1.0	1.0	1.0	1.0				4.0
1991							1.0	2.0	2.0				5.0
1992								1.0	1.0				2.0
1993							2.0	1.0	1.0				4.0
1994							2.0	2.0		1.0			5.0
1995							1.0	1.0	1.0				3.0
1996							1.0	1.0					2.0
1997						1.0	2.0		1.0				4.0
1998									1.0	1.0			2.0
1999							2.0	1.0	2.0				5.0
2000							2.0	2.0	1.0				5.0
2001								1.0					1.0
2002						1.0	2.0	1.0					4.0
2003					1.0	1.0		1.0	1.0				4.0
2004						1.0	1.0	3.0					5.0
2005								1.0					1.0
2006							1.0	1.0	1.0				3.0
2007							2.0		1.0				3.0
2008							1.0						1.0
2009													0.0
2010								2.0	1.0				3.0
30년 평균					0.0	0.3	0.9	1.0	0.7	0.1			3.1
10년 평균					0.1	0.3	0.7	1.0	0.4	0.0			2.5

자료: 기상청 국가태풍센터(<http://typ.kma.go.kr/TYPHOON/index.jsp>) 태풍 발생 현황 자료.



제1절 목포 해양 환경의 특징

장진호 | 목포대학교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제4장 해양 환경

제1절 목포 해양 환경의 특징

1. 목포 바다의 범위

목포는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 위치하고,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에 속한다. 목포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영산강 하구, 북쪽으로 무안만이 위치하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신안군 압해도, 목포시 놀도, 달리도 등과 목포 신항만이 위치한다(〈그림 1〉 참조). 따라서 목포의 바다는 주로 영산강 하구와 무안만으로 이루어진 반폐쇄적 바다의 특징을 갖는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목포항의 항내 수면적은 41,096km², 내항의 수심은 4~12m 범위이며, 유속은 0.05~0.25m/s 범위이다.



그림 1 목포 해역 위성사진

2. 영산강 하구

영산강 하구는 목포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하구언에 의해 막혀 있다. 하구언은 농지 개발과 임해공단 건설을 위해 1978년에 착공되어 1981년에 완공되었으며, 하구둑의 높이는 19.5m, 길이는 2,458m이다. 영산강 하구는 폭이 1~2.5km, 길이가 7km, 주수로 방향이 북동-남서 방향인 반폐쇄적 만 형태의 하구이다(〈그림 2〉 참조). 하구의 수심은 대체로 10~15m 범위이며, 하구의 중앙부에서는 20m 이상의 깊은 수심을 보인다. 하구의 조석은 일조부등(diurnal inequality)이 뚜렷한 반일주조(semidiurnal tide)로 창조류의 최강유속은 0.9~1.4m/s, 낙조류의 최강유속은 0.8~2.1m/s로 창조류보다 낙조류가 강한 편이다.⁰¹⁾ 조차는 대조차가 3.77m, 소조차가 1.95m, 평균 조차가 2.81m이다. 조석 잔차류는 표층의 경우 1.0~4.5cm/s로 바다 쪽을 향하고, 저층의 경우 2.4~6.3cm/s로 육지 쪽을 향한다.⁰²⁾ 수온과 염분의 수직적 구조는 수직 혼합형 구조로 계절적 변화를 보여 여름에는 표층과 저층의 온도와 염분이 각각 7~8°C, 2~3%의 차이를 갖는 성층 구조를 보이는 반면, 가을과 겨울에는 차가운 담수 방류로 인해 성층 구조가 깨져 수직적 혼합이 일어난다.⁰³⁾ 농업기반공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하구둑의 수문을 통해 방류된 담수의 총량은 $1,155,613 \times 10^3$ 톤이었고, 방류 횟수는 총 103회였다. 따라서 월평균 8~9회의 담수 방류가 이루어지며, 담수 방류는 주로 홍수기인 여름(6~8월)에 집중된다. 하구역의 평균기온은 13.8°C로서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뚜렷하고, 월평균 풍속은 4.1m/s로 여름보다 겨울에 강한 바람이 불며, 전체 강수량의 65%가 여름(6~9월)에 집중된다. 하구 주변 지역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 복합체를 기반으로 하여 고생대 변성퇴적암류-변성평안층군과 이들을 관입하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의 화강암류가 높이고, 그 위를 백악기의 화산암류-퇴적암류가 부정합적으로 덮는다.⁰⁴⁾ 원래 영산강 하구 주변 지역은 갈수기와 밀물에 염수 피해가 컸던 곳으로 하구둑을 축조하면서 담수호와 간척지를 얻게 되었지만 물리적으로 영산강과 바다가 단절이 되면서 큰 환경 변화를 겪게 되었다.

01) KHOA(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국립해양조사원), *Tidal table(Korean Coast)*, 2006, 298쪽.

02) 김광수, 「목포항의 M2 조석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 『목포해양대학교 논문집』7-1, 목포해양대학교, 1999.

03) 박래환, 「영산강 하구의 해수유동 및 수온-염분 변화: 2000년 겨울과 여름」,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1.

04) 김용준·이창신·김희남·황인호, 「목포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화성암류의 암석화학과 지질시대」, 『한국지구과학회지』20-5, 한국지구과학회, 1999.



그림 2 영산강 하구를 보여주는 위성사진

1) 해수면 변화

1956년부터 2005년까지 50년 동안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월별, 연도별 조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극조차(연평균 고극조위와 저극조위의 고도 차이)는 하구둑이 건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a) 참조). 또한 월 고극조위를 평균하여 얻은 연평균 고극조위(annual mean highest tide level)는 하구둑이 완공된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총 64.4cm가 상승하여 연평균 2.8cm/y의 상승률을 보였고, 특히 하구둑 완공 직전과 직후인 1980년과 1983년 사이의 3년 동안에는 연평균 극조위가 44.3cm나 상승하여 연평균 14.8cm/y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b) 참조). 평균해수면(mean sea level)의 경우에도 하구둑이 완공되기 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구둑이 완공된 직후에 크게 상승하였고, 하구둑이 완공된 후부터 2004년까지는 총 10.1cm가 상승하여 연평균 4.6mm/y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그림 3-c) 참조). 그리고 고극조위는 대체로 겨울보다 여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d) 참조). 이러한 영산강 하구의 높은 극고조위 상승은 해안 저지대에 심각한 침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평균 해수면 상승률 또한 지난 100년간의 전 세계적 해수면 상승률(1~2.5mm)보다 두 배 이상 큰 수치로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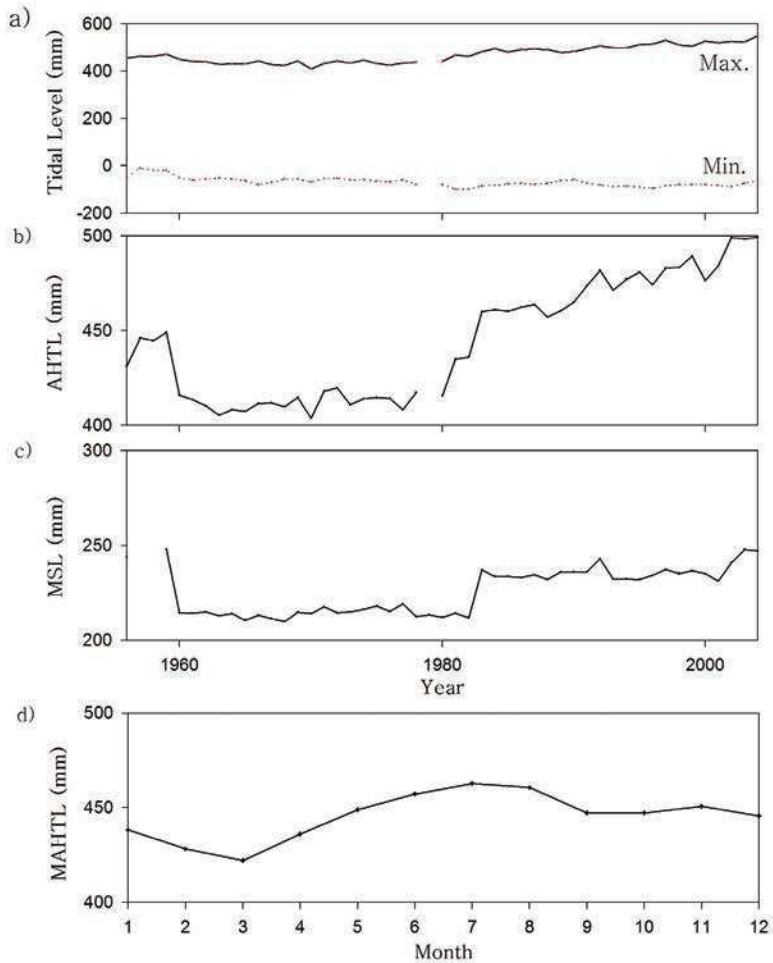


그림 3 영산강 하구의 해수면 변화
a)극조차의 연변화, b)고극조위의 연변화, c)평균해수면의 연변화, d)고극조위의 월변화.

2) 해저지형 및 수심 변화

2005년 음향측심기(Echo sounder 103)를 이용하여 용당부두에서 하구둑까지 100m 간격으로 설정된 항적라인을 따라 수심 측량을 실시한 결과, 조사 지역의 최고 수심은 25m 내외, 평균수심은 13.2m 이었다. 그리고 음향측심의 결과를 이용하여 영산강 하구의 해저 지형도를 복원한 결과, 영산강 하구의 해저 지형은 대체로 수로부, 수로 주변부, 해저 돌출부, 갯벌 지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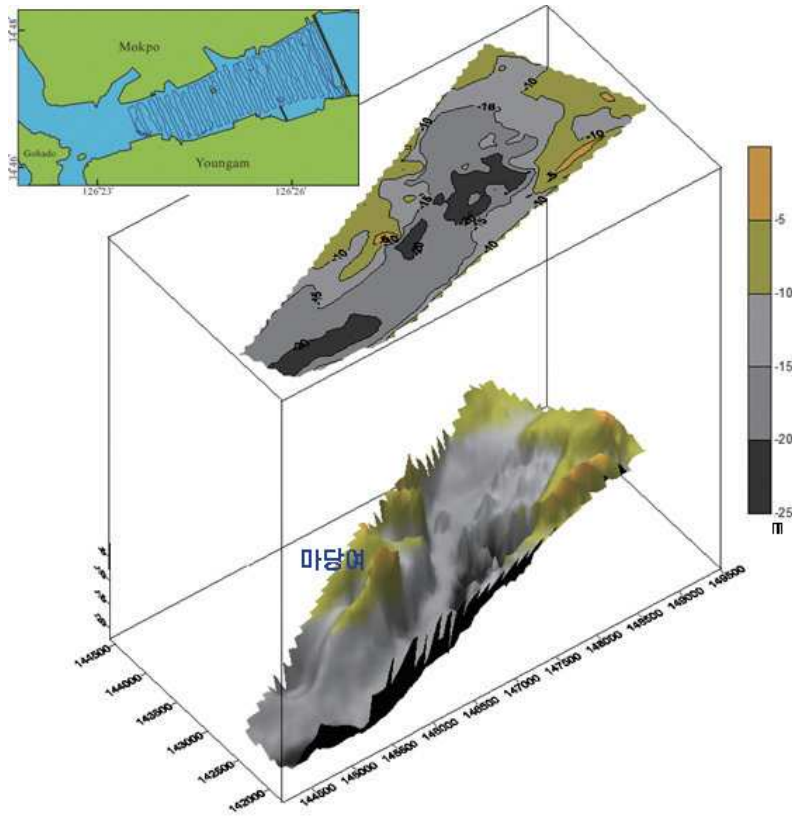


그림 4 2005년 정밀 수심측량을 통해 완성한 영산강 하구의 해저도

수로부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15~25m의 가장 깊은 수심을 보이는 지역으로 500~600m의 폭을 가지고 하구의 중앙부에서 남측 해안에 치우쳐 발달하고, 하구둑 앞까지는 연장되지 못하였다. 수로 주변부는 수로부와 인접한 수심 10~15m 지역으로 주로 하구의 북측 해안에 위치한 마당여 부근과 하구둑 부근에 넓게 분포하였고, 마당여와 같은 수심 10m 미만의 해저 돌출부는 주로 북측 해안의 중앙부와 하구둑의 수문(방류구) 주변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갯벌 지역은 조석 작용에 의해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지역으로 주로 하구의 남측 해안을 따라 발달하였다. 수심 측량 자료를 종합하여 3차원 지형도를 복원한 결과, 영산강 하구에는 마당여를 기준으로 북측과 남측에 2개의 수로(main channel)가 존재하였고, 마당여의 남측 수로가 북측 수로에 비해 수심이 깊고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수면 위로 작게 노출되는 마당여는 지도상에 표시된 규모와는 달리 해저에서는 100m의 폭과 1.5km의 길이를 갖는 비교적 큰 지형임을 알 수 있었다.

하구둑이 완공된 직후인 1982년과 그 후 21년이 지난 2003년의 해안선을 국립지리원의 「연안해역기본도」(1982)와 「수치지형도」(2003)를 통해 비교한 결과, 하구의 해안선이 평화광장을 포함한 하당 신도심, 준설투기장, 용당부두와 대불부두 등의 건설을 위한 매립공사로 인해 크게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 참조). 이들 개발 사업들로 인해 1982년에 약 14.00㎢이던 하구면적이 2003년에 12.47㎢로 감소함으로써 21년 동안 하구 전체 면적의 10.9%(1.53㎢)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영산강 하구의 해안선 변화

1981년 영산강 하구둑의 건설, 1995년 영암 및 금호 방조제의 축조, 그리고 하구 해안을 중심으로 한 각종 연안개발사업으로 인해 하구의 면적은 물론 하구의 수심도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연안해역기본도」, 2003년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행한 「해도」, 그리고 음향측심을 통해 완성한 2006년의 「수심도」를 이용하여 평균해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각각의 수심도를 완성하여 수치화한 후, 600여 개의 동일 격자점(100×100m)에 대한 수심을 읽고, 그 값들을 평균하여 해당 연도의 평균수심을 산출한 결과, 1982년, 2003년, 2006년의 평균수심이 각각 15.3m, 13.4m, 13.2m이었다(〈그림 6a, b, c〉 참조). 따라서 1982년부터 2006년까지 25년 동안 평균수심이 2.1m나 감소하였으며, 초기 21년 동안(1982~2003)에는 2.0m, 최근 3년 동안(2003~2006)에는 0.2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산강 하구에서 수심이 크게 감소한 까닭은 영산강 하구둑 건설 이후 영산강 하구에 많은 퇴적물이 쌓였기 때문이다.

1982년과 2003년의 격자수심을 비교한 결과, 이 기간 동안 하구 전역에서 퇴적이 우세하여 용당부두와 대불부두 사이, 대불부두와 하구둑 수문 사이, 그리고 평화광장 주변의 조하대 구역에서는 최

고 4~6m 정도의 높은 퇴적이 일어난 반면, 마당여 근처의 일부 수로부에서는 침식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a, b 참조). 그리고 2003년과 2006년 사이에는 마당여 근처와 하구둑 근처의 수로 주변부, 준설투기장 근처의 조하대 그리고 용당부두와 대불부두 사이의 갯벌 지역에서 침식이 일어났고, 그 외의 넓은 지역에서 퇴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7c, d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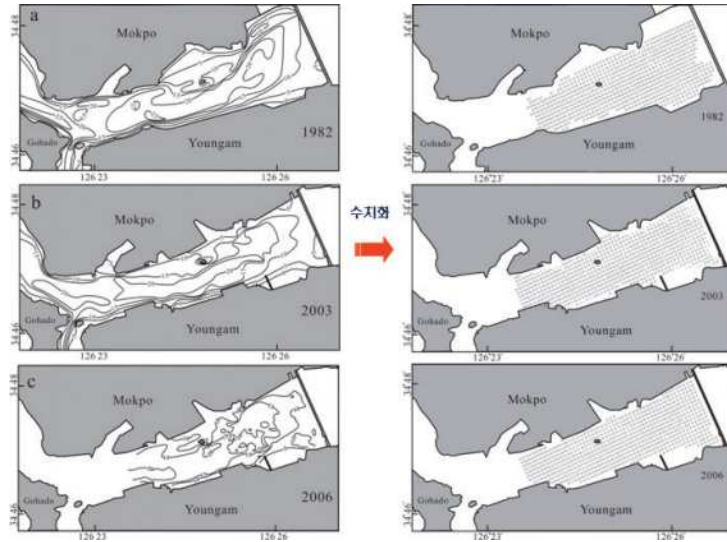


그림 6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영산강 하구의 수심도와 격자 수심값
a) 1982년, b) 2003년, c)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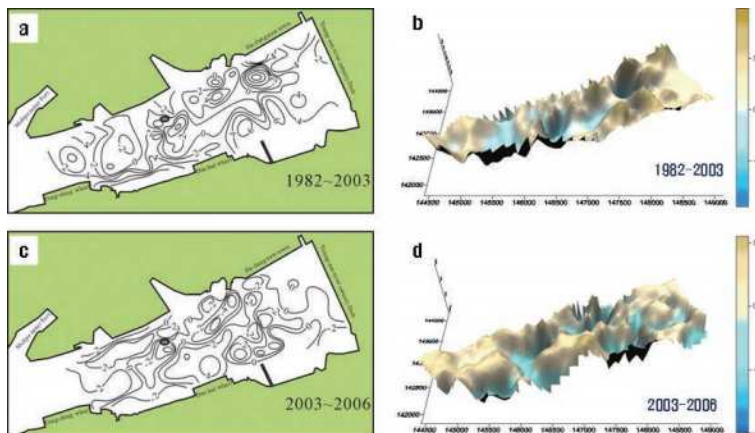


그림 7 하구둑 건설 이후 퇴적 및 침식 두께의 분포도
a) 1982~2003년 동안의 2차원 분포도, b) 1982~2003년 동안의 3차원 분포도,
c) 2003~2006년 동안의 2차원 분포도, d) 2003~2006년 동안의 3차원 분포도.

3) 해수 유동

목포 바다의 해수 유동은 목포 주변의 섬들과 복잡한 해안선으로 인해 복잡한 흐름 양상을 보인다. 밀물 때 화원반도의 서측 수로에서 북상하던 물이 압해도, 눌도, 달리도, 화원반도 사이의 수로를 통과하게 되면 그 물은 대부분 북상하여 무안만으로 들어가고, 그 물의 일부, 즉 달리도의 남측 수로를 통해 유입되어 북상하는 물의 일부만이 고하도 북측 수로에서 우측으로 돌아 목포항과 영산강 하구로 유입된다(〈그림 8좌〉 참조). 그리고 썰물 때에는 그 반대로 물 흐름이 진행된다(〈그림 8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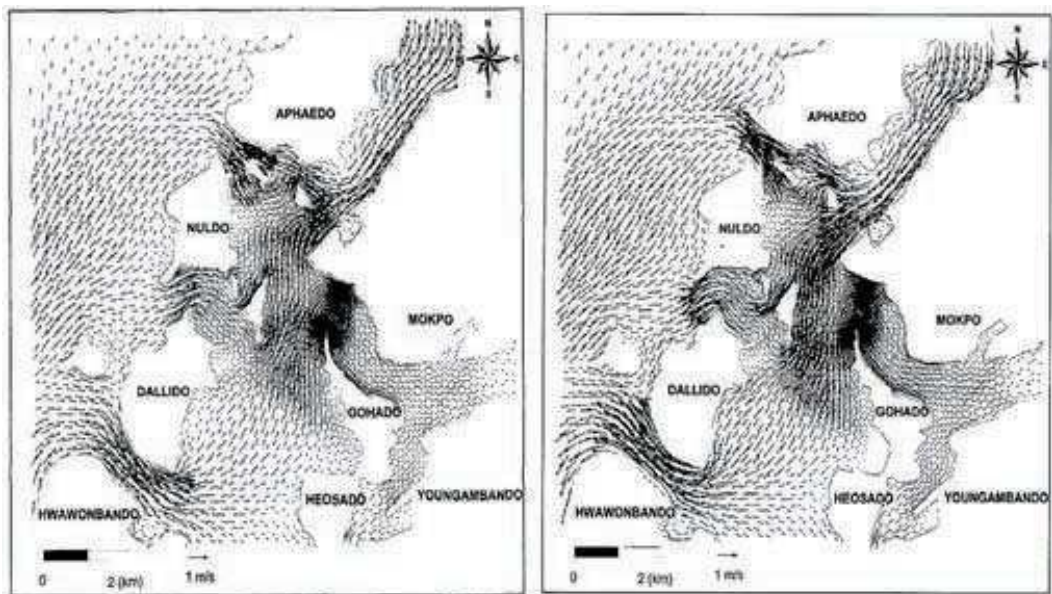


그림 8 목포 해역 주변의 대조기 최대 창조 흐름(좌)과 낙조 흐름(우)

출전: 정태성 외, 「목포해역의 해수유동 및 담수확산 예측시스템」,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11-1,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8, 13~23쪽.

영산강 하구에서는 하구둑을 통한 담수 방류 여부에 따라 물 흐름이 달라진다. 하구둑에서 담수가 방류될 때에는 배수갑문 인근에서 강한 유속이 발생하여 하구의 표층 유속이 전반적으로 0.5m/s 이상 증가하고(〈그림 9a〉 참조), 저층에서는 하구둑 부근에서만 강한 유속이 발생하고, 배수 갑문 북측의 표층에서 시계 방향의 와류가 형성된다(〈그림 9b〉 참조). 하구둑에서 담수가 방류되지 않을 때에는 썰물 때 고하도 북측 수로에서 0.2m/s 이상의 비교적 강한 표층 흐름을 보일 뿐 전반적으로 매

우 약한 흐름을 보이며, 썰물이 밀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유속을 보인다(그림 9c, d, e, f) 참조). 2011년 8월의 수직 잔차류는 표층에서는 외해로 향하고, 중층과 저층에서는 하구둑으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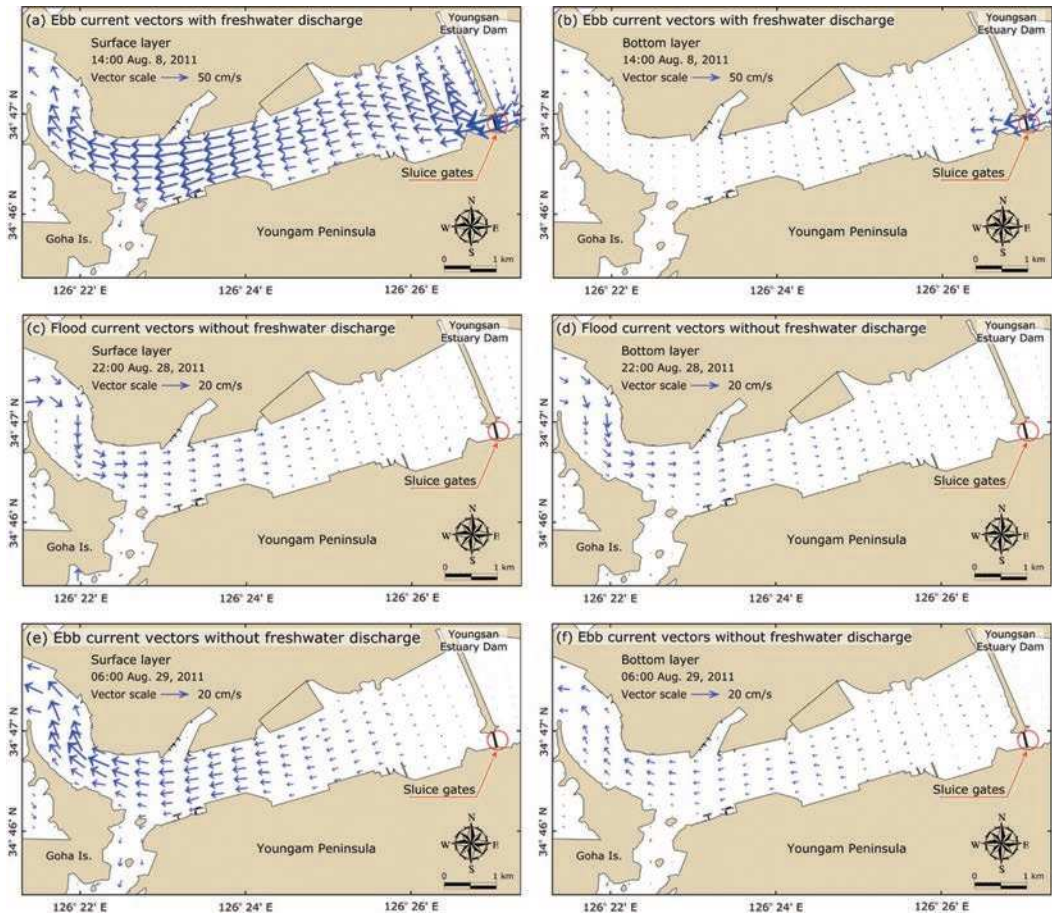


그림 9 담수 방류 유무에 따른 영산강 하구의 표층수와 저층수의 흐름 특성

- a) 담수방류 때 표층의 밀물 유속벡터, b) 담수방류 때 저층의 썰물 유속 벡터
- c) 담수 방류가 없을 때 표층의 밀물 유속 벡터, d) 담수 방류가 없을 때 저층의 밀물 유속 벡터,
- e) 담수 방류가 없을 때 표층의 썰물 유속 벡터, f) 담수 방류가 없을 때 저층의 썰물 유속 벡터.

출전: 방기영 외, 「영산강 하구의 2011년 하계 홍수시 퇴적물 이동 수치모의」, 「한국해양-해양공학회는문집」, 25-2, 한국해양-해양공학회, 2013, 76-93쪽.

4) 해저 퇴적물

2005년 하구 퇴적물의 평균 입도 조성은 자갈 2.7%, 모래 4.7%, 실트 46.8%, 점토 45.9%로 전체 퇴적물의 90% 이상이 실트와 점토로 구성된 세립 퇴적물이다(〈그림 10〉 참조). 하구 퇴적물의 평균입도는 7.81 ϕ (-3.5~10.1 ϕ)로서 극세립실트(very fine silt)에 해당하고(〈그림 11〉 참조), 퇴적물의 유기물 함량은 평균 6.8%로서 주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영산강하구에서 평균입도가 가장 세립한 곳은 가장 깊은 하구 중앙부의 수로 부근(8~10 ϕ)이고, 가장 조립한 곳은 담수 방류구, 마당여, 몽하도 주변 등 빠른 유속과 해안 침식에 의해 자갈과 모래가 분포하는 곳이다(〈그림 11〉 참조). 하구 퇴적물 내 유기탄소의 함량은 0.61~1.39%(평균 1.07%)로 금강 하구나 서해안 조간대 퇴적물에서 보고된 값보다 높다.⁰⁵⁾ 하구 퇴적물의 중금속 함량은 우리나라 연안 퇴적물에서 보고된 것에 비해 철, 크롬이 약간 높고, 나머지 금속은 비슷한 수준이며, 퇴적물의 입도와 양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망간, 구리, 아연 및 납의 경우 망간은 영암반도의 북서부 해역에서, 구리와 아연은 목포항 주변 해역에서, 납은 목포항 연안과 화원반도 주변에서 높은 함량을 보인다.⁰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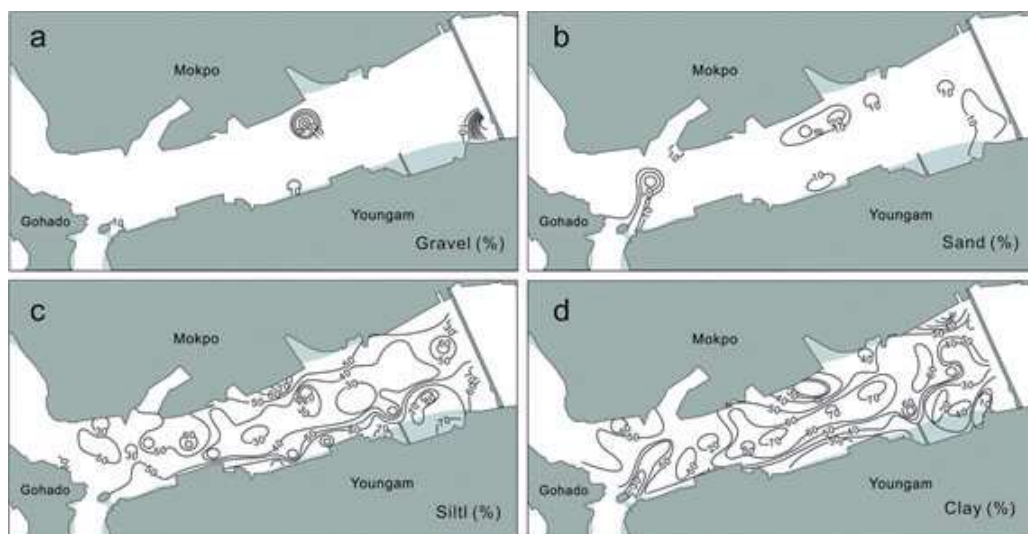


그림 10 2005년 영산강 하구의 퇴적물 분포도
a) 자갈 분포, b) 모래 분포, c) 실트 분포, d) 점토 분포.

05) Lee, C. B., H.R. Yoo and K.S. Park, "Distribution and properties of intertidal surface sediments of Kyeonggi Bay, west coast of Korea", *J. Oceanol. Soc. Korea* 27, 1992; 조영길·이창복·박용안·김대철·강효진, 「황해 동부 대륙붕과 한반도 서해안 표층퇴적물의 지구과학적 특성」, 『한국제4기학회지』7, 한국제4기학회, 1993.

06) 조영길·박경양, 「영산강 하구 표층퇴적물의 중금속 함량 및 분포」, 『한국환경과학회지』7-4, 한국환경과학회,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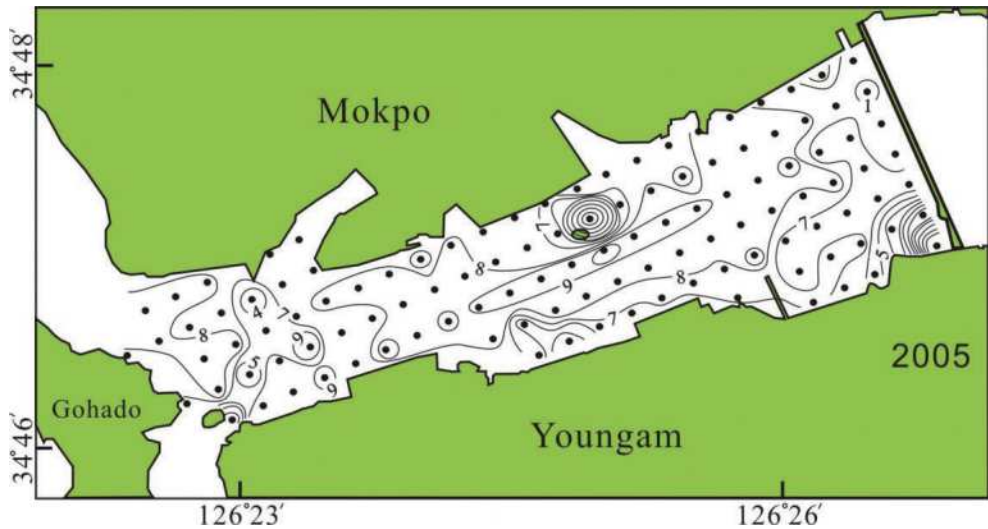


그림 11 2005년 영산강 하구 퇴적물의 평균입도 분포도(단위: Ø)

1981년에 완공된 영산강 하구둑과 1996년에 완공된 영암-금호 방조제, 그리고 하구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연안개발사업으로 인해 영산강 하구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82년부터 2006년까지 하구면적의 약 11%(1.53km²)가 감소하였고, 수심은 세립퇴적물의 급격한 퇴적으로 인해 2.14m나 감소하였으며, 평균해수면과 연평균 극조위는 각각 18cm와 63cm나 상승하였다. 하구 퇴적물 또한 크게 변화하여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자갈과 모래가 각각 5.4%, 12.0% 감소한 반면, 실트와 점토는 각각 3.3%, 14.1% 증가하여 평균입도가 2.75Ø나 세립해지고, 유기물 함량은 2.0%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5~2008년 사이에는 실트 증가, 점토 감소, 유기물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표 1〉 참조). 따라서 이들 세립퇴적물의 유기물 분해에 따른 영산강 하구수의 산소결핍이 우려되며, 급격한 해수 수용공간의 감소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저지대의 침수피해도 우려된다.

표 1 영산강 하구 퇴적물에 대한 1997-2005년·2008년의 입도조성 비교표

연도	시료 수	자갈(%)	모래(%)	실트(%)	점토(%)	유기물(%)
1997	30	8.1	16.6	43.5	31.8	4.8
2005	116	2.7	4.6	46.8	45.9	6.8
2008	29	0.3	3.3	57.8	38.6	6.1

5) 해양생물

영산강 하구는 해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저층 빈산소 수괴가 형성된다.⁰⁷⁾ 이런 저층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는 곳에서는 특정 이매패류 중(*Theora fragilis*)이 극우점하고, 다모류 종들(*Tharyx* sp. 및 *Lumbrineris longifolia*)도 우점적으로 출현한다.⁰⁸⁾ 목포항에서 달리도 사이의 해역에서는 이매패류 중(*Theora fragilis*, *Raetellops pulchella*)과 다모류 종(*Tharyx* sp.)이 우점적으로 출현하고, 영산강 하구에 비해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영산강 하구역의 빈산소 수괴가 저서동물이 완전히 폐사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여름철 저서동물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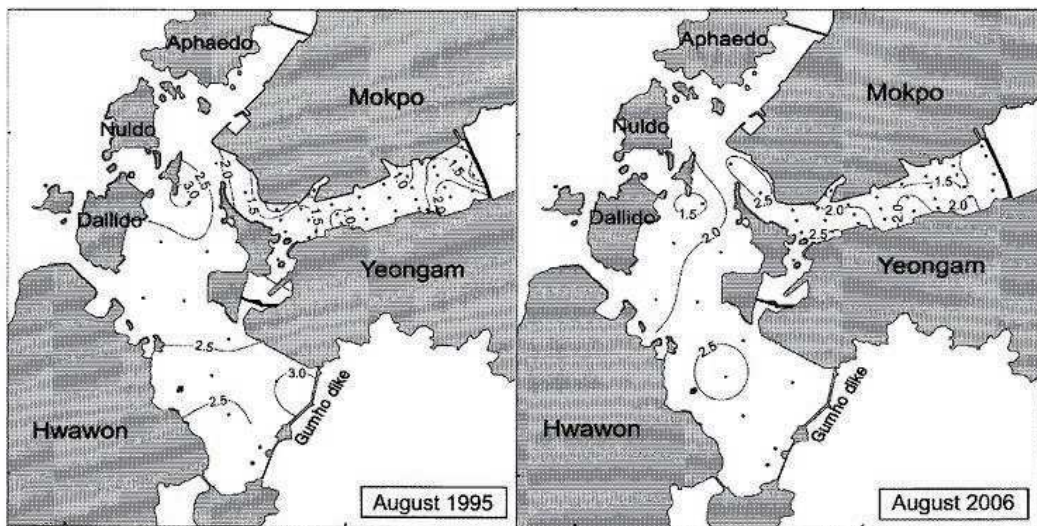


그림 12 1995년과 2006년 영산강 하구에서 대형 저서동물의 종 다양도에 따른 공간분포
출전: 임현식 외, 「영산강 하구역 저서동물 군집구조의 10년 전후 변화」, 『한국해양학회지-바다』16-4, 한국해양학회, 2011, 254~267쪽.

영산강 하구역에서 하구둑 축조 이후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저서동물 군집의 변화를 살펴보면, 저서동물의 출현종 수와 밀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그림 12〉 참조). 다모류의 경우 1995년 67종에서 2006년 48종으로 감소하였고, 연체동물의 경우 31종에서 22종으로 감소하였으며, 갑

07) 임현식·박경양, 「영산강 하구역의 연성저질에 서식하는 저서동물 군집」, 『한국수산과학회지』31-3, 한국수산학회, 1998.

08) 같은 논문.

각류, 극피동물, 기타분류군의 출현종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⁰⁹⁾ 그리고 출현밀도는 다모류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체동물과 갑각류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반폐쇄적인 영산강 하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유기물의 축적과 퇴적, 그리고 하구둑 준설 및 부두 건설과 같은 인위적 영향들이 우점종들의 분포와 밀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영산강 하구의 난자치어 분포는 수온, 염분, 클로로필a와 같은 환경적인 인자보다 수문 개방에 따른 담수 유입과 같은 인위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3. 무안만

무안만은 무안반도와 압해도에 의해 둘러싸인 반폐쇄적 만으로 폭이 최대 약 8km, 길이는 약 21km로서 남-북 방향으로 길게 발달한다(〈그림 13〉 참조). 만의 서측과 남측에 각각 폭 1km 내외로 좁고 긴 만 입구(bay mouth)가 발달하는데, 서측의 만 입구는 탄도만과 압해도-매화도 수로를 따라, 그리고 남측의 만 입구는 외해와 연결되는 목포구와 연결된다. 수심은 서측 만 입구에서 약 16m, 남측 만 입구에서 약 27m로 깊고, 동측과 북측으로 가면서 얕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갯벌(tidal flat)은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으로 발달하는 주조류로(main tidal channel)의 측면을 따라 넓게 분포하며, 만 전체 면적의 약 60%를 갯벌이 차지한다. 무안만은 김, 패류, 낙지 등의 생물 생산성이 높은 곳이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영산강유역 종합개발사업에 의해 영산강 하구둑이 축조되고, 해안을 따라 크고 작은 많은 방조제가 건설되고 갯벌이 매립되면서 무안만의 해양 환경이 크게 변하였다.

1) 해수 유동 및 수질 특성

무안만의 조류는 서측 만 입구에서 밀물 때 남동 방향(120°), 썰물 때 북서 방향(300°)으로 흐르고, 남측 만 입구에서는 밀물 때 북쪽 방향(360°), 썰물 때 남쪽 방향(180°)으로 흘러 조류의 방향이 만 입구의 발달 방향과 일치되어 나타난다(〈그림 14〉 참조). 조류의 최강 유속은 서측 만 입구에서 밀물 때 40.3cm/s , 썰물 때 54.0cm/s 이며, 남측 만 입구에서 밀물 때 77.5cm/s , 썰물 때 109.8cm/s 이다. 따라서 무안만에서는 서측 만 입구보다, 남측 만 입구에서 조류가 강하며, 또한 밀물보다 썰물이

09) 임현식·서충현, 「영산강 하구역 저서동물 군집구조의 10년 전후 변화」, 『한국해양학회지-바다』16-4, 한국해양학회, 2011.

10) 김진구·최정일·장대수·나종태·김용역, 「영산강 하구역 주변해역의 난자치어 분포」, 『한국수산과학회지』36-5, 한국수산학회, 2003.



그림 13 무안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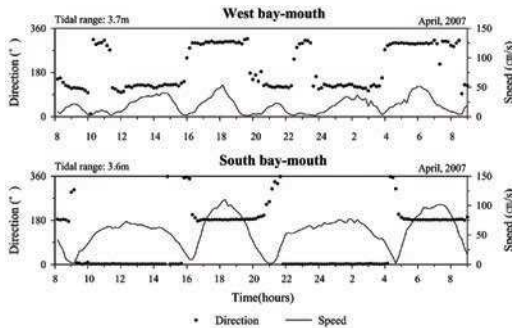


그림 14 2007년 무안만 입구에서 관측된 조류의 유속과 방향
출전: 류상옥 외, 「조석환경 변화에 의한 표층퇴적물의 시공간적 변화」,
『한국해양학회지-바다』14-1, 한국해양학회, 2009, 10~21쪽.

강한 특징을 보인다(〈그림 14〉 참조). 조석 시간은 서측 만 입구에서 밀물 때 약 8시간, 썰물 때 약 4시간 30분 지속되고, 남측 만 입구에서 밀물 때 약 7시간 30분, 썰물 때 약 5시간 지속되어 물이 천천히 들어와서 빨리 나가는 조석시간의 비대칭 현상을 보인다.

무안만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홍수기에 만 안쪽과 만 입구에서의 수질의 변화가 발생한다. 즉 만 안쪽에는 3개의 방조제(창포, 복길, 구일)가 있는데 홍수기에 수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면 다량의 담수가 유입되어 만 안쪽에서 일시적인 염분 감소와 부유물질의 증가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¹¹⁾ 만 입구 쪽에서는 영산강 하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장마 기간 동안 많은 강수로 인해 영산강 하구둑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면 많은 양의 담수가 무안만 남측 수로를 통해 유입되어 만 내에서 저염분 현상과 다량의 영양염류 유입에 따른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퇴적물 분포

2007년 무안만에 분포한 퇴적물은 5개의 퇴적물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넓게 분포하는 퇴적물 유형은 펄(M), 자갈모래질 펄(gsM), 펄모래질 자갈(msG), 자갈펄질 모래(gmS), 모래질 펄(sM) 순이다. 이들의 분포양상이 〈그림 15〉에 제시되어 있다. 펄(M)은 주조류로(main

11) 이대인·조현서·이규형·이문옥, 「무안반도 연안수질의 시·공간적 변동과 소규모 방조제의 영향」,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6,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3; 지성·신용식·서호영, 「청계만 식물플랑크톤 크기 구조의 계절적 변동」, 『한국해양학회지-바다』13, 한국해양학회, 2008.

tidal channel)를 포함한 무안만의 대부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자갈모래질 펄(gsM)은 서측과 남측의 만 입구, 주조류로와 조간대의 일부 지역에 비교적 넓게 분포한다. 펄모래질 자갈(msG)은 서측과 남측 만 입구, 그리고 만 내 주조류로와 동암리 조간대의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자갈펄질 모래(gmS)는 동암리, 구로리, 왕산리 및 압해도 조간대의 일부 지역에, 그리고 모래질 펄(sM)은 주조류로와 구로리 및 동암리 조간대의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2007년의 무안만 표층 퇴적물은 1998년에 비해 자갈과 모래 등 조립한 퇴적물이 증가하였고, 실트가 감소하였다. 퇴적물의 평균입도는 6.2 ϕ 에서 5.8 ϕ 로 조립해지는데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만조선 부근에서 잘 나타났는데, 특히 동암리, 구로리, 압해도 갯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만조선 주변 퇴적물의 조립화 현상은 일차적으로 하구둑 및 방조제 건설로 인한 썰물 우세의 조류 비대칭성 증가, 고극조위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해안 침식의 결과로 보이며, 서측 만 입구에서 세립한 퇴적물이 증가하는 현상은 인공 구조물(교각) 건설에 따른 조류의 유속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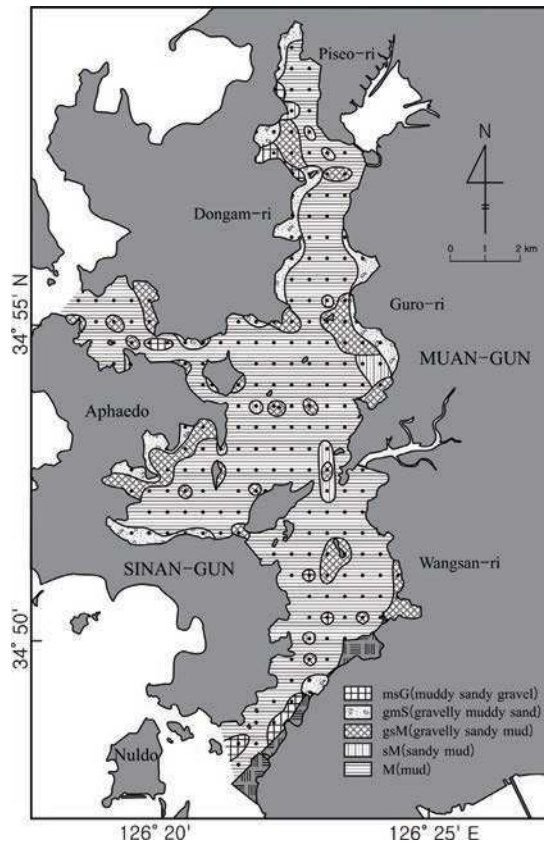


그림 15 무안만 표층퇴적물의 분포

3) 해양 생물

무안만의 담수 유입과 폐쇄적 해역 특성은 식물플랑크톤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안만의 식물플랑크톤은 총 7개 분류군(규조류, 와편모조류, 은편모조류, 남조류, 황금색편모조류, 유글레나류, 녹조류)으로 구성되며, 규조류가 극우점하는 특징을 보인다(〈그림 16〉 참조). 대형 식물플랑크톤이 우점하는 시기에는 규조류가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소형 식물플랑크톤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규조류가 감소하고 와편모조류, 은편모조류, 녹조류, 남조류의 비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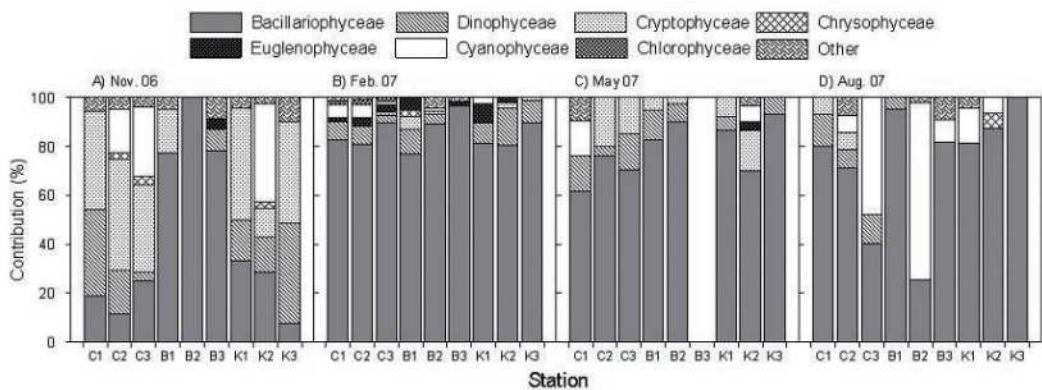


그림 16 무안만 표층수에서 식물플랑크톤의 군집구조

출전: 정병관 외, 「청계만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개체수의 계절적 변동」, 『한국환경과학회지』21-3, 한국환경과학회, 2012, 313-326쪽.

무안만은 인근에 영암호, 영산호, 금호호 등의 대규모 간척지가 위치하고 있어 수조류의 번식 및 서식지로 이용된다. 또한 북쪽의 무안군 해제면, 현경면 일대 35.59km²는 무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물새류가 도래해서 서식할 수 있도록 보호, 관리되고 있다.¹³⁾ 무안만의 동암갯벌에서는 섬금류와 갈매기류의 이용률이 높았고, 구로 갯벌에서는 논병아리류, 수면성 오리류, 잠수성 오리류의 이용률이 높았다. 동암 갯벌의 이용률이 높은 섬금류 중 주요 우점종은 민물도요와 큰뒷부리도요이며, 민물도요의 주요 먹이는 연체동물, 갯지렁이, 옆새우류 등이다. 무안만 구로 갯벌의 주요 우점종은 흰

12) 정병관·지성·신용식, 「청계만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개체수의 계절적 변동」, 『한국환경과학회지』21-3, 한국환경과학회, 2012.

13) 국토해양부, 「해양부 고시 제2001-109호」, 2001.

죽지, 흑부리오리이다(〈그림 17〉 참조). 무안만 갯벌은 전라남도 주요 철새 도래지 7개 지역 중에서 순천만, 보성-득량만 다음으로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된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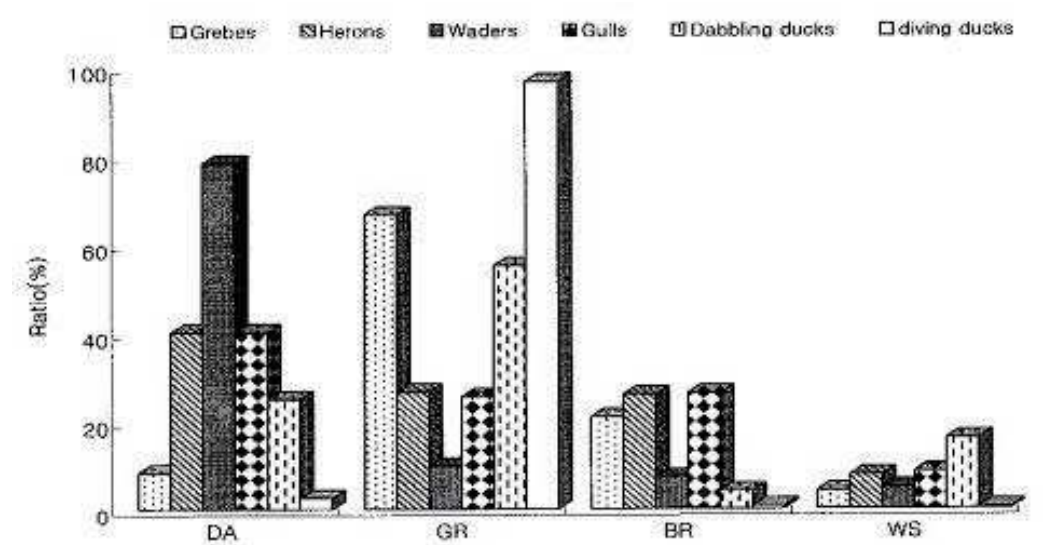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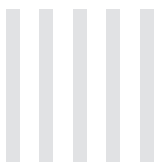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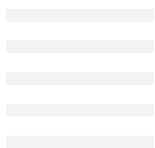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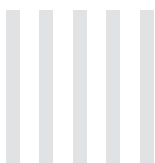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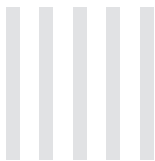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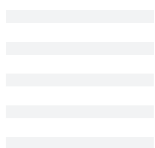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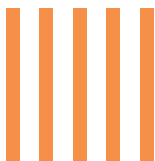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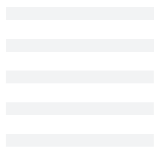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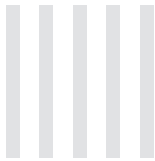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그림 17 무안만의 수조류 그룹과 서식지 이용의 상대적 비율(DA: 동암 갯벌, GR: 구로 갯벌, BR: 복룡 갯벌, WS: 왕산 갯벌)
출전: 강태한 외, 「전라남도 무안만에 도래하는 수조류의 서식지 이용 및 갯벌등급 평가」, 『한국환경생태학회지』22-5, 한국환경생태학회, 2008, 521~529쪽.

장진호 | 목포대학교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14) 강태한·유승화·이시완·최옥인·이종빈, 「전라남도 무안만에 도래하는 수조류의 서식지 이용 및 갯벌등급 평가」, 『한국환경생태학회지』22-5, 한국환경생태학회, 2008.



제1절 목포의 생태 경관과 갯벌

홍선기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2절 목포의 철새와 동식물상

양효식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제5장 생물상

제1절 목포의 생태 경관과 갯벌

1. 자연환경

목포시는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하며, 북동쪽으로는 무안군, 북서쪽으로는 서해안의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신안군, 남동쪽은 영산강 하구둑을 가로질러 영암군, 남서쪽은 바다를 사이에 둔 해남군과 맞닿아 있으며 총면적은 46.01km²이다.

목포지방은 한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하여 전반적으로 하계에는 해양성기후, 동계에는 대륙동안형 기후대로 크게 온대동계건조기후대(Cwa)와 한대동계건조기후대(Dwa)로 구분할 경우 Cwa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연평균 강수량은 1,111.5mm, 일 최대 강수량은 394.7mm(1981년 9월 2일), 1시간 최대 강수량은 54.3mm(1979년 9월 17일), 연간 강수일수는 119일, 눈이 내리는 날은 연간 29일이다. 연평균 기온은 13.6°C, 일 최고기온 37.0°C(1994년 7월 24일), 일 최저 기온 -14.2°C(2015년 1월 13일), 최고 기온이 30°C가 넘는 날은 연간 37일, 최저 기온이 0°C이하인 날은 연간 60일이다. 연평균 풍속은 4.3%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여름에는 SW풍, 겨울에는 NW풍이 탁월하며, 겨울철 찬 대륙성 고기압 확장 시에는 돌풍 현상과 소낙성 눈이 자주 내리고 있다.

무안반도 남단에 위치한 목포시는 동쪽에 입암산(笠巖山, 121m), 서쪽에 유달산(儒達山, 228m), 북쪽에 양을산(陽乙山, 156m), 대박산(大朴山, 156m), 지적봉(芝積峰, 189m) 등으로 둘러 싸여 있고 남쪽은 영산강 하구에 면해 있다. 또한, 그 주위에 13개의 도서가 넓게 펼쳐져 있어 경치가 아름답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방파제 구실을 하여 천연적인 양항의 조건을 보인다. 시가지의 서남쪽에 병풍을 둘러놓은 듯 기암절벽이 펼쳐진 유달산은 고려 시대인 1351년(충정왕 3)에 봉수대가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때 군량미가 쌓여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일명 노적봉(露積峰)이 있으며, 영산강·삼학도(三鶴島)와 함께 이곳 사람들의 시정(詩情)을 돋우는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다.

2. 목포의 산

목포시에는 입암산, 서쪽에 유달산, 북쪽에 양을산·대박산, 지적봉, 부주산(141m) 등 200m 내외의 작은 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가벼운 산책용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근린공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산책로가 개발되었고, 둘레길이 조성되어 목포 시민들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고하도를 비롯하여 주변 도서에도 작은 야산이 있어서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의 산은 유달산이나 입암산처럼 대부분 화강암이 발달한 지역이라 상록활엽수림이나 낙엽활엽수 등 토양층이 발달한 지역에 서식하는 식생보다는 곰솔(흑송, *Pinus thunbergii*)이나 소나무(*Pinus densiflora*), 혹은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같은 상록 침엽수가 발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이 2차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리기다소나무와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같은 수입 속성수가 우점하고 있다. 곰솔은 우리나라 산지와 해안가 도서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상록 침엽수이다. 특히 염해에 강하게 적응하기 때문에 섬 지역과 해안가에 많이 식재하여 서식하고 있다. 도서 연안의 침식 예방과 방풍을 위하여 옛날부터 곰솔을 많이 식재하여 왔다. 현재도 대부분의 목포 지역 연안이나 섬 마을 해안에 남아 있는 노거수 곰솔은 과거 조성된 방풍림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곰솔림을 제외하고는 주변 지역의 숲은 졸참나무, 상수리나무와 같은 참나무 계통의 낙엽활엽수가 분포하고 있다. 최근 조림목으로 서남권 자생종인 후박나무와 같은 상록활엽수를 식재하고 있다.

관목층으로는 팽나무, 개웃나무, 예덕나무, 사스레피나무, 아까시나무, 졸참나무, 청미래덩쿨, 산초나무, 진달래, 붉나무, 상수리나무, 오미자나무, 갈참나무, 산딸기나무, 팽나무, 찰, 담쟁이덩쿨이 우점하였다. 특히 사스레피나무는 서남해 곰솔림의 관목층 우점 수종으로 대표적인 것이다.

초본으로는 대체로 역새, 맑은대쭉, 마삭줄, 명석딸기, 사위질빵, 개요등, 송악, 개고사리, 산딸기, 이대, 민들레, 쑥, 팽이밥 등이 우점한다. 특히 산딸기, 명석딸기, 사위질빵, 청미래덩쿨, 담쟁이덩쿨 등 덩쿨성 식물과 가시 식물 등은 숲 외부에 주로 번식하여 인간이 숲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

3. 목포의 섬과 갯벌

시가지 주변의 영산강 하구에는 연동·북항·대반동·백련동·갯바위 해안 등의 간석지가 있다. 이들

간석지는 육상으로부터의 계속되는 퇴적과 바닷물의 유입 횟수가 줄면서 정착하게 된 염생식물 덕분에 퇴적물의 집적과 간척이 용이해져 농경지, 주택지, 공장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영산강 유역은 강수의 편의율(偏倚率: 치우치는 정도)이 대단히 커서 매년 상습적인 한해(旱害)·홍수 등의 피해가 빈번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영암군 삼호반도(三湖半島)와의 사이에 하구둑이 축조되어 영산강은 영산호로 변하였다. 해안선 길이는 66.9km이다.

목포는 고하도(高下島), 울도(栗島, 눌도(訥島)라고도 함), 달리도(達里島), 외달도, 삼학도, 장도(장좌도), 허사도의 7개의 유인도와 3개의 무인도를 포함하고 있다.

1) 유인도

(1) 달리도

달리도는 목포항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 고하도와 함께 목포의 서남풍을 막아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섬이다. 이곳은 목포와 가까운 안좌도와 비금·도초 등을 왕복하는 여객선부터 멀리 제주도와 홍도·흑산도를 운행하는 배들과 화물선, 어선들이 지나가는 배들의 통로가 되는 곳이다. 목포시에서 서쪽으로 5.6km 떨어진 해상에 있다. 주위에는 눌도·고하도·외달도·장좌도 등이 있다. 섬 모양이 반달과 같다 하여 달동이라 부르다가 달리로 바뀌었다. 원래 무안군에 속했다가 1963년 목포시 충무동으로 편입된 후, 1966년 현재의 행정구역인 달동이 됐다.

달리도는 충무동의 유인도 6개 가운데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 섬이다. 1구와 2구의 두 마을로 이루어진 달리도는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5백여 명의 주민이 사는 섬이었다. 그러나 너도나도 물으로 떠나면서 인구가 급감했다. 주민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서 갯벌에서 각종 먹을거리를 채취한다. 재래식 염전에서 천일염을 만들거나 양식업을 하기도 한다. 섬 서쪽에 솟은 사재산(139m)과 금성산(139m)의 줄기가 남북으로 뻗어 있고,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낮은 평지를 이룬다. 개펄이 넓게 펼쳐진 해안은 간척하여 농경지와 염전으로 이용한다.

달리도에는 해양 무척추동물 28종이 서식한다. 굽은줄격판담치, 거북손, 검은큰따개비, 담황줄말미잘, 대수리, 갈고둥 등 남해안 일반종이 출현하고, 해조류는 7종으로 구멍갈파래, 툯, 미역, 지층이 등이 서식한다. 식물은 85종으로 굴참나무군락, 북쪽의 상록수군락, 남쪽 능선의 소나무 군락이 형성되고 있다. 굴참나무, 광나무, 사스레피나무, 소사나무, 억새 등이 동반 수종으로 출현한다. 곤충 우점종은 애꽃벌류이며, 환경부 고유종인 산바퀴와 특정종인 홍다리파리매가 관찰된다.

(2) 외달도

외달도는 면적 0.42㎢, 인구 80여 명(2013년), 해안선 길이 4.1km, 최고점 62m이다. 목포항에서 서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해상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으로 1km 가량의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달리도와 마주본다. 목포항에서 출발하는 차도선 신진페리호는 순회 관광선으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이 되어 고하도, 달리도, 외달도, 울도 등을 빙 돌아온다. 시간은 물때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 있는데 목포에서 외달도까지는 짧게는 45~55분 정도 걸린다. 원래는 달동에 속하였으나 1966년 동제 변경에 따라 충무동으로 편입되었다. 해안선이 단조롭고, 북서쪽에 비교적 넓은 농경지가 있어 약간의 쌀, 보리, 콩, 고구마 등을 산출한다. 근해는 조류가 빨라서 어로가 어려우므로 해안에서 돌김, 파래, 미역 등을 채취하며 김을 양식한다. 백사장이 넓게 펼쳐진 서북쪽 해안가는 1925년부터 해수욕장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 목포항 여객터미널에서 1일 5~6회 배가 운항된다. 작은 섬이지만 이 섬의 서북쪽 해안에는 해수욕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매봉산(해발 62m)이 있다. 2004년 개장된 인공풀장이 있고 주변 소나무숲과 함께 섬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섬이다. 목포시가 몇 년 전부터 8,000여 평에 봄꽃(유채, 꽃양귀비)과 여름꽃(황화코스모스, 수레국화, 풍접초, 인동초, 넝쿨장미)씨를 파종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3) 고하도

동경 126°21′, 북위 34°40′에 위치하며,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1.2km 지점에 있다. 면적은 2.35 ㎢이고, 해안선 길이는 10.7km이다. 고하도 남쪽의 장구도와 허사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섬으로 되었다. 2012년에 고하도와 북항을 연결하는 목포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다.

지질은 대부분 산성화산암류로 이루어졌으며, 섬 전체가 낮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목포시를 마주보는 북동 사면은 단애를 이루고 있으나, 남서 사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해안에 이어진다. 섬의 남쪽과 서쪽으로 평지 및 완경사지가 넓게 분포한다. 특히 섬의 서쪽 만입부 주변은 간석지가 넓게 발달되어 제방을 막아 농경지와 염전으로 이용된다. 1월 평균 기온은 1.6°C, 8월 평균 기온은 24.9°C, 연강수량은 1,088mm이다. 기후가 온난하고 습윤하며 무상 기일이 200일이 넘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육지면(陸地棉) 재배에 성공한 곳이다.

2011년 기준으로 인구는 337명(남 181명, 여 15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99세대이다. 취락은 섬 남부의 농경지 부근에 집중하여 분포한다. 토지이용 현황은 논 0.29㎢, 밭 0.57㎢, 임야 0.73㎢이다. 주요 농산물은 쌀과 콩이고, 마늘, 고추, 무, 참깨 등이 소량 생산된다. 인근 해역에서는 김양식을 한다. 식생은 모층각과 공생원을 가로지르는 곶술식생이 매우 우수하다. 서남해 도서와 마

찬가지로 고하도의 식생도 전반적으로 곰솔군락이 발달하였지만, 제일 잘 보전된 곳은 모층각 일대와 고하마을 뒷동산, 공생원 부근 해안가로서 수령이 최대 120년 이상 되는 곰솔과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어서 울창하고 장대한 숲을 형성하고 있다. 3.7km의 등산로에는 곰솔과 리기다소나무, 우묵사스레피나무, 노간주나무, 졸참나무, 감태나무 등 상록 침엽수와 낙엽활엽수가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어서 계절 변화에 따라서 아름다운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4) 울도(눌도)

목포항 앞 서쪽으로 4개의 섬이 서로 엉켜 있다. 가장 앞 즉 동쪽은 장좌도이고, 북쪽은 울도이다. 그리고 서쪽에는 외달도가 있고, 남쪽에는 달리도가 마주 보고 있다. 4개의 섬 중에서 북쪽에 위치한 ‘울도’는 ‘눌도’라고도 불린다.

목포 앞바다에서 5km 해상에 위치하는 면적 2.54km², 해안선 길이 10.5km인 울도는 남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선착장도 남쪽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바로 앞에 양쪽 끝으로 작은 무인도를 끼고 있고 그중 ‘맥도’는 면적이 0.048km²으로 아주 작은 섬이다. 오른쪽에 위치한 장좌도와 울도 사이에 위치한 섬은 ‘우도’이다. 남쪽 해안을 간척해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다. 원래 무안군에 속했는데 1963년에 목포시로 편입되어 충무동에 속하였다가 1966년 1월부터는 달동과 울도로 정해지면서 울도동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는 충무동에 속한다. 울도는 지주식 김 외에 바지락, 굴, 파래 등 풍부한 어족자원을 가졌다. 또 세발낙지, 돌게, 민어, 농어 등의 수산물과 무화과, 배, 감자, 고구마 등의 청정 농산물도 생산되고 있다.

(5) 삼학도

사냥꾼과 세 마리 학의 전설이 있는 섬, 삼학도. 삼학도 공원 내에 편입된 0.75km 구간은 삼학도 복원화사업의 하나로 중앙광장, 대공연장, 산책로 해변 광장 등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목포시는 삼학도 공원화 사업 핵심인 호안수로 2.2km를 개통하고, 한국제분 철거 부지를 산 형태로 복원하며, 야외 대공연장도 만들어 놓았다. 한편 ‘평화의 섬’ 삼학도를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은 총 1,399억 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호안수로, 산책로, 교량,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이곳에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어린이 바다과학관, 요트마리나 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생은 주로 곰솔이 우점하고 있다.

(6) 장도(장작도)

1963년 1월 1일 무안군에서 목포시로 편입되면서 달리, 놀도리가 충무동으로 개칭되었고 고힌도, 허사도, 달리도, 외달도, 놀도 등과 함께 편입되었다. 섬 중앙에 취락과 약간의 농경지가 분포하며 주민들은 김 양식을 많이 했다. 1973년도에 8가구 43명이 살기도 했으나 대부분 떠나고, 지금은 3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지역 수산물로는 농어와 뱀장어가 있다.

(7) 허사도

목포대교가 놓이기 전에는 순회 여객선을 타고 이 섬에 들어왔지만, 그 뒤에 영암의 삼호중공업 옆 삼호아파트 앞에서 시작되는 도로를 타고 가면 '신항교'가 나오는데 허사도와 연결되는 다리다. 영암군 삼호면 무인도인 가지도(可之島)에서 구와도(拘臥島)를 거쳐 허사도와 연도교가 연결되어 있다. 예전에 이곳은 허사도라는 섬이었고 마을이 있었던 유인도였으나, 신항만이 들어선 이후 더 이상 마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 신항 건설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6년이다. 신항은 마무리되었으나 여타 시설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주변 해역 역시 간척 중이다. 거기에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였는데, 목포 북항과 영암 대불공단을 잇는 '목포대교'가 그것이다. 이 다리는 목포 북항(일명: 뒷개)과 고힌도와 허사도의 신항을 잇는 대교이다.

2) 무인도

(1) 소두량도

목포시 달동 산1번지에 속해 있는 사유지 무인도서이다. 면적은 5,752㎡, 목포항으로부터 5.35km에 위치한다. 2006년 이후 달리어촌계에서 마을 어업을 하고 있으며, 주로 해조류를 채취하고 있다. 소두량도는 중생대 백악기 유문암으로 이루어진 순상형태의 섬(고도 약 15m)으로 암석해안 및 해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포니가 발달했다. 총 16종의 해안무척추동물 출현하는데 자포동물 1종, 연체동물 12종, 절지동물 3종이 출현하고 있다. 섬 남측사면에 멸종 위기식물 II급인 끈끈이귀개(*Drosera peltata* var. *nipponica* (Masam.) Ohwi) 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2) 별도

목포시 달동 산153번지에 속해 있는 사유지 무인도서이다. 면적은 2,281㎡, 목포항으로부터 8.16km에 위치한다. 중생대 쥐라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종상 형태의 섬(고도 약 10m)으로 암석해안 및 해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식대지, 시스택, 암맥이 발달되었다. 지층이, 불등풀가사리가 우점

하고 애기가시덤불, 툇, 작은구슬산호말 등 해조류가 출현하고 있다. 한국특산종 왕자귀나무, 특정종인 변행초가 서식한다. 섬 전체가 초지형 식생으로 되어 있고, 청미래덩굴, 칙, 역새가 우점하고 있으며, 사빈 지역에는 갯질경, 갯까치수영, 해국 등 염생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3) 우도(새섬)

우도는 목포시 울도동 11-3외 2에 속해 있는 사유지 무인 도서이다. 면적은 48,595㎡, 목포에서의 거리는 4.75km이다. 울도와 장좌도 사이에 위치한 섬이라고 해서 ‘셋섬’이라고 불렸고, 지금도 주민들은 ‘새섬’이라고 부른다. 우도는 높이 약 25m, 길이 약 600m 규모의 남-북 방향의 장축을 가진 섬으로 완만한 순상지형을 이루고 있다. 구성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 유문암 및 유문함질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본류를 포함한 식생이 발달되어 있으며, 해안은 암석해안 및 해빈으로 되었다. 섬 전체에 곰솔이 우점하고 있다. 멸종 위기 식물 II급인 끈끈이귀개와 식물 구계학적 특징종인 예덕나무, 사스레피나무, 갯메꽃, 방울비짜루, 자란이 서식하고 있으며, 귀화식물인 망초, 큰방가지뚥 2종이 서식한다.

4. 도시녹지의 보전과 관리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16항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산, 하천, 습지, 호소, 농지, 도시, 해양 등에 대해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 하여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이것은 환경부장관이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32조 및 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표 1>과 같이 등급화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 자연도 등급 기준

등급 및 지역	내용
1등급(절대보전지역)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의 주서식지, 도래지, 주요 이동통로 지역 · 우수 생태계 또는 우수 경관지역 · 생물 지리 분포 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 유형 대표 지역
2등급(개발가능지역)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 외부 지역
3등급(개발이용지역)	· 1, 2등급 권역 및 별도 관리 지역 이외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 대상이 되는 지역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 문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도시 녹지보전을 위해 관리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천연보호림/산림법,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천연기념물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 조수보호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명승지/문화재보호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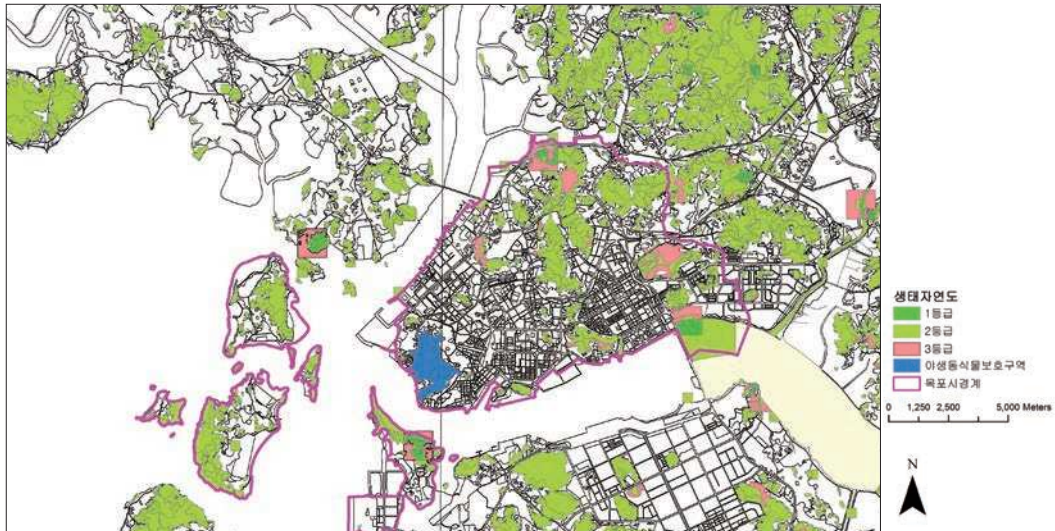


그림 1 목포시 경계 내의 녹지와 생태 자연도

〈그림 1〉에서 나타내고 있는 목포의 녹지는 하당 신도시 중심으로 서쪽에 입안산과 양을산, 동쪽에는 부주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원도심의 유달산, 그리고 삼향동에 지적산과 대박산이 위치한다. 이처럼 목포시는 구도심의 유달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녹지가 하당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녹지대가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주산은 목포현충공원이 있는 부흥산과 갈리면서 녹지대가 단절되었다. 〈그림 1〉에 의하면, 목포에서는 유달산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고하도의 일부 식생은 1등급에 포함되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도시나 일본에서는 도시의 생태적 기능과 특성을 공간적으로 파악하여 도시계획과 재생사업에 활용하고자 비오톱맵(Biotop map)을 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를 비롯하여,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등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 녹지대를 보호하거나 문화공간을 복원하기 위하여 비오톱맵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목포시도 해양도시,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의 기능과 활력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비오톱맵과 같은 상시적인 공간 DB자료를 확보해 놓고 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도시생태계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과 시민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관 생태 기법을 이용하여 대상지의 입지 공간을 분석하고, 그 위에 문화, 산업, 인프라, 녹지 등 입체적인 분석을 한 후, 적합지 선정을 한다면, 도시 녹지의 네트워크 재생사업의 성공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홍선기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2절 목포의 철새와 동식물상

1. 철새

1) 정의

계절에 따라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는 새들을 통칭한다.

2) 개설

철따라 이동하는 철새는 연중 계절에 따라 번식지와 월동지를 이동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이동은 계절과 관련된 기후 조건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되어 왔다.⁰¹⁾

이동하는 철새 중에서 가을에 북녘에서 번식하고 남하, 이동해 오는 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새는 겨울새라 하고, 이른 봄 남녘에서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가을철에 월동을 위하여 다시 남하, 이동하는 새는 여름새라 한다. 아울러 북녘에서 번식하고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남녘에서 월동하고, 봄에 다시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북녘으로 돌아가는 새는 나그네새라 부른다. 번식기인 여름에 오지로 들어가서 번식하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평지에 내려와 생활하는 새는 떠돌이새라 한다. 우리나라의 철새는 대략 겨울새 112종, 여름새 64종, 나그네새 90종 등 모두 266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반도는 시베리아 및 중국 동부와 만주 등지에서 번식하고 일본 남부에서 호수에 걸쳐 월동하는 철새 집단의 주요 이동 경로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4~5월과 9~11월에는 100종 이상에 달하는 수백만 마리의 철새 집단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다.

목포시는 전라남도의 남서단 무안반도 남서쪽에 자리하며 다수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 북동쪽으로는 무안군, 남쪽으로는 영암군을 바라본다. 영암군을 사이에 두고 영산강이 흘러가며, 지금은 하구둑이 설치되어 있다. 구도심 중심부에는 해발 228m인 유달산, 동쪽에는 입암산(121m), 북쪽에는 양을산(156m)·대박산(156m)·지적봉(189m) 등으로 둘러 있고 남쪽은 영산강 하구에 면해 있다.

01) Richardson, W. J., *Timing of bird migration to weather : updated review*, 1990, 78~101; Del, C. P., "The fall migration of Pacific Brent Branta Bernicla in relation to climatic condition", *Wildfowl* 43, 1992, 80~95; Hüppop, O. & K. Hüppop., *Climate changes and timing of bird migration. In : 2008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gratory Birds*, 2008, 17~26.

목포시를 중심으로 서식·이동하는 철새들은 주로 영산강 하구와 남항 주변의 갯벌 습지에 일시적으로 서식하거나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지 보호나 철새의 관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분포 형태

목포시의 영산강 하구와 남항 주변 그리고 섬들을 일시적인 서식지로 이용하는 철새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70종이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⁰²⁾ 이 중에는 2010년 이전에 기록된 종이 53종이고, 이후 기록된 종이 17종으로 국내에서 기록된 종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관내에 출현하는 조류는 총 11개 목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 중 참새목 때까치과에 때까치, 까마귀과에 까치, 물까치, 오목눈이과에 오목눈이, 직박구리과에 직박구리, 찌르레기과에 쇠찌르레기, 지빠귀과에 노랑지빠귀, 개동지빠귀, 딱새과에 딱새, 흰배지빠귀, 참새과에 참새, 할미새과에 흰등새, 알락할미새과에 알락할미새, 백할미새, 박새과에 박새 등 20종으로 가장 많은 2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도요목 장다리물떼새과에 장다리물떼새, 물떼새과에 개펄, 흰목물떼새, 도요과에 큰뒷부리도요, 중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갯도요, 노랑발도요, 꼬까도요, 붉은어깨도요, 민물도요, 갈매기과 팽이갈매기, 갈매기, 재갈매기, 노랑발갈매기 등 19종으로 27%를 차지한다. 기러기목 오리과에 큰기러기, 쇠기러기, 흑부리오리, 청머리오리, 홍머리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넓적부리, 고방오리, 덩기흰죽지, 흰뺨오리, 비오리, 바다비오리 등 15종 21%, 매목 매과에 황조롱이, 매, 수리과에 말뚝가리 등 3종으로 약 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황새목, 논병아리목, 두루미목, 사다새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바닷새

일반적으로 바다에 출현하는 바닷새는 3개 목 5개 과로서 습새목에 습새과, 사다새목에 사다새과, 도요새목에 도둑갈매기과, 갈매기과, 바다오리과 등이다. 목포시의 경우 비교적 섬을 비롯하여 해역의 면적이 적은 관계로 바닷새의 출현이 적으며, 주로 갈매기과 팽이갈매기, 재갈매기, 노랑발갈매기, 갈매기, 쇠제비갈매기, 민물가마우지 순으로 10종 내외가 기록되어 있다.

02) 국립공원관리공단, 『2009 조류조사 연구결과 보고서』, 2009; 국립생물자원관, 『2014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2014; 원병오, 『한국동식물도감』 25 -동물편, 문교부, 1981.

(2) 도요물떼새

목포시에서 관찰된 도요물떼새는 도요목물떼새과, 검은머리물떼새과, 도요과 등 13종이며, 이는 국내에 기록된 도요물떼새의 21%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에 해당된다. 그 분포 비를 보면 민물도요가 가장 많은 관찰 기록을 보였으며, 그 외 큰뒷부리도요, 개펄 등이 비교적 많은 개체수를 기록하고, 검은머리물떼새, 흰물떼새, 마도요, 청다리도요, 증부리도요 순으로 관찰되고 있다.

(3) 맹금류

목포시에 분포하는 맹금류는 3종으로 국내 기록된 41종의 7%에 해당한다. 매목 수리과와 매과로 구분되며, 수리과에 말뚝가리, 매과에 황조롱이, 매 등이 관찰 기록되었다.

(4) 보호조류

국제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적 보호종 및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은 83종이며, 이 중 섬과 육지부로 이루어진 목포시에는 5종이 관찰되고 있다. 이들 중에 대해 살펴보면 국제 보호종은 없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1급에 해당하는 매가 출현하였으며, II급에 해당하는 종으로는 말뚝가리,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큰기러기 등으로 나타났다.

4) 생태

생태적인 측면에서 목포시에 출현하는 철새는 영산강 하구 지역과 남향 갯벌 습지에 5,000개체 이상이 매년 겨울 동안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새는 여름새, 겨울새, 나그네새 및 떠돌이새로 나누는데 한반도의 대표적인 철새로는 다음과 같은 종이 있다. ①여름새: 삿꾸기, 두견이, 꾀꼬리, 백로, 뜸부기, 제비, 후투티, 파랑새, 물총새, 솔부엉이 등. ②겨울새: 오리, 기러기, 콩새, 찼부엉이, 논병아리, 두루미, 발총달, 쑥새, 양진이 등. ③나그네새: 도요, 물떼새, 꼬까참새, 흰배멧새, 제비갈매기 등. ④떠돌이새: 말뚝가리, 삿꾸기, 새매, 굴뚝새 등이 기록되었다.

목포시 철새 도래 특성은 조류의 이동기인 3월에서 5월과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가장 높은 종수를 기록하며, 반대로 하절기인 6월에서 8월에 가장 낮은 종수 및 개체수를 보인다. 겨울에서 봄철에 이르는 춘계에는 꿩이갈매기가 우점하며, 뽕논병아리, 찼르러기, 흰배지빠귀, 개똥지빠귀, 바다쇠오리, 청둥오리, 고방오리 등이 관찰 기록되고 있다. 추계에는 말뚝가리, 황조롱이, 매, 꿩, 꿩이갈매기 등이 관찰 기록되는 특성을 보였다.

2. 동물상

1) 정의

목포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의 종류를 말한다.

2) 개설

목포 지역은 원도심 중심부에는 유달산, 동쪽에는 입암산, 북쪽에는 양을산·대박산·지적산 등으로 둘러 있고 남쪽은 영산강 하구에 면해 있어 면적도 적고 높은 산이나 울창한 숲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동물상의 분포가 빈약한 편이다. 목포시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및 포유동물상 등을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다.

3) 분포 형태

(1) 양서·파충류

목포시 일대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 자연 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서류는 도롱뇽과의 도롱뇽과 두꺼비과에 두꺼비, 맹꽁이과에 맹꽁이, 청개구리과에 청개구리를 비롯하여 1강 2목 6과 8종이 보고되었다.

파충류는 거북목 바다거북과에 붉은바다거북, 자라과에 자라, 유린목 도마뱀과에 도마뱀, 뱀과에 누룩뱀,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 구렁이, 대륙유혈목이 등 1강 1목 3과 10종이 보고되었다.⁰³⁾

(2) 어류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목포시의 어류상은 해산 어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목포시의 해산 어류는 문헌에 의하면 뱀장어목 뱀장어과 뱀장어, 갯장어과 갯장어, 붕장어과 붕장어, 청어목 멸치과 응어, 멸치, 반지, 풀반대이, 풀반지, 청멸, 청어과 전어, 뱀대이, 송어목 송어과 송어, 동갈치목 학꽂치과 학꽂치, 줄꽂치, 솜뱅이목 양볼락과 쭉기미, 우럭볼락, 흰꼬리볼락, 조피볼락, 쥐노래미과 노래미, 농어과 농어, 점농어, 보미멸과 보리멸, 도미과 강성돔, 붉돔, 민어과 황갈달이, 민태, 민어, 소조

03)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자연자원조사-전라남도 목포시 일대』, 2002.

기, 자리돔과 자리돔, 놀래기와 놀래기, 용치놀래기 망둑어과 문절망둑, 희발망둑, 줄망둑, 미끈망둑, 오셀망둑, 모치망둑, 풀망둑, 두줄망둑, 검정망둑 등 8목 29과 6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⁰⁴⁾

(3) 포유류

목포시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지역으로 높은 산과 깊은 숲이 없는 지역이라 포유류의 분포상이 빈약한 것으로 기록되었다.⁰⁵⁾ 포유상은 식충목 두더지와 두더지, 땃쥐과 땃쥐, 작은땃쥐, 박쥐목 관박쥐과 관박쥐, 식육목 족제비과 족제비, 수달, 고양이과 고양이, 우제목 소과 염소, 사슴과 고라니, 토끼목 토끼과 멧토끼, 설치목 다람쥐과 청설모, 다람쥐, 쥐과 생쥐, 집쥐, 애급쥐, 등줄쥐, 고래목 쇠돌고래과 상괭이 등 7목 11과 17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4) 생태

목포시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관계로 해산어류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산과 숲이 깊지 않고 도시로 형성되어 있어 다른 동물류는 매우 적은 편이다. 도서민에 의해 사육을 목적으로 유입됐으나 야생화된 고양이, 염소, 토끼 등의 포유류 및 논과 밭 등 경작지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생쥐, 집쥐, 등줄쥐 등이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뱀류인 유헤목이, 구렁이와 개구리류인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도 일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지역에는 외래종인 황소개구리도 출현하고 있다.

3. 식물상

1) 정의

목포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의 종류를 말한다.

04) 국립환경과학원, 앞의 책.

05) 같은 책.

2) 개설

목포 지역은 면적도 작고 높은 산이나 울창한 숲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식물상의 분포가 빈약한 편이다. 이 지역은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난온대성으로 상록활엽수도 출현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상록 침엽수인 곰솔과 소나무림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농경지와 초지로 구성되어 있다.

3) 분포 형태

목포시 관내에 분포하는 식물상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과 무안반도 남쪽 자락의 육지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유달산과 삼학도 지역은 비교적 삼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지역민들의 간섭이 많은 지역으로, 곰솔군락이 2차 대상식생으로 주로 발달해 있는 곳인데, 부분적으로 경작지로 개간되고 있는 섬과 입암산, 양을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러 문헌과 조사 자료에 의하면 목포시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은 116과 356속 518종 76변종 6품종 1아종 총 601분류군으로 확인된다.⁰⁶⁾ 이 중 외래종은 15과 30속 34종이 기록되어 있다.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섬 지역을 비롯하여 지역민들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은 주로 곰솔군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의 식물상은 상록침엽수림과 함께 서식하는 부처손과 부처손, 속새과 쇠뜨기, 속새, 고사리삼과 고사리삼, 고비과 고비, 실고사리와 실고사리, 처녀이끼과 부채괴불이끼, 고사리와 황고사리, 바위고사리, 고사리, 봉의꼬리, 큰봉의꼬리, 고비고사리, 녀줄고사리와 녀줄고사리, 면마과 우드풀, 만주우드풀, 십자고사리, 나도히초미, 도깨비고비, 쇠고비, 관중, 큰족제비고사리, 족제비고사리, 처녀고사리, 뱀고사리, 꼬리고사리와 꼬리고사리, 고란초와 산일엽초, 일엽초, 콩짜개덩굴, 주목과 비자나무, 나한송과 나한송, 소나무과 소나무, 곰솔, 낙우송과 삼나무, 측백나무과 측백나무, 편백, 눈향나무, 노간주나무, 홀아비꽃대과 홀아비꽃대, 버드나무과 버드나무, 산버들, 가래나무과 굴피나무, 자작나무과 오리나무, 개서어나무, 소사나무, 참나무과 밤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가시나무, 느릅나무과 느릅나무, 느티나무, 검팽나무, 팽나무, 푸조나무, 뽕나무과 산뽕나무, 가새뽕, 뽕나무, 닥나무, 꾸지나무,

06) 현지조사 결과와 오장근·김진식의 「고하도의 식물상과 식생에 관한 연구」(『연안환경연구』12, 목포대 연안환경연구소, 1995, 145~162쪽)를 정리하였다.

천선과나무 모람, 삼과 환삼덩굴, 썩기풀과 물통이, 모시물통이, 모시풀, 섬모시풀, 좁깨잎나무, 왕
 모시풀, 개모시풀, 단양과 제비꽃, 쥐방울덩굴과 개족도리, 족도리풀, 마디풀과 애기수영, 수영, 참소
 리쟁이, 소리쟁이, 닭의덩굴, 이삭여귀, 머느리배꼽, 머느리밀씻개, 고마리, 미꾸리낙시, 털여뀌, 꽃
 여뀌, 바보여뀌, 여뀌, 장대여뀌, 개여뀌, 마디풀, 명아주과 명아주, 바늘명아주, 버들명아주, 좀명아
 주, 갯능쟁이, 가는갯능쟁이, 땃싸리, 나문재, 비름과 털비름, 비름, 개비름, 쇠무릎, 분꽃과 분꽃, 자
 리공과 미국자리공, 석류풀과 번앵초, 석류풀, 쇠비름과 쇠비름, 채송화, 석죽과 갯개미자리, 개미자
 리, 큰개미자리, 벼룩이자리, 개별꽃, 큰개별꽃, 점나도나물, 쇠별꽃, 별꽃, 벼룩나물, 패랭이꽃, 술패
 랭이꽃, 장구채, 갯장구채, 미니리아재비과 으아리, 참으아리, 할미밀빵, 사위질빵, 할미꽃, 노루귀,
 털개구리미나리, 개구리자리, 미나리아재비, 젓가락나물, 왜젓가락나물, 꿩의다리, 산꿩의다리, 개구
 리발톱, 으름덩굴과 으름, 멀꿀, 방기와 새모래덩굴, 방기, 땡땡이덩굴, 목련과 목련, 남오미자, 녹나
 무과 생강나무, 비목나무, 녹나무, 후박나무, 양귀비과 애기똥풀, 현호색과 현호색, 자주괴불주머니,
 십자화과 무, 갯, 배추, 유채, 다닥냉이, 말냉이, 좁쌀냉이, 황새냉이, 논냉이, 개갯냉이, 냉이, 꽃다지,
 섬갯장대, 장대나물, 돌나물과 꿩의비름, 기린초, 돌나물, 땅채송화, 바위채송화, 범위귀과 고평나
 무, 산수국, 까치밥나무, 돈나무, 장미과 조팝나무, 떡조팝나무, 국수나무, 뱀딸기, 가락지나물, 솜양
 지꽃, 양지꽃, 세잎양지꽃, 딱지꽃, 큰뱀무, 수리딸기, 산딸기, 줄딸기, 명석딸기, 거지딸기, 복분자딸
 기, 장딸기, 오이풀, 짚신나물, 쫄레꽃, 돌가시나무, 해당화, 살구, 산복사, 왕벗나무, 벗나무, 산벗나
 무, 이스라지, 앵도, 다정큼나무, 모과나무, 윤노리나무, 팔배나무, 콩과 자귀나무, 왕자귀나무, 실거
 리나무, 차풀, 조록싸리, 해변싸리, 참싸리, 싸리, 팽이싸리, 비수리, 매듭풀, 도둑놈의갈고리, 개도둑
 놈의갈고리, 살갈퀴, 새완두, 나비나물, 여우콩, 칩, 새콩, 땅비싸리, 아까시나무, 벌노랑이, 골담초,
 토끼풀, 개자리, 쥐손이풀과 쥐손이풀, 이질풀, 세잎쥐손이, 팽이밥과 팽이밥, 운향과 개산초, 초피나
 무, 산초나무, 머귀나무, 탕자나무, 소태나무과 소태나무, 대극과 예덕나무, 팥대싸리, 사람주나무,
 깨풀, 피마자, 등대풀, 암대극, 회양목과 회양목, 옷나무과 붉나무, 검양옷나무, 개옷나무, 산검양옷
 나무, 감탕나무과 팡팡나무, 노박덩굴과 사철나무, 줄사철나무, 화살나무, 회잎나무, 참빗살나무, 노
 박덩굴, 고추나무과 고추나무, 말오줌때, 단풍나무과 고로쇠나무, 왕고로쇠, 만주고로쇠, 당단풍, 봉
 선화와 물봉선화, 갈매나무과 상동나무, 포도와 왕머루, 머루, 까마귀머루, 새머루, 개머루, 담쟁이덩
 굴, 피나무과 뽕잎피나무, 장구밥나무, 아욱과 접시꽃, 무궁화, 벽오동과 까치개, 수까치개, 다래나무
 과 다래, 차나무과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우묵사스레피, 물레나물과 물레나물, 고추나물, 제비꽃
 과 남산제비꽃, 고깔제비꽃, 흰제비꽃, 제비꽃, 알록제비꽃, 왜제비꽃, 호제비꽃, 줄방제비꽃, 남시제
 비꽃, 콩제비꽃, 선인장과 선인장, 보리수나무과 보리수나무, 보리장나무, 보리밥나무, 부처꽃과 좀
 부처꽃, 마름과 마름, 박쥐나무과 박쥐나무, 바늘꽃과 쇠털이슬, 털이슬, 바늘꽃, 달맞이꽃, 두릅나무

과 송악, 황칠나무, 음나무, 두릅나무, 산형과 유립전호, 피막이, 선피막이, 병풀, 참반디, 긴사상자, 사상자, 개사상자, 미나리, 참나물, 바디나물, 갯기름나물, 기름나물, 층층나무와 식나무, 산딸나무, 층층나무, 노루발, 진달래과 진달래, 모새나무, 정금나무, 자금우과 자금우 등이 서식하였다.

한편 공원 지역으로 보전되고 있는 유달산과 삼학도 지역에서는 좀가지풀, 고사리삼, 봉의꼬리, 나 도히초미, 관중, 일엽초, 콩짜개덩굴, 석위, 천선과나무, 모람, 노루귀, 으름, 멸꿀, 방기, 남오미자, 비 목나무, 후박나무, 상산, 사람주나무, 회양목, 대뺏집나무, 감탕나무, 참회나무, 고로쇠나무, 합다리 나무, 물봉선, 상동나무, 차나무, 보리장나무, 보리밥나무, 황칠나무, 알며느리밥풀, 산가막살나무, 병꽃나무, 괴불나무, 잔대, 털잔대, 털머위, 골등골나물, 별등골나물, 구절초, 분취, 산비장이, 조릿대 풀, 두루미천남성, 큰천남성, 둥굴레 등이 출현하였다.

해안가로는 염생식물인 갯뚱싸리, 갯능쟁이, 가는갯능쟁이, 통통마디, 솔장다리, 수송나물, 칠면 초, 나문재, 해홍나물, 갯개미자리, 갯장구재, 섬갯장대, 갈대, 번행초, 천일사초, 갯질경, 갯잔디, 갯 까치수영 등이 출현하였다.

목포시 관내 도서와 육지부에 서식하는 상록수는 35속 41종 10변종 총 51분류군이 기록되었다.⁰⁷⁾ 주요 종은 상록활엽수로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가시나무, 모람, 멸꿀, 태산목, 남오미자, 후박나 무, 다정큼나무, 회양목, 팡팡나무, 줄사철나무, 우목사스레피, 사스레피나무, 먼나무, 아왜나무 등이 고, 상록침엽수는 소나무, 곰솔, 노간주나무, 개비자나무, 옥향나무, 방크스소나무, 테에다소나무 등 이 기록되었다.

4) 생태

목포시 지역의 식생은 상록침엽수림이 발달한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록침엽수 림이 발달한 지역은 도서와 육지 지역이 대부분이며, 상관에 의해 얻어진 식생은 자료에 의하면 상록 침엽수림으로 곰솔군락이 우점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리기다소나무 군락, 소나 무 군락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삼학도에 50년 이상 서식하고 있는 낙엽활엽수 림인 떡갈나무군락이 출현하고 있으며, 섬 지역을 중심으로 능선부에는 소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이, 인간의 간섭이 비교적 심한 지역에는 예덕나무군락, 뽕나무군락 및 이대 군락 등이 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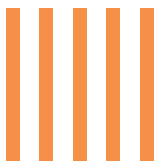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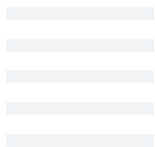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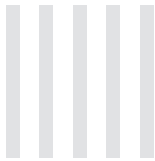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양효식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교수

07) 현지조사 결과와 이일규, 「서해도서지방의 상록활엽수의 분포와 보존상태에 관하여」(『자연보존 연구 보고서』1, 한국자연보존협회, 1979, 79~91쪽)를 정리하였다.



제2편

목포의 도시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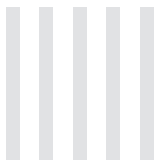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제1절 근대도시 목포의 형성(1897~1910)

박준형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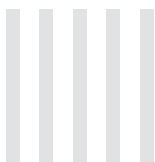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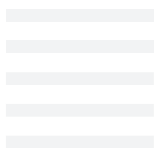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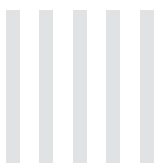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제2절 이중 도시 목포의 도시계획(1910~1945)

박준형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제3절 현대도시 목포의 재건설(1945~현재)

박준형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제1장 목포의 경계와 도시계획

제1절 근대도시 목포의 형성(1897~1910)

1. 목포의 개항과 각국 공동거류지의 설치

1) 거류지의 위치와 거류지장정의 규정

근대도시로서의 목포는 1897년 10월 1일 개항과 함께 탄생했다. 그 자리는 조선 시대 무안현의 해안 방어 기지였던 목포진이 있던 곳이다. 무안현은 지금의 목포시와 무안군 일부(무안읍, 일로읍, 몽탄면, 청계면, 현경면 일대)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목포진은 현성 남문으로 난 무안가도의 서남 쪽 끝자락에 위치했다(〈그림 1〉 참조). 1439년에 최초로 설치되어 임진왜란 때 전장이 되기도 했던 군사 요충지 목포진은 정4품 무관인 수군 만호가 관할했다. 목포진 내에는 전패를 모시는 객사와 만호의 청사인 아사를 비롯하여 장청, 사령청, 이청, 군기고, 감옥, 창고 등의 건물과 식수 공급을 위한 우물이 있었고, 남문 밖으로는 수군 선박이 정박했다.⁰¹⁾ 만호는 수지도, 자라도, 반월도, 박지도, 옥도, 안창도, 기좌도, 비금도 등 나주지방 도서의 병사(兵事)와 더불어, 진영의 소재지구인 쌍교촌, 산정리, 용당리, 관해동의 행정까지 관장했다.⁰²⁾

01) 「무안현지도」와 「무안목포진지도」에 대한 설명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의 해제 참조(<http://kyujanggak.snu.ac.kr>).

02) 배종무, 『목포개항사연구』, 느티나무, 1994, 15~16쪽.



그림 1 1872년 「무안현지도 (務安縣地圖)」와 「무안목포진지도 (務安木浦鎮地圖)」(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주: 지도 중앙에 크게 그려진 성채가 무안현성이다. 좌측 아래 원 안은 목포진의 위치를 가리키며, 그 일대의 진영 소재지구를 상세하게 그린 것이 우측 아래이다.

목포 개항 이전에는 부산, 원산, 인천의 세 곳만 개방되어 있었다. 부산과 원산에는 일본 전관거류지(Japanese Settlement)와 청국 전관거류지(Chinese Settlement)가 설치되었으나, 인천에는 청일 양국의 전관거류지 외에도 서양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각국 공동거류지(General Foreign Settlement)까지 설치되었다. 목포 개항 이후 신설된 외국인 거류지들은 인천의 각국 공동거류지를 모델로 하였다.



그림 2 『재조선거류지관계취극서(在朝鮮居留地關係取極書)』중 『목포외국인거류지지도(木浦外國人居留地地圖)』(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주: 지도 서북쪽에 음영 처리를 한 곳이 육지이며 중앙의 원 안이 목포진이다.

한국 외부대신 민종묵과 각국 대표들 사이에 조인된 「진남포·목포 각국거류지장정(Regulations for the Foreign Settlements at Chinampo and Mokpo)」의 내용 중 거류지 조성과 관련된 항목들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⁰³⁾

먼저 제1조 전반부에서는 거류지의 경계를 목포진과 그 인접 지역으로 규정했으며(〈그림 2〉 참조),⁰⁴⁾ 같은 조항 후반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변 및 부두의 건설을 담당하고 또 한국 정부의 돈으로 유지·보수하도록 했다. 이어서 제2조에서는 거류지 지구를 갑·을·병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갑은 평탄한 저지, 을은 산기슭지, 병은 매립을 요하는 해안지이다. 지구의 경계는 한국 정부와 거류지회(한국 관리와 주재 영사, 선거를 통해 선발되는 3명 이하의 등록 지주로 구성)가 협의하여 정하고(제3조), 지구는 경매를 통해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지구를 낙찰 받은 매수인은 지권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일정액 이상의 비용을 들여 가옥을 건설하거나 개량하고 건축 시에는 화재 방비를 위해 불연소 재질로 지붕을 올리도록 강제했다(제13조). 거류지 내 도로의 부설과 구거·교량·제방·기타의 공공 공사, 그리고 거리의 점등·청소·장애물 제거, 공공 우물 및 수도 공사는 거류지회가 담당하도록 했다(제16조).

2) 거류지의 조성

(1) 해변 공사

확정된 거류지의 경계선 안쪽은 대체로 구릉지, 경작지, 갯벌의 상태로 있었다. 어느 쪽이든 외국인의 거주 및 무역을 위한 시가지 건설에는 부적합했다. 따라서 거류지 설치의 우선 가옥 건축과 도로 부설이 가능한 부지 조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해안선의 해변 공사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자국민을 정주시키려 했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해변 공사의 착수를 재촉했다. 목포 감리의 의뢰를 받아 재목포일본영사 구스이 사부로[久水三郎]는 주한일본공사관의 다케노 마사타[武野政太]에게 설계를 맡겼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변의 건설은 한국 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항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일은행에 공사비 대출을 요청했다. 제일은행은 목포 해관의 수입을 담보로 요구했으나, 이에 반대한 총세무사 브라운(J. Mcleavy Brown)은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공사비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히오키 에키

03) 『한국조약류찬(韓國條約類纂)』(통감부, 1908), 681~704쪽.

04) 개항 당시 목포진은 이미 북쪽 성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붕괴 상태에 있었으며, 만호의 청사 건물을 비롯한 일부 건물들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목포지편찬회, 『목포지』, 1914, 23~26쪽).

[日置益] 임시 대리공사와 브라운 총세무사는 1898년 11월 15일의 답판 끝에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목포해벽은 한국정부가 축조할 것.
2. 공사비용과 지출방법은 해관에서 적당한 기사를 파견하여 조사시킨 뒤 되도록 속히 결정할 것.
3. 파견 기사는 오는 25일경 도한(渡韓) 예정이므로 도착하는 즉시 목포로 출장시킬 것.
4. 공사시행의 방법은 대체로 별지(別紙) 약안(約案)에 준거할 것.⁰⁵⁾

토목기사 하딩(G. R. Harding)의 도착 후부터 공사 준비는 본격화되었다. 이듬해 3월 8일에는 한국 외부의 교섭 국장과 목포 거류지 회장(재목포일본영사) 사이에 해벽 공사를 위한 장정이 체결되었다. 장정에 명시된 해벽 공사의 길이와 비용은 <표 1>과 같다.⁰⁶⁾

표 1 해벽 공사의 길이와 공사비

공사지역	해벽 길이	1m당 공사비	총 공사비
남단	427m	50원(元) 95전(錢)	21,756원
해관단 I	224m	50원(元) 84전(錢)	11,388원
해관단 II	220m	65원(元) 45전(錢)	14,400원
동단	680m	50원(元) 92전(錢)	34,625원
북단	416m	29원(元) 81전(錢)	32,399원
합계	1,967m		94,568원

공사는 1899년 6월에 시작되어, 1901년 5월까지 약 1.5km의 해벽을 건설했다. 착공 당시만 해도 공사 기간을 1개년 이내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배 가까이 소요되었다. 그 이유는 거류지회와 시공 업체 간의 분쟁과 축조된 해벽의 붕괴 사건 등을 겪으면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공사 설계는 해벽의 표리 양면을 돌로 쌓고 그 안을 콘크리트로 채우는 것이었으나, 위와 같은 재난의 속출과 그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인해, 거류지회는 이면의 석축을 포기하고 이면도로의 축조를 결행했다. 그 결과 해벽을 따라 15m 폭의 해안도로가 만들어졌다.⁰⁷⁾

05) 「목포거류지해벽공사일건(木浦居留地海壁工事一件)」(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3-12-2-41), 명치 31년 12월 10일발 제83호의 별지 갑호. 여기에서 '별지 약안'이란 브라운이 제안한 「Proposal Agreement regarding the Mokpo Seawall」을 가리킨다(양상호, 「목포 각국공동거류지의 도시공간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4-1(통권 제7호), 한국건축역사학회, 1995, 129~130쪽).

06) 「목포거류지해벽공사일건」, 명치 32년 3월 31일발 제22호의 별지.

07)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278~283쪽.

(2) 도로 부설

해벽 건설이 한국 정부의 부담이었다면 거류지 내 도로 부설은 거류지회의 부담이었다. 거류지회는 기본적으로 지주가 납입하는 지조와 지구의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도로 부설 비용을 충당했으나, 개항 초에는 납입되는 지조의 액수가 많지 않고 급설을 요하는 도로도 많았기 때문에, 도로 부설을 위한 편법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거류지 내 도로는 8m, 10m, 12m, 15m의 4등급으로 구분되었으며, 측량은 네덜란드인 해관기사 스태든에 의해 이루어졌다.⁰⁸⁾

거류지 내 가구(街區)분할의 상황은 지구 공매의 결과 보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지구 공매는 1898년 1월 5일 제1회(6필지)를 시작으로, 4월 13일(71필지), 5월 25일(15필지), 6월 28일(150필지)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됐는데(〈그림 3〉 참조), 일본영사관 부지를 중심으로 구 목포진의 구릉을 사이에 두고 부채꼴 모양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기준 역할을 한 것이 목포진 시대의 도로이다. 〈그림 1〉의 「무안목포진지도」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개항 전에도 이미 목포진과 쌍교리·선창·온금동 등을 잇는 도로들이 존재했다. 개항 당시에는 이 도로들을 통해서만 통행이 가능했고, 논과 간석지로 이루어진 주변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도로의 가설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지구 공매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구도 있어, 결과적으로 가구를 분할할 때 기존의 도로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⁰⁹⁾ 따라서 거류지 내에서 가장 먼저 부설된 곳도 목포진 북쪽에서 무안통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이 220m, 폭 10m의 도로였으며, 이어서 구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십자로 690m가 만들어졌다.¹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구 분할은 해안선에 평행하는 동서축이 중심을 이루었다. 동서축의 양단은 동쪽의 바다와 서쪽의 산을 향하고 있어 거류지 밖으로의 확장성이 없는 내부종결적인 가구형태를 띠었다.¹¹⁾

08)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278~283쪽.

09) 양상호, 앞의 논문, 133~134쪽.

10) 박종철, 「제13편 도시계획」, 『목포시사』 사회·산업편, 목포시, 1990, 138쪽.

11) 양상호, 앞의 논문, 1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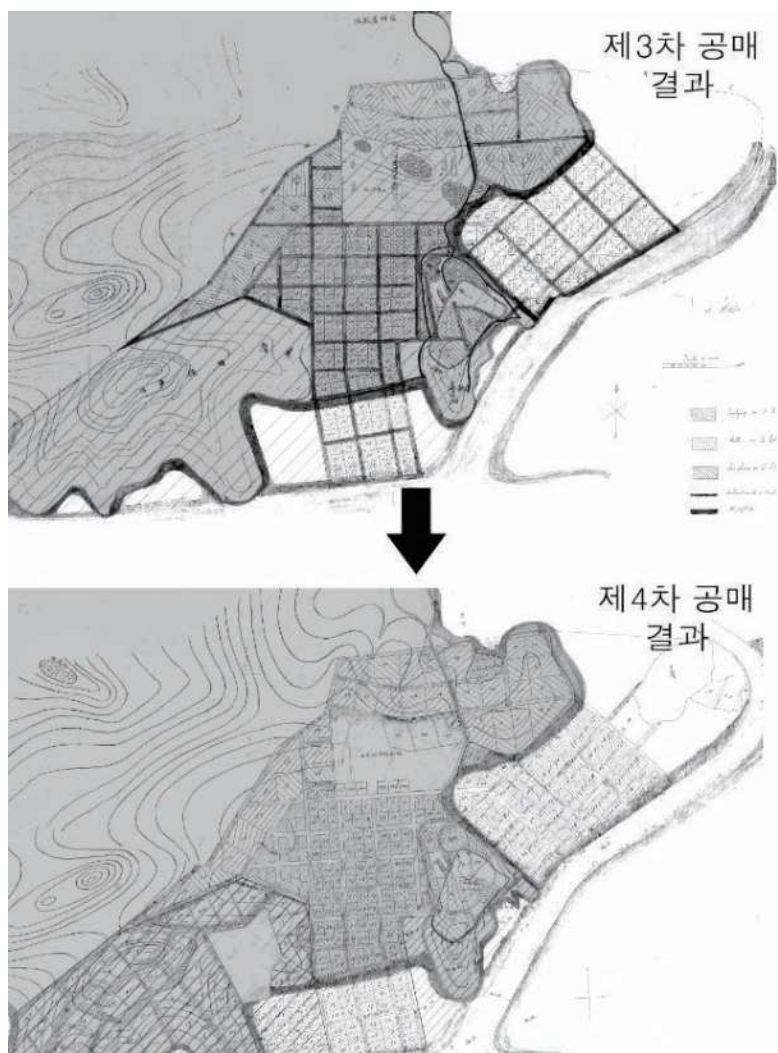


그림 3 1899년 목포 각국 거류지 제3차(위) 및 제4차(아래) 지구 공매 결과(음영은 매립 이전의 육지 부분)

2. 개항 이후 시가지의 발달

1) 거류지 내 일본인 마을

거류지 내 일본인 마을은 1897년 개항 이래로 영사관(1906년 통감부 설치 후 이사청) 앞 동운루 부근, 동해안통 1정목, 구 목포진의 동쪽 및 서쪽 구릉, 무안통 1정목, 본원사 부근 등지의 각 방면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그림 4>의 적색 원 부분). 초기의 시가지는 이처럼 어느 한 곳을 중심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무계획적으로 각자 원하는 곳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들 사이에는 수전이나 간척지 상태의 공지와 산기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장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1901년 이후 도로 및 매축 공사가 진척을 보임에 따라 영사관 앞 시가지는 서쪽 및 남쪽 방향으로 성장해 갔다. 또한 무안통의 시가지는 북쪽의 거류지 경계 방향으로, 그리고 구 목포진의 동쪽 구릉 시가지는 동해안통 1, 2정목 방향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그림 4>의 화살표 방향).¹²⁾ 러일 전쟁(1904~1905년) 이후로는 거류지의 경계를 넘어 무안가도를 따라 죽동 이북까지 진출하는 일본인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죽동 유곽이 공식 허가를 받고, 또 목포-광주 간 도로와 호남선의 착공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거류지 밖 조선인 마을에 일본인들이 잠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 거류지 밖 조선인 마을

거류지 내에는 조선인의 거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1899년까지 거류지 내에 위치한 구 목포진의 조선인 부락은 모두 철거되었다.¹³⁾ 거류지 밖에는 쌍교리와 같이 목포진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던 마을들이 있었는데, 이들 공간이 개항 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몰려온 사람들을 모두 수용해 내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초대 감리 진상언은 쌍교리 근처의 무덤들을 이장시키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조치했다.¹⁴⁾ 이후 조선인 마을은 죽동, 만복동, 남교동의 서쪽 산기슭 방면과 양동 및 신창동의 각 방면으로 확대해 갔으며, 온금동 방면에도 조선인 가옥들이 들어섰다(<그림 4>의 흑색 원 부분).¹⁵⁾

12)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288~290쪽.

13) 같은 책, 38~39쪽.

14)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72쪽.

15)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290쪽.

거류지 내 일본인 시가지가 ‘계획시가지’였다고 한다면, 거류지 밖 조선인 마을은 ‘비계획시가지’였다.¹⁶⁾ 일찍이 『독립신문』에서 인천의 거류지와 거류지 밖 조선인 마을을 ‘극락세계’와 ‘지옥’에 비유했던 것처럼,¹⁷⁾ 목포의 조선인 마을은 도시로서의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던 까닭에 ‘돼지우리’와 같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거류지 부지를 마련할 때 측량을 담당했던 스테든으로 하여금 거류지 안팎을 연결하는 도로를 설계하도록 했으나, 시행의 책임을 져야 할 감리서는 그 도면을 잃어버릴 정도로 관리에 소홀했다. 더구나 무덤을 이장시켜 겨우 터전을 마련한 조선인 마을 근처로는 다시금 일본인 전용 묘지가 들어섰다. 조선인 마을에 처음으로 들어선 계획 시설이 다른 아닌 죽동 유곽이었다는 사실¹⁸⁾은 조선인 마을의 계획 부재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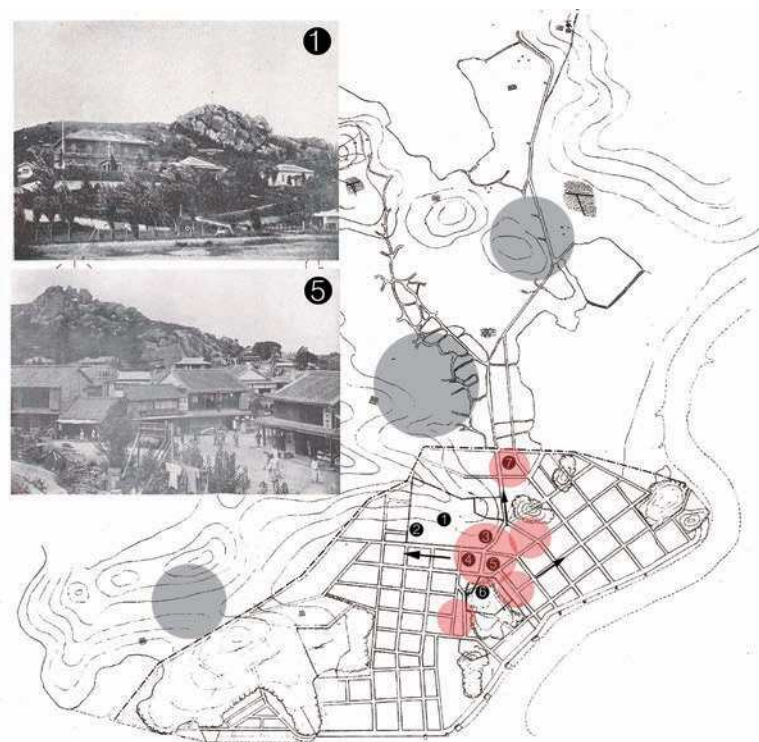


그림 4 1900년대 목포 시가지의 발달(적색 원은 일본인 마을 발달 지역, 흑색 원은 조선인 마을 발달 지역)

주: ①일본영사관(이사청) ②목포거류민단역소 ③경찰서 ④동운루 ⑤미요시노여관 ⑥구 목포진(목포대) ⑦본원사

16) 박종철, 앞의 글, 138쪽.

17) 『독립신문』 1897. 08. 28. 「논설」.

18)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4, 63~78쪽.

제2절 이중 도시 목표의 도시계획(1910~1945)

1. 부제(府制)의 실시

1) 목포부 경계의 연원

일제는 조선총독부 개청 전날인 1910년 9월 30일에 「조선총독부관제」를 비롯한 일련의 관제를 발표하여 중앙 통치 기구를 정비하는 한편, 동시에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를 시작으로 관련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과도기적 지방 통치 기구를 확립해 갔다. 이에 따라 지방 행정조직은 1수부 13도 11부 317군에서 13도 12부 317군으로 재편되었다. 이는 수부였던 경성부가 일반의 부로 격하되고, 성진부·용천부·경흥부가 군으로, 또 부령군이 청진부로, 평양군·대구군이 부로 각각 재편된 결과였다. 무안부는 종래의 부를 그대로 계승한 경우로 명칭만 목포부로 변경되었다.¹⁹⁾

일제의 강점 후 재편된 12개 부(경성,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평양, 진남포, 의주(신의주), 원산, 청천)는 모두 통감부 통치 하에서 이사청과 일본거류민단이 설치되었던 지역으로, 총독부의 개청과 함께 각 지역의 이사청 청사는 부청 청사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들 부에는 191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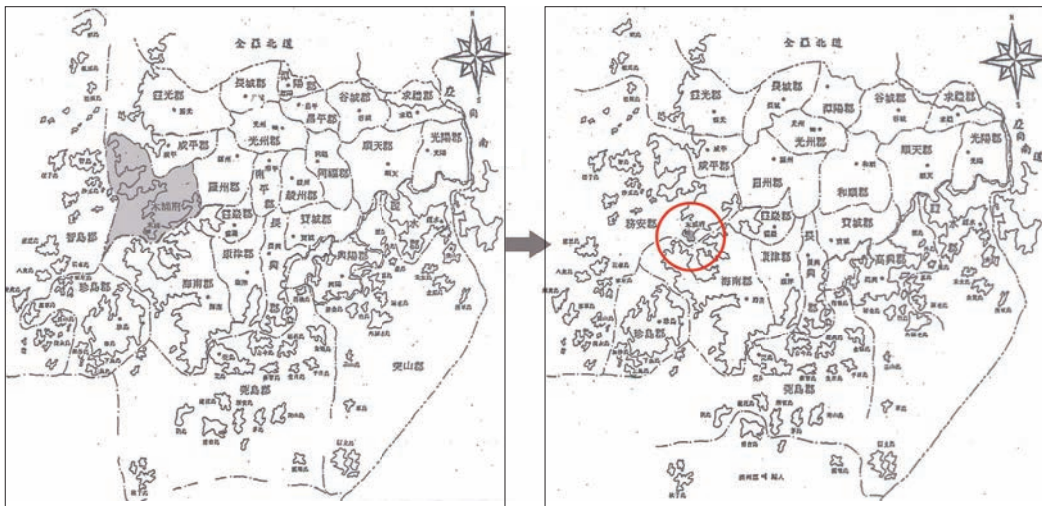


그림 5 1914년 4월 1일 이전과 이후의 전라남도 행정구역 변화

주: 원편의 음영 부분이 목포부, 부제 실시 후 오른쪽의 빨간 원 안의 작은 음영 부분으로 축소되었다.

출전: 심규영,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복원과 그 지도화 -『조선십삼도도』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70-71쪽의 (그림 13)과 (그림 14)를 바탕으로 필자가 추가 작업

19)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감오경장·일제강점기-』, 일지사, 1992, 116~118쪽.

표 2 거류민단의 설립과 해당 지구의 범위 및 유형

명칭	일자	지구	유형
경성 거류민단	1906년 8월 15일 설립	① 경성 성내 일원. ② 돈의문(통칭 서대문) 및 송례문(통칭 남대문) 밖 일대의 지역. 무악(武岳), 아현(阿峴), 청파(靑坡), 이태원(利泰院) 및 갈월리(葛月里)로써 경계를 삼음. 단 각지는 본 지구에 속함.	Ⅱ
	1907년 9월 8일 변경	① 경성 성내 일원. ②-1 돈의문 및 송례문 밖 일대의 지역. 홍재원(弘濟院), 안현(鞍峴)의 동록(東麓), 아현, 청파(사계(四契)의 일부를 제외), 와서(瓦署)(통감부철도관리국용자를 제외), 이태원, 전생서 및 갈월리로써 경계를 삼음. 단 각지는 본 지구에 속함. ②-2 흥인문(통칭 동대문) 밖 일대의 지역. 낙산(駱山)의 동록, 자지동(紫芝洞), 관우묘(통칭 동묘) 왕십리 및 대현동(大峴洞)으로 경계를 삼음. 단 각지는 본 지구에 속함.	
인천 거류민단	1906년 8월 15일 설립	①-1 일본 전관거류지 일원. ①-2 중국전관거류지 일원. ①-3 각국 공동거류지 일원. ② 각국 공동거류지의 경계로부터 10한리 이내의 땅.	Ⅰ-2
부산 거류민단	1906년 8월 15일 설립	① 일본전관거류지 일원. ② 일본전관거류지의 경계로부터 10한리 이내의 땅(절영도 포함).	Ⅰ-1
	1908년 4월 1일 변경	암남(岩南) 반도의 서방 무명의 계류구(溪流口)로부터 천마산(天馬山), 구덕산(九德山), 신암산(新岩山)의 분수선(分水線)을 따라 신계천(新溪川)의 우애(右崖) 제2지류구(支流口)에 달하며, 이로부터 봉오산(峯五山)을 거쳐 흑기(黑崎)에 달하는 분수선으로써 경계를 삼음. 단 동백도(冬柏島) 절영도(絶影島)는 본 지구에 속함.	
진남 포거류민단	1906년 8월 15일 설립	① 각국 공동거류지 일원. ② 각국 공동거류지의 경계로부터 10한리 이내의 땅.	Ⅰ-3
군산 거류민단	1906년 8월 15일 설립	① 각국 공동거류지 일원. ② 각국 공동거류지의 경계로부터 10한리 이내의 땅(금강 북안의 땅을 포함).	Ⅰ-3
평양 거류민단	1906년 8월 15일 설립	동방 대동강 동안 오촌(鰲村) 북단부터 대동강 안에서 삼백간(三百間) 떨어진 곳으로 한정하여 남방의 영제교(永濟橋)에 이름. 남방 영제교로부터 대동강의 우안을 따라 대동강과 보통강의 합류점에 이름. 서방 상수구문(上水口門) 밖의 도로와 의주로 통하는 국도의 교차점 이남은 보통강 좌안으로 한정하고, 이북은 위의 국도를 거쳐 그 국도와 기차요 북방의 현무문으로 통하는 도로의 교차점까지 이름. 북방 위의 교차점에서 현무문으로 통하는 도로를 거쳐 현무문까지 이르고, 성벽을 따라 모란대 및 능라도의 북단으로 한정하여 오촌의 북단에 이름.	Ⅱ
목포 거류민단	1906년 8월 15일 설립	① 각국 공동거류지 일원. ② 각국 공동거류지의 경계로부터 10한리 이내의 땅.	Ⅰ-3
원산 거류민단	1906년 9월 1일 설립	① 일본전관거류지 일원. ② 일본전관거류지 밖 일대의 지역. 덕원군(德源郡) 갈마포(葛麻浦), 덕원읍(德源邑), 원산리(元山里) 및 양일리(陽日里)로써 경계를 삼음. 다만 각지는 본 지구에 속함.	Ⅰ-1
마산 거류민단	1906년 9월 1일 설립	① 각국 공동거류지 일원. ② 각국 공동거류지의 경계로부터 10한리 이내의 땅.	Ⅰ-3
대구 거류민단	1906년 11월 1일 설립	① 대구성내 일원. ② 대구성 밖 일대의 지역. 금호강(琴湖江), 만촌(晩村), 황청동(黃靑洞), 동괘진(東掛津), 당동(唐洞) 및 상리(上里)로써 경계를 삼음. 다만 각지는 본 지구에 속함.	Ⅲ
용산 거류민단	1907년 9월 15일 설립	양화진(楊花津)으로부터 서강(西江), 공덕리(孔德里)를 거쳐 경성거류민단경계선에 접하고, 서빙고에 이르는 한강 우안 일대의 지역. 단 각지는 본 지구에 속함.	
	1910년 7월 5일 폐지	용산 거류민단을 경성 거류민단에 합병.	
신의주 거류민단	1908년 2월 15일 설립	민포동(敏浦洞)의 서방 무명의 입강구(入江口)부터 미륵동(彌勒洞)의 남단을 경유하여 경의철도 선로 제2철교의 동남단에 달하고, 이로부터 동북 300간 지점을 거쳐 상단동(上端洞)과 하단동(下端洞)의 경계선에 접속하고, 이 경계선을 따라 압록강의 좌안에 달하는 선으로써 경계로 삼음. 단 선내 각지는 본 지구에 속함.	Ⅲ

출전: 박준형, 「『거류지』에서 ‘부’로 -1914년, 한반도 공간의 식민지적 재편-, 『사회와 역사』110, 한국사회사학회, 2016, 235~236쪽에서 인용.

1일 새로운 부제 실시와 함께 다시금 부가 설치되었는데, 이때 부의 경계는 이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기에 이른다. 목포부의 경우 기존의 목포부에서 거류지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신설된 무안군(기존의 목포부 대부분과 지도군의 합병으로 성립)에 편입되었다(〈그림 5〉 참조).

근대도시 목포의 기원을 이루는 거류지의 경계는 본래 외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거주 지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거류지 내에서는 외국인만, 그리고 거류지 밖에서는 조선인만 거주할 수 있었다. 다만 1883년의 조영수호통상조약 이래 조선 정부가 각국과 체결한 조약들에서는 거류지로부터 10리, 곧 4km까지는 조선의 지방행정규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의 잡거를 허용했다. 다시 말해서 조약상의 외국인 거류 지역은 거류지와 거류지 밖 10리 이내로 한정되었다.²⁰⁾

이러한 공간 분할은 1905년 일본의 법률 제41호로 공포된 「거류민단법(居留民團法)」에 의거, 조선 각지에 설치된 일본인 거류민단에 의해 계승되었다. 목포, 진남포, 군산, 마산 등과 같이 청일전쟁 이후 각국 공동거류지가 설치된 지역의 거류민단은 거류지와 거류지 밖 10리 이내 지역을 지구의 범위로 삼았다(〈표 2〉의 유형 I-3).

1914년에 신설된 목포부의 경계(〈그림 6〉의 ③)는 거류지의 경계(〈그림 6〉의 ①)를 넘어서면서도 거류민단지구(〈그림 6〉의 ②)의 범위에는 훨씬 못 미쳤다. 이때 경계 설정의 기준이 된 것은 ‘시가지’였다. 거류지 철폐를 위한 외국 대표들과의 협의를 앞두고서 1912년 10월 14일 데라우치 총독이 본국 외무대신에게 제출한 「부제요령(府制要領)」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될 부의 범위는 “현재 시가지인 지역과 장래에 이와 연결하여 시가지가 될 지역”으로 예정되었다.²¹⁾ 시가지의 범위는 새로운 세제의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되어 갔는데, 시가지를 대상으로 지방의 호세나 지세를 대체했던 가옥세(1909년 2월 8일 법률 제2호로 공포)와 시가지세(1914년 3월 16일 제령 제2호로 공포) 등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표 3〉을 보면, 1914년 이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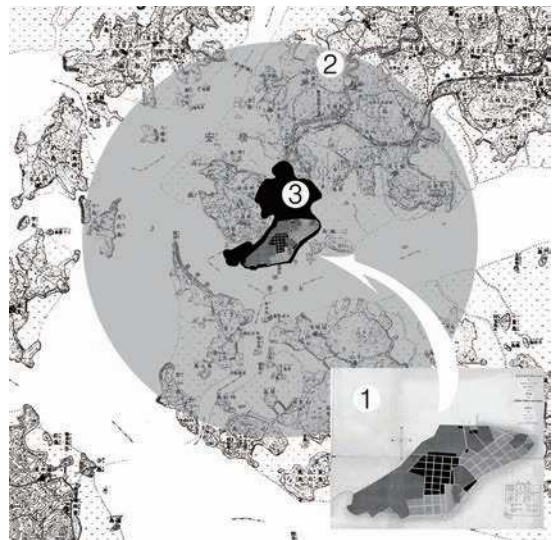


그림 6 목포의 경계들

주: ①은 목포각국공동거류지, ②는 거류지 밖 10리 이내의 잡거지, ③은 1914년에 신설된 목포부의 범주를 나타낸다.

20) 박준형, 「『거류지』에서 ‘부’로 -1914년, 한반도 공간의 식민지적 재편-, 『사회와 역사』110, 한국사회사학회, 2016, 216~217쪽.

21) 『일본외교문서』 제45권 제1책, 사항17의 336번 문서.

표 3 가옥세법 및 시가지제 시행구역의 목표 '시가지'의 범위

구분		시가지 범위
1909. 03. 31.	가옥세법 시행구역 지정	무안부(務安府) 부내면(府內面) 내 온금동(溫錦洞), 죽동(竹洞), 남교동(南橋洞), 북교동(北橋洞), 양동(陽洞), 신창동(新昌洞), 연치동(鸞峙洞)
1910. 04. 13.	가옥세법 시행구역 개정	무안부 부내면, 구 무안군(舊 務安郡) 읍내
1912. 10. 10.	가옥세법 시행구역 지정	목포부 부내면 온금동, 죽동, 남교동, 북교동, 양동, 신창동, 연치동.
1914. 03. 20.	가옥세법 시행구역 개정	목포부 일원
1914. 04. 01.	시가지제 시행구역 지정	목포부

가옥세법 시행 구역으로 온금동, 남교동, 북교동, 양동, 신창동, 연치동과 같은 이른바 조선인 마을이 열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치외법권 지역인 거류지는 같은 시가지라 해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거류지 밖 조선인 마을은 새로운 과세 대상인 시가지로서 식민당국에 포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14년에 거류지가 철폐됨에 따라, 거류지 밖 조선인 시가지는 물론 거류지 내 일본인 시가지까지 모두 포괄하는 '부'가 세제의 시행 구역으로 규정되었고, 이로써 부의 영역은 시가지의 범위와 일치하게 되었다.

이처럼 부의 경계 자체는 더 이상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민족적 구분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그를 대신한 것은 도시와 시골의 구분이었다.

그러나 다음 인용문과 같이 어느 재조일본인은 부제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열등한 조선인은 도태되어 결국 부의 경계 바깥으로 축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그 전망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의 경계가 민족 차별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번 신 부제에 따라 일선인(日鮮人)을 동일 제도 하에 두게 되었는데, 비유하자면 그것은 기차와 같은 것으로, 경제 기타 사회 각 방면의 우수자는 생각한 대로 상급에 타는 일이 가능하지만, 이 자격이 없는 열패자는 모두 하급의 차실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통해 사회의 우수자인 모국인과 자격이 없는 선인 사이는 자연 구별될 것으로 생각한다.²²⁾

22) 『朝鮮及滿洲』(1913년 12월호), 「當局の意圖と協議員に對する希望」.

2) 목포부 지명의 개정

개항 직후인 1899년에 일본인들은 장차 시가지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7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우선적으로 영사관통, 동해안통(1~4정목), 남해안통(1~2정목), 본정통(1~5정목), 무안통(1~6정목), 산수통(1~2정목), 목포대 등으로 이름을 붙였다(〈그림 7〉의 왼쪽). 나머지는 시가의 발전에 따라 추후에 명명하기로 했다. 1912년에 하시모토 부윤은 구역이 아닌 도로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명을 붙이고 곧 시행에 옮기려 했으나, 마침 총독부 토지조사국 조사반이 행정구역 개정을 위해 각지의 시가지 조사에 나섬에 따라 그 시행을 잠시 미루었다가, 결국 1913년 12월 9일에 전라남도 고시 제42호로 <표 4>와 같이 전면 개정을 시행했다.²³⁾

표 4 목포부의 지명 변경(1914년)

	구 지명		신 지명	
	구 지명	신 지명	구 지명	신 지명
목포각국 공동거류지 (일본인 시가지 지역)	무안통(務安通) 5정목(丁目) 일부	하정(霞町)	남해안통 1정목 일부	해안통(海岸通) 1정목
	무안통 6정목 일부		남해안통 2정목 일부	
	무안통 1정목 일부		남해안통 1정목 일부	해안통 2정목
	무안통 2정목 일부	복산정(福山町)	남해안통 2정목 일부	
	무안통 4정목 일부		남해안통 1정목 일부	해안통 3정목
	무안통 2정목 일부		남해안통 2정목 일부	
	무안통 5정목 일부	무안통	남해안통 1정목 일부	해안통 4정목
	무안통 6정목 일부		남해안통 2정목 일부	
	무안통 3정목 일부		동해안통 1정목 일부	수정(壽町) 1정목
	동해안통(東海岸通) 6정목 일부	상반정(常盤町) 1정목	동해안통 1정목 일부	수정 2정목
	무안통 3정목 일부		동해안통 1정목 일부	영정(榮町) 1정목
	무안통 4정목 일부		동해안통 2정목 일부	
	동해안통 6정목 일부	상반정 2정목	동해안통 1정목 일부	영정 2정목
	무안통 1정목 일부		동해안통 2정목 일부	
	영사관통(領事館通) 일부		동해안통 3정목 일부	행정(幸町) 1정목
	영사관통 일부	대화정(大和町) 1정목	동해안통 2정목 일부	
	부청부지(府廳敷地) 전부		동해안통 3정목 일부	행정 2정목
	산수통(山手通) 1정목 일부		동해안통 2정목 일부	
	영사관통 일부	대화정 3정목	동해안통 3정목 일부	보정(寶町) 1정목
	산수통 3정목 일부		동해안통 4정목 일부	
	산수통 2정목 일부		동해안통 3정목 일부	보정 2정목
	산수통 4정목 일부	산수정	동해안통 4정목 일부	
	산수통 1정목 일부		동해안통 3정목 일부	보정 3정목
	산수통 3정목 일부		동해안통 4정목 일부	
	본정통(本町通) 일부	본정 3정목	동해안통 5정목 일부	축정(祝町) 1정목
	영사관통 일부		동해안통 4정목 일부	
	목포대(木浦臺) 일부	본정 1정목	동해안통 5정목 일부	축정 2정목

23)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302~307쪽.

구 지명		신 지명	구 지명	신 지명
목포각국 공동거류지 (일본인 시가지 지역)	영사관동 일부	본정 2정목	동해안동 4정목 일부	축정 3정목
	본정동 일부		동해안동 5정목 일부	
	본정동 일부	경정(京町) 1정목	동해안동 5정목 일부	서정(曙町) 1정목
	목포대 일부		동해안동 7정목 일부	
	본정동 일부	경정 2정목	동해안동 5정목 일부	서정 2정목
	산수동 3정목 일부		동해안동 5정목 일부	
	본정동 일부	중정(仲町) 1정목	동해안동 6정목 일부	서정 3정목
	산수동 3정목 일부		동해안동 6정목 일부	
	본정동 일부	금정(錦町) 1정목	동해안동 7정목 일부	송도정(松島町)
	목포대 일부		송도공원부지(松島公園敷地)	
	남해안동(南海岸通) 3정목 일부	금정 2정목	목포대 일부	목포대
	본정동 일부		목포세관부지(木浦稅關敷地)	항정(港町)
	남해안동 3정목 일부		무선전신부지(無線電信敷地)	
	남해안동 3정목 일부		旭ヶ岡 일부	육정(旭町)
목포부 부내면 (조선인 시가지 지역)	죽동(竹洞) 일부	죽동	旭ヶ岡 주변	
			온금동(溫錦洞) 일부	온금동
	남교동(南橋洞) 일부	남교동	죽동 일부	대정정(大正町)
	남교동 일부		남교동 일부	
	북교동(北橋洞) 일부		신창동 일부	창평정(昌平町)
	양동(陽洞) 일부		죽동 일부	
	북교동 일부	북교동	남교동 일부	창평정(昌平町)
	남교동 일부		신창동 일부	
	양동 일부	양동	남교동 일부	호남정(湖南町)
	북교동 일부		죽동 일부	
	신창동(新昌洞) 일부		신창동 일부	명치정(明治町)
	연치동(鸞峙洞) 일부		죽동 일부	
	신창동 일부	대성동(大成洞)	신창동 일부	명치정(明治町)
	북교동 일부		신창동 일부	

새로운 지명은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 거류지 내 일본인 시가지에는 모두 일본식 지명이, 거류지 밖 조선인 시가지에는 한국식 지명이 붙여졌다. 다만 일본인의 조선인 마을 진출과 함께 거류지 내에서 동서축을 중심으로 완결성을 띠고 있던 가구 형태가 남북축 중심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²⁴⁾ 지명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반영되어 거류지 밖이라 해도 목포역 앞 신개발지에는 창평정, 호남정과 같이 한국 지명을 이용한 일본식 지명과 대정정, 명치정 등과 같은 완전한 일본식 지명까지 등장했다 (<표 3>의 적색 부분, <그림 7> 참조).

24) 고석규, 앞의 책, 93~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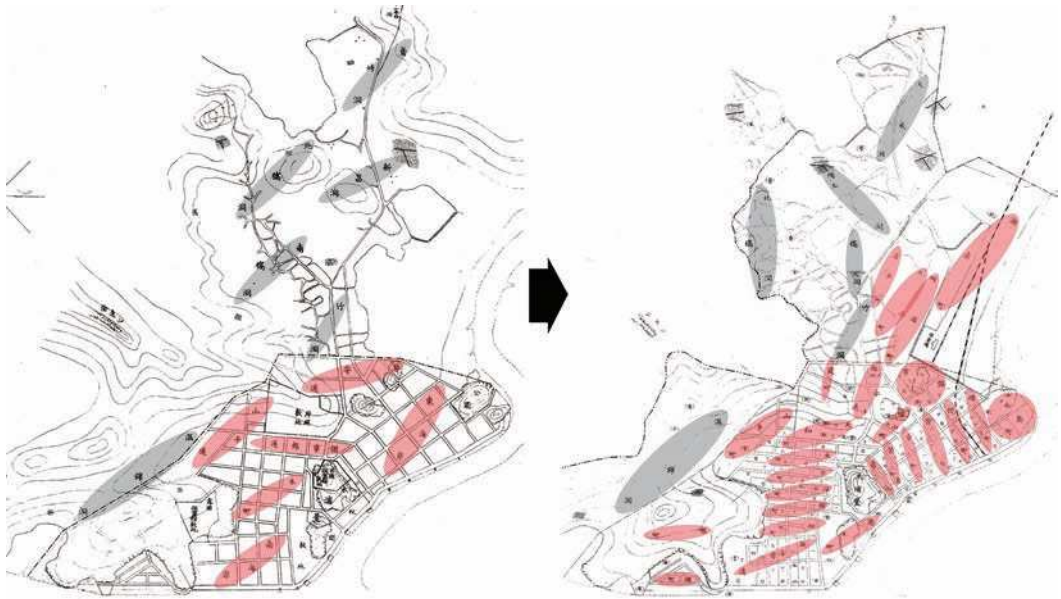


그림 7 1914년 전후 목포의 지명 변화
주: 적색은 일본식 지명, 흑색은 한국식 지명을 나타낸다.

식민 당국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새로운 지명 부여와 관련하여 ‘사용 빈도’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즉 한국식이든 일본식이든 사용 빈도가 높은 지명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일정 지역에 상대적으로 다수가 분포하는 민족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성을 예로 들어보면, 1914년 당시 경정부 내 인구 248,260명 중 일본인 인구는 59,075명으로 23.8%, 한국인은 187,176명으로 75.4%를 차지했으므로, 지명에서도 일본식 지명과 한국식 지명이 위와 유사한 비율로 선택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49%와 51%로 인구 비중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일본식 지명은 실제보다 과도하게, 그리고 한국식 지명은 실제보다 과소하게 반영되었던 것이다.²⁵⁾ 이러한 경향은 목포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결국 일본식/한국식의 이중적인 지명 부여는 거주 민족의 실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식민지 통치권력이 가졌던 이중적인 심상지리를 구체화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렇게 붙여진 지명은 부 단위 내에서의 행정적 차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25) 김종근, 「식민도시 경성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학연구』38,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10, 30~31쪽.

2. 도시계획의 수립과 부역의 확장

1) 시가의 변천과 시구개정사업계획

(1) 시가의 변천

1910년대에는 1900년대의 연속선상에서 시가지 내부의 정리가 진행되어 도시의 대체적인 윤곽이 잡혀 갔다. 먼저 1912년에는 동해안 1정목 남측 도로가 개선되었다. 이 도로는 본래 구 목포진 북면의 산기슭을 따라 한쪽 도로면만 이용 가능했는데, 민유 택지와 도로 부지를 교환하여 양쪽 도로면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했다.²⁶⁾ 이듬해인 1913년에는 호남선 철도의 개통을 전후하여 죽동 유곽이 앵정(櫻町)으로 옮겨 갔다. 남쪽 해안 방면은 상대적으로 시가의 발전이 부진했는데, 유곽 이전에다가 이 일대가 공장 구역으로도 지정되면서 1910년대 초 급격히 성장했다. 또한 구 거류지 내 산기슭 지역은 주택지로서 평균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였으며, 하정(霞町)의 육군 소유지는 1919년에 동양척식회사가 구매하여 사택을 건축했고, 러시아영사관 부지였던 곳의 동북쪽 산기슭과 연결한 일대는 1932년에 고등 여학교를 신축 이전하기에 앞서 목포부에서 매입하여 분할 처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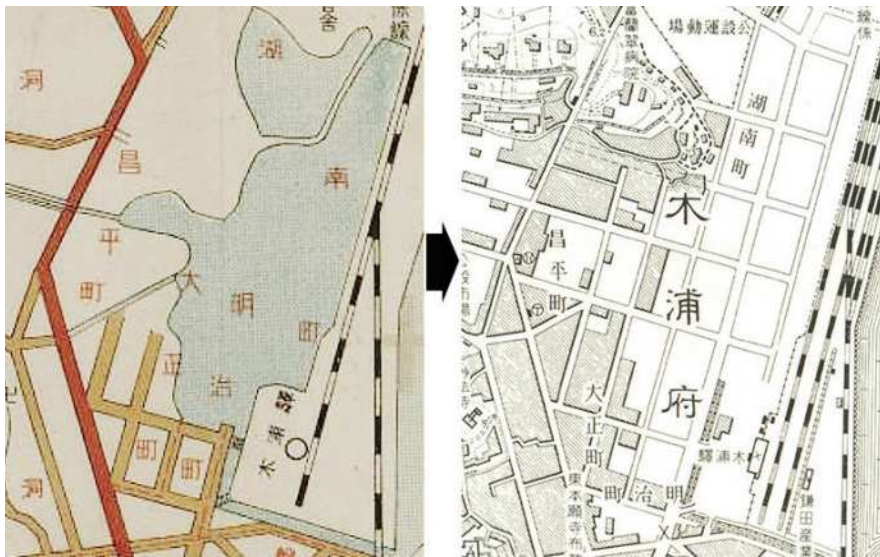


그림 8 1920년대 목포역 앞 공간의 변화

26)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301쪽.

1920년대에 들어서는 구 거류지 밖 조선인 마을을 대상으로 한 시가지 조성 또한 활발해졌다. 저습지가 많이 분포해 있던 양동 남부 및 남교동 북부는 1924년부터 점차적으로 매립이 진행되었다. 같은 해 온금동 방면에서도 매립이 시작되어 2년 후 완성을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1925년에는 절벽을 폭파하여 죽동의 도로를 넓은 직선 도로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장 큰 변화는 목포역 부근에서 일어났다. 1927년부터 철도관사와 대사사(大師寺)의 뒷산을 깎아 호남선 서쪽 편의 광대한 호면을 매립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1929년까지 호면의 약 8할을 시가지로 조성하는 한편 목포역 앞 광장을 지나 신매립지를 관통하는 삼선 도로를 만들었다(〈그림 8〉 참조).

구 거류지 내 시가의 변화도 계속되었다. 복산정(福山町) 동단의 암석을 부수어 상점가를 만들고, 상반정(常盤町)의 돌산을 깎아 서정(曙町) 북쪽의 해안을 매립했다. 이밖에 영정-유정(柳町) 간 도로 확장과 육산(旭山)의 평탄화를 통해 약간의 평지를 획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석토를 가지고 동북쪽에 위치한 물웅덩이를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했다.²⁷⁾

1920년대의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인의 구 거류지 밖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체로 조선인 마을과 일본인 마을 간 연계 시설의 정비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그림 9 1930년대 목포역과 소화교

27) 목포부, 『목포부사』, 1930, 872~874쪽.

(2) 시구개정사업계획

1920년대에 들어 식민지 조선의 각 도시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1919년에 일본에서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물법」이 제정된 후 식민지 조선에서도 일종의 도시계획운동이 일어났으며, 경성에서는 도시계획연구회가 창립되었다. 이러한 동향은 식민지 조선의 각 도시에도



그림 10 목포부 시구개정공사 평면도(점선 안은 사업대상지역)
자료: 「소화4년도신규국고보조품신」(국가기록원소장, CJA0013212).
출전: 윤희철, 2013년에서 재인용.

영향을 미쳐 시구개정²⁸⁾이나 각종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시도로 나타났다. 목포부도 시구개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1928년 6월 4일 조선총독부에 공사비 보조를 신청했다.²⁹⁾

신청서에 따르면, 목포부의 시구개정계획은 1929년부터 3개년 간 총 공사비 21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 70,000원, 지방비보조금 35,000원, 부채 68,400원, 특별세 36,600원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업의 대상은 죽동, 남교동, 북교동 등 일찍부터 조선인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에 걸쳐 있었다. 1920년대의 시가지 변천이 주로 조선인 마을과 일본인 마을의 접촉 지점에서 일어난 것과 달리, 이번 계획은 순전히 조선인 마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사업은 도로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현재 인구 7천 수백 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그 지역 내 도로는 폭원 1미터 내지 2미터로 우여곡절이 있고 비좁아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기관이 출동할 수 없어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함은 물론 불편이 실로 심하다. 동시에 보안 및 위생에 문제가 심각하여 시구개정의 필요가 통감될 뿐만 아니라, 수년간 점차 가옥이 조밀해지고 통행이 빈발하여 방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이는 공사 비용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빈약한 조선인은 거주지로부터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시구개정사업은 일본인 거주지의 확대, 바꾸어 말하면 조선인 거주지의 잠식으로 귀결될 터였다. 그러나 총독부가 목포부의 신청을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업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³⁰⁾

2) 목포시가지계획의 수립

1934년 6월 제령 제18호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의 특징은 첫째 일본과 같이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계획법」을 구분하지 않고,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내용을 모두 포괄했다는 점, 둘째 특별도시계획법의 성격을 지녀 국토계획의 관점을 크게 반영했다는 점, 셋째 기존 시가지의 개량보다는 교외 신시가지의 창설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³¹⁾ 이 법령을 근거로 같은 해 11월 함경북도 나진읍을 시작으로 1944년 8월 삼천포까지 총 43개 지역

28) ‘시구(市區)’는 수전(水田)의 구획을 의미하는 ‘전구(田區)’에 대응하는 말로써 시가지의 구획이자 시가지 전체를 뜻하기도 했는데, ‘시구개정’은 신시가지의 조성보다는 기존 ‘시구’의 개량이라는 성격이 강했다(石田賴房, 『日本近現代都市計劃の展開 1868~2003』, 自治體硏究社, 2004, 37쪽).

29) 「소화4년도신규국고보조품신청」(국가기록원소장, CJA0013212).

30) 윤희철, 「일제강점기 목포 도시계획의 내용과 특징 -시구개정과 시가지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2, 한국지역개발학회, 2013, 11~13쪽.

31) 박종철, 「제3편 도시계획」, 『목포시사』 사회·산업편, 목포시, 1990, 138쪽.



그림 11 목포시가지계획과 중심의 이동
 주: 음영 부분은 토지구획정리지구. 흰색 원은 시가지의 중심을 나타낸다.
 자료: 「목포시가지계획평면도」(1937) 위에 작성함.

에 시가지계획이 결정 고시됐으며, 목포시가지계획은 1937년 3월 23일 총독부 고시 제187호로 공포되었다.

시가지계획은 먼저 총독부에서 계획안을 작성하면 먼저 군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부회·읍회·면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시가지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절차를 밟았다.³²⁾ 첫 단계인 계획안 작성을 위해 총독부 내무국은 1935년에 경성, 인천, 목포 등 17개의 주요 도시에 경비 15,000원을 투입해서 시가지계획 조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11월 17일에 열린 목포부회에는 총독부 기사가 참석하여 목포시가지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했는데, 부회는 간단한 질의 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행태는 시가지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무안군 이로면의 면협의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계획안에 대해 이미 관련 기관과의 협의회가 종결된 상황에서 지방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여지는 애당초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목포시가지계획 심의를 위해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1937년 1월의 일이었다. 이 자리에서 상공회의소 회두와 전라남도 지사 등이 몇 가지 질의를 했으나, 계획안은 결국 어렵지 않게 통과되었다.³³⁾

목포시가지계획은 1965년까지 인구 1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했으며, 시가지계획구역은 '장래 시가지 형성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즉 목포부와 부 외곽의 무안군 이로면 산정리 및 용당리를 포괄했다. 부의 영역은 이미 1932년 8월 15일 총독부령 제75호에 따라 이로면의 죽교리, 산정리, 용당리 일부를 죽교동, 산정동, 용당동으로 편입함으로써 크게 확장된 상태였지만,³⁴⁾ 시가지계획에서는 그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갔다. 왜냐하면 부역 확장에도 불구하고 부 내 인구밀도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고, 산정리와 용당리의 인구도 1919년에는 581명에 불과했으나 1934년에는 2,998명으로 급증하는 등 도시화 경향이 현저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용당리의 경우 목포수도배수장이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목포경찰서와 목포우편국 관할에 속하는 등 이미 목포부와의 일체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³⁵⁾

시가지계획구역은 총 15,138,000㎡로, 당시 목포부 면적의 1.76배, 거주가능면적인 12,012,000㎡만 따지면 1.7배에 해당하는 크기였다(〈표 4〉 참조). 시가지계획은 가로망계획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대로 2류(폭 30m) 4개 노선, 중로 3류(폭 12m) 32개 노선 등 총 61개 노선을 배치했다. 이때 계획된 가로망 구조는 현재의 가로망과도 매우 유사하다. 다만 목표 연도인 1965년 시점에서 봤을 때 그 계

32) 윤희철, 「일제강점기 시가지계획의 수립과정과 집행」, 『도시연구』16, 도시사학회, 2016, 78~79쪽.

33) 윤희철, 「일제강점기 목포 도시계획의 내용과 특징 -시구개정과 시가지계획을 중심으로-」, 14~17쪽.

34) 박종철, 앞의 글, 145쪽.

35) 조선총독부 내무국편, 『목포시가지계획(구역·가로망·지구획정리지구)결정이유서(木浦市街地計劃(區域·街路網·地區劃整理地區)決定理由書)』, 조선총독부, 1937, 1~5쪽.

표 4 목포시가지계획구역 면적표

부면명	리명	총면적(㎡)	거주가능면적(㎡)
목포부		8,595,000	7,068,000
이로면	산정리	2,235,000	2,142,000
	용당리	4,308,000	2,802,000
합계		15,138,000	12,012,000

획은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³⁶⁾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약 8,766,000㎡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체 시가지계획구역의 57%, 거주가능 면적의 7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³⁷⁾ 시가지 대부분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당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역으로 말하자면 사업 시행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주요 개발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계획 내용에서 주목해 볼 것은 당시 시가지의 중심이 목포역 앞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³⁸⁾ 「목포 시가지계획평면도」에 그려진 동심원의 중심에 목포역이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그림 11〉 참조), 인구 및 생활의 중심이 무안가도를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는 ‘거류지 밖’이었을 뿐인 조선인 마을 일대가 구 거류지를 대신하여 시가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시가지 개발은 조선인을 주변으로 몰아냈지만, 시가지의 중심은 그 뒤를 쫓아 다시 이동해 갔다.

제3절 현대도시 목포의 재건설(1945~현재)

1. 목포시의 탄생과 시가지의 사정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후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지명의 개정이었다. 1949년 4월 1일 ‘정(町)’이나 ‘통(通)’과 같은 일본식 지명이 모두 ‘동(洞)’으로 바뀌었다(〈표 5〉³⁹⁾ 참조). 그리고 7월 4일에는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목포부를 목포시로 바꾸었다. 목포시는 1953년 1월

36) 박종철, 앞의 글, 169쪽.

37) 윤희철, 「일제강점기 목포 도시계획의 내용과 특징 -시구개정과 시가지계획을 중심으로-」, 17쪽.

38) 조선총독부 내무국, 앞의 책, 4쪽.

39) 표는 박종철, 「제13편 도시계획」, 『목포시사』 사회·산업편, 목포시, 1990, 214~215쪽과 목포시, 『시세일람(市勢一覽)』, 주간항도사(週刊 港都社), 1957, 4~5쪽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8일 시 조례 제26호로 동의 명칭과 구역을 전면 개정했는데, 이때 행정동과 법정동이 구분되었다. 지명의 형식이 한국식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실상은 기존의 일본식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정’이나 ‘통’을 ‘동’으로 바꾸거나, 혹은 종래의 지명에서 한 글자만 다른 글자로 대체·추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이름들은 현재까지 법정동의 명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행정동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명칭들은 대부분 탈락되었다.

표 5 동(洞) 명칭의 연원(음영은 한국식 지명)

구분	1914.12.9 개정(부제 실시)	1932.8.15 개정(부역 확장)	1949.4.1 개정(법정동)	1953.1.8 개정(행정동)
구 거류지 구역	무안통(務安通)	무안통	무안동(務安洞)	무안동
	하정(霞町)	하정	측후동(測候洞)	
	상반정(常盤町)	상반정	상락동(常樂洞)	
	송도정(松島町)	송도정	동명동(東明洞)	동명동
	서정(曙町)	서정	광동(光洞)	
	본정(本町)	본정	중앙동(中央洞)	
	대화정(大和町)	대화정	대의동(大義洞)	유달동
	산수정(山手町)	산수정	유달동(儒達洞)	
	복산정(福山町)	복산정	복만동(福滿洞)	
	축정(祝町)	축정	축복동(初福洞)	영해동
	영정(榮町)	영정	영해동(榮海洞)	
	보정(寶町)	보정	보광동(寶光洞)	
	행정(幸町)	행정	행복동(幸福洞)	서산동
	앵정(櫻町)	앵정	금화동(錦和洞)	
	옥정(旭町)	옥정	서산동(西山洞)	
	수정(壽町)	수정	수강동(壽康洞)	만호동
	목포대(木浦臺)	목포대	만호동(萬戶洞)	
	경정(京町)	경정	경동(京洞)	
	중정(仲町)	중정	중동(仲洞)	
	금정(錦町)	금정	금동(錦洞)	
	유정(柳町)	유정	유동(柳洞)	
	항정(港町)	항정	항동(港洞)	
	해안통(海岸通)	해안통	해안동(海岸洞)	
구 거류지 밖 구역	대정정(大正町)	대정정(大正町)	대안동(大安洞)	호남동
	명치정(明治町)	명치정	명륜동(明倫洞)	
	창평정(昌平町)	창평정	창평동(昌平洞)	
	호남정(湖南町)	호남정	호남동(湖南洞)	
	온금동(溫錦洞)	온금동	온금동	온금동
	북교동(北橋洞)	북교동	북교동	북교동

구분	1914.12.9 개정(부제 실시)	1932.8.15 개정(부역 확장)	1949.4.1 개정(법정동)	1953.1.8 개정(행정동)
구 거류지 밖 구역	남교동(南橋洞)	남교동	남교동	남교동
	양동(陽洞)	양동	양동	양동
	죽동(竹洞)	죽동	죽동	죽동
	대성동(大成洞)	대성동	대성동	대성1구동
				대성2구동
	죽교동(竹橋洞)	죽교동	죽교동	죽교1구동
				죽교2구동
				죽교3구동
				죽교4구동
				죽교5구동
		산정동(山亭洞)	산정동	산정1구동
				산정2구동
				산정3구동
		용당동(龍塘洞)	용당동	용당동

해방 후 목포시는 1930년대의 목포부와 비교했을 때 시가지 구역이나 도로망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다. 해방 이전에는 1937년의 중일전쟁과 1941년의 태평양전쟁 발발로 시가지계획의 실현은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해방공간의 사회적 혼란과 6·25전쟁의 고난 속에서 시가지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구만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해방 전 72,981명이었던 것이 1949년에는 거의 12만 명이 되었다. 새롭게 유입된 인구는 국외 귀환자, 남하 동포, 타지방 전입자 등이었다. 공원과 같은 국공유지나 일본인이 거주하던 적산가옥에서는 불법 점거가 이루어졌고, 불법 점거자들에 의한 획지의 거둬들 분할로 인해 분쟁도 늘어났다.

이 시기의 도시계획은 해방 전에 수립된 계획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앙로의 개설과 삼학도 항만개발사업을 들 수 있는데,⁴⁰⁾ 전자는 1937년에 시행 결정된 목포시가지계획의 도로망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후자는 1936년에 일본인에 의해 계획된 바 있다. 한편 1953년에 목포시가 남해개발지구 조성을 위해 계획한 송도-삼학도-입암산 간 방조제 공사계획은 이후 목포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⁴¹⁾

40) 박종철, 앞의 글, 180쪽.

41) 같은 글, 183쪽.

2. 목포시의 확장과 도시계획들

1) 한국인에 의한 도시계획, 1960~1970년대

(1) 주택지 조성을 위한 확장과 개발

목포시의 선결 과제는 수용 능력을 초과한 인구 대책이었고, 대책의 핵심은 원활한 주택 공급에 있었다. 1966년 당시 목포시의 인구는 16만이었다. 그런데 17,900여 동의 가옥에 26,700여 호구가 살고 있었는데, 대략 8,000여 동의 가옥이 부족했으니 결과적으로 거주 인구의 3분의 1이 집 없는 신세였던 셈이다. 게다가 매년 인구는 2.8%씩 증가하고 있었다.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 지을 땅이 필요했다. 그를 위해 목포시는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775호로 목포시의 행정구역을 확장했다. 무안군 이로면의 육지부에 속한 산정리·상리·용당리, 그리고 도서부에 속한 달리·눌도(율도)리가 각각 신설된 이로동과 충무동으로 편입되었다(그림 12 참조). 이어서 1970년 7월 1일에는 산정동1구를 분동하여 연동을 신설했고, 1973년 7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6542호로 무안군 삼향면 석현리를 편입했다. 이로써 목포시의 범위는



그림 12 목포도시행정구역변천도(1932년 이전, 1932년, 1962년의 대체적인 시역을 확인할 수 있음)
출전: 『목포시 도시종합개발계획(72~81)』, 67쪽에서 인용.

23.19㎢에서 25.96㎢까지 늘어났으며, 이로동과 용당동의 관할구역도 크게 확장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시행된 조례 제599호에 의해 동명이 개정되어, 산정동1구·2구 등을 산정1동·2동으로 바꾸고 죽교동5구를 대반동으로 개칭했다.

택지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활용되었다. 1966년 8월 3일 법률 제182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계획법에서 분리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원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도 대량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1966년 7월 14일에 변경 고시된 「목포시종합계획(시안)」에도 토지구획정리지구가 계획주거가능지의 절반을 차지했다. 실제로 1968년부터는 산정·용당동 제1지구 84,506평과 제2지구 71,781평을 부도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착공으로부터 16년 6개월이 지난 1985년 12월에 완공되었다.

한편 택지 확보를 위해 간석지를 매립하기도 했다. 60여만 평의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1962년 9월 5일 삼학도-입암산 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하여 1973년 6월 30일 완공했다. 매립은 행정구역 개편 없이 땅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그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또한 하당지구의 매립권을 둘러싸고는 해병대 장교들이 목포 시장 관사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리고 부시장 집에 가서 권총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⁴²⁾

마지막으로 도심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만호동, 영해동, 남교동, 무안동, 호남동, 대성1·2구동, 산정1·2구동, 북교동, 죽동 일대에는 과밀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불량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산정1구동, 연동, 동명동 유달산 기슭의 죽교3·4동, 대반동, 뒷개지구 등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했다.⁴³⁾

(2) 독자적 도시계획의 수립

행정구역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던 까닭에 목포시의 도시개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1965년에 이르러서야 1937년의 원 계획을 변경하는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이 착수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도시계획은 「목포시 종합계획(시안)」이라는 이름으로 1966년 7월 14일에 고시되었다. 이는 ‘과거 왜정 때 책정해 놓은 도시계획선이 현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 위에 한국인이 수립한 최초의 도시계획이었다. 목표 연도와 계획 인구는 각각 1980년과 25만 명이었고, 도시계획구역은 1937년의 15,138㎢보다 두 배 이상 넓은 41,073㎢였다. 목포시는 이 계획에 따라 용도지구제를 실시하여 업무 지구·방화 지구·임항 지구·고도 미관 지

42) 고석규, 앞의 책, 126~127쪽.

43) 박종철, 앞의 글, 190~194쪽.

구·교육 지구·공업 전용 및 중공업 지구·불량 지구 등을 지정했다.

확장된 도시계획구역의 대부분은 공업지역이 차지했다. 주거지역이 20,477km²인데 비해 공업지역은 4,279km²나 되었다. 북항지구 10만여 평, 삼학도 남해개발지구 58만 평 중 31만여 평, 하당지구 80여만 평 중 50여만 평이 공업 지구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공업화는 곧 지역 발전이라고 믿었던 당시 시대상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는 도시계획의 시기라고 할 정도로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이 잦았다. 1971년, 1974년, 1976년, 1980년 등 모두 4회에 걸쳐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용도지역 변경도 10회에 달하였다. 이 시기 도시계획의 특징으로는 도시의 평면적 확대를 방지하고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을 축소한 점을 들 수 있다.⁴⁴⁾ 예를 들어 1971년 계획에서는 각종 사업 시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도시계획구역을 기존의 41,073km²에서 36,123km²로 축소했고, 1976년 계획은 이를 다시 33,19km²로 축소시켰다.

그림 13 1945년 이전 간척사업 지역과 2017년 현재의 지형(검은색 부분)

주: 해방 이후 삼학도-갯바위, 하당 지구의 매립 등으로 목포시의 지형이 확연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이전 각 지역의 방조제 수축 연도는 다음과 같다. A: 부청앞(~1900), B: 구시가(1899~1909), C: 누정(1909~1912), D: 온금동(~1912), E: 목포(1913년 이전), F: 남북교동(1914~1924), G: 역전(1924~1929), H: 산정교(~1925), I: 산정동(1925~1932), J: 대성교(~1932), K: 뒷개(1926~1935), L: 봉행평(1926년 이전), M: 소반동(1926년 이전), N: 봉준평(1926~1935), O: 원 지형(간척사업 이전))

출전: 1945년 이전의 그림은 고석규, 앞의 책, 138쪽에서 재인용.



44) 고석규, 앞의 책, 133쪽.

그러나 시역은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시역의 확장 외에도 간척지 개발을 통해 각 동의 관할구역은 조금씩 넓어졌다. 또한 1972년 말에는 13만 평의 임해공업단지가 준공되었고, 1977년 11월에는 IBRD주택단지조성사업이 준공되어 분양이 이루어졌다. 80만여 평의 해당지구도 1972년 6월에 완공을 봤으며, 꾀보선창은 1981년에 공사를 마쳤다. 이와 같이 간척 공사와 대단지주택단지 건설이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과밀화되었던 중심부 인구가 감소 혹은 정체하는 대신에 주변부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도심부의 공동화 현상이 점차 두드러졌다.⁴⁵⁾

2) 새로운 전기, 1980~1990년대

(1) 도시계획법의 발전과 목포도시계획

1970년대 도시계획구역의 축소는 수도권 도시 및 공업도시들에 대한 상대적 열세 속에 정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던 목포시의 현실적 대응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도시계획법이 개정(1981)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연차별 집행 계획, 사업 계획으로 이어지는 체계화가 이루어졌으며, 공청회 및 열람 제도의 확대로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또한 건축법의 도시설계제도(1980)와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계획결정권을 시·도에 일부 위임한 것(1982)은 자치화의 실현이었다.⁴⁶⁾

1980년대 목포의 도시계획은 개정 도시계획법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기도 했다. 새로운 도시계획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도시 개발 방향과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는 도시계획법상 최초로 전국 각 도시에 대한 총괄적이고 본격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한 것이었다.

기본 계획의 수립은 1983년 1월 14일 목포시와 재단법인 한국생산성본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되었다. 8월 13일에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13일에 목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9월 23일)와 건설부(11월 23일)에 계획안의 승인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3일 건설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계획 목표 연도를 2001년, 계획 인구를 45만 명으로 잡은 「목포도시기본계획」은 계획에 비해 협소한 시가화구역을 극복하는 한편, 영산강 유역 간척지 개발과 목포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목포시

45) 고석규, 앞의 책, 135~140쪽.

46) 박종철, 앞의 글, 278~279쪽.

와 그 주변 3개 군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85.57㎢의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했다(그림 14) 참조.⁴⁷⁾ 그리고 이를 이어받아 1986년에 「목포도시계획재정비」가 만들어졌다.⁴⁸⁾

그러나 이 계획들은 도시계획에서 인구추계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계획에서 하향 배분한 인구수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목포 인구의 감소 경향을 반영하지는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삼학도와 영암 사이의 철도가설계획은 재정 형편상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으며, 상습 침수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다.⁴⁹⁾



그림 15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계획구역도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84년의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사항들, 즉 목포시 행정구역의 확장,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영암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그에 따른 배후 주거지 개발, 신도심으로서의 하당지구 개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삼호지방산업단지 개발, 목포 신외항 건설, 국도 1·2 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과 같은 내·외부적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목포·서영암 도

47) 『목포도시기본계획』(1984. 07.), 3~8쪽.

48) 박종철, 「제13편 도시계획」, 『목포시사Ⅲ (1980~1994)』, 목포시 1997, 820쪽.

49) 박종철, 앞의 글, 1990, 279~280쪽.

시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그림 15〉 참조).

이 계획은 대불·삼호·신외항·영암산업단지를 경계로 양분되어 있던 목포와 서영암 지역을 상호 연계시키는 방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계획 목표 연도를 2011년으로 정하고 계획 기간(1992~2011)을 4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지표를 수립했다. 도시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1991년 12월에 변경 승인된 목포도시기본계획구역(86.25㎢)을 수용하되, 1987년 1월 1일에 목포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대양동, 옥암동 일원과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의 일부 지역 등을 포함한 375.98㎢로 설정되었다.⁵⁰⁾

(2) 개발의 전성기

1960년대부터 본격화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0년대에 들어 전성기를 맞이했다. 또한 그 사업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이나 면적에 따라 인구 증가의 양태도 달라졌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구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도심부와 달리 시 외곽부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영암대불공업단지 및 삼호공업단지 등의 가동과 연계된 하당 신시가지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그를 수용하기 위한 아파트 단지 위주의 개발은 신규 부도심 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가지의 진행 축은 1980



그림 16 하당 택지개발지구를 가로질러 영산강 하구둑을 지나 대불국가공업단지로 이어지는 2번 국도(1990년대)와 서북간에 영산강 하구둑 모습

50)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1997. 04.), 5~13쪽.

년대까지 형성되어 온 북동 방향의 축과 더불어, 90년대부터는 하당-상동-연산을 잇는 또 다른 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당 신시가지 개발은 1988년 1월 서울환경그룹과의 용역 체결을 통해 착수되었다. 11월에 사업 지구를 확정하고 이듬해 5월 건설부 고시 제22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었다. 이후 예정 지구와 개발계획의 변경 및 승인을 거쳐 1989년 12월 30일 제1단계 사업이 착공되었다. 「목포신도심 개발기본계획서」(1989)에서는 본 사업의 목적으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신도심 형성을 내세웠다.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 방법을 병행했다. 3단계 사업은 1993년~1995년에 옥암지구에서 추진될 예정이었는데, 그 실현은 많이 늦춰졌지만 목포의 인구 중심은 하당 신시가지를 거쳐 옥암 신시가지로 이동하게 된다.

3) 미래에 대비하는 도시계획, 2000년대 이후

1997년의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후 「목포권 도시기본계획」(2003)을 거쳐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2006)이 수립되었다. 「2020년 목포도시기본계획」은 2020년에 31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 공간 구조를 창출하고, 친환경적 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도시계획구역은 시·군 단위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2003년 1월 1일)에 따라 이전 기본 계획들에 포함되어 있던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지역을 모두 제척하고 목포시의 행정구역인 112.49㎢로 대폭 축소시켰다.⁵¹⁾ 이 계획의 기본 방향은 첫째 신도시 개발에 따라 도심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거주 환경 개선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또 그를 통해 도심 인구를 증대시키는 한편, 둘째 도심 지구 거주 생활의 미래상을 중·장기 기본 계획에 반영시켜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한다는 데 있었다.⁵²⁾ 이는 성장 및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으로부터 커다란 방향 전환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목포의 시가지는 혼란과 정체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그림 17〉 참조). 최초의 도시계획 이래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가 바로 계획과 실제 사이의 괴리였는데, 위의 새로운 도시계획이 말하는 바와 같이 도시의 외형적 개발에 앞서 주민들의 실제적 삶에 대한 관심을 매개로 그 괴리의 간격이 좁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51) 「2020년 목포도시기본계획」(2006. 11.), 4~7쪽.

52) 같은 책, 2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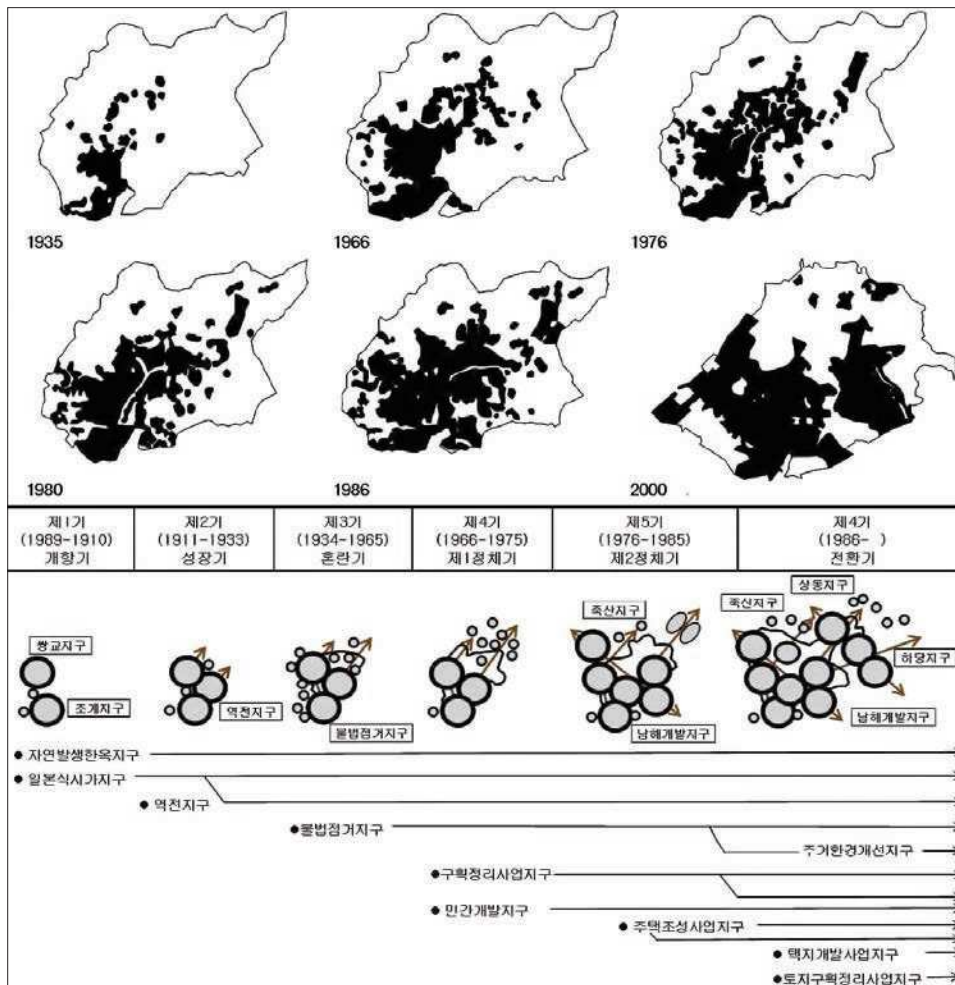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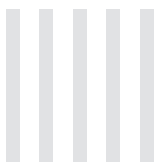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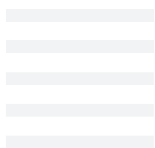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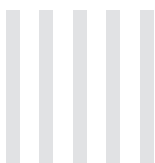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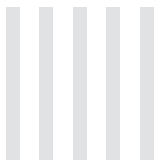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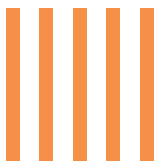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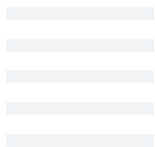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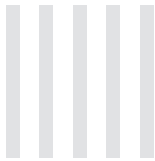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그림 17 시가지 범위의 확장과 형성 과정
출전: 「2020년 목포도시기본계획」(2006.11), 251쪽에서 인용.

박준형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제1절 인구의 기본 현황과 변화

박성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2절 인구구조와 인구 이동

박성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2장 목포 인구의 수와 구성의 변화

제1절 인구의 기본 현황과 변화

1. 인구의 기본 현황과 추이

1) 기본 현황

일반적으로 인구는 지역 사회의 힘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며 경쟁력을 대변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마치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각인될 정도로 중요한 척도이다. 따라서 인구 현황과 그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그 도시를 진단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 국면에서 나뉜다. 첫째, 인구 증가가 아닌 감소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둘째,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시대에서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시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셋째,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였다. 지방은 이 모든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 단위이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일이고, 고령 인구의 급증과 인구 유출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경제침체의 주된 원인이며, 단일성을 강조해 온 우리나라 인구의 일시적 다문화적 구성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농촌지역이라 하여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인구문제의 초점이 사실상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문제를 지방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⁰¹⁾

01) 최민정, 『인구정책의 지방화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40쪽.

주민등록 자료에 따른 목포시의 인구 개황을 2015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자 120,544명, 여자 120,669명으로 총 241,213명이며, 세대수 100,172이다. 이러한 목포시의 인구는 전라남도 총인구 1,908,996명의 12.5%를 점하여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 규모이다. 세대당 인구는 2.38명으로 전라남도의 2.29명보다는 약간 높으나 전국의 2.45명보다는 약간 낮다. 인구밀도는 4,677명/㎢로 전라남도의 155.04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밀도이며, 전국의 528.20명/㎢에 비해서는 8.9배 이상 높은 밀도이다.

표 1 인구 개황(2015년 말 기준)

(단위: 세대, 명, 명/㎢)

구분	인구			세대수	세대당 인구	인구밀도
	남	여	계			
전국	25,758,186	25,771,152	51,529,338	21,011,152	2.45	528
전남	953,881	955,115	1,908,996	833,901	2.29	155
목포	120,544	120,669	241,213	100,172	2.38	4,677

지금과 같은 인구 수준을 나타낸 것은 그 동안 목포를 둘러싼 정치·경제 등 많은 영향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 목포 인구는 어떠한 변화와 추이를 보이고 있었을까? 지금부터 이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1897년 개항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목포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⁰²⁾

2) 개항기의 목포 인구 추이

1897년 10월 1일, 목포항은 진남포항과 더불어 개항하게 된다. 개항 당시 목포진의 관할 하에 있던 인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600여 명으로 추정된다.⁰³⁾ 그 이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같은 해 연말에는 한국인이 2,600명으로 되고 일본인도 206명으로 집계되었다.

목포는 개항 이전에도 벌써 일본인들이 적지 않게 들어와 한국인의 민가를 빌리거나 바라크를 세워 거주하고 있었으며, 해관원들도 개항일 이전에 내항하여 개항 준비를 서둘렀다.⁰⁴⁾ 이 같은 사정을 『목포부사(木浦府史)』(1930)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항의 건이 드디어 결정을 보았다고 알려지자, 목포항의 장래를 내다본 일본인들은 앞을 다투어 부산, 인천, 경성 또는 원산 방면에서 속속 내

02) 기 발간된 『목포시사』(1차: 1987, 2차: 1990~1991, 3차 1997)를 참조하였고, 1997년 이후 현재까지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을 활용하였다.

03)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09쪽.

04)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82, 293쪽.

항하였고, 가까운 여러 군에서 상인들도 모여들어 개항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⁰⁵⁾ 한국인, 일본인들이 각처에서 ‘속속 내항하였다’라는 것은 무역을 비롯한 3차 산업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규모는 비록 작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상업자본이 유입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항기 목포 시가지를 포함하고 있던 행정구역의 인구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⁰⁶⁾

〈표 2〉를 살펴보면, 1897~1910년 13년간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3.4%를 기록하여 총인구수는 2,806명에서 10,65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여기서 주목을 끄는 사실은 1897~1910년 동안 목포 지역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한국인은 8%를 나타낸 반면 일본인은 무려 24.3%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항 연도인 1897년에는 목포 전체인구의 92.7%가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점차 한국인의 구성비가 줄어들어 1907년에는 54.6%, 1909년에는 64.1%, 1910년에 이르러서는 66.4%를 차지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인은 1909년에 35%, 1910년에는 32.8%를 차지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항기 목포 지역 인구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한 것은 개항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호남을 비롯한 한반도에서 생산된 1차 산업의 수출 항구로서의 역할과 일본에서의 생산된 2차 산업의 수입항구로서 기능을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을 순조롭게 담당하기 위해 목포항에는 지속적이면서 정책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표 2 목포 시가지를 포함하고 있던 행정구역의 인구 추이

(단위: 명)

연도	한국인(A)	일본인(B)	기타외국인	계(C)	A/C(%)	B/C(%)
1897*	2,600	206	-	2,806	92.7	7.3
1902*	3,655	1,045	55	4,755	76.9	22.0
1907**	3,532	2,851	83	6,466	54.6	45.1
1908**	5,252	2,863	78	8,139	64.5	35.2
1909**	5,675	3,097	81	8,853	64.1	35.0
1910**	7,076	3,494	85	10,655	66.4	32.8
연평균증가율(%)	8.0	24.32	5.6	13.4	-	-

출전: 『목포부사』, 『목포상공회의소, 『통계연보』 각 연도에 의함.

05) 목포부, 『목포부사』, 1930, 43쪽.

06) 목포인구 통계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개항 초기 목포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인구 규모를 연도별로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목포부사에 의해 〈표 2〉에 제시한 연도에 한정하여 목포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인구 규모만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일제 하의 자료로는 상당히 소상한 통계가 실려 있는 목포상공회의소의 통계 자료도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거주 인구는 연도별로 명확히 수록되어 있으나 한국인의 인구 통계는 전연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

3) 일제강점기의 인구 추이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사회경제는 일본의 식민정책이 바뀔에 따라 몇 차례 변화를 겪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의 변동에 따라 인구 추세 역시 변동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즉, 목포 경제가 1930년대 중반까지 호황을 누렸고, 이를 반영하듯 목포 인구는 10년마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10년 10,655명이었던 인구가 10년이 지난 1920년 16,701명, 또 10년이 지난 1930년에는 31,827명, 1941년 69,965명이 된다. 1910년에서 194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3,313,017명에서 24,326,327명으로 45.2% 증가한 반면, 목포부(木浦府)의 인구는 10,655명에서 69,965명으로 566.6%(59,310명) 증가하여 약 520% 정도가 유입 인구와 행정구역 편입에 의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목포부 인구의 증가 추이를 보면, <표 3>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4.4%를 기록하여 개항기의 13.4%에 비하면 아주 둔화된 증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1919년의 인구수는 1만5천명을 약간 상회하여 경술국치가 이루어졌던 1910년에 비하여 약 1.5배가 늘어난 셈이다. 개항기의 목포 시가지는 무안통 부근과 동해안 방면으로 형성되어 인구가 이 지역에 많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1912년부터는 시가지의 모습이 남해안 방면으로 발전되고, 부제(府制)가 실시되었던 1914년부터는 북부 죽교동 방면으로 확대되어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 역시 무안동을 중심으로 하여 동남북으로 퍼져 분포되고 있었다.

표 3 일제시기 목포부의 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연도	한국인 (A)	일본인 (B)	만주국인 및 중화민국인	미국인	합계 (C)	지수	A/C	B/C
1910	7,076	3,494	75	10	10,655	100	66.4	32.8
1911	7,370	4,726	111	15	12,222	114.7	60.3	38.7
1912	7,569	5,323	150	10	13,052	122.5	58.0	40.78
1913	7,552	5,859	130	17	13,558	127.2	55.7	43.21
1914	6,991	4,908	102	14	12,015	112.8	58.2	40.8
1915	7,118	4,611	74	14	11,817	110.9	60.2	39.02
1916	8,368	4,665	70	19	13,122	123.1	63.8	35.6
1917	8,804	4,583	82	18	13,487	126.6	65.3	34.0
1918	8,918	4,645	109	9	13,681	128.4	65.2	34.0
1919	10,348	4,850	104	9	15,311	143.7	67.6	31.7
1920	11,270	5,273	146	12	16,701	156.7	67.4	31.6
1921	12,096	5,685	146	18	17,945	168.4	67.4	31.7
1922	13,351	6,507	156	14	20,028	187.9	66.7	32.5
1923	15,036	7,021	157	19	22,233	208.7	67.6	31.6

연도	구분	한국인 (A)	일본인 (B)	만주국인 및 중화민국인	미국인	합계 (C)	자수	A/C	B/C
1924		16,275	7,368	191	20	23,854	223.8	68.2	30.9
1925		18,815	6,709	218	20	25,762	241.8	73.0	36.0
1926		19,993	7,280	226	22	27,521	258.3	72.6	36.4
1927		21,178	7,809	230	25	29,242	274.4	72.4	26.7
1928		21,707	7,931	235	21	29,894	280.6	72.6	26.5
1929		21,758	7,963	243	21	29,985	281.4	72.6	26.5
1930		23,488	8,003	305	21	31,827	298.7	73.8	25.1
1931		24,805	8,045	198	14	33,062	310.3	75.0	24.3
1932		43,827	8,479	187	18	52,511	492.8	83.4	16.1
1933		44,535	8,414	197	19	53,165	498.9	83.8	15.8
1934		46,896	8,534	219	18	55,167	517.7	85.0	15.5
1935		49,967	8,836	227	16	59,094	554.6	84.5	15.0
1936		50,859	8,885	239	55	60,004	563.1	84.8	14.8
1937		53,541	8,821	74	21	62,457	586.2	85.6	14.1
1938		56,923	8,551	85	13	65,572	615.4	86.8	13.0
1939		-	-	-	-	68,531	643.2	-	-
1941		-	-	-	-	69,965	656.6	-	-
1943		-	-	-	-	72,981	684.9	-	-

주: 일제1기(1910~1919)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 4.11%, 일제2기(1919~1931)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 6.62%, 일제3기(1931~1943)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 6.005%

출전: 목포상공회의소, 『통계연보』 각 연도.

위의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1920년부터 만주사변이 일어난 1931년까지의 목포부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6.6%를 기록하여 1910년대의 4.1%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1931년의 인구 규모는 1910년 경술국치 당시보다 약 3배가 늘어난 셈이다. 1931년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구구성은 한국인이 75%, 일본인이 24.3%를 차지하여 한국인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32년과 1932년 사이에 인구가 급증한 이유는 1932년 10월 목포부의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무안군 이로면 산정리의 일부와 죽교리, 용당면 삼학도가 목포부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때 편입된 면적은 1,826,847평으로 목포부의 면적은 과거의 약 4배 가까이 커진 2,531,815평이 되었다. 인구도 11,087명이 편입되어 총인구는 43,827명이 되었다.⁰⁷⁾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는 시기, 한반도의 도시화는 상당히 진척된다. 인구의 도시화율은 <표 4>와 같이 1920년에 3.4%에 불과하였으나 1930년에는 5.6%, 1940년에는 8.6% 그리고 광복 전해인 1944년에는 13.2%를 기록하고 있다.

07) 『동아일보』 1932. 8. 19.

표 4 일제강점기 도시인구 비중의 변화

(단위: 명)

연도	구분	전국인구(A)	시인구(B)	군인구(C)	B/A	C/A
1910		13,313,017	512,072	12,800,945	3.8	96.2
1920		17,288,989	598,055	16,690,934	3.4	96.6
1930		21,058,305	1,189,791	19,868,514	5.6	94.4
1940		24,326,327	2,818,460	21,507,867	8.6	91.4
1944		25,917,881	3,411,542	22,497,039	13.2	86.4

출전: 홍경희, 『한국도시연구』, 홍경희박사회갑기념논문집발간위원회, 1979, 12~15쪽.

국적별 인구 비율이 마지막으로 추계된 1938년 목포부에 거주하는 인구구성을 보면 한국인이 86.8%, 일본인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점차 한국인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광복 이후부터 경제개발기까지(1946~1997)의 인구 추이

광복 전까지 우리나라 도시에서 인구의 약 15%를 차지했던 일본인은 철수하고, 월남 피난민 및 해외에서 찾아드는 인구는 광복 직후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에서 특이한 변화를 보여 주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상 일대 수난기였던 6·25전쟁은 전장(戰場)의 이동에 따라 국내에서 극심한 인구이동을 유발했다. 그 이후 1961년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개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변혁적인 도시화의 과정에 진입하게 된다.

여기서는 광복 이후부터 IMF위기 이전의 경제개발기까지의 인구 추이를 살펴본다.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은 1945년 9월 8일 미군의 인천 상륙에서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약 2년 11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기간 동안 목포부 인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⁰⁸⁾

표 5 미 군정기의 인구 추이

(단위: 명, %)

연도	구분	목포부		전국	
		인구수	증감율	인구수	증감율
1946		103,081	-	19,369,270	-
1947		77,168	△25.1	19,698,547	1.7

출전: 공보처·통계국, 『대한민국통계월보』2, 1949, 56쪽; 이종화 외, 『목포 목포사람들』, 경인문화사, 2004, 48쪽.

08) 이종화 외, 『목포 목포사람들』, 경인문화사, 2004, 47~48쪽.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면서 목포부는 목포시(木浦市)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후 6·25전쟁의 발발과 전후 복구기인 1948년부터 196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도시가 농촌으로부터 유입된 이농민(離農民)과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避難民),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귀향민(歸鄉民), 그리고 6·25전쟁에 따르는 인구 이동으로 특징 지워진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목포시의 인구 추이는 1949년에 11만 1천명에서 1960년에 12만 9천 명으로 1만 8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연평균 1.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항기의 13.4%나 일제강점기의 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증가율이다.⁰⁹⁾ 이처럼 목포시의 인구 증가율은 낮은 데 반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빠르게 진행되어 1960년에 28%에 이르게 된다.¹⁰⁾

표 6 6·25전쟁 발발과 전후 복구기(1950년대)의 인구 추이

(단위: 명, %)

연도	구분	목포시		전국	
		인구수	증감율	인구수	증감율
1949		111,128	-	20,188,641	-
1955		113,492	2.1	21,502,386	6.5
1960		129,650	14.2	24,989,241	16.2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개발의 시대에 들어갔다. 경제 성장의 초기 단계인 1960년대는 기존 도시의 집적 이익을 활용하려는 경향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몇 개의 대도시가 크게 발달하게 되었고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들은 오히려 정체 상태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60년~1966년 도시인구는 연간 4.5%로 증가하였고 1966년~1970년 7.2%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서울과 같이 단기간에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서울로의 인구이동은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1960년대 목포시 인구의 추이를 다음 <표 7>을 통해서 보기로 한다. <표 7>을 살펴보면, 1961~1970년 목포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약 4.0%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몇 개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6%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1961년 127,252명에서 1970년 177,800명으로 약 5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세대당 인구수는 약간 감소하였다.

09) 목포시, 『목포시사』 인문편, 1987, 87쪽.

10) 홍경희, 『도시지리학』, 법문사, 1983, 97~98쪽.

표 7 경제개발과 산업화 과정기(1960년대)의 인구 추이

(단위: 명, 세대)

연도	구분	세 대	인구수				세대당 인구
			계	증감수	남	여	
1961		22,355	127,252	△2,398	63,702	63,550	5.69
1962		25,037	142,640	15,388	71,740	70,990	5.70
1963		25,666	149,675	7,035	75,346	74,329	5.83
1964		26,035	154,241	4,566	77,894	76,347	5.92
1965		25,697	157,382	3,141	79,548	77,834	6.12
1966		28,309	162,491	5,109	83,061	79,430	5.74
1967		28,846	166,277	3,786	84,088	82,189	5.76
1968		29,470	168,192	1,915	84,856	83,336	5.71
1969		-	-	-	-	-	-
1970		32,937	177,800	9,608	91,105	86,695	5.40

주: 1969년의 통계자료 구축되지 않으며, 1970년의 증감 수는 1968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수치임.
출전: 목포시, 『통계연보』(1962~1971).

1970년대 목포시 인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년 182,485명에서 1980년 221,856명으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약 2.2%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60년대 보다 반 배 정도 감소한 수치로 개발기의 초기 단계보다 크게 둔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75~1982년 시(市)지역 연평균 인구 증가율 5.3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목포시는 전국적인 경제발전의 파급효과에 영향을 받지 못한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표 8 경제개발과 산업화 과정기(1970년대)의 인구 추이

(단위: 명, 세대)

연도	구분	세 대	인구수				세대당 인구
			계	증감수	남	여	
1971		33,895	182,485	4,685	91,457	91,028	5.38
1972		34,758	186,862	4,377	93,703	93,159	5.38
1973		35,976	192,324	5,462	96,576	95,748	5.35
1974		36,751	194,525	2,201	98,314	96,211	5.29
1975		39,236	192,927	△1,598	97,894	95,033	4.92
1976		39,783	196,854	3,927	89,926	97,928	4.95
1977		40,840	203,104	6,250	101,496	101,608	4.97
1978		43,220	210,867	7,763	105,058	105,864	4.88
1979		44,110	216,867	6,000	108,389	108,478	4.92
1980		46,577	221,856	4,989	111,185	110,671	4.76

출전: 목포시, 『통계연보』(1972~1981).

1980년대 목포시 인구의 추이를 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 226,747명에서 1990년대 253,423명으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약 1.2%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보다 반 배 정도 감소한 수치로 인구 성장률이 더욱 감소하여 도시 성장의 상대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표 9 경제개발과 산업화 과정기(1980년대)의 인구 추이

(단위: 명, 세대)

연도	구분	세대	인구수				세대당 인구
			계	증감수	남	여	
1981		47,670	226,747	4,891	112,920	113,827	4.76
1982		47,954	229,292	2,545	113,976	115,316	4.78
1983		49,025	228,075	△1,217	113,595	114,480	4.65
1984		50,312	232,446	4,371	115,485	116,961	4.62
1985		51,722	236,078	3,632	117,438	118,640	4.56
1986		52,614	239,774	3,696	118,689	121,085	4.56
1987		54,019	248,748	8,974	123,176	125,572	4.60
1988		54,755	250,145	1,397	124,203	125,942	4.57
1989		55,644	251,490	1,345	124,258	127,232	4.52
1990		57,831	253,423	1,933	126,522	126,901	4.38

출전: 목포시, 『통계연보』(1982~1991).

목포는 개발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인구증가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90년 253,423명에 이르러 약 30여 년 만에 2배로 증가하면서 통계상으로 가장 높게 기록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1991년부터는 인구 통계기준이 상주인구에서 주민등록표상의 인구로 바뀌게 되어 통계상으로는 낮게 기록되고 있다.¹¹⁾ 다음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의 인구는 221,193명으로 3만여 명 이상 낮게 기록되고 있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며 1997년에는 250,178명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남성보다 여성의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당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 이종화 외, 앞의 책, 53쪽.

표 10 경제개발과 산업화 과정기(1990년대)의 인구 추이

(단위: 명, 세대)

연도	구분 세대	인구수				세대당 인구
		계	증감수	남	여	
1991	58,583	221,193	△32,230	109,614	111,579	3.78
1992	60,959	224,766	3,573	111,160	113,606	3.69
1993	63,235	227,117	2,351	112,256	114,861	3.59
1994	65,405	231,519	4,402	114,497	116,910	3.54
1995	69,736	239,571	8,052	118,662	120,761	3.44
1996	73,207	245,471	5,900	121,674	123,478	3.35
1997	76,207	250,178	4,707	124,072	125,692	3.28

출전: 목포시, 『통계연보』(1992~1998).

우리나라 경제 개발기의 목포시 인구 성장과 관련된 특징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한 지역의 자본 축적과 노동력 공급의 증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클수록 그 지역의 성장률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면,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목포시는 성장률 역시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목포에서 돈을 벌면 서울이나 광주로 이사한다’는 향간의 말은 목포 지역에서의 역류 현상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 정책의 시각에서 벗어난 목포 지역은 공업화 바람이 일지 않았고,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지극히 저조했으며, 이러한 요인은 결과적으로 서비스 기능이 다른 도시에 비해 크게 위축되어 민간투자 유인마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목포권의 노동력과 자본이 선진 도시로 유출되는 역류 현상을 자극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선진 도시의 높은 소비패턴이 도리어 목포 지역으로 유입되는 이차적 역류 현상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었다.

5) IMF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1998~2015년)의 인구 추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포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IMF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표 11>에서 보면, 1997년에 25만 178명을 정점으로 하여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산업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지지해주던 중견 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교육 여건이 열악한 데 있다. 목포시의 경우 인구감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 2003년 6월 목포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목포시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제력이 있고, 학력이 높고, 젊은 사람으로 나타났다.¹²⁾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인구 유출은

12) 설문 조사 기관은 목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고, 조사 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3년

곧 지방정부의 재정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¹³⁾

다음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248,950명에서 2015년 241,213명으로 연평균 인구증가율 -0.17%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IMF위기 이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잠시 정체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인구의 감소폭은 크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전라남도청이 소재한 남악신도시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남악신도시는 2005년 전라남도청이 이전하면서 목포시의 옥암지구와 무안군의 남악지구가 조성되었다. 옥암지구의 인구 증가는 목포 시내의 다른 행정동에서의 이동으로 목포시 전체 인구 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나, 무안군 남악지구로의 이동은 외부 유출로 목포시의 인구를 감소하게 만든다. 그 결과, 2014년에 무안군 인구가 8만 명이 돌파한 것은 목포 인구가 남악신도시로 이주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표 11 IMF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1998~2015년)의 인구 추이

(단위: 명, 세대)

연도	구분	세 대	인구수				세대당 인구	인구 증가율
			계	증감수	남	여		
1998		77,471	248,950	△1,228	123,797	125,153	3.21	-0.49
1999		78,077	246,741	△2,209	122,664	124,077	3.16	-0.89
2000		79,378	245,831	△910	122,111	123,720	3.10	-0.37
2001		80,961	245,666	△165	122,144	123,522	3.03	-0.07
2002		82,721	245,315	△351	121,949	123,366	3.00	-0.14
2003		84,356	241,460	△3,855	120,123	121,337	2.86	-1.57
2004		86,027	241,717	257	120,244	121,473	2.81	0.11
2005		88,849	242,988	1,271	121,128	121,860	2.73	0.53
2006		90,511	242,755	△233	121,071	121,684	2.70	-0.10
2007		92,615	244,801	2,046	122,595	122,206	2.63	0.84
2008		95,086	247,620	2,819	124,034	123,586	2.58	1.15
2009		96,223	246,364	△1,256	123,427	122,937	2.56	-0.51
2010		98,181	247,442	1,078	123,776	123,666	2.52	0.44
2011		98,809	246,994	△448	123,435	123,559	2.48	-0.18
2012		99,652	247,215	221	123,537	123,678	2.46	0.09
2013		99,334	243,171	△4,044	121,229	121,942	2.43	-1.64
2014		99,955	241,744	△1,427	120,761	120,982	2.40	-0.59
2015		100,172	241,213	△531	120,544	120,669	2.38	-0.22

출전: 목포시, 『통계연보』(1998~2017).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이다. 표본 추출은 성별, 연령별, 동별 인구 비례로 하였다. 표본 수는 812명이며, 신뢰 수준 95% 이상일 때 표본 오차는 $\pm 3.5\%$ 이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직접대면 면접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목포에 계속 거주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해 본 결과, '거주 의향(평생 거주+가능한 거주)'에 응답한 사람이 80.5%, '이주 의향(가능한 이주+반드시 이주)'에 응답한 사람이 19.6%로 나타나, 앞으로도 개인의 소득 증대나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없는 한 인구 감소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포 거주 의향을 연령·학력·월평균 수입과 연관 지어 분석해 본 결과, 20대·대학재학 이상·월평균 수입 250만 원 이상이 '이주하겠다'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3) 이종화 외, 앞의 책, 52~53쪽.

목포시 인구가 남악신도시로 이동한 이유로는 공공 기관의 입지, 새로운 주거 문화, 소비패턴의 변화, 자녀 교육 환경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차원에서 보면, 인구감소는 다른 표현으로 인구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구위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지방차원에 인구위기는 인구수 감소보다는 그로 인해 파급되는 행정구역 통폐합, 지방교부세 삭감, 행정기구의 축소 등 인구감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보다 직접적이다. 사실상 인구문제가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닌 것처럼 그 결과의 효과 또한 단편적인 현상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그 효과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나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구감소가 상기한 측면들로 특히 부각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지방 차원에서 인구가 정치 경제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지방의 인구는 그 자체로 지방의 행·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결국, 지방 차원에서 인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¹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포시도 이러한 인구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이다.

최근 일본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사용되던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스럽게 도입되고 이 문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공격적으로 인구 쟁탈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목포시도 이를 교훈 삼아 인구 늘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명 ‘인구감소대책과’의 설치를 제안하는 바이다.

2. 동별 세대 및 인구

2015년 말 기준, 목포시 행정동(23개 동을 기준) 단위 평균 인구는 10,364명이고 4,355세대이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부주동으로 24,596명이고, 그 다음으로는 상동 19,814명, 용해동 18,703명, 신흥동 17,846명 순이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행정동은 대성동 3,055명이고 그 다음으로 만호동 3,971명, 죽교동 4,125명 순이다. 세대당 인구수를 보면, 목포시 전체 2.38명이고 세대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부주동 2.93명이고, 그 다음으로 연산동이 2.82명, 옥암동 2.78명, 이로동 2.74명 순이다. 반면 세대수가 가장 적은 행정동은 만호동 1.74명이고, 그 다음으로는 유달동 1.81명, 목원동 1.90명, 연동과 죽교동 1.92명 순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용당1동이 2,677명으로 가장 많은 행정동이고, 그 다음으로 목원동이 2,477명, 상동이 2,431명, 용해동 1,896명 순이다. 그러나 인구 대비 고령자율을 보면, 유달동 2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

14) 최민정, 앞의 논문, 48~50쪽.

음으로 목원동 24.9%, 연동 24.5%, 동명동 23.6% 순이다. 흥미로운 것은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세대 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이는 구도심이 독신 세대의 비율이 높아 이 지역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동별 인구 및 세대(2015년 말)

(단위: 명, 세대)

동별	구분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65세이상 고령자(%)
		계	남	여			
	용당1동	12,135	6,117	6,018	5,955	2.04	2,677(21.8)
	용당2동	6,245	3,166	3,079	3,107	2.01	1,287(20.4)
	연 동	5,746	2,905	2,841	2,996	1.92	1,425(24.5)
	산정동	8,005	3,962	4,043	3,297	2.43	1,342(16.4)
	연산동	6,717	3,314	3,403	2,386	2.82	636(9.4)
	원산동	15,433	7,645	7,788	6,167	2.50	1,547(9.9)
	대성동	3,055	1,583	1,472	1,523	2.01	680(22.1)
	목원동	9,855	5,011	4,844	5,196	1.90	2,477(24.9)
	동명동	6,624	3,486	3,138	3,333	1.99	1,602(23.6)
	삼학동	6,635	3,299	3,336	2,683	2.47	1,056(15.6)
	만호동	3,971	2,141	1,830	2,285	1.74	961(23.8)
	유달동	6,033	3,147	2,886	3,324	1.81	1,625(26.4)
	죽교동	4,125	2,122	2,003	2,143	1.92	966(23.2)
	북향동	10,404	5,189	5,215	4,214	2.47	1,313(12.5)
	용해동	18,703	9,247	9,456	7,216	2.59	1,897(10.0)
	이로동	11,088	5,469	5,619	4,045	2.74	1,316(11.8)
	상 동	19,814	9,663	10,151	8,179	2.42	2,431(12.1)
	하당동	12,279	6,315	5,964	5,830	2.11	1,018(8.1)
	신흥동	17,846	8,799	9,047	6,764	2.64	1,399(7.8)
	삼향동	5,598	2,868	2,730	2,307	2.43	673(11.9)
	옥암동	11,575	5,614	5,961	4,171	2.78	880(7.5)
	부흥동	11,900	5,843	6,057	4,666	2.55	872(7.2)
	부주동	24,596	12,070	12,526	8,385	2.93	1,123(4.5)
	합 계	238,382	118,975	119,407	100,172	2.38	31,203(100.0)

주: 외국인인을 제외한 한국인 기준임.

자료: 목포시 홈페이지 인구 통계 참조 작성.

목포시 전체 인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로 개칭된 1949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114.5%(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목포시 행정동의 인구 변화를 통해 도시 내에서의 인구 이동을 살펴본다. 행정동별 인구 이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행정동의 연혁을 살펴보면, 먼저 1948년 4월 1일 왜색이 농후한 '정(町)'을 '동(洞)'으로 단위 구역 명칭을 개정하였다. 1963년 1월 1일 무안군 이르면 일부를 합병하여 용당리, 상리를 이로동으로, 도서부인 달리, 눌도동 13개 도서를 충무동으로 편성하였으며 1970년 7월 1일 산정1동의 남부를 나누어 연동을 신설하였다. 1973년 7월 1일(대통령령 제6542호) 무안군 삼향면 석현리를 이로동으로 합병하였고, 1975년 7월 5일 해방이후 사용하던 재건반을 통 단위로 반 편성을 새롭게 하여 301개 통, 1,382개 반으로 설정하였으며, 1979년 5월 1일 용당동을 국도간선도로를 경계로 용당1, 2동으로 나누었으며 시 행정동은 27개 동, 352개 통, 1,720개 반으로 증설되었다. 또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1986년 12월 23일 공포)로 무안군 삼향면 대양리, 옥암리를 편입하였다. 대양동, 옥암동, 석현동 일부를 합하여 1994년 7월 6일 과대동인 이로동을 용해동과 상동으로 나누어 시 행정동은 29개 동, 508개 통, 2,353개 반으로 증설되었다. 1997년 1월 1일 목포시 조례 제1805호에 따라 용당1동, 용당2동, 산정2동을 제외하고 기존의 29개 동이 26개 동으로 조정되고 2006년 8월 7일 목포시 조례 제2322호에 따라 용당1동·산정2동을 용당1동으로, 북교동·무안동·남양동을 목원동으로, 유달동·충무동을 유달동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26개 동이 22개 동으로 조정되었으며, 2011년 12월 26일 목포시 조례 제2715호에 따라 옥암동이 옥암동과 부주동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행정동의 변화에 따라 2016년 현재 시 행정동은 23개 동, 575개 통, 2,473개 반이다.

이상과 같은 행정동의 연혁을 보았을 때, 어떠한 시점에서 분석을 하여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동별 인구를 분석하는 데에는 과거 동일 행정구역이었던 곳을 그대로 포함하여 분석하기 쉽지 않으므로, 2006년 이후 목포시 조례 제2,322호에 따라 행정동의 개편이 이루어진 후부터 행정동의 인구 변화를 보도록 한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옥암동과 부주동으로 남악신도시의 조성 이후 공동주택의 완비 효과에 따른 결과이며, 그 다음으로 용해동과 이로동으로 이들 지역 또한 새로운 공동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인구 유인 효과가 작용한 결과이다. 반면, 이들 행정동 외에 모든 행정동의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흥동의 인구 감소폭이 매우 크다.

표 13 최근 10년간 동별 인구의 변화

(단위: 명, %)

동별	구분	2008	2010	2013	2015	증감율 (2008:2015)
용당1동		14,701	13,918	13,216	12,135	-17.5
용당2동		7,730	7,346	6,755	6,245	-19.2
연동		7,602	6,925	6,281	5,746	-24.4
산정동		9,286	9,252	8,779	8,005	-13.8
연산동		6,735	6,364	6,185	6,717	-0.3
원산동		17,692	17,300	16,559	15,433	-12.8
대성동		5,288	3,758	3,347	3,055	-42.2
목원동		12,046	11,519	10,444	9,855	-18.2
동명동		8,611	8,143	7,386	6,624	-23.1
삼학동		7,668	7,209	7,068	6,635	-13.5
만호동		4,888	4,645	4,338	3,971	-18.8
유달동		7,703	7,341	6,806	6,033	-21.7
죽교동		5,183	4,989	4,449	4,125	-20.4
북향동		10,943	10,397	9,920	10,404	-4.9
용해동		15,204	15,527	16,804	18,703	23.0
이로동		9,822	11,970	11,659	11,088	12.9
상동		20,363	20,470	19,339	19,814	-2.7
하당동		12,648	12,248	12,892	12,279	-2.9
신흥동		19,294	18,691	18,761	17,846	-7.5
삼향동		6,844	6,767	6,173	5,598	-18.2
부흥동		22,589	23,473	13,445	11,900	-47.3
옥암동				11,709	11,575	
부주동		14,780	19,190	20,856	24,596	103.4
합계		247,620	247,442	243,171	238,382	-3.7

주: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인 기준임.

자료: 목포시 홈페이지 인구 통계 참조 작성.

3. 목포 인구 규모와 도시별 순위 변화

목포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신문과 자료집에 따르면, 목포를 일제강점기 ‘전국(남북한 포함) 3대 항 6대 도시’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포시사』(1987)에서 목포는 일제하 1935년에 인구 순위에서 남북한을 통틀어 전 도시에서 6위를 기록한 바 있었고, 광복 직후 1946년에는 남한의 전 도시 중 5위를 차지한 바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의 1935년 인구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인구 22,899,038명 중 목포 인구는 60,734명으로 약 0.27%를 차지하고 목포와 같은 도내의 무안군(195,000명), 나주군(175,808명) 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인구 규모가 적은데도 전국 6대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

‘도시’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시(都市)라는 용어는 한자어가 아닌 일본에서 들어온 근대어로, 도(都)는 계획과 행정(정치)을 의미하고 시(市)는 시장과 경제를 의미하며, 이들의 합성어이다. 이러한 도시라는 명칭은 일본이 1914년에 우리나라에 실시한 부제(府制)와 관련이 깊다.¹⁵⁾ 이 제도는 기존의 12부의 관할하에 있던 농촌 면을 분리하여 별도의 군(郡)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시가지 지역만으로 새로운 부(府)를 설립한 것이다. 여기서 12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성부, 인천부, 목포부, 군산부, 대구부, 부산부, 마산부, 평양부, 진남포부, 신의주부, 원산부, 청진부이다. 부제의 실시로 부(府)는 순전히 도시 지역만을 관할하는 행정 구역으로서 오늘날처럼 농촌 지역과 분리된 형태의 시 행정구역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계획과 경제가 이루어지는 도시는 군

표 14 일제강점기 부별 인구

(단위: 명)

번호	1925		1930		1935		1940		1944	
	부	인구	부	인구	부	인구	부	인구	부	인구
1	경성부	342,626	경성부	394,240	경성부	444,098	경성부	935,464	경성부	988,537
2	부산부	106,642	부산부	146,098	부산부	182,503	평양부	285,965	인천부	213,833
3	평양부	89,423	평양부	140,703	평양부	182,121	부산부	249,734	개성부	76,360
4	대구부	76,534	대구부	93,319	대구부	107,414	청진부	197,918	대전부	76,675
5	인천부	56,295	인천부	68,137	인천부	82,997	대구부	178,923	군산부	57,589
6	원산부	36,421	개성부	49,047	목포부	60,734	인천부	171,165	전주부	67,095
7	진남포부	27,240	신의주부	48,047	원산부	60,169	원산부	79,320	목포부	69,269
8	목포부	26,178	함흥부	43,851	신의주부	58,462	함흥부	75,320	광주부	82,431
9	신의주부	23,176	원산부	42,760	함흥부	56,571	개성부	72,062	대구부	206,638
10	마산부	22,874	진남포부	38,296	개성부	55,537	진남포부	68,656	부산부	329,215
11	군산부	21,559	청진부	35,925	청진부	55,530	광주부	64,520	마산부	54,454
12	청진부	20,649	목포부	34,689	광주부	54,607	목포부	64,256	진주부	53,239
13			마산부	27,885	진남포부	50,512	신의주부	62,651	해주부	82,217
14			군산부	26,321	전주부	42,387	전주부	61,143	신의주부	118,398
15					군산부	41,698	대전부	47,230	평양부	341,654
16					대전부	39,061	진주부	45,541	진남포부	82,144
17					마산부	31,778	군산부	43,291	청진부	184,301
18							나진부	40,553	나진부	34,390
19							마산부	38,319	성진부	68,045
20								36,429	함흥부	112,157
21									원산부	112,901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참조 작성.

15) 이러한 부제의 실시는 1888년 일본에서 실시된 시제에 대응하고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郡)이 아닌 부(府)를 말하는 것으로 인구 규모에서 6대 도시는 1935년 당시 17개의 부에서 여섯 번째가 되는 것이고, 항구 중에서 부산부와 인천부 다음으로 3대 항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의 수는 해방 당시 수도 서울을 비롯하여 11개였으나, 국가 경제 발전에 따른 도시인구의 급증과 함께 도시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79개 시¹⁶⁾로 증가되었다. 시대별로 시 승격 수를 살펴보면, 1940년대에 8개 시, 1950년대에 8개 시, 2000년대에는 5개 시로서, 1980년대에 시 승격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목포시의 도시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면서 목포부는 목포시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후 6·25전쟁 수행과 전후 복구기에 도시의 인구증가가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과 농촌의 압출 요인으로 밀려난 이농민(離農民)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목포시의 인구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목포의 인구 추이를 보면, 1949년 11만 1천명에서 1960년에 12만 9천명으로 1만 8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연평균 1.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목포시의 인구 증가율은 낮은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빠르게 진행되어 1960년에 28%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전국(남북 포함) 도시별 인구 순위에 있어서 1946년 5위에서 1949년 7위로 떨어진다. <표 15>에서 보면 목포의 인구 규모는 1960년에 전국 도시(시 단위) 중 9위를 차지하다가 1966년에 이르러 8위로 부상된다. 그러나 1970년에 들어서 다시 9위로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도시인구와 농촌인구의 비중이 50:50으로 비슷했던 1975년에는 11위로 밀려나고, 1980년에는 14위이다.

표 15 목포 인구 규모와 도시별 순위 변화(1960~1980년)

(단위: 명)

순위	1960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도시	인구	도시	인구	도시	인구	도시	인구	도시	인구
1	서울	2,44,5402	서울	3,803,360	서울	5,536,377	서울	6,889,502	서울	8,364,379
2	부산	1,163,671	부산	1,430,011	부산	1,880,710	부산	2,133,173	부산	3,159,766
3	대구	676,692	대구	847,555	대구	1,082,750	대구	1,310,768	대구	1,604,934
4	인천	401,473	인천	529,284	인천	646,013	인천	800,007	인천	1,083,906
5	광주	314,420	광주	404,217	광주	502,753	광주	607,011	광주	727,600
6	대전	228,987	대전	315,718	대전	414,598	대전	506,708	대전	651,792
7	전주	188,216	전주	220,687	전주	262,816	마산	371,917	울산	418,326
8	마산	158,010	목포	162,316	마산	190,992	전주	311,393	마산	386,751
9	목포	129,650	마산	154,847	목포	177,801	울산	252,570	성남	376,840

16) 구체적으로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72개 일반시를 합쳐서 총 79개이다.

순위	1960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도시	인구	도시	인구	도시	인구	도시	인구	도시	인구
10	청주	92,093	수원	128,334	수원	170,518	수원	224,145	전주	367,161
11	수원	90,801	청주	124,020	울산	159,340	목포	192,958	수원	310,476
12	군산	90,437	울산	113,139	청주	143,944	청주	192,707	안양	253,560
13	여수	87,199	진주	107,162	춘천	122,672	군산	154,780	청주	253,192
14	진주	87,110	원주	103,956	진주	121,622	진주	154,646	목포	221,814
15	춘천	82,526	군산	102,835	여수	113,651	춘천	140,530	부천	221,463

주: 시 단위 기준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참조 작성.

목포시 인구 규모는 1990년까지 전국 20위권 내에 있었으나, 1995년부터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더불어 산업기반이 취약한 목포의 경제구조가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목포시는 1995년 이후 같은 도내에 있는 순천시보다 후순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목포 인구 규모와 도시별 순위 변화(1985~2000년)

(단위: 명)

순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도시	인구	도시	인구	도시	인구	도시	인구
1	서울	9,639,110	서울	10,612,577	서울	10,231,217	서울	9,895,217
2	부산	3,514,798	부산	3,798,113	부산	3,814,325	부산	3,662,884
3	대구	2,029,853	대구	2,229,040	대구	2,449,420	대구	2,480,578
4	인천	1,386,911	인천	1,817,919	인천	2,308,188	인천	2,475,139
5	광주	905,896	광주	1,139,003	대전	1,272,121	대전	1,368,207
6	대전	866,148	대전	1,049,578	광주	1,257,636	광주	1,352,797
7	울산	551,014	울산	682,411	울산	967,429	울산	1,014,428
8	부천	456,292	부천	667,993	성남	869,094	수원	946,704
9	마산	448,746	수원	644,805	부천	779,412	성남	914,590
10	성남	447,692	성남	540,754	수원	755,550	고양	763,971
11	수원	430,752	전주	517,059	안양	591,106	부천	761,389
12	전주	426,473	마산	493,731	전주	563,153	전주	616,468
13	안양	361,577	안양	481,291	청주	531,376	청주	586,700
14	청주	350,256	청주	477,783	고양	518,282	안양	580,544
15	포항	260,691	광명	328,593	안산	510,314	안산	562,920
16	목포	236,085	창원	323,223	포항	508,899	창원	517,410

순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도시	인구	도시	인구	도시	인구	도시	인구
17	진주	227,309	포항	317,768	창원	481,694	포항	515,714
18	광명	219,611	진주	255,695	마산	441,242	마산	434,371
19	제주	202,911	안산	252,418	광명	350,914	천안	417,835
20	이리	192,269	목포	243,064	천안	330,259	용인	386,124
21	군산	185,649	제주	232,643	진주	329,886	의정부	355,380
22	창원	173,508	군산	218,205	익산	322,685	평택	345,306
23	여수	171,933	천안	211,363	평택	312,927	구미	341,550
24	천안	170,196	구미	206,121	구미	311,431	남양주	340,932
25	춘천	162,988	이리	203,382	의정부	276,111	진주	339,791
26	의정부	162,700	춘천	174,224	경주	273,968	광명	334,089
27	원주	151,165	여수	173,169	군산	266,569	김해	331,979
28	구미	142,094	순천	167,214	제주	258,511	익산	323,687
29	강릉	132,897	원주	162,415	김해	256,370	시흥	305,268
30	경주	127,544	강릉	152,678	순천	249,263	여수	303,233
31	순천	121,958	경주	141,896	목포	247,452	제주	279,996
32	진해	121,341	충주	128,425	원주	237,460	경주	275,842
33	안동	114,216	진해	120,212	군포	235,233	군산	272,715
34	태백	113,997	안동	116,958	춘천	234,528	원주	268,352
35	충주	113,331	구리	109,374	남양주	229,060	순천	265,930
36	제천	102,274	시흥	107,176	강릉	220,403	군포	263,760
37	동해	91,691	김해	106,206	충주	205,206	춘천	252,547
38	충무	87,459	하남	101,325	안동	188,443	목포	250,480
39	영주	84,742	군포	100,059	여수	183,596	강릉	228,232

주: 시 단위 기준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참조 작성.

목포시의 인구 규모는 2000년대 들어 전국 38위로 추락하였고, 2005년에 39위, 2010년 42위, 2015년 45위로 상대적 인구감소가 심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목포와 같은 도내에서 여수시가 41위, 순천시가 42위로 목포시는 도내에서 세 번째 도시 규모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 지역 불균형이 국민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정치 쟁점화 되면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중앙정부의 중추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공기업의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등 보다 강력한 분산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 도시들의 규모가 비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목포 인구 규모와 도시별 순위 변화(2005~2015년)

(단위: 명)

순위	2005년		2010년		2015년	
	도시	인구	도시	인구	도시	인구
1	서울	9,820,171	서울	9,794,304	서울	9,904,312
2	부산	3,523,582	부산	3,414,950	부산	3,448,737
3	인천	2,531,280	인천	2,662,509	인천	2,890,451
4	대구	2,464,547	대구	2,446,418	대구	2,466,052
5	대전	1,442,856	대전	1,501,859	대전	1,538,394
6	광주	1,417,716	광주	1,475,745	광주	1,502,881
7	울산	1,049,177	울산	1,082,567	수원	1,194,313
8	수원	1,044,113	수원	1,071,913	울산	1,166,615
9	성남	934,984	창원	1,058,021	창원	1,059,241
10	고양	866,846	성남	949,964	고양	990,073
11	부천	838,801	고양	905,076	용인	971,327
12	용인	689,691	용인	856,765	성남	948,757
13	안산	681,590	부천	853,039	부천	843,794
14	청주	642,805	안산	728,775	청주	833,276
15	전주	623,298	청주	666,924	안산	747,035
16	안양	612,423	전주	649,728	전주	658,172
17	천안	521,887	안양	602,122	천안	629,062
18	창원	501,705	천안	574,623	남양주	629,061
19	포항	489,698	남양주	529,898	화성	608,725
20	김해	431,778	포항	511,390	안양	585,177
21	마산	428,069	김해	494,510	김해	534,124
22	남양주	426,087	화성	488,758	포항	511,804
23	의정부	398,870	의정부	417,412	평택	457,873
24	시흥	389,638	시흥	407,090	제주	451,758
25	구미	383,786	구미	402,607	시흥	425,184
26	평택	378,438	제주	401,192	의정부	421,579
27	진주	337,242	평택	388,508	구미	421,075
28	광명	320,268	진주	337,896	파주	415,345
29	제주	311,281	광명	329,010	김포	352,683
30	익산	308,144	파주	328,128	진주	349,788
31	화성	288,718	원주	311,449	광명	338,509
32	원주	284,360	익산	296,366	원주	330,854
33	여수	277,995	아산	278,676	아산	319,929
34	군포	270,042	군포	278,083	광주	310,278
35	경주	267,872	춘천	276,232	익산	301,723
36	순천	262,120	여수	269,937	양산	297,532

(단위: 명)

순위	2005년		2010년		2015년	
	도시	인구	도시	인구	도시	인구
37	춘천	260,887	경산	266,036	군포	285,721
38	군산	250,011	군산	260,546	춘천	281,596
39	목포	244,888	순천	258,670	경산	278,500
40	경산	242,297	경주	256,150	군산	275,155
41	파주	242,241	양산	252,507	여수	273,761
42	강릉	221,329	목포	249,960	순천	265,390
43	양산	217,154	거제	231,271	경주	262,310
44	아산	208,415	광주	228,747	거제	261,371
45	광주	206,304	김포	224,350	목포	239,524

주: 시 단위 기준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참조 작성.

제2절 인구구조와 인구 이동

1.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960년대, 1980년대 그리고 2010년에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데,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에서 30대 미만과 50대 이상이 적은 형태인 중간 연령층이 증가하는 항아리 형태로 변화하는 모양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부터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며, 2000년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인구피라미드는 2010년에는 2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37.3%이며 30대부터 50대까지는 47.2%, 그리고 60대 이상이 15.5%로 중간 연령층이 많은 종형 구조인데 반하여, 인구피라미드는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고령 인구가 늘어지면서 2060년에는 20대 이하는 21.8%로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이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삼각형의 항아리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⁷⁾

17) 김도영,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12,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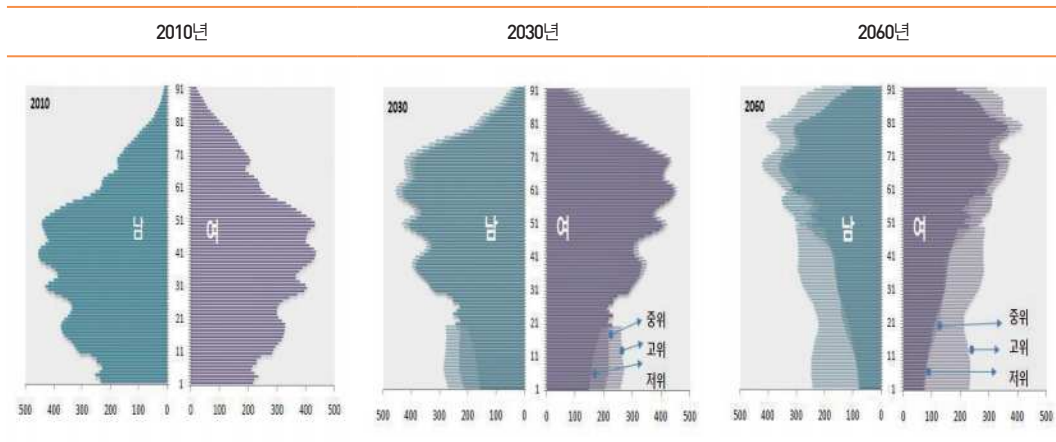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성별 및 연령별 인구피라미드(2010~2060)
출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2010~2060), 2011, 7쪽.

이상의 2010년 인구피라미드 형태와 목포시의 인구피라미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목포시의 2015년 말 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비와 성비를 <표 18>와 <그림 2>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목포시 전체 성비는 99.4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 50대 이후부터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0~4세는 11,250명(남자 5,726명, 여자 5,524명)으로 목포시 전체 인구의 4.72%를 차지하고 성비는 104.7으로 남자의 비율이 높다. 계속하여 10~14세는 13,392명(남자 6,872명, 여자 6,520명)으로 전체 인구의 5.62%를 차지하며 성비는 104.9로 남자의 비율이 높고, 20~24세는 16,171명(남자 8,641명, 여자 7,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6.78%를 차지하며 성비는 114.5로 남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30~34세는 16,349명(남자 8,662명, 여자 7,727명)으로 전체 인구의 6.86%를 차지하며 성비는 110.2로 남자의 비율이 더욱 높고, 35~39세는 18,552명(남자 9,546명, 여자 9,006명)으로 전체 인구의 7.78%를 차지해 성비는 110.2로 남자가 높다. 40~44세는 20,647명(남자 10,761명, 여자 9,886명)으로 전체 인구의 8.66%를 차지하며 성비는 107.8로 역시 남자의 비율이 높고, 50~54세는 18,554명(남자 9,120명, 여자 9,434명)으로 전체 인구의 7.78%를 차지하며 성비는 98.9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고, 60~64세는 12,683명(남자 6,156명, 여자 6,527명)으로 전체 인구의 5.32%를 차지하며 성비는 93.9로 역시 여자의 비율이 높다. 70~74세는 8,632명(남자 3,834명, 여자 4,789명)으로 전체 인구의 3.62%를 차지하며 성비는 80.3이며, 80세 이상은 5,767명(남자 1,633명, 여자 4,134명)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하며 남자의 비율은 극도로 낮은 39.6을 나타내고 있다.

표 18 연령 계급별 남녀 구성비 및 성별 인구

(단위: 명, %)

연령	인구			구성비			성비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238,382	118,975	119,407	100	100	100	99.4
0-4	11,250	5,726	5,524	4.72	4.81	4.63	104.7
5-9	12,628	6,502	6,126	5.30	5.47	5.13	105.6
10-14	13,392	6,872	6,520	5.62	5.78	5.46	104.9
15-19	17,711	9,160	8,551	7.43	7.70	7.16	107.3
20-24	16,171	8,641	7,530	6.78	7.26	6.31	114.5
25-29	11,841	6,132	5,709	4.97	5.15	4.78	107.8
30-34	16,349	8,622	7,727	6.86	7.25	6.47	110.2
35-39	18,552	9,546	9,006	7.78	8.02	7.54	106.4
40-44	20,647	10,761	9,886	8.66	9.04	8.28	107.4
45-49	19,619	10,191	9,428	8.23	8.57	7.90	107.2
50-54	18,554	9,120	9,434	7.78	7.67	7.90	98.9
55-59	17,782	8,703	9,079	7.46	7.31	7.60	94.7
60-64	12,683	6,156	6,527	5.32	5.17	5.47	93.9
65-69	10,642	5,021	5,621	4.46	4.22	4.71	89.6
70-74	8,623	3,834	4,789	3.62	3.22	4.01	80.3
75-79	6,171	2,355	3,816	2.59	1.98	3.20	63.2
80세 이상	5,767	1,633	4,134	2.43	1.06	3.91	39.6

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외국인 제외 인구임.

출전: 목포시, 『통계연보』(2017).

최근 20여 년간 목포시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다음 <표 19>와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연령 계급별 구성비가 0~4세부터 15~19세까지 미세하나마 점증적으로 높아지다가 이후부터는 일정하게 낮아지고 있다. 목포시 인구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전국의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25~29세의 청년층이 각 연도마다 비슷하게 낮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20년 전에 비해 10대와 20대 중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개발 잠재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구조가 취약하여 졸업하면 무조건 대도시로 직장을 구하러 나가기 때문에 10대와 20대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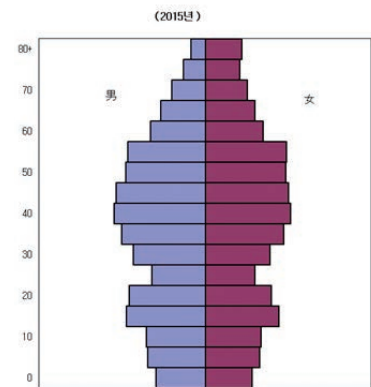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표 19 연령 계급별 인구 구성비

(단위: 명, %)

연령	1992년		2002년		2012년		2015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합계	224,760	100.0	245,126.5	100.0	243,007	100.0	238,382	100.0
0-4	15,355	6.8	16,639	6.8	12,917.5	5.3	11,250	4.7
5-9	18,806	8.4	19,551.5	8.0	13,101.5	5.4	12,628	5.3
10-14	25,915	11.5	17,759	7.2	17,692	7.3	13,392	5.6
15-19	25,115	11.2	20,335	8.3	18,122.5	7.5	17,711	7.4
20-24	23,510	10.5	23,244	9.5	14,926.5	6.1	16,171	6.8
25-29	17,933	8.0	20,335	8.3	15,438.5	6.4	11,841	5.0
30-34	20,595	9.2	21,214	8.7	19,304.5	7.9	16,349	6.9
35-39	16,921	7.5	20,069	8.2	20,204	8.3	18,552	7.8
40-44	14,091	6.3	21,233	8.7	20,933.5	8.6	20,647	8.7
45-49	11,505	5.1	15,856	6.5	18,790.5	7.7	19,619	8.2
50-54	11,048	4.9	12,922	5.3	19,270	7.9	18,554	7.8
55-59	7,728	3.4	10,585.5	4.3	14,137	5.8	17,782	7.5
60-64	5,696	2.5	9,446.5	3.9	11,433	4.7	12,683	5.3
65-69	4,080	1.8	6,413	2.6	9,403.5	3.9	10,642	4.5
70-74	3,030	1.3	4,522	1.8	8,008.5	3.3	8,623	3.6
75-79	1,764	0.8	2,705.5	1.1	4,894.5	2.0	6,171	2.6
80세 이상	1,578	0.7	2,296.5	0.9	4,429.5	1.8	5,767	1.4

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외국인 제외 인구임.

자료: 목포시, 『통계연보』 (2017).

령층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년 전에 비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UN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목포시는 12.1%로 고령 사회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2015년 내국인 기준, 목포시의 총부양비는 40.3%로 전국의 37.9%에 비해 높은 편이고, 유년 부양비는 21.9%로 전국의 19.7%보다 약간 높고, 노년 부양비는 18.4%로 전국의 18.3%와 비슷한 편이며, 노령화지수는 83.7%로 전국의 93.0%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다.

목포시의 총부양비는 1980년에 66.7%로 높은 비율이었으나 1990년 50.8%, 2000년 39.7%까지 낮아지다가 2010년 41.4%로 조금 높아졌고 2015년 40.3%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목포시의 총부양비 추이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다. 목포시의 유년 부양비는 1980년 62.2%에서 1990년 44.8%로, 2000년에는 30.5%에서 2010년 26.3%로, 2015년은 21.9%로 낮아지고 있다. 유년 부양비 역시 1980년의 목포시 수치는 전국보다 높은 편이고 이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의 노년 부양비는 1980년 4.5%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바, 1990년 6.0%, 2000년 9.1%, 2010년 15.1%, 2015년에는 18.3%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국 역시 1980년에 6.1%에서 1990년 7.4%, 2000년 10.1%, 2010년 15.6%, 2015년 18.3%로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 증가 추이에 있어 목포시의 증가가 조금 높다. 목포시의 노령화지수는 1980년에 7.2%이던 것이 1990년 13.4%로 크게 증가하고 2000년 29.9%, 2010년에는 57.2%, 2015년 83.7%로 매우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전국 역시 1980년 11.2%에서 2015년 93.0%로 높아지고 있으며, 목포시의 노령화지수와 비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목포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 부양비는 점점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유년 부양비는 점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 인구 증가율이 출산 저하율보다 높음에 따라 총부양비 역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목포시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요약할 때, 목포시의 총부양비와 유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지수가 1980년 전국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으나 기간이 지남에 따라 최근에는 그 폭이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목포시의 인구는 유년 인구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고 노령화지수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목포시의 인구는 당분간 노령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 인구 변인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20년에도 인구 감소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표 20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연도	구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1980	목포시	66.7	62.2	4.5	7.2
	전국	60.7	54.6	6.1	11.2
1990	목포시	50.8	44.8	6.0	13.4
	전국	44.3	36.9	7.4	20.0
2000	목포시	39.7	30.5	9.1	29.9
	전국	39.5	29.4	10.1	34.3
2010	목포시	41.4	26.3	15.1	57.2
	전국	38.0	22.4	15.6	69.7
2015	목포시	40.3	21.9	18.4	83.7
	전국	37.9	19.7	18.3	93.0

주: 1) 총부양비= (0~1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유년 부양비=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 100, 3) 노년 부양비=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4) 노령화지수=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2. 인구 동태

인구 동태(Movements of population)란 1년간의 출생·사망·결혼·이혼 등 인구의 자연적 변동 상황의 통계를 말하며, 이는 인구 동태 등록의 신고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이러한 인구동태는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모든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 지역의 모든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이용된다. 목포시와 전남 그리고 전국의 인구 동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조출생률은 전국 8.5명, 전남 8.0명 그리고 목포는 8.1명으로 전국 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고, 조사망률은 5.4명, 전남 8.7명, 목포 6.3명으로 전국 보다는 높으나 전남 보다는 낮은 편이다. 또한 자연증가율은 전국 3.2명, 전남 0.8명, 목포 1.9명으로 감소하는 전남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조혼인율은 전남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고, 조이혼율은 전국과 전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1 인구 동태 비교

(단위: 명, 천 명당)

지표 \ 지역	전국	전남	목포
출생건수	438,420	15,061	1,930
조출생률	8.6	8.0	8.1
사망건수	275,895	16,543	1,486
조사망률	5.4	8.7	6.3
자연증가건수	162,525	-1,482	444
자연증가율	3.2	-0.8	1.9
혼인건수	302,828	9,275	1,285
조혼인율	5.9	4.9	5.4
이혼건수	109,153	4,033	590
조이혼율	2.1	2.1	2.5

주: 1) 조출생률: 특정인구집단의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2) 조혼인율: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3) 자연증가율: 일정한 기간에 저절로 늘어난 수량에 전체 수량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

4) 조이혼율: 1년간 발생한 총 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참조 작성.

다음 <표 22>는 목포시의 연도별 인구 동태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조출생률과 자연증가율은 2000년에 비해 2015년에 크게 감소하였고,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2000년에 비해 2015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그에 반해, 조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연도별 인구 동태 현황

(단위: 천 명당)

지표 \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조출생률	13.7	9.0	10.7	8.1
조사망률	5.2	4.5	5.4	6.3
자연증가율	8.5	4.4	5.2	1.9
조혼인율	6.8	5.9	6.3	5.4
조이혼율	3.1	2.6	2.5	2.5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참조 작성.

3. 교육정도별 인구구성

일정 도시의 교육 정도는 인구구성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인프라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까지는 교육 수준이 향상하면 개인의 인적자원 수준이 향상한다는 많은 실증 연구가 존재한다. 도시에 고학력자가 많을수록 도시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목포시의 6세 이상 기준으로 한 1980년부터 2015년까지의 교육 정도별 인구구성은 <표 23>과 같다. 연도별 교육 상황을 보면, 1980년에는 재학이 71,712명(37.5%), 졸업이 97,458명(51.0), 중퇴 6,172명(3.2%)이었고, 1990년에는 재학 76,119명(34.6%), 졸업 124,138명(56.4%), 중퇴 5,556명(2.5%)이었다. 2000년에는 재학 67,205명(29.4%), 졸업 140,247명(61.4%), 중퇴 6,329명(2.8%)이었고, 최근 2015년에는 재학 46,789명(20.6%), 졸업 154,049명(67.8%), 중퇴 10,399명(4.6%)이었다.

연도별 교육 정도(졸업 기준)의 추이를 보면, 초등 졸업은 1980년 37,740명(19.7%), 1990년 26,186명(11.9%), 2000년 21,812명(9.6%), 2010년 19,418명(8.3%), 2015년 17,156명(7.6%)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이는 저출산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등 졸업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등 졸업은 1980년 27,533명(14.4%), 1990년 52,810명(24.0%), 2000년 61,989명(27.1%), 2010년 61,010명(26.2%), 2015년 59,895명(26.4%)으로 198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약간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력 수준의 향상과 저출산 문제가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학년수준의 향상은 대학 이상 졸업자 현황으로 살펴본 바, 확연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5년 현재 대학 졸업 22,381명, 대학교 졸업 33,353명, 대학원 이상 4,021명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목포시의 교육 정도별 인구구성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학생 수는 감소하였으나 상급 교육인구일수록 그 신장률이 높아져 높은 교육 정도를 보이고 있다.

표 23 교육 정도별 인구구성(6세 이상)

(단위: 명)

구분	연령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재학	6세 이상 인구	191,235	219,908	225,203	228,391	227,116	233,177	227,132
	초등학교	35,437	32,874	23,221	21,356	22,916	19,683	14,716
	중학교	16,375	15,930	16,713	11,060	10,961	11,520	9,756
	고등학교	16,985	19,139	17,663	15,816	10,783	10,981	11,448
	대학	1,589	3,312	3,505	6,810	5,003	3,361	2,098
	대학교			9,387	11,483	11,089	7,229	8,215
	대학원 이상	1,326	4,864	245	680	595	728	556
	소 계	71,712	76,119	70,734	67,205	61,347	53,502	46,789
	초등학교	37,740	26,186	22,735	21,812	19,773	19,418	17,156
	중학교	26,160	29,870	25,649	22,241	19,729	19,015	17,243
졸업	고등학교	27,533	52,810	63,307	61,989	60,777	61,010	59,895
	대학	1,889	3,965	7,334	15,036	18,477	22,730	22,381
	대학교			16,469	17,419	25,200	29,489	33,353
	대학원 이상	4,136	11,307	1,198	1,750	2,691	3,444	4,021
	소 계	97,458	124,138	136,692	140,247	146,647	155,106	154,049
	초등학교	1,241	663	926	1,318	1,066	1,629	1,714
중퇴	중학교	2,116	1,111	1,114	1,391	919	1,364	1,162
	고등학교	1,568	1,572	1,451	1,794	1,123	1,804	1,582
	대학	184	364	165	910	799	1,665	2,507
	대학교			782	883	955	1,346	3,299
	대학원 이상	1,063	1,846	24	33	711	92	135
	소 계	6,172	5,556	4,462	6,329	5,573	7,900	10,399
	초등학교							

출전: 목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인구주택조사 자료.

4. 사회적 인구 이동

최근 5년을 제외한 우리나라 도시 인구 이동 통계에서 전입·전출률이 각각 20~30%나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이동률을 나타내는 이유는 전입, 전출 통계에 그 지역 간 이동(inter-city movement)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이동(inter-city movement)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크게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표 24〉와 〈그림 3〉을 보면 목포의 인구 이동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으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2015년에서 1983년도 전입률이 30.1%로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 전입률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3년도가 전출률 역시 27.8%로 가장 높았으

며, 전체적으로 보면, 전출률 역시 전입률과 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특이한 사항은 1980년부터 1983년까지는 전입률이 전출률에 비해서 높았으며, 1984년에서 1989년까지는 전입률이 전출률에 비해서 낮았고, 1990년은 전입률이 전출률보다 0.1% 높았다. 그리고 1991년~1993년은 다시 전입률이 전출률보다 낮았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다시 전입률이 높아지다가 1998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전출률이 전입률보다 높았다.

사회적 증가율을 보면, 1988년도에 전입-전출 비율이 -5.5% 차이가 날 정도로 전출이 높게 나타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때의 인구 이동은 불안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인구의 전입 전출(1980~2015년)

(단위: 명, %)

연도	구분	인구	전입	전입률	전출	전출률	순이동	사회적 증감률
1980		221,856	63,646	28.7	56,263	25.4	7,383	3.3
1981		226,747	60,896	26.9	56,041	24.7	4,855	2.1
1982		229,292	59,945	26.1	58,564	25.5	1,381	0.6
1983		228,075	68,559	30.1	63,471	27.8	5,088	2.2
1984		232,446	53,731	23.1	54,073	23.3	-342	-0.1
1985		236,078	51,366	21.8	54,484	23.1	-3,118	-1.3
1986		239,774	49,887	20.8	54,587	22.8	-4,700	-2.0
1987		248,748	54,886	22.1	58,987	23.7	-4,101	-1.6
1988		250,145	52,562	21.0	66,384	26.5	-13,822	-5.5
1989		251,490	51,708	20.6	56,095	22.3	-4,387	-1.7
1990		253,423	57,447	22.7	57,232	22.6	215	0.1
1991		221,193	54,797	24.8	56,653	25.6	-1,856	-0.8
1992		224,766	56,300	25.0	56,571	25.2	-271	-0.1
1993		227,117	52,157	23.0	52,843	23.3	-686	-0.3
1995		239,571	65,782	27.5	59,797	25.0	5,985	2.5
1996		245,471	58,520	23.8	55,561	22.6	2,959	1.2
1997		250,178	55,898	22.3	53,917	21.6	1,981	0.8
1998		248,950	53,370	21.4	56,405	22.7	-3,035	-1.2
1999		246,741	56,417	22.9	60,708	24.6	-4,291	-1.7
2000		245,831	54,898	22.3	58,262	23.7	-3,364	-1.4
2001		245,666	57,773	23.5	59,700	24.3	-1,927	-0.8
2002		245,315	61,338	25.0	63,039	25.7	-1,701	-0.7
2003		241,460	59,458	24.6	63,722	26.4	-4,264	-1.8
2004		241,717	52,456	21.7	53,328	22.1	-872	-0.4
2005		242,988	52,210	21.5	52,200	21.5	10	0.0
2006		242,755	49,777	20.5	52,338	21.6	-2,561	-1.1
2007		244,801	55,094	22.5	55,064	22.5	30	0.0

연도	구분	인구	전입	전입률	전출	전출률	순이동	사회적 증감률
2008		247,620	53,572	21.6	52,918	21.4	654	0.3
2009		246,364	53,722	21.8	56,451	22.9	-2,729	-1.1
2010		247,442	45,587	18.4	47,851	19.3	-2,264	-0.9
2011		246,994	43,122	17.5	44,992	18.2	-1,870	-0.8
2012		247,215	40,553	16.4	41,556	16.8	-1,003	-0.4
2013		243,171	40,704	16.7	45,703	18.8	-4,999	-2.1
2014		241,744	42,002	17.4	44,470	18.4	-2,468	-1.0
2015		241,213	37,683	15.6	38,965	16.2	-1,282	-0.5

주: 자료상의 문제가 있는 수치는 일부 교정하였음.
출전: 목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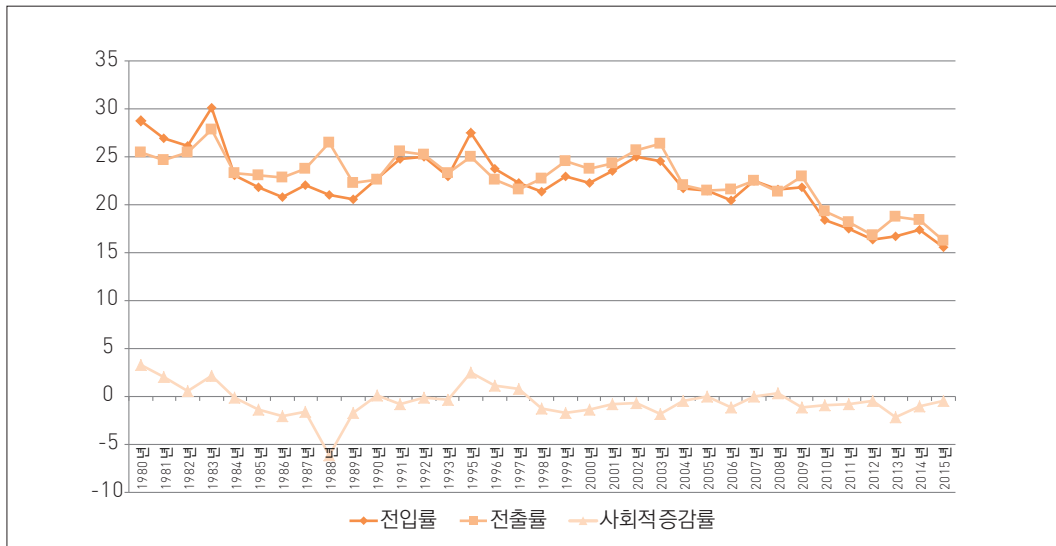


그림 3 1980년 이후 인구 이동(전입률, 전출률, 사회적증감률) 추이

인구 이동 현황을 <표 25>에서 보면, 도내 최근 5년 사이 도내(시·군) 전입 현황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도외 전입 현황은 3.7%~4.0%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도내(시·군) 전출 현황 또한 감소 추세이며, 도외 전출 현황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도내 전출 지역 중 무안 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목포 생활권인 남악신도시로의 이동이다. 또한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서울, 광주 등 대도시 위주형 보다는 같은 생활권 내에서의 새로운 거주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표 25 시도내 및 시도 간 인구이동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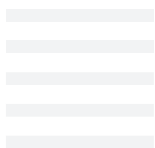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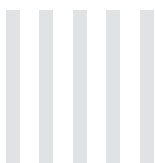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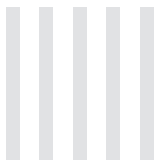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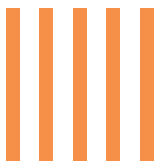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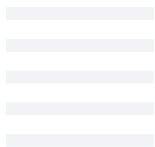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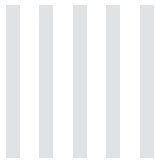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연도	구분	시도내 인구이동*				시도간 인구이동**			
		전	입	전	출	전	입	전	출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2011		36,136	17.1	39,401	16.1	10,007	4.0	11,597	4.7
2012		30,989	12.7	30,853	12.6	9,610	3.9	10,751	4.4
2013		32,080	13.3	35,300	14.7	8,649	3.6	10,428	4.3
2014		32,691	13.7	34,096	14.3	9,311	3.9	10,374	4.3
2015		28,948	12.1	28,901	12.1	8,735	3.7	10,064	4.2

주: *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에 의한 자료이며, 시도내 이동은 전입 입구에 기준하였고, 국외 이동은 제외되었음.

** 시군구내와 시군구 간 합계 자료임.

출전: 목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박성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1절 일제강점기 생활권의 형성

박성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2절 해방 이후 산업화 시기의 주거 환경

박성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3절 생활권의 확대와 원도심의 쇠퇴

박성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4절 주거 환경과 생활권의 변화

박성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3장 목포 주민의 주거 환경과 생활권

제1절 일제강점기 생활권의 형성

1. 일본인 마을과 한국인 마을(1897~1910년)

서남해안 지역은 일찍부터 독자적으로 중국과 교류하였고, 국제 해상 교통로의 중요한 관문역할을 하는 등 해상 활동이 활발하였다. 특히 목포는 영산강과 서해안이 만나는 수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서남해안의 섬들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목포는 예로부터 해상과 육지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던 곳이었다.

1897년 개항 이전 목포는 작은 어촌에 불과하였는데, 개항 당시 목포진(木浦鎭)의 관할 하에 있던 인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600명으로 추정된다.⁰¹⁾ 그 이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같은 해 연말에는 한국인이 2,600명이었고, 일본인도 206명으로 집계되었다.⁰²⁾ 이곳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 많아 갯벌이 발달하였고 높은 산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우물에서 짠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주하기 좋은 곳은 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거촌(居村)으로서 마을이 자리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개항은 목포를 도시(都市)라는 명칭을 부여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개항 이후 항만 설비를 구축하고, 각국 거류지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당시 목포는 개항장으로서 일본 소비시장의 창구 기능과 일본으로 농산물 반출 기능을 수행하게 된 이른바 유통 항구 기능을 수행하였다.

01)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09쪽.

02) 목포시, 『목포시사』사회·산업편, 1990, 136쪽.

목포는 도시 형성의 유래에 따라 크게 ‘구 각국 공동 거류지’ 구역인 일본인 마을과 ‘구 목포부 부내면’ 구역인 조선인 마을로 구분된다. 이 두 구역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많은 차이점이 보였으며, 두 구역이 시가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곧 목포의 도시 특성을 규정지었다.⁰³⁾

그렇다면 일본인 마을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개항 당시 목포는 지금과 달리 무안군 목포진 주변, 즉 각국 공동거류지 구역을 뜻하며, 이곳은 목포에 최초 시가지로 형성된 곳이다. 당시 목포의 토지는 바위 아니면 늪과 갯벌로 뒤덮여 있는 곳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했고 그나마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갯벌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공동거류지 공간 확보를 위해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다. 간척 사업은 공동거류지회가 해안 방조제 공사를 조선 정부에 요청하면서 실시되었다. 1899년 6월 기공식을 갖고 1909년까지 약 1.5km에 이르는 공사와 보수공사까지 마무리 지으며⁰⁴⁾ 목포에 4.5km²의 간척지가 조성된다.⁰⁵⁾ 간척지 조성은 목포공동조계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우선적으로 목포공동조계 서쪽편의 서산동에서 동쪽편의 목포진터까지가 방조제로 연결된다. 그리고 다시 목포진터에서부터 동쪽편의 송도라는 섬까지 방조제로 연결되어 간척된다. 이를 통해 목포 공동조계의 외형 및 시가지 형성을 위한 배후지가 마련된다. 1899년 당시 거류민은 5~6정(町)에 불과하였으나, 1900년에 거류지 서부인 유달산 남쪽 기슭에 2층의 일본영사관 건물(사적 289호)이 붉은 벽돌의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립되면서 주변에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영사관 앞 도로인 영사관통(領事館通)을 따라 우체국·경찰서와 같은 업무기능을 갖춘 기관들이 입지하고, 주거기능과 일본인 소학교인 목포 국립 심상 소학교가 입지하게 되었다.⁰⁶⁾ 목포 최초의 공식적인 공원인 송도(松島)공원은 1898년 각국 거류지회에서 정하였으며, 면적은 1.5ha로써 목포부 면적의 0.6%, 시민 1인당 0.5m²에 해당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송도공원의 내부를 개수하여 일본인의 헌금에 의해 송도신사(松島神社)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공사에 착공하여 1911년 2월에 준공하였다.⁰⁷⁾

이러한 간척 사업을 통해 목포공동조계 내 가로망 건설이 시작되었고, 당시 건설된 목포공동조계

03)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68쪽.

04) 해벽공사는 1898년 5월부터 설계, 공사 방법 등을 거류지회와 절충하여 1899년 4월 25일 계약하고 6월에 착공하였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9월 30일 목포진 앞의 해벽 약 50칸(90m)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공사 끝에 1901년 5월 29일에 일단 준공되었다. 그러나 5월 29일에 다시 붕괴되었다. 이 두 번째의 붕괴 사고는 그대로 방치하다가 1909년 5월 세 번째의 수축을 완료함으로써 거류지의 해벽은 안정을 찾았다.

05) 목포문화원, 『목포의 땅이름』, 2003, 32쪽.

06) 전라남도, 『한국지리지』, 2015, 319쪽.

07) 목포시, 앞의 책, 451쪽.

내의 가로 형태는 T자형 가로와 격자형의 가로는 주로 이룬다.⁰⁸⁾ T자형 가로는 목포공동조계지역 내부보다는 해안선, 영사관 앞길, 목포진터 등 목포공동조계 주변에 주로 건설된 특징을 가진다. 이는 유달산과 해안선의 지형, 목포공동조계 경계 등으로 인해 밖으로 뻗지 못하고 목포공동조계 외곽으로 형성된 가로들과 목포공동조계 내부에서 뻗어 나온 가로들이 접하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격자형 가로는 정(町)으로 구획된 목포공동조계 내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정과 정을 연결하는 가로들이 서로 직교하면서 격자형의 가로 형태를 형성한다. 이러한 T자형과 격자형의 가로 형태는 목포공동조계 내부 형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당초 도시 공간의 기본 형태는 조선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었고,⁰⁹⁾ 1km²의 단지 규모에 불과하였지만 계획된 대로 거의 완성되었다. 조계지가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준의 시가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계획 실현 수단의 체계화 덕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실현 체계는 각국 거류지회, 한국 정부의 지원 및 토지 경매, 자력 갱신 의무화 등에 의한 자금 조달, 특이한 조계지장정 등 행정·재정·법률간의 완비 결과이다.

일본인 마을과 대비하여 조선인 마을의 형성은 비계획적으로 전개되었다. 목포공동조계 밖에는 온금동과 쌍교리에 조선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우선 온금동은 목포공동조계 서쪽 경계인 서산동과 접한 지역으로 목포공동조계의 외국인 마을이나 쌍교리의 한국인 마을과는 달리 개항 전부터 형성된 자연부락이었다. 다음으로 조선인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유달산 북사면~북동사면에 위치한 쌍교리(현 목원동 지역)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온금동과 달리 목포가 개항을 하면서 유입된 인구로 인해 만들어진 마을이다.¹⁰⁾ 땅이 없는 목포에서 외부 인구를 수용할 공간이라고는 쌍교리 근처의 무덤자리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모든 무덤을 이장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였다. 2년 후에 사람들이 모였고, 남교동·죽동·만복동 등 차례로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은 현재의 7동에 이르렀고 주민 수도 수천 명을 헤아렸으나, 주거 환경은 형편이 없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가지 발달은 일본영사관-무안통 부근의 개발이 처음이었다. 만복동(현 목원동), 남교동의 서부 및 신창동(현 대성동) 등에 점점 가옥의 건설이 늘어났다. 그리고 1904~1905년 러일전쟁 후 죽동(현 목원동) 이북에 일본인들의 유입이 급증하였다. 인구의 증가는

08) 조준범, 「목포 구시가지 도시조직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10, 대한건축학회, 2005

09) 목포의 시가지 계획은 조선 정부의 감독하에 후에 초대 목포 해관장이 되는 인천 해관기사 아무어(W. Armour)가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1896년 10월 30일 인천세관장의 목포개항 준비를 위한 방문 때 측량을 위해 동행하였다. 그는 후에 초대 목포 해관장이 되어 목포의 초기 도시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흔히 말하는 스태든(Staden, 네덜란드인)은 측량기사에 지나지 않았다. 스태든이 처음으로 목포를 방문한 시점은 1897년 11월 13일이며, 이때는 이미 시가지 계획이 끝난 후였다. 따라서 스태든이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없다. 그는 다만 이미 이루어진 시가지 계획에 따라 택지의 실제 측량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양상호, 「목포각국공동거류지의 도시공간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4-1, 한국건축역사학회, 1995, 136쪽).

10) 『대한매일신보』 1906. 8. 17.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게 되었고, 특히 죽동 유곽이 공적으로 허가되면서 더욱 변화하였다. 또한 남해안 방면도 건물이 증가하게 되었다. 목포-광주 간 일등도로(현 국도 1호선)의 개통, 호남선 철도공사의 시작으로 동해안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조선인 마을에 일본인이 들어와 함께 사는 모습이 더욱 많아졌다. 그리하여 점차 조선인 마을 중 주거 상태가 양호한 곳은 일본인에 의해 점거되어 갔고 조선인들은 열악한 지역으로 밀리며 또한 밀집되어 갔다.

정리하면, 목포 초기 도시화는 이중성을 갖고 출발하였다. 목포 시가지의 형성은 일본인 거류의 매립지 1km²와 조선인 거주지 산기슭 무덤자리 1.33km²이었다. 일본인 마을은 계획된 시가지였고 조선인 마을은 무계획의 시가지였다. 목포의 초기 도시화는 조선인에게 불리한, 차별에서 비롯된 이중성을 갖고 출발하였다.

2. 생활권의 확장(1910~1930년)

1900년대가 목포의 형태 및 기능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1910년대는 육상 교통의 건설로 인해 목포의 내부 형태와 도시 기능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목포 인구는 조선인 7,076명, 일본인 4,494명, 그리고 기타 외국인 85명으로 총 10,655명이었다. 또한 1897년 개항 이후 연평균 13.4%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10년대에 설치된 주요 시설로는 목포 시립병원이 개원(1904년)하고, 1897년 개국한 우체국이 이전(1905년)하였다. 또한 1911년에 목포 전등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화력발전을 개시함으로써 목포에서도 전등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주요 시설의 조성과 함께 도시로서 목포가 성장할 기반 시설이 될 목포역이 1913년에 준공하여 그 다음해인 1914년에 대전과 목포를 잇는 호남선 철도가 개통하였다.

개항 초기에는 일본영사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주거 기능이 목포공동조계 전체로 확산되면서 유달산을 중심으로 민족별로 분류되는 집합형의 주거 형태를 보인다. 또한 유입되는 조선인들도 증가함에 따라, 조선인 마을은 유달산에 막힌 남쪽이 아닌 무안가도를 따라 북쪽으로 면적이 성장을 하면서 불규칙형의 내부 형태가 계속 확장되었다.¹¹⁾

당시 조선인 마을과 일본인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무안가도가 유일한 것이었는데, 그 후 2~3개의 길이 더 개설되었다. 그리고 개항 당시 거류지의 가구가 거류지 안에서 완결되는 구성을 띠고 있었지만, 점차 조선인 마을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어 갔다. 동서축의 가구 구성이 동쪽 지역의 번영과 함께 남북축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류지의 중심은 영정(榮町)과 북

11) 김자경, 「목포의 도시구조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9, 14~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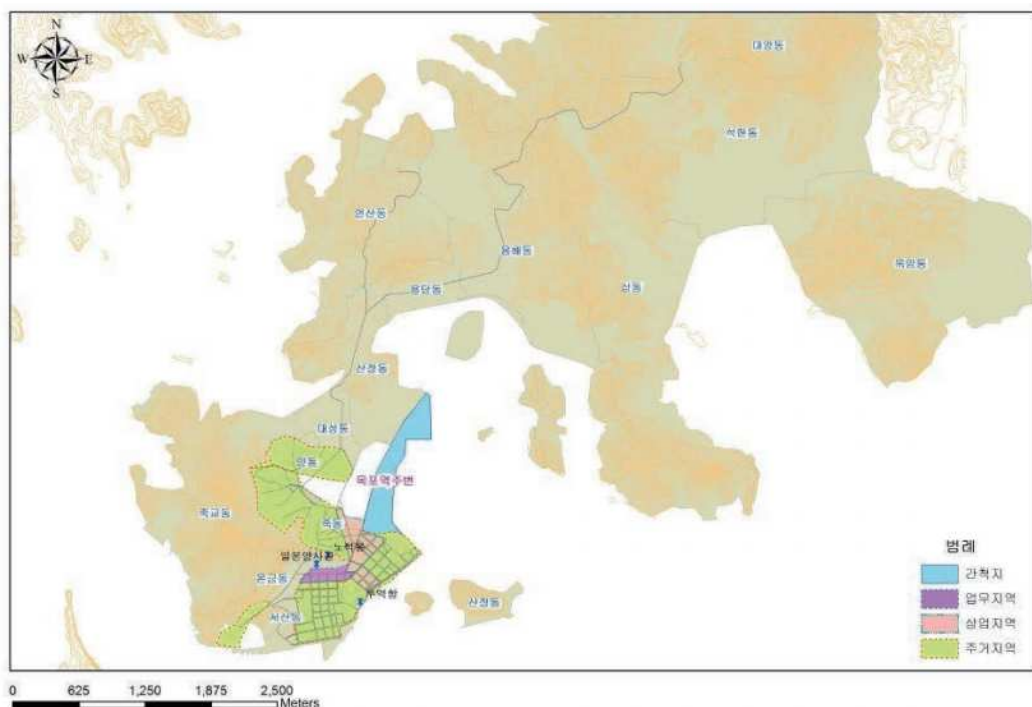


그림 1 1910년대의 목포 생활 공간

출전: 김자경, 「목포의 도시구조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9, 15쪽.

산정(福山町)¹²⁾ 일대였고, 이 지역은 흥미롭게도 선창과 조선인 마을을 연결하는 곳이었다. 당시 선창은 무역의 거점 시설이었고, 조선인 마을이 그 배후지라면 그 사이에 중심지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1910년대의 목포는 주로 구 거류지 내의 정비에 치중하였고 호남선 철도 시설 공사로 약간의 매립을 시행하여 도시발달의 단초를 마련하는 정도였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초기에 있었던 동서축의 발달이 남북축의 발달로 전이되면서 시가지 확장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갔다는 점이다.

이처럼 1910년대는 무역량의 증가와 교통의 발달이 시가지 확장을 유도하였다면, 1920년대에는 매립 사업으로 목포의 외형이 변화하게 된 시기였다. 인구 측면에서는 1910년 10,655명이었던 인구가 10년이 지난 1920년 16,701명이었으며,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4.4%로 개항기의 13.4%에 비하면 아주 둔화된 증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구역 측면에서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목포이사청

12) 영정은 무안통과 무역항을 연결하던 지역으로서 목포진 터 동쪽에 위치하였으며, 복산정은 무안통과 영정 및 영사관통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은 폐지되고, 그 해 10월 1일에 무안부가 목포부로 개칭하여, 목포부의 관할 구역은 18개 면으로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지방 제도를 개편했고, 이때 목포부를 목포부와 무안군으로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목포부 면적은 703,978평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목포 거류민단이 폐지되어 관련 사무와 재산을 목포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상의 변화와 함께 도시는 성장을 거듭했다.¹³⁾

1920년대 목포의 외형의 변화를 보면, 먼저 1924년 온금동이 간척되었는데, 이곳은 목포공동조계 서쪽 끝인 서산동과 접한 지역으로 유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곳이다. 온금동의 간척은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안선을 따라 ‘ㄷ’자 형태¹⁴⁾로 진행된다. 이는 공간 확장의 목적보다 항구나 접안 시설의 건설에 목적을 둔 간척으로 보인다. 또한 온금동 간척과 함께 온금동을 감싸고 있던 옥산이 개발된다. 옥산의 개발로 옥정(旭町)이 만들어지면서 목포공동조계와 연결되는데 당시 조성된 면적이 7.8㎢였다.¹⁵⁾

이와 함께 남교동에서도 간척 사업이 실시되었다. 남교동은 그곳에 두 개의 다리가 있다고 하여 쌍교리라고 불리던 지역이었는데, 이후 남교동과 북교동으로 나뉘어졌다. 간척지는 일등도로(현 국도 1호선)가 건설되면서 형성된 방조제의 서쪽으로 남교동 북쪽과 양동의 남쪽이 접하는 부분으로 26 ㎢의 토지가 조성된다.¹⁶⁾ 남교동의 간척 사업으로 남교동·양동 부근은 호소(湖沼)에서 평지로 변하게 되었고 밀집된 죽동, 북교동, 남교동 일대의 주거지는 간척지가 있는 북쪽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남교동이 간척되고 4년 후인 1929년 목포역전이 간척되었다.¹⁷⁾ 개항 이후 무역량 증가와 호남선 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복산정 주변으로의 상업 기능이 계속해서 밀집되었으며, 이러한 압력으로 상업·업무 기능의 외부로 확산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유일하게 외부 지역과 연결되는 무안통을 따라 상업·업무 기능이 확산되었고, 목포공동조계 내의 인구도 무안통 부근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의 중심점도 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확산되는 북쪽은 조선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계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주거지가 더욱 밀집되는 형태를 보이면서 상업·업무 기능이 확산될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목포역 부근 호남선이 부설되면서 만들어진 방조제 내의 호면(湖面)이 상업·업무 기능 확산에 대한 예비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간척되면서 8.5㎢의 토지가 조성되었

13) 윤희철, 「일제강점기 목포 도시계획의 내용과 특징: 시구개정과 시가지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2, 한국지역개발학회, 2013, 5~6쪽.

14) 이로 인해 해안선 모양이 언청이처럼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째보선창’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1980년대 유달산 일주도로 건설로 인해 매립되어 사라진다.

15)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4, 138쪽.

16) 같은 책, 138쪽.

17) 같은 책, 96쪽.

다.¹⁸⁾ 이러한 남교동·목포역전의 간척은 목포 전체 형태를 변화시켰다. 남교동은 개항 초기 조선인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목포의 유입되는 인구와 비례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었다.¹⁹⁾ 1920년대를 1910년대와 비교했을 때 주거 기능이 남교동, 북교동, 양동, 대성동에서 산정동, 죽교동까지 확산되어 있다.²⁰⁾ 이로 인해 남교동을 비롯한 조선인 마을은 주거 기능 확산을 위한 배후지의 필요성을 갖는다.

일제강점기 목포 시가지의 확산은 자본의 성장과 상관관계가 높다. 지역 경제의 자본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1898년 10월 1일에 일본의 (株)제일은행 목포출장소가 설치되었고, 이후 1906년 조선은행 목포지점, 같은 해 광주농공은행이 개업하였다. 그 후 1917년 광주농공은행은 조선식산은행에 합병되었는데, 조선식산은행은 곧 목포지점을 설치하였다. 1906년 9월에는 (株)18은행 목포지점과 (株)나카사키 저축은행 대리점이 개설되었고, 1920년에는 호남은행 목포지점이 설치되었다. 또한 금융 관계 회사로는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목포무진주식회사(1922년), 목포창고금융주식회사(1919년), 목포신탁회사(1922년), 전남신탁주식회사, (株)목포식산구락부 등이 있었다. 금융조합으로는 목포금융조합과 무안금융조합이 있었다.²¹⁾ 이처럼 개항장을 중심으로 경제 규모가 확장되고 이를 지원하였던 금융기관이 자리 잡게 된다.

경제 규모가 확장되면서 문화 향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포의 상설 영화관이 1920년 무안동에 희락관(喜樂館)이 설립되었으나, 1~2년간 운영한 후 1926년 화재로 사라졌다. 목포 지역의 극장 역사는 1926년 목포극장과 1927년 평화관(平和館)이 개관하였다. 목포극장 개관 2년 이후인 1928년 외달도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휴일 개념을 제도화했고, 해수욕장 개장 다음 해 목포부 운영시장(市場)이 개장하면서 경제 활동이 전개되는 공간이 형성되었다.

18) 같은 책, 96쪽.

19) 남교동, 북교동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주거지를 형성할 공간이 없어 조선인들이 모여 있고 무역항과 가까운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다.

20) 목포시, 앞의 책, 147~152쪽.

21)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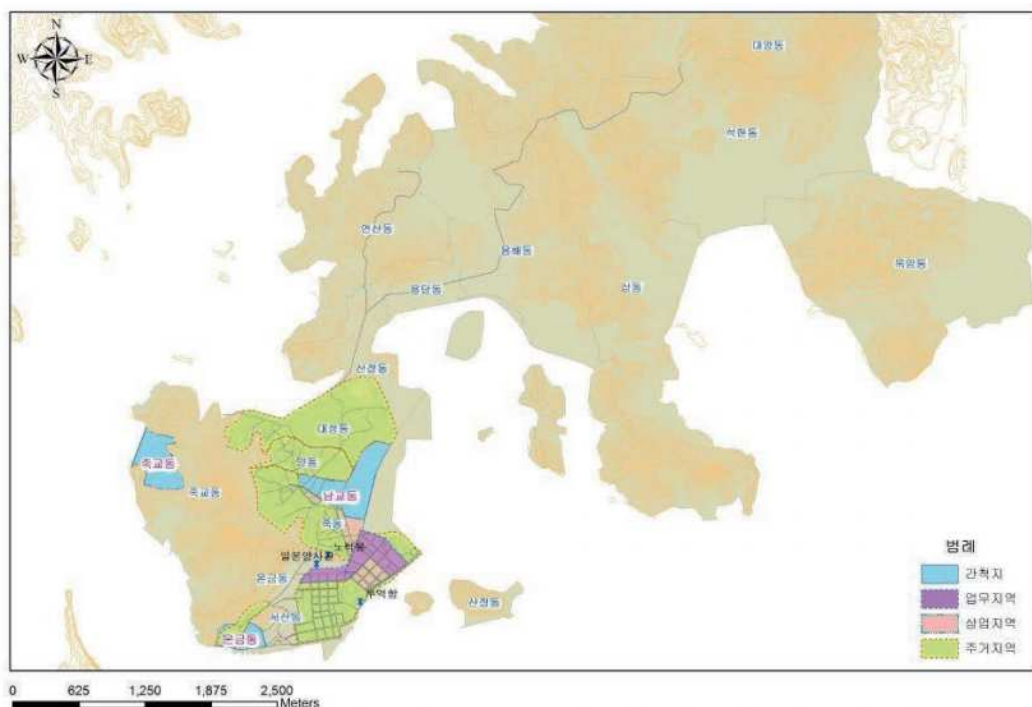


그림 2 1920년대의 목포 생활 공간
출전: 김자경, 앞의 논문, 20쪽.

3. 시가지의 정비(1930~1940년)

개항 후 1920년대까지 목포는 도시적 기능의 형성과 변화와 함께 도시의 형태가 변화되었던 시기였다면, 1930년대 이후는 도시계획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가지가 점차 정비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인구 측면의 변화를 보면, 1910년에서 194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3,313,017명에서 24,326,327명으로 45.2% 증가한 반면, 목포부의 인구는 10,655명에서 69,965명으로 566.6%(59,310명) 증가하여 약 520% 정도가 유입 인구와 행정구역 편입에 의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31년의 인구 규모는 1910년 경술국치 당시보다 약 3배가 늘어났으며, 1931년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구 구성은 한국인이 75%, 일본인이 24.3%를 차지하여 한국인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음은 행정구역 측면의 변화를 보면, 1932년 목포의 행정구역은 기존 목포공동조계, 온금동, 죽동, 남교동, 북교동, 양동, 대성동 일대에서 무안군 이르면 죽교리, 산정리, 용당리 일대까지 확대되

면서 구역이 10.44㎢로 증가된다.²²⁾ 이러한 행정구역 확대에 의해 시계(市界)가 무안군 이르면 부근까지 넓혀져 목포의 도시형태가 변화되었으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목포공동조계 동쪽과 무안통에 형성되어 있던 중심 시가지는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게 된다. 이와 함께 1932년 삼학도 북쪽의 산정동과 용당동 앞 해안(현 용당1, 2동 및 2호 광장과 3호 광장 부근)이 간척되면서 148㎢의 토지가 조성된다. 그리고 1935년 뒷개(현 북항과 산정동, 대성동, 양동 사이)가 간척되면서 67㎢의 토지가 조성된다.²³⁾ 이처럼 행정구역 확장과 간척을 통해 목포는 1930년대 시가지를 확장하였으며 넓은 배후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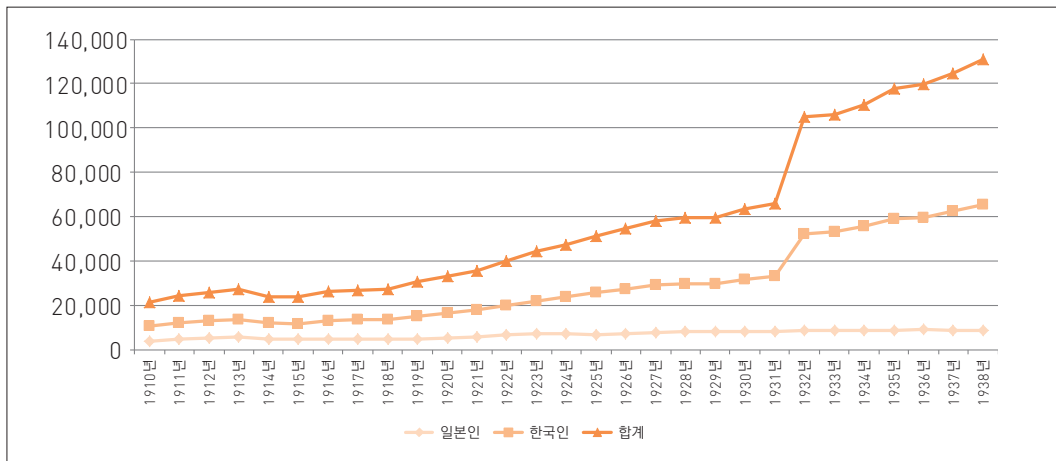


그림 3 목포부의 인구변화(1910~1938년)

주: 1932년에 급상승한 부분은 무안군 이르면 일부가 편입되어 발생.

목포의 「시가지계획령」은 1937년에 발표되었다. 이 「시가지계획령」은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구획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써 목포 내부형태 형성과 관련이 있다. 개항 직후 2,806명이었던 인구가 1935년에는 59,094명으로 21배 이상이라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자연스레 주거지는 밀집되고, 가로는 비좁아져 시가지 정비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 「시가지계획령」은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 6월)에 따른 시가구·동가로망·구역 내의 구획 정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시가지 계획은 인구, 교통 수단, 차량 수, 간척을 통해 조성된 토지 등을 감안했으며, 이로써 목포의 남

22) 목포시, 앞의 책, 160쪽.

23) 고석규, 앞의 책, 138쪽.

쪽 무역항 부근에만 집중되어 있던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외곽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와 함께 목포의 내부 형태도 혼합형에서 규칙형이 우세한 내부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목포는 30년대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목포의 안정적 발전은 목포의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해당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조선인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조선인의 생활은 더욱 비참하게 되었다. 당시 목포 인구의 10분의 3이 거주하는 북교동, 남교동, 죽동의 하수 개(下水蓋)가 정비되지 않아 막심한 오물이 산처럼 쌓여 있어 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1930년대 이후 목포는 행정구역 확대를 통해 도시 형태를 변화시켰고, 이와 함께 무안까지 넓어진 행정구역과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 및 업무 기능이 집중된 목포의 중심 시가지는 더욱 밀집되었다. 또한 개항 후 외부에서 유입된 한국인들로 인해 빈민가를 넘어서 슬럼화된 조선인 마을(북교동, 남교동, 죽동)도 「목포시가지계획령」이 공포되면서 인구 및 교통 체계를 고려한 가로망, 주거지, 매립지 이용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서 체계적인 시가지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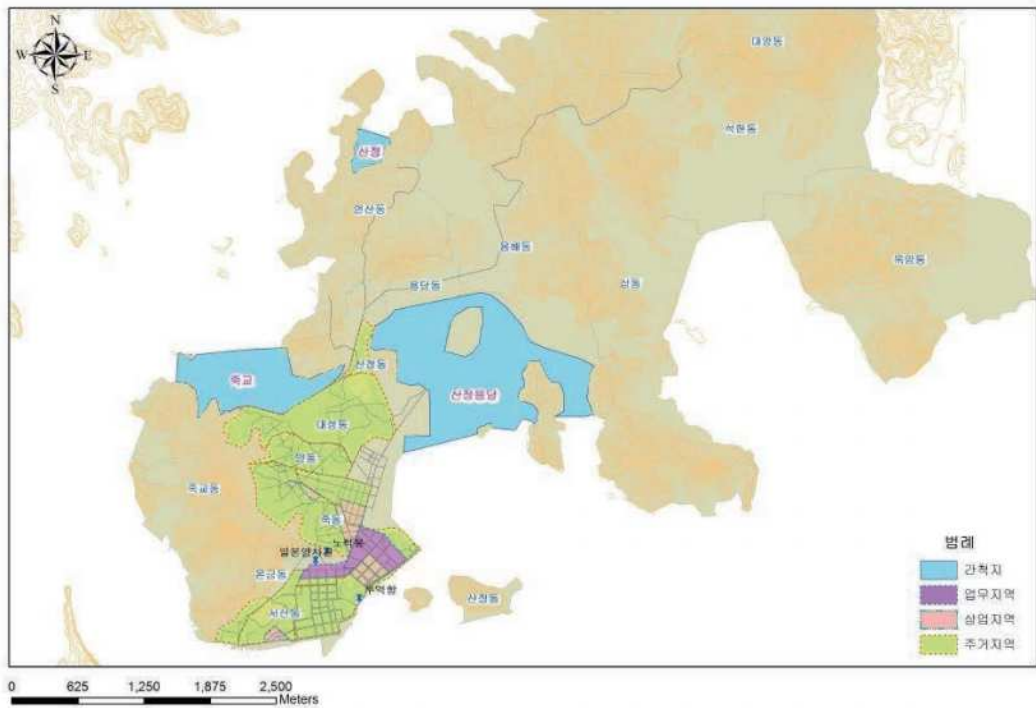


그림 4 1930년대의 목포 생활 공간
출전: 김자경, 앞의 논문, 25쪽.

제2절 해방 이후 산업화 시기의 주거 환경

1. 해방 이후 주거 문제(1950년대)

1945년 해방 후 제일 먼저 목포의 행정에 찾아온 변화는 동명의 개칭이다. 1949년 4월 1일 일본 식 정(町)을 모두 동(洞)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1949년 7월 4일에는 법률 32호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목포부를 목포시로 변경하였다. 그 후 행정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1953년 1월 8일 목포시 조례 제26호로 목포시 동의 명칭과 구역을 전면 개정하여 오늘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해방 전 72,981명이던 목포 인구는 1946년 10만 3천 명으로 급증하고 1949년에는 11만 1천 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당시 늘어난 사람들은 일본에서의 귀환자, 남하 동포, 교외의 타지방 전입자 등이었다.²⁴⁾ 이처럼 급격한 인구 증가는 도시의 부양 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가도시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가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주택 문제이다. 한정된 공간에 과도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목포 내의 주택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로 인해 목포의 기존 시가지는 과밀화하였고, 도심 주변의 유달산, 송도공원과 같은 국공유지 혹은 대성동, 산정동 산기슭 등이 불법 점거되어 소규모 불량주택이 들어차서 개발이 어려운 불량주거지로 되었다.²⁵⁾

1952년 12월에는 OAO당국의 난민용 주택 120호가 대성동에 조성되어 피난민촌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목포의 인구는 자체 해결 능력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중된 압력에 밀려 사람들은 목포를 떠났다. 이런 사정으로 1955년을 기점으로 목포의 인구는 감소하게 되었지만 난민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목포시는 1960년대 중반까지도 난민들의 정착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목포시는 1956년까지 전쟁으로 인한 파괴를 복구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이때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 점거를 용납한 것이 이후 도시 정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1953년에는 남해개발지구 64만 평을 조성하기 위해 삼학도-갯바위 간 제방 공사를 계획하였고, 이는 1957년에 서울의 척방염전주식회사가 맡아 공사를 착수하였다. 그리고 1960년까지 삼학도와 송도간의 연륙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산정, 용당, 죽교동에서 매립이 추진되었다.

1960년 발행한 목포시가도(木浦市街圖)에 따르면, 1935년 대비 시가지와 구역이나 도로망은 거의

24) 당시 목포에는 이들을 구제하고자 임시 이재민구호소를 1947년 7월에 개소하였는데, 3~4개월 안에 대략 5만 명이 입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볼 때 당시 목포로의 인구집중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25) 고석규, 앞의 책, 122쪽.

그대로인 데 반해 인구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그 분포는 새로이 산정동, 용당 방면과 함께, 유달산, 서산동, 대성초등학교 부근에 국공유지를 불법 점거하여 크게 늘었다. 이러한 불법 점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2. 개발의 시대에서의 주거 환경(1960년대)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목포에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목포는 가도시화로 인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택문제였다. 1966년 인구 16만 명의 목포시에는 1만 7천9백여 동의 가옥에 2만 6천7백여 세대가 살고 있어 8천6백여 세대가 셋방살이를 면치 못함으로써 결국 부족한 가옥이 8천여 동이나 되고 있었다. 목포 인구의 거의 1/3이 집 없는 신세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이 매년 인구는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1969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인구 16만 8천여 명에 2만 9천4백7십여 세대가 살고 있지만, 주택 수는 1만 9천1백7십2 동으로 1만 8백3십5 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중에는 가건물격인 주택이 531동이나 되었다. 주택난은 점점 더 심해졌고, 시민의 37%가 집이 없었다.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는 집 지을 땅을 마련하는 택지 조성이다. 목포시가 택지를 조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 하나는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새로운 땅을 목포시역(木浦市域)으로 편입시키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간석지 등의 매립을 통해 물리적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확장과는 다르나 도시 내 정비를 위한 재개발 사업도 택지 조성의 일환이었다.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775호로 목포시의 행정구역이 확장되었다. 신안군 이로면의 육지부에 속한 산정·상리·용당리 등이 이로동으로, 그리고 도서부에 속한 달리, 놀도리를 충무동으로 편입하였다. 이로써 시의 행정구역 면적이 23.19㎢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행정동 구역도 변경되었다. 이로동과 충무동의 신설로 25개 동이 되었고 산정동 3구는 동구역이 조정되었다. 또 동명칭도 일부 수정되어 산정 1구동, 2구동이 산정동 1구로 되었다. 1970년 7월 1일에는 산정동 1구의 남부를 나누고 남해개발사업지구 중 일부 매립지를 포함하여 연동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목포시는 26개 행정동과 41개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도시의 외연부에 편입된 새로운 땅에는 신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대량의 택지를 자치 단체 재원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조성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이 사업은 1966년 8월 3일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었다. 1966년 7월 14일 고시된 목포시 종합개발계획(시안)을 보더라도 토지구획 정리지구가 계획 주거 가능지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 개발에서 토지 구획 정리가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종합 계획에는 남해개발지구 및 하당지구, 뒷개 북항지구 등이 포함되었고 백련동 부근도 신시가지로 계획하고 있었다. 당시의 주거지역 건설에 관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 공공용지율을 포함해 신규 주택 건설에 필요한 3,400,000㎡의 택지 확보를 위해 택지 개발에 중점을 둔다. 둘째, 택지 개발에는 먼저 주거 환경의 정비, 즉 사회 자본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셋째, 시가지화 지역에 밀집한 인구를 여타 주변 지역에 분산될 커뮤니티 형성의 관점에서 주택 개발 부지를 조성한다. 넷째, 1차로 제1, 2 이로지구(산정동, 용당동 일대), 제1, 2 삼학지구(매립된 삼학도 부근)의 택지 개발을 선정하고, 2차로 제1, 2 죽교지구(유달동 북서쪽 일대), 석현지구를 개발한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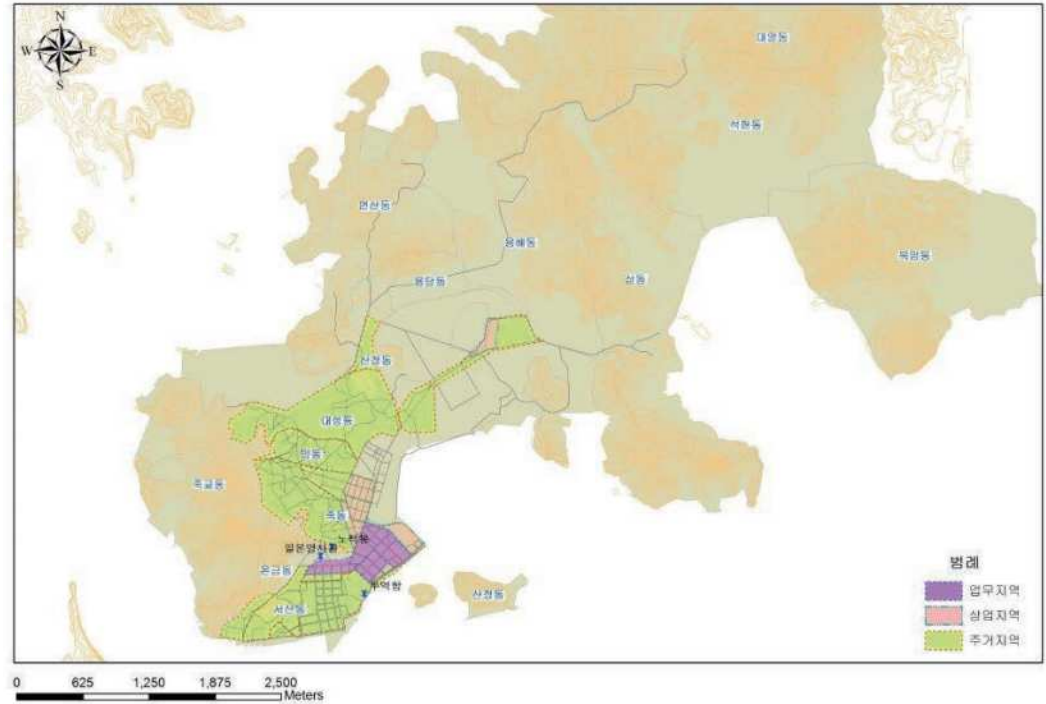


그림 5 1960년대의 목포 생활 공간
출전: 김자경, 앞의 논문, 32쪽.

실제로 1968년부터 산정 용당동 제1지구 84,406평, 제2지구 71,781평, 합계 156,187평을 부도 십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같은 해 5월 15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968

26) 대지종합기술공사, 『목포시 도시종합개발계획 72~81』, 194~198쪽.

년 5월 19일 착공하였고, 완공은 무려 16년 6개월이나 지난 1985년 12월이었다. 이 기간 동안 용당동 부근의 신시가지가 적극 개발되어 목포는 남북으로 띠를 두른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행정구역의 개편과 함께 매립을 통한 택지를 확장하기도 하였다. 먼저 60여만 평의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삼학도-갯바위 간 방조제 공사를 실시했는데, 이 공사는 1962년 9월 5일 착공하여 1973년 6월 30일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1966년 7월 14일에는 재개발 지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불량 주거지가 있는 산정 1지구동과 연동, 동명동, 유달산기슭의 죽교 3·4동(지금의 죽교3동, 달성동), 대반동 뒷개지구 등을 재개발지구로 정하였다.

해방,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대혼란을 겪으면서도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점차 심화되었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 인구 비율, 1,000명당 취업자 수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목포시는 정체 내지 쇠퇴를 알 수 있고, 유입인구가 많았음에도 전 시간 인구 증가(1936년 60,005명, 1965년 157,382명, 연평균 인구 증가율 3.4%)는 적었다.

목포 도시 기능의 정체 내지 쇠퇴의 원인은 마이너스적인 경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일본과의 무역 단절로 무역업을 위시한 운반, 보험, 도소매업 및 관련 산업의 퇴조, 외연에 의한 가공을 필요치 않는 벌크재(비료, 유류 등) 유입 위주의 항구로 전략, 전국 일원에 걸친 육로 운송 체계 강화로 연안 항구 기능의 퇴조, 목포권 배후 지역인 무안, 영암, 해남군 등의 벼농사 위주의 농업으로 인한 상대적 구매력 감소, 6·25전쟁 시 많은 사회간접자본의 파괴 및 목포권 항만 시설을 위시한 목포권역에 대한 정부 투자 저조의 단독 혹은 복합 작용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서의 목포 시가지는 목포시가지계획의 실현·적용을 하지 못하고 무질서·혼란 중에 전 기성 시가지 내의 과밀화 및 도심 주변의 국공유지(유달산·공도공원 등) 혹은 해방 전 일본인 소유지의 산기슭(대성동·산정동)에 불법점거지구(Squatter)를 형성하였다. 또한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신개발된 중앙로변(산정초등학교 주변)으로도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기성 시가지 내의 토지 세분화, 맹지와 불법점거지구 내 토지의 불규칙 세분화, 극세분화, 맹지를 유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

3. 시가지의 확대와 주택난(1970년대)

1970년대 목포시 인구는 1971년 182,485명에서 1980년 221,856명으로 연평균 약 2.2%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1960년대보다 반배 정도 감소한 수치로 개발기의 초기 단계보다 크게 둔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75~1982년 시지역 연평균 인구 증가율 5.3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목포시는 전국적인 경제 발전의 파급 효과에 영향을 받지 못한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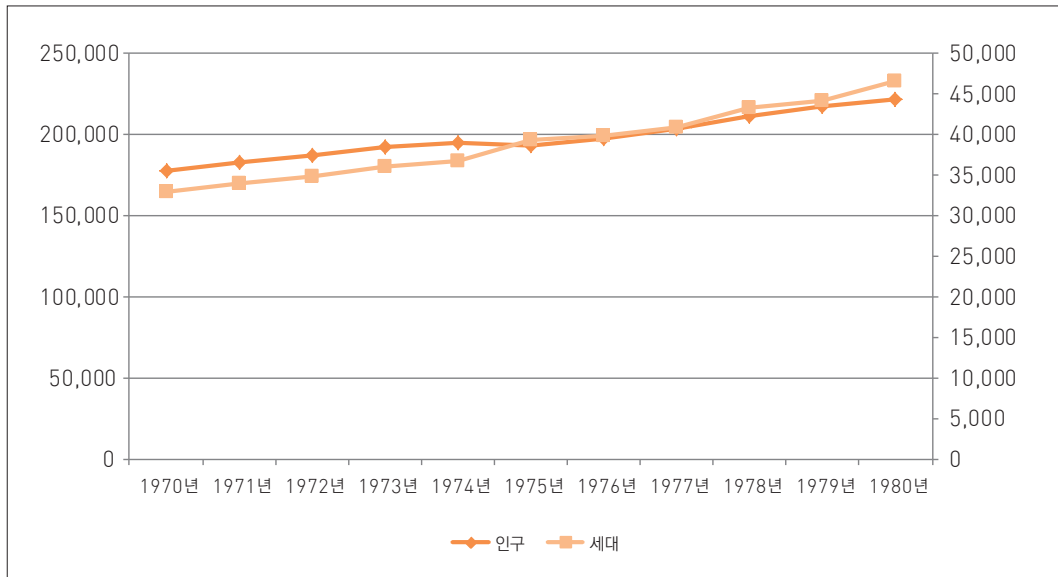


그림 6 1970년대 목포시 인구 및 세대 추이

이러한 인구추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목포는 도시계획의 시기라고 할 만큼 잦은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이 있었다. 1971년, 1974년, 1976년 그리고 2001년 55만의 인구를 목표로 세워진 1980년의 목포시 장기종합개발계획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1972년 4회, 1973년, 1974년, 1976년, 1977년, 1979년 등 모두 10회에 걸쳐 있었다.²⁷⁾ 그 중에서 1976년 목포도시재정비계획이 법정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어 지금의 도시 형태를 갖게 하였다. 수립과 변경이 그만큼 잦았다는 것은 결국 어느 계획 하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이 시기 도시계획의 특징은 생활권의 도입과 도시의 평면적 확대 방지 및 농지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구역의 축소를 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²⁸⁾

1970년대 목포의 행정구역은 1972년 죽교동 1구의 구역을 확장하고 1973년 3월 12일 공포, 같은 해 7월 1일 시행한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해 무안군 삼향면 석현리를 편입하여 총 25.96㎢를 관할하게 된다. 1973년 5월 30일 공포, 같은 해 7월 1일 시행한 목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599호에 의해 동명이 개정되어 산정동 1구, 2구 등을 산정 1동, 2동으로 죽교동 5구를 대반동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매년 간척 매립으로 토지 개발을 하여 각 동의 관할구역이 조금씩 넓어졌다. 1975

27) 목포시, 앞의 책, 220쪽.

28)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11쪽.

년에 죽교 2동과 충무동이, 1977년에 죽교단지개발로 죽교 1동이, 1978년에는 동명동과 이로동, 연동, 충무동이, 1979년에 죽교 1동, 이로동이 각각 관할 구역을 확장하였다. 1980년 5월 1일에는 용당동을 국도간선도로를 경계로 용당 1동, 2동으로 분동하였다. 이로써 목포시의 동은 행정동 2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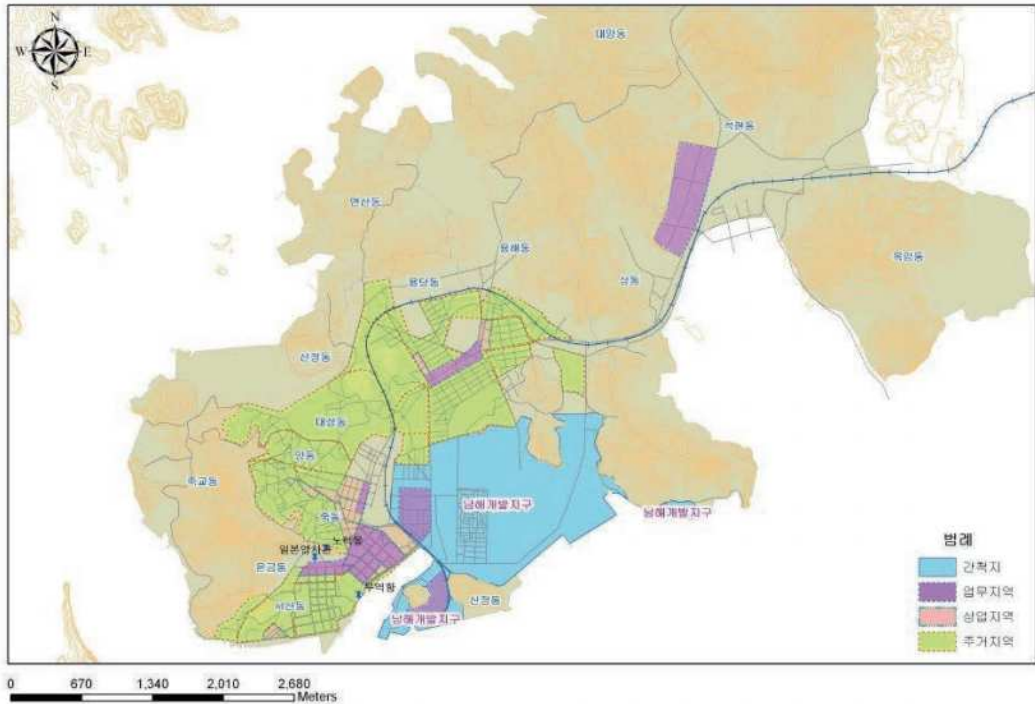


그림 7 1970년대의 목포 생활 공간
출전: 김자경, 앞의 논문, 37쪽.

동, 법정동 42개동으로 되었다.²⁹⁾

당시 주거 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주택문제는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졌다. 즉, 1969년 목포 인구는 16만여 명에 약 3만 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주택은 19,000동으로 1만여 동이 부족한 상태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37%가 무주 택가구였으며,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속적으로 공영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1973년에는 34억 원을 투입하여 서민주택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경비의 절반인 17억 원을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으로 충당하였다. 이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차관으로 1977년에 목포시 진입로를 개통하고 주택단

29) 같은 책, 411쪽.

지를 조성하였다. 남해개발 매립지구에 조성될 약 45만 평의 신시가지 계획의 첫 단계 사업인 목포 주택단지가 완공되었다.³⁰⁾

목포 최초의 아파트는 1970년 건립된 시민아파트(78세대)이다. 이후 1977년 용당주공아파트 354세대, 1978년 신용해아파트 그리고 용당아파트가 건립되었는데, 이는 100세대 미만의 작은 APT단지이고, 총 9개의 단지이다.

당시 주거 환경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새마을 사업을 거론할 수 있다. 1972년도의 기록을 보면, 마을길 확장을 비롯하여 13개 종목에 50개의 새마을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3월 5일을 기준으로 63%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새마을 사업의 내용은 하수구 개수나 마을 안길 포장 공사 또는 지붕 개량 사업 등이었다. 이는 주로 소규모의 생활 편의를 위한 개선 사업으로 도시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었으나,³¹⁾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목포시의 가장 큰 도시적 특징은 면적 확대와 중심시가지의 확산 그리고 인구 분산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개발을 위해 무안군 삼향면 석현리를 목포로 편입시키고, 남해개발지구의 간척이 완성되면서 목포의 북쪽과 남동쪽이 확장된다. 특히 남해개발지구의 완성은 삼학도 북쪽의 만(灣)이 전부 토지로 변하면서 목포의 전체적인 지형까지 변화시켰다. 이러한 목포의 남쪽과 북쪽을 향한 면적의 확대에 의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조성을 위한 배후지 확보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기능 지역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목포종합개발계획을 기준으로 건설된 중앙로가 목포를 남북으로 관통하게 되었다. 도로 개설과 함께 주거지역은 중심 시가지 인근에 간척된 산정동, 용당동, 삼학도 부근에 형성되면서³²⁾ 중심 시가지 부근의 과밀화된 인구가 주변으로 분산되었으며 목포 내의 이동성·접근성을 향상시킨 중앙로로 인해 인구는 목포 전체로 분산된다. 또한 중심 시가지의 업무 기능과 상업 기능도 중앙로를 따라 새로 조성된 주거지역인 산정동, 용당동 방면으로 확장된다.

이처럼 광복 후 급증하는 인구에 의한 목포 내 인구 집중, 주택문제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목포의 면적 확대, 목포 종합개발계획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점점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도시 중심부의 인구는 감소한다.³³⁾

30)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10쪽.

31) 『전남일보』 1975. 08. 13.

32) 『전남일보』 1973. 02. 13.

33) 김자경, 앞의 논문, 40~41쪽.

4. 택지 개발을 통한 주거 공간의 확보(1980년대)

1980년대 목포시 인구의 추이는 1981년 226,747명에서 1990년대 253,423명으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약 1.2%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보다 반배 정도 감소한 수치로 인구 성장률이 더욱 감소하여 도시성장의 상대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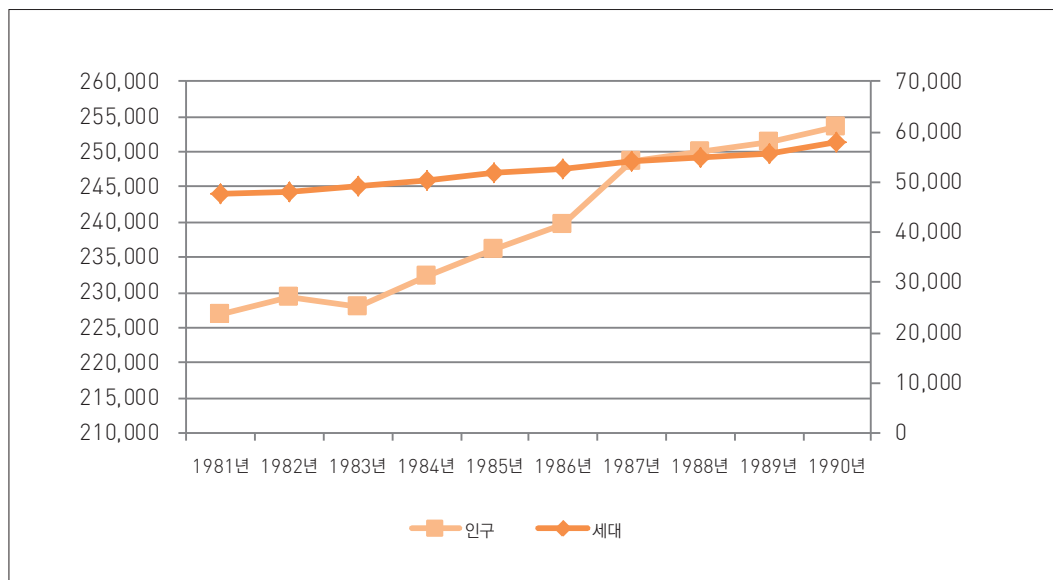


그림 8 1980년대의 목포시 인구 및 세대 추이

1980년대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업은 산정동, 용당동의 2차 택지 개발을 시작으로 죽교동, 이로동까지 점점 확산되어 간다. 산정동, 용당동은 1차 택지 개발을 마친 상태에서 산정동 남쪽의 연동 부근까지 2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곳은 당시 목포 내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주거지역이었다. 그 이유는 산정동, 용당동 지역이 중심 시가지와 인접하였기 때문이다. 개항 후부터 상주인구가 많았던 중심 시가지 주변의 남교동, 북교동, 대성동 지역은 주거 기능이 과밀화 되면서 새로 조성된 산정동, 용당동 지역으로 인구를 유출시키게 된다. 당시 자가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정동과 용당동 지역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이 형성된 중심 시가지와 근거리에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였으며, 또한 중앙로를 끼고 있어 교통 상으로도 유리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당시 목포에서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거주지역이 된다.

이로동은 용당동과 접하는 지역으로 산정동, 용당동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북쪽과 동쪽으로 양을산(156m)과 입암산(120m)에 막혀 더 이상 외곽으로 확장되는 모습은 보이지 못한다. 죽교동은 유달산 남서쪽 온금동과 접한 지역 및 북서쪽 북항 개발 예정지와 접한 지역에 두 차례에 걸쳐 주거지역이 조성되었다. 죽교동은 유달동 사면과 목포 서쪽 해안이 접하는 지역으로 중심 시가지와도 유달산에 막혀 있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기에 적합한 지형은 아니었다. 하지만 북항개발계획이 세워지고 인근이 공업지역으로 개발된다는 구체적 계획을 통해 이에 대한 배후 주거지역의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택지로 인해 과거 중심 시가지 부근과 산정동, 용당동을 중심으로 분포하던 인구를 목포 외곽 지역으로 분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³⁴⁾

인구 분산과 함께 일제강점기부터 형성된 중심 시가지(현 목원동 일대)의 행정 기능, 업무 기능, 상업 기능 등도 새로 형성된 주거지역 인근으로 분산되게 된다. 시청, 경찰서, 전신전화국, 방송국, 법원과 같은 행정기능은 용당1동 방면으로 사무소 및 금융기관들은 중앙로를 따라 산정동, 용당동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며, 상업 기능 역시 주거 기능이 형성되어 있는 산정동, 용당동 방면과 전문 상가는 남교로 방면으로, 사무소와 은행가는 중앙로로 이동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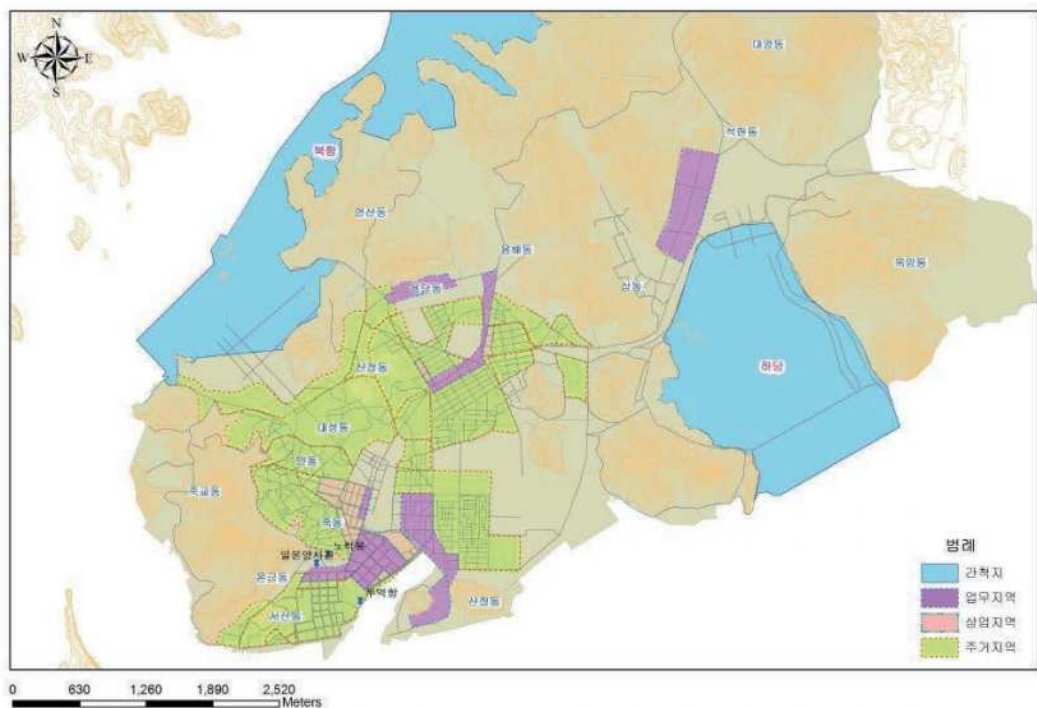


그림 9 1980년대의 목포 생활 공간
출처: 김자경, 앞의 논문, 42쪽.

34) 김자경, 앞의 논문, 42~43쪽.

한편, 1981년에는 유달산공원개발계획으로 유달산 아랫부분에 위치한 불량 주택을 이전하였는데, 이 사업은 1981년부터 1983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었고, 이전한 그 자리에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유달산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의 주거 형태의 경우, 초기에는 단독주택 위주의 남해개발지구개발이, 중반 이후에는 단독주택과 APT단지가 혼합된 죽산(북항)지구가 개발되었다. 1980년대 건설된 아파트는 1983년 용해주공2단지아파트 390세대, 1985년 용해주공3단지아파트 180세대, 1987년 산정삼성아파트 300세대, 그리고 1988년 삼학하이츠 355세대이다. 1981~1985년 사이에는 총 10여 개의 단지가 완공되었으며, 주로 100~300세대의 단지가 많았고, 시가지 주변부에 위치한 것이 많았다. 1986~1990년 사이에는 총 20여 개 단지가 완공되었고, 100세대 전후의 비교적 소규모 단지가 많았으며, 전 시가지에 골고루 분포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는 목포 도시개발계획을 통한 성과로 목포 외곽 지역의 택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택 및 도시 내 인구 집중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다. 하지만 조성된 택지로 인구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CBD에 형성되어 있던 중심 기능들마저 중심 시가지 바깥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앞으로 중심 시가지를 위축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도 없는 낙후 지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표 1 1980년대 아파트 건설

아파트 건설	비고
	1980 보건소 이전(3)(목포시의료원 내)
	1980 경찰서 신축 이전(용해동)
	1983 목포종합버스터미널 개장
	1983 목포시청 신축 이전(용당동)
· 용해주공2단지(1983, 390세대)	1983 목포자연사박물관 개관(용해동)
· 용해주공3단지(1985, 180세대)	1984 KBS 신축 이전(용당동)
· 산정삼성(1987, 300세대)	1986 보건소 신축 이전(3)(산정동)
· 삼학하이츠(1988, 355세대)	1987 우체국 신축 이전(4)(용당동)
	1987 MBC 신축 이전(용당동)
	1987~1991 목포산정농공단지
	1989 시립도서관 신축 이전(용당동)

제3절 생활권의 확대와 원도심의 쇠퇴

1.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1990년대)

목포는 개발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인구 증가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90년 253,423명에 이르러 약 30여년 만에 2배로 증가하면서 통계상으로 가장 높게 기록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1991년부터는 인구 통계 기준이 상주인구에서 주민등록표상의 인구로 바뀌게 되어 통계상으로는 낮게 기록되고 있다.³⁵⁾ 1991년의 인구는 221,193명으로 3만여 명 이상 낮게 기록되고 있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며 1997년에는 250,178명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남성보다 여성의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당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의 양적 증가의 움직임은 미약하였으나 1990년대 목포의 도시 기능은 더욱 외곽으로 분산되기 시작되었고, 주거 환경은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북항과 하당, 용해동, 석현동과 같은 목포 외곽지역에 택지가 개발되었다. 이에 높은 지가, 밀집된 상가와 주택, 혼잡한 교통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중심 시가지를 떠나 새롭게 택지가 조성되어 공동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거 기능이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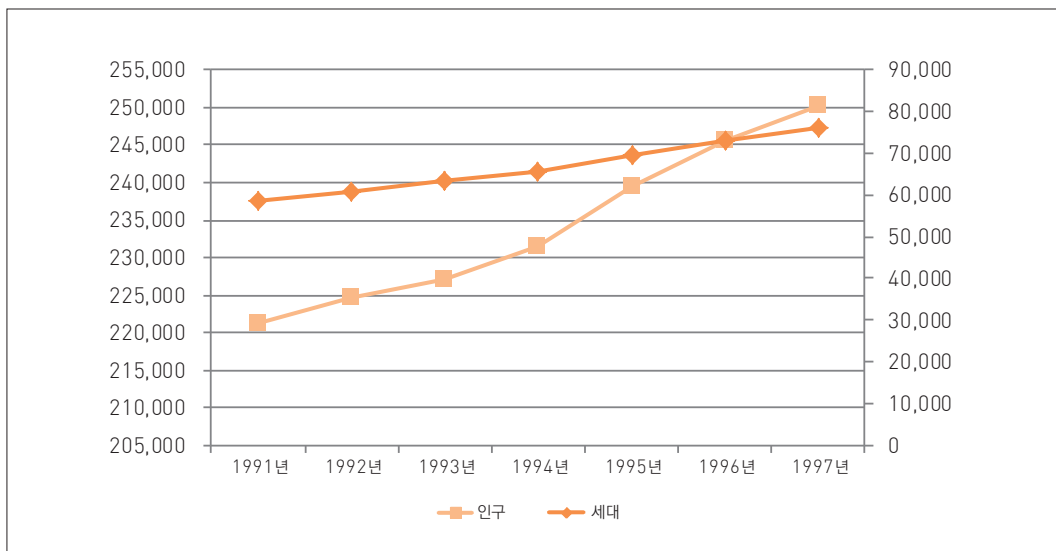


그림 10 1990년대의 목포시 인구 및 세대 추이

35) 이종화 외, 앞의 책, 53쪽.

신시가지 하당³⁶⁾지구는 목포시와 무안군 삼향면이 접한 지역에 주거 기능 지역을 목적으로 개발된다. 하당지구는 입암산에서 무안군 삼향면 옥암리 부흥산을 연결해 간척되면서 형성된 택지개발지역이다. 이 지구는 1988년에 신도시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995년 12월에 택지 개발이 완료된 곳이다. 하당지구는 1, 2차로 나뉘어 개발되었는데, 하당 1차 지구가 84만평, 하당 2차 지구(매립지구)가 21만 평으로 총 100만 평 규모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 건설용지가 32%, 상업 용지가 16%, 그리고 공공 용지가 52% 비율로 계획되었다. 상업 용지가 주거 용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남악신도시의 상업 지역 면적이 주거지역 면적의 10% 정도로 계획된 것과 비교하면 하당의 상업 용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³⁷⁾ 하당지구는 대불산업공단이 1996년에 건설되고 전남도청이 2005년에 이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인구의 유입으로 인구수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하당지구는 중심 지역에 업무 공간이 형성되고 그 주변에 유흥가, 전문 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목포의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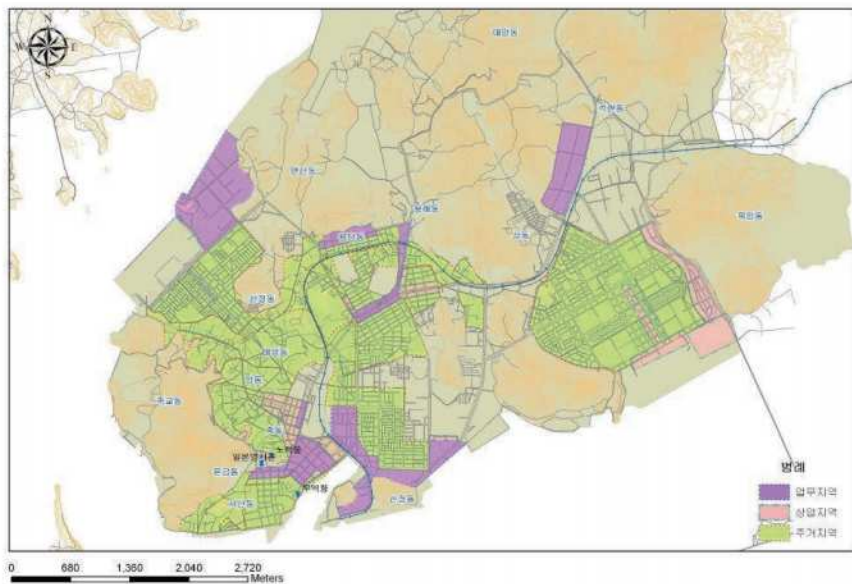


그림 11 1990년대의 목포 생활 공간
출전: 김자경, 앞의 논문, 45쪽.

- 36) 하당이란 지명은 1897년 조선지방도인 무안현 지도에서도 확인된다. 목포진에서 동북 방향으로 주막을 지나 약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안으로 향하는 길목이다. 하당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지명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상동과 옥암동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이종하 외, 앞의 책, 54쪽).
- 37) 하당지구는 토지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소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적 기능을 한다는 준주거지역 지정이 과도하고 무분별하다는 점이다. 말이 완충적 기능이지 준주거지역은 허용 용도로 볼 때 상업지역에 가깝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인접해서 지정된 준주거지역에는 러브호텔과 유흥업소가 난립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공원녹지면적은 전체 개발 면적의 9%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신시가지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하당지구가 개발되면서 목포의 구시가지는 침체의 국면을 맞게 된다. 새로운 인구와 구매력의 증가 없이 기존에 목포 지역이 가지고 있던 구매력의 총량 중 상당부분을 하당이 흡수함으로써 구시가지의 상가, 음식점, 술집이 그만큼 활력을 잃은 것이다. 커다란 인구 유입이나 개발의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시가지를 개발한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구시가지의 공동화 내지는 침체 현상이다. 신시가지의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또는 개발을 부추기기 위해 구시가지에 있던 많은 공공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구시가지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새로이 인구가 집중하는 상동지구, 하당지구, 죽산지구의 3개 지구가 개발되었다. 또한 1994년 말 남해개발지구의 전 지역에 걸쳐서 내부 충전이 행해져, 이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상동·하당·죽산지구는 과거와 달리 APT단지형 개발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1년 이후에는 총 34개 단지가 완공되었으며,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많아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규모 단지는 시가지 주변부에, 소규모 단지는 기성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주로 상기 3개 개발지구에 집중하여 인구수 및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다.

표 2 1990년대 아파트 건설 현황

아파트 건설	비고
· 상동주공1(1990, 480세대)	· 1989~1996 하당지구 택지개발사업
· 라이프1차(1990, 300세대)	· 1990 국립목포병원 신축 이전(석현동)
· 신안비치1차(1991, 750세대)	· 1990 목포문화원 개원(구 일본영사관 건물)
· 연산현대(1991, 474세대)	· 1994 목포소방서 신축 이전(옥암동)
· 라인(1991, 360세대)	· 1996 교육청 신축 이전(상동)
· 비파1차(1991, 500세대)	· 1997 목포문화예술회관 개관(용해동)
· 비파2차(1992, 500세대)	· 1996~1999 삼진일반산단
· 상동주공2(1992, 810세대)	· 1996. 12 대불국가산단 완공
· 상동주공3(1992, 1,074세대)	· 1999~2004 용해1지구 택지개발사업
· 상동주공4(1993, 628세대)	
· 신안비치2차(1993, 645세대)	
· 중앙하이츠(1993, 893세대)	
· 일신(1993, 474세대)	
· 산정현대산업(1993, 530세대)	
· 용해동아(1993, 690세대)	
· 비파3차(1993, 510세대)	
· 부영2단지(1994, 1,280세대)	
· 하당초원1차(1994, 352세대)	
· 하당우미2차(1994, 330세대)	
· 용해금호타운(1994, 426세대)	
· 라이프2차(1994, 465세대)	
· 연산주공1(1995, 476세대)	
· 연산주공2(1995, 538세대)	
· 부영1단지(1995, 560세대)	
· 부영5단지(1995, 480세대)	

아파트 건설	비고
· 부영3단지(1995, 1,300세대)	
· 신안비치3차(1995, 495세대)	
· 하당동아(1995, 940세대)	
· 우성(1995, 940세대)	
· 하당상삼(1995, 680세대)	
· 연산주공4(1996, 401세대)	
· 연산주공3(1997, 1,050세대)	
· 연산주공5(1998, 420세대)	
· 상동현대(1996, 510세대)	
· 현대1차(1996, 657세대)	
· 신안꿈동산2차(1996, 690세대)	
· 금호타운(1996, 438세대)	

2. 원도심 공동화와 도시의 확장(IMF 위기이후 부터 2015년까지)

목포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더욱 심화된 시기는 IMF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목포시의 인구는 1998년 248,950명에서 2015년 241,213명으로 연평균 인구증가율 -0.17%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IMF위기 이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잠시 정체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인구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전라남도청이 소재한 남악신도시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남악신도시는 2005년 전라남도청이 이전하면서 목포시의 옥암지구와 무안군의 남악지구가 조성되었다. 옥암지구의 인구 증가는 목포 시내의 다른 행정동에서의 이동으로 목포시 전체 인구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무안군의 남악지구로의 이동은 외부 유출로 목포시의 인구를 감소하게 만든다. 그 결과, 2014년에 무안군 인구가 8만 명이 돌파한 것은 목포 인구가 남악신도시로 이주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³⁸⁾ 이처럼 목포시 인구가 남악신도시로 이동한 이유로는 공공 기관의 입지, 새로운 주거 문화, 소비 패턴의 변화, 자녀 교육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38) 남악신도시는 2005년에 전라남도청이 광주에서 옮겨오면서 교육청과 경찰청 등 76곳의 공공 기관도 함께 이전해 인구 5만 903명의 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공공 기관 이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계획 인구는 15만 명이었지만 10년 동안 5만 명을 겨우 넘겼다. 이 때문에 2단계 임성지구와 3단계 망월지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남악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전남 지역 73.9%, 광주 지역 8.6%였다. 목포시 전입자가 63.4%로 가장 많았고 영암군이 9.9%로 뒤를 이었다. 목포시는 남악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상가가 옮겨가면서 원도심이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에 반해 무안군은 남악신도시로 도청이 오면서 인구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무안군은 최대 인구였던 1992년 23만 만에 8만 2천 명을 회복해 해남군을 밀어내고 인구수 기준 '제1군'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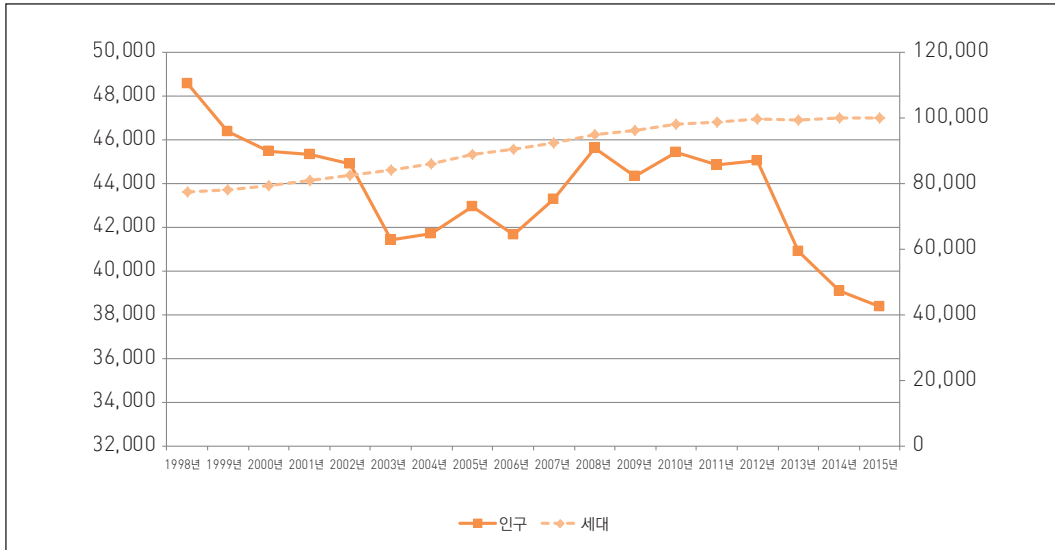


그림 12 IMF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1998년~2015년)의 인구 및 세대 추이

다음은 행정구역의 변화를 보면, 1997년 1월 1일 목포시 조례 제1,805호에 따라 용당1동, 용당2동, 산정2동을 제외하고 기존의 29개동이 26개동으로 조정되고 2006년 8월 7일 목포시 조례 제2,322호에 따라 용당1동·산정2동이 용당1동으로, 북교동·무안동·남양동이 목원동으로, 유달동·충무동이 유달동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26개동이 22개동으로 조정되었으며, 2011년 12월 26일 목포시 조례 제2,715호에 따라 옥암동이 옥암동과 부주동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행정동의 변화에 따라 2015년 말 기준 행정동은 23개동, 575개통, 2,473개반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옥암동과 부주동으로 남악신도시의 조성 이후 공동주택의 완비 효과에 따른 결과이며, 그 다음으로 용해동과 이로동으로 이들 지역 또한 새로운 공동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인구 유인 효과가 작용한 결과이다. 반면, 이들 행정동 외에 모든 행정동의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흥동의 인구 감소폭이 매우 크다. 그 이유는 내부적인 효과보다는 2012년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주동으로 인구통계가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표 3 최근 10년간 동별 인구의 변화

(단위: 명, %)

동별	구분	2008	2010	2013	2015	증감율 (2008:2015)
	용당1동	14,701	13,918	13,216	12,135	-17.5
	용당2동	7,730	7,346	6,755	6,245	-19.2
	연 동	7,602	6,925	6,281	5,746	-24.4
	산정동	9,286	9,252	8,779	8,005	-13.8
	연산동	6,735	6,364	6,185	6,717	-0.3
	원산동	17,692	17,300	16,559	15,433	-12.8
	대성동	5,288	3,758	3,347	3,055	-42.2
	목원동	12,046	11,519	10,444	9,855	-18.2
	동명동	8,611	8,143	7,386	6,624	-23.1
	삼학동	7,668	7,209	7,068	6,635	-13.5
	만호동	4,888	4,645	4,338	3,971	-18.8
	유달동	7,703	7,341	6,806	6,033	-21.7
	죽교동	5,183	4,989	4,449	4,125	-20.4
	북항동	10,943	10,397	9,920	10,404	-4.9
	용해동	15,204	15,527	16,804	18,703	23.0
	이로동	9,822	11,970	11,659	11,088	12.9
	상 동	20,363	20,470	19,339	19,814	-2.7
	하당동	12,648	12,248	12,892	12,279	-2.9
	신흥동	19,294	18,691	18,761	17,846	-7.5
	삼향동	6,844	6,767	6,173	5,598	-18.2
	부흥동	22,589	23,473	13,445	11,900	-47.3
	옥암동	14,780	19,190	11,709	11,575	103.4
	부주동			20,856	24,596	
	합 계	247,620	247,442	243,171	238,382	-3.7

주: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인 기준임.

자료: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 2017.1.4.) 인구통계 참조 작성.

1990년대 하당지구 개발과 2000년대의 용해2지구(주택단지개발사업)와 옥암지구 개발(택지개발사업)로 인하여 시 외곽 지역이 집중 개발되면서 중심 시가지는 극심한 쇠퇴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남악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목포대교의 개통으로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과 관련된 근로자들이 북항지구로 이주하는 경향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용해동 포미타운 주변의 공동주택 개발로 새로운 주거공간이 창출되어 용해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목포백련도시개발구역의 개발로 연산동의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2000년대 이후 아파트 건설 현황

아파트 건설	비고
· 근화희망타운3차(2000, 464세대)	· 2000 이마트 개장
· 우미블루빌(2001, 620세대)	· 2001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 제일1차(2001, 478세대)	· 2002 롯데마트 개장
· 종원나이스빌(2002, 351세대)	· 2003 농협유통센터(하나로마트) 개장
· 호반리전시빌(2002, 710세대)	· 2004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개관
· 제일2차하이빌(2002, 420세대)	· 2004 KTX 목포역 운행 개시
· 현대2차아이파크빌(2002, 351세대)	· 2005 전남도청 이전(무안군)
· 제일3차풍경채(2002, 354세대)	· 2005~2012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 광명사인빌1차(2002, 360세대)	· 2006~2016 대성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
· 대성사랑으로(2003, 365세대)	· 2007 목포문화관 개관(용해동)
· 우진아트빌(2003, 526세대)	· 2008 압해대교 개통
· 신안비치팔레스1차(2003, 802세대)	· 2008 홈플러스 개장
· 포미타운주공1(2004, 734세대)	· 2008~2018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촉진구역
· 포미타운주공2(2004, 980세대)	· 2009~2014 세라믹일반산단
· 근화네오빌2차(2004, 496세대)	· 2010 목포문화원 이전(구 호남은행 건물)
· 호반리전시빌스위트(2004, 732세대)	· 2011 법원, 검찰청 신축이전(옥암동)
· 포미타운주공3(2005, 475세대)	· 2012 목포대교 개통
· 근화블루빌3차(2006, 447세대)	· 2012~2016 대양일반산단
· 옥암푸르지오(2007, 550세대)	· 2012~2016 백련지구 도시개발사업
· 코아루(2007, 311세대)	· 2012~2016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옥암부영애시앙2차(2007, 678세대)	
· 석현금호어울림(2007, 476세대)	
· 신안인스빌(2007, 1,472세대)	
· 하당KD빌리앙뜨(2007, 386세대)	
· 옥암주공1차(2007, 708세대)	
· 옥암2휴먼시아(2008, 1,294세대)	
· 한라비발디(2008, 576세대)	
· 한국아델리움(2008, 576세대)	
· 골드클래스(2009, 462세대)	
· 모아엘가(2010, 518세대)	
· 우미파랜하이트(2013, 548세대)	
· 코아루천년가(2013, 316세대)	
· 포미타운H4단지(2013, 790세대)	
· 트윈스타(2014, 204세대)	
· 근화옥암베아체(2014, 831세대)	
· 용해골드디움5차(2014, 493세대)	
· 용해골드디움6차(2014, 325세대)	

이처럼 시가지 형성 방향은 원도심 개항장 부근에서 역전, 상동 및 하당지구로 이어지는 북동 방향 축과 남해지구, 북항지구, 하당지구, 연산지구와 같은 북서방향의 축이 형성되어 이들 양축이 X자축을 형성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X자축 형성 요인은 지형적 요인과 함께 중심시가지로부터의 매립에 의한 개발 가능지 조성, 도로망 계획 및 시가지 개발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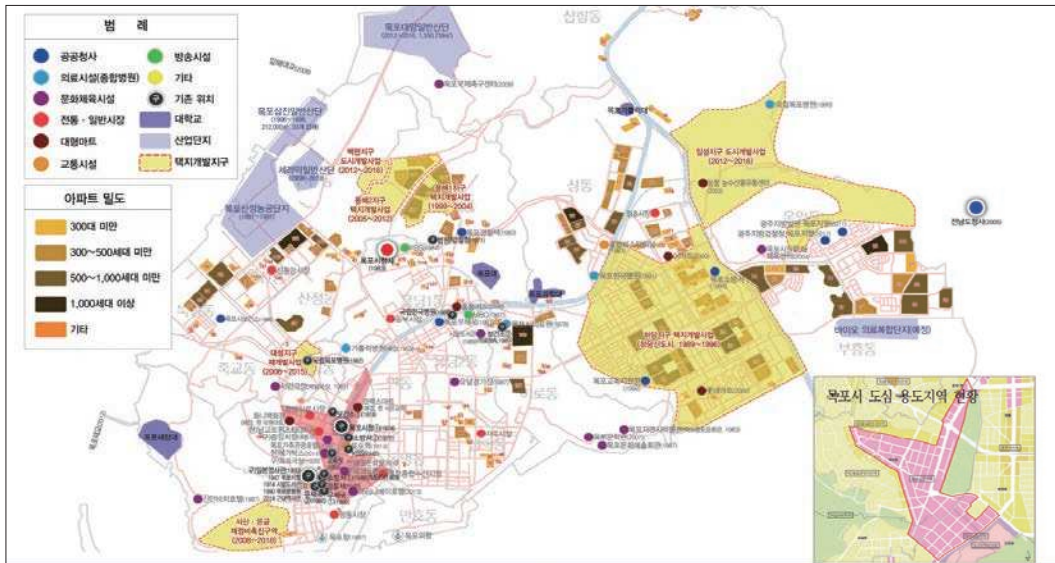


그림 13 목포시 도시 구조 및 개발 현황(2015년 기준)
출전: 박정은 외,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5, 109쪽

제4절 주거 환경과 생활권의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 목포의 주거 환경과 생활권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포의 생활권은 개항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구도심과 목포역전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후 인구 증가로 인해 주거 기능이 분산되고 택지의 조성과 함께 현재의 모습으로 확대되어 도시 전역에 분산 분포하게 된다. 이러한 택지 조성은 간척지에 조성되었으며, 이 공간에 주거 기능을 도입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지형적 이유와 사회적 이유로 거론할 수 있는데, 먼저 지형적 이유를 보면, 목포는 간척이 이루어지기 전 대부분의 지형이 산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고 굴곡이 심한 해안선을 끼고 있었으므로 중심 시가지에 밀집된 주거 기능이 분산될 배후지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매립지의 택지 개발이 실시되면서 주거지가 간척지에 자리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회

적 이유를 보면, 개항과 함께 무역항의 기능이 증대하자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광복과 함께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 급증은 주택 부족과 중심 시가지 인구 과밀화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척지 조성을 통한 택지 개발을 실시하였다. 최초로 간척을 통한 주거 기능을 형성한 지역이 바로 목포공동조계지역이며, 이후 목포역 부근, 산정동, 용당동, 죽교동, 남해개발지구(삼학도 부근), 북항, 하당지구 등이 차례로 간척지가 조성되면서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다음 <그림 14>는 개항 이후 생활 공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현재, 목포의 생활권은 크게 노후 지역, 중간 지역, 신항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³⁹⁾ 먼저, 노후 지역은 개항 후 일제강점기를 통해 형성된 목포공동조계 지역인 유달동 및 만호동과 당시 조선인 마을 형성을 통해 현재까지도 주거지로 남아있는 목원동을 들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유달산 부근에 위치한 지역들로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중간 지역은 용당동, 산정동, 삼학동, 이로동 같은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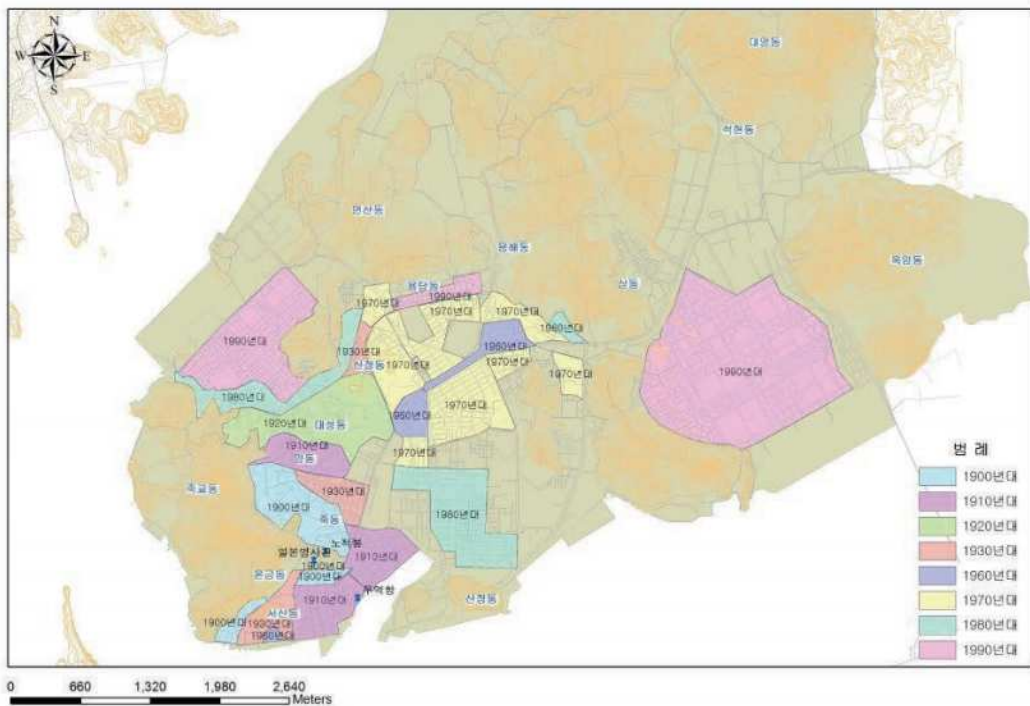


그림 14 시기별 주거 공간의 변화
출전: 김자경, 앞의 논문, 60쪽을 참조하여 보완함.

39) 김자경, 앞의 논문, 60~61쪽.

년대를 통해 택지 개발이 실시된 지역이다. 이 지역이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구도심과 목포역전 일대에 밀집되어 있던 기능들이 이 지역으로 인구가 더불어 이동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에 형성된 주거지 대부분은 간척을 통해 조성된 토지 위에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까지도 이 지역은 많은 상주인구가 있지만 신흥 택지 지구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약간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흥 지역은 하당, 용해, 북항, 옥암과 같은 1990년대 이후 주거 기능이 형성된 지역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고층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도 함께 형성된 복합 기능 지역이라는 것이다.

도시의 생활 공간은 지형적 조건,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지금까지 목포의 도시 공간은 외연적 확장을 통해 생활 공간을 조성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 용량의 한계로 더 이상 외연적 확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국토도시정책의 큰 틀에서도 도시의 외연적 확장(택지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부터 전국 13개 선도 지역과 33개 일반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새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명명한 정책을 통해 맥을 이어가며 정책의 포지션이 상향되었다. 이와 함께 1980년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이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을 지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의 폐지 이유로는 첫째, 공공 택지 공급 과다로 장래 여유 공급 물량 다량 발생, 둘째, 공공 택지 공급 과다로 인한 부작용 발생(사업성 부족 등으로 택지개발지구의 해제 또는 취소 증가), 셋째,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 시가지 외곽에 대규모 개발이 지양되고 있는데도 시대 흐름에 반하면서까지 지방 중소 도시에서 신도시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기존 시가지 주변에 저렴한 토지를 손쉽게 수용하여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 즉 높은 이윤율(profit rates)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자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행위자(actors)가 신도시 개발로 인구의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하기 때문이다. 즉, 산업단지 유치, 기업 유치, 국책사업 유치 등도 추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전략보다 택지 개발이 훨씬 수월하다는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와 함께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구 유치 전쟁을 단순히 택지 개발로 승부수를 띄우는 것은 무모한 시도이다. 이러한 택지 개발은 단지 원도심의 거주자들을 택지개발사업지로 유인하는 근시안적인 시책일 뿐이다. 원도심의 쇠퇴는 단기적으로 신 개발지와 경제적·생활적 불균형을 초래해 지역 사회 갈등 요인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원도심의 자생력을 상실시켜 지역 격차가 더욱 커지고, 급속한 공동화로 도시 전체의 발전이나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지방소멸’, ‘지방도시 살생부’ 등의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지방 중소도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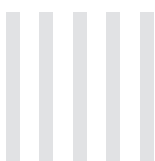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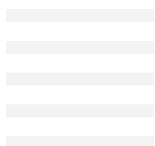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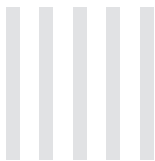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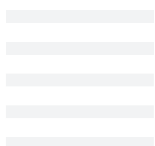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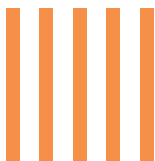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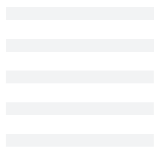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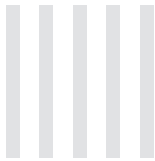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소멸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다. 차라리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신 지방 중소도시들은 도시심을 옹골차게 채워나가는 압축도시(compact city)와 도시재생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 목포의 도시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박성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3편

목포항의 역사와 해운항만



제1절 개항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김성준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제2절 해방부터 목포신항 건설 전까지(1945~2003)

김성준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제3절 목포신항 건설부터 현재까지(2004~2015)

김성준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제1장 목포항의 역사적 발달

목포항은 군산항 및 여수항과 더불어 호남의 3대 개항장의 하나로, 1897년 개항 이래 이 지역의 관문으로서 목포 근해에 산재하고 있는 도서민들의 생활 기지항으로 큰 역할을 해 온 항만이며, 오늘날에는 부산항과 함께 한반도와 제주도를 잇는 주요 교역항이기도 하다.⁰¹⁾ 목포항은 2016년 말 현재 국가 관리항 14개 항만 중 하나로서 국가가 건설 및 운영을 관장하는 항만이다. 국가 관리항에는 인천항, 경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등이 있다.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두시설은 181km, 접안능력 931척 인데, 목포항은 5.149km, 27개 선석으로 우리나라 전체 부두길이의 2.8%, 접안능력의 2.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항의 하역능력 113만 4958톤 중 목포항(목포해양수산청 관내)은 1만 3456만톤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항 전체의 취급 화물량 14억 6300만 톤 중 목포항(목포해양수산청 관내)은 2246만 7165톤을 처리하여 1.5%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⁰²⁾

제1절 개항에서 일제강점기까지

1897년 10월 1일 개항 당시, 목포는 무안군 목포진 주변을 의미했는데, 땅이 부족했고, 소택(沼澤)이나 개펄이 많았다. 따라서 목포에 거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변 공사를 통해 바닷물의 유입을 막고 갯벌을 매립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목포 개항 이전인 1895년 1월 5일과 11월 11일 목포 거류지 조성을 위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었지만, 해변 공사는 거류지 장정에서 정한 바에 따

01) 목포시, 『목포시사』 사회·산업편, 1990, 303쪽.

02) 해양수산부, 『항만업무편람 2016』, 10쪽, 355쪽;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www.spidc.go.kr).

라 대한제국 정부가 시공해야했다. 이에 따라 무안감리는 해벽축조에 생소하여 이를 목포 주재 일본 영사 히사미즈 사부로[久水三郎]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일본영사는 1898년 6월에 해벽 공사의 설계 및 공사비 등을 견적 요청한 바, 8~9년을 견딜만한 목책구조로 공사할 경우 공사비 약 5만 원, 연간 수선비 수백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되었다. 무안감리는 이 안을 중앙 정부에 보고한 결과 조정에서는 ‘설계안은 적당하나 공사비의 출현이 어려워 첫째, 공사비 총액을 8만 원으로 수정하고, 둘째, 금리는 1할 5푼 이하로 하며, 셋째, 목포해관의 수입을 담보로 한다’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일본 정부에 빌려줄 것을 목포주재 일본 영사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 측은 대한제국의 총세무사로 있던 브라운(J. M. Brown)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공사비는 해관 터에 속하는 것을 포함한 일본금화 9만 5천 원을 해관의 보관금에서 지출하고,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목포의 각국 거류지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5년간 수선비는 거류지회가 부담하기로 1899년 2월 7일 외부교섭국장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⁰³⁾ 이에 거류지회는 대판목곡상점(大坂木谷商店)의 키타니 이스케[木谷伊助]와 1899년 4월 25일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대략 1899년 6월 11일 세관 부지에서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공사 기간은 대체로 1년여를 예상하였다. 그러나 공사 중이던 1899년 9월 30일 목포진 앞(옛 조선면업회사 부근)의 해벽 약 50칸(90m)이 붕괴되기도 하였지만, 1901년 4·5월경에 간신히 완공되었다. 최초로 완공된 목포의 해벽은 목포역에서 남서쪽으로 약 1천 칸(1.8km)이었는데, 이 가운데 항만시설은 물양장 4개소, 호안 1개소, 잔교 2기 등이었다.⁰⁴⁾ 그러나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29일 해벽 일부가 붕괴되었으나 그대로 방치되다가 1909년 5월에 세 번째 수축을 완료함으로써 거류지 해벽이 안정화되었다.⁰⁵⁾

목포항의 개축은 호남선 철도의 개통에 따라 철도와 항만을 연결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이루어졌다. 호남선 철도 건설이 결정된 뒤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목포상업회의소는 1912년 10월 13일 총독 부에 목포의 항만 수축에 관하여 첫째, 시가와 맞은편 삼학도 사이의 갯벌을 준설하여 임항철도와 연결시켜 줄 것, 둘째, 목포시가 남해안에 1천톤~1천 5백톤 내외의 기선이 닿을 수 있는 잔교를 설치할 것, 셋째, 고하도 부근의 얕은 여울을 제거해줄 것 등의 청원을 제출하였다.⁰⁶⁾

1914년 1월 대전-목포 간 호남선이 개통되고 목포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차츰 커져감에 따라 1915년 이래 항내 준설을 실시하여 묘지의 수심을 15척(약 4.6m)으로 준설하고 항심을 유지하고자

03) 김정섭 옮김, 『국역 목포지』(1914), 목포문화원, 1991, 208~211쪽.

04) 김정섭 옮김, 『완역 목포부사』(1930), 목포문화원, 2011, 690쪽.

05) 김정섭 옮김, 앞의 책(1914), 214쪽;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69~170쪽.

06) 김정섭 옮김, 앞의 책(1914), 216~217쪽.

하였다. 1926년 4월에는 일본 의회의 협찬으로 공사비 60만 원으로 5개년 사업으로 항만 수축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공사 결과 해안동 2가 지선에 면적 1,400㎡를 매립하여 연장 100m의 호안을 축조하여 3000톤급 기선 부두 1기를 마련하였고, 항동 6번지 지선에 100톤급 기선이 계류할 수 있는 부잔교 2기를 설치하였다. 또한 연안선들이 이용하는 항동과 임항철도의 종단 지선인 광동에 부선 계류용 소잔교 2기를 1929년 2월에 준공하였다.⁰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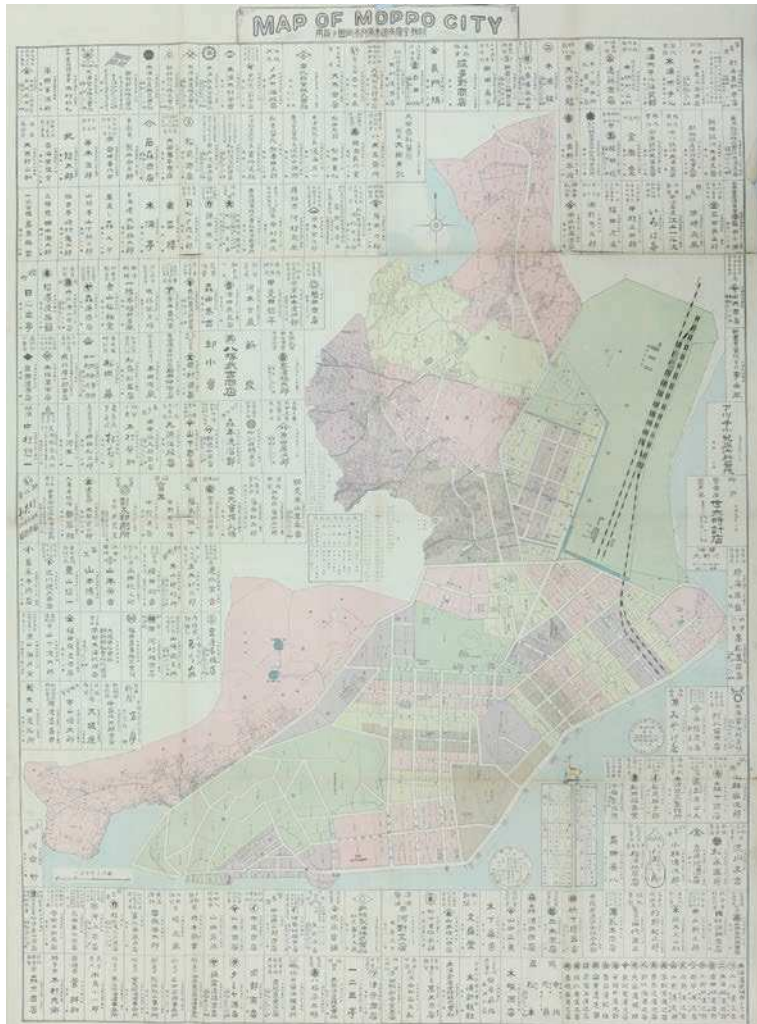


그림 1 1921년 당시 목포시와 목포항 전경
 자료: 1921년 「목포항세일람표 (木浦港勢一覽表)」(국립해양박물관 소장).

07) 김정섭 옮김, 앞의 책(1930), 690~691쪽.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목포항의 선박 계류 시설은 고정식 잔교 3기와 부잔교 4기, 도선용 잔교 2기 등이 전부였다. 이 중 도선용 잔교 2기는 목포부가 관할하였고, 나머지 잔교 3기와 부잔교 4기는 총독부가 직접 관할하였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물양장은 부두 6개소와 물양장 4곳 등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온금동의 물양장 2개소가 각각 길이 108×너비 5.4m, 108×3.6m로 규모가 가장 컸다. 온금동 물양장 3개소는 전라남도가 관할하였고, 제1호 물양장과 부두 6개소는 모두 총독부가 관할하였다.

표 1 1930년 목포항 계류 시설 현황

잔교 명칭	길이(m)	너비(m)	수심(m)**	경영자
세관 제1잔교	27.3	5.5	1.8	총독부
세관 제2잔교	28.2	9.1	1.8	총독부
세관 제3잔교	26.7	4.5	3.0	총독부
갑종 부잔교	81.5	12.9	9.0	총독부
을종 부잔교*	55.5	12.9	5.4	총독부
병종 부잔교*(2기)	16.0	7.3	5.0	총독부
도선용 잔교	14.1	도교 1.3 고정 2.3	1.8	목포부
도선용 잔교	9.4	1.6	1.2	목포부

주: *1930년 당시 공사 중, **책을 미터로 확산함
출전: 김정섭 옮김, 『완역 목포부사』(1930), 2011, 693쪽.

표 2 1930년 목포항의 물양장 시설 현황

명칭	연장	너비	경영자
온금동 물양장	108m	5.4m	전남
온금동 물양장	108m	3.6m	전남
온금동 물양장	49m	3.6m	전남
제1호 물양장	32m	10.5m	총독부
제1호 부두	31.6m	7.5m	총독부
제3호 부두	28.6m	15m	총독부
제4호 부두	15.0m	15m	총독부
제5호 부두	18m	15m	총독부
제6호 부두	15.3m	20m	총독부
제7호 부두	8.4m	10.5m	총독부

출전: 김정섭 옮김, 『완역 목포부사』(1930), 2011, 694쪽.

1930년 당시 목포항의 하역 시설은 기계화된 하역 장비는 없었고, 순전히 인력에 의존하였다. 당시 목포항의 하역 노동자는 육상에 일본인 31인과 한국인 72인 등 총 103인과 해상에 일본인 31인과 한국인 146인 등 177인이 하역을 전담하였다. 이들의 하역 노동자 1인의 하역 능력은 잡화 7톤, 곡물, 석탄, 면화 등의 화물은 10톤이었다. 당시 목포항에는 부선이 37척, 1295톤이 있어서 안벽이나 물양장에 계류하지 않고 해상의 부선에서도 하역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1930년 당시 목포항에는 일본인 도선사 1명이 도선 업무를 전담하였다.

표 3 1930년 목포항의 하역 능력 및 도선사 현황

구분		인원	1인 1일 임금	1인 1일 하역 능력
하역 노동자	육상	일본인 31인 한국인 72인	1원 80전 90전	곡물, 석탄, 면화 각 10톤 잡화 7톤
	해상	일본인 31인 한국인 146인	2원 1원	
부선		37척, 1,295톤		
예선		4척(13.2마력, 10.1마력, 5.1마력), 16톤		
도선사		1인		

출전: 김정섭 옮김, 『완역 목포부사』(1930), 2011, 697쪽.

제2절 해방부터 목포신항 건설 전까지(1945~2003)

해방 당시 목포항은 약 30만톤의 하역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산되지만, 6·25전쟁으로 항만시설이 파괴되어 전쟁 직후에는 15만톤으로 떨어졌다. 목포항이 해방 직후의 하역 능력을 되찾게 된 것은 1961년으로, 이 해에 32만톤의 하역 능력과 3척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교통부의 『해운십년약사』에 따르면, 1952년 5월 기준 목포해사국 관할 시설 현황은 관리 수역 340만㎡, 급수전 1기, 창고 2동 750㎡, 헛간 1동 460㎡, 기중기(고정) 1기×5톤, 잔교 3, 행정용선박 1척 등이다.⁰⁸⁾ 이를 1930년의 시설과 비교해보면, 관리 수역만 5.4배(63만㎡→340만㎡) 증가하고 고정식 기중기가 새로 설치되었을 뿐, 잔교와 창고, 헛간 등의 시설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08) 교통부 해운국, 『해운십년약사』, 1955, 294쪽.

표 4 목포항의 하역 능력 및 접안 능력 추이, 1945~1961년

연도	하역능력(톤)	접안능력(척)
1945	300,000	-
6·25 전쟁 직후	150,000	-
1961	320,000	3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2004』, 2004. 401쪽.

목포항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본격화된 1962년까지는 이렇다 할 발전이 없었는데, 6·25전쟁이 끝난 1953년 기존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공사 착수, 1955년 삼학도 석탄물량장 축조 공사 착공, 1957년 삼학도 안벽공사 착공 등이 전부였다.⁰⁹⁾ 목포항이 항만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이었는데, 1965년에 삼학도 연륙 공사와 1969년 삼학도 안벽 공사가 완공되었다. 특히 3차 5개년경제개발 기간 동안에는 잔교 100m, 북항물양장 60m, 기타 물양장, 준설 등이 이루어져 1, 2차 경제개발 기간에 비해 예산과 사업이 증가되어 목포항의 항만 시설이 개선되었다. 4~5차(1977~1985)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특기할만한 것은 1980년 목포항 석탄부두(3만톤급, 250m)가 착공되어 1983년 12월 29일 준공한 일이었다.¹⁰⁾ 시설면에서는 1977~79년 기간에 물양장 128m, 안벽 45m, 준설 19만 3000㎡가 이루어졌고, 1978년에 카페리 부두 150m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984년에는 하부 안벽축조 17.5m(2만톤급), 물양장 축조 25m, 호안축조 51m, 하역기계 1식 설치, 야적장 포장 4건 등이 이루어졌다.¹¹⁾ 이와 같은 항만 시설의 확충으로 1984년 말 현재 목포항의 시설은 안벽 568m, 3만톤급 1척, 1만톤급 1척, 4천톤급 1척, 1천톤급 1척 등 총 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물양장은 725m로 100~500톤급 선박 11 척이 동시에 하역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역 장비는 30~50톤급 기중기 5대, 10톤급 지게차 5대, 페이로더(payloader) 8대를 갖추게 되었다.

표 5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목포항의 시설 확충, 1962~1976년

항목	1차(1962~1966)	2차(1967~1971)	3차(1972~1976)
사업비	2억 170만 원	4억 7300만 원	6억 330만 원
안벽	축조 84m 상부 84m	잔교 확폭 2개소	잔교 확폭 100m

09) 목포시, 앞의 책, 318쪽.

10) 해운항만청사 편찬위원회, 『해운항만청사』, 1997, 283~284쪽.

11) 목포시, 앞의 책, 326쪽.

항목	1차(1962~1966)	2차(1967~1971)	3차(1972~1976)
물양장	석탄물양장 1식	북항물양장 중부 53m	북항물 양장 축소 60m 상부 54m 포장 1식 물양장 133m
잔교		선박신조(병중잔교) 1척	
도로		안벽진입로 포장 1,000m 측구 도로정비 330m	
준설	33만 4000㎡	184만 1000㎡	19만 4000㎡
기타	1식		

출전: 1962~1966년 - 해운항만청, 『한국해운항만사』, 1980. 843쪽,
1967~1976년 - 해운항만청, 『항만건설사』, 1978. 564~565쪽, 602쪽; 목포시, 『목포시사』사회·산업편, 1990. 322~323쪽.

표 6 1984년 말 목포항의 시설 및 하역 장비 현황

구분	구분	규격	능력
항만 시설	부두(안벽)	568m	4척(3만톤, 1만톤, 4천톤, 1천톤)
	물양장	725m	11척(100~500톤급)
	잔교	97기	26척(500톤급 이하)
	요박지	7개소	7척(5천톤~3만톤급)
	아적지	2만 550㎡	6만 7천톤 적치
하역 장비	가중기	5대(30~50톤)	
	지게차	5대x10톤	
	페이로더	8대x3톤	
	도저	3대x3톤	
	예선	8척(40~1100HP)	
	부선	25척(100톤)	

출전: 목포시, 앞의 책, 1990. 324쪽.

이에 따라 목포항의 접안 능력과 하역 능력도 조금씩 향상되었다. 1962년 3척, 32만톤의 하역 능력을 갖추었던 목포항은 1971년 3척, 44만톤, 1978년 3척, 51만톤, 1982년 3척, 100만톤, 1985년 5척, 132만톤의 하역 능력을 각각 갖추게 되었다. 1961년부터 1985년까지 목포항의 발전 추세를 보면 동시 접안능력은 3~5척으로 1.6배 성장한 데 반해, 하역 능력은 동기간 동안 32만톤에서 132만톤으로 4.1배 급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항만 시설 개량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하역 능력은 기중기나 크레인 등의 하역 장비를 확충하는 것만으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항만 시설의 진전이 더뎠기 때문에 항만 하역 업체 수도 큰 변화가 없었다. 1966년 4개사였던 목포항의 하역업체 수는 1978년 7개사, 1981년 8개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표 7 목포항의 접안 능력과 하역 능력, 1961~1985년

구분	1961	1971	1978	1982	1985
접안 능력	3척	3척	3척	3척	5척
하역 능력	32만톤	44만 3천톤	51만 5천톤	100만톤	132만톤

출전: 1961~1982년 - 해운항만청, 『한국해운항만사』, 1980, 898쪽.
1985년 - 해운항만청사편찬위원회, 『해운항만청사』, 1997, 285쪽.

표 8 항만 하역 업체 추이, 1966~1985년

	1966	1971	1976	1978	1979	1981	1983	1985	일반	한정
부산	20	27	29	33	20	17	17	17	13	4
인천	13	13	16	15	15	15	16	15	10	5
울산	5	7	9	9	9	9	9	17	7	8
목포	4	6	6	7	7	8	8	8	3	5
전체	63	92	103	116	103	101	107	116	72	44

출전: 해운항만청사 편찬위원회, 『해운항만청사』, 1997, 379쪽.
자료: 한국항만운송협회 자체 집계.

1980년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목포항의 항세를 살펴보면, 총화물량은 1981년 104만톤에서 1991년 245만톤, 1995년 368만톤, 1996년 446만톤으로 15년 동안 4.2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화물량 증가 추세에 맞추어 항만 시설 소요도 1981년 91만톤, 1986년 131만톤, 1994년 203만톤, 1995년 313만톤, 1996년 401만톤으로 15년 동안 4.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역 능력은 1981년 100만톤, 1991년 201만톤, 1996년 322만톤으로 같은 기간 동안 3.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시설 소요 대비 하역 능력 비율인 시설 확보율은 1981년 109%에서 1986년 100%, 1991년 94%, 1995년 80.8%, 1996년 80.4%로 하락하였다. 이는 항만 하역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반증이었다.

목포항의 접안 능력과 하역 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였다. 1981년부터 1993년까지 목포항의 접안 능력은 4~5척에서 정체되어 있었으나, 1994년 5천톤급 1선석과 1천톤급 2선석이 신설되어 총 7척으로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다시 4천톤급 1선석과 2천톤급 2선석이 신설되어 9개 선석으로 증가한 데 이어 1996년에는 2만톤급 1선석과 1만톤급 1선석이 신설되어 모두 11선석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선석 증가에 힘입어 하역 능력은 1981~1993년 100만~201만톤에서 오르내렸으나, 1994년 209만톤, 1995년 253만톤, 1996년 322만톤으로 개선되었다.

표 9 목포항의 항세, 1981~1996년

(단위: 1,000톤)

	1981	1986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총화물량	1040	1531	2450	2110	1936	2403	3681	4462
시설 소요	914	1319	2137	1772	1653	2034	3137	4012
하역 능력	1000	1320	2016	1791	1742	2099	2536	3226
시설 확보율(%)	109.4	100.0	94.3	101.0	98.3	103.1	80.8	80.4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1997』, 1997, 24쪽.

표 10 목포항의 접안 능력과 하역 능력, 1981~1996년

(단위: 1,000톤)

	1981	1986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4	5	4	4	4	7	9	11
접안 능력	1만×1	3만×1	3만×2	3만×2	3만×2	3만×2	3만×2	3만×2
	4천×1	만×1	1만×1	1만×1	1만×1	1만×1	2만×1	2만×2
	1천×2	4천×1	4천×1	4천×1	4천×1	5천×1	1만×1	1만×2
		1천×2	4천×1	4천×1	4천×1	4천×1	5천×1	5천×1
						1천×2	4천×2	4천×2
							2천×2	2천×2
하역능력	1000	1320	2016	1791	1742	2099	2536	3226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1997』, 1997, 24쪽.

표 11 1996년 말 목포항의 항만 현황

안벽	물양장	고정 잔교	부잔교	호안
2196m	3020m	3기	10기	4325m
부두	연장(m)	전면 수심	접안 선박	하역 장비
원목부두	168	-9.5	1만톤급 1척	
석탄부두	250	-12.0	3만톤급 1척	LLC(400T/H) 1기
양곡부두	240	-12.0	3만톤급 1척	쉽언로더(100T/H) 1기
여객부두	557	-6.5~-8.0	1만톤 1척, 4천톤 1척	
대불부두	630	-12.0	2만톤급 2척	
외항부두	135.2	-7.5	5천톤급 1척	
내항안벽	180	-5.55	2천톤급 2척	
물 양 장	3,020	-1.5~-4.5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1997』, 25쪽.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목포항의 선박 입출항 추이를 살펴보면, 연안선의 경우 1981년 입항 9091척, 출항 8724척 등 1만 7815척이던 입출항 선박 수는 1991년 입항 1만 2291척, 출항 1만 2283척 등 2만 4574척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입항 3318척, 출항 3245척 등 6563척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1996년에 입항 5321척, 출항 5252척

등 1만 573척으로 약간 회복되었다. 외항선은 1993년에 입항 617척, 출항 615척 등 1232척이 입출항하여 1일 평균 3.3척이 입출항하여 최고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1981년 입항 115척, 출항 128척 등 243척의 외항선이 입출항한 것을 기점으로 1992년 입항 182척, 출항 188척 등 370척, 1996년 입항 393척, 출항 402척 등 795척의 외항선이 각각 입출항하였다.

표 12 목포항의 선박 및 화물 입출항 현황, 1981~1996년

		입항 척수	출항 척수	입하량(천톤)	출하량(천톤)
연안선	1981	9091	8724	520.4	118.1
	1986	9395	9478	660.2	122.2
	1991	12291	12283	1402.0	185.7
	1992	9377	9394	1115.0	166.5
	1993	3318	3245	1074.0	80.2
	1994	4104	4051	1487.0	100.9
	1995	5542	5513	2507.9	126.8
	1996	5321	5252	2832.5	206.9
외항선	1981	115	128	390.6	10.9
	1986	152	151	729.0	20.0
	1991	166	162	839.4	23.7
	1992	181	188	789.5	29.5
	1993	617	615	732.1	48.9
	1994	281	275	779.0	36.7
	1995	396	401	997.1	48.7
	1996	393	402	1344.5	78.1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1997」, 24쪽.

목포항의 선박 및 화물 입출항 추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5~1996년 사이에 연안선과 외항선, 그리고 입출하 화물량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항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목포항의 항만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7년 77억 9천만 원에 불과했던 목포항의 투자비는 1998년 376억 9천만 원, 1999년 483억 3천만 원, 2000년 237억 9천만 원, 2001년 455억 1천만 원, 2002년 371억 9천만 원, 2003년 373억 6천만 원 등이 각각 투자되었다. 이러한 항만 개발 투자비의 증가에 따라 1999년까지 접안 능력 3척, 하역 능력 627만톤에 머물렀던 항만 시설은 2000년 접안 능력이 17척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2년에는 접안 능력 18척, 하역 능력 701만톤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접안 능력 21척, 하역 능력 904만톤으로 5년 사이에 하역 능

력이 1.4배 증가하였다.

비록 완만하기는 하지만, 항만 시설의 증가에 힘입어 목포항에서 창출되는 항만 관련 세입도 조금 씩 증가하였다. 접안료, 정박료, 선박 입항료, 터미널 이용료, 화물 장치료 등 항만 관련 수입은 1996년 15억 원에서 2000년 16억 원, 2002년 20억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목포항의 항만 수입이 전체 항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밑돌았다. 2003년 말 현재 목포항은 외항에 4선석, 내항에 4개 부두, 북항에 5개 물양장을 갖추고 있었다.

표 13 목포항의 투자 내역, 1997~2003년

(단위: 백만 원)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투자액	7791.8	396억 90.1	483억 31.1	237억 96.2	455억 15.6	371억 97.0	373억 68.4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2004』, 439쪽.

표 14 목포항의 하역 능력 및 접안 능력, 1998~2003년

연도	하역 능력(톤)	접안 능력(척)
1998	627만 1000	13
1999	627만 1000	13
2000	627만 1000	17
2001	701만 1000	18
2002	701만 1000	18
2003	904만 3000	21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2004』, 403쪽.

표 15 목포항의 항만 수입, 1996~2003년

(단위: 천 원)

연도	전체 항만	목포항	점유비(%)
1996	1925억 5266만 4	15억 9394만 8	0.8
1997	2097억 1425만 5	17억 533만	0.8
1998	1719억 8562만 9	12억 9074만	0.8
1999	1848억 436만 9	14억 6635만 2	0.8
2000	1873억 6360만 9	16억 5101만 2	0.9
2001	1991억 2391만 6	17억 3879만 9	0.9
2002	2104억 8023만 8	20억 250만	1.0
2003	2163억 3647만 7	19억 2846만 8	0.9

주: 접안료, 정박료, 화물 관련 사용료, 선박 입항료, 터미널 이용료, 화물 장치료, 수역 이용료, 일반부두 임대료, 개발부두 임대료, 부지 및 건물 전용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포함.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2004』, 351~379쪽.

표 16 2003년 말 목포항의 항만 현황

안벽		물양장	고정 잔교		부잔교	호안
3690m		3330m	20기			6586m
부두	연장(m)	화물	전면 수심	접안선박	하역장비	
외항	1부두	168	잡화	-9.5m	4000x1	LLC(400T/H) 1기 쉽언로더(150T/H) 1기
		250	석탄	-12.0m	3만t0000x1	
		240	양곡	-12.0m	3만 0000x1	
		135	수산물	-7.5m	5000x1	
내항	2부두	180	모래	-5.5	2000x2	
		1,508	양곡 잡화	-3.0~-5.5	100~700GTx29	
	3부두	잔교2기	관공선	-3.0	300톤이하	
	4부두	328.4	여객	-3.0	500GT	
		211	카페리	-6.5	1만t0000GT	
		140	카페리	-6.5	4000GT	
	5부두	473	어획물	-0.5~-4.5	100GT이하	
북항	1물양장	270	어획물	-4.0	20GTx12	
	2물양장	258	어획물	-4.0	20GTx11	
	3물양장	106	차도선	-4.0	100 GTx6	
	4물양장	100	어획물	-4.0	20GTx4	
	5물양장	18	차도선	-4.0	100GTx1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2004」, 61쪽.

제3절 목포신항 건설부터 현재까지(2004~2015)

199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어 도로 정체, 항만 정체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자를 유치하여 항만, 철도,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개발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4년 8월 3일)을 제정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1996년 목포항의 시설 확보율이 시설 소요의 80%대에 머물러 체선체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한 민자유치 대상 사업 중의 하나로 목포신외항 1-1단계 사업이 선정되었다. 사업 시행자는 한라건설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룬 목포신항만주식회사였다. 총 투자비 1,013억 원 중 민간 자본 238억 원과 정부 재정 431억 원, 타인 자본 345억 원을 투자하여 고하도 전면의 해수면을 매립하여 안벽 2선석을 건설하여 3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신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1996년 4월 17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목포신항만주식회사는 1997년 7월 18일 1차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1998년 12월 민간투자법의 전면 개정 에 따라 목포신항만주식회사는 1999년 4월 10일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데 정부와 합의하고 2000년 12월 19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리하여 목포신항만주식회사는 2001년 1월 30일 공사에 착공하여 2004년 6월 1일 목포신항만을 개장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1-1단계 신외항 건설사업이 착공된 직후인 2001년 2월 27일 정부에서 민간 제안 사업 제3자 제안 요청 공고가 남에 따라 한라건설은 같은 해 5월 2일 1-1단계 안벽에 240m의 안벽 1선석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라건설은 2001년 12월 4일 제2목포신항만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2월 28일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제2목포신항만주식회사는 2002년 2월 14일 목포신외항 1-2단계 공사에 들어가 1-1단계 건설에 맞추어 2004년 5월 29일 준공하여 6월 1일부터 터미널을 개장하였다. 한 동안 2개 선석과 1개 선석을 분리하여 운영해 왔던 목포신외항은 2009년 2월 목포신항만주식회사와 제2목포신항만주식회사가 목포신항만운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17 목포 신외항 건설사업 개요

사업명(운영사)	주공사 및 투자사	사업기간 (완공/ 운영)	사업규모	사업비(투자비)
목포신외항 1-1단계[목포신항만(주)]	한라건설 80% 대우건설 20%	1995~2004 (5.29/ 6.1)	3만톤급 안벽 2선석	843억원 (1013억원)
목포신외항 1-2단계[제2목포신항만(주)]	한라건설 100%	2001~2004 (5.29/ 6.1)	3만톤급 안벽 1선석	226억원 (266억원)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2004』, 416쪽~418쪽.

표 18 목포신외항 자원 조달 및 투자 수익률

구분	목포신외항 1-1단계	목포신외항 1-2단계
총투자비	1013억원(100%)	266억원(100%)
자기자본	238억원(23.5%)	60억원(22.6%)
정부재정	431억원(42.5%)	116억원(43.6%)
타인자본	345억원(34.0%)	90억원(33.8%)
최소운영수입보장	20년간 90%	20년간 80%
투자수익률	15.10%(9.62%)	14.0%(8.57%)
산정시점	2000. 01. 01.	2001. 01. 01.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2004』, 420쪽.

표 19 민간 투자 항만 최소 운영수입 보장 현황 (경상가 기준)

사업기간	총투자비	협약 변경 내용
목포신외항 (1-1단계)	2004.6 (50년)	1,013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0년간 0~90% · 변경: 20년간 50~90%, 79.43%, 77.43% · 초기 4.5년: 50~90% · 다음 8.0년: 50~79.43% · 다음 7.5년: 50~77.43%
		*09년 1월 이후 협약수입 50% 미달분 보장 제외(간주사용료 폐지, 자금재조달 반영: 09.6

	사업기간	총투자비	협약 변경 내용
목포신외항 (1~2단계)	2004.10 (50년)	266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0년간 0~80% · 변경: 20년간 50~80%, 79.43%, 77.43% · 초기 4.5년: 50~80% · 다음 8.0년: 50~79.43% · 다음 7.5년: 50~77.43% <p>*09년 1월 이후 협약수입 50% 미달분 보장 제외(간주사용료 폐지, 자금재조달 반영: 09.6</p>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업무편람 2016』, 294쪽.



그림 2 목포신항만

자료: 목포해양수산청(<http://www.mokpoport.com/>, 2016. 12. 9.).

목포신항이 개장한 2004년 당시 목포항의 수요 전망을 살펴보면, 총 물동량은 2006년 1568만 톤, 2011년 2462만톤, 2020년 3718만톤으로 점증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따라 시설 소요 또한 2006년 1437만톤, 2011년 2188만톤, 2020년 3297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하역 능력은 2006년 1753만톤, 2011년 2666만톤, 2020년 3502만톤으로 전망되어 시설 확보율은 2006년 122%에서 2020년 106%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시설 소요 전망에 따라 목포항은 2011년까지 내항과 북항, 용당지구 등의 항만 시설의 신축, 개축, 시설 보완 등을 실시하였다.

표 20 2004년 시점 목포항의 수요 전망, 2006~2020년

(단위: 천톤)

구분	2006	2011	2020
총물동량	1568만 2	2462만 2	3718만 7
시설소요	1437만 2	2188만 2	3297만 7
하역능력	1753만 1	2666만 7	3502만 8
시설확보율(%)	122.0	121.9	106.2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2004』, 530쪽.

표 21 목포항의 사업별 투자 내역, 1983~2011년

(단위: 백만 원)

	총사업비	2008까지	2009	2010	잔래
내항 (1983~2007)	안벽(933m)	752억 17	752억 17	-	-
	호안(300m)	102억	102억	-	-
	시설물 보강(5.8km)	223억 27	223억 27	-	-
	여객터미널	355억 50	355억 50	-	-
	설계비 등	56억 69	56억 69	-	-
	합계	1489억 63	1489억 63		
북항 (1984~2012)	물양장(2074m)	854억 32	853억 86	-	46
	소형어선 물양장(500m)	258억 7	191억	30억 59	36억 45
	호안(968m)	29억 97	29억 97	-	0
	대반동 가호안(1793m)	363억 45	354억 89	-	8억 56
	해경어업지도선부두	288억 99	140억 19	70억	28억 80
	임항도로(1675m)	111억 91	80억	-	31억 91
	보상비	160억 31	90억	69억 40	91
	설계비 등	124억 91	99억 31	10억 25	-3억 25
	합계	2191억 93	1839억 22	110억 84	103억 87
남항 용당 지구 (1997~2008)	남항호안(1679m)	244억 34	244억 34	-	-
	용당 물양장(150m)	114억 7	114억 7	-	-
	용당연안화물부두(560m)	177억 94	177억 94	-	-
	용당진입도로	15억	15억	-	-
	항만관련 부지조성	130억 45	-	-	130억 45
	보상비	30억	20억	-	10억
	설계비	46억 9	11억 60	50	33억 49
	합계	757억 89	582억 95	50	173억 94
유지보수			78억 30	65억 95	

출전: 국토해양부, 『항만업무편람 2010』, 77~78쪽.

이와 같은 시설 신개축에 힘입어 2009년 목포항의 항만 시설은 안벽 4,591m, 돌핀 3기, 잔교 2기, 물양장 4,730m, 야적장 40만 1000㎡의 시설로 28선석에 연간 1333만톤의 하역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목포항의 28개 선석은 3만톤급 2개, 2만톤급 4개, 1만톤급 7개, 6천톤급 2개, 5천톤급 1개, 4천톤급 2개, 3천톤급 3개, 2천톤급 2개 등이다.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목포항의 시설 확보율은 2007~2009년 사이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목포항의 개발 목표를 2011년까지 최대 3만톤급 선석을 포함하여 총 33개 선석을 확보하여 연간 1902만톤의 하역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설정하고,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총 5033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¹²⁾

표 22 2009년 목포항의 항만 시설 현황

접안 및 하역 능력	선석	28(24)
	톤/년	1333만 4000
항만 시설	안벽(m)	4591
	방파제(m)	-
	돌핀(기)	3
	잔교(부잔교)	2(26)
	물양장(m)	4730
	상옥(동)	-
	창고(동)	-
	야적장(㎡)	40만 1000

주: () 안은 시설 소요임.

출전: 국토해양부, 『항만업무편람 2010』, 10쪽.

표 23 2009년 말 현재 목포항의 현황

시설 현황	안벽		물양장		접안 능력(28선석)	
	4,591m		4,730m		3만톤 2, 2만톤 4, 1만톤 7, 6천톤 2, 5천톤 1, 4천톤 2, 3천톤 3, 2천톤 2	
물동량(천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총화물량	7594	8979	1만4203	1만4509	1만5056	1만6678
시설 소요	6636	8045	1만3285	1만3657	1만4168	1만5478
하역 능력	7205	1만2675	1만2675	1만3334	1만3334	1만9018
시설 확보율	108.6%	157.6%	95.4%	97.6%	94.1%	122.9%

출전: 국토해양부, 『항만업무편람 2010』, 77쪽.

12) 국토해양부, 『항만업무편람 2010』, 77쪽.

표 24 목포항 개발 예산 투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 기간	2008년까지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목포 신항	1993~2011	2588만 76	115만 53	160만 00
목포항	1983~2011	4223만 68	191만 95	226만 00

출전: 국토해양부, 『항만업무편람 2010』, 53~54쪽.

해양수산부가 편찬한 『항만업무편람 2014』에 따르면, 2014년 당시 목포항의 시설은 안벽 4,909m, 물양장 4,124m로 총 24개 선석을 갖추었다. 이를 2009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 선석 수는 28개에서 4개 선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감소는 선석의 대형화에 따른 것이다. 2009년 당시 3만톤급 2개 선석이던 것이 2014년에는 3만톤급 7선석으로 증가하여 3만톤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이 5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석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목포항의 시설 확보율은 여전히 100%를 밑돌았다. 2014년과 2016년 해양수산부의 『항만업무편람』에 따르면, 목포항의 시설 확보율은 2009년 94.1%, 2010년 86.1%, 2011년 92.2%, 2012년 97.9%, 2013년 81.3%, 2014년 66.4%, 2015년 96.8%였다. 특히 2014년에는 66.4%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러한 항만 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목포 신항에 신항자동차부두를 2015년 4월에 준공한 데 이어, 2015년 12월에는 신항석탄부두건설사업을 착공하였다.

표 25 목포항의 현황(2014)

구분	규격	접안 능력
항만 시설	부두(안벽)	4909m 24선석 3만톤급×7척, 2만톤급×4척, 1만톤급×8척, 6천톤×2척, 5천톤×1척, 4천톤×1척, 3천톤×1척
	물양장	4124m
	수면적	4293만㎡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업무편람 2014』, 74쪽.

표 26 목포항의 물동량 시설 수요, 2009~2015년

(단위: 천톤,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화물량	1505만 6	1638만 9	1781만 9	1886만 9	2016만 3	2299만 7	2246만 7
시설 소요	1416만 8	1547만 9	1693만 6	1594만 8	1920만 5	2205만 3	1433만 5
하역 능력	1333만 4	1333만 4	1562만 0	1562만 0	1562만 0	1464만 0	1387만 6
시설 확보율	94.1	86.1	92.2	97.9	81.3	66.4	96.8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업무편람 2014』, 74쪽; 2016, 61쪽.

표 27 목포 신항 개발사업 투자비 현황

사업 내역	선석 수 (계획/ 실적)	하역 능력(계획)		총 사업비 (재정/ 민자)	투자 실적(민자포함)		사업 기간	비고
		전체 (만톤)	컨테이너 (TEU)		2014까지 (민자)	2015예산 (민자)		
안벽 2.05km 도로 5.67km 호안 0.44km 부지조성 239만 1천 m ²	9(컨2)/ 7(컨2, 일반 5)	1,400	24만	83억 6천만 원 (60억 7600만 원/ 22억 8400만 원)	57억 2400만 원 (13억 300만 원)	1억 4700만 원 (-)	1993 ~2020	· 양곡부두 1선석 준공(2003년 12월) · 다목적부두 3선석 준공(2004년 5월) · 신항자동차부두준공(2015년 4월) · 신항석탄부두 착공(2015년 12월)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업무편람 2016』, 273쪽.

표 28 주요 항만 부분 예산

(단위: 백만 원)

항만	2013	2014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률
목포	292만 63	240만 39	2403만 80	277만 86	37만 48	15.6
목포신항	414만 61	350만 37	353만 23	147만 41	-205만 82	-58.3
재해안전항만(목포)	1,000					
대흑산도항	42만 36	12만 59	15만 00	17만 19		
목포청	756만 90	603만 35	608만 61	442만 46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업무편람 2016』, 38쪽.

이와 같은 예산 투자와 항만 시설 보완을 통해 목포항의 하역 능력은 2005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2005~2006년 연간 1267만톤의 하역 능력을 보유했던 목포항은 2007~2008년 1333만톤으로, 2009~2013년 1562만톤으로 각각 늘어났고, 2014~2015년에는 1345만톤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16~2020년까지 목포신항에 3만톤 1선석, 자동차 부두 3만톤 1선석, 양곡 부두 3만톤 1선석 등이 추가 건설되고, 목포항 내 대불부두에 철재 등 잡화 부두 2만톤 1선석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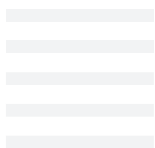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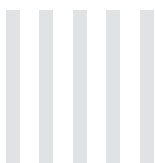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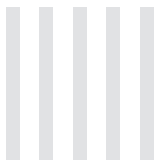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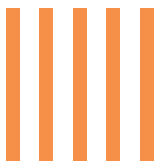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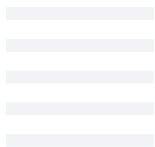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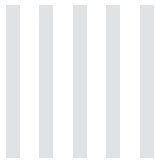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표 29 목포항 하역 능력 변화 추이, 2005~2015년

(단위: 천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부산	143,111	162,071	164,757	164,757	201,727	259,920	259,920	292,140	292,140	355,928	354,015
인천	73,133	78,122	79,370	88,268	92,595	96,820	96,820	96,820	96,820	112,698	123,536
울산	52,035	52,035	52,035	52,035	51,167	56,740	56,740	60,960	68,747	74,167	75,663
광양	138,483	138,483	163,763	164,437	164,437	177,340	179,390	186,400	186,400	188,454	188,376
목포	12,675	12,675	13,334	13,334	15,620	15,620	15,620	15,620	15,620	13,876	13,456
무역항	641,177	672,871	721,439	751,097	793,961	908,640	937,110	1,010,400	1,018,187	1,104,035	1,134,958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업무편람 2016』, 355쪽.

김성준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제1절 목포항의 항세

김성준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제2절 목포항의 지역경제 기여도

박계각 |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제2장 해운 항만과 목포 지역경제

제1절 목포항의 항세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항만업무편람』(2016)에 따르면, 2015년 목포항의 주요 취급 화물은 자동차, 철재, 컨테이너, 유류, 기타 등이다. 목포항 개발의 기본 목표는 서남권 조선 산업 및 자동차 수출입 지원 항만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도서 연결 중심 항만으로서 연안어업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5년 현재 3만톤급 6선석, 2만톤급 4선석, 1만톤급 7선석, 6천톤급 2선석, 5천톤급 1선석, 4천톤급 1선석, 3천톤급 4선석, 2천톤급 2선석 등 총 27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다. 목포항은 2020년까지 접안 능력을 29개 선석으로 확대하여 연간 하역 능력 2318만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목포항의 부두 현황

목포항의 부두는 총 연장길이 5,149m로 총 27개 선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물양장 5,101m, 수면적 4,293만㎡이다. 목포항 관내 부두는 남항부두, 삼학부두, 여객부두, 북항, 신항 등 5개 부두가 있으나, 목포항 수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영암군에 용당부두, 쌍용부두, 대불부두, 동양부두, 유류부두, 현대삼호부두 등 6개 부두도 목포해양수산청 관할 내에 있다.

표 1 목포항의 현황(2016)

구분	구격	접안능력
항만 시설	부두(안벽)	5149m 27개 선석 3만톤급×6척, 2만톤급×4척, 1만톤급×7척, 6천톤×2척, 5천톤×1척, 4천톤×1척, 3천톤×1척, 2천톤×2척
	물양장	5101m
	수면적	4293만㎡

자료: 해양수산부, 『항만업무편람 2016』, 61쪽.

각 부두별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은데, 주로 어선들과 소형선들이 정박하고 있는 남향 부두와 북향부두는 746m와 1,912m의 안벽을 각각 확보하고 있다. 삼학부두는 3만톤급 2척, 1만톤급 1척, 5천톤급 1척 등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고, 수심은 7.5~12m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로 산가공품과 석탄을 처리하고 있다. 여객부두에는 2개 선석이 있어서 4천톤급 1척, 1만톤급 1척 등 2척이 접안할 수 있으며, 주로 목포↔제주 간 정기 여객선이 이용하고 있다. 2004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목포신항에는 재정 부두 1선석, 다목적 부두 3선석, 자동차 부두 1선석, 시멘트 부두 1선석 등 3만톤급 5선석, 1만톤급 1선석 등 총 6개 선석이 운영 중이며, 수심은 9.5~12m로 목포항 내에서는 가장 깊다. 주요 취급화물은 자동차, 철재, 컨테이너, 잡화, 시멘트 등인데, 이 중 자동차와 철재 화물이 전체 처리 화물의 74%를 처리하여 대중 화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항은 향후 늘어나는 항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6~2020년까지 5개년 간 신항에 3만톤급 3만톤 1선석, 자동차 부두 3만톤 1선석, 양곡 부두 3만톤 1선석 등이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목포신항의 항만 건설이 완료되면 2020년 목포항은 총 20개 선석을 확보하는 서남해안의 주요 무역항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목포항 시설 현황(2016년 9월 현재)

부두		안벽 길이(m)	접안능력(톤)	수심(m)	기타
신항	재정 부두	240	3만0000×1	12	자동차
	다목적 부두	No.1	250	3만0000×1	12
		No.2	250	3만0000×1	12
		No.3	250	3만0000×1	12
	자동차 부두	240	3만0000×1	12	자동차
	시멘트 부두	160	1만0000×1	9.5	시멘트
남향부두		746			잔교6기
북향부두		1912		4~5	
삼학부두	No.11	168	1만0000×1	9.5	산가공품
	No.12	250	3만0000×1	12	석탄
	No.13	240	3만0000×1	12	
	No.14	135	5000×1	7.5	

부두		안벽 길이(m)	접안 능력(톤)	수심(m)	기타
삼학부두	동명동물량장 수협물량장	1394 473		4~5 1.5~4	
여객부두	No.1	140	4000×1	6.5	여객
	No.2	211	1만0000×1	8	여객

자료: 목포해양수산청(<http://mokpo.mof.go.kr/>, 2016. 9. 1.).



그림 1 목포항 항세도

자료: 목포해양수산청(<http://www.mokpo.mof.go.kr/>).

표 3 무역항 시설 현황(2015년 12월)

항만	선석	천톤/년	안벽(m)	방파제(m)	잔교(기)	물량장(m)	상옥(동)	창고(동)	아적장(천㎡)
부산	123	35만 4015	2만 9285	6216	4	9034	-	9	2610
인천	117	12만 3536	2만 4539	2113	21	2059	18	4	4139
울산	114	7만 5663	2만 218	8093	4	2838	-	15	1287
광양	99	18만 8376	2만 3041	-	-	1399	2	10	1999
평택·당진	63	8만 5235	1만 4109	1006	8	616	-	9	2217
군산	37	2만 5031	7216	4323	16	2946	-	23	1387
목포	27	1만 3456	5149	295	38	5101	-	4	568
전체	828	113만 4958	17만 4022	6만 590	161	5만 2571	27	114	1만 8090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업무편람 2016』,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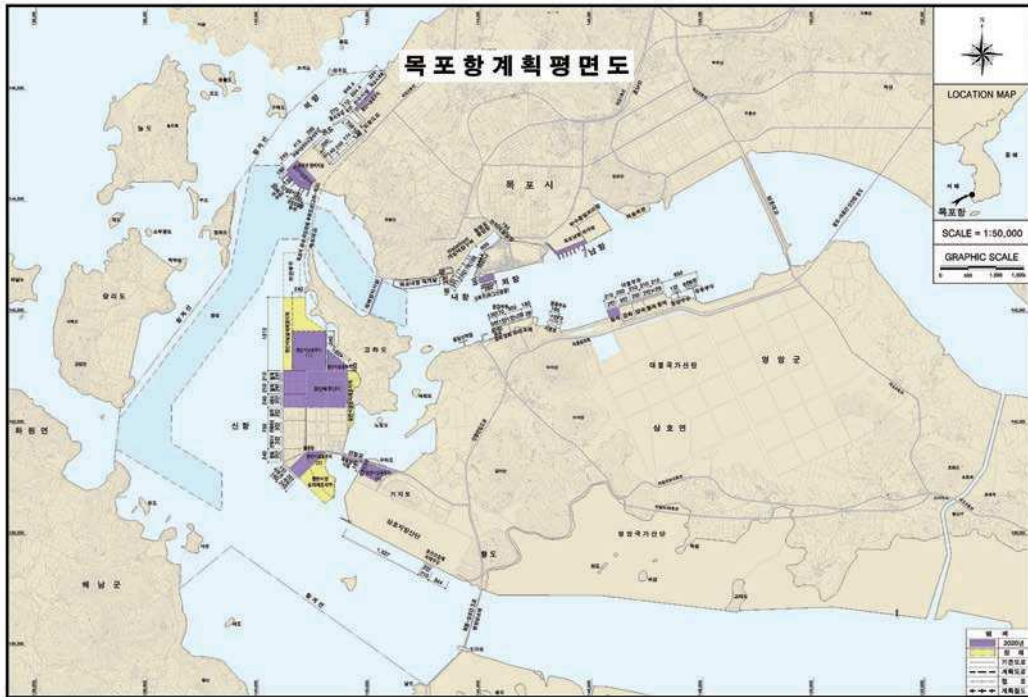


그림 2 목포항 계획 평면도

자료: 목포해양수산청(<http://www.mokpo.mof.go.kr/>).

목포항 발전의 모멘텀이 된 것은 목포신항의 개장이었다. 2004년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목포 신항은 개장 당시 3만톤급 1개 선석에서 2015년 말 현재 3만톤급 5선석, 1만톤급 1선석 등 6선석으로 확충되었다. 목포 신항의 개장에 따라 목포항의 취급화물도 다양해지고 근대화되었다. 목포신항 개장 이전에는 시멘트와 모래 등의 재래 화물이 주종을 이뤘다. 하지만, 2004년 목포신항 개장으로 차량 및 그 부품이 전체 취급화물의 51%를 차지한 이래 2005~2010년까지 잠시 큰 폭의 감소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다시 34%로 회복된 데 이어 2014년 46%, 2015년 47.8%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차량 및 부품은 목포항의 대표 화물로 자리잡았다. 이어 철강 및 제품이 2대 화물로 등장했는데, 2007년 29%를 차지한 이래 4백만~500만RT를 처리하여 25%대를 꾸준히 점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래 화물인 시멘트와 모래는 100만RT 내외를 유지하였지만, 목포항 전체 처리 화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2015년에는 두 화물 모두 5% 내외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를 통해 볼 때 목포신항의 개장이 목포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표 4 주요 무역항과 목포항 화물 처리 실적, 2012~2015년

(단위: 천원)

	2012	2013	2014	2015
부산	3억 1204만 800	3억 2485만 8224	3억 4664만 71	3억 5967만 6343
인천	1억 4393만 9484	1억 4610만 6278	1억 5008만 3888	1억 5762만 3769
평택·당진	1억 71만 2097	1억 925만 1296	1억 1701만 2506	1억 1221만 4397
목포	1686만 8672	2016만 5192	2299만 7169	2246만 7164

출전: 안승범, 「해운항만산업의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6 목포신항만 발전전략 세미나』, 목포시·목포신항만·한국항만경제학회·목포해양대학교, 2016, 38쪽.

자료: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http://www.spidc.go.kr/>).

표 5 목포항 품목별 화물 처리 실적, 2001~2015년

(단위: 1000 RT)

연도	시멘트	모래	기타 광석및 생산물	석유 정제품	철강 및 제품	차량 및 부품	기타	합계
2001	85만 9	181만 2	56만 6	93만 8	74만 8	56	180만 9	675만 5
2002	87만 3	296만 5	50만 9	108만 8	84만 1	51	164만 8	797만 5
2003	108만 4	148만 2	25만 4	101만 3	80만 6	18만 9	177만 1	659만 9
2004	103만 7	79만 5	19만 8	94만 2	91만 2	573만 0	156만 7	1118만 1
2005	97만 5	115만 3	34만 9	95만 8	90만 8	147만 8	157만 1	739만 2
2006	143만 0	134만 5	12만 3	93만 3	147만 4	183만 4	159만 7	873만 6
2007	157만 6	160만 3	27만 5	91만 7	404만 1	369만 0	177만 5	1387만 7
2008	130만 1	232만 2	30만 7	84만 9	535만 1	218만 3	175만 8	1407만 1
2009	122만 5	165만 7	56만 7	93만 0	528만 1	329만 2	160만 8	1456만 0
2010	96만 6	128만 3	54만 1	94만 0	538만 0	468만 5	175만 4	1554만 9
2011	91만 2	121만 1	43만 2	88만 2	579만 3	581만 0	201만 9	1696만 9
2012	109만 6	134만 5	48만 2	91만 9	419만 6	605만 4	189만 7	1598만 9
2013	106만 4	138만 0	43만 8	94만 2	384만 9	980만 6	187만 9	1935만 8
2014	102만 6	136만 9	32만 7	91만 2	573만 4	1027만 9	247만 3	2212만 0
2015	96만 4	101만 3	82만 9	93만 4	591만 9	1032만 7	160만 3	2158만 9

출전: 목포시·목포신항만·한국항만경제학회·목포해양대학교, 「2016 목포신항만 발전전략 세미나」, 2016, 64쪽.

자료: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http://www.spidc.go.kr/>).

표 6 목포항 컨테이너 물동량, 2001~2015년

(단위: 1,000 TEU)

	부산	인천	광양	평택/당진	목포 (비중)	국내 전체
2001	807만 2	66만 3	88만 7	2만 1	-	999만 0.1
2002	945만 3.4	76만 9.8	112만 5.5	6만 6	6만 2.7	1188만 9.8
2003	1040만 7.8	82만 1.0	123만 5.3	15만 2	7만 9.8	1318만 5.8
2004	1149만 2.0	93만 5.0	134만 8.5	19만 0	7만 6.9	1452만 3.1
2005	1184만 3.1	114만 8.6	146만 0.9	22만 7.6	6만 3.5	1521만 6.4
2006	1229만 0.8	137만 7.0	177만 0.4	26만 0	6만 8.4	1596만 4.9
2007	1326만 1.5	166만 3.8	173만 6.9	31만 8.9	7만 7.5	1754만 3.9
2008	1345만 2.8	170만 3.3	182만 2.4	35만 6	7만 8.5	1792만 6.7

	부산	인천	광양	평택/당진	목포(비중)	국내 전체
2009	1198만 0.3	157만 8.0	183만 0.4	37만 7.5	9만 9.9	1634만 1.3
2010	1419만 4.3	190만 2.8	208만 7.9	44만 6.5	8만 1.2	1936만 8.9
2011	1618만 4.7	199만 7.8	208만 5.3	52만 9.5	9만 4.1	2161만 0.5
2012	1704만 6.2	198만 1.9	215만 3.8	51만 7.0	10만 5.9	2255만 0.2
2013	1768만 6.1	216만 0.8	228만 4.8	51만 8.6	9만 1.5	2346만 9.2
2014	1868만 3.3	233만 4.9	233만 8.3	54만 6.3	10만 1.0	2479만 8.2
2015	1946만 8.7	237만 7.0	232만 7.3	56만 5.7	13만 0.3	2568만 0.5

출전: 목포시·목포신항만·한국항만경제학회·목포해양대학교, 『2016 목포신항만 발전전략 세미나』, 2016, 63쪽.
 자료: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www.spidc.go.kr).

2. 목포항의 항로 현황

목포항의 항로 중 외항 항로는 부정기 항로가 주를 이루는 과정에 일부 중국의 상하이항 간의 정기 화객선이나 한중일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경제성이 없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폐쇄되고 말았다. 이에 반해 목포항의 연안항로는 남서해안에 산재한 섬을 연결하는 여객 항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목포항의 연안 여객 항로는 제주도와 신안군 내의 섬을 연결하는 여객 항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9개 정기 항로와 2개 보조 항로 등 총 11개 항로가 운영되고 있다. 항로별 세부적인 운항 현황을 살펴보면, <표 7>~<표 13>과 같이 목포-제주 간 항로는 씨월드고속훼리(주)가 1만 5천 톤급 여객선 2척을 투입하여 1일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목포-홍도 간 항로에는 남해고속과 동양고속훼리 등 2개 선사가 각각 4척씩 총 8척이 1일 1.5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목포-가산 항로에는 목포대흥상사와 비금농업협동조합이 각각 1척씩 총 2척이 1일 2회왕복 및 3회왕복 운항 중이며, 목포-도초 항로에는 목포대흥상사와 도초농업협동조합이 각 1척씩 2척이 1일 2회왕복 및 3회왕복 운항중이다. 목포-하의 항로에는 조양운수가 3척을 투입하여 각각 1일 2회왕복 운항 중이며, 남신안농업협동조합이 1척을 2회왕복 운항 중이다. 목포-암태 항로에는 신안농업협동조합이 총 3척의 선박을 1일 7회왕복 및 6회왕복 중이다. 기타 항로로는 목포-흑산에 목포대흥상사가 1척 주 2회왕복, 목포-외달 항로에는 (유)신진해운이 1척을 1일 4회왕복, 목포-상태 항로에는 (유)신안해운이 2척, 남신안농업협동조합이 1척을 1일 1~3회왕복하고 있다. 낙도 보조 항로에는 목포-우이 항로와 목포-울목 항로가 있는데, 해광운수가 1일 1회왕복~1회편도로 운항하고 있다.

목포에 거점을 둔 연안 여객운송 사업자는 1996년 18개 업체, 57척, 1만 6139GT이던 것이 2000년 22개 업체, 61척, 1만 5785GT, 2010년 23개 업체, 63척, 2만 7663GT, 2015년 21개 업체, 64척, 4만 7418GT로 변화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연안 여객 업체 수는 18~28개로 등락을 보여 2015

표 7 목포-제주 항로

선사명	선명	총톤수	정원	속력(kt)	항해 거리(NM)	소요 시간	운항 빈도
씨월드고속훼리(주)	신타루치노	1만5180	1425	23	96	4:30	1회 왕복
	씨스타크루즈	1만5089	1935	24	96	4:30	1회 왕복

자료: 목포해양수산청(<http://mokpo.mof.go.kr/>, 2016. 10. 1.).

표 8 목포-홍도 항로

선사명	선명	총톤수	정원	속력(kt)	항해 거리(NM)	소요 시간	운항 빈도
(주)남해고속	남해퀵	321	349	36	70	2:30	1.5회 왕복
	남해스타	273	350	36			
	남해엔젤	319	351	36			
	핑크돌핀	223	250	30			
	남해프린스(예)	346	359	36			
(주)동양고속훼리	동양골드	314	375	35	70	2:30	1.5회 왕복
	뉴골드스타	308	377	35			
	파라디이스	309	375	35			
	유토피아	287	360	35			

자료: 목포해양수산청(<http://mokpo.mof.go.kr/>, 2016. 10. 1.).

표 9 목포-가산 항로

선사명	선명	총톤수	정원	속력(kt)	항해 거리(NM)	소요 시간	운항 빈도
(합)목포대흥상사	대흥페리3	237	345	13	25	2:30	2회 왕복
	대흥고속페리(예)	424	350	14			
비금농업협동조합	섬드리비금농협고속페리	580	300	15	20	1:40	3회 왕복
	비금농협가파리(예)	307	189	13			

자료: 목포해양수산청(<http://mokpo.mof.go.kr/>, 2016. 10. 1.).

표 10 목포-도초 항로

선사명	선명	총톤수	정원	속력(kt)	항해 거리(NM)	소요 시간	운항 빈도
(합)목포대흥상사	대흥페리9	308	396	16	28	2:25	2회 왕복
도초농업협동조합	도초카훼리	466	250	14	25	2:00	3회 왕복

자료: 목포해양수산청(<http://mokpo.mof.go.kr/>, 2016. 10. 1.).

표 11 목포-하의 항로

선사명	선명	총톤수	정원	속력(kt)	항해 거리(NM)	소요 시간	운항 빈도
조양운수(주)	엔젤	120	152	27	29	1:25	2회 왕복
	조양페리1	272	280	13	29	3:00	2회 왕복
	조양페리2	196	166	16	14	1:45	2회 왕복
	신안페리5(예)	353	269	11			
남신안농업협동조합	남신안농협2	364	234	16	29	2:15	2회 왕복

자료: 목포해양수산청(<http://mokpo.mof.go.kr/>, 2016. 10. 1.).

표 12 목포-암태 항로

선사명	선명	총톤수	정원	속력(kt)	항해 거리(NM)	소요 시간	운항 빈도
신안농업협동조합	신안농협페리	254	162	13	4	0:25	7회 왕복
	신안농협페리3(예)	311	245	13	-	-	-
	신안농협페리5	223	160	13	4	0:25	7회 왕복
	신안농협페리7	216	123	15	13	1:00	6회 왕복

자료: 목포해양수산청(<http://mokpo.mof.go.kr/>, 2016. 10. 1.).

표 13 기타 항로

항로	선사	선명	총톤수	정원	속력(kt)	항해 거리(NM)	소요시간	운항빈도
목포-흑산	합)목포대흥상사	대흥페리7	751	320	13	57	4:20	주2회 왕복
목포-외달	(유)신진해운	신진페리2	108	195	11	7	0:45	4회 왕복
목포-상태	유)신안해운	신안페리1	469	300	15	21	2:05	2회 왕복
		신안페리2	400	249	13	21	2:05	1회 왕복
	남신안농업협동조합	남신안농협1	486	360	15	21	2:00	3회 왕복
목포-우이(보조항로)	주)해광운수	섬사랑6	177	120	13	50	4:30	1회 왕복
목포-율목(보조항로)	주)해광운수	섬사랑10	149	80	13	55	7:00	1회 편도
		섬사랑13	158	100	15	55	7:00	1회 편도

자료: 목포해양수산청(<http://mokpo.mof.go.kr/>, 2016. 10. 1.).

년 말 현재는 21개 업체로 고정된 듯하고, 취항 선박 수도 57척~69척 내외에서 등락하였으나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선박의 총 톤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안 여객선의 대형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현재 목포항의 연안 여객 운송업은 우리나라 전체 연안 여객운송 사업자의 30%, 전체 연안여객선 척수의 37.8%, 전체 연안 여객선 총 톤수의 3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포항의 우리나라 연안 여객업의 중심 항만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치다.

표 14 목포항 연안 여객운송 사업자 추이, 1996~2015년

	목포			전체 항만		
	업체 수	척	GT	업체 수	척	GT
1996	18	57	1만 6139	42	142	6만 2330
1997	19	59	1만 7217	46	144	5만 8541
1998	22	60	1만 4965	50	145	10만 7723
1999	22	57	2만 0567	52	147	12만 8307
2000	22	61	1만 5785	52	152	13만 4847
2001	22	58	1만 5142	53	146	8만 9666
2002	25	61	2만 4234	69	160	8만 5405
2003	25	66	2만 7574	57	152	7만 9837
2004	26	68	2만 6224	60	154	7만 0147
2005	28	69	2만 7308	61	156	7만 2352
2006	27	68	2만 6090	72	159	7만 4301
2007	27	67	2만 6567	76	162	7만 6561
2008	24	64	2만 6078	77	166	7만 8514
2009	25	64	2만 6078	78	164	7만 8550
2010	23	63	2만 7663	75	166	7만 9027
2011	23	65	3만 4347	74	167	9만 9669
2012	21	67	3만 8514	72	172	10만 7813
2013	21	66	3만 8844	72	173	11만 9329
2014	21	67	3만 4161	69	168	9만 3810
2015	21	64	4만 7418	69	169	12만 7434

주: 목포해양수산청 면허 현황임.

출전: ①1996~2010년: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50년사』, 387쪽. ②2011~2015년: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통계연보 2016』, 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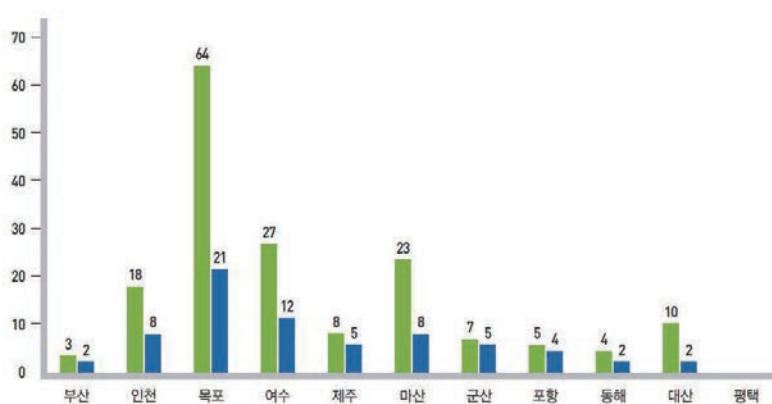


그림4 해안수산청별 연안 여객업체와 운항 선박 현황(2015년 말)

출전: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통계연보 2016』, 2쪽.

김성준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제2절 목포항의 지역경제 기여도⁰¹⁾

1. 항만 관련 산업 현황

항만과 관련된 산업을 일반적으로 항만 관련산업, 항만 직접 의존산업 및 항만 간접 의존산업 등으로 분류하나, 대형 항만에 비하여 항만 배후지의 제조업 규모가 작고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외항 상선에 비해 여객선과 연근해 어선 입출항 척수 비율이 높은 목포항의 특성상 목포항 관련 산업은 항만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목포항을 배경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분류를 채택한 연구사례⁰²⁾를 따라 항만 관련 산업을 해운업, 항만하역 운송업, 선박 입출항 용역업, 선용품 공급업, 수산업, 조선업, 무역업, 수중 개발업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목포항의 항만 관련 산업분류

산업 분류	세부 산업 분류
해운업	해상여객 운송업, 해상화물 운송업
항만하역 운송업	항만하역 운송업
선박 입출항 용역업	도선업, 예선업, 선박 대리점업, 통관업, 검정·검량·검수업, 해상 급유업, 해상 급수업
선용품 공급업	선용품업, 선구 및 어구 제조 공급업, 선박용 기계부품 제조수리업,
수산업	어선선원, 어업, 수산물 가공업, 목포수산업협동조합,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선어 중개업
조선업	조선업
무역업	무역업
수중 개발업	수중 개발업
해양수산·항만·조선 관련기관	해양수산·항만·조선 관련 기관

다음은 목포에 소재하고 있는 항만 관련 산업별 구체적인 업체 현황을 1996년도에 목포항의 항만 관련 산업분류에 따라 전수 조사한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항만 관련 세부 산업별 업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01) 목포항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시간과 예산 부족으로 1996년 목포항의 해양산업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김형근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02) 김형근, 「목포항이 목포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25, 한국해운학회, 1997, 120~121쪽.

1) 해운업

1996년도에 목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상 여객운송 업체는 12개로서 이들 업체들은 38척의 여객선을 운항하였으며, 해상화물 운송 업체는 17개로서 이들 업체들은 유조선, 모래 채취선, 예선, 예인선 등 총 37척의 화물선을 운항하였고 이들 자료는 <표 16>과 같다.

표 16 목포항의 해운업 업체 현황(1996)

산업 분류	세부산업 분류	업체 현황
해운업	해상여객 운송업 (12개 업체)	진도운수(8), (유)해남운수(7), 조양운수(6), (합)목포대흥상사, 신광해운(5), 남해고속(4), 동양고속페리(3), 국제고속페리(2), (유)신진해운(2), (유)대양해운, (유)한흥페리, 재영해운사(1) 총 선박 보유 척수: 38척
	해상화물 운송업 (17개 업체)	금영(3), 광일해운(1), 대한통운 신안출장소(4), 대창유업(2), (유)목포유업상사(2), 동양통운(2), (유)인동해운(2), (유)현성산업(7), (유)대림산업(2), (유)대원(3), (유)유진산업(1), (유)현대산업(1), (유)일성산업(1), 고려해운(1), (유)삼해기업(2), (유)동아모래(2), (유)삼해공업(1) 총 선박 보유 척수: 37척

주: ()의 안은 선박보유척수.
자료: 해양수산청, 한국해운조합.

2) 항만하역 운송업 현황

목포항에서 항만화물을 하역, 운송하는 업체는 15개로 현황은 <표 17>과 같다.

표 17 목포항의 항만하역 운송업 업체 현황(1996)

산업 분류	세부산업 분류	업체 현황
항만하역 운송업	항만하역 운송업 (15개 업체)	목포항운노조, 대한통운, 동아상사운수, 홍일운수, 대진, 동방, 세방기업, 한국제분, 한일운수, 덕산실업, 연안운수, (유)삼미운수, 우신상운, (유)삼암상운, 호남운창

3) 선박 입출항 용역업

목포항에서 각종 선박에 대한 입출항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20개로 <표 18>과 같다.

표 18 목포항의 선박 입출항 용역업 업체 현황(1996)

산업 분류	세부 산업 분류	업체 현황
선박 입출항 용역업(20)	도선업(1개 업체)	목포항도선사회
	예선업(1개 업체)	대륙상운
	선박 대리점업(3개 업체)	국제선박, 세운공사, 목포해운
	통관업(2개 업체)	목포관세사무소, 대호관세사무소
	검정·검량·검수업(6개 업체)	고려검정공사, 극동검정동사, 대한해사검정공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국제선박, 세운공사
	해상 급유업(6개 업체)	남해석유, 중동운활유상사, 합동석유상사, 대창유업, 한국급유목포사무소, 부광해상급유
	해상 급수업(1개 업체)	동양통운

자료: 목포상공회의소.

4) 선용품 공급업

목포항에서 각종 선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78개로 그 현황은 <표 19>와 같다.

표 19 목포항의 선용품 공급업 업체 현황(1996)

산업 분류	세부 산업 분류	업체 현황
선용품 공급업	선용품업(15개 업체)	한미해상, 해도상사, 한일상사, 코스믹, 대영공구상사, 덕수상사, 목포베어링상사, 삼성기계상사, 우성공구, 해양전자장비, 목포항도설비사, 신아전자, 삼양전자, 대양통신, 삼학무선
	선구 및 어구 제조 공급업 (40개 업체)	남양 목포공장, 남양교역, 영신산업, 성창산업, 신한산업, 삼정, 한일공업사, 석유선구상사, 신흥선구, 영랑선구, 수호선구상사, 한양선구상사, 고려선구점, 남양선구점, 남해선구점, 대산산업, 대양선구상사, 대일선구점, 대중선구점, 덕유선구상사, 동양선구점, 동진선구점, 바다선구점, 수웅선구점, 신안선구점, 영광선구점, 완도선구점, 중앙선구점, 창신선구점, 화신선구점, 평화선구점, 한양선구점, 해성선구점, 해안선구점, 해창선구점, 흑산선구점, 유성상사, 인천선구점, 광성상회, 부림산업
	선박용 기계부품 제조 수리업 (23개 업체)	광양종합기계, 한진상사, 한진기공사, 한국엔지니어링, 광양-인마대리점, 호성기계공업사, 신화엔진, 서해마린, 주안금속사, 신성디젤, 영신디젤, 삼성프로펠라, 신라프로펠라, 태광전기공사, 영흥기공사, 한일특수포금, 현대포금, 서울크랭크, 현대스크류, 이성공업사, 유성공업사, 우창공업사, 조도전공

5) 수산업

1996년도에 목포항에 선적을 두고 있는 어선은 안강망 어선이 173척, 유자망 어선이 24척, 채낚기 어선 9척 등이며 이들 어선에 1,678명의 선원이 어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목포시 7개 어촌계 2,068가구의 7,131명이 각종 어선 954척을 이용하여 어선 어업, 해태 양식 및 일반 양식 등의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430여 명이 갯지렁이 채취 등 맨손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김, 미역, 어묵 등 수산물 가공업체는 44개이며, 어획물의 판매 사업, 구매 사업, 신용 사업, 공제 사업 및 냉동제빙 사업 등을 하는 3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어획물을 중·도매하는 선어 중개업 업체가 45개가 있다. 어촌계 현황 및 수산업 업체 현황을 정리하면 <표 20> 및 <표 21>과 같다.

표 20 목포시 어촌계 현황(1996)

어촌계명	가구 수	어선척수	가구당 년 소득(원)
서산 어촌계	1368	544	2125만
광산어촌계	66	77	1567만
대반 어촌계	97	22	1670만
죽교 어촌계	252	163	1530만
허사도 어촌계	77	37	1600만
율도어촌계	94	58	1620만
달리도 어촌계	114	53	1540만
합 계	2068	954	400억 9012만

자료: 목포시청 농수산과.

표 21 목포항의 수산업 업체 현황(1996)

산업 분류	세부 산업 분류	업체 현황
수산업	어선 선원	1678명의 어선 선원이 각종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
	어업	7561명이 어로 어업, 양식 어업, 갯지렁이 채취등의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 (44개 업체)	삼진물산, 한국냉장 목포지점, 동남수산, 육기상사, 향아식품, 일신, 삼창, 삼창식품, 연흥산업 목포지점, 해양수산, 흥남수산, 영창산업, 덕산수산, 대영수산, 대창식품, 목포대양식품종합, 삼기수산, 삼영수산, 선일식품, 신흥냉장, 조우상사, 한일수산, 해동수산, 해양, 현대수산, 희영수산, 황금수산, 한길산업, 가림물산, 금성농수산, 대명종합식품, 삼광식품, 삼성수산, 삼양사 목포 수산공장, 삼원수산, 성산실업, 유진실업, 일양, 일흥수산, 진흥, 진흥 서산동 공장, 청산실업, 코리아, 평화식품
	목포수산업협동조합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선어 중개업 (45개 업체)	선어중개업 1호, 5, 7, 8, 9, 11, 15, 16, 18, 24, 30, 31, 32, 33, 34, 36, 45, 53, 57, 58, 65, 67, 77, 79, 85, 91, 97, 99호, 재영수산, 동진수산, 성자수산, 인천상회, 산호수산, 은혜수산, 희영수산, 상록수산, 한흥수산 및 개인명 3인, 새우젓 중개업 1호, 3, 8, 22, 33호

6) 조선업

목포항을 배경으로 각종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하는 조선업 업체는 21개로 <표 22>와 같다. 이중 영암군에 위치한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를 포함시킨 이유는 이 조선소 및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6,300여 명 가운데 4,450여 명이 목포시를 생활권으로 출퇴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2 목포항의 조선업 업체 현황(1996)

산업 분류	세부산업 분류	업체 현황
조선업	조선업 (21개 업체)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일흥조선, 광양조선, 목포조선공업, 고려조선, 한일조선공업사, 한남조선, 백천기업조선사업부, 현진FRP조선소, 해운조선, 삼경조선소, 동양조선소, 삼아특수FRP조선, 삼성FRP조선, 한성조선, 일우FRP조선, 대운FRP조선, 불티나조선, 한림조선, 신안FRP조선, 대성FRP조선

7) 무역업

목포상공회의소의 목포상공명감에 기재된 목포시 소재 무역 업체수는 28이나, 다른 항만 관련 산업 업체에 포함되므로 중복되지 않은 4개의 무역업 업체만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목포항의 무역업 업체 현황

산업 분류	세부 산업 분류	업체 현황
무역업	무역업(4개 업체)	(주)삼미, (주)현대종합목재산업, (주)효성물산, (주)광산목재

8) 수중 개발업

목포항을 배경으로 해양 토목, 해저 청소, 해저 인양, 해저 촬영, 발파, 구조 업무 등에 종사하는 수중 개발업 업체 현황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목포항의 수중 개발업 업체 현황(1996)

산업 분류	세부 산업 분류	업체 현황
수중 개발업	수중 개발업 (5개 업체)	대양수중개발, 목포수중개발, 대진수중개발, 돌핀수중개발, 백제수중개발

9) 해양·수산·항만·조선 관련 기관 현황

목포항을 배경으로 해양수산, 항만 및 조선에 관계되는 관련기관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목포항의 해양·수산·항만·조선 관련 기관 현황(1996)

산업 분류	세부 산업 분류	업체 현황
해양수산·항만·조선 관련기관	해양수산·항만·조선 관련 기관 (20개 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경청, 목포세관, 목포출입국관리소, 국립목포검역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수산물검사소목포지부, 남해수산업연구소목포분소, 한국해운조합목포지부, 여천지도소, 목포지방선원노조,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어선협회목포지부, 한국항만운송협회, 한국선급협회목포지부, 로이즈선급협회목포지부, 미국선급협회목포지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목포지부

2. 항만 관련 산업의 지역경제 효과

목포항 항만 관련 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김형근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살펴보면, 목포항의 항만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인 고용, 소득 및 지역 내 총생산의 현황은 <표 26>과 같다.⁰³⁾

먼저 고용 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1996년도 목포항의 항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2만 797명으로, 당해 연도 목포시 인구 24만 5,471명의 8.5%를 차지하고, 목포시 경제활동 인구 7만 1,809명의 29%를 차지고 있다. 또한 소득 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1996년도 목포항 항만 관련 산업에 종사자가 받는 인건비 총액은 2030억 원을 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총생산 기여도를 살펴보면, 1996년도 목포항과 직접 관련된 해운업, 항만하역 운송업, 선박 입출항 용역업, 선용품 공급업, 수산업, 조선업, 무역업, 수중 개발업과 해양·수산·항만·조선 관련기관의 총생산액은 8428억을 초과하며, 이는 1996년 목포시 총생산액 1조 5197억 8677만 2050원의 55.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목포항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절대적임을 나타낸다.

또한 목포항 항만 시설 자체를 이용하여 얻는 수입 즉, 접안료, 정박료, 화물 관련 사용료, 선박 입항료, 터미널 이용료, 화물 장치료, 수역 이용료, 일반 부두 임대료, 개발 부두 임대료, 부지 및 건물전용 사용료, 수역 점용 등의 항만 수입은 <표 27>와 같이 약간씩 등락을 하며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도에 20억여 원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전체 항만 수입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03) 김형근, 같은 논문, 120~121쪽.

표 26 목포항의 항만 관련 산업 인건비 현황

(단위: 수/명/천 원, 기준년도: 1996)

산업 분류	세부 산업 분류	업체수	고용현황	인건비	매출액(예산액)
해운업	해상여객 운송업	12	447	606억 2019	2650억 2340
	해상화물 운송업	17	367	585억 4857	2566억 6632
항만하역 운송업	목포항운노동조합	1	816	1253억 0437	1286억 6126
	하역 운송업	14	574	639억 1163	3736억 0357
선박 입출항 용역업(20)	도선업	1	3	3억 2000	35억 9200
	예선업	1	9	27억 6000	32억 4000
	선박 대리점업	3	20	28억 3900	64억 9945
	통관업	2	7	10억 2600	35억 0000
	검정·검량·검수업	6	8	12억 5000	304억 5000
	해상 급유업	6	37	48억 3600	680억 9796
	해상 급수업	1	11	12억 1972	20억 6682
	선용품업	15	97	90억 7395	834억 3286
선용품 공급업	선구 및 어구 제조 공급업	40	460	458억 4827	1978억 5003
	선박용 기계부품 제조 수리업	23	161	180억 7657	1194억 9101
수산업	어선 선원		1,678	2911억 6656	2911억 6656
	어업		(7,561)	(13000억 0000)	13000억 0000
	수산물 가공업	44	928	735억 7922	10735억 2368
	목포수산업협동조합	1	200	485억 6771	24848억 3733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1	34	68억 9157	1070억 6666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1	7	13억 0000	930억 0000
	선어 중개업	45	(45)	(300억 3944)	300억 3944
조선업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1	4,450	8900억 0000	분석에서 제외
	조선소	20	1,740	638억 4319	4947억 9483
무역업	무역업	4	51	59억 8945	2032억 6799
수중 개발업	수중 개발업	5	39	79억 3200	171억 2100
해양수산·항만·조선 등 관련 기관	해양수산·항만·조선 관련 기관	20	1,047	2454억 9790	7914억 8416
합 계		285	20,797	20304억 187 (13300억 3944)	84284억 7633

주: () 부분인 어업과 선어 중개업 항목은 인건비 산출이 곤란하여 인건비 분석에서 제외함.

표 27 목포항의 항만 수입(1996~2003년)

(단위: 천 원)

연도	전체 항만	목포항	점유비(%)
1996	1925억 5266만 4	15억 9394만 8	0.8
1997	2097억 1425만 5	17억 0533만 0	0.8
1998	1719억 8562만 9	12억 9074만 0	0.8
1999	1848억 0436만 9	14억 6635만 2	0.8
2000	1873억 6360만 9	16억 5101만 2	0.9
2001	1991억 2391만 6	17억 3979만 9	0.9
2002	2104억 8023만 8	20억 2500만 0	1.0
2003	2163억 3647만 7	19억 2846만 8	0.9

주: 접안료, 정박료, 화물 관련 사용료, 선박 임항료, 터미널 이용료, 화물 장치료, 수역 이용료, 일반부두 임대료, 개발부두 임대료, 부지 및 건물전용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포함.

출전: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2004』, 351~379쪽.

한편, 목포항을 이용하는 연안여객 업체의 2001~2015년도까지의 현황 및 보유 척수 운임을 살펴 보면, <표 28>과 같으며, 여객운임 수입이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15년도에는 420억 원을 초과하여 목포항이 꾸준히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8 목포항 연안여객 업체의 여객 운임 수입 추이(2001~2015년)

(단위: 원)

구분	목포		여객 운임 수입(원)		
	업체 수	척	GT	합계	목포
2001	22	58	1만 5142	178억 3828만 9024	147억 6125만 5240
2002	25	61	2만 4234	182억 3002만 9055	144억 6729만 3088
2003	25	66	2만 7574	218억 9844만 8001	174억 8959만 4511
2004	26	68	2만 6224	236억 6237만 1877	189억 9730만 3326
2005	28	69	2만 7308	266억 7536만 3818	220억 4969만 6731
2006	27	68	2만 6090	312억 7661만 8985	263억 2852만 6304
2007	27	67	2만 6567	300억 1936만 9247	251억 8264만 1594
2008	24	64	2만 6078	343억 3441만 1747	294억 6358만 8547
2009	25	64	2만 6078	367억 2804만 4977	309억 9729만 7331
2010	22	63	2만 7663	362억 7077만 1650	301억 3869만 1000
2011	23	65	3만 4347	371억 7819만 6250	300억 8956만 9000
2012	21	67	3만 8514	375억 9938만 4369	305억 8620만 9069
2013	21	66	3만 8844	444억 4002만 4500	362억 7731만 5500
2014	21	67	3만 4161	394억 1448만 3177	316억 5505만 5498
2015	21	64	4만 7418	426억 8433만 27	340억 8207만 3317

자료: 목포해양수산청 자체 집계(2016년 1월 5일).

더불어 목포항은 목포항을 이용하지 않으면 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에도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표 29> 및 <표 30>과 같이 2014년도에 대불산업단지의 가동 업체는 308개이며 고용 인원은 1만 3017명에 이르고, 누계생산은 1조 5300억 원을 초과하고 누계수출은 6500억을 넘고 있다. 목포항은 이들 근로자들의 고용 효과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비생활 터전이 목포임을 감안할 때 목포항이 대불산단 산업 활동을 통해 목포 경제 활성화 및 국가 수출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9 대불산단의 운영 및 고용 현황

단지명	입주 계약	가동 업체	고용 현황(명)		
			남	여	계
대불산업단지	337	308	1만 1409	1608	1만 3017
산업	268	245	6413	852	7265
외국인	36	31	2739	309	3048
자유무역	33	32	2257	447	270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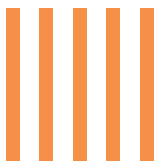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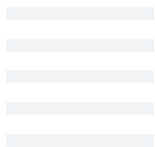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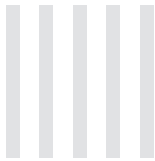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표 30 대불산단의 누계 생산 및 수출 현황

(단위: 백만 원)

단지명	누계 생산	누계 수출
대불산업단지	1조 5331억 43	6561억 96
산업	9049억 81	2355억 1
외국인	2049억 26	5466억 8
자유무역	4232억 36	3660억 2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2014).

박계각 |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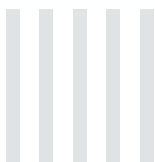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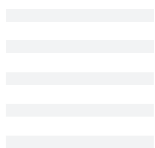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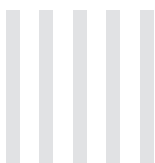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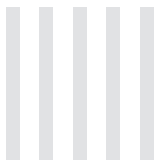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제1절 해상 교통

김성준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제2절 등록 선박

김성준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제3장 해상 교통과 등록 선박

제1절 해상 교통

1. 개항부터 해방까지

1) 개항 직전 목포항의 해운 현황

1892년 말 설립된 관영기 선회사인 이운사(利運社)는 1894년 말까지 관영으로 조곡 운송을 주로 하였다. 이운사는 1893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7개 항구에서 쌀 248,621표(俵)⁰¹⁾ 대두 11,337표,

표 1 이운사의 각 항만별 조곡 운송 실적(1893년 3월~12월)

(단위: 俵=5말 4되)			
항구	쌀	대두	대맥
군산	2만 9263	1726	0
목포	6만 220	2218	0
웅진	3만 2151	1043	5
법성포	8596	1268	0
진주	1만 316	0	0
마산창	5만 9093	3462	928
고금도	4만 8982	1620	0
합계	28만 8621 *(24만 8621)	1만 1328 *(1만 1337)	933

출전: 加瀬和三郎, 『인천개항이십오년사(仁川開港二十五年史)』, 1900, 83쪽; 손태현, 『한국해운사』, 효성출판사, 1997, 191쪽 재인용.
주: 합계 중 () 안의 수치가 맞는 수치임.

01) 1표(俵)는 약 5말 4되 임.

대맥 933표를 운송하였는데, 이 중 쌀 60,220표(24.2%), 대두 2,218표(19.6%)를 목포에서 선적하였다.⁰²⁾

조선 정부는 1894년 갑오농민전쟁으로 추수가 없었던 데다가 기근과 소요, 각 병영의 병사와 관리, 초빙 외국인 등의 급료가 체불되는 등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개항장에는 정기선을, 미개항장에는 부정기선을 각각 배선하고 있던 일본우선주식회사는 화물이 과다하여 출하 화물을 미처 다 선적하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전권 특명공사에 임명하고, 재정 압박에 빠진 조선 정부에게 일본우선이 제공하는 차관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도지부대신(度支部大臣) 어윤중이 일본우선의 6만 5천 원과 제일은행의 6만 5천 원 등 합계 13만 원을 해관세수금 담보 연리 8% 금리로 빌리는 대신 이운사 소속 선박을 일본우선 인천지점에 위탁 경영한다는 데 동의하였다.⁰³⁾

1895년 1월 23일 체결된 위탁경영 계약에 따라 일본우선 인천지점이 현익(顯益, 444NT), 창룡(蒼龍, 318NT), 해룡(海龍, 236NT)을 청일전쟁 중에는 군사 운송에 종사시켰고, 현익호와 창룡호는 오키나와에 배선하기도 하였다. 1895년 7월 15일에야 비로소 한반도 연안 정기항로를 개시하였다. 우선 현익호는 인천항을 기점으로 군산, 목포, 제주, 좌수영, 삼천포, 마산, 부산, 원산 등의 각 연안 항구 사이에 격주로 정기 배선하였고, 해룡호는 인천·평양 간에 매주 정기 배선하였다.⁰⁴⁾ 일본우선 인천지점의 이운사 사선 운항은 1896년 2월 고종의 아관파천 후 친러 정권 수립 후 일본우선과의 계약을 파약하였다.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우선과의 파약에 따른 분류로 선박 운항에 흥미를 잃게 되어 현익호와 창룡호 2척은 농상공부로 이관하였고, 해룡호는 인천항 경찰관이 우경선과 일본인이 설립한 광통사(廣通社)에 불하하였고, 이운호는 독일회사 세창양행이 운항하였다. 농상공부로 이관된 현익호와 창룡호는 장기간 인천항에 정박해 있다가 결국 독일회사 세창양행에 위탁되어 1897~1898에 연안 항로에 취항하였고, 1901년에는 인천-나가사키, 인천-상하이 등의 항로에 부정기 취항하기도 하였다.⁰⁵⁾

목포항은 1897년 개항 이후 1900년까지 이렇다 할 민간 해운업자가 없었다. 1900년(광무 4) 12월 삼화(三和, 현 무안) 감리(監理) 윤치호가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한국인으로서 외국 기선을 사용하는 자는 없다’고 보고하였다.⁰⁶⁾

02) 합계 중 () 안의 수치를 기준으로 함. 손태현, 『한국해운사』, 효성출판사, 1997, 191쪽.

03) 같은 책, 196~197쪽.

04) 같은 책, 200쪽.

05) 같은 책, 201~202쪽.

06) 『삼화보첩(三和報牒)』 제2책, 1900년(광무 4) 12월 21일자; 같은 책, 238쪽.

2) 개항기에서 해방까지 목포항의 해운

1897년 개항 직후 발빠르게 한국 연안 항로에 침투한 것은 일본우선이었다. 일본우선은 1898년 목포에 대리점을 두고, 매월 4주 1회 항복 운항 중이던 고베[神戸]-텐진[天津], 신호-우장(牛莊, 랴오닝 성 남부의 하항) 2개 항로를 체신성의 명령에 따라 목포에도 기항시켰으나, 1900년 체신성의 명령항로 변경으로 목포 기항을 중단하였다. 이에 일본우선은 신호-인천 간, 신호-진남포 간의 항로의 기선을 목포에 기항시켰다가 1907년 봄, 한국 연안항로에서 철수하였다. 오사카상선[大阪商船]은 1900년 10월 오사카-인천(시모노세키 및 부산 기항) 간에 기선을 10월 24일 체신성의 명령항로로 목포에 기항시킨 뒤 진남포까지 연장 운항하면서 군산에도 기항시켰다. 그러나 곧(1900년) 항로를 폐쇄하였다. 1905년 여름 목포 지점을 개설하여 오사카-인천(4척, 매월 왕복 16회, 고베, 시모노세키[下關]-부산-목포-군산), 나가사키[長崎]-대련(2척, 매월 왕복 8회, 부산, 목포, 군산, 인천, 진남포 정기 기항, 기타 안동현(安東縣, 현 단둥), 마산, 대마도의 이즈하라[嚴原], 나가사키의 고우노우라[郷の浦]에 부정기 기항) 간의 두 개 항로의 선박을 목포 등에도 기항하도록 하였다. 오사카[大阪]의 崎伊三郎이 소유한 아마가사키[尼崎]기선은 1906년 목포에 취급점을 설치하고, 오사카-인천 간의 정기선을 목포에 기항시켰다(선박 4척, 매월 왕복 16회, 고베, 시모노세키, 부산, 목포, 군산, 인천). 한편 사가현(佐賀縣)은 동 현의 석탄 및 도기류의 수출을 장려하는 뜻에서 현의 보조를 받아 1908년 가라츠[唐津]-인천 간에 명령항로를 열고 부산과 목포를 기항하여 2~3년간 운항한 바 있다.⁰⁷⁾

표 2 선박 및 여객 입출항 현황, 1897~1912년

연도	입항				출항				합계
	한국인	외국인	일본인	계	한국인	외국인	일본인	계	
1897	325	4	211	540	118	4	56	178	718
1898	1559	34	1117	2710	1361	22	619	2002	4712
1899	1889	125	1123	3137	1984	137	1117	3238	6375
1900	2342	74	1112	3451	2973	85	1153	4211	7752
1901	3225	60	1136	4411	3252	57	1126	4435	8856
1902	2798	41	1096	3935	3305	57	942	4300	7098
1903	3642	61	2053	5756	3757	77	1555	5389	1만 1145
1904	2864	38	1656	4558	3247	48	1615	4910	9468
1905	4366	97	2189	6619	4337	75	1979	6391	1만 2956
1906	5281	93	4364	9738	4435	203	3014	8652	1만 8390

07) 김정섭 옮김, 『국역 목포지』(1914), 목포문화원, 1991, 234~235쪽.

연도	입항				출항				합계
	한국인	외국인	일본인	계	한국인	외국인	일본인	계	
1907	4924	51	3415	8390	4896	40	1588	6524	1만 4914
1908	5541	118	5948	1만 1607	4708	107	4999	9814	2만 1421
1909	4334	160	5053	9543	4705	297	4460	9462	1만 9005
1910	3013	269	9196	1만 2478	2759	237	6413	9409	2만 1887
1911	3714	203	9515	1만 3432	3468	151	7631	1만 1268	2만 4700
1912	3916	165	7756	1만 1837	4997	214	7980	1만 3191	2만 5028

출전: 김정섭 옮김, 『국역 목포지』(1914), 1991, 237~238쪽.

표 3 선박 입항 현황, 1897~1912년

연도	가선		범선		정크		계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1897	26	8691					26	8691
1898	303	7만 0101					303	7만 0101
1899	369	12만 0278					369	12만 0278
1900	248	10만 7613	68	4867			316	11만 2480
1901	302	9만 2988	63	5631			365	9만 8620
1902	373	16만 5116	71	3826	1	4	445	16만 8946
1903	412	23만 5830	92	4697			504	24만 0537
1904	357	15만 4564	77	2699	33	431	467	15만 7694
1905	403	19만 5768	116	2577	75	975	594	19만 9320
1906	451	23만 4699	95	2971	120	1456	666	33만 9126
1907	515	21만 9649	133	5201	88	1771	736	22만 6621
1908	386	20만 4812	71	3679	46	970	513	20만 9462
1909	431	21만 5260	43	2485	24	480	498	21만 8225
1910	448	23만 5281	87	2785	9	26	544	23만 8092
1911	499	27만 1969	115	3160	7	524	611	27만 5653
1912	504	31만 3178	180	3798		-	684	31만 6976

출전: 김정섭 옮김, 『국역 목포지』(1914), 1991, 239쪽.

한국 최초의 민간 외항 해운기업은 정치국(丁致國) 등이 1900년 6월 창립한 대한협동우선회사(大韓協同郵船會社)이다. 인천에 본사를 둔 대한협동우선회사는 연안 각 항구에 지점과 대리점을 두고 정부 소유였던 현익호와 창룡호를 연간 1만 원에 용선하였다. 대한협동우선회사는 창룡호를 엔타이[煙台]와 상하이[上海]로 취항시키고, 현익호를 군산, 목포, 제주, 부산, 함경도로 배선하였다.⁰⁸⁾ 이것이 개항 전후의 유일한 목포 항운 기관이었는데, 대략 5~6일 내지 1주일마다 목포를 출항하여 부산이나 인천 등지로 향하였다.⁰⁹⁾ 대한협동우선회사는 사세를 확장하여 자본금 20만 원의 합자조직으로 하고, 조선 정부로부터 창룡, 현익, 조주부(潮州府, 756NT) 등 3척을 구입하는 한편, 조직을 사장대변(社長代辦) 안영기(安永基), 총무(總務) 정치국, 감독(監督) 황최성(黃最性)으로 개편하였다. 조주부호는 이후 한성호로 개명되어 엔타이, 상하이, 나가사키, 고베 등으로 취항하다가, 군산, 목포, 원산 등으로 부정기적으로 배선되기도 하였다. 1901년에는 순신호(順新, 97GT)를 매입하여 진남포-만경대 항로와 군산-목포 항로에 각각 배선하였다. 일신호는 소형선이었지만, 객실을 갖추고 있어서 화객 운송량이 많은 근거리 항로인 진남포, 만경도, 또는 군산, 목포항에 부정기적으로 빈번하게 배선되어 양호한 운항 실적을 거두었다. 한편, 정부로부터 매입한 현익호와 창룡호는 주로 목포, 부산, 원산, 함경도 등으로 배선되었고, 이따금 엔타이와 일본 등으로 배선되기도 했다. 대한협동우선회사는 청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이후 여러 위험과 압박 등으로 소유선박을 한국거류 일본인이 만든 미츠와상회[三ツ輪商會]에 운항 대행시킬 수밖에 없었다.¹⁰⁾

미츠와상회는 인천 거류민인 綱木仙吉, 加來宗太郎, 하야시[林] 아무개씨 등이 러일전쟁 직후에 설립한 회사로 한성호, 현익호, 창룡호 등 3척의 운항을 대행함과 동시에 천조환(天照丸)과 동조환(東照丸) 등을 용선하여 1905년 2월까지 대일항로에 배선하였다. 그 뒤 미츠와 상회의 지배인이었던 입석간지(立石幹之)가 사업을 계승하여 협동조(協同組)를 조직하여 러일전쟁 중 인천중심의 항업에 종사하였다.¹¹⁾

호리[堀] 상회는 1883년 4월에 인천으로 이주한 굴구태랑(堀久太郎), 굴력태랑(堀力太郎) 부자가 선박 매매업과 여관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출발하여 한강 강운과 근해 항로까지 경영하였다. 호리 상회는 목포 개항 이전부터 1900년경까지 목포를 기점 또는 기항지로 하는 세 항로를 운영하였다.

08) 『황성신문』 1900년(광무 4) 9월 14일자 광고란 참고; 손태현, 앞의 책, 243쪽.

09) 김정섭 옮김, 앞의 책, 240쪽; 목포시, 『목포시사』 사회·산업편, 1990, 311쪽.

10) 손태현, 앞의 책, 242~244쪽.

11) 같은 책, 249쪽.

표 4 1900년 전후 호리 상회 운항 항로

정기항로	운항 선박	운항 빈도	기항지
목포-진남포 항로	270등록톤 기선 1척	매2주 1회 항해	목포, 인천, 군산
인천-경성 항로	460등록톤 기선 1척	매월 1회 항해	군산, 목포, 부산, 원산 및 그 이북항
제주도-만경대 항로	115등록톤 및 99등록톤 기선 각 1척	매3주 1회 왕복	목포, 군산, 인천, 진남포

다케우치[武內] 회조부(回漕部)는 목포항에서 호리 상회의 대리점이었으나, 1905년 무내학태랑(武內學太郎)이 호리 상회의 목포 방면의 연안항로 영업권을 인수받아 자영하였다. 다케우치 회조부는 우선 영산강 항로를 개척하여 목포-영산포 간에 기선을 정기취항시키고, 제주선(추자도 경유), 줄포선(茁浦線, 智島 및 법성포 기항) 등의 정기항로도 경영하였다. 그러나 수지 상태가 불량하여 1900년 경부터 제주도 항로에 대해서는 목포우편국이 연액 2천 원을 그리고 1907년 7월부터는 줄포 항로에 대해 목포 일본인상업회의소가 연액 1,820원을 보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조에도 불구하고 다케우치 회조부의 경영성과는 개선되지 못하여 4년간 결손누계가 7만 원이나 되었다.¹²⁾

다케우치 회조부의 사업을 계승한 일본연안회사가 목포항운합명회사다. 목포항운합명회사는 1909년 8월 山野瀧三, 福田有造, 靑田十三朗 등 7명이 자본금 2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복전, 청전, 산야 등 3명이 대표위원이 되고, 산야가 경영을 맡았다. 목포항운은 통감부의 보조를 받아 명령항로를 운영하였으나, 1910~1911년 한반도 연안항로 통일 문제가 대두하고, 1912년 4월 조선우선이 설립되고 조선우선 목포출장소가 개소됨에 따라 사업권을 조선우선에 합병하였다.¹³⁾

1904년경 일본 거류민들이 영산강의 강운을 개시하였다. 1904년 10월경 목포흥농협회(木浦興農協會) 목포본부 간사 谷垣嘉市와 영산포 지부 간사 河野喜三郎이 일본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 범선 2척을 마련하여 목포-영산포 두 포구에서 동시에 발착하게 하였다. 같은 해 11월에 小早川與一郎이 발동기선 평남환(平南丸)을 평안도 방면에서 회항시켜 목포-영산포 간의 범선을 대체하였다. 이후 평남환은 平岡寅治郎에게 매도되어 계속 운항되던 중 1905년 9월에 한국인 홍 모 씨가 발동기선 정복환(正福丸)을 취항시켜 평남환과 경쟁하였다. 1905년 11월에는 영산강 최초의 소형 증기선인 평안환(平安丸)이 목포-영산강 항로에 취항하였으나 수지 불량으로 곧 다른 항로로 전배되었다. 1906년 8월에는 일본인 武内鶴太郎이 소형 증기선 기념환(紀念丸)을 목포-영산포 간에 정기항로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발동기선 평남환과 정복환(홍 모 씨가 일본인 呼子直七에게 매각) 2

12) 김정섭 옮김, 앞의 책, 315~329쪽; 손태현, 앞의 책, 251쪽.

13) 김정섭 옮김, 같은 책, 245~246쪽.

척과 소형 증기선 기념환이 경쟁하게 되자, 결국 1907년 7월 평남환은 영암 항로에, 정북환은 그 뒤 해남 방면으로 진출되었다. 이후 목포-영산포 항로는 유망한 사업이 되어 1909년에는 향운 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고, 2~3척의 소형선을 예인하여 화객을 실어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향운 회사는 이 항로에 주력하여 소형 증기선 2척을 취항시키게 되었다. 한일병탄 후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영산강의 향운도 조선우선에 인계되어 비교적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1912년 12월 목포-광주 간 도로에 자동차가 운행되고, 1913년에는 호남선이 나주-송정리 간에 개통되자 여객이 급감하여 기선 1척이 격일로 발착하는 수준으로 전락하였다.¹⁴⁾

목포를 기점으로 한 항로에는 영암과 해남 항로가 있었는데, 한일병탄 전후 소형 석유발동기선이 취항하는 4개 항로가 운영되었다.¹⁵⁾ 1912년 4월 총독부의 주도하에 조선 연안의 해운업자들을 통합하여 창립된 조선우선주식회사는 목포에 출장소를 설치하였는데, 목포를 기점으로 한 조선우선의 항로표는 <표 5>와 같다.

표 5 한일병탄 전후 목포항의 연안여객 항로

항로	취항 선박	운항 빈도	기타
목포-영암-해창(海倉)	평남환	매월 1회	1907년 7월부터
목포-해남-공세포(貢稅浦)	정북환		1911년 개시. 1913년 경영권이 해남유지단체에 양도됨
목포-영암-서창	발동기선		옥치회조점(玉置回漕店)이 운항
목포-해남-별암			1913년 승견상점(昇見商店)이 운항

14) 김정섭 옮김, 앞의 책, 326~329쪽; 손태현, 앞의 책, 251~252쪽.

15) 김정섭 옮김, 같은 책, 326~329쪽; 손태현, 같은 책, 252쪽.

표 6 목포항 선박 입항 및 여객 입출항, 1897~1912년

연도	선박			여객	
	척수	톤수	입항	출항	계
1897	26	3691	340	718	1058
1898	303	7만 0101	2710	4712	7422
1899	369	12만 0278	3137	6375	9512
1900	316	11만 2480	3541	7752	1만 1293
1901	365	9만 8620	4411	8856	1만 3267
1902	445	16만 8946	3935	7098	1만 1033
1903	504	24만 0537	5756	1만 1145	1만 6901
1904	467	15만 7694	4558	9468	1만 4026
1905	594	19만 9320	6619	1만 2956	1만 9575
1906	666	33만 9126	9738	1만 8390	2만 8128
1907	736	22만 6621	8390	1만 4914	2만 3304
1908	513	20만 9462	1만 1607	2만 1421	3만 3028
1909	498	21만 8225	9543	1만 9005	2만 8548
1910	544	23만 8092	1만 3478	2만 1887	3만 5365
1911	611	27만 5653	1만 3432	2만 4700	3만 8132
1912	684	31만 6976	1만 1837	2만 5028	3만 6865

출전: 목포지편찬회, 『목포지』(1914); 목포시, 『목포시사』사회산업편, 1990, 321쪽.

표 7 1924년 목포항 기점의 조선우선 항로

항로	운행빈도	기항지
목포-군산선	매월 8회	법성포, 줄포, 위도, 군산
목포-군산 북도(北島)선	매월 4회	임자도, 안마도, 위도, 갈상도, 군산
목포-다도해 남도(南島)선	매월 4회	우이도, 대흑산도, 매가도, 태도, 흑산도
목포-진도선	매월 10회	안창도, 우수영, 진도
목포-비금도선	매월 10회	가좌도, 하의도, 비금도
목포-임자도선	매월 10회	자은도, 지도, 임자도
목포-부산 외회(外廻)선	매월 10회	추자도, 제주도 도지(島地), 동 조천, 동 성산포, 거문도, 장승포, 부산
목포-부산 내회선	매월 10회	우수영, 완도, 장흥, 홍양, 나로도, 여수(乘換接續), 노량진, 심천포, 통영, 마산, 진해만, 부산
목포-제주도 서회선	매월 5회	조도, 추자도, 제주도 산지, 동 비양도, 동 모슬포(慕瑟浦), 동 서귀포
목포-제주도 동회선	매월 5회	소안도, 제주도 산지, 동 조천, 동 금령, 동 성산포, 동 표선리, 동 서귀포
목포-영산포선	매일 호지(互地) 발착	몽탄진, 사포, 중촌포, 구진포, 영산포

출전: 목포시, 『목포시사』사회산업편, 1990, 312~313쪽.

표 8 1919년 목포항 입출항 선박 현황

	기선		범선		합계		화물		여객
	척	톤	척	톤	척	톤	가격	톤	인
입항	1,450	1,145,600	4,400	1,540,000	5,850 [*]	2,685,600	3,925,000	30,000	3,670
출항	1,439	1,145,200	4,250	1,485,500	5,689	2,630,700	6,842,800	50,240	3,650

자료: 1921년 「목포항세일람표(木浦港勢一覽表)」(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주: 자료에는 5,832척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기선과 범선 입항 척수를 합하여 수정함. DHK.

2015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구입한 해양 관련 유물 중 「목포항세일람표(木浦港勢一覽表)」는 1920년 도쿄에서 출판된 것으로, 목포항 전도와 함께 목포항의 연혁, 위치와 지세, 기후, 교통, 해운, 교육, 종교, 무역, 호구 등에 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이 일람표에 따르면, 1919년 목포항에는 기선 1450척, 114만 5600톤, 범선 4400척, 154만톤 등 총 5850척, 268만 5600톤의 선박과 3,670명의 여객이 입항하였고, 기선 1439척, 114만 5200톤, 범선 4250척, 148만 5500톤 등 총 5689척, 263만 700톤의 선박과 3,650명의 여객이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1920년에는 목포 해운회사가 설립되어 1924년 가을에 발동기선을 신조하여 목포-법성포 항로를 개설하였고, 이듬해 다시 신조 발동기선이 완성되자 목포-여수 간 여객 항로를 운항하였으며, 1926년 이 항로를 부산까지 연장하였다. 조선기선은 조선우선의 기존 항로와 신조선으로 경남과 전남의 다도해 항로를 운영해 왔으나, 1926년 목포해운회사 설립 이후 2년에 걸쳐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1929년 7월에는 국제운수주식회사 목포지점이 개설되어 야마노[山野] 회조부(回漕部)의 사업을 계승하여 일본 오사카, 도쿄-요코하마[京濱] 방면 등 근해 항로의 화객을 운송하였다. 외국 항로는 영국과 미국의 석유선과 외미선(外米船)이 간혹 입항했을 뿐 정기항로는 없었다. 그리하여 1928년 목포항에 드나든 외국 상선(일본선 포함)은 입항 912척, 71만 7792톤, 출항 904척, 71만 3093톤이었다.¹⁶⁾

16) 목포시, 『목포시사』 사회·산업편, 1990, 312~313쪽.

표 9 1930년 목포 기항 정기선 현황

항로명	취항선 수	기항/발선 화수	경영자	비고
다렌-조선-북해도	3	23	시마타니[島谷] 기선(주)	갈 때만 기항
인천-상하이	1	18	조선우선(주)	올 때만 기항
신의주-한신[阪神]	2	144		
인천-도쿄[東京]	2	56		
나가사키[長崎]-다렌	1	28		
다렌-인천-한신[阪神]	1	28	오사카[大阪]상선(주)	
	4	192		
목포-부산	2	360	조선기선(주)	
여수-한신[阪神]	1	36	조선우선(주)	
제주도-한신[阪神]	1	36	오사카[大阪]상선(주)	
인천-목포	1	36	조선기선(주)	

출전: 김정섭 옮김, 『목포부사』(1930), 698쪽.

1차 세계대전으로 해운 호황기를 맞이하여 연안 항운을 기도하는 다수의 발동기선 업자가 인천, 목포, 마산, 부산 등의 항구에서 속출하였다. 발동기 선업자들은 저렴한 운임으로 조선우선의 연안 항로를 침식하는 기세를 보였다. 이에 조선우선은 군수 발동기선 업자와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부산에 자본금 100만 원으로 부산기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종래 자영하던 부산 중심의 근거리 항로를 부산기선에 양도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한국인으로서 소규모 항운업을 영위한 사람이 일부 있었으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본이 중국대륙을 침략한 직후인 1938년 이후에는 연안항로는 부산항을 기점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선기선이 100톤급 이상의 선박 6척을 부산-목포 항로에 투입하여 매일 운항하였고, 조선해운이 부산-목포-군산선에 4척을 투입하여 월 12회, 조흥해운상회가 부산-목포-군산선에 3척을 투입하여 월 3회, 加藤謙弼이 부산-목포-군산선에 3척을 투입하여 월 3회, 川波藤太郎이 부산-목포선에 1척을 투입하여 월 2회 각각 운항하였다(표 9) 참조).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발발한 1941년 말 이후에는 총독부의 연안해운 통제 방침에 따라 조선기선, 입석(立石)기선, 황양(晃陽)기선을 서일본기선으로 통합하였고, 소규모항운업체들은 부침을 겪었다.¹⁷⁾ 식민지시기에 조선인에 의해 창립되어 식민지 말기까지 존속한 항운 업자는 삼신(森信)기선, 남일(南一)운수, 부천군 면영해운조합 등이었는데, 남일운수는 목포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17) 한국해사문헌연구소, 『한국해운발전40년사』, 1984, 250쪽, 256쪽.

3) 평수 항로

개항 전후 광주, 나주, 영산포 등의 시읍과 목포와의 유일한 교통기관은 육상의 말을 제외하고는 영산강을 오르내리는 배편이 유일했다. 목포와 영산포 간 32해리 간에는 1904년경까지 어떠한 배도 운항되지 않아 화객은 모두 어선이나 통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목포에서 출발한다면 적어도 18시간이 소요되었고, 조류 등으로 대기 시간이 추가되면 30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목포와 영산포의 유지들이 힘을 모아 1904년 10월 소형 범선 2척으로 양측에서 출발하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양지를 오고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05년 평안도 방면에서 운항하던 발동기선 평남환이 목포-영산포 간 항로에 취항함으로써 소형 범선의 존재가치가 없어졌다. 그 뒤 1906년 9월 흥 모(某)라는 사람이 발동기선 정북환을 들여와 평남환과 함께 운항하였고, 그 해 11월에 소형 증기선 평안환이 취항하였다. 평안환은 수지가 맞지 않아 곧 다른 곳으로 옮겨 갔으나, 1906년 8월 기념환이 목포-영산포 간 정기항로를 열었다. 이로써 목포-영산포 간 항로에 3척이 취항하게 되어 경쟁이 심해지자 운항 업자들 간에 협정을 맺어 1907년 7월 평남환과 정북환은 다른 항로로 전배하고 기념환 1척만이 남게 되었다.

1909년 5월에는 다케우치[武内]가 해운업을 목포항운합명회사에 인계하였는데, 목포항운이 경영하면서 3척의 종선을 달고서도 화객이 넘치는 상태여서 다른 노선이 적자를 면치 못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경영실적을 올렸다. 1909년 8월에는 부산 방면에 금강환이 취항하였다. 목포항운에서도 2척으로 증가시켜 직선과 연안 기선으로 각각 충당시켰는데, 1912년 4월 조선우선주식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1912년 12월 목포-광주 간 자동차 도로 개통과, 이듬해 나주와 송정리 간의 철도가 개설됨에 따라 선객이 감소하게 되자 기선 1척으로 격일 발착해 오다 이마저 폐지되었다. 그 후 10여 년간 통선과 어선으로 역행하기도 하였고, 1925년 5월 일본인들이 발동기선 영포환을 취항시키기도 했다. 영포환은 1928년 10월까지 목포-영산포 간 화객을 수송하였으나, 1929년 목영운수(木榮運輸)주식회사(영산포 소재)로 넘어갔다.¹⁸⁾

한편, 영암-해창까지의 평수 항로는 1907년 7월에, 해남 공세포까지는 1911년에, 영암 서창까지는 1913년에, 해남 별암까지는 역시 1913년에 옥치(玉置) 회조점에 의해 각각 항로가 개설되었다가 소유권의 부침이 거듭되었다.

18) 목포시, 앞의 책, 313~317쪽.

2. 해방부터 현재까지

1) 선박 입출항 실적

해방 후 목포항의 선박 입출항 현황을 밝혀줄만한 자료는 6·25전쟁기부터 2015년까지의 실적을 비교적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은행목포지점이 발간한 『목포항산업발달사』이다. 이 책에 따르면, 1951년 목포항에는 입항 7153척, 14만 9921톤, 출항 8591척, 20만 9272톤 등 총 1만 5744척, 35만 9193톤의 선박이 입출항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로 1952년 1만 1083척, 44만 8182톤, 1953년 9481척, 64만 6090톤, 1954년 6046척, 18만 4503톤으로 척수는 꾸준히 감소한 데 반해, 톤수는 1951~1953년까지 늘어났다가 1954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24년 2월 목포 연안의 다도해에 거주하는 한국인 569명이 자본금 15만 원으로 설립한 남일운수는 창립 당시에는 기선 1척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일제의 조선인 해운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이해와 다도해 주민들의 협력을 얻어 해방 직전에는 기선 6척을 운항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주 항로는 목포를 중심으로 안창, 기좌, 팔금, 암태, 자은, 당두, 비금, 도초 등의 다도해의 섬 사이를 운항하였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연료유의 부족과 소유 선박의 징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하였다. 특히 징발된 선박 중 1척(100톤)은 침몰되었고, 잔여 선박도 수리 불능으로 노후화되어 존속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자본금을 300만 원으로 증자하여 파손된 선박을 수리하고 기선 7척으로 점차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듯 했다. 하지만 6·25전쟁의 발발로 기선 4척이 폭격으로 파손되어 남일운수는 치명타를 받았다. 9·28 서울 수복 후 주주와 도민의 절대적인 협력으로 3년간에 걸쳐 파손된 선박을 수리하여 1955년 당시 7척의 선박을 운항하였다.¹⁹⁾

표 10 선박 입출항 실적, 1951~1954년

연도	입항		출항		합계	
	척	톤	척	톤	척	톤
1951	7153	14만 9921	8591	20만 9272	1만 5744	35만 9193
1952	6131	23만 0580	4952	21만 7602	1만 1083	44만 8182
1953	4710	31만 4909	4771	33만 1181	9481	64만 6090
1954	3733	11만 2207	2313	7만 3296	6046	18만 4503

출전: 한국은행목포지점, 『목포항산업발달사』, 1956, 28~29쪽; 목포시, 『목포시사』사회·산업편, 1990, 329쪽.

19) 교통부 해운국, 『해운십년약사』, 1955, 370쪽.

표 11 1955년 당시 남일운수 운항 항로

선박	남신희	남영호 남대호	남국호	남일호	남경호	남정호
항로	목포-흑산	목포-비금	목포-하의	목포-자은	목포-지도-해제	예비선

출전: 교통부 해운국, 『해운십년약사』, 1955, 371쪽.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에는 외항선 96척, 22만 4991CT, 연안선 9697척, 43만 436CT 등 9793척, 65만 5427CT이었던 목포항의 선박 입항 실적은 1차 경제개발계획이 완료된 1966년에는 외항선 114척, 12만 8984CT, 연안선 1만 2311척, 77만 874CT 등 1만 2425척, 89만 9858CT로 척수는 1.2배, 톤수는 1.37배 각각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외항선은 1962년 96척, 22만 4991CT에서 1966년 114척, 12만 8984CT로 3/5(톤수)으로 감소한 데 반해, 연안선은 1962년 9,697척, 43만 436CT에서 1966년 1만 2311척, 77만 874CT로 척수는 1.2배, 톤수는 1.8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이었던 1967년에서 1971년 기간의 입항 실적은 외항선 111척, 14만 6832CT, 연안선 1만 4246척, 84만 8658CT 등 14357척, 99만 5490CT에서 외항선 137척, 39만 7279CT, 연안선 3873척, 27만 1910CT 등 4010척, 66만 9180CT로, 척수는 1/3, 톤수는 2/3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간 동안 연안선 입항 실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데 반해, 외항선은 척수는 비록 등락이 있었지만, 톤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1971년에는 외항선의 입항 톤수가 연안선의 입항 톤수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에는 1972년 외항선 99척, 33만 933CT, 연안선 4492척, 23만 8978CT 등 4591척, 56만 9911CT의 선박이 입항했던 데서 1976년 외항선 147척, 24만 8348CT, 연안선 5761척, 41만 515CT 등 5908척, 65만 8863CT이 입항하여 척수와 톤수 모두 약간 증가하였다. 1972년에는 외항선 입항 톤수가 연안선보다 10만여 톤이 많았지만, 이후 다시 연안선의 입항 톤수가 외항선을 추월하여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그 추세가 지속되었다.

표 12 목포항 선박 입항 실적, 1958~1979년

연도	외항선		연안선		합계	
	척	선박톤수(CT)	척	선박톤수(CT)	척	선박톤수(CT)
1958	65	200,425	726	74,324	791	274,749
1959	105	117,644	833	95,942	938	213,586
1960	79	155,566	736	71,809	815	227,375
1961	74	162,525	1,098	85,802	1,172	248,327
1962	96	224,991	9,697	430,436	9,793	655,427
1963	106	232,106	11,221	551,144	11,327	783,250
1964	87	158,701	13,688	703,528	13,775	862,229
1965	59	172,030	11,570	901,493	11,629	1,073,523
1966	114	128,984	12,311	770,874	12,425	899,858
1967	111	146,832	14,246	848,658	14,357	995,490
1968	176	248,127	6,625	296,477	6,801	544,604
1969	168	244,359	6,774	353,317	6,942	597,676
1970	151	141,263	5,282	299,505	5,433	440,768
1971	137	397,270	3,873	271,910	4,010	669,180
1972	99	330,933	4,492	238,978	4,591	569,911
1973	105	228,352	4,754	305,878	4,859	534,230
1974	136	159,428	4,544	321,098	4,680	480,526
1975	132	249,656	4,513	291,657	4,645	541,313
1976	147	248,348	5,761	410,515	5,908	658,863
1977	139	308,475	6,702	494,195	6,841	802,670
1978	121	233,400	8,915	750,253	9,036	983,653
1979	137	343,769	9,715	843,962	9,852	1,187,731

출전: 교통통계연보, 『해운항만통계연보』; 목포시, 『목포시사』, 사회·산업편, 1990, 330쪽.

1980년대에는 입항과 출항 실적을 각각 구분한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입항 실적에서는 1980년 8922척, 129만 5000GT가 입항하였으나 1985년 8803척, 164만 6000GT의 선박이 입항하였고, 1989년 1만 1261척, 214만 총 톤의 선박이 입항하였다. 출항 실적에서는 1980년 8432척, 130만 총 톤, 1985년 1만 2265척, 167만 8천 총 톤, 1989년 1만 1382척, 216만 7천 총 톤이 각각 출항하였다. 1980년대 10년 동안 입항과 출항 실적 모두 1.6배 가량 증가하였다.

1990년대도 이따금 등락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항 실적은 1990년 외항선 172척, 117만 8천 총 톤, 외항선 1만 2164척, 162만 총 톤 등 1만 2336척, 279만 8천 총 톤에서 1999년 외항선 345척, 225만 8천 총 톤, 연안선 7013척, 314만 6천 총 톤 등 7358

표 13 목포항의 선박 입출항 실적, 1980~1989년

(단위: 척, GT)

	연도	외항선		연안선		합계	
		척	선박톤수	척	선박톤수	척	선박톤수
입항	1980	101	36만 7000	8821	92만 7000	8922	129만 5000
	1981	115	29만 9000	9091	97만 7000	9206	127만 6000
	1982	141	36만 5000	8125	91만 6000	8266	128만 2000
	1983	109	56만 8000	8230	104만 5000	8339	161만 4000
	1984	132	61만 8000	8185	97만 2000	8317	159만 0000
	1985	165	70만 6000	8638	94만 1000	8803	164만 6000
	1986	152	90만 7000	9395	104만 3000	9547	194만 9000
	1987	132	84만 3000	9227	107만 1000	9359	191만 4000
	1988	102	69만 5000	1만 0317	113만 3000	1만 0419	182만 8000
	1989	127	80만 6000	1만 1134	134만 4000	1만 1261	214만 0000
출항	1980	127	39만 4000	8699	90만 6000	8432	130만 0000
	1981	128	29만 9000	8724	96만 3000	9629	126만 1000
	1982	153	33만 4000	7920	88만 8000	9229	122만 2000
	1983	108	54만 5000	8115	104만 6000	1만 0232	159만 1000
	1984	129	62만 4000	7856	93만 9000	1만 1382	156만 3000
	1985	166	69만 9000	8266	98만 0000	1만 2265	167만 8000
	1986	151	89만 1000	9478	103만 3000	1만 2445	192만 4000
	1987	133	84만 3000	9096	105만 0000	9582	189만 2000
	1988	102	69만 4000	1만 0130	111만 8000	1만 0232	181만 2000
	1989	128	78만 2000	1만 1254	138만 5000	1만 1382	216만 7000

주: 척, 톤 수는 천 단위에서 절사함.

출전: 척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통계요람 2004』, 2004, 282~283쪽.

척, 540만 총 톤으로 증가하였고, 출항 실적도 1990년 외항선 171척, 119만 9천 총 톤, 연안선 1만 2094척, 159만 7천 총 톤 등 1만 2265척, 279만 7천 총 톤에서 1999년 354척, 291만 2천 총 톤, 연안선 7002척, 313만 5천 총 톤 등 7356척, 604만 8천 총 톤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선박 입출항 실적이 1천만 총 톤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입항 실적에서는 2000년 외항선 366척, 252만 총 톤, 연안선 8752척, 399만 총 톤 등 총 9188척, 650만 총 톤의 선박이 입항하였고, 2002년 1만 2159척, 1259만 6천 총 톤을 돌파하여 처음으로 입항 선박 1천만 총 톤을 돌파하였다. 2010년에는 8822척, 3478만 총 톤의 선박이 입항하였고, 2015년에는 9481척, 4113만 총 톤이 입항하였다. 출항실적에서는 2000년 9129척, 661만 총 톤이 출항하였고, 2002년

표 14 목포항의 선박 입출항 실적, 1990~1999년

(단위: 척, GT)

연도	외항선		연안선		합계		
	척	선박톤수	척	선박톤수	척	선박톤수	
입항	1990	172	117만 8000	1만 2164	162만 0000	1만 2336	279만 8000
	1991	166	118만 7000	1만 2291	174만 4000	1만 2457	293만 1000
	1992	181	124만 2000	9377	136만 9000	9558	261만 2000
	1993	617	125만 2000	3318	124만 3000	3935	249만 5000
	1994	281	137만 7000	4104	130만 0000	4385	267만 7000
	1995	396	314만 4000	5542	197만 4000	5938	511만 8000
	1996	393	273만 0000	5321	224만 4000	5714	497만 4000
	1997	421	230만 1000	5434	299만 1000	5855	529만 2000
	1998	323	177만 8000	5792	312만 1000	6116	489만 9000
	1999	345	225만 8000	7013	314만 6000	7358	540만 4000
출항	1990	171	119만 9000	1만 2094	159만 7000	1만 2265	279만 7000
	1991	162	114만 8000	1만 2283	174만 0000	1만 2445	288만 7000
	1992	188	116만 9000	9394	135만 3000	9582	252만 2000
	1993	615	195만 7000	3245	106만 2000	3860	302만 2000
	1994	275	136만 0000	4051	129만 7000	4326	264만 7000
	1995	401	313만 4000	5513	196만 4000	5914	509만 8000
	1996	402	299만 0000	5252	219만 1000	5654	518만 1000
	1997	444	322만 8000	5401	295만 0000	5845	617만 8000
	1998	347	241만 9000	5769	312만 8000	6116	554만 7000
	1999	354	291만 2000	7002	313만 5000	7356	604만 8000

주: 척, 톤수는 천 단위에서 절사함.

출전: 척·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통계편람 2004』, 2004, 282~283쪽.

에 1만 1986척, 1372만 총 톤이 출항하여 목포항 출항실적 사상 처음으로 1천만 총 톤을 돌파하였다. 2010년에는 8835척, 3562만 총 톤이 2015년에는 9559척, 4487만 총 톤의 선박이 각각 출항하였다.

목포항의 무역항으로서의 지위를 비교해 보면, 선박 입출항 실적을 기준으로 목포항은 정제 내지는 발전이 매우 더딘 항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우리나라 무역항에는 총 8만 4358척, 9억 7321만 총 톤의 선박이 입출항하였는데, 당시 목포항에는 797척, 627만 총 톤의 외항선이 입항하여 전체 입출항 선박 톤수의 0.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2000년에는 우리나라 무역항 입출항 선박 14억 9322만 총 톤 중 516만 총 톤이 목포항에 입출항하여 0.3%를 차지하였고, 2005년에는 전체 20억 1577만 총 톤 중 4019만 총 톤이 목포항에 입출항하여 2%, 2010년에는 전체 27억 1651만 총 톤 중 4756만 총 톤 1.8%, 2015년에는 전체 35억 5335만 총 톤 중 5305만 총 톤이 목포항에 입출항하여 1.5%를 차지하였다.

표 15 목포항의 선박 입출항 실적, 2000~2015년

(단위: 척, GT)

	연도	외항선		연안선		합계	
		척	선박톤수	척	선박톤수	척	선박톤수
입항	2000	366	252만 6000	8752	397만 7000	9118	650만 3000
	2001	363	310만 4000	1만 1379	507만 3000	1만 1742	817만 7000
	2002	512	623만 3000	1만 1647	636만 3000	1만 2159	1259만 6000
	2003	549	610만 5000	1만 0269	598만 5000	1만 0818	1209만 0000
	2004	666	721만 1000	9296	522만 3000	9962	1243만 4000
	2005	1230	1995만 1000	8130	558만 3000	9360	2553만 4000
	2006	1337	2218만 3000	8251	633만 8000	9588	2852만 1000
	2007	1463	2060만 1000	7923	773만 7000	9386	2833만 7000
	2008	1546	1778만 5000	7628	821만 8000	9174	2600만 3000
	2009	1030	1548만 1000	8641	1149만 0000	9671	2967만 1000
	2010	1189	2205만 2000	7633	1272만 9000	8822	3478만 1000
	2011	1077	1930만 6000	7677	1542만 2000	8754	3472만 9000
	2012	993	2188만 6000	8187	1133만 5000	9180	3322만 1000
	2013	939	2821만 5000	8657	1177만 4000	9596	3999만 0000
	2014	942	2643만 0000	8623	1365만 9000	9565	4008만 8000
출항	2000	370	264만 0000	8759	397만 7000	9129	661만 7000
	2001	376	401만 0000	1만 1610	529만 1000	1만 1986	930만 1000
	2002	523	736만 2000	1만 1620	636만 6000	1만 2143	1372만 8000
	2003	559	738만 2000	1만 0271	598만 4000	1만 0830	1336만 6000
	2004	680	836만 3000	9287	521만 4000	9967	1357만 8000
	2005	1226	2024만 6000	8120	535만 5000	9346	2560만 1000
	2006	1341	2311만 0000	8247	632만 0000	9588	2942만 9000
	2007	1491	2209만 8000	7894	767만 4000	9385	2977만 2000
	2008	1601	2078만 9000	7650	829만 4000	9251	2908만 3000
	2009	1086	1906만 3000	8587	882만 7000	9673	2789만 0000
	2010	1234	2550만 9000	7601	1012만 0000	8835	3562만 8000
	2011	1120	2386만 2000	7654	1224만 7000	8774	3611만 0000
	2012	1042	2512만 8000	8189	1135만 6000	9231	3648만 4000
	2013	983	3086만 9000	8655	1181만 6000	9638	4268만 5000
	2014	972	2939만 2000	8620	1364만 1000	9592	4303만 3000
	2015	969	2833만 5000	8590	1653만 5000	9559	4487만 1000

주: 척, 톤수는 천 단위에서 절사함.

출전: 2000~2014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통계요람 2015』, 2015, 274~275쪽, 2015년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www.spid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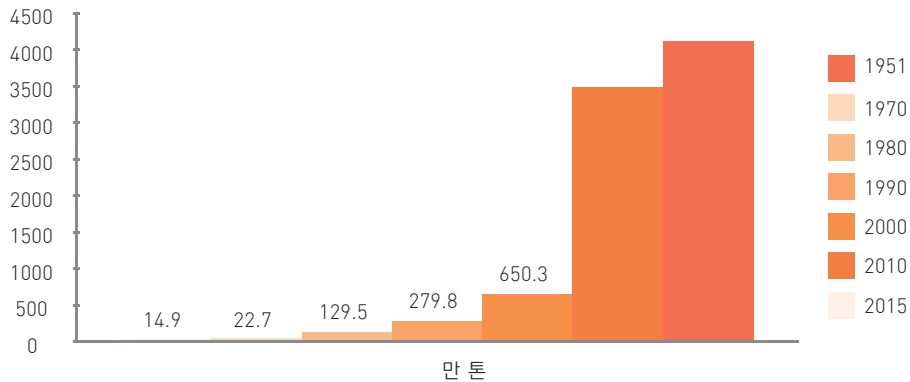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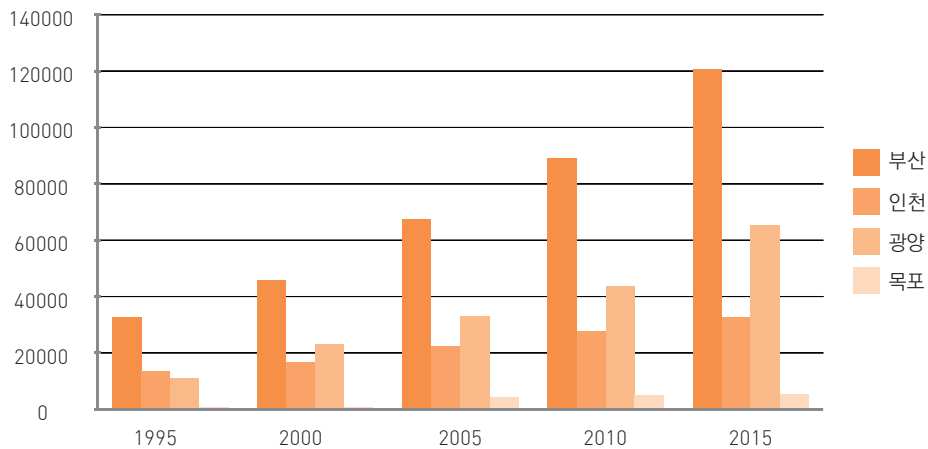


표 16 주요 항만과 목포항의 선박 입출항 실적, 1995~2015년

(단위: 척, 1,000GT)

연도	부산		인천		광양		목포		전국 합계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1995	3654만 7	3억 2762만 6	1082만 6	1억 3467만 9	733만 0	1억 1072만 0	79만 7	627만 8	8435만 8	9억 7321만 3
1996	3864만 7	3억 5504만 9	1183만 1	1억 4883만 3	821만 1	1억 2116만 4	79만 5	572만 1	9164만 4	10억 7976만 2
1997	3803만 4	3억 7830만 4	1218만 5	1억 6348만 4	845만 2	1억 2958만 8	86만 5	552만 9	9522만 6	11억 6253만 7
1998	3879만 5	3억 9399만 0	1082만 0	1억 4648만 7	933만 0	1억 4284만 8	67만 1	419만 7	9541만 0	11억 8170만 1
1999	4120만 1	4억 2410만 1	1279만 8	1억 7937만 0	1303만 1	2억 0184만 8	69만 9	517만 0	1억 0994만 4	13억 8476만 4
2000	4196만 5	4억 5603만 4	1357만 7	1억 9543만 3	1524만 1	2억 2917만 3	73만 6	516만 6	1억 1664만 4	14억 9322만 3
2001	4669만 2	5억 0770만 0	1308만 8	1억 8458만 7	1484만 8	2억 3092만 9	73만 9	711만 4	1억 2282만 7	15억 4653만 4
2002	5230만 8	5억 4859만 9	1484만 3	1억 9504만 9	1553만 5	2억 5000만 6	103만 5	1359만 5	1억 3409만 2	16억 4788만 8
2003	5456만 6	5억 8958만 0	1596만 8	1억 9904만 2	1666만 5	2억 7460만 5	110만 8	1348만 7	1억 4158만 3	17억 2318만 2
2004	5573만 7	6억 2426만 1	1738만 5	2억 0393만 8	1786만 8	3억 0243만 7	134만 6	1557만 4	1억 4964만 3	18억 5441만 9
2005	5561만 4	6억 7488만 1	1829만 2	2억 2245만 4	1903만 4	3억 2969만 7	245만 6	4019만 7	1억 5470만 0	20억 1577만 2
2006	5406만 0	6억 9002만 8	1914만 0	2억 3067만 2	2032만 3	3억 6213만 0	267만 8	4529만 2	1억 5739만 8	21억 0278만 2
2007	5747만 7	7억 4638만 3	2004만 1	2억 4293만 3	2058만 5	3억 8625만 3	295만 4	4269만 9	1억 6578만 9	22억 5107만 7
2008	5705만 9	7억 7985만 3	1923만 8	2억 4592만 9	2063만 7	4억 1331만 2	314만 7	3857만 3	1억 6602만 0	23억 6667만 3
2009	5216만 3	8억 1017만 9	1743만 9	2억 4156만 8	1944만 5	3억 9647만 1	211만 6	3454만 4	1억 5575만 8	23억 9825만 5
2010	5578만 4	8억 8988만 7	1804만 3	2억 7463만 4	2088만 2	4억 3614만 9	242만 3	4756만 0	1억 6474만 5	27억 1651만 6
2011	5588만 2	9억 8721만 8	1676만 7	2억 7358만 6	2242만 0	4억 8925만 5	219만 7	4316만 8	1억 6713만 1	29억 6202만 6
2012	5666만 4	10억 2093만 9	1578만 8	2억 7648만 0	2369만 1	5억 3120만 7	203만 5	4701만 4	1억 6938만 9	31억 1550만 4
2013	5561만 9	10억 8962만 0	1580만 4	2억 9460만 5	2346만 6	5억 5313만 4	192만 2	5908만 5	1억 6659만 1	32억 3375만 3
2014	5226만 1	10억 6640만 8	1510만 6	3억 0126만 9	2355만 5	6억 0981만 7	191만 4	5582만 2	1억 6139만 7	3,299,582
2015	5411만 6	12억 0578만 7	1649만 9	3억 2668만 9	2516만 3	6억 5101만 5	189만 3	5305만 0	1억 6656만 0	3,553,358

자료: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http://www.spidc.go.kr/>, 2016. 9. 30.).



2) 화물 하역 실적

목포항의 화물 하역 실적도 입출항 선박의 등락에 따라 오르내렸다. 교통부의 『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1958년 외항선 17만 8812MT, 연안선 3만 5335MT 등 21만 4147MT이었던 목포항의 화물 하역 실적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1962년 26만 3653MT에서 1966년 20만 4080MT으로 정체 내지 후퇴 양상을 보였고,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1967년 30만 3783MT에서 1971년 30만 3783MT으로 역시 이전 기간과 비슷하게 정체 양상을 보였다. 제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1972년 31만 9986MT에서 1976년 30만 5628MT으로 역시 이렇다 할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다.

1979년부터는 입항 화물과 출항 화물을 각각 분리하여 통계를 집계하였는데, 그 첫해인 1979년에 입항 화물 73만 7천톤과 출항 화물 19만 9천톤 등 93만 6천톤으로 1978년의 53만 8331톤에서 1.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포항의 항세를 감안하면 실제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기보다는 입항 화물과 출항 화물 등으로 분리하여 집계한 것과 통계에서 누락된 일부 연안 화물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목포항의 화물 처리실적은 1980년 117만 8천톤으로 1백만톤으로 돌파한 이래 1982년에 87만 6천톤으로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1백만톤을 상회하였고, 1990년에는 210만 8천톤으로 2백만톤을 돌파하였다.

표 17 목포항의 화물 하역 실적, 1958~1978년

연도	외항선	연안선	합계
	화물(MT)	화물(MT)	화물(MT)
1958	17만 8812	3만 5335	21만 4147
1959	10만 1790	3만 2538	13만 4328
1960	9만 2242	3만 1128	12만 3370
1961	11만 7016	3만 7200	15만 4216
1962	16만 5887	9만 7766	26만 3653
1963	19만 5052	9만 1572	28만 6624
1964	11만 6123	8만 1848	19만 7971
1965	12만 5931	7만 9690	20만 5621
1966	8만 4279	11만 9801	20만 4080
1967	12만 2930	18만 1053	30만 3983
1968	14만 9453	15만 7871	30만 7324
1969	17만 4255	19만 4170	36만 8425
1970	5만 6040	18만 7650	24만 3690
1971	16만 8376	13만 5412	30만 3788
1972	21만 2683	10만 7303	31만 9986
1973	19만 2414	12만 1104	31만 3518
1974	15만 6578	13만 7511	29만 4089
1975	23만 9785	13만 4295	37만 4080
1976	16만 3823	14만 1809	30만 5628
1977	21만 9208	21만 8107	43만 7315
1978	22만 9893	30만 8438	53만 8331

출전: 『교통통계연보』; 『해운통계연보』; 목포시, 『목포시사』사회산업편, 1990, 330쪽.

1995~2000년까지 목포항의 하역 취급 실적은 300만RT에서 600만RT으로 점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외항선 입항 실적 99만 7천RT와 출항 4만 8천RT, 연안화물 263만 3천RT 등 367만 8천RT의 화물이 처리되었고, 1996년 446만RT, 1997년 541만RT, 2000년 647만 9천RT를 각각 처리하였다.

2000년대 들어 목포항의 화물 처리 실적은 2004년 목포신항의 개항에 따라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2001년 678만RT이었던 목포항의 화물 처리 실적은 2005년 759만 4천RT과 2006년 897만 8천RT으로 각각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1420만RT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만RT대로 진입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016만RT으로 2천만RT 대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상의 화물 처리실적 추이를 기준으로 할 때 목포항의 발전에 2004년 목포신항의 개장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목포항의 화물 처리 실적, 1979~1994년

(단위: RT)

연도	입항	출항	합계
1979	737,000	199,000	936,000
1980	920,000	258,000	1,178,000
1981	911,000	129,000	1,040,000
1982	740,000	136,000	876,000
1983	1,044,000	126,000	1,170,000
1984	936,000	140,000	1,076,000
1985	1,063,000	119,000	1,182,000
1986	1,389,000	142,000	1,531,000
1987	1,383,000	124,000	1,507,000
1988	1,331,000	178,000	1,509,000
1989	1,364,000	183,000	1,547,000
1990	1,925,000	183,000	2,108,000
1991	2,241,000	209,000	2,450,000
1992	1,914,000	196,000	2,110,000
1993	1,806,000	129,000	1,935,000
1994	2,265,000	138,000	2,403,000

출전: 해운산업연구원, 『해운통계요람 1995』, 1995, 64~65쪽.

표 19 목포항의 하역 취급 실적, 1995~2000년

(단위: 1000RT)

연도	입항	출항	연안화물*	합계
1995	997	48	2,633	3,678
1996	1,344	78	3,038	4,460
1997	1,214	117	4,088	5,419
1998	878	174	3,701	4,753
1999	1,077	193	4,647	5,917
2000	1,228	257	4,994	6,479

주: 연안화물은 입항과 출항 합계임.

자료: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http://www.spidc.go.kr/>, 2016. 12. 5.).

표 20 목포항의 화물 처리 실적, 2001~2015년

(단위: RT)

연도	입항	출항	합계
2001	599만 4000	79만 4000	678만 8000
2002	719만 1000	108만 4000	827만 5000
2003	606만 7000	87만 8000	694만 5000
2004	524만 5000	101만 7000	626만 2000

연도	입항	출항	합계
2005	545만 2000	214만 2000	759만 4000
2006	605만 5000	292만 3000	897만 8000
2007	803만 2000	617만 1000	1420만 3000
2008	991만 0000	459만 9000	1450만 9000
2009	939만 8000	565만 8000	1505만 6000
2010	921만 3000	717만 6000	1638만 9000
2011	860만 1000	921만 8000	1781만 9000
2012	776만 1000	910만 7000	1686만 8000
2013	918만 2000	1098만 3000	2016만 5000
2014	984만 8000	1314만 9000	2299만 7000
2015	957만 1000	1289만 5000	2246만 6000

출전: 2001~2014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통계요람』, 2014, 146~149쪽; 2015, 110~113쪽.
 자료: 2015년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http://www.spidc.go.kr>).

목포항의 각 하역 업체의 하역 수입은 한국항만물류협회가 회원사의 수입을 집계하고는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994~1996년의 목포항의 하역 수입은 목포해양대 김형근 교수의 연구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94년 369만 2천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총 91억 5200만 원의 하역 수입을 올렸고, 1995년 395만 2천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103억 2900만 원, 1996년 426만 5천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115억 46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목포항만물류협회가 자체 집계한 회원사는 2000년 8개사, 2005년 17개사, 2010년 23개사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하역 물량과 하역 수입은 2000년 417만톤, 107억 원, 2005년 683만톤, 159억 원, 2010년 884만톤, 197억 원, 2015년 986만톤, 354억 원으로 물량과 하역수입 모두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각 업체의 평균수입은 회원사의 수의 증가세에 비해 하역 물량과 하역 수입의 증가세가 따라가지 못해 등락세를 거듭하였다가 201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0년 13억 원이던 업체당 평균 하역 수입은 2005년 9억 원, 2010년 8억 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가 2011년 10억 원대를 회복하여 2015년에는 1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목포항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품목별 화물처리 실적이다. 2004년 목포신항이 운영되기 전인 2001~2003년 목포항의 총 화물처리 실적은 650~797만RT 사이였고, 이 중 모래 > 석유 정제품 > 시멘트 > 철강 및 제품 순이었고, 이들 4대 화물이 목포항 처리화물의 65%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 목포신항이 개장되면서 목포항의 주 화물은 차량 및 부품/철강 및 제품 > 모래 > 시멘트 순으로 재편되었다. 이들 4대 화물이 목포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상이었다. 목포신항이 개장한 2004년에는 차량 및 부품 573만RT(51%), 시멘트 103만RT(9.2%), 모래 79만

표 21 목포항의 하역 물량 및 하역 수입, 1994~1996년

구분	하역물량(1000톤)(하역수입(100만원))					
	1994	1995	1996	1994	1995	1996
전체 항만	3억 2269만 7(4202억 70)	3억 6812만 8(4748억 96)	4억 0299만 5(5209억 99)	5억 3938만 4(5468억 86)	6억 4450만 1(6516억 35)	7억 1758만 3(7257억 81)
목포	366만 2(36억 92)	393만 0(39억 52)	421만 4(42억 65)	914만 6(91억 52)	1033만 2(103억 29)	1153만 2(115억 46)

주: () 안의 수치는 원유와 화학제품 등을 포함한 것임.

출전: 김형근, 「목포항이 목포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25, 한국해운학회, 1997, 120~121쪽.

RT(7%) 등 총 1,118만RT의 화물이 처리되었고, 2007년에는 철강 및 제품이 404만RT(29%), 차량 및 부품 369만RT(26.6%), 모래 160만RT(11.6%), 시멘트 157만RT(11.3%) 등 총 1,387만RT의 화물이 처리되었다. 2010년에는 처음으로 1550만톤대로 진입했는데, 철강 및 제품 538만RT(34.6%), 차량 및 부품 468만RT(30%), 모래 128만RT(8.2%) 등 총 1554만RT의 화물이 목포항에서 처리되었다. 2015년에는 차량 및 부품 1032만RT(47.8%), 철강 및 제품 591만RT(27.4%), 모래 101만RT(4.6%) 등 총 2158만RT의 화물이 처리되었다.

표 22 목포항만물류협회 회원사의 하역 실적 및 수입 실적, 2000~2015년

연도	회원사 수	하역물량(톤)	하역수입(만원)	평균수입(만원)
2000	8	417만 5914	107억 5749만	13억 4468만
2001	10	398만 1491	105억 4052만	10억 5405만
2002	10	458만 4180	130억 8752만	13억 0875만
2003	11	537만 1773	143억 5706만	13억 0518만
2004	15	593만 9057	142억 8209만	9억 5213만
2005	17	683만 0094	159억 0871만	9억 3580만
2006	19	740만 4013	162억 1024만	8억 5317만
2007	20	817만 8545	179억 5359만	8억 9767만
2008	17	820만 2838	198억 2567만	11억 1662만
2009	23	789만 2077	182억 6553만	7억 9415만
2010	23	884만 5603	197억 5162만	8억 5876만
2011	23	977만 5246	240억 3634만	10억 4505만
2012	22	1035만 3878	228억 3459만	10억 3793만
2013	22	1032만 8142	253억 2959만	11억 5135만
2014	23	1008만 3229	327억 0725만	14억 2205만
2015	23	986만 0114	354억 5652만	15억 4158만

자료: 목포항만물류협회 자체 집계치(2015년 12월 5일).

표 23 목포항 품목별 화물처리실적, 2001~2015년

(단위: 1000RT)

	시멘트	모래	기타광석및생산물	석유 정제품	철강 및 제품	차량 및 부품	기타	합계
2001	85만 9	181만 2	56만 6	93만 8	74만 8	5만 6	180만 9	678만 8
2002	87만 3	296만 5	50만 9	108만 8	84만 1	5만 1	164만 8	797만 5
2003	108만 4	148만 2	25만 4	101만 3	80만 6	18만 9	177만 1	659만 9
2004	103만 7	79만 5	19만 8	94만 2	91만 2	573만 0	156만 7	1118만 1
2005	97만 5	115만 3	34만 9	95만 8	90만 8	147만 8	157만 1	739만 2
2006	143만 0	134만 5	12만 3	93만 3	147만 4	183만 4	159만 7	873만 6
2007	157만 6	160만 3	27만 5	91만 7	404만 1	369만 0	177만 5	1387만 7
2008	130만 1	232만 2	30만 7	84만 9	535만 1	218만 3	175만 8	1407만 1
2009	122만 5	165만 7	56만 7	93만 0	528만 1	329만 2	160만 8	1456만 0
2010	96만 6	128만 3	54만 1	94만 0	538만 0	468만 5	175만 4	1554만 9
2011	91만 2	112만 1	43만 2	88만 2	579만 3	581만 0	201만 9	1696만 9
2012	109만 6	134만 5	48만 2	91만 9	419만 6	605만 4	189만 7	1598만 9
2013	106만 4	138만 0	43만 8	94만 2	384만 9	980만 6	187만 9	1935만 8
2014	102만 6	136만 9	32만 7	91만 2	573만 4	1027만 9	247만 3	2212만 0
2015	96만 4	101만 3	82만 9	93만 4	591만 9	1032만 7	160만 3	2158만 9

출전: 목포시·목포신항만·한국항만경제학회·목포해양대학교, 「2016 목포신항만 발전전략 세미나」, 2016, 64쪽.

자료: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http://www.spidc.go.kr/>).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컨테이너화물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을 때에도 목포항은 컨테이너 화물과는 거리가 먼 시멘트와 모래 등의 재래 화물이 주종을 이뤘다. 목포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이 처리된 것은 2002년이 처음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2년 6만 2천TEU가 처리된 것을 시작으로 목포항에서는 2012년 10만 5천TEU, 2015년 13만TEU의 컨테이너 화물이 처리되었다.

3) 여객 이용 실적

목포항은 남서해안의 산재한 도서지방을 잇는 연안 여객업의 중심 항만이다. 목포항 이용 여객 수는 1953년 승선 27만 5491명과 하선 30만 921명 등 57만 6412명에서 1954년 승선 24만 5907명과 하선 36만 8203명 등 총 61만 4110명으로 증가하였다. 1960년대~1970년대에도 목포항 이용 여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69년 승하선 합계 165만 263명이던 목포항 연안 여객 수는 1972년 승선 104만 명, 하선 104만 명 등 20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가 1973~1976년도 사이에 117만 명~165만 명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1977년 225만 명, 1979년 218만 명으로 다시 200만 명대를 회복

표 24 목포항 컨테이너 물동량, 2001~2015년

(단위: 1000 TEU)

	부산	인천	광양	평택/당진	목포	국내 전체
2001	807만 2.0	66만 3.0	88만 7.0	2만 1.0	-	999만 0.1
2002	945만 3.4	76만 9.8	112만 5.5	6만 6.0	6만 2.7	1188만 9.8
2003	1040만 7.8	82만 1.0	123만 5.3	15만 2.0	7만 9.8	1318만 5.8
2004	1149만 2.0	93만 5.0	134만 8.5	19만 0.0	7만 6.9	1452만 3.1
2005	1184만 3.1	114만 8.6	146만 0.9	22만 7.6	6만 3.5	1521만 6.4
2006	1229만 0.8	137만 7.0	177만 0.4	26만 0.0	6만 8.4	1596만 4.9
2007	1326만 1.5	166만 3.8	173만 6.9	31만 8.9	7만 7.5	1754만 3.9
2008	1345만 2.8	170만 3.3	182만 2.4	35만 6.0	7만 8.5	1792만 6.7
2009	1198만 0.3	157만 8.0	183만 0.4	37만 7.5	9만 9.9	1634만 1.3
2010	1419만 4.3	190만 2.8	208만 7.9	44만 6.5	8만 1.2	1936만 8.9
2011	1618만 4.7	199만 7.8	208만 5.3	52만 9.5	9만 4.1	2161만 0.5
2012	1704만 6.2	198만 1.9	215만 3.8	51만 7.0	10만 5.9	2255만 0.2
2013	1768만 6.1	216만 0.8	228만 4.8	51만 8.6	9만 1.5	2346만 9.2
2014	1868만 3.3	233만 4.9	233만 8.3	54만 6.3	10만 1.0	2479만 8.2
2015	1946만 8.7	237만 7.0	232만 7.3	56만 5.7	13만 0.3	2568만 0.5

출전: 목포시·목포신항만·한국항만경제학회·목포해양대학교, 「2016 목포신항만 발전전략 세미나」, 2016, 63쪽.

자료: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http://www.spidc.go.kr/>).

하였다. 운임 수입도 이따금 등락을 보이긴 했으나, 조금씩 증가하였다. 1969년 1억 2407만 원이던 것이 1972년 2억 4686만 원, 1974년 3억 8466만 원, 1975년 5억 5756만 원, 1976년 6억 7271만 원, 1978년 11억 3123만 원, 1979년 14억 8810만 원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목포항의 연안 여객이 우리나라 전체 연안 여객 운송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30% 내외에서 1990년에는 40% 내외로 상승하였다. 1990년 목포항의 연안 여객 수는 33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안 여객 이용자 825만 명의 40.5%를 차지하였다. 절대 이용자 수도 1993년 310만 명, 1995년 340만 명, 1997년 384만 명, 1999년 347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안 여객 이용자의 37~40%가 목포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항의 연안 여객 수는 2000~2005년 346만~426만 명으로 전체 연안 여객의 35~38%를 점유하다가 2006년 이후 25% 내외로 급감하였다. 2006년 294만 명(25.3%)으로 급감했다가 이후 이용자 수는 307만 명~395만 명 사이를 오르내렸으나, 목포항의 연안 여객 점유비는 23~25% 내외에 머물렀다. 이는 섬의 인구가 감소한 것과,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도교가 속속 준공되면서 남서해안의 도서를 연결하던 항로가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표 25 여객입출 상황, 1953~1954년

연도	승선	하선	합계
1953	27만 5491	30만 0921	57만 6412
1954	24만 5907	36만 8203	61만 4110

출전: 한국은행목포지점, 『목포항산업발전사』, 1956; 목포시, 『목포시사』사회·산업편, 1990, 328쪽.

표 26 여객 운송 실적

(단위: 명, 1000원)

연도	승선	하선	합계	운임 수입
1969	88만 0637	76만 9626	165만 0263	1만 2407만 7
1970	77만 2,525	83만 2095	160만 4620	1만 2610만 0
1971	84만 1811	94만 4173	178만 5984	1만 5992만 0
1972	104만 3428	104만 2980	208만 6408	2만 4686만 1
1973	18만 0685	113만 7026	131만 7711	9483만 0
1974	59만 5000	58만 4225	117만 9225	3만 8466만 7
1975	74만 6625	74만 6628	149만 3253	5만 5756만 3
1976	82만 8160	82만 8154	165만 6314	6만 7271만 0
1977	117만 5542	96만 1808	213만 7350	7만 7421만 1
1978	112만 9904	112만 9220	225만 9124	11만 3123만 6
1979	109만 4062	109만 4061	218만 8123	14만 8810만 0

출전: 목포시, 『목포시사』사회·산업편, 1990, 328쪽.

표 27 목포항의 전국 연안 여객 운송 점유비, 1973~1979년

연도	전체 항만	목포항	점유비(%)
1973	730만 5985	131만 7711	18.0
1974	666만 8962	117만 9225	17.7
1975	595만 6389	149만 3253	25.1
1976	605만 7332	165만 6314	27.3
1977	679만 1015	213만 7350	31.5
1978	779만 0320	225만 5224	28.9
1979	779만 2471	218만 8123	28.0

출전: 1973~1979년(목포) - 목포시, 『목포통계연보』; 목포시, 『목포시사』사회·산업편, 1990, 328쪽.

1973~1975년(전체항만) - 해운산업연구원, 『해운통계요람 1992』, 1992, 97쪽·93쪽.

1976~1989년(전체항만) - 해운산업연구원, 『해운통계요람 1995』, 1995, 95쪽.

표 28 목포항 연안 여객 수송 실적, 1989~1999년

연도	전체 항만	목포	점유비(%)
1989	904만 4776	319만 1926	35.2
1990	825만 9947	334만 4648	40.4
1991	848만 4682	322만 7480	38.0
1992	873만 2920	329만 5191	37.7
1993	799만 0462	310만 2306	38.8
1994	786만 8700	310만 0899	39.4
1995	870만 2270	342만 1175	39.3
1996	941만 2993	356만 9342	38.2
1997	989만 9066	384만 6433	38.8
1998	827만 7052	335만 1475	40.5
1999	905만 1996	347만 1306	38.3

출전: 1989~1993년(전체 항만) - 해운산업연구원, 『해운통계요람 1995』, 1995, 95쪽.

1989~1993년(목포) - 목포시, 『목포통계연보』, 1994, 133쪽.

1994~1999년 -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통계 2004』.

자료:한국해운조합(<http://www.haewoon.or.kr>).

표 29 목포항 연안 여객 수송 실적, 2000~2015년

연도	전체 항만	목포	점유비(%)
2000	970만 1511	346만 5090	35.7
2001	933만 9923	357만 4698	38.3
2002	945만 9844	360만 0047	38.1
2003	1033만 5588	392만 0842	37.9
2004	1064만 8224	421만 5010	39.6
2005	1109만 9554	426만 4690	38.4
2006	1161만 6654	294만 4221	25.3
2007	1264만 7477	307만 3602	24.3
2008	1412만 7283	355만 9253	25.2
2009	1486만 8404	384만 2334	25.8
2010	1430만 8152	339만 3733	23.7
2011	1426만 6145	353만 4495	24.8
2012	1453만 7867	348만 5893	24.0
2013	1606만 2533	395만 4344	24.6
2014	1427만 1134	361만 4255	25.3
2015	1538만 0931	376만 1182	24.4

출전: 2000~2005년 -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통계 2010』, 한국해운조합(<http://www.haewoon.or.kr>)

2006~2015년 -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통계 2016』, 62쪽.

제2절 등록 선박

1. 개항에서 해방까지

1897년 개항 이후 한 동안 목포항에 등록된 선박은 한 척도 없었다. 이렇다 할 항만 시설이나 항만 관청이 전무했던 탓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목포항에 선박이 등록한 것은 기록상 1914년으로 확인된다. 이 해에 57톤짜리 선박 1척이 목포항에 등록한 이후, 1917년 10척, 289톤, 1923년 23척, 1,035톤, 1928년 54척, 2,405톤이 각각 등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목포항 등록 선박의 평균 톤수는 1916년 25.7톤, 1918년 32.2톤, 1923년 45.2톤으로 조금씩 커져갔다. 총독부 산하 조선우선주식회사가 1917년 진수한 평안환이 1580총 톤이었던 것을 고려하면²⁰⁾ 목포항 등록 선박의 평균 톤수가 50톤 미만이었다는 것은 등록 선박의 대다수가 연안 여객선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30 일제강점기 목포 등록 선박, 1914~1929년

연도	척수	톤수	평균톤수
1914	1	57.38	57.4
1915	2	81.69	40.8
1916	7	180.20	25.7
1917	10	289.56	29.0
1918	12	387.00	32.2
1919	13	414.21	31.8
1920	15	509.79	34.0
1921	15	509.20	33.9
1922	14	430.59	30.7
1923	23	1035.55	45.2
1924	28	1123.56	40.1
1925	37	1680.73	45.4
1926	46	1984.56	43.1
1927	47	2049.55	43.6
1928	54	2405.66	44.5
1929	57	2522.02	44.2

출전: 김정섭 옮김, 『목포부사』(1930), 286쪽; 목포시, 『목포시사』사회·산업편, 316쪽.

20) 김재승, 「1945-1952년까지 우리나라 외항선의 현황」, 『해운물류연구』40, 한국해운물류학회, 2004, 182쪽.

광복 직전 각 항만별 선박 등록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각 항만별 선박 검사측도 업무 통계표가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방 직전 목포항의 선적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교통부 해운국이 펴낸 『해운십년약사』에 따르면, 해방 이전인 1941년 10월부터 1942년 3월까지 6개월간 목포에서 65척, 4548톤의 선박이 검사를 받았고, 4척, 543척의 선박이 적량 측도를 받았으며, 12척의 선박이 신규로 등록하였다(〈표 31〉 참조). 같은 기간 동안 부산에서 37척, 인천에서 43척이 신규로 등록하였다.

표 31 선박 검사측도 업무량, 1941년 10월~1942년 3월

해사사무소*	선박 검사			적량 측도			선박등록사무	등록세 수입(원)
	척	총톤	임검회수	척	톤	임검회수		
부산	131	2만 6710	464	11	778	21	37	1460.1
인천	49	8577	193	26	1만 0112	39	43	782.9
목포	65	4548	201	4	543	14	12	536.5
합계	439	5만 1572	1387	69	1만 3123	101	206	4493.9

주: 합계에는 군산, 진남포, 원산, 신의주, 청진, 나진이 포함됨. * 총독부 교통국 해사와 산하의 각 항만의 사무소.
출전: 교통부 해운국, 『해운십년약사』;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해운발전40년사』, 1984, 263쪽.

2. 해방 이후 현재까지

교통부 해운국이 발간한 『해운십년약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53년까지 9년 동안 부산 16척, 228톤, 인천 80척, 1127톤, 군산 42척, 925톤, 마산 18척, 190톤, 포항 16척, 228톤 등을 신조한 것과 달리 목포에서 신조한 선박의 건조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동안 목포에서는 793척, 333톤의 선박이 수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항만 전체의 수리 실적 1만 9,948척, 1만 83톤의 척수대비 4%, 톤 수 대비 3.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수리 실적이 가장 많았던 항구는 부산(8,979척, 5770톤), 통영(2858척, 1185톤), 포항(2,101척, 710톤), 여수(1611척, 755톤) 등의 순이었고, 목포가 그 뒤를 이었다.²¹⁾ 『해운십년약사』에는 1951년 당시 항만별 50톤 이상의 화물선 재적 현황과 1952년 당시 항만별 정기여객 항로 면허 및 선박량 현황도 집계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51년 당시 목포항에는 기선 22척, 1755톤이 등록되어 있었고, 1952년 당시 정기 여객선사 10개사에 30건의 항로 면허가 발급되어 33척, 1148톤의 여객선이 취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자료에는 1952년 당시 목포항의 정기 여객 운송 업체명이 나타나 있지 않

21) 교통국 해운국, 『해운십년약사』;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해운발전40년사』, 1984, 325~326쪽 〈표 3-5〉과 〈표 3-6〉.

은데, 1956년 한국은행목포지점이 발간한 『목포항산업발전사』에는 1955년 목포항의 정기 여객선 업체로 남일운수, 한양기선, 대한해운공사 목포지점, 조선운수, 명진합명회사, 진도운수, 진도군순항선조합, 완도군순항선조합, 무안군순항선조합, 해남운수, 완도교통, 영암운수, 금양기선 등 13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50톤 이상 화물선의 항만별 재적 현황(1951년 11월 현재)

구분	부산	인천	목포	제주	군산	여수	통영	포항	합계
가선	척 103	37	22	14	6	2	4	4	192
	톤 5만 7864	1만 1025	1755	982	523	122	373	360	7만 3004
범선	척 -	8	-	-	-	-	-	-	8
	톤 -	470	-	-	-	-	-	-	470
합계	척 103	45	22	14	6	2	4	4	200
	톤 5만 7864	1만 1495	1755	982	523	122	373	360	7만 3474

출전: 교통부 해운국, 『해운십년약사』,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해운발전40년사』, 1984, 346쪽 (표 3-24).

표 33 정기여객 항로 취업 면허 및 선박량(1952년 2월 현재)

구분	부산	인천	목포	통영	마산	여수	합계
면허건	21	12	30	17	9	21	110
취항선척	30	13	33	71	9	21	123
총톤수	7813	699	1148	516	318	619	1만 1113
정 원	4635	1165	2266	1723	832	1464	1만 2085
1일간운항해리수	1916	559	1173	778	568	1095	6089
업자수	15	10	18	11	7	15	76
척별 22톤 미만	9	1	10	8		9	37
20~50톤	5	5	17	8	8	9	52
50~100톤	3	6	5		1	3	18
100톤 이상	13	1	1	1			16

출전: 교통부 해운국, 『해운십년약사』,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해운발전40년사』, 1984, 354쪽 (표3-36).

1968년부터 1979년까지는 『목포시사』(1990)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1968년 목포항에는 강선 47척, 4453톤과 목선 37척, 585톤 등 총 84척, 5038톤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후 10여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1970년 강선 72척, 6964톤과 목선 42척, 637톤 등 114척, 7601톤, 1975년 강선 131척, 1만 1207톤과 목선 32척, 459톤 등 163척, 1만 1666톤, 1979년에는

표 34 여객 선박 업체 현황(1955년 6월 현재)

사명	대표	비고	사명	대표	비고
남일운수주식회사	문재철	여객	원도교통사	김천수	
한양기선주식회사	이극작		영암운수주식회사	김학용	
대한해운공사 목포지점	이규동		금양기선합자회사	김봉인	
조선운수주식회사	김윤수		삼아상선주식회사	강선명	화물
명진합명회사	명사봉		한국협동해운주식회사	마성준	화물
진도운수주식회사	한명복		삼성상선주식회사	김생수	화물
진도군순항선조합	진도군수		흥국해운주식회사 목포출장소	문명호	화물
완도군순항선조합	완도군수		국제해운주식회사 목포출장소	이건호	화물
무안군순항선조합	무안군수		조선상선주식회사	김석두	화물
해남운수주식회사	민명일				

출전: 한국은행목포지점, 『목포항산업발전사』, 1956; 목포시, 『목포시사』사회·산업편, 1990, 333쪽.

강선 195척, 1만 8247톤과 목선 42척, 311톤 등 237척, 1만 8558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68년부터 1979년까지 목포항 선적 선박이 척수로는 2.8배, 톤수로는 3.7배 증가한 것이다.

1977년도 목포항 선적 선박 통계와 해운조합 목포지부 조합원 보유 선박량을 비교해 보면, 목포항이 우리나라 연안 해운의 중심 항만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77년 목포항 선적 선박량은 강선 161척, 1만 4605톤과 목선 28척, 160톤 등 총 189척, 1만 4765톤이었는데, 같은 해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조합원의 보유 선박량은 78척, 8703톤이었다. 이는 연안 해운 업자들의 조합인 한국해운조합의 목포지부 회원사가 목포 선적 선박 척수의 41%, 톤수의 6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980~1990년대의 목포항에 등록된 연안선의 현황을 살펴보면, 1985년 말 현재 목포항에는 화물선 16척, 5221톤, 유조선 17척, 329톤 등 총 33척, 5550톤의 연안 화물선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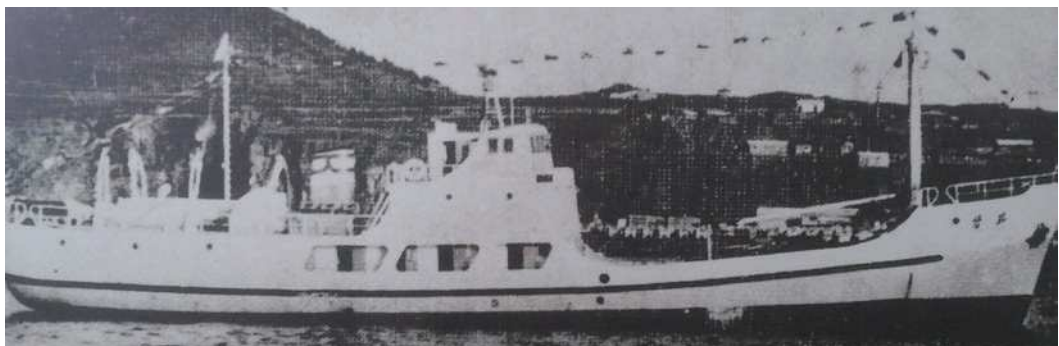


그림 1 1969년부터 목포↔제주 항로에 취항한 삼화호
자료: 제주여객터미널 전시자료 필자 촬영.

표 35 목포항 선적 선박 현황, 1968~1979년

연도	강선														소계	
	객선		화물선		어선		유조선		예인선		관용선		기타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1968	9	1760	1	500	9	1396	16	214			7	94	12	583	47	4453
1969	9	1315	3	1551	24	3033	17	250			7	94	6	584	66	6827
1970	11	1376	3	1551	21	3033	20	276			6	343	8	385	72	6964
1971	14	1825	3	1551	24	3033	28	370			6	343	8	405	83	7527
1972	17	1907	3	1312	24	3060	36	529			6	387	6	257	92	7452
1973	26	3344	3	1312	23	2947	42	664			8	404	6	257	108	8924
1974	30	4308	6	1215	26	3148	38	637	1	21	14	524	6	257	121	1만0130
1975	32	4378	13	2147	27	3209	36	649	1	21	15	542	7	266	131	1만1207
1976	30	4440	17	3011	38	4049	35	587	1	21	18	648	15	716	154	1만3471
1977	28	4197	18	3448	49	5274	38	550	1	20	18	648	9	468	161	1만4605
1978	35	4891	25	4349	43	3797	36	518	1	20	19	698	14	605	173	1만4878
1979	47	5635	28	4367	39	3460	33	492	2	157	20	701	26	3435	195	1만8247

연도	목선															소계	
	객선	화물선						어선				예인선		관용선			
		기선		범선		기선		범선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1968	52	2507	172	4463	128	2085	782	9718	130	1691	7	94			37	585	
1969	50	2453	211	5452	110	1840	889	1만 0948	124	1610	7	94			40	621	
1970	48	2406	239	5544	83	1438	867	1만 1039	82	1084	7	101			42	637	
1971	50	2484	263	5971	78	1373	921	1만 1348	67	894	8	121			48	679	
1972	45	2344	255	5746	55	1030	842	1만 0823	45	633	9	135			52	770	
1973	32	1932	264	5767	42	813	794	1만 0454	42	620	9	149			55	769	
1974	29	1531	255	5580	35	632	739	1만 0077	33	516	8	140	28	480	31	324	
1975	29	1618	279	6211	-	-	606	1만 0253	-	-	9	165	25	440	32	459	
1976	22	1278	216	5766	21	358	656	1만 0258	22	405	12	235	24	408	35	464	
1977	18	1095	184	4164	10	131	692	1만 1064	14	155	12	221	20	350	28	160	
1978	11	690	219	4728	9	114	813	1만 2307	14	155	12	186	20	350	40	307	
1979	9	596	246	5169	9	114	458	6962	-	-	12	186	23	350	42	311	

출전: 목포시, 『목포통계연보』, 1994; 『목포시사』사회·산업편, 1990, 331~332쪽.

표 36 한국해운조합 지부별 조합원 보유 선박량(1977년)

지역	여객선		화물선		화객선		유조선		특수선		기타선		합계	
	척	GT	척	GT	척	GT	척	GT	척	GT	척	GT	척	GT
목포	49	5813	16	2428			-	-	-	-	13	462	78	8703
부산	12	2724	30	1만 4581			42	1만 1059	-	-	39	2426	123	3만 0790
인천	16	1805	6	1508			-	-	-	-	48	2700	70	6013
여수	19	1471	3	615			12	2041	-	-	7	134	41	4261
서울	4	1525	27	2만 0724	1	3875	18	5만 3232	8	5097	8	958	66	8만 5411
합계	127	1만 5680	121	4만 9663	1	3875	76	6만 6989	8	5097	124	7416	457	14만 8720

출전: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연안해상수송실태조사연구』, 1978.;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50년사』, 2012, 186쪽.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연안선 562척, 39만 3978톤의 척수 대비 5.8%, 톤수 대비 1.4%를 각각 차지하는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한국해운조합의 지역별 분포에서 목포항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1982년 당시 한국해운조합의 목포 조합원은 39개사로 이들이 총 109척, 1만 1082톤의 연안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1982년 한국해운조합 조합원 433개사의 9%, 767척의 14%, 27만 5658톤의 4%를 각각 차지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10년 뒤인 1992년에는 한국해운조합 목포 조합원 51개사가 126척, 1만 5322톤의 연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2년에 비해 조합원 수는 12개사, 보유 선박 척수는 17척, 보유 선박 톤수는 4240톤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표 37 연안 화물선 지역별 분포(1985년 말)

지역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합계	
	척	GT	척	GT	척	GT	척	GT
부산	56	5만 7464.91	90	7만 5072.93	69	2만 7336.82	215	15만 9874.66
인천	17	1만 7849.28	21	3만 1934.36	92	2만 7103.74	130	7만 6887.66
여수	3	651.72	32	5만 6650.03	-	-	35	5만 7301.75
포항	32	2만 1791.70	3	2621.86	30	2만 9660.74	65	5만 4074.30
울산	-	-	20	7378.13	2	1만 2165.59	22	1만 9543.72
제주	21	8803.00	-	-	-	-	21	8803.00
목포	16	5221.53	17	329.26	-	-	33	5550.79
마산	13	2683.80	9	873.54	4	1611.94	26	5169.28
동해	9	4781.99	2	298.00	-	-	11	5079.99
군산	-	-	4	1693.24	-	-	4	1693.24
합계	167	11만 9247.93	198	17만 6851.35	197	9만 7878.83	562	2만 6329.3

출전: 해운항만청, 내항과; 해운항만청사 편찬위원회, 『해운항만청사』, 210쪽.

목포 지부가 한국해운조합 전체 회원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합원 수는 7.6%, 보유 척수는 8.1%, 선박 보유톤수는 1.5%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목포항 등록 연안선의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목포항은 연안선 중 여객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하여 화물선 비중이 높은 부산과 서울 등의 조합원 사의 화물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안 여객선의 지역별 분포에서 잘 나타난다. 1995년 각 지역별 연안 여객선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4척, 5만 7023톤의 연안 여객선 가운데 목포항의 연안 여객선이 62척, 6341톤을 차지하여 목포항의 연안 여객선이 전체 척수의 43%, 보유톤수의 11%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목포항이 연안 여객선업의 중심항이라는 사실은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연안여객 운송사업자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6년 목포항의 연안여객 운송 사업자는 18개사가 57척, 1만 6139톤의 선박을 운항하던 데서 2005년 28개사가 69척, 2만 7038톤의 선박을 운항하는 것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남서해안의 도서를 잇는 연륙교가 속속 완공됨에 따라 목포항을 기

표 38 1982년과 1992년 한국해운조합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지역	조합원 수		보유 척 수		보유 총톤수	
	1982	1992	1982	1992	1982	1992
목포	39	51	109	126	1만 1082	1만 5322
부산	127	278	213	633	10만 2324	34만 7938
인천	79	92	134	232	1만 2377	4만 9757
여수	33	54	44	93	1만 2606	2만 1029
서울	29	32	85	186	10만 1159	37만 9916
합계	433	664	767	1539	27만 5658	90만 1261

출전: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50년사』, 2012, 272쪽.

표 39 선종별 연안 여객선 현황(1995년)

지역	일반선		고속선		쾌속선		초쾌속선		카페리		차도선		계	
	척	GT	척	GT	척	GT	척	GT	척	GT	척	GT	척	GT
목포	22	1680	1	88	2	196	4	1729	2	8421	31	4677	62	6341
부산	2	226	1	226	5	356	4	1104	4	1만 4924	-		16	6806
인천	10	1015	3	889	-		2	705	1	3872	1	88	17	6569
여수	7	753	2	454	2	170	-		1	3095	-		12	4472
마산	8	467	1	117	3	269	-		2	626	-		14	1472
합계	60	4684	9	1913	13	1480	15	4794	13	3만 8964	34	5188	144	5만 7023

출전: 해운항만청, 『해운백서』, 1996, 123쪽;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50년사』, 2012, 231쪽.

점으로 한 연안여객 항로가 줄어들면서 2015년 말 현재 21개사 64척, 4만 7418톤의 연안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목포항의 우리나라 전체 연안여객 운송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96년에는 전체 연안여객 운송 업체의 42.8%, 보유 선박 척수의 40%, 선박 톤수의 25.9%를 차지했던 것이 2005년에는 업체 수의 46%, 보유 선박 척수의 44.2%, 선박 톤수의 37.7%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업체 수의 30.4%, 보유 척수의 37.8, 보유 톤수의 37.2%로 감소하였다.

목포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선박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당시 목포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선박은 여객선 80척, 1만 9847톤, 화물선 126척, 8563톤, 유조선 32척, 1660톤, 예선 39척, 1921톤, 기타 177척, 1만 242톤 등 총 454척, 4만 2233톤이었다. 이것이 2002년에는 여객선 77척 2만 7291톤, 화물선 112척, 2만 2483톤, 유조선 29척, 1685톤, 예선 57척, 2907톤, 부선 86척, 2만 2736톤, 기타 148척, 1만 1707톤 등 총 509척, 8만 8809톤으로 처음으로 500척대를 넘어섰다. 이후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해양수산청 등록 선박은 500척 내외, 10만톤~17만톤 대에서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등록 척수 366척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79척이던 화물선 등록 척수가 48척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선박 척수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선박 등록 톤수는 17만 211톤으로 2014년 17만 5100톤에 비해 4890톤이 감소한 데 그쳤다. 이는 감소한 화물선이 소형선이 대종을 이루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0 목포 연안여객 운송 사업자 추이, 1996~2015년

연도	목포			전체 항만		
	업체 수	척	GT	업체 수	척	GT
1996	18	57	1만 6139	42	142	6만 2330
1997	19	59	1만 7217	46	144	5만 8541
1998	22	60	1만 4965	50	145	10만 7723
1999	22	57	2만 0567	52	147	12만 8307
2000	22	61	1만 5785	52	152	13만 4847
2001	22	58	1만 5142	53	146	8만 9666
2002	25	61	2만 4234	69	160	8만 5405
2003	25	66	2만 7574	57	152	7만 9837
2004	26	68	2만 6224	60	154	7만 0147
2005	28	69	2만 7308	61	156	7만 2352
2006	27	68	2만 6090	72	159	7만 4301
2007	27	67	2만 6567	76	162	7만 6561
2008	24	64	2만 6078	77	166	7만 8514
2009	25	64	2만 6078	78	164	7만 8550
2010	22	63	2만 7663	75	166	7만 9027

연도	목포			전체 항만		
	업체 수	척	GT	업체 수	척	GT
2011	23	65	3만 4347	74	167	9만 9699
2012	21	67	3만 8514	72	172	10만 7813
2013	21	66	3만 8844	72	173	11만 9329
2014	21	67	3만 4161	69	168	9만 3810
2015	21	64	4만 7418	69	169	12만 7434

자료: 1996~2010년 -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50년사』, 387쪽, 2011~2015년 -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통계 2016』, 26쪽.

표 41 목포해양수산청 등록 선박, 1995~2015년

연도	합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부선		기타	
	척	총톤	척	총톤	척	총톤	척	총톤	척	총톤	척	총톤	척	총톤
1995	454	4만 2233	80	1만 9847	126	8563	32	1660	39	1921			177	1만 0242
1996	461	4만 4135	85	2만 1454	126	9428	28	723	40	1903			182	1만 0627
1997	454	4만 9401	92	2만 1890	113	1만 3277	31	855	40	1982			178	1만 1397
1998	428	4만 1937	76	1만 7404	120	1만 0206	31	912	42	2179			159	1만 1236
1999	469	5만 8337	72	1만 6744	116	1만 1126	27	853	42	2148	61	1만 5884	151	1만 1582
2000	482	7만 4284	74	2만 1228	120	2만 0478	28	1538	43	2202	67	1만 7605	150	1만 1233
2001	493	8만 1329	77	2만 2196	110	2만 1148	27	1492	51	2707	81	2만 1784	147	1만 2002
2002	509	8만 8809	77	2만 7291	112	2483	29	1685	57	2907	86	2만 2736	148	1만 1707
2003	518	10만 4780	79	3만 3318	118	2만 5455	27	1650	55	2807	88	2만 4685	151	1만 6865
2004	509	10만 9137	80	3만 4025	116	3만 0077	24	973	59	3499	86	2만 6655	144	1만 3908
2005	494	11만 5306	83	3만 3655	112	2만 7204	16	614	60	3727	83	3만 5781	140	1만 4325
2006	489	12만 2180	84	3만 4051	104	2만 6740	11	496	54	3342	87	4만 4242	149	1만 3309
2007	509	14만 9471	85	3만 4108	108	3만 5310	11	496	61	4775	94	6만 2131	150	1만 2651
2008	510	14만 7835	76	3만 2965	102	2만 9548	12	515	62	5161	94	6만 6514	164	1만 3132
2009	536	15만 9614	75	3만 3167	100	3만 6472	11	496	61	4899	103	7만 1613	186	1만 2967
2010	561	17만 1023	74	4만 8488	96	3만 2775	13	993	60	4802	99	7만 0345	219	1만 3620
2011	561	15만 8331	71	3만 8644	90	3만 0371	12	813	62	5149	94	6만 9727	232	1만 3627
2012	582	16만 6148	78	4만 5537	85	2만 3525	11	345	62	5298	97	7만 7540	249	1만 3903
2013	579	17만 9772	76	4만 5851	81	2만 5871	11	345	63	5885	106	8만 7919	242	1만 3901
2014	584	17만 5100	77	4만 6106	79	2만 5852	11	345	65	6110	103	8만 2340	249	1만 4347
2015	366	17만 0211	69	5만 5923	48	2만 2974	11	345	64	5786	107	7만 0438	67	1만 4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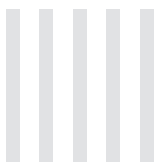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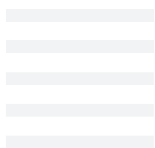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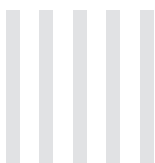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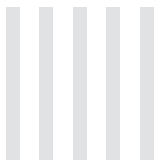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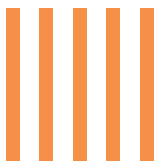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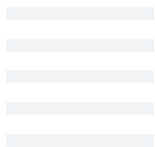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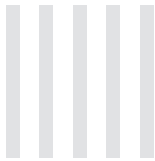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주: 목포해양수산청 등록 선박으로 목포, 영암, 영광, 신안, 진도 선적 선박이 포함, 자료: 목포해양수산청 제공.

김성준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제4편

목포의 역사



제1절 고종세의 '목포' 및 '목포권'과 바닷길

강봉룡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2절 목포진(木浦鎭) 설치와 목포이야기

고석규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3절 유달산과 유달봉수

오홍일 |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제4절 정유재란기 이순신 장군과 고향도

이진규 |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제1장 목포의 뿌리

제1절 고중세의 ‘목포’ 및 ‘목포권’과 바닷길

1. ‘목포’와 ‘목포권’

현 목포시 관내에서 확인된 고고유적으로는 석현동, 해룡동, 옥암동 등지의 4개 군 16기의 지석묘와 성자동 패총, 옥암동 고분 1기 등을 들 수 있다.⁰¹⁾ 지석묘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고, 성자동 패총은 점토대토기, 홍도, 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어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초기 철기 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초당산 정상부의 독립된 구릉에 위치해 있는 옥암동 고분의 경우 주변에 석재가 흩어져 있어서 석실분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실체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처럼 목포시에 분포하고 있는 고고유적들은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 시대까지 걸쳐있어 선사시대 이래 현 목포시 관내에 많은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지만, 아직은 목포시 고대사를 구체적으로 논급할 정도로 조사된 것은 아니다.⁰²⁾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로 문헌을 통해서 목포의 초기 역사를 추적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01) 최성락, 「목포시의 선사문화」, 『목포문화원 학술심포지엄』, 목포문화원, 1991; 이영문·조근우, 「목포시의 선사유적·고분」, 『목포시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95; 목포대 박물관, 『목포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7. 등 참조.

02) 근래에 석현동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지석묘 12기와 석관묘 3기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족문화유산연구원, 『목포시 석현동 아파트 신축사업 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 참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차후 목포시의 고고유적에 대한 발굴이 확대되고, 아울러 목포시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기를 바란다.

목포(木浦)라는 지명은 고려 태조 왕건과 함께 역사에 처음 출현한다. 왕건은 ‘나주 목포’에 사는 오다련의 딸을 처음 만나고,⁰³⁾ 912년에는 ‘목포’와 덕진포 사이의 영산강에서 견훤의 군대를 대파한다.⁰⁴⁾ 오다련의 딸은 태조 왕건의 제2비인 장화왕후가 되고 그녀의 소생인 왕무는 태조에 이어 고려의 2대왕 혜종이 된다. 왕건이 목포 인근에서 견훤의 군대를 격파한 것은 왕건을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시켜 고려의 건국으로 이어지게 만든 일대 사건이었다. 이렇듯 목포는 왕건의 성공담과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사 현장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목포는 오늘날의 목포와 위치가 달랐다. 당시엔 나주 남쪽 10리 거리에 있는 오늘날의 영산포 인근을 목포라 칭하였다.⁰⁵⁾ 조선 초기에는 2개의 목포, 즉 ‘나주 목포’와 ‘무안 목포’로 나뉘어 불리기도 하였다.⁰⁶⁾ 나주 쪽에만 있던 목포가 언제부턴가 무안반도 쪽에도 새로 생긴 것이다. 이렇듯 흥미로운 현상은 목포라는 지명에 내포된 특징에서 연유한다.

흔히 목포의 의미는 ‘영산강과 바다가 만나는 길목에 있는 포구’라 풀이된다. 따라서 목포는 지명이라기보다는 영산강과 바다가 만나는 막연한 지점을 가리켰다. 고려 시대에는 나주 영산포 인근의 지점을 목포라 불렀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영산강 하구의 무안반도 남쪽 꼬트머리 지점도 목포라 부르면서 두 개의 목포, 즉 ‘나주 목포’와 ‘무안 목포’가 공존하기도 했다. 조선 초기까지 목포가 2개였던 것은, 영산강과 바다가 만나는 길목과 경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목포가 고유명사(지명)가 아닌 보통명사(지점)처럼 쓰였던 것을 말해준다. 밀물 때 바닷물이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나주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처음엔 영산포 인근을 강과 바다의 경계로 인식하던 것이, 조선 시대에 이르러 영산강의 하구 지역을 강과 바다의 경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어간 사정을 보여준다.

목포가 오늘날의 목포만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정착하게 된 것은 1439년(세종 21) 4월 ‘무안 목포’에 만호진을 설치하면서부터다.⁰⁷⁾ 이후부터 ‘나주 목포’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오직 ‘무안 목포’만이 유일한 목포로 남게 되었으니, 이는 곧 목포가 지점이 아닌 지명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⁰⁸⁾ 이를

03)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태조비 장화왕후 오씨.

0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05) 차후의 연구 진척을 위해 목포의 위치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을 밝혀둔다. 나말여초기의 목포를 오늘날의 목포로 보는 견해도 있다.(목포문화원, 『목포의 땅이름』, 2003, 247~255쪽 참조) 필자 역시 왕건과 장화왕후가 만났다는 목포를 무안군 일로읍의 주룡나루로 볼 여지가 있음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통설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강봉룡, 「나말여초 왕건의 서남해지방 장악과 그 배경」, 『도서문화』21, 목포대 도서관연구소, 2003, 351쪽).

06) 이해준, 『목포의 역사 -개항 이전사-』, 『목포시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95, 21쪽.

07)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4월 임신.

08) 다른 곳에서도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길목)이 지명으로 정착된 경우가 있다. 탐진강의 하구인 강진에 ‘목리’라는 지명이 있고, 금강의 하구인 서천에 ‘긴 목’이라 불리는 장항(長項)이 있다. 목포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사려에 속한다.

목포의 ‘지명권(地名權)’ 획득이라 부르기도 한다.⁹⁹⁾ 그런 의미에서 1439년은 목포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1439년 ‘지명권’을 얻기 이전의 목포가 그 이후의 목포와 다른 것이라 한다면, 오늘날의 목포(‘무안 목포’)의 역사는 1439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 그 이전의 고중세의 목포는 ‘나주 목포’였기 때문이다. 목포의 역사를 고중세까지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은 심히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쉬움을 달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목포’라는 이름이 영산강과 바다의 길목에 위치한 포구라는 의미에서 연원한다면, ‘나주 목포’와 ‘무안 목포’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목포’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개념의 ‘목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영산강과 바다가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포구와 섬이 2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1차적 기준은 물론이고 2차적인 기준까지 용인하여 보다 확대된 ‘목포권’의 개념을 설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목포권’의 범위는 영산강 중하류권(나주시, 무안군, 영암군)과 서남해 도서 연안권(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이러한 ‘목포권’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면, 이는 목포의 역사를 고중세까지 소급해 보기 위한 방편적 기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포권’의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고중세 목포의 역사는 무엇일까? 영산강-포구-바다-섬을 잇는 고중세 ‘목포권’ 바닷길의 흔적을 주된 탐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 고중세 ‘목포권’을 관통하여 국내와 동아시아로 이어진 바닷길로는, 고대 ‘서남해 연안해로’, 장보고의 바닷길, 왕건의 바닷길, 서공의 바닷길, 『택리지』에 나타난 바닷길, 삼별초의 바닷길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2. 고대 ‘서남해 연안해로’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서남해 연안해로’는, 발해만의 노철산군도(묘도군도)를 징검다리 삼아 중국 동해안으로 통하고, 쓰시마 및 이키 섬을 징검다리 삼아 일본열도로 통하는 해로로서, 동아시아 연안해로의 중심에 위치한다.

『삼국지』에 의하면, 낙랑군이 존속하던 시기(B.C.2세기 말~A.D.4세기 초)에 ‘서남해 연안해로’가 ‘낙랑군→한국→(남행)→(동행)→구야한국→(바다)→대마도→(왜)’로 이어졌던 것으로 나온다.¹¹⁾ 이중

99) 고석규, 「목포진과 목포사람들」,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07쪽.

10) ‘목포권’ 개념의 설정은 강봉룡, 「‘목포권’ 도서해양문화의 창조적 재인식」, 『도서문화』37,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11, 12~14쪽 참조.

11)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왜인조.

한국은 마한연맹체의 맹주국인 목지국을 지칭하는 것이고, 구야한국은 가야연맹체의 맹주국인 금관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목지국의 외항으로 추정되는 아산만 일대와 금관국이 위치한 낙동강 하구의 김해 일대에 '서남해 연안해로'의 주요 거점포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고학의 연구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서남해 연안해로'의 거점이 된 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먼저 사천시 늑도 유적에서 반량전과 오수전 등의 중국 고대 화폐와 한·중·일 고대 유물들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B.C.3세기~B.C.1세기에 늑도가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중요 거점 포구로 기능했던 것을 보여준다. 이밖에 영종도, 거문도, 제주도 등의 도서 지역과 해남, 의창, 창원, 김해 등의 연안 지역에서 고대 중국 화폐들이 잇따라 발굴되고 있어, 섬과 연안에 고대 연안해로의 주요 거점 포구들이 분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서 지역에서 고대 고분이 조사되기도 했다. 해남 외도의 1호분에서 갑옷편을 비롯하여 철부, 철촉, 철도자편이 수습되었고, 신안 안좌도 배널리 3호분에서는 투구와 갑옷을 비롯하여 철검, 철도자, 철촉, 철부 등이 발굴되었는데, 이들은 5세기 중반 경의 가야계 내지 왜계의 유물로 추정되고 있어, 5세기 '서남해 연안해로'를 통해 서남해 지역과 가야 및 왜가 활발한 해상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유물은 고흥 안동고분에서도 발굴된 바 있어, 거점 포구는 섬과 연안 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안군 도서 지역에는 백제 시대 고분과 산성이 분포하고 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먼저 압해도를 보면 송공리에 송공산성이 있고, 일제 시대까지만 해도 그 산성 동쪽의 대천리 일대에 58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고분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그 실체를 알 수 없지만,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 장산도에는 장산리와 대리 일대에 장산토성지가 있고 공수리에 대성산성이 있으며, 그 산성의 주변인 도창리에 5~6기의 석실분이 분포하고 있다. 이 중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아미산 남쪽 기슭의 석실분은 백제 사비 천도 이후의 사비양식을 전형적으로 띠고 있어, 6세기 중엽~7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6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에 백제의 지방관이 직접 서남해 도서 지역에 파견되어 상주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임자도에는 대둔산성지가 있고, 석실분으로 추정되는 고분의 흔적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 비금도에는 도고리에 산성산성이 있고 광대리에 성치산성이 있는데, 이들 산성 주위에서 40여 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백제 석실분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안좌도의 읍동리와 대리 일대에서는 석실분 6기가 확인되었고, 지도 어의리와 하의도 대리 등지에서도 성격을 알 수 없는 고분군이 찾아진 바 있으며, 신의도에는 수십기의 백제 석실분이 분포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서남해 도서 지역에 분포한 이러한 백제계 고분들은 백제가 6세기에 '서남해 연안해로'를 주도할 시절에, 해로

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기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¹²⁾ 당시 ‘서남해 연안해로’에서 ‘목포권’이 차지한 위상을 상상해 볼 수 있다.

3. 장보고의 바닷길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여 동아시아 해상 교역을 주도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장보고 무역선은 완도 청해진 혹은 영암 상대포에서 출발하여 흑산도 등 서남해 섬들을 거쳐 중국 산둥반도 적산포로 입항하였고, 청해진에서 남해안의 해로를 따라 가다가 대한해협을 건너 쓰시마 등의 섬을 거쳐 일본 큐슈 북단의 하카다 항으로 입항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보고의 후원을 받아 약 9년 동안 당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유학 생활을 마친 일본의 고승 엔닌[圓仁]은 847년 당에서 한반도 서남해 섬들을 거쳐 일본으로 귀환하였는데, 그의 귀국길은 장보고의 바닷길을 대체로 답습했을 것으로 보인다. 엔닌은 자신이 저술한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그의 귀국 노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¹³⁾

산둥반도 적산포 출발[847년 9월 2일 정오] → (동행) → 서용주(충청도) 서해[9월 4일 새벽] → (동남행) → 고이도(高移島)[9월 4일 오후 9시경] → 무주(전남) 황모도(혹은 구초도)[9월 6일 오전 6시경] → (동행) → 안도(雁島)[9월 8일 오전 9시경] → (동남) → 쓰시마 서쪽 통과[9월 10일 오전] → 큐슈 녹도[9월 10일 초저녁]

여기에서 고이도(高移島)는 압해도 북쪽에 인접해 있는 고이도(古耳島)를 지칭하고, 황모도 혹은 구초도는 진도군의 서남단에 위치한 거차군도의 한 섬으로, 그리고 안도(雁島)는 여수 남쪽에 위치한 안도(安島)를 지칭한다. 엔닌은 산둥반도에서 동쪽으로 곧바로 항해하여 황해를 횡단하여 충청도 먼 바다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동남쪽으로 꺾어 항해를 계속하여 고이도에, 다시 연안을 따라 남으로 항해하여 진도 서남단의 거차도에,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꺾어 항해하여 안도에 이르렀으며, 여기에서 동남쪽으로 항해하여 쓰시마를 통과하여 일본 큐슈의 녹도(鹿島)로 귀환했던 것이다.

12) 고대 ‘서남해 연안해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최몽룡, 「상고사의 서해 교섭사 연구」, 『국사관논총』3, 국사편찬위원회, 1989; 지건길, 「남해안지방 한대화폐」, 『창산김정기박사화갑기념논총』, 창산김정기박사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0; 최성락, 「신안지방의 선사 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87; 강봉룡,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 낙동강유역의 동향」, 『도서문화』36, 목포대 도서관연구소, 2010; 강봉룡, 「고대 서해 연안해로의 중심지 이동과 강」, 『강과 동아시아 문명』, 경인문화사, 2012.

13) 『입당구법순례행기』 권4, 847년(회창 7) 9월 4일~10일조.

엔닌은 서남해의 여러 섬들을 징검다리 삼아 일본에 이르는 과정에서 흑산도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다. 이런 ‘엔닌의 바닷길’은 ‘장보고의 바닷길’을 추정하는 중요 전거로 삼을 수 있겠다.¹⁴⁾

결국 엔닌의 바닷길은 장보고시대에 ‘목포권’의 다도해가 동아시아로 열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4. 왕건의 바닷길

서남해 지역은 서해와 남해가 만날 뿐만 아니라 서해를 통해 중국과 연결되고 남해를 통해 일본과 연결되는 국내의 해상 교통의 최고 요충지에 해당한다. 장보고가 서남해 지역에 근거를 두고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것도 이러한 해상 교통의 이점이 고려되었을 것이고, 나말여초의 시기에 견훤과 왕건과 능창 등 당대 최고의 영웅들이 서남해 지역의 해양 패권을 둘러싸고 쟁투를 벌였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견훤은 원래 신라 중앙군 소속 군관으로서 889년에 ‘서남해방수군’의 비장(裨將)의 직임을 부여받고 서남해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이는 신라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던 서남해 해양세력의 동태를 점검하고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견훤은 진군의 과정에서 자기 세력을 강화하여, 서남해 지역으로 직행하지 않고 순천을 거쳐 892년에 광주로 들어가 신라에 반하여 독립 세력임을 자처하였으며, 900년에는 전주로 옮겨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광주와 전주에 머물면서 서남해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토착 해양 세력의 저항에 막혀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런 사이에 태봉국의 궁예 휘하 수군 장군이었던 왕건이 함대를 이끌고 서남해 지역으로 향했다. 왕건은 903년부터 토착 해양 세력의 호응을 이끌어내 서남해 지역을 무혈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대하여 견훤이 반격을 가해왔고, 일부 토착 해양 세력도 압해도의 수달장군 능창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여 대항하였다. 왕건은 912년에 덕진포와 목포 사이에서 벌인 해전에서 견훤에 대승을 거두었고 고이도와 진도 등의 거점 섬들을 점령하여 압해도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여 마침내 능창마저 사로잡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왕건은 동아시아 연안해로와 횡단·사단해로가 교차하는 서남해(‘목포권’)의 해상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으니, 이것이 918년 고려 건국과 936년 후삼국 통일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14) 장보고의 바닷길에 대해서는 강봉룡, 「8~9세기 동북아 바닷길의 확대와 무역체제의 변동 -장보고 선단의 대두 배경과 관련하여-」, 『역사교육』69, 역사교육연구회, 1999. 참조.

15) 왕건이 바닷길에 대해서는 강봉룡, 「후백제 견훤과 해양세력 -왕건과의 해양쟁패를 중심으로-」, 『역사교육』83, 역사교육연구회, 2002; 강봉룡, 「나말여초 왕건의 서남해지방 장악과 그 배경」을 참조.

5. 서금의 바닷길

12세기에 송나라 사절단이 고려에 찾아와 약 1개월 간 고려에 머물며 경험했던 일을, 서장관의 신분으로 참여한 서금이 『고려도경』이란 책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 책에는 송과 고려 사이의 바닷길과 그 여정의 섬들에 대한 기록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서금의 바닷길’을 살필 수 있다.¹⁶⁾

당시 송나라 사절단은 명주(영파) 앞 주산군도의 여러 섬에서 어항을 피우며 바람을 기다리다가 1123년 5월 28일 마침내 항해를 본격 시작하여, 6월 3일 오후에 흑산도 앞을 지나고 하루만인 4일 부안 앞 바다의 위도에 도착하였으며, 6일에 군산도에 이르렀다. 11일에 예성강 하구의 용골에 도착하였고, 조수를 따라 예성강을 거슬러 올라가 12일에 벽란도에 이르렀으며, 그 이튿날에 개경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7월 3일 개경 영빈관을 떠나 그 역순으로 귀환하였다.

이를 통해 송나라 사신들이 항해를 사단하여 흑산도와 서해의 여러 섬을 거쳐 고려에 왕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서해에 있는 군산도, 마도, 자연도(영종도) 등의 섬에 군산정, 안흥정, 경원정 등의 객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흑산도에도 관사가 설치되었던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가 동아시아 해로의 주요 거점으로 섬을 중시하고 적극 활용했음을 보여준다.¹⁷⁾ 그때 서남해 ‘목포권’이 그 주요 길목으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6. 『택리지』에 나타난 바닷길

18세기 중엽에 실학자 이증환은 그의 저서 『택리지』에서 신라·고려 시대에 영암 구림촌에서 중국에 이르는 바닷길과 경유하는 섬들을 소개한 바 있다.¹⁸⁾ 구림촌에서 배를 타고 하루 가면 흑산도에 이르고, 흑산도에서 또 하루 가면 홍의도에 이르며 다시 하루를 가면 가거도에 이른다 하고, 여기에서 북동풍을 만나면 중국의 영파까지 3일이면 도착하고 순풍을 맞으면 하루만에도 도착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당시 구림촌은 중국 사이를 내왕한 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국제 포구로서 성시를 누렸거나, 나말여초 최치원, 김가기, 최승우가 상선에 편승하여 당나라에 들어가 과거에 합격했던 것 등도 소개하고 있다.

16) 『고려도경』 제34~39권, 해도 1~6.

17) 서금의 바닷길에 대해서는 허경진, 「고려시대 송나라 사행해로 누정의 변천 연구」, 『동북아시아문화연구』1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7; 윤용혁, 「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객관과 안흥정」, 『역사와경계』74, 부산경남사학회, 2010; 문경호, 「1123년 서금의 고려 해로와 경원정」, 『한국중세사연구』28, 한국중세사학회, 2010; 곽장근, 「새만금해역의 해양문화와 문물교류」, 『도서문화』3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2. 참조.

18) 『택리지』 팔도총론 전라도편.

영암 구림촌에 상대포라는 국제 포구가 있었음이 전해지고 있고, 홍의도는 홍도를, 가가도는 가거도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택리지』는 ‘영암 구림의 상대포-흑산도-홍도-가거도-영파’에 이르는 통일신라·고려 시대 바닷길의 실례를 전해주고 있는 셈이다. 영암이 위치한 영산강 유역은, 남해를 따라 신라의 수도 경주에 이르고 서해를 따라 고려의 수도 개경에 이르는 국내 해로의 최고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흑산도를 통해 중국에 이르는 ‘흑산도항로’의 발착 지점으로서도 중시되었다.

한·중 사단해로 상에서 흑산도의 위치가 특히 중차대했음은 『입당구법순례행기』, 『고려도경』, 『택리지』 등에 흑산도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¹⁹⁾ 실제로 흑산도 읍동마을에는 상라산성을 위시로 하여 절터, 관사터, 제사터 등의 유적과 도자기, 기와, 철마 등의 유물이 풍성하게 확인되고 있어, 당시 흑산도의 국제 해양 도시적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다.²⁰⁾

7. 삼별초의 바닷길

몽골은 13세기 이후에 유라시아대륙을 석권하는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건설해 갔으니, 그 과정에서 송나라 정복을 위한 사전 조치로 1231년부터 배후에 있는 고려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고려의 무인정권은 1232년에 백성들에게 섬과 산성에 들어가 스스로 지킬 것[入保]을 하명하고, 정부를 강화도로 옮기는 천도를 단행하여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이에 몽골은 기마병의 기동력을 앞세워 산성을 공략하고 육지를 유린하면서 고려의 항복을 유도하려 했고, 고려는 다시 백성들에게 하명하여 산성을 버리고 섬으로 옮기도록 하여 섬과 바닷길에 의존하여 저항을 지속해 갔다. 섬을 근거로 바닷길을 선점하는 고려의 전략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전쟁은 장기화되어 갔다.

몽골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1250년대부터는 육지부 공격을 위주로 하던 전략을 바꿔 도서 지역에 대한 공략에 나섰다. 1256년 몽골 총사령관 자랄타이[車羅大]가 직접 70여 척을 거느리고 영산강 입구에 위치한 압해도를 공격한 것이 최대 규모의 도서 공격 작전이었으나, 결국 패배하고 퇴각하였다.²¹⁾ 이후 몽골은 무력 공격 일변도의 전략을 수정하여 군사 작전과 강화 협상을 병행하는 유연한 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에 싸여 있던 고려 측도 강화 협상

19) 특히 『고려도경』은 흑산도에 사신이 머무는 관사(館舍)가 있고, 중국 사신이 지나가면 이곳에서 처음 봉화를 올렸다고 전한다. 또한 ‘이번에는 여기에 정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아마 일정이 급박했거나 아니면 바람 등의 항해 사정이 순조로웠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소, 『흑산도 상라산성 연구』, 2000. 참조.

21) 『고려사절요』 권17, 1256년(고종 43) 6월.

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협상파가 점차 득세하면서, 대몽골 전쟁을 주도해오던 무인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고려왕 원종은 마침내 1270년 5월 23일 몽골의 지원과 협상파의 위세를 등에 업고 개경 환도를 결행하여 몽골의 정치 간섭 하에 정권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이에 이제까지 무인정권의 수족이 되어 결사 항전해 오던 삼별초 세력은 개경 환도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6월 1일 강화도를 점령한 뒤 왕족인 승화후 왕온을 고려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6월 3일에 1,000여 척의 배를 동원하여 공사의 재물과 사람들을 싣고서 강화도 구포를 떠나 남으로 향했다.²²⁾ 삼별초 일행이 최종 목적지 진도에 도착한 것은 강화도를 떠난 지 70일이 넘는 8월 19일이었다. 1주일도 채 안 걸릴 거리를 70일 이상 넘게 항해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바이나, 아마도 서해안의 도서 연안 지역을 경략하면서 서서히 항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재천도한 고려의 정통 왕조임을 표방하고 용장성 안에 왕궁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서남해의 도서 연안 지역을 장악하여 일종의 해상 왕국을 건설하였다. 당시 삼별초가 거점으로 활용한 섬으로는, 진도와 제주도 이외에도 전남 해역의 압해도·완도, 경남 해역의 남해도·창선도·거제도, 충청·경기 해역의 영흥도·자연도(영종도)·대부도·고란도 등이 거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개경정부의 중서성이 몽골에 올린 보고에 의하면 진도의 삼별초가 30여 개의 서남해 섬들을 점거했던 것으로 되어 있어, 삼별초 해상 왕국의 위세가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 삼별초의 위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던 여몽연합군은 군사 총동원 체제를 가동하여 진도 삼별초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그리하여 진도가 1271년 5월 15일 함락되었고, 제주도로 옮겨 서남해 섬과 바닷길을 장악하며 해상 항전을 계속한 나머지 삼별초 세력마저 1273년 4월 28일에 패망하고 말았다. 이로써 1231년 이후 계속해온 몽골에 대한 항전은 40여 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렇다면 삼별초는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근래에 제주도 함락 이후에 삼별초 잔여 세력이 배를 타고 남행하여 오키나와에 이르러서 류큐 왕조의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흥미로운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 견해는 오키나와의 슈리성 등의 10여 개 유적에서 ‘계유년고려와장조(癸酉年高麗瓦匠造)’의 명문이 씌어 있는 기와가 발견된 것을 단서로 들고 있다. 이는 ‘계유년에 고려의 기와 기술공이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그 명문 중에 나오는 ‘계유년’이 제주도의 함락 시점인 1273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 함락 직후에 기와 기술공을 포함한 삼별초의 일부 세력이 배를 타고 오키나와에까지 이른 것으로 본 것이다.²³⁾

22) 『고려사절요』 권18, 1270년(원종 11) 6월.

23) 윤용혁, 「오키나와 출토의 고려 기와와 삼별초」, 『한국사연구』147, 한국사연구회, 2009.

이러한 견해가 맞다면 삼별초는 ‘강화도→진도→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서남해의 섬과 바다를 장악하여 몽골제국에 항전을 전개했는가 하면, 최후에는 멀리 오키나와로 옮겨가 고려의 문화를 전파했던 것이 된다. 이러한 삼별초의 해상 항전과 항해의 과정은, 섬과 바다를 기반으로 왕성한 해양 활동을 전개했던 ‘해양의 시대’(통일신라·고려시대)의 막강 해양력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²⁴⁾ 당시 ‘목포권’ 해역이 삼별초 바닷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강봉룡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24) 강봉룡, 「몽골의 침략과 고려 무인정권 및 삼별초의 '도서해양전략'」, 『동양사학연구』 115, 동양사학회, 2011. 참조.

제2절 목포진(木浦鎭) 설치와 목포이야기⁰¹⁾

1. 강과 바다의 길목, 목포

목포는 광활한 나주평야를 끼고 도는 영산강이 서해안과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여러 섬들을 아우르는 위치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임과 동시에 군사적 요해지(要害地), 즉 요긴한 길목으로 주목되었다.

고려 말 빈번하게 일어났던 왜구의 침입은 조선 건국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목포 지역에 대한 관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 초에는 목포 만호진(萬戶鎭), 즉 목포진을 설치하였고 유달산 봉대(烽臺)도 두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이 목포의 코앞에 있는 고

하도에 진을 설치하여 수군을 재건하였다. 역사 속에 이미 관방처, 군사적 요충으로 주목받았고, 활용되고 있었다. 또 1872년 제작된 「무안목포진지도」를 보면, 삼학도 아래쪽으로 당곶(唐串) 방향을 향해 세선로(稅船路), 즉 조운로가 표시되어 있어 조운과 목포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목포가 개항장이 된 이유 자체가 그러하듯이⁰²⁾ 목포에 대한 모든 옛 기억들은 무안반도 끝자락에 자리 잡은 목포가 그 영산강과 서남해 바다의 길목에 있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전라도 무안현 관방조를 보면, 목포영에 대한 설명에서 “나주 목포가 여기 와서 바다로 들어가는 까닭에 통칭 목포라 부른다.”⁰³⁾라 하였다. 그런 점에서 목포라는 이름도 ‘길



그림 1 「무안목포진지도」(1872년). 삼학도 아래로 세선로(稅船路)가 두글게 우회하여 표기되어 있다.

01) 이 글은 고석규, 「제1장 목포진(木浦鎭)과 목포사람들」(『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4)을 토대로 하되, 이를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02) 목포가 개항장으로 선정된 이유로는 ①영산강의 강구(江口)에 있어 내륙의 소비시장까지 기선으로 직접 화물의 운반이 가능하고, ②나주·능주·광주 등 큰 시장을 배후에 끼고 있어 화물의 집산이 용이하며, ③전라도의 쌀을 운반하기에 편리한 항구라는 점 등이었다.

0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6, 전라도 무안현 「관방」.

목'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데 '목포'라는 이름은 하나이지만, 그 이름이 붙여진 땅은 하나가 아니었다. '목포'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곳이 처음부터 지금의 목포는 아니었다. 대개는 '나주땅 목포'를 일컬었다. 그리고 현재의 목포는 그에 비해 '무안현 목포'라고 불렸다. '나주땅 목포'와 '무안현 목포'는 목포라는 이름은 같이 썼지만 그 위치는 달랐다. '목포'에 대한 기록 중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가 있다. 나말여초의 역사 기록에 나오는 ①고려 태조비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의 출생지가 목포라는 것이나, ②왕건과 견훤이 나주 일대를 두고 격전을 벌일 때 목포-덕진포(德津浦) 간에서 대전(大戰)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1530년에 간행되는 ③『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금강진(錦江津) 일명(一名) 금천(錦川), 목포(木浦)이며, 혹은 남포(南浦)라고도 한다. 곧 광탄의 하류인데 주의 남쪽 11리에 있다.”⁰⁴⁾라는 기록에 나오는 목포 등이 그것들이다. ①과 ③의 목포는 나주의 남쪽 11리에 있는 것으로 현재의 영산포 부근을 말한다. ②의 목포에 대하여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는 “지금의 이름은 금강진(錦江津)이니, 나주부의 남쪽 11리에 있다.”⁰⁵⁾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이 목포 역시 나주땅의 목포임을 알 수 있다.⁰⁶⁾

그 후 목포가 '무안현 목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만호진의 설치 및 전라수영의 이동과 관련한 기록들에서였다. 이제 만호진의 설치 과정을 따라가면서 현재의 목포가 어떻게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2. 목포진의 설치

의정부에서 병조에 의거하여 계를 올려 아뢰기를 “무안현 목포와 보성군 여도(呂島) 등은 왜적들이 노략질하러 들어올 때 이를 막기에 편리한 곳입니다. 그러나 병선들이 정박해 있는 곳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해처로서의 이점을 살리기 어려우니-필자) 청컨대 목포와 여도에 병선을 두고 만호를 차견(差遣)하도록 하옵소서.”라 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⁰⁷⁾

『세종실록』의 이 기록에서 보듯이 1439년(세종 21) 4월 목포에 만호를 차견하였다. 이는 곧 목포

0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나주목 「산천」.

05) 『동사강목』 제5하, 신미년 효공왕 14년, 진현 19년, 공예 10년(후량 태조 개평 3, 거란 태조 4, 910).

06) 목포의 지명과 관련된 고증은 이해준, 「목포의 역사 -개항 이전사-」(『목포시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95)와 오홍일, 「목포의 지명 유래에 대한 소고」(『목포의 땅이름』, 목포문화원, 2003)에 잘 정리되어 있다.

07)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4월 임진.

에 만호진을 설치하였다는 뜻이다. 이때의 목포는 지금 행정 구역상 목포시 만호동 일대를 말한다.

다만 목포 만호진은 “지난 1702년(숙종 28, 추정) 관아와 유상고(留上庫)가 화재로 인해 잿더미에 묻혀 버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고증할 수 없다.”⁰⁸⁾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1702년 이전 목포 만호진의 역사에 대하여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다. 몇몇 산견되는 기록을 통해 그 대강을 그려볼 뿐이다.

목포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39년 목포에 만호를 차견하였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이고⁰⁹⁾ 만호진 자체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의 총서에 우도(右道) 도만호(都萬戶)가 관장하는 5개소의 만호를 소개하는 중에 목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전라수군의 본영은 무안 대굴포(大堀浦, 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대곡 부근)에 있었으며, 예하 수군 만호진은 15개소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목포 만호진은 다경포(多慶浦)·법성포·검모포(黔毛浦)·군산 등과 함께 원곶(垣串)의 우도 도만호가 관할하는 진의 하나였다. 그런데 목포 만호진이 이렇게 만호진으로 독립되어 설치되기까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전라우도 수군영(水軍營)의 위치 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그 과정을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남의 황원곶, 곧 지금의 우수영자리에 전라수영이 자리 잡는 것은 1440년(세종 22)이 되어서였다. 조선에 들어와서 우수영이 황원곶에 자리 잡기까지 자리도 바뀌었고 지위도 변동이 있었다. 그 처음은 ‘나주 땅 목포’에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태조는 1397년(태조 6) 5월 임신에 각도의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파하고 대신 각 진에 첨절제사를 두어 소속된 부근의 주병마(州兵馬)를 이끌어 수어(守禦)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때 전라도에서 진의 설치 대상지로 조양(兆陽)·옥구·흥덕 등과 함께 목포가 선정되었다.¹⁰⁾ 물론 이때의 목포는 ‘나주땅 목포’였고 나주목사가 첨절제사를 겸하기로 하였다.¹¹⁾ 그 후 언제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것처럼 수군처치사(水軍處置使) 제도가 생겼고 그 본영을 대굴포(현, 함평지역)에 두어 전라좌·우도의 도만호를 지휘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굴포의 수군처치사영은 바다로부터 너무 깊숙이 올라와 있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지가 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1432년(세종 14) 수영을 옮기는 일이 거론되었다.

08) 『호남읍지』(1872년경) 10책 무안현 목포진지 중 건치연혁 고적조.

09) 목포 만호진이 설치되던 1439년(세종 21)을 전후하여 『세종실록』권59, 1433년(세종 15) 3월 5일(무오) 기사와 『세종실록』권108, 1445년(세종 27) 4월 13일(병진)의 기사에 각각 ‘목포 천호(千戶)’라는 칭호가 나온다. 이처럼 만호진 설치를 전후하여 천호와 만호가 엇갈려 나타나고 있다.

10) 『태조실록』 권11, 1397년(태조 6) 5월 임신.

11) 『국역 금성일기』 1397년(태조 6) “목사 여의손(呂義孫)이 3월 26일 도임하여 6월 2일 下批에 의해 목포진 첨절제사를 겸임하였고 1398년 3월 20일 떠났다.”는 기록 참조.

그 해 8월에 전라도의 도만호와 병마절제사를 지낸 바 있는 전(前) 제충(制摠) 이각(李恪)이 “전함을 두어 요해소(要害所)를 지키게 함은 변강(邊疆)을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를 면하고 있는데 수륙의 지킴이나 수어의 방책에 마땅함을 얻지 않은 바가 없으니 책략에 빈틈이 없다(算無遺策)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전라처치사영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포 만호는 포구를 지키기 위해 있으나 대굴포까지 깊이 들어와 있어 바다와의 거리가 거의 이식(二息)이나 됩니다. 평시에 출입할 때도 두 차례나 조석(潮汐)을 거쳐야 하는데 불행히 바람을 만나면 하루 이틀에 바다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갑작스런 변을 당하면 어찌 능히 때에 맞추어 응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처치사의 병선은 견고하고 날카로우며 각 포에 비해 여러 배나 많은데 항상 깊숙한 포구에 들어앉아 출입이 쉽지 않으니 장차 쓸데없는 물건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¹²⁾라고 하여 대굴포에 있는 처치사영이 갑작스런 변에 때맞춰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한 위치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 다음 다경포·말흘포(末訖浦)·목포·주이포(周伊浦) 등이 도내의 요충지이면서 물길도 또한 순하여 전함이 출입하기에 편하니 신속히 적을 맞아 싸우기에 적절한 곳이라 하여 처치사영을 옮길 것을 청하였다. 정부에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 달 전라도 도순찰사 정흠지(鄭欽之)와 종친부(宗親府) 전침(典鑑) 민공(閔恭)을 내려 보내 수영을 옮길 만한 곳을 살피게 하였다. 이들은 9월에 나주에 들어와 21일 진도·황원(黃原)·토주(土周) 등을 살핀 후 30일 나주를 거쳐 서울로 돌아갔다.¹³⁾ 그리고 10월에 정흠지는 순찰 결과를 토대로 전라도 수영을 목포로 옮기고 목포 병선을 황원 남쪽의 주량(周梁, 현 해남 우수영)으로 옮겨 정착하도록 아뢰었고 대신들의 의논을 거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¹⁴⁾

이때의 목포가 어디인가는 조금 불분명한데 「무안현 지도」에 보이는 부지산(扶之山, 현 부주산) 아래 당곳(唐串)이 이곳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영은 점차 바다의 길목,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1439년(세종 21) 4월 의정부에서는 목포가 왜적의 침입을 막는 요해처이므로 만호를 파견하고 병선을 주둔토록 건의하여 세종의 재가를 받아냄으로써, 현재의 목포 만호동 자리에 만호진이 설치되었다.¹⁵⁾ 빈번한 왜적의 침입을 막고자 서남해안 지역인 목포와 여도(현 고흥군)에 각각 만호를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독립된 목포 만호진의 설립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비로소 현재의 목포 땅이 중앙으로부터 목포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목포 만호진이 설치된 지 1년 후인 1440년, 전라수영을 황원으로 옮겼다는 기록들이 보인

12) 『세종실록』 권57, 1432년(세종 14) 8월 신묘.

13) 『국역 금성일기』 1432년(선덕 7) 임자 4월(세종대왕 14), 82쪽 참조.

14) 『세종실록』 권58, 1432년(세종 14), 10월 을사. 한편, 1433년(세종 15) 3월, 병조에서는 목포에서 옮겨간 주량을 가칭 ‘목포 천호(千戶)’라 하였으나 그 명칭이 원래의 목포와 혼동되므로 ‘주량 천호’로 개칭하자고 건의하였다(『세종실록』 권59, 1433년(세종 15) 3월 무오).

15) 『세종실록』 권85, 1439년(세종 21) 4월 임진.



그림 2 영조년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고대 4709-41) 중 「무안현 지도」 일부. 지도 아래쪽 부자산(扶之山, 현 부주산) 옆에 당곳이 보인다. 또 오른쪽 상단 영산강 하류에 해당하는 사호강(沙湖江)가에 동창(東倉)이 보인다.

다.¹⁶⁾ 이 기록들에 의거하여 추론해보면, 대굴포의 수영이 1432년에 당곳 부근으로 추정되는 목포로 옮겨졌고, 그 이듬해부터 다시 황원으로 그 본영을 이동시켜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이동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1439년에 현재의 목포에 병선을 두고 만호를 차견하였고, 1440년에 수영의 주력이 옮겨간 황원에 정식으로 전라수영의 본영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⁷⁾

그 후 1479년(성종 10)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이 지역의 관방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전라수영을 우수영과 좌수영으로 각각 분리시켜 이 지역의 방어진을 두텁게 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왜구의 침입이 잦은 광범

위한 서남해안 지역을 하나의 수영으로는 방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던 차에 당시 전라도 순찰사 이극배(李克培)가 그런 요지의 계를 올리자 이에 따라 순천부 내례포(內禮浦, 현 여수지역)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영을 설치하였다.¹⁸⁾ 그러자 자연히 황원의 수영은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영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일 수영체제가 좌·우수영체제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편제는 몇 번의 신설과 이속을 거듭하지만 기본틀은 한말까지 지속되었다.

1522년(중종 17)에 왜선 15척이 서남해의 변방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때 비변사에서는 “그들이 우리 땅을 소굴로 삼아 제주와의 길이 끊어지게 된다면 작은 일이 아니므로 단지 진만 지키면서 방어할 뿐이어서는 안 되고 수색하여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만일 목포 이상을 넘어 서게 된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마땅히 제도(諸島)를 수색 토벌하여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⁹⁾ 이로 미루어 볼 때 목포는 제주와의 바닷길을 지키는 관방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 『신증동국여지승람』, 『우수영지(右水營誌)』, 『증보문헌비고』 해방조(海防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이해준, 앞의 글, 31쪽.

18) 『성종실록』권100, 1497년(성종 10) 1월 계해.

19) 『중종실록』권45, 1522년(중종 17) 6월 22일 정유.

3. 목포진성의 축성과 목포 만호

이와 같이 목포는 수군만호진이 세종대에 설치되고, 성종대에 좌·우수영 체제로 편제되면서 우수영에 귀속되었다. 그리하여 현재의 목포는 1439년 만호진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목포에 만호가 차견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진의 체제를 완비하였던 것은 아니다. 특히 목포진의 자취를 뚜렷이 남기는 성 쌓는 일, 즉 축성(築城)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나 있었다. 당시에는 ‘선상수어(船上守禦)의 원칙’에 따라 수군첨절제사나 수군만호는 항상 병선을 이끌고 해상을 왕래하며 방어와 수색의 의무를 수행하였고 해당된 영(營)·진(鎭)에는 군량과 군기를 쌓아둘 뿐이었다. 그래서 해당 영·진은 유사시에는 하번선군(下番船軍)의 집결처로, 평상시에는 병선의 기항지 및 보급처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병선의 정박처는 따로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1484년(성종 14) 제포의 만호·첨사유진처(僉使留鎭處)에 대한 축성 논의가 시작되면서 선상 방어가 어려운 포구의 요해처를 가려 축성하였다.²⁰⁾ 목포 만호진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목포 만호진 축성과 관련하여 1501년(연산군 7) 1월 정언(正言)으로 있던 이철균(李鐵均)이 계를 올렸다. 당시 이철균은 지금은 농사철이어서 무안 목포성을 쌓는데 바쁜 농민들을 부릴 수는 없으니 중지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이런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¹⁾ 그렇다면 축성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머지않아 완성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16세기 초 목포진의 성이 완성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목포는 차츰 단순한 변방에서 사람 사는 마을로 바뀌어 갔다.

성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만호진성에 대한 초기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그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조선 후기 몇몇 자료를 통하여 대강의 규모는 살펴볼 수 있다. 1759년(영조 35) 당시 목포 만호진성의 둘레는 1,302척, 높이가 7.7척이었고 우물 하나와 성 동쪽으로 1리 떨어진 곳에 연못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²²⁾ 또 1872년에 그림으로 그린 「무안목포진지도」²³⁾, 그리고 이와 같은 시점에 작성된 『목포진지(木浦鎭誌)』²⁴⁾가 있어 개항 직전 목포진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지도에 따르면 동서남북 사방에 성문이 나있고 성 안에는 객사·아사를 비롯하여 이청(吏廳)·장청(將廳)·사령청(使令廳) 등 일반 지방관아에서 볼 수 있는 기구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었다. 거기

20) 이해준, 앞의 글, 32~33쪽.

21) 『연산군일기』 권40, 1501년(연산군 7) 정월 을묘.

22) 만호진성의 규모 등에 대한 기록은 이해준, 앞의 글, 38쪽의 <표 4> 참조.

23) 『조선후기 지방지도-전라도편』(서울대 규장각, 1996) 중 「무안목포진지도」(1872년).

24) 『목포진지』는 1871년(고종 8) 편찬된 『무안현읍지』(규17426)의 뒤에 첨부되어 있다.

에 더하여 군기고와 옥, 창고와 우물 등도 있고 성 밖에는 어변정(禦變亭)이란 정자도 있었다. 또 성내에 남평리(南坪里)·서평리(西坪里), 성밖에 쌍교촌(雙橋村)·산정리(山亭里)·용당리(龍塘里)·관해동(觀海洞) 등 모두 여섯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목포진지』에는 건치연혁과 관직(官職), 진속(鎭屬), 군액(軍額), 공해(公廩), 창고(倉庫), 성지(城池), 조적(糶糴), 사리호총(四里戶總), 능황급대(廩況及給代), 요망대(瞭望臺), 군기(軍器) 등의 항목 순으로 관련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관직은 만호(萬戶) 1원(員)이 있고, 진속(鎭屬)으로 군관(軍官) 6인, 진무(鎭撫) 7인과 사부(射夫), 사령 등이 있다. 군액(軍額)은 수군 장졸 277명과 입방수포군(入防收布軍) 765명이 무안·남평·장성의 3읍(邑)에 배정되어 있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목포진에는 최초로 중선(中船) 6척과 별선(別船) 2척, 군(軍) 490명, 초공(梢工) 즉 뱃사공 4명이 각각 배치되었고,²⁵⁾ 조선 후기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방선(防船) 1척, 사후선(伺候船) 2척 등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²⁶⁾

목포 만호에 대한 기록은 여기저기 산견되는데 저치미(儲置米)를 무단 사용(私用)하고 방군전(防軍錢)을 취용(取用)하는 등의 일로 고발당하거나 소나무 속전(贖錢)을 강제로 거두고, 채무 관계 송사를 억측으로 결단하여 폐단을 일으켰다는 등의 내용들이다.²⁷⁾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비금도 표류 선박에 대한 보고와 관련된 활동이다.²⁸⁾ 1853년(철종 4) 12월 2일에 목포진 관할 비금도에 이국(異國)의 배로 보이는 작은 빈 배 한 척이 얹치락뒤치락 표류하다가



그림 3 『지승(地乘)』(규15423) 4책 전라도 「무안현지도」(18세기 후반경). 그림 2의 「해동지도」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25)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26)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4, 주사(舟師).

27) 『비변사등록』 143책, 1763년(영조 39) 2월 27일; 『승정원일기』 1867년(고종 4) 6월 7일(기축).

28) 『통제영계록(統制營啓錄)』 1854년(철종 5) 정월 초3일 승정원 개탁.

본섬의 서쪽 뒤 포구에 도착하였는데, “변경의 중대한 일을 한 시각도 지체할 수 없으므로 만호가 그 즉시 출발하여 본도(本島)에 표류선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가서 유진장(留鎭將)을 병교(兵校) 김기조(金基祚)로 정하여 임무를 거행하도록 한 다음 …… 규례에 따라 본진으로 돌아와서 연유를 치보(馳報)하였다.”라 한 데서 보듯이 목포 만호 함윤황(咸潤煌)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처리하며 그 연유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국의 물건이니만큼 변경의 사안에 관계되니, 얼마나 긴급한 일입니까?’라는 승정원의 말처럼 변경의 사안에 관계되는 일을 긴급히 처리하는 데서 목포 만호의 본래 역할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한다.

4. 조운로(漕運路)와 목포

목포는 광활한 나주평야를 끼고 도는 영산강이 서해안과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여러 섬들을 아우르는 위치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였다. 목포를 비롯한 서해안 지방의 자연지리적 환경에 대해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에서 “(영산강은) 서쪽으로 흘러 무안의 목포에 이르는데 …… 강 건너는 큰 평야를 이뤄 …… 풍기(風氣)가 화창하고 땅은 넓고 물자도 넉넉하며 서남쪽 강과 바다는 운수의 이익을 통제하여 광주와 함께 명읍이라 일컫는다. …… 중앙의 한 길이 강신(江身)과 같아 배들이 이곳을 따라 다닌다.”²⁹⁾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영산강은 일찍이 지방의 곡물을 중앙으로 수송하는 조운로로 주목되었다. 목포는 호남은 물론 영남 일부 지역의 세곡까지 운반하는 운송로의 길목으로 완도의 가리포진과 진도의 벽파진을 거친 배들은 반드시 목포를 지나야 하였고, 나주 영산창에서 나오는 조운선도 목포를 지나, 지도와 임자도를 거쳐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다.

1509년(중종 4) 6월에 “목포 만호 조세필(趙世弼)은 조선(漕船) 30여 척을 패물시켰고, 조졸(漕卒)도 또한 많이 빠져 죽었으니, 비록 치죄할 형률은 없으나 마땅히 중하게 다스려 뒷사람을 경계하여야 합니다.”라는 정원(政院)의 보고가 있었다.³⁰⁾ 이를 통해 목포 만호가 조운에 대한 직접 책임은 없었지만, 조선의 운영에는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53년(철종 4) 『충청감영계록(忠淸監營啓錄)』을 보면, 무안현의 대동선(大同船)이 비인현 마량진 갈곶리 앞바다에서 불에 타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배는 조창인 군산창의 내자(萊字) 조선(漕船)으로 충청감영에서 군산진에 공문을 보내 무안현의 신해년(1851, 철종2)조 대동선 1척의 곡물을 실어 상납하도록 하였다.

29) 『택리지』 전라도 나주목.

30) 『중종실록』 권8, 1509년(중종 4) 6월 8일 무진.



그림 4 『조선후기 지방지도 - 전라도편』(서울대 규장각) 「무안현지도」(1872년) 중 목포진 일대. 자방포(自防浦, 지금의 남악 근처)를 거쳐 일로면(一老面)에 이르면 장시가 있고 남창(南倉) 등이 있어 이곳이 세곡의 집산지였음을 엿볼 수 있다. 남창 옆으로 하당(下塘)이란 지명도 보인다.

그 배는 9월 4일 군산진을 출발하여 11일에 무안현 동창포(東倉浦)에 도박(到泊)하였는데 창포(倉浦)가 읍과 20리나 떨어져 있었으므로 같은 달 15일부터 비로소 나가서 세곡을 배에 싣었고,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할 대동세 등 여러 명목의 쌀과 콩 1,405석 14두 2승 6홉을 10월 26일에 모두 꾸러 싣고 27일에 배를 출발하여 목포진(木浦鎭)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하루를 머물고 이곳저곳을 거쳐 12월 29일에야 갈곶리 앞바다에 이르렀고, 거기서 실화로 인하여 침몰, 패선에 이르렀다.³¹⁾ 여기서 패선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사정은 논외로 하고, 무안현 동창포에서 대동세를 수합하였다는 점, 그리고 목포진을 거쳐 상경하였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창포에서 목포진을 거치는 노선이 주요한 조운로임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863년(철종 14) 8월 30일, 태안군의 유향(留鄕)이 “전라도 영암군(靈巖郡)의 전세선(田稅船)

31) 『충청감영계록(忠淸監營啓錄)』1853년(철종 4) 2월 초3일, 2월 29일.

지도선(地土船)을 대리하여 조운을 맡게 되면서 크게 달라졌다. 즉 소규모 분산 수집이 행해졌고 그 때문에 조창의 기능은 약화, 분산되었고, 각 읍에 해창이 늘어났다.³³⁾

조선 후기 지도를 보면, 목포 부근에서는 무안현의 일로면 일대가 분산 수세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창이나 해창 또는 영산강 하류인 사호강(沙湖江)가의 동창(東倉) 등을 거점으로 세곡을 모아 자방포를 거쳐 목포진 앞바다를 거쳐 지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주(駐) 경성일본영사관의 일등영사(一等領事) 우치다 사다즈치(內田定槌)의 복명서에 따르면 “목포와 내지와의 교통은 …… 매우 편리한 편이어서 사호강의 상류는 나주에 이르기까지 1,200석을 적재할 수 있는 조선배가 운항할 수 있으며, 또 강 입구에서 15마일(哩)의 상류에 이르기까지는 선저수고(船底水高) 14척(尺)의 기선이 운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서쪽에도 또한 하나의 만(灣)이 있다. 만오(灣奥)가 무안 근방까지 달하고 만의 입구에는 얇은 여울이 있어 큰 배를 출입시키기에는 불편하지만 100석을 적재할 수 있는 조선배가 무안 근안(近岸)까지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하여 배를 이용한 곡물 운송이 용이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지방민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광주·나주·영암·함평·무안·남평 및 진도의 여러 지방에서 목포를 거쳐 정부에 수송하는 공미(貢米)가, 매년 약 10만 석 이상’이라고 하였다.³⁴⁾ 물론 이때 공미를 수집하여 서울로 운송하는 업무는 경강선인의 몫이었고 각창을 통해 분산 수세되고 있었다.

한편 한말에 오면, 기선의 출현으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1884년에 정부는 운송국(運送局[轉運署])을 설치하고 국영의 기선회사를 설립하여 창룡호(蒼龍號), 현익호(顯益號), 해룡호(海龍號) 등 근대적 기선 3척을 취항시켰다. 이 중 현익호는 군산·목포·부산 등 연해 항로에 취항하면서 세곡선의 조운을 대신하였다.

1885년에는 독일계 세창양행(世昌洋行)의 기선인 희화선(希化船)을 빌려 전라도의 세곡을 운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곡의 집하나 선적 그리고 하역 작업이 종래의 방식에 머물러 느리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선의 장점을 살릴 수 없었다. 이에 1886년에는 목포에서 인천까지 운반하는 세곡에 대하여 연간 3만석의 양을 보장하였고, 어긋나면 배상하도록 약조하였다. 이에 무안 등 13읍의 세곡을 목포로 수송하여 희화선에 실어 운송케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日船)이나 사사로이 임대한 배로 운반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까지 경강선을 이용한 조운에 익숙하였기 때문이다.

33) 고석규, 「조선후기 장시 변동의 양상 - 전라남도의 장시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2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참조.

34) 재경성(在京城) 일등영사(一等領事) 우치다 사다즈치(內田定槌),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11권, 「삼. 목포증포대동강개항 일건(三. 木浦甞浦大同江開港一件)」(3) 고부만(古阜灣) 및 목포시찰 복명서(木浦視察 復命書)(1895년 1월 31일).

기선에 의한 세곡 운송은 주체가 바뀌면서 계속 되었다. 어느 경우든 목포는 세곡의 집하장 역할을 하였다. 아직 개항장이 구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집하장의 역할을 한 곳이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목포라 불릴 수 있는 곳은 당곶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부주산 아래 하당 부근에 당곶창이 있었다. 당곶창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세웠다고 하나,³⁵⁾ 실제로 창고를 세운 때는 1603년(선조 36)으로 이순신이 전사한 지 6~7년이 지난 후였다.³⁶⁾ 당곶창은 통영의 곡식을 ‘조적(糶糶)=환곡’하는 곳으로 도청(都廳)이라 불렸다.

당곶창은 나주와 영암·무안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고, 곡식을 분급하고 징수하는 환곡의 업무는 통영(統營) 소관이였다. 그런데 이후 환곡의 폐단이 커지자 1797년(정조 21)에 통영이 아닌 해당 지방관이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어 1830년(순조 30)년 11월에는 당곶창을 혁파하는데, 그 해 2월 이전에 이미 무안·영암은 각 당해 읍창으로 옮겨서 받아들이게 하였고, 나주·무안 두 고을에 있던 통영곡은 삼향창과 남창 등으로 옮겨서 받아들이게 하였다.³⁷⁾ 하지만 군창고(軍餉庫)로서 당곶창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⁸⁾

5. 목포 사람들

개항 이전 목포에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 개항 직전 목포의 사정은 앞서 거론했던 1895년 우치다테 이즈이의 복명서를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 거기서 “항내는 매우 물이 깊고 또 광활하므로 어떠한 큰 배라 할지라도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수십 척이 정박할 수 있다. 그리고 전후좌우는 곳곳에 섬 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항내에 정박하는 대소의 선박은 결코 풍파로 재난을 입는 일이 없다.”라 하여 양항임을 역설하고 아울러 목포진에 대하여는 “(목포)진은 사호강구(沙湖江口)의 작은 구릉 위에 있으며, 구릉 위에는 잡목이 무성하고 동쪽에는 진의 관아와 30~40호의 인가가 있다.”고 하였다.³⁹⁾ 또 그 다음해 올린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의 복명서에는 “현재 목포의 상황을 진술하건대 목포진성 내외에 민가가 24, 25호가 있다. 어느 것이나 추하고 좁은 오

35) 『여지도서』 전라도 무안현조에 따르면, “무안현의 남쪽 50리에 있는데 도청(都廳)을 처음에는 나주 고하도에 설치하였다가 순치 4년(1647, 인조 25년) 당곶(唐串)으로 옮겨 모군을 모으고 군항을 비치하여 뜻밖의 재난에 대비케 하였다. 별장이 1명, 색리가 1명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비변사등록』의 기록이 조금 더 구체적이라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비변사등록』을 따랐다.

36) 『비변사등록』186책, 1797년(정조 21) 11월 8일.

37) 『비변사등록』218책, 1830년(순조 30) 11월 10일; 『순조실록』권31, 1830년(순조 30) 11월 10일.

38) 1789년경 제작된 『무안현읍지』(규17426) 진보조(鎭堡條)를 보면, 목포진 외에 당곶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곶진은 방선(防船) 2척, 모군(募軍) 100명, 그리고 약간의 군항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39) 재경성(在京城) 일등영사(一等領事) 우치다 사다즈치(內田定槌),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11권, 「삼. 목포증포대동강개항 일건(三. 木浦甞浦大同江開港一件)」(3) 고부만(古阜灣) 및 목포시찰 복명서(木浦視察 復命書)(1895년 1월 31일).

막살이로서 옛 진아(鎭衙)만 약간 가옥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주민은 농민과 노동자로서 극히 간단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듯했다. 무안가도(務安街道)에 목포에서 20정(町) 거리에 석교리(石橋里)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도 호수 24, 25호로 농가가 많다. 주민의 생활은 목포보다 낮지만 그렇게 차이가 없다. 이밖에는 근방에 촌리(村里)를 볼 수가 없다.”⁴⁰⁾라 되어 있다.

또 한국목포각국거류지 소재 목포신보사(木浦新報社)에서 1902년 발행한 『개항 5주년기념(開港第五週年紀念) 목포안내(木浦案内)』에는 ‘개항 전 한인부락은 조계내 목포진에 40~50여 호와 조계 밖 쌍교리에 50여 호가 있을 뿐’⁴¹⁾이라 하였고, 이는 역시 일본인이 1914년에 쓴 『목포지(木浦誌)』에도 ‘본디 모습의 목포진’이란 제목 아래 “유달산에는 호랑이굴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황폐하여 쓸쓸하고 처량한 40여 호의 적은 부락이 만호청을 중심으로 지금의 소위 목포대의 동쪽과 그 산기슭에 점점이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⁴²⁾라고 되어 있다. 목포를 ‘빈촌 중의 빈촌’이라고 묘사하였다.

한편 우리 측 기록을 보자. 먼저 『무안보첩(務安報牒)』을 보면 1898년에 목포항의 조계 10리 내에 있는 구(舊) 호총(戶總)을 156호로 파악하고 있다.⁴³⁾ 156호면 1호당 4인 정도로 볼 때 인구수는 600여 명 가량이 된다.

1872년경 작성된 『목포진지』⁴⁴⁾에는 ‘사리호총(四里戶總)’이란 항목을 두어 호총을 모두 민호 132호로 적고 있다. 이때 4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치는 않으나 「무안현목포진지도」의 관할구역 중 성 밖 마을인 쌍교촌·산정리·용당리·관해동 등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872년경 『목포진지』에 파악된 목포의 일반 호수가 대략 132호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이 132호란 숫자는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고 볼 때 『무안보첩』의 1898년 기록에 보이는 156호와 맥이 통하는 숫자로 볼 수 있다.

1898년에 파악한 「전라남도(全羅南道) 무안목포(務安木浦) 신설항(新設港) 각국조계내급각공해기지(各國租界內及各公廨基址) 전답두수결부명세성책(田畝斗數結卜明細成冊)」⁴⁵⁾ 중 「각국조계내(各國租界地內) 전답두수결부명세표(田畝斗數結卜明細表)」를 분석해 보아도 『무안보첩』의 구(舊) 호총 156호는 실제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⁴⁶⁾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개항 이전 목포에는 대체로 150여 호 전후의 사람들이 진의 관할 하에 살고

4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중 「출장원(出張員) 전각공작(前間恭作)의 복명서(復命書)(1896. 11. 11.)」.

41) 목포신보사(木浦新報社), 「제3 거류지 및 부근지의 발전」, 『개항제오주년기념 목포안내(開港第五週年紀念 木浦案内)』, 1902, 22쪽, 38쪽.

42) 목포지편찬회, 『목포지』, 1914(김정섭 옮김, 목포문화원, 1991, 41쪽).

43) 『무안보첩』- 「보고 제62호(1898. 8. 16)」(박찬승·고석규 공역, 『국역 무안보첩』, 목포문화원, 2002, 43쪽).

44) 『호남읍지』(1872년경) 10책, 무안현 목포진지.

45) 『외부래거문(外部來去文)』(규17889) 중 「광무2년10월일 전라남도무안목포신설항각국조계내급각공해기지전답두수결부명세성책(光武二年十月日 全羅南道務安木浦新設港各國租界內及各公廨基址田畝斗數結卜明細成冊)」.

46) 자세한 내용은 고석규, 「제1장 목포진(木浦鎭)과 목포사람들」 참조.

있었다고 보인다. 일본 측 기록에 24~25호라든가 40~50여 호라고 한 숫자는 조계지 내의 남평리·서평리, 즉 목포진성 구역에 거주하던 사람들만을 소극적으로 헤아린 결과라 여겨진다. 개항 전 목포의 위세를 폄하하여 식민지 강점 이후의 발전을 과장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으로 보인다.

6. 목포진의 폐진(廢鎭)

이와 같이 조선 시대 서남해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였던 목포진은 군사제도가 근대식으로 개편되던 을미개혁기에 칙령 제141호(1895. 7. 15.)로 폐진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1897년 개항과 함께 각국 거류지가 설치되면서 진성터는 이들의 ‘개발’에 의해 그 흔적마저 사라져 갔다.

1919년까지만 해도 성루(城壘) 같은 것이 북쪽과 서쪽에 일부 보존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동쪽에는 겨우 옛터를 추측할 수 있는 정도였고 남쪽에 이르러서는 이미 그때 유지(遺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석루(石壘)는 북쪽에 그나마 흔적이 분명했는데 바위 절벽 위에 최고 약 1장을 축조하고 토폭(土幅)은 5~6척, 연장은 약 50간이었으며, 서쪽의 것도 이와 거의 같았다고 한다.⁴⁷⁾ 193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돌들을 엇갈리게 쌓아 올려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근대도시 목포’는 ‘만호진 목포’의 흔적을 거의 철저히 지워버렸다.

최근까지만 해도 ‘목포진유적(木浦鎭遺跡)’이라 새겨진 비석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어 이곳이 목포만호진의 옛터임을 알려 줄 뿐이었다. 2014년 목포진 복원 사업을 통해 객사 등 일부가 복원되어 지금은 이곳이 목포의 뿌리였음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옛 모습과는 웬지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고석규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47) 박노찬, 『木浦史』, 문일출판사, 1974, 23쪽.

제3절 유달산과 유달봉수

‘목포’하면 유달산을 떠올릴 만큼 유달산은 목포를 상징하는 산이다. 그러기에 유산기암(儒山奇巖)이라 하여 유달산을 목포팔경의 첫손가락에 꼽고 남도의 소금강이라 자랑하며 아끼고 알뜰히 가꿔 온다. 언제나 변치 않고 의연히 솟은 바위 봉우리의 늠름하고 장한 모습을 우리 모두의 표상으로 받아들이고, 천동에도 미동치 않는 굳세고 듬직한 자태를 우리의 기상이라 여긴다.

그런데 요즈음은 주로 한글만 쓰게 되면서 한자 표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상에서 동네, 학교, 회사, 가게 이름 할 것 없이 두루 쓰이고 목포의 대명사이다시피 한 ‘유달’ 또는 ‘유달산’은 이제는 한글로만 행세한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 옛 지리지나 읍지를 펼쳐거나 이 고장의 역사나 향토문화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들추다 보면 이내 한자로 표기한 ‘유달산’과 마주하게 된다. 한자 표기도 이것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것이 ‘놋쇠 유(鎬)’자 유달산(鎬達山)으로 쓰인 것은 주로 옛 문헌에서이다. 근래의 간행물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선비나 유학(儒學)을 뜻하는 ‘유(儒)’에 ‘이를 달(達)’의 유달산(儒達山)이다. 이밖에 눈에 띄는 것으로는 유달(鎬達), 유달이(鎬達伊), 유달산(楡達山), 영달산(靈達山) 등이 있다.

일인(日人)들이 남긴 서책에서는 가장 많이 쓰인 것이 ‘깨우칠 유(諭)’자 유달산(諭達山)이다. 태반이 그렇다. 그런가 하면 수달산(輸達山)도 있다. 우리 전래의 명칭인 유달산(鎬達山), 유달산(儒達山)은 마지못해 인용한 감이 있다. 여기서는 이런 유달산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 기록에 나타난 유달산

◎ 유달산(鎬達山) -역대 역사·지리서를 통틀어 유달산의 기록이 보이는 맨 처음은 『세종실록』이다. 자세히는 1448년(세종 30) 8월 27일(경진)조에서다. 의정부에서 당시 외적을 막을 병선(兵船)을 건조하는 자재인 소나무를 확보할 계책을 임금께 상신하면서 소나무가 잘되는 전국의 산과 곳(串)을 열거한 가운데, 유달산이 거명되어 있다.

무안현의 고철금산, 유달산(鎬達山), 모두곶, 흥덕현의 소요산, 임파현의 성산 …….⁰¹⁾

01) 『세종실록』권151, 1448년(세종 30) 8월 27일(경진). “…… 務安縣古鐵金山鎬達山茅頭串 興德縣所要山 臨波縣城山 ……”.

이란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는 『세종실록지리지』(1454)의 나주목조에 나주목 관내에 있는 봉화(烽火) 두 곳 중 한 곳을 기술한 데서,

봉화가 두 곳인데 고을의 서쪽에 있는 군산(群山)⁰²⁾은 남쪽으로 무안의 유달(鎭達)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무안의 고림(高林)⁰³⁾에 응한다.⁰⁴⁾

고 했다. 또 같은 책 무안현조에서도 무안현에 있는 봉화를 설명하여,

봉화가 두 곳인데 유달이(鎭達伊)는 현의 남쪽에 있어 남으로는 …… 황원에 응하고, 북으로는 나주군산(羅州群山)에 응한다.⁰⁵⁾

고 했다. 이와 같이 세종실록에는 유달산에 대한 기록으로 유달산(鎭達山), 유달(鎭達), 유달이(鎭達伊)의 세 가지 표기가 나온다. 그리고는 『조선왕조실록』 전반에 걸쳐서 유달산에 관한 기록은 없다.

요컨대 유달산을 지칭하는 지명의 기본은 지금으로부터 560여 년 전인 1448년(세종 30), 기록에 남아있는 맨 처음부터 ‘놋쇠 유(鎭)’자 유달(鎭達)이고 거기에는 ‘-산(山)’이 아니면 어조사 ‘-이(伊)’를 쓰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유도 ‘유(儒)’자 유달(儒達)과는 다르게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유달산(鎭達山) -이와는 좀 다르게 20세기 초에 증보가 완결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3~1908)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해남) 옥천산의 한 기슭은……, 일성봉으로부터 서북쪽으로 등산의 포구⁰⁶⁾에 이르러, 동북쪽으로 유달산(鎭達山)을 사강⁰⁷⁾의 남쪽에서 바라본다.⁰⁸⁾

02) 지금의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봉수산이다(최성락 외, 『무안군의 수군진과 봉수』, 무안문화원, 2000, 40쪽). 한편 군산봉수의 소관이 나주목인 것은 조선시대의 삼향읍은 지금과는 달리 멀리 떨어진 나주목 소관의 월경지(越境地)였기 때문이다.

03) 지금의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에 있는 도대봉이다(최성락 외, 같은 책, 42쪽).

04)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 나주목. “……烽火二處 群山在州西 南應務安鎭達 北應務安高林 ……”

05)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 나주목 “……烽火二處 鎭達伊在縣南 南應……黃原 北應羅州群山 ……”

06) 조선시대 목포와 해남 간을 연결하던 나루 이름.

07) 조선시대 영산강의 여러 호칭 가운데 하나.

08) 『증보문헌비고』, 권제19 여지도7, 24장 후면~25장 앞면.(서울: 한국학진흥원, 영인본 상권, 1987, 300쪽 하단~301쪽 상단). “玉泉山一麓西至金剛山…自日星西北至登山之浦東北 望鎭達山於沙江之南……”.

고 하여 오직 한 군데 ‘느릅나무 유(楡)’자 유달산으로 써어 있다. 한데 같은 책 같은 장(張)의 바로 후면에서는, 모두 ‘늦쇠 유(鎭)’자 유달산(鎭達山)인 것으로 보아 이는 오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 조선 초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손에 닿는 우리나라 역사·지리서와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유달산에 관한 표기를 살펴보았다.

이것으로 1448년(세종 30)에 최초로 유달산(鎭達山)으로 쓴 이후 조선 초 『세종실록지리지』에 단 한번 ‘유달이(鎭達伊)’로 쓰고는 1899년까지 조선조 전반에 걸쳐 경향의 모든 문헌에서 유달산은 ‘유달산(鎭達山)’으로만 쓰고 있다. 그것은 20세기 초의 문헌인 『증보문헌비고』에서도 오기로 추정되는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표기는 일제강점 이전의 기록에서는 한결같다. 한편 그 유래에 대해서는

유달산(儒達山)의 옛 이름은 유달산(鎭達山)인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그 햇빛을 받은 봉우리가 마치 쇠가 녹아내리는 듯한 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⁹⁹⁾

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는 유달산(鎭達山)이라 부르게 된 뒤의 어느 시기에 아침 햇살을 받아 찬연히 빛나는 유달산을 보고, 이름의 ‘늦쇠 유(鎭)’자와 연관지어 어떤 이가 창작력을 발휘한 근년에 나온 유래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 유달산(儒達山) -이는 유달산의 현재의 표기이다. 여기에서 ‘유달(儒達)’이란 무안의 승달산(僧達山)의 유래담과 연관지어 전해오는 것으로서 한자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유학(儒學)을 진작시켜 모두를 유학의 가르침에 이르도록 하려는 데서 온 명칭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이 고장에서 나온 간행물에서는 유달산의 지명을 바꾸게 한 이로 명시적으로 무정(茂亭) 정만조(鄭萬朝)¹⁰⁾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¹¹⁾하는 식이지 이에 대한 전거(典據)를 제시하여 입증한 기록은 아직 읽지 못했다.

99) 전라남도 문화공보담당관실, 『명소지명유래지(名所地名由來誌)』, 1987, 32쪽.

10) 1858~1936년. 서울 출신. 조선 말기의 학자. 1895년 팔월역변(八月逆變)과 시월무옥(十月誣獄)에 관련되어 1896년 4월에 유(流) 15년 형을 받고 전라도 진도에 유배되었다. 그 12년만인 1907년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케 하고 순종이 즉위하면서 그 해 12월에 취한 사면에 따라 관계에 복귀하였다. 곧 규장각 부제학이 되고 헌종·철종 양조의 국조보감 편찬위원이 되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1992, 755~756쪽). 유배기간 중의 행적에 관한 진도 현지의 기록은 ‘……진도 금감도에 유배되었다. 적거(謫居) 생활 중에 그 곳에 글방을 열고 2세 교육에 힘썼으며 진도 땅에 예술과 문화의 씨를 뿌린 개척자로서 추앙 받게 되었다.’(『진도군지』; 『진도군향교지』) 의재 허백련의 호를 지어주고, 남농 허건의 호도 지어주었으며(향토사학자 김정섭 증언) 한편 해배 후인 1920년대 작인 한시 3수와 연대미상의 한시 3수와 함께 1932년에 지은 『유산정상량문』이 『목포풍아집』에 실려 전한다.

11) 목포시범시민유달산공원화추진위원회, 『유달산(儒達山)』, 1990, 131쪽.

그런데다 유도 ‘유(儒)’자 유달산(儒達山)으로 쓴 맨 처음의 기록은 무정의 저술이나 그와 관련한 데서가 아니라 『무안보첩(務安報牒)』¹²⁾에서이다. 그것은 초대 무안감리(務安監理)이던 진상언(秦尙彦)이 1899(광무 3)년 9월 23일, 외부대신에게 보낸 보고서가 그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본 감리가 그 영사와 회동하여 본 항 유달산(儒達山) 아래 쌍교촌 왼쪽 산기슭에 그 장지(葬地) 64,365㎡를 점정하여 표찰을 세운 바, …… 쌍교촌 북쪽, 유달산(儒達山) 동쪽 끝의 북동면에 있는 물가의 크고 작은 2개의 구릉 ……¹³⁾

이 그것이다. 한데 무정의 연보에 따르면 1899년이면 무정이 진도에서 유배생활 4년째인 해이다. 적거 중의 몸으로 무슨 수로 진도권 밖인 목포의 유달산의 명칭을 바꿨다는 것인지 목포에서 운위되어 지는 이른바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에 수궁이 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 뒤의 기록에 유달산(儒達山)의 표기가 보이는 것은 『초정집(草亭集)』¹⁴⁾에 1915(을묘)년 시월 목포백전회 때의 한시, 1916년 9월 30일자 『매일신보』의 기사, 1922(임술)년 9월에 간행된 ‘무안군지’의 산경(山經) 조 등에서이다.

이상 여러 기록 자료들을 종합할 때 유도 ‘유(儒)’자 유달산(儒達山)으로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1899년 초대 무안감리이던 진상언의 보고서이고, 이것이 보편화하여 일반인들까지 널리 쓰게 된 것은 문인들의 시, 신문기사 등에 두루 쓰인 것으로 보아 1910년대 중반 무렵부터인 것으로 봄이 옳겠다.

◎ 영달산(靈達山) -또 다른 명칭으로는, 유달산을 이 곳 전설이나 지명과 연관지어 달리 영달산(靈達山)이라고도 한다는 것이다.¹⁵⁾ 하지만 이는 다분히 무속 신앙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 불교적인 요소가 습합(習合)하여 그리 오래지 않은 지난 시기에 형성된 구전설화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오래된 옛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표기이고 유래담인데다가 일반에게 통용되는 이야기라기보다

12) 규장각 도서 제17864의 2호로 목포개항 후 1897~1906년까지 무안감리서와 외부대신 사이에 오고간 보고서와 지령을 연도별로 엮은 7책(冊)과 외부에서 무안감리서로 보낸 훈령(訓令)을 모아 엮은 1책, 1906년 1월~1909년 11월 8일까지 무안감리서와 의정부 사이에 오고간 공문서를 모아 엮은 항안(港案)으로 구성 되어 있는 자료집이다. 무안감리서가 설치된 이후 개항 전후의 이 고장 역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13) 『무안보첩』2, 1899년(광무 3) 1월기(起)~12월지(止) 중의 보고 54호; 목포문화원, 『무안보첩』, 2002, 112쪽. “本監理가 會同該領事와 本港儒達山下 雙橋村左麓에 該葬地 六萬四千三百六十五平方米突을 占定立標이온바, …… 雙橋村北儒達山東脚之瀕於北東面之大小二個阜丘…….”

14) 목포 개항 후 1903(계묘)년에 제6대 무안감리 겸 무안항재판소 판사로 부임했고 퇴관 후에는 이 고장에 생활 터전을 잡고 이곳에서 생을 마친 당대의 선비 초정 김성규(草亭 金星圭, 1863~1936)의 문집이다.

15) 목포시범시민유달산공원화추진위원회, 『유달산』, 1990, 117쪽, 157~158쪽.

는 무속과 관계있는 이들 사이에서 들은 것이기 때문이다.

2. 일제강점기 일인들의 기록에 나타난 유달산

일제강점기에 일인들은 유달산을 어떻게 표기하고 호칭하였는지를 보자. 그들의 주된 표기는 유달산(諭達山)이고 엉뚱하게 수달산(輸達山)이란 색다른 표기도 눈에 띈다. 그리고 우리의 한자 표기인 유달산(鎭達山)과 유달산(儒達山)은 부차적인 것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유달산(鎭達山)의 일어 발음은 추우닷상(ちゅうたっさん)이고 유달산(儒達山)은 주닷상(じゅたっさん)이어서 우리말 ‘유달산’과는 그 발음에서 꽤나 거리가 있다. 이와는 달리 일인들이 쓴 수달산(輸達山)과 유달산(諭達山)은 일어 발음으로는 다 같이 유닷상(ゆたっさん)이다. 그 첫소리가 우리말 음과 같다. 그밖에 노랫말에서는 한자 옆에 일본어 독음을 다는, 이른바 루비를 달아 유달산을 ‘유다루노야마[諭達の山=ゆだるのやま]’라 하여 우리말 음에 가깝게 소리 내려고 한 흔적도 보인다.

이렇게 여러 표기를 한 것이 어떤 근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좋게 말해서 한자의 변은 차치하고 일어로 음이 우리 음과 가까우면서 ‘그러할 유(兪)’자가 들어간 한자면 아무 자나 끌어다 쓴 것일까. 그렇더라도 원래 쓰고 있던 우리는 안중에도 없이 그들 편할 대로 가져다 썼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보고인 전담』(1913)¹⁶⁾에서는,

승달산(僧達山)……그 지맥은 남으로 뻗어 반도의 남쪽 끝에서 불끈 솟아나 유달산(鎭達山)이 되었다…….¹⁷⁾

라 하여 ‘놋쇠 유(鎭)’자 유달산(鎭達山)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같은 책이면서도 그 다음부터는 이와는 다르다.

맨 처음 조계지(租界地)는 서쪽은 수달산(輸達山)의 남쪽 중턱을 한계로 하고 북쪽은 그 한 줄기인 작은 언덕을 넣고,…….¹⁸⁾

16) 『보고(寶庫)인 전담』(원명은 『寶庫の全南』)이란 책 제목이나, 저자의 서문 첫머리에 “조선의 부원(富源)은 삼남(三南)에 있고, 삼남의 부원은 전라도에 있다고 해야 옳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전남이 농수산 자원이 무진장한 보고임을 일인들에 널리 알려져서 일인들의 전담 진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책자이다. ‘광주일보’ 사장을 지낸 가타오카 하카루[片岡謙]가 1913년에 광주에서 편찬, 간행하였다.

17) “僧達山……其の支脈の南走して半島の南端に隆起するもの之を鎭達山と爲す…….”(片岡謙. 『寶庫の全南』, 片岡商店, 1913, 86쪽.)

18) “始め租界は西は輸達山南側の半腹を限りとし北は其の一支脈たる小丘を容れ…….”(같은 책, 90쪽.)

등을 비롯하여 모두 네 군데에서 수달산(輸達山)으로 쓰고 있다. 이것으로 일제 강점 직후인 1910년대 초기부터 일인들은 우리의 전래 지명인 유달산(鎭達山)은 차치하고 자기들 편할 대로 아무 글자나 가져다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목포지(木浦誌)』(1914)¹⁹⁾에서 표기의 몇 개만을 들어보면,

특히 목포 시가는 그 방향에 따라 북쪽 아니면 서쪽에 유달산(鎭達山)을 등지고…….²⁰⁾

또한 유달산봉수(鎭達山烽燧)에 관해 덧붙여 이르기를…….²¹⁾

배후에 있는 유달산(鎭達山)에는 호랑이 굴이 있다고 알려져…….²²⁾

뿐만 남은 민둥한 유달산(鎭達山) 봉우리에서 오리, 기러기 떼가 내려와 벼논을 망치는 외에…….²³⁾

이밖에도 여러 군데에서 유달산은 오직 ‘깨우칠 유(鎭)’자 유달산(鎭達山)으로만 쓰고 있는 것이 『목포지』이다.

『목포안내(木浦案内)』(1921)²⁴⁾에는 유달산에 관한 기록이 네 군데 나오는데 역시 여기에도 모두 유달산(鎭達山)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다만 맨 마지막에 있는, 명승고적을 소개한 대목에서는 괄호 안에 ‘우 유달산(又儒達山)’이라 하여 ‘또는 유달산(鎭達山)이라고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일인들이 남긴 자료에서 유달산(儒達山)이라 표기한 최초의 기록이 아닌가 한다.

그로부터 8년 뒤에 나온 『사적목포(史蹟木浦)』(1929)²⁵⁾라는 소책자가 있다. 그 제3장 「유달 봉수」(원문은 「鎭達의狼烟」)에서는 유달, 유달산, 유달봉수 등의 용어가 모두 여덟 번 나온다. 그런데 우리의 옛 전적에서 인용한 부분으로 우리 문헌에는 분명히 유달(鎭達)로 되어 있는 글자마저도 ‘깨우칠

19) 목포시편찬회, 『목포지』, 1914. 모두 686쪽, 본문만 618쪽으로 된 책으로 일인들이 쓰기로는 최초의 목포 인문 지리지인 동시에 목포 개항을 전후하여 벌어졌던 그 간의 내력과 1914년 당시까지의 목포의 사정을 소상히 수록한 역사 자료이다.

20) “殊に木浦市街は其方面に依り北又は西に鎭達山を負ひ…….”(같은 책, 3쪽.)

21) “尙ほ鎭達山烽燧のことを附記して曰く…….”(같은 책, 6쪽.)

22) “背後の鎭達山中に虎穴ありと稱せられ…….”(같은 책, 22쪽.)

23) “禿骨たる鎭達山頂より雁鴨群の降下して稻田を害するの外…….”(같은 책, 24쪽.)

24) 목포상업회의소(木浦商業會議所)에서 펴낸 책으로 당시의 목포 현황을 알리고 부록으로 목포 상공업자들을 소개한, 모두 82쪽인 소책자이다.

25) 『목포부사』가 나오기 1년 전인 1929년에 『목포부사』 편찬의 촉탁(囑託)이었던 일인인 카미쿠라 쇼헤이[神藏昌平]가 쓰고 목포부(木浦府)에서 비매품으로 펴낸 책이다.

유(諭)’자 유달(諭達)로 바꾸어 적어 놓았다.

다음으로 『목포부사(木浦府史)』(1930)²⁶⁾는 여러 사람이 원고를 쓴 까닭인지 유달산(諭達山), 유달산(儒達山), 유달산(諭達山) 등 세 가지 표기가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오랜 표기인 유달산(諭達山)은 설명을 위한 부수적인 것에 보일 뿐이고 자주 쓰인 것은 유달산(諭達山)과 유달산(儒達山)의 두 가지 표기가 주를 이룬다. 즉,

유달산(儒達山): 역사적으로 이를 고찰할 때, 유달산(儒達山)은 봉수산이다. 해발 228m이며 시가의 배후에 솟아있는 기봉(奇峰)으로 다도해만(多島海灣)을 조망(眺望)하는데 알맞다. 이번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다. 옛적부터 유달산(諭達山), 유달산(諭達山) 등의 글자를 쓰고 조선말로는 유달산이라 부른다.²⁷⁾

라고 했다. 우리 옛 기록의 어디에 ‘깨우칠 유(諭)’자 유달산(諭達山)이란 표기가 있으며 옛적의 어느 때부터 유달산(諭達山)이란 글자를 썼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이것은 옛적에는 있지도 않았던 유달산(諭達山)이란 한자 표기를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고 할 밖에 없다. 그 정도는 그래도 약과라 할까. 목포의 유적 명승을 소개한 대목에서는 한술 더 떠서,

유달산(諭達山): 달리 유달산(儒達山), 유달산(諭達山) 등의 글자를 쓴다.²⁸⁾

라고 적고 있다. 이 문장은 문의(文意)로 보아 유달산(諭達山)이 본래의 표기이고 유달산(儒達山), 유달산(諭達山)은 부차적인 이칭(異稱)이나 별칭(別稱)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읽기라고 생각한다. 우리 표기에는 있지도 않았던 유달산(諭達山)을 마치 본래의 표기인 것처럼 끌어다대는 양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뻘다’는 우리 속담 그대로이다.

그밖에 유달산(諭達山)은 해설을 위한 자리에 단 두 차례 나타날 뿐이다. 이에 반해 유달산(諭達山)은 다섯 번이나 쓰고 있다. 유달산(儒達山)도 세 번 보이는데 이것도 당시로는 유달산(諭達山)보다는 낮은 표기였으리라.

26) 1930년에 목포부에서 부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담하는 촉탁을 두고 편찬, 간행한 책이다. 일제강점하의 우리 고장 역사를 담은 공식 기록이라 하겠다. 모두 1082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이다.

27) “儒達山: 歴史的に之を觀る時、儒達山は峰山なり。海拔二二八米突市街の背後に聳ゆる奇峰にして、多島海灣の眺望に適し、今時公園設備を進められつつあり。古來諭達山、諭達山等の文字を用ひ、朝鮮語にてユ달산と呼ぶ。”(木浦府, 『木浦府史』, 1930, 24쪽.)

28) “諭達山: 又儒達山、諭達山等の文字を用ひらる。”(같은 책, 880쪽.)

그 중 유달산(儒達山)의 유달(儒達)을 ‘유학의 가르침에 이르도록 한다’고 풀이한다면 크게 나무랄 데가 없고 우리나라 사람이 작명한 것이니 흠잡을 일은 아니겠다. 이와는 달리 일인들이 주로 쓴 ‘깨우칠 유(諭)’자 유달산(諭達山)은 그 뜻을 알았을 때 참 황당했다.

유달산에 관해 관심을 갖고 오래 전부터 조사해 온 이의 설명에 따르면, 유달산(諭達山)의 유달(諭達)은 ‘조선 민족을 몽매에서 깨우침에 이르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작명이고 표기라고 했기 때문이다.²⁹⁾

일인들의 기록을 살펴다 보면 ‘깨우칠 유(諭)’자 유달산(諭達山)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데 그 까닭을 알 만하다 하겠다.

처지를 바꾸어 따져 보자. 우리의 백두산처럼 일인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숭앙하며 일본을 상징하는 산이 후지산(富士山)이다. 만약 우리가 이 산을 한자로 쓸 때, 부사산(富士山)이라 쓰지 않고 우리음을 따라 부사산(腐土山)으로 쓰거나 원음에 가깝게 쓴다며 후지산(朽志山)으로 적는다면 그 뜻풀이를 해 본 그들은 무엇이라고 할까. 적어도 목포인에게 유달산은 그들의 후지산에 진배없는 자랑스럽고 친근한 산이며 목포를 상징하는 산이다.

다음으로 『목포부세일반(木浦府勢一班)』(1936)³⁰⁾에도 유달산이 나오는데 앞쪽에 실린 목포행진곡과 「목포고우타[木浦小唄]」라는 노래 가사에는 둘 다 ‘깨우칠 유(諭)’자를 썼고 본문의 다섯 군데에는 유도 ‘유(儒)’로 되어있다.

이상 일제강점기에 일인들이 쓴 유달산의 표기를 보았다. 그 중 유달산(諭達山)이란 표기는 앞에선 연구자의 말대로라면 우리에게 치욕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광복 후에 목포에 관해 쓴 일부 글 가운데는 이따금 ‘깨우칠 유(諭)’자 유달산(諭達山)의 표기가 보인다. 이것은 참고할 만한 제대로 된 문헌 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시기에 별 생각 없이 일인들이 남긴 자료에서 손쉽게 인용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인들이 남긴 근거도 없는 표기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라 할 수는 없겠다. 요즈음은 한글만 쓰는 세태니까 그런 잘못은 이제 없겠지만 우리에게 욕됨을 자초하는 그런 실수는 차후에는 행여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는 유달산의 한자 표기를 ‘유(儒)’자로 변경하기 시작한 것은 1899년 초대 무안감리였던 진상언의 보고서가 그 처음이라고 할 수밖에 달리 그 근거가 없다고 본다.

한편 한자의 뜻을 헤아려 볼 때 ‘유달산의 한자 표기를 변경’한 이가 소인묵객이든 당시의 관원이든 아무튼 유학에 조예가 있는 이의 주재(主宰)로 이루어졌다는 데에는 누구나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29) 이 내용은 목포산정초교, 광주교대목포부설초교 교장과 신안교육장 등을 역임한 서용수(徐龍洙, 1924~2002)님이 들려 준 말이다.

30) 1936년 목포부에서 편찬, 간행한 책으로 이름 그대로 당시의 목포시의 형세를 통계를 들어 밝힌 126쪽의 소책자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유달산은 15세기 중엽인 1448년(세종 30) 8월 27일자 『조선왕조실록』에 ‘놋쇠 유(鑪)’자 유달산(鑪達山)으로 표기된 이래로 19세기 말인 1899년까지 오직 유달산(鑪達山)으로만 표기하였다. 그 기간은 450여 년으로 500년에 가깝다.

유달산의 표기가 언제 누구에 의해 유달산(鑪達山)에서 지금의 유달산(儒達山)으로 바뀌었는지는 아직까지 전거를 찾지 못했다. 아쉽지만 숙제로 남길 수밖에……。 다만 유달(儒達)이라는 한자의 뜻으로 보아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이에 의해서였을 것으로는 추정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서 유달산이 유도 ‘유(儒)’자 유달산(儒達山)으로 표기되어 있는 최초의 문헌 자료는 『무안보첩』으로 그 1899(광무 3)년 9월 23일 조에 무안감리 진상언이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에서이다.

이 유도 ‘유(儒)’자 유달산(儒達山)을 일반인들도 널리 쓰게 된 시기는 1910년대 중반 전후부터로 봄이 옳겠다. 그 까닭은 이것이 여기저기 빈번히 보이는 것이 1910년대 중반의 문사들의 한시나 여러 일간신문에서이기 때문이다.

이어 1920년대 초반 무렵까지는 유달산(鑪達山)과 유달산(儒達山)이 넘나들어 나란히 쓰인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초반에 가장 보수적이라 할 『무안군지』에 유달산(儒達山) 표기가 보이고 이와는 달리 시류에 가장 민감하다 할 일간신문에 1923년까지도 유달산(鑪達山) 표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 전래 표기인 유달산(鑪達山)은 차츰 자취를 감추어가다가 마침내는 영영 잊혀져버린 이름이 되지 않았나 싶다.

1914년 이후 일제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는 일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깨우칠 유(諭)자 유달산(諭達山)으로 표기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일인들이 유달산(諭達山)이라 표기하는 것에 맞서서 의식적으로 유달산(儒達山)으로만 표기하지 않았나 싶다. 이를 뒷받침하듯 당시에 국문으로 간행된 모든 일간신문에서는, 『동아일보』에서 단 한번 예전의 유달산(鑪達山)으로 표기한 것 말고는 한결같이 유달산(儒達山)으로만 썼고, 초정 김성규(草亭 金星圭)의 『초정집』의 시나 『목포풍아집』에 수록된 이 고장 문사들의 시구(詩句)에서나 하나같이 유산(儒山) 아니면 유달산(儒達山)이란 표기만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우리 측 기록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단 한 번도 일인들이 즐겨 썼던 유달산(諭達山)이란 표기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다. 유달산의 대표적인 누각의 이름 유선각(儒仙閣)도, 1932년 맨 처음 세울 당시 시민들의 공모로 지어진 이름으로 ‘유(儒)’자를 사용하였다. 또 있다. 무안동에서 유달산으로 올라가는 측후동 쪽의 등산로 들머리 오른쪽에 서있는 안내 표지석에도 어김없이 유도 ‘유(儒)’자 유달산등구(儒達山登口)라 씌어 있다.³¹⁾

31) 세운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초 필자가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부터 보아온 표지석이다. 연전에 교통사고로 조각난

그러니 유달산(儒達山)이란 표기는 일제에 맞서는 우리 의지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우리의 지기(志氣)를 지킨 호칭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디서나 유도 ‘유(儒)’자 유달산(儒達山)으로만 쓰다 보니 광복이 되면서도 우리의 오랜 호칭인 유달산(鎬達山)을 되찾지 않은 채 오직 유달산(儒達山)으로만 쓰며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인지 1955년에 나온 『목포사감(木浦史鑑)』³²⁾에는 오로지 유달산(儒達山)이란 표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³³⁾

오래도록 써왔던 유달산(鎬達山)을 잃어버린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쓰이고 있는 유도 ‘유(儒)’자 유달산(儒達山)의 표기는, 일제 강점하의 엄혹한 시기를 우리와 함께 겪은 이름일 뿐더러 한자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유학(儒學)을 진작시켜 우리를 유학의 가르침에 이르도록 하려한 선인들의 의지와 간절한 소망이 담긴 뜻있는 호칭이라 할 수 있겠다. 그것을 보여 주듯 유달산 유선각의 현판인 「유선각기(儒仙閣記)」의 말미는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요즈음 시대가 점점 내려오면서 몇몇한 도리가 무너져 도도히 말속(末俗)의 풍조에 휩쓸리어 서로 무리를 지으니 유(儒)라는 글자로 정명(正名)을 돌아보고 인의(仁義)를 생각하여 유풍을 진작시키며, 추락(墜落)한 도리(道理)를 일으켜 세우고 퇴폐(頹廢)한 풍속(風俗)을 바로 잡을 것을 생각한다. 먼 옛 성현(聖賢)들의 가르침에 어찌 보탬이 적다고만 하겠는가³⁴⁾

마지막으로 조정 김성규가 1917년(정사) 가을에 목포백전회에서 유달산(儒達山)을 두고 읊은 시의 미련(尾聯)을 빌려 마무리는 바이다.

예나 이제나 세상의 모든 이가 다 함께 우리르니,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그 이름 길이길이 드리우리라.³⁵⁾

것을 치우고 글자체와 내용을 옛것 그대로 새겨서 예전 그 자리에 세워 놓았다. 예전의 사진 자료와 대조해 보니 전에는 앞면에 ‘유달산등구(儒達山登口)’라 쓰고 후면에 “정상은 여기서 1384.5m이고 높이는 해발 228.3m이다[頂上從一三八四米五 海拔二二八米三].”라고 적었는데 지금의 표지석에는 전에 후면에 적힌 내용이 앞면 하단으로 옮겨져 있다. 그런데 우리말이라기에는 어색한 등구(登口=노보리구치)라는 일어식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처음 표지석은 한말이 아닌 일제강점기에 세운 것이 아닌가 한다.

32) 신문기자이던 양세훈이 당시의 목포의 현황을 그대로 모아 편집한 262쪽으로 된 소책자이다.

33) 양세훈, 『목포사감』, 신조출판사, 1955, 1쪽·3쪽·5쪽·6쪽·7쪽 등.

34) 유달산에서 목포시가와 다도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규모도 가장 큰 누각이 유선각(儒仙閣)이다. 이를 1955년(단기4288) 7월 16일에 중수하고 당시 목포시장 하동현의 이름으로 쓴 유선각기 현판의 말미 부분이다. “儒仙閣記: ……今世級淺降彝倫敦衷沿沿霄倫以儒字顯名思義振興儒風思所以植壁倫而正頹俗則其於世教豈但曰少補也哉.” 이 현판은 지금은 목포문화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위의 글은 도하 김형만(度夏 金炯萬)님의 번역문에서 인용하였다..

35) 『초정집』권지2, 4장 후면. “環瀛今古人皆仰 無愧嘉名垂永年.”



그림 1 유달산 등구 안내 비(무안동) 그림 2 개항 110주년 기념 유달산 비(유달산)

3. 유달 봉수

유달산 봉수(烽燧)도 빼놓을 수 없는 목포 역사의 한 장면이다. 그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 무안 현조에 처음 나온다.

(무안현에는) 봉화가 둘 있는데, 하나는 유달이(鎭達伊)로 현의 남쪽에 있으며 남으로 영광(靈光) 황원(黃原)과 연결되고 북으로는 나주(羅州) 군산(群山)과 연결된다. 다른 하나는 고림(高林)으로 현의 서쪽에 있으며 북으로 함평(咸平) 지용산(地甕山)에 응한다.

라 하여 목포의 유달산 봉수가 ‘황원 봉화(현 해남군 화원면 일성산) → 유달 봉화 → 군산 봉화(현 무안군 삼향읍 왕산) → 고림 봉화 → 함평현 지용산(地甕山) 봉화’로 연결되는 봉화로(烽火路)에 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³⁶⁾ 이 봉화로는 조선 시대에 마련되는 5개 봉화로 중에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천 돌산도(突山島)에 있는 방답진(防踏鎭) 봉화에서 시작하여 고흥·장흥·강진·완도·해남·진도 등 전라도의 남해안을 돌아 황원·유달 봉화를 거쳐 서해안을 따라 올라 강화도를 통하는 것이었

36)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6권 무안현 「봉수」조에 유달산 봉수는 “현에서 남쪽으로 63리 떨어져 있는데, 남쪽으로 해남현(海南縣)의 황원(黃原)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나주 군산(群山)에 응한다. 고림산 봉수는 남쪽으로 나주 군산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함평현 왕산(甕山)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군산은 지금의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왕산(旺山)을 말한다. 당시 삼향읍은 나주의 월경지로 나주에 속하였다. 한편 함평의 지용산은 여기서는 왕산으로 되어 있다.

다. 『호남봉대장졸총록(湖南烽臺將卒摠錄)』에 따르면, ‘무안의 유달산(鎭達山)봉수는 목포진 소관이 다. 남쪽의 해남 황원봉수에서 육로로 대략 40리쯤 와서 나루를 건너서 있다. 북쪽으로는 나주 군산 봉수에 응한다. (무안) 관아로부터는 남쪽으로 60리이고 목포진에서는 북쪽으로 3리이다. 별장 6인, 군사 25명, 보인(保人)³⁷⁾ 48명으로 매달 초하루에 별장 2인과 군사 8명씩이 돌아가며 수직을 한다.’고 하였다.³⁸⁾ 유달산 봉수는 1893년(고종 30) 윤5월 9일 봉수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능이 정지되었다. 현재는 사라져 터마저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 3 1872년 「무안목포진지도」 유달봉수

오홍일 |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37) 병역에 복무하지 아니하고 보포(保布-병역에 종사하지 않는 대신에 바치는 베)를 바치는 장정.

38) 『호남봉대장졸총록』(규 4482) 무안유달산봉수조.

제4절 정유재란기 이순신 장군과 고하도

고하도⁰¹⁾는 목포 앞바다 서남쪽 1.2km 거리에 있는, 주위가 10.7km에 불과한 조그마한 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근에 있던 허사도를 매립하여 신의항을 건설한 후, 남동쪽은 영암군 삼호읍과 연륙되었고, 북서쪽은 목포대교를 건설하여 북항과 연륙되었다. 행정 구역은 목포시 유달동에 편입되었다.

이곳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진(鎭)을 설치하고, 106일을⁰²⁾ 머무르며, 칠천량 해전으로 함몰된 조선 수군을 재건한 유서 깊은 곳으로, 당시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山城) 일부가 남아 있다. 이곳에 군량을 비축한 사적(史蹟)을 기념하는 유허비(遺墟碑)가 보존되어 전라남도 지방 유형 문화재 39호로 지정되었다. 목포시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고하도에서 이룩한 일들을 기리기 위하여 모충각(慕忠閣)을 짓고, 그 안에 비각을 지어 유허비를 보존하고, 매년 4월 28일에는 이충무공 탄신제를 지내고 있다.

그림 1 유달산에서 바라본 고하도(1976, 국가기록원)



01) 고하도(高下島)는 조선시대에는 나주목 관할에 속하였다. 보화도(寶花島), 고화도(高和島), 고하도(高霞島), 또는 비하도(悲霞島) 등으로 표기되었다.

02) 충무공의 고하도 주둔 기간을 108일(이은상, 『(완역) 이충무공 전서』, 성문각, 1989; 조성도,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 명문당, 1989; 최석남, 『(구국의 명장) 이순신』, 교학사, 1992.) 또는 107일이라 한다. 그러나 당시의 월력을 조사한 바 106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충무공의 『난중일기』를 보면 “1597년 음력 10월 29일 새벽 2시에 목포로 향하였다가 보화도(寶花島)에 옮겨 정박하다”라고 하였다. 난중일기는 1598년 1월 5일~1598년 9월 14일의 일기가 빠져 있어 고하진을 출발한 날짜는 없으나, 『선조실록』 1598년(선조 31) 3월 18일(계묘)에 “2월 16일 제장을 거느리고 보화도를 출항하여 17일 강진현 고금도(현 완도군 고금도 덕동)로 이전하였다.”라고 하였다. 고하도에서 고금도 덕동까지의 뱃길이 2일이다. 이를 근거로 1597년 10월 29일~1598년 2월 16일의 날짜를 계산하면, 1597년 10월은 30일, 11월은 29일, 12월은 30일, 1598년 1월은 29일까지이다. 이를 합하면 106일이 된다.

1. 고하도에 진(鎭)을 설치하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범한 일본군은 호남과 호서 일부를 제외한 전국을 유린하고 점거했으나, 조선 의병과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에게 보급로가 차단 당하고, 한편으로는 조선군과 명나라 군대의 반격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강화(講和)를 요청하고, 경상도 남해안으로 퇴각하여 둔踞하였다.

일본군은 이후 약 3년 6개월 간에 걸친 강화가 결렬(決裂)되고 일본 측의 반간계(反間計)⁰³⁾ 이순신 장군이 통제사직에서 물러나자, 1597년 7월 16일 칠천량에서 수군통제사 원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을 전멸 시키고, 전라도로 쳐들어가 남원, 전주를 함락한 후 서울을 향하여 북상하였다.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북상하던 선봉대가 9월 7일 직산에서 명나라 부총병 해생(解生) 장군에게 저지되어, 북상을 중지하고, 그 예봉을 남쪽으로 돌려 호남과 호서 지방을 철저히 분탕(焚蕩)하였다. 한편 일본 수군은 병선 330여 척으로⁰⁴⁾ 서해로 돌아 서울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동년 9월 16일⁰⁵⁾ 울돌목에서 재임용된 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에게 격퇴 되었다. 일본 수군은 울돌목에서의 패전으로 기세가 한풀 꺾이기는 하였지만, 수군 대장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는 부상을 당했지만 살아 있었고,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등 일류급 맹장들도 건재하였으며, 병선도 300여 척이 남아 있어, 조선 수군에 비하여 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이에 곧 전열을 정비하여 조선 수군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 13척과 초탐선 32척으로 일본수군을 울돌목에서 크게 무찌르기는 하였지만, 수적인 열세를 감안하여 적과의 접전을 피하며, 전라북도 고군산 열도까지 후퇴 작전으로 물러났다가, 일본군의 추격이 멈추자, 뱃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내려 왔다.

1597년 10월 9일 우수영(右水營)으로 돌아와 보니, 우수영은 불타버려 더 이상 진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10월 11일 인근에 있는 신안군 발음도(發音島, 일명 안편도)⁰⁶⁾로 뱃머리를 돌려 이곳에서 19일간 머무르며, 적정을 살피고, 작전을 구상하며, 전선을 정비할 진지를 물색하고 있을 때, 조

03)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한일(韓日) 이중간첩인 요시라를 경상좌병사 김응서에게 보내어, 1597년 1월 모일 가토[加藤清正]가 조선해협을 건너가니, 이순신장군을 시켜 도중에서 요격하여 죽이라는 밀서를 보냈다. 총무공은 적의 간계임을 간파하고 나가지 않으니, 조정에서는 어명을 거역하였다 하여 통제사직에서 해임하고, 감옥에 구속하였다. 이를 고니시 유키나가의 '청정 해상 요격설 함정'이라 한다.

04) 정유재란 때 서해로 올라온 왜군의 전선 수에 관한 여러 주장이 있다. 『이충무공전서』 9권 행록에는 333척, 『난중일기』 정유년 9월 16일조에는 200여 척 또는 133척 등으로 나온다. 여기에 나오는 133척은 울돌목 해전에 선봉으로 참전한 왜선을 말한다.

05) 정유년 9월 16일은 울돌목 해전 승전일이다. 양력으로 환산하면 1597년 10월 26일이다.

06) 발음도 또는 안편도는 지금까지는 신안군 안창도(안좌면)라고 하였으나, 장산도라는 새로운 주장이 대두되었다. 장산도는 통일신라시대는 안파도(安波島)라 불렀고, 발음도란 울돌목의 돌이 구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하여 발음도라 했다고 한다. 장산도는 울돌목과 9.3km 거리에 있다(신안문화원, 『내 안에 살아 숨 쉬는 장산』, 2008, 11쪽).

정으로부터 명나라 수군이 강화도에 도착하였으니, 정박할 장소를 물색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1597년 10월 29일 이순신 장군은 발음도를 출발하여 고하도(高下島)에 닻을 내리고 수군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고하도는 서북풍을 막을 수 있고, 배를 감추기에 적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산강 입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병력 보충과 군량 조달에 편리하였다. 또한 주위에는 소나무가 울창하여 전선을 건조할 목재가 풍부하여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 밖에도 이곳을 지킴으로써 호남의 곡창 지대인 나주 등을 지킬 수 있고, 임금이 계시는 도성과의 연락이 편리하다는 점도 감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1597년 10월 29일~1598년 2월 16일까지 106일을 머무르니, 이 때 고하도진이 임시 수군 통제영이 된 것이다.

2. 고하도에서 수군을 재건하다

이순신 장군은 1597년 10월 29일 고하도에 도착하자마자 막사를 짓고, 대장간을 차려 인근 고을에서 목수와 대장장이를 모집하여, 도검, 창, 조총을 만들고, 전선에 장착할 승자총통 등 각종 총통과 철환을 만들었으며, 선소를 차려 전선을 수리하고, 건조하였다. 염초공을 불려 화약을 굽고, 활 만드는 장이를 모집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었다. 이때 삼향의 전죽(箭竹)은 크게 활용되었을 것이다.⁰⁷⁾ 당시 장이(기술자)는 신분적으로는 하층 계층에 속하였으나, 나라를 구하려는 일념은 누구보다 뜨거웠으므로 충무공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여 열심히 일하였다. 대홍사 사노 막동과 영광 관아의 이방 무역은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아들 인데 무기 제작에 기여한 인물로 전해 온다.⁰⁸⁾

또 한편으로는 군량을 모으고, 병사를 모집하여 조련하고, 각지로 탐망선(探望船)과 척후대(斥候隊)를 보내어 적정을 탐색하고, 또 적을 토벌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⁰⁹⁾ 당시 고하도는 병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요, 무기를 만드는 제조창이요, 군량미를 수집 보관하는 군량 창고요, 군대를 훈련하는 연병장이며, 소금을 굽는 염전이였다.

이렇게 106일 동안 고하도는 대장간의 망치 소리, 목재를 나르는 산역꾼의 소리, 군사를 훈련하는 호령 소리, 사격 연습 하는 포 소리 등으로 온 섬이 시끌벅적하고 요란하였다. 이러한 모든 소리들이

07) 『증보문헌비고』 나주목의 토산품에서 '삼향의 댓살은 천하에 소문나니'하고 찬양하였다. 전남 도청 뒷산의 서북방에는 큰 전죽 밭이 있는데 이곳의 전죽을 말한 듯하다.

08) 최영섭, 『(이충무공 정곡 서린) 민족성지 고하도』, 훈, 2007, 363쪽에서 인용.

09) 충무공이 지은 『난중일기』 1597년 10월 16일에는 해남에서 왜적 13급을 베었고, 동년 11월 22일경에는 장흥에서 적을 쳐서 쫓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함께 어우러져 조선 수군을 재건하는 합창 소리가 되어 멀리 멀리 울려 퍼져 나갔다.

이때의 정황을 영의정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은 「충민사기(忠愍祠記)」에서 “이때(정유재란) 한 산도 여러 장수들은 죄다 도망하여 본도(전라도) 피난민들과 함께 여러 섬으로 숨어들어가 있었는데, 공은 날마다 부하 장수들을 보내어 여러 섬으로 돌아다니며, 타이르게 하여 흩어진 군사를 불러 모으고, 배들을 수리하며, 기계를 정비하고, 소금을 구워 팔아 두 달 동안에 곡식 수 만석을 얻게 되니 장병들이 구름 같이 모여들고 군대의 위세도 다시 떨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고하도에서 이룩한 업적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병사를 모집한 일이다. 1597년 7월 16일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함몰되자, 남아있던 장졸들은 각자 살길을 찾아 흩어져 버렸으므로, 이순신 장군은 군관을 도서로 보내어 부대를 이탈한 병사들을 찾아 설득하여 귀대시키는 한편 피난민을 군대에 편입시켰다. 그가 머무는 곳에는 살길을 찾아 많은 피난민이 모여들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병사가 되기를 자원하였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은 전라도 순찰사 황신(黃愼)과 협의하여 전라도 연해안 19 고을을 수군 전속으로 약속을 받은 것은 병사 모집에 큰 도움이 되었다.¹⁰⁾ 각 고을은 수군 전속, 육군 전속 지역으로 나눠 징병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실제로는 감사, 병사, 방어사 등이 수군 장수를 육전으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병력을 차출하였으므로, 병력 모집에 어려움과 혼선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 문제가 해결을 본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병력 증원은 정규군 모집 뿐만 아니라 연해안에서 활동하는 의병에게 의병장 직첩을 주어 적을 치게 하거나, 향토를 보위하게 하고, 또는 첩보, 연락, 군량미 조달 등 특수 업무를 맡기는 등 비정규군 형태로도 진행되었다. 그 좋은 실례가 고흥 출신 신君安(申君安)이다.¹¹⁾ 그리고 당시 수군에는 승려들이 의병으로 참여하여 활동했다.¹²⁾ 이렇게 하여 3개월 반 동안에 약 6,000여 명을 충원하니, 고하도에 처음 왔을 때 거느린 2,000여 명¹³⁾의 병력과 합하여 그 숫자가 8,0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¹⁴⁾

10) 전라도 19개 고을이란 좌도 5개 고을(광양, 순천, 낙안, 고흥, 보성)과 우도 5개 고을(장흥, 강진, 해남, 영암, 진도), 모두 10개 고을만 수군 전속으로 하고, 나머지 9개 고을(나주, 무안, 함평, 영광, 무장, 흥덕, 고부, 부안, 옥구)은 육군으로 소속시키는 등 관할이 자주 변경되었다. 『난중일기』 1597년 12월 25일에 “순찰사가 진중에 와서 군사에 관한 일을 의논하고 육군으로 소속시켰던 9개 고을을 수군 전속 고을로 환원 할 것을 약속 받았다.”고 하였다.

11) 신君安(申君安)은 고흥 출신으로 정유년에 고흥지방을 거점으로 의병 활동을 하였다. 충무공으로부터 의병장의 직첩을 받고 연해지역 7개 읍을 전전하며 활약하다가 이듬해에 전사하였다. 1597년 12월 14에 보화도에서 발행한 차정(差定)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12) 『난중일기』 1597년 8월 8일에 충무공이 순천에 이르렀을 때 중 해희(惠熙)에게 의장첩(義將帖)을 주어 의병을 모집하도록 했다. 이러한 예로 보아 이때도 승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 이순신 장군이 고하도에 왔을 때의 병력은 전선 15척, 군관·아병과 사수·격군 등을 합하여 2,000명을 유지했다(『조선국왕자경략(朝鮮國王咨經略)』 「본국사보합처병수(本國查報合處兵數)」 1597년(만력 25) 11월 11일: 『사대문궤(事大文軌)』 권24).

14) 수군을 8,000여 명으로 증원한 것은 고금도에서의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신조 40척의 전선에 승선할 승조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러한 병사 충원은 고금도로 진을 옮긴 이후에도 계속 되어, 1598년 9월에 순천 왜교로 출전할 당시는 판옥선 85척을 보유하게 되었고, 거느린 병력도 15,000여 명으로 증원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전선(戰船)을 건조하고 수습(收拾)하여 확충한 일이다. 이순신 장군이 고하도에 처음 왔을 때 거느리고 온 전선은 판옥선 15척과 초탐선¹⁵⁾ 32척이 고작이었다. 이 병선들은 울돌목 해전에 참전한 13척의 병선 외에도 2척의 판옥선을 더 수합한 것이다. 그렇다면 고하도에 머무는 동안 전선을 몇 척 건조하고, 또 몇 척을 수합하여 얼마만큼의 전선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이순신 장군이 고하도에서 고금도로 출발한 6일 후인 1598년(선조 31) 2월 22일 『선조실록』을 보면, 명나라 구원군 경리 양호(楊鎬)가 조선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 숫자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에 대한 병조에서 응답한 보고에 ‘주사(舟師: 수군)가 이미 40척을 조선(造船)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이미 40척을 건조했다는 말은 이때까지 확보한 전선을 모두 합하여 40척이라는 말인지, 또는 명량해전에 참전한 13척 외에 새로 40척을 신조했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하도에 주둔할 당시 이순신 장군이 확보한 전선을 모두 합한 숫자로 추산한다.

이때 건조한 전선(戰船)은 어떤 종류의 병선인가?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 수군의 병선(兵船)으로는 거북선과 판옥선¹⁶⁾ 및 종선인 사후선(伺候船)이 있었다. 그 중 주력함은 판옥선이었다. 그리고 고하도에서 건조한 전선은 판옥선을 말한다. 당시 수군의 편제는 판옥선 1척에 종선 1척의 비율이므로 판옥선의 척수에 버금가는 종선인 사후선도 건조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⁷⁾ 그리고 전선이라고 말할 때는 판옥선 숫자만을 말하고, 사후선은 전선의 숫자에는 넣지 않는다.

판옥선 한 척을 건조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소요 자재는 얼마쯤 될까? 김재근의 『조선왕조 군선연구』 중 「헌성유고(軒聖遺稿)」에¹⁸⁾ 의하면 판옥선 한 척을 건조하는 데는 인부 76명, 소요되는 소나무는 50~60년생 175주, 기일은 약 46일이 소요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의 기록을 감안하여 생각해 볼 때 인원 70여 명이 40여 일이면 한 척의 판옥선을 건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는 비상 시기 이므로 짧은 기간에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몇 개의 선대(船臺)를 설치하여, 각 선대(船臺)

흠어진 군사를 모으며, 19개 고을을 수군 전속 고을로 전환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고하도에서 양성한 병력이 8,000여 명이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듯하다.

15) 초탐선은 척후, 탐방이나 또는 연락의 업무를 맡은 소형선으로 승조원은 5명이다. 사후선은 여기에 속한다.

16) 판옥선은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 주력함이다. 그러므로 전선하면 판옥선을 말한다. 초기 승조원은 약 125명이었다. 이후 점점 증대화 되면서 130명, 155명, 172명, 207명이 승선하였다. 참고로 전라좌수영지를 보면 좌수영 제1호 판옥선은 1735년(영조 11) 4월에 건조되었는데, 승선 병력이 207명이다. 임진왜란 때는 약 140~150명이 승선한 것으로 본다.

17) 사후선은 정찰, 전령선의 임무를 맡고, 판옥선 및 거북선 등 병선의 종선 역할을 하였다. 승조원은 5명이다. 울돌목 해전에 참전한 초탐선도 사후선의 일종이다.

18) 『헌성유고』는 이광현씨의 외가에 전래되어 온 유고로 1822년 3월 25일부터 윤3월을 거쳐 4월 26일까지 61일간의 선역(船役)을 일기체로 적은 것이다. 즉 대마도로 가는 사행선 건조 일기이다. 이때 사행선은 판옥선을 이용했다.

에서 수척의 선박을 동시에 건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난중일기』에 나타난 전선 건조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1597년 11월 6일에 전라우수사 우후(虞侯)는 나무를 찍어 오는 길로 황원장(해남 화원)으로 갔다. 동년 11월 21일 송응기(宋應璣) 등이 산역군을 데리고 해남 소나무 있는 곳으로 갔다. 동년 12월 5일 정응남(鄭應南)이 새로 만든 배를 검열한 일로 점세(店世)를 데리고 진도로 떠났다. 1598년 1월 2일 이날 세배에 낙괴(落塊)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전선 건조는 고하도에서 뿐만 아니라 해남의 화원반도, 진도 등 인근 고을 및 송림이 울창한 도서에서도 건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⁹⁾

당시 전라도 변산반도와 그 이북 고을에서는 명나라 구원군의 군량과 마량(馬糧) 운반을 위한 조운선(漕運船) 건조로 전선을 건조할 여력이 없고,²⁰⁾ 경상도와 전라좌도 연해안은 왜군에게 점거되어 전선 건조는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전선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전라우도 특히 고하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 도서 지방이었다.

세 번째는 군량미를 모아 쌓은 일이다. 옛날부터 적과 싸우는 전투의 대요(大要)는 3가지가 있으니, 첫째가 군량미, 둘째가 병사, 셋째가 무기라고 하였다. 그만큼 군향(軍餉: 군량)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화되고 농촌은 폐폐되었으며, 가지고 있는 식량마저 일본군에게 강탈당하거나, 전화로 모두 소실되니, 국고는 텅 비게 되어, 조정으로부터의 지원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일 뿐, 자체 조달해야만 했다.

당시 식량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유 중인 병사도 유지하기 어려워 해산시키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의지할 곳은 백성 밖에 없었다. 이순신 장군이 있는 곳에는 항상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피난선에는 식량을 가지고 다녔다. 그래서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해로통행첩(海路通行帖) 발급인데, 이는 좌막(佐幕) 이의온(李宜溫)²¹⁾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로 통행첩이란 일종의 선박 운항증으로 연해안을 운항하는 선박은 이를 소지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간접 색출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군량미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운항증 발급 수수료로

19) 『세종실록』권121, 1448년(세종 30) 8월 27일(경진)에 의하면 고하도 인근으로 나라에서 소나무 배양지로 지정한 지역은 나주의 가야산, 달리도, 비금도, 도초도, 암태도, 안창도(안좌면), 자은도, 기좌도(안좌면), 팔금도, 하의도, 이시도(伊勢島), 송도(松島), 영암 임내의 귀산(貴山), 갈두산(葛頭山: 땅끝), 보길도, 두와두산(頭臥頭山), 노도, 해재곶, 그리고 영광군의 고이도(신안군), 충도, 사도곶, 창두곶, 임치도(해제면), 구수산(九岫山), 함평현의 해재곶, 서발포(西鉢浦), 아사라산(阿士羅山), 석포곶(石浦串), 금포곶, 해남현(세종 때는 해남과 진도를 합하여 해진현)의 진산곶, 백야포, 백방산, 초도, 평도, 가야도, 무안현의 고철금산, 유달산, 모두곶(某頭串)이다.

20) 『선조실록』권97, 1598년(선조 31) 2월 22일(정축)에 경리 양호의 분부로 각 도에 신조하도록 배정한 조운선을 보고했다. 평안도 칠산은 20척 중 미완성 12척, 황해도 장산곶은 50척 중 미완성 10척, 충청도 안민곶 10척은 방금 시공하고, 전라도 변산에서는 20척 중 미완성 7척을 건조해 하니, 건조완공 된 조운선은 모두 61척, 미완공선 39척이었다. 조운선 건조 계획은 100척이었다. 이것은 당시 조정에서 명나라 군인의 양초를 운반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21) 자는 율연(栗然), 호는 오의정(五宜亭), 여주인으로, 증 영의정 문원공(文元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손자이다.

대선은 3섬, 중선은 2섬, 소선은 1섬의 곡식을 받았다. 이에 백성들은 즐겨 협조하여 따랐으므로, 이 제도가 시행 된지 10여 일 만에 10,000여 석의 식량을 모을 수 있었다. 이 제도의 시행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유성룡(柳成龍)이 쓴 『징비록(懲毖錄)』에서는 고금도에서 실시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충무공전서』를 완역한 이은상,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을 지은 조성도는 고하도에서 실시하고, 고금도로 진을 옮긴 후에도 계속 시행하였다고 하였고, 『임진전란사』를 지은 이형석도 같은 의견이며, 신경(申炅)이 지은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 제4권에서는 “이순신은 진을 보화도로 옮겼다. 이때에 순신이 이미 전사 천 여인을 얻었는데 군량이 부족됨을 걱정하여 해로 통행첩을 만들고…….”라고 하여, 이 제도가 고하도에서 실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군량 조달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소금이었다. 소금은 바닷물을 끓여 증발시켜 만든 화염(火鹽)이었다. 이 곳 고하도 인근 도서 지방에서는 소금이 많이 생산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1597년 10월 16일~같은 달 28일까지 발음도 염간(鹽干) 강마지(姜莫只)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사재감 소속 사노(司奴)로 해산물 생산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소금에 관한 정보를 듣고, 활용도를 생각한 듯하다. 그래서 소음도에 거주하는 김종려(金宗麗)를 13개 섬의 염장 감자도 감검(監者都監檢)으로 임명하여 소금 생산을 독려하였다. 이렇게 생산한 소금을 팔아, 식량을 구입하고, 필요한 군수 물자를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일반 백성들과 친지들의 의연곡 답지는 군량미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난중일기』 1597년 9월 17일에는 어외도(於外島)에²²⁾ 도착하니 피난선이 무려 300여 척이 먼저 와 있어 우리 수군의 대접을 알고 기뻐하며 서로 다투어 치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한말, 어떤 사람은 한 섬의 쌀을 바쳤다. 피난민들이 기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나누워 군량미로 바친 것이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방문한 친지들은 방문의 선물로 곡식 몇 섬씩 들고 와서 군량으로 보태 쓰라고 내놓은 것이 인사처럼 되었다. 『난중일기』를 보면 1597년 11월 5일 영암군수李宗誠(李宗誠)이 밥 서른 말을 지어 일꾼을 먹이고, 군량미 200석과 벼 700섬을 준비했다. 11월 7일에 전홍산 현감 윤영현(尹英賢)과 생원 최집(崔集)이 보러오며 군량 벼 40섬과 쌀 8섬을 가지고 왔다. 11월 29일에 무안 진사 김덕수(金德秀)가 군량 벼 15섬을 바쳤고, 나주인 임환(林權)은 양곡 수백 섬을 바쳤다.²³⁾ 이렇게 하여 두어 달 동안에 군량미 수만석(약 20,000석)을 모을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고하도에 머무시는 짧은 기간에 조선 수군을 재건하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22)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섬으로 지금의 여의도를 말한다.

23) 자는 자중(子中), 호는 습정(習靜), 절도사 진(晋)의 아들이다. 김천일 의병에 참여하였다가 병이 들어 귀향했다. 건재 김천일이 진주 싸움에서 순절하자 애통해하며 두문출물 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보화도에 진을 옮기자 와서 곡식 수백 석을 바쳤다(사단법인 광주·전남현창회, 『광주·전남 5년 충의록』, 1992에서 인용).

더욱 놀라운 것은 조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이룩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군은 조명(朝明) 연합군에게 쫓겨서 경상남도와 전라좌도 남해안에 웅거하여, 울산에서 순천까지 6백리에 이르는 연해안은 왜군의 소굴로 변하였다. 조명 연합군은 명나라 파견군을 주력으로 하고,²⁴⁾ 조선군은 명나라 군을 지원하는 부대로 편성되어, 울산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사천의 시미즈 요시히로[島津義弘], 그리고 순천 예교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을 향하여 차츰 공격의 고삐를 당기던 시기였다.²⁵⁾

그러므로 많은 백성들이 명군(明軍)의 양초(糧草) 운반에 동원되었는데, 식량이 기일에 도착하지 못하면 명나라 호부(戶部)와 주사(主事)가 군량 운반 책임자인 지중추부사 김응남(金應南)과 호조참판 민여경(閔汝慶)을 데려다가 곤장을 치는 등 행패가 심하였으므로, 조정은 명나라 군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충무공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충무공은 조정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자체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순신 장군이 고하도에서 수군을 재건하는 데 기여한 공로자로는 전라도 순찰사 겸 감사 황신(黃愼)을 비롯하여 전라도 수군 소속 고을 수령과 각 진의 첨사 및 만호와 연해안 고을 백성 및 경상도 수사와 관할 첨사 및 만호들 이었다.

『난중일기』를 중심으로 그 인물을 간추려 보면 전라우수사 김억추(金億秋)와 이시언(李時言),²⁶⁾ 전라우수우후 이정충(李廷忠), 녹도만호 송여종(宋汝悤), 중군장 미조항첨사 김응함(金應諫), 거제현령 안위(安衛), 평산포 대장(代將) 정응두(丁應斗)와 평산포만호 신훤(申萱), 장흥부사 전봉(田鵬), 강진현감 이극신(李克新)과 송상보(宋尙甫), 나주목사 정설(鄭潑), 해남현감 유형(柳珩), 영암군수 이종성(李宗誠), 진도군수 선의문(宣義問), 가리포첨사 이응표(李應彪), 임치첨사 홍견(洪堅), 안골포만호 우수(禹壽), 영등포만호 조계종(趙繼宗), 조방장 배흥립(裴興立), 조방장 배경남(裴慶南), 경상우수사 이순신(李純臣),²⁷⁾ 경상우수우후 이의득(李義得), 순천부사 우치적(禹致績), 금갑만호 이정표(李廷彪), 제포만호 주의수(朱義壽), 당포만호 안이명(安以命), 조라포만호 정공청(鄭公淸), 발포만호 서수장, 남도포만호 강응표(姜應彪), 여도만호 김인영(金仁英), 함평현감 손경지(孫景祉), 군관 송희립(宋希立),

24) 명나라 제1차 원정군은 이여송의 40,000여 명, 정유재란 때 제2차 증원군은 병부상서 형개를 총독으로, 양호를 경리로, 그리고 마귀를 제독으로 하여 82,300명(선조 30년 11월 제2차 동정군 전투서열, 이형석, 『임진전란사』하, 신현실사, 1977, 1713~4쪽)이라 하였다. 이때 이를 지원하는 조선 육군은 12,500명으로 명군 3영(三營)에 나누어 소속시켰다(『선조실록』권94, 1597년(선조 30) 11월 10일).

25) 조명 연합군 5만은 1597년 12월 12일부터 가토 기요마사가 있는 울산성을 공격하였다.

26) 전라우수사 김억추는 1597년 7월 25일 이여기 후임으로 임명되었다가, 1598년 1월 5일 부친상으로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충청도 병사 이시언(李時言)이 부임해 왔다.

27)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는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 본관은 전주이씨, 노량해전에서 충무공이 전사하자 중군으로서 수군을 이끌고 개선했다.

군관 정사준(鄭思竣), 탕망군 군관 임준영(任俊英), 군관 태귀생(太貴生), 진사 백진남(白振南),²⁸⁾ 전 목포만호 전희광(田希光), 홍양현감 최희량(崔希亮), 최대성(崔大晟), 소계남(蘇季男) 그리고 성명 미상의 적량만호 등이다.

그 외에도 충무공이 1597년 8월 3일 진주 운곡에서 삼도수군통제사 교서를 받을 때부터 수행한 군관 9명의 공로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송대립(宋大立), 유황(柳滉), 윤선각(尹先覺), 방응원(方應元), 현응진(玄應辰), 임영립(林英立), 이원룡(李元龍), 이희남(李喜男), 홍우공(洪禹功)이다.²⁹⁾

당시 경상좌수사 이운룡(李雲龍)은 울산의 가토 기요마사의 공격에 출동하였고, 충청수사는 수군 재건의 역사(役事)에 참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이때 누구보다도 이순신 장군을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던 목포만호 방수경(方守慶), 다경포만호 윤승남(尹承男)과 무안군수 남언상(南彦祥)은 적이 쳐들어오자 임지를 이탈한 죄로 금부도사에게 잡혀감으로서 수군 재건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애석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³⁰⁾

3. 고하도는 구국의 성지(聖地)다

이순신 장군은 고하도에서 106일을 머무르며 수군을 재건할 때 부족하고 없는 것이 많은 형편이었고, 시간 또한 너무나 촉박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조정의 지원 없이 자체 조달하여야 했으므로 더더욱 어려웠다. 가장 아쉬운 것은 용맹한 옛 전우들이 칠천량 해전에서 죽고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날 162척³¹⁾의 판옥선을 보유하고 위용을 자랑하던 때를 생각하며, 눈앞에 놓인 15 척의 고단한 전선을 보니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이 절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충무공은 결코 낙담하지 않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기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분주하고 조급한 날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여 3개월 반 만에 병사와 전선이 건조·확충되고 군량이 쌓아지니 옛날의 강성하던 수군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본군과 맞싸워 볼만한 자신감이 생겼으므로 적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건곤일척(乾坤一擲)을 벌릴 때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28) 호는 송호(松湖),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의 아들, 해남 옥천 대산에서 출생, 사마시에 입격한 진사이다. 울돌목 해전에서 장흥출신 마하수(馬河秀)와 함께 피난선 100여 척을 이끌고 군선처럼 시위하며 기세를 올리었으며, 이후에도 충무공 막하에서 군무를 논하고, 수십 척의 곡식을 헌납했다(『이충무공전서』 부록 「동의록」 인용).

29)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중인 1597년 7월 18일 삼도수군의 함물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권을 도원수로부터 군관 9명과 병졸 6명을 얻어 이들을 거느리고 단성현(산천군 단성면) 동성산성, 진주 정개산성, 곤양, 노량을 거쳐 진주 운곡에서 8월 3일 선전관 양호(梁護)로부터 통제사 재임명장을 전달 받았다. 이때부터 수군 재건이 시작된 것이다.

30) 『난중일기』 1597년 10월 24일에 금부도사 홍지수가 이들을 잡으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31) 김재근, 「임진왜란 중의 군선」, 『조선왕조 군선연구』, 일조각, 1982, 166쪽 참조. 1594년 3~4월경은 임진왜란 중 조선수군이 최대로 강성하던 시기로 판옥선이 162척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다.

충무공은 1598년 2월 16일 전선을 이끌고 고하도를 출발하여 다음날 강진현 고금도 덕동으로 진을 옮겼다.³²⁾ 그리고 이로부터 9개월 후인 1598년 11월 19일 노랑해전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임진 7년 전쟁의 피날레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힘을 기르고 축적한 곳이 바로 고하도였다. 그러므로 고하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킨 섬이요, 무너져 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킨 호국의 불꽃이 힘차게 타오른 섬이기도 하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연구한 최영섭은 고하도의 공훈을 평하여 ‘민족의 성지(聖地)’라고 찬양하였다.

고하도는 이순신 장군 개인에게는 비통함과 영광이 교차하는 곳이다. 이곳에 오기 보름 전 안평도(발음도)에서는 셋째 아들 면(勉)³³⁾의 죽음을 듣고 부하들 몰래 민가로 내려가 실컷 울기도 하였고, 또 죽은 아들이 꿈속에 나타나 통곡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하였다.

조정에서 명량대첩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거제현령 안위(安衛)를 비롯한 여러 장졸에게 내린 포상을 나누워 주자 자신이 받는 것 이상으로 기뻐했고, 이로 인하여 군사들의 사기가 한층 양양되니 대장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종1품의 승정대부에 승전시키려 하였으나, 대간들이 반대하기를 ‘품계가 이미 높고 또 전쟁이 끝나면 뒤에 다시 보답할 길이 없다’라고 하여, 승진 대신 은자 20냥을 포상금으로 내려주었다. 이로부터 며칠 후 조정으로부터 면사첩(免死帖)이 내려와 이를 받았으며,³⁴⁾ 선조는 충무공이 어머니를 잃은 상제 몸으로 소식(素食)한다는 것을 듣고, 도원수 군관을 특사로 보내어 음식을 내려 보내주면서 유서(諭書)에 이르기를 “너무 고지식하게 상례만 따르지 말고 국가에 일이 많이 있는 때임을 살펴 방편(方便)을 좇으라.”하였다. 옛말에 ‘말은 주인을 만나야 소리쳐 울고,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목숨을 바친다’고 하지 않았던가? 충무공은 크게 감동하여 나라를 위하여 분골쇄신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을 것이다.

그 밖에도 명나라 장수 양호(楊鎬)로 부터 울돌목 대첩의 축하 표시로 괄홍(掛紅)을³⁵⁾ 만들라고 붉은 비단을 보내왔다. 이를 받을 때 이제 자신이 명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을 쓴 조성도는 고하도를 충무공의 ‘정곡(情曲)이 서린 땅’이라고 하였다.

고하도 수군진이 고금도로 옮겨진 후 고하도진은 별장진(別將陣)으로 격하되어, 국가 비상시에 사

32) 고금도 덕동은 지금은 완도군에 속하지만 당시는 강진현 관할 소속이었다.

33) 면(勉)은 이순신 장군의 3남으로 당시 21세의 미혼이었다. 1597년 9월 왜군이 이순신 장군의 친가에 침입하였다. 이때 면은 피난하지 않고 왜군에 맞서 싸워 3명을 죽이고 순국하였다. 우연일까? 이때 면을 죽인 왜군은 수군으로 참전했다가 고금도 해전에서 이순신장군에게 잡혀 죽었다고 한다.

34) 면사첩(免死帖)이란 죄를 지어도 자손까지 형을 면제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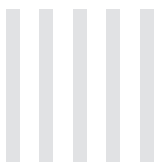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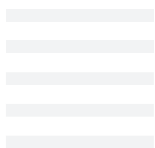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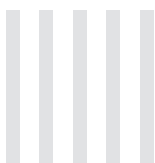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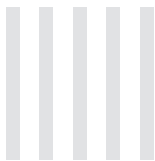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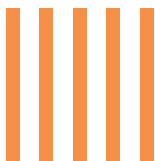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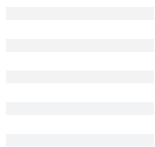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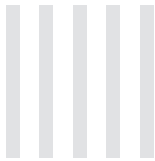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35) 괄홍(掛紅)이란 승전에 대한 공로 표창으로, 배에 붉은 비단을 거는 의식이다.

용할 군량을 보관하는 창고로 남아 있다가, 1647년(인조 25)에 무안현 남쪽 50리에 위치한 당곶(唐串)으로 옮겨갔다. 그로부터 60여 년 후에 수군통제사 오중주(吳重周)는 이곳이 충무공의 혼이 깃든 유서 깊은 곳임을 알고 유허비 건립 공사를 추진하다가 해직되어 떠나갔다. 이후에 이충무공 5대손 이봉상(李鳳祥)이 수군통제사가 되어 1722년(경종 22)에 준공하니, 이것이 고하도 유허비(遺墟碑)다. 비문의 요지는 “정유재란 때 이충무공께서 군사를 기르는 데는 군량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함으로 지형과 편리함을 살피 이곳을 택하였다. 이 섬은 (한반도)남쪽과 서쪽으로 가는 바다 길목에 있어, 오른쪽으로는 경상도를 끼고, 왼쪽으로는 서울까지 가게 되는데, 곡식을 쌓는 것은 가까이 있는 군사를 먹여 큰 싸움에 대비함이고, 멀리는 임금이 피난하는 곳에 곡식을 바쳐, 양식이 떨어질 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라고 하였다. 비문은 영의정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이 짓고, 글씨는 영상(領相) 소헌(素軒) 조태구(趙泰喬)가 썼다.

정유재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곳 고하도에서 이룩한 위업과 군량을 쌓은 일들이 구전(口傳)되어 유달산의 「노적봉 전설」을 낳고, 또한 「목포의 눈물」의 가사가³⁶⁾ 되어 이난영의 애절한 목소리를 통하여 국민의 심금을 울려 주었다.

이진규 |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36) 「목포의 눈물」 2절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아래 임 자취 완연하다 애달픈 정조’를 말한다.



제1절 목포의 개항과 각국 거류지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2절 개항 초기 목포의 도시화 과정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3절 개항기 목포의 노동 운동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4절 대한제국기 목포의 주요 관청과 기능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2장 목포의 개항기

제1절 목포의 개항과 각국 거류지⁰¹⁾

1. 목포 개항의 배경과 공간적 특징

1897년 10월 1일 목포는 국내에서 네 번째 통상항(通商港)으로 개항되었다. 목포 개항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894년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의 체결 때문이었다. 청일전쟁 후 일본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맺은 이 조약에는 “전라도 연안에 하나의 통상항을 개설해야 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당시 한국 개항장에서 청국이 차지하는 무역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돌파구가 된 항구가 바로 목포항이었다.

전라도 연안의 통상항으로 목포가 선택된 것은 목포가 지닌 항구로서 지리적 장점 때문이었다. 목포 개항을 전후하여 외국인들이 남긴 각종 기록을 통해서도 목포가 개항장으로서 지니는 공간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일본인들의 인식이다. 1914년에 편찬된 『목포지』에는 목포의 위치와 지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영산강의 하구에 있으며, 한반도의 최서남단에 위치한다. 원래 조선의 부(富)는 삼남(三南)에 있고, 삼남의 부는 조선의 과반을 차지한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마침 목포는 부원(富源)의 중심인 전라도

01) 이 글은 필자의 논문 「목포의 해양성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한국민족문화』39), 「개항 초기 목포항의 일본인과 해상네트워크」(『한국학연구』 26)을 토대로 재구성한 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에 있어 북쪽으로는 군산까지 108리, 동쪽으로는 여수까지 80리, 즉 두 곳의 중앙에 있어 이 사이를 거의 직각을 이루는 연안선의 돌단(突端)에 있으며, 전면에는 다도해를 끼고 큰 바다에 이르며 후면으로는 호남평야의 광활한 옥토가 넓혀있다. 바다에는 무진장의 수산자원이 있고, 육지에는 풍부한 농산물이 있으며, 항구는 깊숙이 들어와 배후에는 유달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전면으로는 영암반도를 바라보고 고하도가 항구를 가로막으니, 아마도 조선 전체 연안 중에 드물게 보는 양항(良港)이다.⁰²⁾

전라도 곡창 지대와와의 관련성, 호남권의 주요항인 군산·여수항까지의 거리, 다도해의 수산자원과 농산물, 항구를 보호하는 유달산과 고하도 등 자연 지리적 특성에 대해 매우 뛰어난 조건의 항구로 평가하였다.

목포항에 대한 관심은 일본 뿐만이 아니었다. 상해에서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 발간되던 『North China Herald』 역시 목포를 전망이 밝은 항구로 지목하면서 ‘목포항은 겨울에 얼지 않고, 영산강의 입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St. James' Gazette』는 목포를 ‘한국의 지브롤터(Gibraltar)’라고 불렀다. 지브롤터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항구(영국령)이다. 항구 뿐만 아니라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서도 언급되었다. 러시아의 경우는 개항 이전부터 목포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가장 바람직한 종점으로 거론하고 있었다.⁰³⁾

목포가 지닌 공간적 특징은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한 선교사들의 인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비록 목포에 거주한 서양인들의 숫자는 많지가 않았지만, 목포를 전라남도의 선교 본부로 선택함에 있어서 목포가 지닌 장점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었다.

목포에서 활동한 프랑스 신부 알베르토 드애(Alberto Deshayes)의 1898년 사목 보고서에는 목포항의 지형적 특징에 대해 “서해안에 이곳처럼 훌륭하게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항구는 몇 개 되지 않는다. 목포의 바다는 길이 60리에 폭이 10리에서 20리에 달하고 있으며, 수심은 깊은 곳이 70피트, 낮은 곳이 55피트로 비교적 수심이 고르고, 움직이는 모래가 없으며,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준다.”고 기록하고 있다.⁰⁴⁾ 또한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목포항이 지닌 주변국, 타 개항장과의 거리적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남아 있다.

02) 김정섭 역, 『국역 목포지』, 향토문화사, 1991, 27쪽. 이하 ‘『국역 목포지』’로 약칭함.

03) 목포노회사편찬위원회, 『한국남장로교선교회 목포선교부 보고서(1895~1911)』2, 1997, 5쪽의 내용을 참조하여 인용함. 이하 각주는 『목포선교부 보고서(1895~1911)』로 약칭함.

04) 개항 후 목포성당의 초대신부를 지낸 Alberto Deshayes가 Mutel 주교에게 보낸 사목보고서 중 1898년 기록의 일부임.

일본에는 20시간, 중국으로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아 이처럼 좋은 조건을 지닌 곳도 흔치 않습니다.⁰⁵⁾

새로운 항구인 목포항은 바다를 이용해 부산으로부터 단 하루면 도착할 수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와 나가사키의 거의 중간지점⁰⁶⁾

목포가 일본과 대륙(중국)을 연결하는 국제적 항구로서 장점이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서남해 바닷길이 고대부터 한·중·일을 연결하는 국제 해로의 요충지였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이러한 지리적 장점은 목포가 개항장으로 선택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었다. 국제적 장점 외에 공간상 내부적인 특징도 선교사들의 기록 곳곳에 언급되고 있다.

목포는 군산과 전주로부터 각각 육로로 110마일 되는 거리에 있다. 남동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곳에 좌수영이 있다. 좌수영은 또한 전주로부터 약 110마일 남쪽에 있으며, 목포로부터는 해로로 약 140마일 거리에 있다. 좌수영은 조선의 남쪽에 있으며, 부산으로부터 약 75마일 거리에 있다. 바로 위로는 커다란 강 입구가 있는데,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곳으로부터 전주에 이르는 길의 절반을 배로 올라 갈 수 있다고 한다.⁰⁷⁾

전도 활동을 위한 선교사 입장에서 목포항의 입지적 조건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특히 강을 통해 조선의 전통 도시인 전주로 올라가는 길의 상당 부분을 배를 통해 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것 때문에 목포의 개항 소식은 선교사들에게도 커다란 중요성을 지녔다. 목포를 하나의 전진 기지로 삼아 강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산강은 목포가 개항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에 해당되는 조건이었다.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뱃길을 통해 내륙 지역과 연결된다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전라도의 남쪽 해안에 있다. 목포항은 몽탄강의 입구에 위치해 있는데, 그 강은 전라도에서 가장 비옥한 농업지구를 가로 지르고 있으며, 그 강을 이용해서 매우 먼 곳까지 내륙으로 항해해 갈 수 있다.⁰⁸⁾

05) 앞의 주와 같음.

06) 『목포선교부 보고서(1895~1911)』, 7쪽, 1897년 10월호.

07) 『목포선교부 보고서(1895~1911)』, 4쪽, 1895년 9월 기록.

08) 『목포선교부 보고서(1895~1911)』, 19쪽, 1899년 10월호 기록.

또한 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전라도의 풍부한 물산과 목포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전라도는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道)들 가운데 하나이며, 쌀, 면화, 담배, 죽공예품, 해산물 등의 풍부한 생산으로 유명하다.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전라도는 한국의 기름진 경작지대임이 틀림없다. 토양은 다른 어느 도보다 비옥하며 기후는 가장 이상적이다. …… 100마일 반경 안에는 적어도 30~40개의 갖가지 중요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지방들이 있다. 그 생산품에는 대나무와 죽세공품, 쌀, 밀, 보리, 콩, 어류, 해초, 모시, 종이, 담배, 소금, 생강, 쇠가죽, 종이 부채, 면화, 면직물, 모시와 비단 옷감, 사금 가루, 질그릇, 감자, 인삼, 목세공품, 과일, 낫쇠 제품, 염료 등이 있다.⁰⁹⁾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에는 목포항이 지닌 자연적인 입출구로서의 위치적 장점과 농산물과 수산물을 비롯하여 각종 특산품 등이 주변 도시들에서 생산되고 있어 무역항으로 장점이 많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었음에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발간 된 목포 역사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개항 이전 시기 목포의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목포가 개항 당시에는 빈촌 중의 빈촌이고, 항구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일본인 기록에 서술되어 있는 기본 논조였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황폐하여 쓸쓸하고 처량한 40여 호의 적은 부락이 만호청을 중심으로 지금의 소위 목포대(木浦臺)의 동쪽과 그 산 기슭에 점점이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¹⁰⁾

항구에는 기선이 매어 있기는 하나 정박하는 배는 한 척도 없을 뿐 아니라 거룻배조차 쉽게 구할 수 없었다.¹¹⁾

이는 자신들이 황무지를 개척하여 목포를 발전시켰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전제적 논리이다. 목포는 개항 이전에도 항구적 기능을 꾸준히 유지해왔던 곳이다. 특히 일본인들의 현지 탐문 결과 개항

09) 앞의 주와 같음.

10) 『국역 목포지』, 41쪽.

11) 목포부, 『목포부사』, 1930, 42쪽.

직전 목포를 거쳐 수송되는 공미(貢米)가 매년 약 10만 석 이상이었다고 파악될 정도로 이 지방의 물동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¹²⁾

1930년 발간된 『목포부사(木浦府史)』에는 개항 당시 목포의 지형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목포의 지형은 무안반도의 앞 가장자리로서 바다에 가라앉으려는 곳에 있어 개항 당초에는 산모퉁이가 아니면 개펄로 한 치의 평지도 없었다. 크고 작은 상점과 주택을 건축하고 도로와 시가지를 확장 포장하는데 일일이 바위를 깎고 바다를 막아서 이루어진 것이다.¹³⁾

이는 목포가 개항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확장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개항초기의 애로 사항에 대한 점만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목포가 개항장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들도 목포의 항구적 특성과 목포진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건설상의 확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개항 이전 목포의 지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보고한 일본 측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라도 연안에 개설할 통상항이 목포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895년 1월 주(駐) 경성(京城) 일본영사관의 일등영사 우치다 사다즈치(內田定槌)의 보고서를 통해서였다. 그는 개항장으로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고부만과 목포 등지를 시찰하였고, 그 결과 목포가 개항장으로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목포항은 부산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항내 물이 깊어 큰 배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주변이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풍파로 인한 재난을 입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목포는 내지(內地)로 통하는 데 사호강(沙湖江)¹⁴⁾이 있고, 나주와 무안에 도달하기까지 배로 통하며, 또 그 육상(陸上)에는 장래 거류지로서 신시가를 건설하는 데 적당한 땅이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우치다 사다즈치는 당시 목포 지형은 각별히 광대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쉽게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 지리를 가졌으며, 근방에는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우물이 있어 용수 부족이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목포 항내의 해상(岸上)에 있어서 장래 거류지를 설치하는 데 가장 적당한 곳은 목포진(木浦鎭)이라고 칭하는 소촌락의

12)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 기록』11, 1994, 117쪽.

13) 목포부, 앞의 책, 210쪽.

14) 일본인들은 '사호강(沙湖江)'이 '영산강(榮山江)'의 별칭이자 구명(舊名)'이라고 이해하였다. 1929년 목포부에서 발간한 『사적목포(史蹟木浦)』 「제1장 사호강(沙湖江)의 발선(發船)」 부분에 서술되어 있다.

근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¹⁵⁾ 이 보고서는 목포가 영산강을 통해서 배후도시인 무안과 나주로 연결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목포진지가 있어 최소한의 땅과 우물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았다.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는 점은 목포 지형이 확장성이 가능한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는 점이다.

이후 목포 개항이 구체화되면서 인천 일본영사관 서기(書記)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는 1896년 10월 30일 이 일대를 관찰한 후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당시 목포진 주변은 시가지로 사용할 만한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런 취약한 토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목포진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 살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거주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개항 이전부터 간석지를 위한 제방, 구릉의 밭, 선착장 시설, 한국인 가옥 등이 취약하나마 존재하고 있었다.¹⁶⁾

결국 목포에는 항구로서 지닌 지리적 장점과 목포진이 운영되었던 곳이라는 문화적 전통이 융합되어 있었고, 이러한 조건은 목포진지 주변에 개항장이 형성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일본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목포가 지닌 개항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을 파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칙령 개항과 각국거류지 설치

목포 개항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한·일 간의 조약에 의해 개항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항장에 일본인만을 위한 전관거류지를 설치할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목포가 개항되기 전까지 주요 현안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은 이전의 다른 개항장처럼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에 의한 것이 아닌 고종의 칙령에 의해 문을 열었다. 국내에서 네 번째로 목포항을 개항하게 될 때의 한국정부는 개항이나 관세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이전 시기와는 매우 달라져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공사관에 개항일 관련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1897년 7월 3일 토요일 밤에 「목포와 증남포 항구 개항에 대한 청의서」를 제출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였다.¹⁷⁾

당시 한국 정부는 목포의 개항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고종실록』의 내용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의정부에서 “이것이 통상 교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15)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10~118쪽 내용을 참조하여 요약함.

16) 같은 책, 149~152쪽. 출장원 마에마 교사쿠의 복명서.

17) 목포 개항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였다. 박찬승, 「목포개항의 경위」,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26~127쪽.

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금년 10월 1일로 택하여 개항할 것이며, 일체 준비해야 할 일들과 관세(關稅) 등 여러 가지 실무 문제를 모두다 이미 개항한 다른 항구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입니다.”라고 상주하였고, 고종은 이를 승인하였다.¹⁸⁾ 당시 한국 정부가 목포의 개항이 자국에게도 유리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관세에 대한 목적 때문이었다. 목포가 개항된 1897년은 대한 제국 광무 원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당시의 한국 정부로서는 나약해진 정부를 일신하고, 뭔가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자금 확충에 가장 유용한 것이 개항장에서 걷어 들이는 관세 수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때문에 관세를 차관 도입의 담보로 삼고, 재정수입을 늘려 상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목포 개항의 목적이었다.¹⁹⁾

목포항에 설정된 외국인 거류지는 일본인을 위한 ‘전관거류지’가 아닌 한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각국거류지’였다.²⁰⁾ 목포 개항이전부터 일본은 목포항에 일본인을 위한 전관거류지를 설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각국거류지를 설치하였다.

부산, 원산, 인천 이전 개항장에 전관거류지가 설정된 선례가 있음에도 목포항에 일본 전관거류지를 설치하려는 일본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절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는 이전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기 전에 개항을 약속한 것이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목포의 경우는 이미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은 이후의 일이므로 앞의 항구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²¹⁾ 일본인을 위한 단독적인 거류지를 허용하게 되면, 각국이 제각기 단독적인 거류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둘째는 만약 각국이 저마다 단독거류지를 설치하게 된다면 개항장의 땅이 크게 모자라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²²⁾ 이점 역시 개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일본인 거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좁은 면적으로 인해 어렵다고 한다면, ‘본디 개항장으로 할 만한 곳이나, 아니냐’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원천적인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각국거류지가 설치되었을 경우 불편한 점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었다. 첫째, 만약에 군대를 체재시켜야 할 필요가 생긴다고 가정할 경우 일본

18) 『고종실록』 권35, 1897년(건양 2) 7월 3일. “목포와 증남포를 통상 항구로 만들어 금년 10월부터 개항하기로 하다.”

19) 박찬승, 앞의 글, 130쪽.

20) 거류지는 관리국이 단수나 복수냐를 기준으로 전관거류지와 각국거류지로 분류된다.

21) 목포 개항 당시 한국과 통상조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는 모두 7개국(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이었다. 청국은 1899년 9월 11일에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22)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1991, 232~233쪽.

인이 각국거류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들의 가옥을 사용하거나 혹은 음료수를 우물에서 퍼 올리는 등의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 둘째, 거류지 제도를 정하는 것은 거류민이 아니고 경성주재 각국 사신회의에서 정하는 것이며, 거류지 회의 결의도 역시 각국 사신의 인가를 요하는 것이니 만큼 거류지의 의결에 있어서는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하여도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각국 사신들에 의해 좌우될 염려가 있다는 것. 셋째, 공동거류지를 만들 경우 1인당 1개 구역 또는 2~3개 구역에 한하여 경매를 허용한다 하여도 남의 명의를 빌려 암암리에 매수하는 것과 경매 후에 전매하는 것을 도저히 금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중국에 가서는 재력 있는 두 세 명의 외국에게 겸병되어 일본인의 다수는 그 조차인(借地人)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²³⁾

특히 첫 번째 경우에는 군대를 주둔시킬 상황에 대한 대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한국 내 개항장에 전관거류지를 반드시 설치하고자 했던 주목적이었다. 청일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전관거류지가 지닌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새로운 전쟁에 대비한 새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관거류지의 설정은 일본이 개항장 개설을 요구하는 주목적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²⁴⁾

그러나 결국 개항장 목포에는 각국거류지가 설정되었다. 전관거류지 없이 각국거류지 하나만 설정된 곳은 목포항이 최초였다. 목포의 개항은 일본의 외교적인 압력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형태상 각국의 상인들이 공평하게 토지를 매수할 수 있고, 거류지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에서 그 첫발을 내밀게 된 것이다. 실제 목포 각국거류지 내 토지를 외국인에게 매매할 경우, 비록 일본인 외에 매입 신청자가 단 한사람도 없다하더라도 그 공매 방침이 서울주재 각국 대표에게 전달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절차는 『무안보첩(務安報牒)』²⁵⁾에 남아있는 무안감리서에서 외부대신에게 보낸 보고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항 직후뿐만 아니라 목포 각국거류지가 실질적인 일본인 전관거류지화가 된 1905년 말까지도 이 원칙은 철저히 지켜졌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포 개항은 이전 개항지와는 달리 외세의 강압적인 조약에 의한 것이 아닌 고종황제의 칙령에 의한 개항이었으며, 일본전관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목포항에 각국거류지(各國居留地)를 설정하였다. 목포

23)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217~219쪽.

24)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2, 270~271쪽 참조.

25) 『무안보첩』(박찬승·고석규 공역, 『국역 무안보첩』, 목포문화원, 2002.)은 1897년부터 1906년까지 무안감리서(務安監理署)에서 외부대신(外部大臣)에게 보낸 7책의 보고서와 외부(外部)에서 무안감리서로 보낸 1책의 훈령(訓令), 1906년 1월부터 1909년 11월 8일까지 무안감리서와 의정부 사이에 오고간 공문서를 엮은 항안(港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각주에서는 “『무안보첩(務安報牒)』”으로 약칭함.

26) 1905년 무렵까지도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다는 것은 1905년 보고서 53호(『무안보첩』, 510쪽)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개항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두 가지 특징적인 요소는 이후 목포항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전 개항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었다.

물론 이후 목포 각국거류지는 거주 인구 구성 면에서 일본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토지를 일본인이 소유하여, 실질적으로는 일본인 전관거류지와 다를 바가 없는 공간으로 변모해 간다. 하지만 목포 개항당시 절차상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각국거류지의 형태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거류민이 모두 일본 사람이고 다른 외국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했으므로, 각국거류지의 설정은 형태상 일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목포항이 개항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²⁷⁾ 이러한 목포 개항의 출발조건은 적어도 1897년부터 1905년까지 무안감리서를 통해 목포항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HK교수

27) 『국역 목포지』, 35쪽 참조.

제2절 개항 초기 목포의 도시화 과정

1. 목포 각국 거류지의 공간적 범위와 분할

목포 각국거류지의 총면적은 726,024㎡(약 22만 평)로 같은 시기에 개항된 진남포의 480,060㎡(약 14만 5천 평)보다 넓은 면적이었다.⁰¹⁾ 표면상 나타나는 거류지의 범위는 개항 당시에 동쪽으로 송도, 남쪽으로 목포진, 서쪽으로 온금동, 북쪽으로 지금의 측후동을 잇는 998,082㎡의 지역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는 이 중 325,713㎡를 각국 영사관·해관·공원·도로부지 등으로 제한하였고, 672,369㎡의 택지를 갑·을·병의 세 지구로 나누어 차례로 공매에 붙였다.⁰²⁾

그러나 각국 영사관 부지의 경우는 장정 제10조에 “조약국 정부는 원가만을 납부하고 그 영사관 부지로서 적당한 지구를 수득(收得) 또는 소유(所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때문에 공매를 통하지 않고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각국 간의 과열경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었으므로 무안감리서의 중재에 따라 영사관 부지의 범위와 위치가 결정되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각국 영사관 부지는 일본 31,351㎡(약 9,400평), 러시아 19,311㎡(약 5,852평), 영국 12,475㎡(약 3,780평)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영사관 부지를 1897년 11월 무안 감리와 교섭하여 52,986㎡(약 16,300평)를 요구하였는데, 한국 정부에서 너무 넓다고 지적하여 면적을 31,0351㎡로 축소시켰다.⁰³⁾ 한국 정부는 각국 영사관의 기지를 장정에 준하여, 광점되지 않고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⁰⁴⁾

나머지 택지의 공매는 1898년~1899년 사이 9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⁰⁵⁾ 택지 공매의 시작과 함께 목포 각국거류지 내 지구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지구의 경우 60~80×60~80m의 정방향(正方向)에 가깝게 각 시가(block)마다 사방필지(四方形筆地)로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은 「진남포급목포각국조계장정(鎭南浦及木浦各國租界章程)」에서 경매 및 분할 금지 규모로서 필지 당 500~1000㎡ 이상일 것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다.⁰⁶⁾

01)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2, 284쪽.

02) 목포부, 『목포부사』, 1930, 168쪽. 이하 ‘『목포부사』’로 약칭함.

03) 김정섭 옮김, 『국역 목포지』, 향토문화사, 1991, 67쪽.

04) 박찬승·고석규 공역, 『국역 무안보첩』, 목포문화원, 2002, 9쪽. 1897년 12월 7일 지령 제14호. 이하 ‘『務安報牒』’으로 약칭함.

05) 『무안보첩』, 148쪽. 1900년 4월 7일 보고 제19호.

06) 박종철·강병기, 「목포 시가지형성과정과 도시계획의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1-1, 한국지역개발학회, 1989, 138쪽.

1930년 발간된 『목포부사』에 수록되어 있는 아래 <그림 1>⁰⁷⁾은 개항 후 지구분할이 포함된 당시 목포의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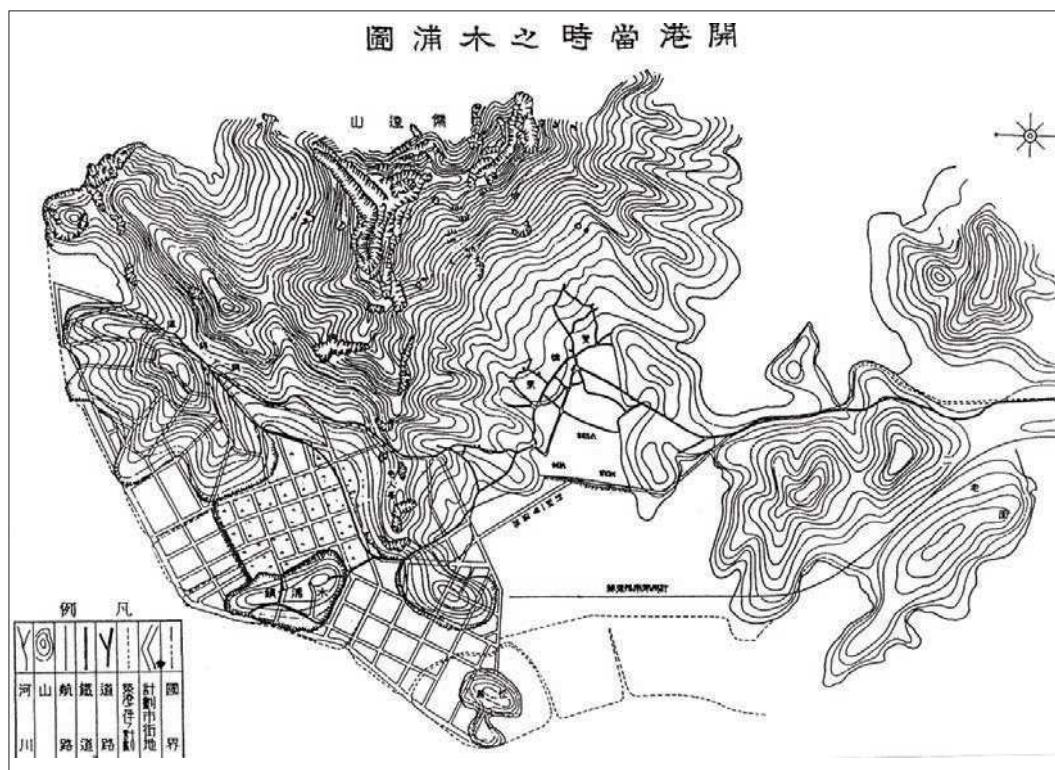


그림 1 개항 당시 목포도

목포 각국거류지 부분에 지구의 분할이 표시되어있는 반면 유달산 아래 쌍교리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 마을 쪽에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목포 각국거류지는 그 시가지 형태에 있어서 인천의 영향을 받았으며, 항구 개발 위주의 시가지, 식민도시로서의 근대적 기술을 적용한 시가지이었음에 반해, 한국인 지구는 자연 지형을 따라 자연형성 되었기 때문에 형태가 불규칙하며 사회 기반 시설도 거의 전무하였다.⁰⁸⁾ 이는 이후 목포가 한국인 마을과 일본인 마을로 구분되는 불평등한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변화 발전되어 가는 첫 번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07) 『목포부사』의 앞에 별첨되어 있는 지도에서 인용한 것이다.

08) 박종철·강병기, 앞의 논문, 138쪽.

2. 항구 도시의 발전 축 ‘해관’

목포해관 설치의 목포 각국거류지 시가지 형성과 발전 방향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해관의 설치의 주변에 항만 시설이 발전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통상항’으로 새롭게 문을 연 목포에서 항만 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즉 목포해관이 설치된 위치에 따라 시가지 발전의 기본 형태가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포의 경우 그 위치는 이미 개항이전에 한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다.

개항 당시 목포 각국거류지를 나타내는 <그림 2>를 통해 목포진의 서남쪽 해안가에 해관 관련 부지가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주변에 ‘상륙지(上陸地)’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지점이 목포진 시절의 선착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륙지 주변에는 ‘세관용해빈지부지(稅關用海濱地敷地)’라고 표기되어 있어 매축을 통한 해관용 기지 건설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된다. 이외에 좌측에 ‘위원주택부지(委員住宅敷地)’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은 해관 관사용 부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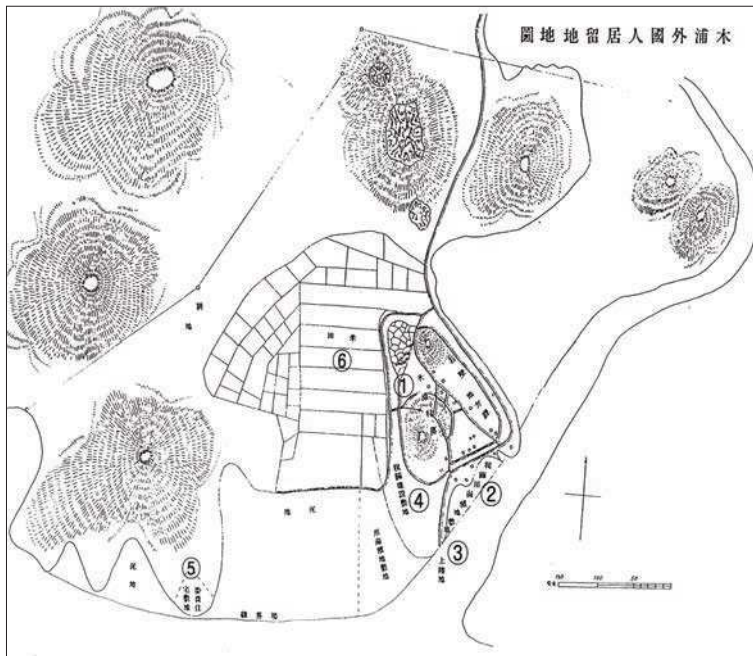


그림 2 목포 외국인거류지 지도⁰⁹⁾

①목포 초락 ②세관용해빈지부지(稅關用海濱地敷地) ③상륙지 ④세관 건설 부지 ⑤위원 주택 부지(委員住宅敷地)
⑥미전(米田)

09) 192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조선토목사업지(朝鮮土木事業誌)』에 실려 있는 지도. 최석환, 『조선토목사업지』, 우림출판, 1998, 125 쪽에서 인용하여 위치표기를 함.

이곳에 해관 부지가 설정된 것은 이 지역이 옛 목포진(木浦鎭)이 있던 지역으로 주변에 목포진 시절의 관아 건물과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 시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포진은 1895년에 폐진 되었지만, 그 지리적인 중요성과 관련 시설들은 개항 이후 목포해관을 중심으로 한 목포항의 중심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변모하게 되었다.

3. 해벽 공사를 통한 해안선 정비

목포 각국거류지를 시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해벽 공사였다. 개항당시 목포 각국거류지 공간의 대부분은 바위 아니면 늪이나 갯벌이었다. 따라서 바닷물이 시가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안선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진남포급목포각국조계장정」에는 해안의 암벽과 부두는 필요시에 한국 정부가 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¹⁰⁾ 하지만 한국 정부는 목포 각국거류지회와 협의하여 해벽 공사에 대한 사무 권한을 각국 거류지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목포 각국 거류지회는 무안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결국 한국 정부에서 일본 영사에게 해벽 공사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중요한 점은 해벽 공사를 한국 정부가 각국 거류지회(신동공사)에게 위임한 것이 아무생각 없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당시 한국 정부의 재정 형편이나 공사 사항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해벽공사를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위임했다는 점은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측면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해벽 공사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진남포급목포각국조계장정」에 해벽 공사는 필수 조건이 아닌 ‘필요시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해벽 공사를 추진하는 결정권은 한국 정부의 권한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¹⁾ 따라서 당시 한국 정부가 해벽공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일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추진한 것인가 하는 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의정부에서 무안감리에게 내려진 1900년 3월 14일자 훈령 19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27일에 귀하의 전보를 받아보았는데 신장(新章) 제1관 제2조에는 제방과 부두 축조에 대한 일은 일본 영사의 재촉에 상관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해 9월 7일에 일본 공사가 조회하여 청한 바가 모두 이와 연관되어 있다. 귀 항에 근래의 무역이 크게 일어날 기색이므로 외국

10) 「진남포급목포각국조계장정」 제1조.

11) 양상호, 「목포각국공동거류지의 도시공간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4-1, 한국건축역사학회, 1995, 128쪽.

상인들이 떼지어 모여드는데, 그 조계지를 반드시 평탄히 매립해야만 계속 조계지에 상인들이 직업을 잡아 집을 짓고 업소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역을 평탄히 하려면 이치상 해안을 먼저 축조하여야 하되, 그 비용이 셈할 수 없이 많고 또한 공사가 클 것이므로 갑자기 의논할 수 없었다. 목포조계를 관리하고 있는 신동공사에서 일본 기사를 불러들여 그 공정을 해아림에 이를 법에 비추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신동공사에게 맡겨 대신 관리토록 하는 것이 차라리 간편할 것 같으니, 각 실천조항을 정립(訂立)하여 조약을 맺어 본부와 해관과 신동공사가 각각 일부씩 문서로 보존하며 그 조약을 베껴서 이에 훈령하니 잘 살피서 그 공정이 시작되는 형편과 완료예정일을 즉시 보고하라.

이 훈령의 내용을 보면 당시 한국 정부는 목포항의 무역이 발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해벽 공사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재정 형편이나 공사의 규모로 봐서 각국거류지회(신동공사)에게 맡겨 관리토록 하는 것이 차라리 간편할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일본에게 해벽 공사를 위임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이었음도 알 수 있다. 대신 한국 정부는 해벽 공사에 대한 조약을 맺어 추진하도록 하며, 그 공정의 진행 형편과 완료 예정일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¹²⁾ 이러한 정황은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에게 목포항 해벽 공사를 맡기는 것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으며, 하나의 최선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해벽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목포 해관세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끌어오도록 협의하였다. 하지만 관세를 담보로 한다는 내용은 총세무사였던 브라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차관에 의하지 않고 브라운의 보관금 중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¹³⁾

이렇게 해서 해벽 공사 건설 업무는 목포 각국 거류지회에 위임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공사의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였다. 각국 거류지회는 해벽공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조금만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여도 이를 한국 정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시켜야 했다.¹⁴⁾ 따라서 해벽 공사에 대한 최종 권한은 여전히 한국 정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어도 대한제국의 관할 하에 있던 시기의 목포항에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외국인도 일체의 건설 공사 행위를 할 수 없었다.¹⁵⁾ 이는 한국 정부가 목포 개항 후 시가지의 건설과정에서 자주성을 표방하고 있었음을 확

12) 『무안보첩』, 439쪽. 훈령 19호.

13) 『목포부사』, 869~870쪽.

14) 『무안보첩』, 111쪽, 1899년 9월 22일 보고 제53호; 122쪽, 1899년 11월 13일 보고 제63호에는 해벽공사 축설점 변경에 따른 한국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5) 고석규, 「초기 도시화의 특성」,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74~175쪽 참조.

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해벽 공사는 1899년 6월에 착공하여, 1901년 5월에 완성되었다. 구간은 서쪽 경계(櫻町, 금화동)의 산모퉁이를 기점으로 남해안의 해관 앞에 이르러 동해안의 갯고랑을 따라 송도(松島)에 이르러 연장 1,500m, 송도의 서쪽 끝에서 목포역 정거장의 남쪽, 바위를 깎아 낸 상반좌(常盤町, 현 상락동)가 된 바위 모서리에 이르는 연장 230m에 해당되었다. 해벽은 공사가 완공된 후도 여러 차례 붕괴·함몰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1909년 5월 세 번째 수축을 마치고 나서야 안정감이 생겼다.¹⁶⁾

해벽 공사의 진행 과정과 함께 도로도 개설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시가 도로의 준설은 각국 거류지회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목포 각국거류지 내 도로는 네덜란드인 스타텐의 측량에 따라 폭 8m, 10m, 12m, 15m의 4가지로 나누어졌다.¹⁷⁾ 목포 개항 직후 시가지의 설계지도를 작성한 스타텐이라는 측량 기사를 고용한 것 역시 한국 정부였다. 도로 폭원을 8m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자동차가 드물었던 당시로서는 대단히 넓은 범위의 것이었다.¹⁸⁾ 이러한 규정은 앞에서 언급한 지구의 필지를 500~1,00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목포 각국 거류지가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준의 시가지 형태를 갖추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¹⁹⁾

이후 목포 도시화에 필요한 근대 시설의 설치도 각국거류지에 집중되었고,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유달산 아래 마을 공간은 철저히 소외되어 식민지 도시화의 차별성이 나타난다. 각국거류지는 계획 도시로서 발전 과정을 거듭한 반면 조선인 마을 쪽은 무분별한 잡거 형태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달산 아래 골목길이 발달하였다.

16) 『목포부사』, 앞의 책, 869~870쪽.

17) 실제 시가지의 계획은 목포의 개항준비에 앞서 1896년 10월 동지(同地)를 방문하고 측량한 초대목포해관장 W.아무어(당시 인천해관기사)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스타텐의 목포 첫 방문은 1897년 11월 13일이어서, 이때 이루어진 측량은 이미 이루어진 시가지 계획에 따라 택지의 실제 측량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양상호, 앞의 논문, 136쪽 참조).

18) 측량기사인 스타텐이 한국정부의 명령에 의해 고용되었음은 무안보첩의 1905년 보고서 42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무안보첩』, 504쪽). 「진남포급목포각국조계장정」 제16조 제3항 참조.

19) 박종철·강병기, 앞의 논문, 138쪽 참조.

4. 개항기 일본인의 목포 이주와 주도층²⁰⁾

목포가 개항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국의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였고, 인구수도 늘어났다. 그러나 일본인이 중심이었고, 다른 외국인의 수는 많지 않았다. 개항 초기 목포에 거주한 외국인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개항 이후 목포 외국인 통계

구분	일본인				청국인				구미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897	45	164	42	206									45	164	42	206
1898	242	585	322	907	3	14		14	3	3		3	248	602	322	924
1899	230	539	333	872	10	42		42	3	6		6	243	587	333	920
1900	218	544	350	894	12	34	5	39	3	6		6	232	584	355	939
1901	251	549	391	940	18	48	5	53	4	7	1	8	273	604	397	1,001
1902	266	592	453	1,045	22	42	3	45	5	7	3	10	293	641	459	1,000
1903	332	782	635	1,417	16	46	4	50	5	8	3	11	353	836	642	1,478
1904	329	792	650	1,442	16	45	2	47	4	7	3	10	349	844	655	1,499

출전: 『국역 목포지』, 228~229쪽, 1913년 경찰서 연말 통계자료 부분 인용.

1897년 10월 1일 개항 당시 83명 정도에 불과하던 일본인의 인구수가 1897년 12월말 기준 206명으로 크게 늘었다.²¹⁾ <표 1>을 통해서 개항 초기 목포의 일본인 증가율을 살펴볼 수 있다. 개항 이후 일본인 이주는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매년 급속도로 상승된 것은 아니었다. 개항 첫 해를 제외하고 이후의 증가율은 비교적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율은 시가지 건설공사 과정과 연관이 있다.²²⁾ 목포의 경우 택지 공매가 시작된 1898년에는 일찍부터는 목수와 일용잡부 등의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1899년 후반에는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목포 개항 초기 시가지 형성에 필요한 많은 수의 건설 인력이 목포로 이주해 오게 되면서 일본인 인구는 급증하게 되지만 목포 각국거류지의 지형적 특성상 시가지 건설은 해벽 공사가 완성된 후의 과제였다. 해벽공사는 1899년 6월에 착공하여, 1901년 5월에 완성되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해벽이

20) 이 글은 필자의 논문인 「개항 초기 목포항의 일본인과 해상네트워크」(『한국학연구』26,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2)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21) 1898년 2월 4일 영사관보고서에는 1897년 개항당시 목포거주 일본인 인구가 83명(남자 76, 여자 7, 호수 16)으로 파악되어 있다.

22) 양상호, 앞의 논문.

붕괴·함몰되는 일이 발생했고, 1909년 5월 세 번째 수축을 마치고 나서야 안정감이 생겼다.²³⁾ 따라서 목포 개항 초기에는 기대보다 고용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항 직후 건설 인력들의 이주가 주춤해지고, 오히려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겨서 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²⁴⁾

또한 일본 이외의 외국인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²⁵⁾ 목포항의 외국인 인구 비율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5% 이상이다. 인구 구성 면에서 절대 우위를 나타내는 것이 목포항의 특징 중 하나이다. 목포가 각국 거류지로 개항되었지만, 일본 이외에는 영사관을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개항 후 일본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목포에 거류하는 일본인이 다른 개항장 지역보다 숫자상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다. 190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된 아래 <표 2>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2 1906년 3월말 재한(在韓) 일본인 호구표

지역명	호수	인구
경성	3,274	13,026
인천	3,009	13,318
군산	649	2,758
목포	530	2,542
마산	524	2,066
부산	3,876	15,875
대구	726	2,367
원산	944	4,188
성진	105	460
평양	847	3,382
진남포	495	1,366
신의주	165	569
계	15,144	61,917

출전: 1908년 1월 1일자 통감부 자료, 『한국최근사정일람(韓國最近事情一覽)』에서 편집.

23) 『목포부사』, 869~870쪽.

24) 양상호, 앞의 논문, 120~122쪽.

25) 1897년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소수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목포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목포개항이 전망되면서 유진벨을 비롯한 선교사들은 이미 목포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였다. 1896년 3월부터 목포에 관련 부지를 매입하여 머물고 있었다. 목포노회사편찬위원회, 『한국남장로교선교회 목포선교부 보고서(1895~1911)』, 1997, 5쪽 참조.

1906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의 4.1%정도가 목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오히려 목포보다 2년 늦게 개항된 군산보다도 더 적은 숫자이다. 그러나 목포 인구의 전체 비율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꽤 높은 것이었다.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총 인구수와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표 3>과 같다.

표 3 1907년~1910년 목포 인구 통계표

구분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구미인	계
1907년	2,851	3,532	77	6	6,466
1908년	2,863	5,252	69	9	8,193
1909년	3,097	5,675	71	10	8,853
1910년	3,494	7,076	75	10	10,655

출전: 1935년 『목포상공회의소 통계연보』 중 「목포부호구수누년표」에서 부분인용.
1907년부터 조선인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목포 거주 총인구 숫자로 볼 때 일본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개항 초기에는 조선인 수와 비교해 거의 2:1 비율을 나타낸다.²⁶⁾ 또한, 인구 구성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일본인들의 본적별 분포이다. 목포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을 출신 지역별로 구분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목포 거주 일본인들 본적별 분포

1897년 12월		1898년 12월		1899년 11월		1900년 9월		1907년	
長崎	63	長崎	257	長崎	248	長崎	223	山口	723
山口	46	山口	243	山口	209	山口	197	長崎	517
佐賀	13	大分	76	佐賀	72	佐賀	66	大分	140
大分	12	廣島	49	大分	41	大分	43	廣島	129
東京	10	熊本	41	東京	37	東京	35	大阪	124
福岡	9	佐賀	40	福岡	31	福岡	35	福岡	122
大阪	8	東京	32	大阪	29	大阪	31	熊本	115

*『영사관보고서』, 『목포상화회 통계연보』등을 활용하여 편집.

지리적으로 한반도나 목포에 가까운 나가사키현[長崎縣], 야마구치현[山口縣] 등의 출신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가사키현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조선과의 교역에 친숙한 지역이다. 사츠마번[對馬番] 같은 경우는 에도시대부터 조선과의 통상이 허가된 지역이었고, 부산이 개항된 1876년도

26) 1931년까지 3:1의 비율이 유지되다가 조선인의 수가 대폭 증가하는 1932년 이후는 5:1의 비율을 나타낸다. 1934년 『상공회의소 통계연보』참조.

부산 거류 일본인 모두가 대마도 사람일 정도였다. 조선과 일본을 잇는 항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은 목포 개항기에도 일본인이 목포로 이주하고 상업 활동을 하는 기반이 되었다.²⁷⁾ 목포 거주 일본인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야마구치현 출신자의 활동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개항이후 점차적으로 야마구치현 출신자들의 비중이 더 높아져 갔다.

야마구치현 사람들의 이주는 일본 내 사회 경제적 변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전통적으로 야마구치현 세토나이해[瀬戸内海] 연안 지역에는 많은 해상 운송업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에도시대 때 연공미(年貢米)를 항로를 통해 오사카에 운반하는 것으로 번(番)에서 수입을 받았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 후 해상 운송업자들은 번의 해제로 상황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오사카상선을 비롯한 중소기업회사가 진출하여 경제적 타격이 컸고, 일본 정부는 해상 운송업 중에도 대기업에만 특권을 주고 보호하였다. 따라서 해상운송업에 종사하던 선장이나 수부 등이 조선도항에 활로를 찾아 목포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⁸⁾

목포항 거류민의 인구 구성상 절대 다수를 일본인이 차지하게 되면서 목포항 내의 주도권을 일본인들이 장악하게 되었다.²⁹⁾ 개항 초기 목포항 내 일본인 사회의 주도층을 형성한 인물들은 1905년 목포신보사에서 발간한 『재한인사명감(在韓人士名鑑)』에 실린 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책에는 당시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인사 18명이 소개되어 있다. 그 면모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1905년 기준 재목 일본 인사 명단

이름	출생년	출신지	이전 정착지	목포 이주 시기	직업	비고
西川太郎一	1867	但馬	부산 원산	1898	第一銀行 木浦出張所支配人	일본거류민회의장, 상업회의소회무, 목포흥농협회장
沖永榮助	1881	山口		1900	沖永木浦支店 主任	貿易 靑 回漕業 종사
大久保徳造		長崎	부산		米穀商	
渡邊彌太郎	1863	島取			刺鹿大澤商會木浦店委託販賣業	거류민회의원, 상업회의소의원
松若兎三郎	1869	大分	沙市(중국)	1902	木浦日本領事	동경대 법과대학출신
龜島豊治					第一銀行支店長	부산인천진남포 경력
武内鶴太郎	1865	播州赤穂	부산	1898	貿易兼汽船回漕業	仁川堀力商會汽船대리점
谷村道助	1873	山口		1898	委託問屋(谷村商店)	상업회의소, 거류민회의원
高根信禮	1866	茨城	부산	1897	居留民長	거류민장 역임
中村義助	1875	愛知		1897	中村出張店 主任	貿易回漕 개시
南光當吉	1867	福井	부산	1900	大阪商船會社汽船取扱業	상업회의소 의원, 거류민회 의원

27) 佐堀伸三, 『영산포(榮山浦)에서의 일본인정(日本人町)의 형성(形成)』, 2000, 14쪽.

28) 徳間一芽, 「개항기 목포 이주 일본인의 도시 건설과 도시 생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 14쪽.

29) 목포각국거류지의 행정은 「진남포급목포각국조계장정」에 따라 목포각국거류지회가 1898년 4월 11일에 성립되면서 관장하게 되었다. 거류민 95% 이상이 일본인으로 이루어져, 거류지회의 대표를 일본영사가 맡아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름	출생년	출신지	이전 정착지	목포 이주 시기	직업	비고
氏承信一	1868	山口	원산	1903	郵便局長	영산포우편수취소신설
山本萬次郎	1884	大阪		1899	福又支店主任	수출입교역업무
福田有造	1866	對馬	부산		貿易商(福田商店)	상업회의소 부회두, 거류민회부의장
佐藤適	1874	仙臺	홍콩	1904	大阪商船會社 取扱店監督	일본거류민회 의원
木村健夫	1868	大阪	인천	1898	委託賣買業	상업회의소 회두, 일본거류민회부의장
木村福治郎	1866	山口	부산	1898	阪田支店主任	거류민회, 상업회의소의원
森田金藏	1858	長崎	부산	1898	貿易商	면화수출

출전: 『재한인사명감(在韓人士名鑑)』, 중전효지개(中田孝之介) 편, 목포신보사(木浦新報社), 1905년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편집함.

당시 주도층 인사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공직 계통 4명(영사, 우체국장, 거류민 단장), 은행업 계통 2명(제일은행 관련), 상업 계통(미곡상, 상회 및 무역업) 12명이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직종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개항 초기 목포 일본인 사회의 주요 인사들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직자들과 은행 관련 인물, 초기 형태의 무역을 통해 부를 형성한 인물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전 정착지를 보면, 부산에서 거주하다가 목포로 이주한 인물이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목포개항이 논의 될 당시에 부산의 상인들은 부산 무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어 부산의 발전에 불리할 것이라고 하며 목포 개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³⁰⁾ 목포 개항 전에 이미 목포권 다도해의 해산물을 매입하고, 영산강을 이용하여 영산포 등의 쌀을 매입하는 등 전라남도가 부산상인의 경제권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³¹⁾ 그만큼 목포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무역항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게 된 측면이 강했는데, 막상 목포가 개항이 되자 부산에서 목포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았다.

〈표 5〉의 18명 가운데서 이전 정착지가 파악되는 인물은 12명이다. 그 중 8명이 부산에서 목포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부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설 개항장 목포에서 빠른 속도로 정착하였다. 따라서 개항 초기 목포 상업은 부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부산에서 목포로 이주해 오면서 활동 기반을 마련한 상업인들의 대다수가 부산에 있는 일본 기업의 출장원 자격으로 왔다가 나중에 독립한 경우가 많았다. 무역상의 경우는 자본력을 필요로 하고, 사회적 지위도 상위에 속하는 형태였으므로 이전 개항장이자 대일 무역의 중심이었던 부산 상인들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³²⁾ 목포 개항 후 수출무역에 종사하는 이들이 조직한 ‘목포상화회’의 경우도 대부분 부산에서

30) 김정섭 옮김, 앞의 책, 32쪽.

31) 佐堀伸三, 앞의 책, 6쪽.

32) 佐堀伸三, 앞의 책, 19~22쪽 참조.

활동하는 상인들이 중심이었다.³³⁾

물론 개항장 내 상업 활동의 특성상 구개항장에서 신개항장으로 새로운 이권을 찾아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목포의 경우도 부산 뿐만 아니라 먼저 개항된 인천에서 목포로 이주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나 비중에서 부산상인이 훨씬 컸다는 점이 목포항 이주 일본인의 큰 특징으로 파악된다.

〈표 5〉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목포로 이주해 온 시기는 개항 1년 후인 1898년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주도층 인사들의 평균 나이는 1905년 당시 35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다. 출신 지역을 볼 때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근접한 지역 출신 인사들이 많다.³⁴⁾ 그 가운데 야마구치현 출신이 4명으로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포항에서 야마구치현 출신들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목포에서 상업은 이 지역 출신자가 장악하여 상공회의소 회원은 그들에 의해서만 엄선되어 회원으로 등록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정도였다. 특히 마쓰마에[松前] 일족들의 영향력이 컸다.³⁵⁾

〈표 5〉의 18명 인사들 중에는 거류민회와 상업회의소의 의원을 역임한 사람도 많았다. 거류민회 의원직을 역임한 사람이 9명, 상업회의소 의원을 역임한 사람이 7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중복되고 있다. 이는 이 시기 목포항 내 일본인 사회에서 주도층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류민회와 상업회의소에서의 활동이 필수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업회의소 의원을 지낸 7명은 모두 거류민회의 의원도 역임하였다. 당시 상업회의소 의원이 거류지 사회의 대표적인 주도층에 해당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³⁶⁾ 상업회의소 창립 시기부터 1905년 사이의 임원 명단은 〈표 6〉과 같다.

표 6 목포 일본인상업회의소 임원 명단

임원 및 서기장	1900년	1901년	1902년	1903년	1904년	1905년
會 頭	西川太郎一	木村健夫	西川太郎一	西川太郎一	西川太郎一	福田有造
副會頭	福田有造	福田有造	木村健夫	福田有造	木村健夫	木村健夫
	藤森利兵衛	藤森利兵衛	藤森利兵衛	藤森利兵衛	藤森利兵衛	藤森利兵衛
	木村健夫	西川太郎一	福田有造	渡邊彌太郎 山野瀧三	山野瀧三	山野瀧三
常議員	棚橋仙之助	平岡寅次郎	平岡寅次郎	木村健夫	福田有造	平岡寅次郎
	大河原源吉	棚橋仙之助 大河原源吉	大河原源吉	大河原源吉	谷村道助	谷村道助
	木村福次郎	木村福次郎	木村福次郎	木村福次郎	木村福次郎	木村福次郎

33) 김정섭 옮김, 앞의 책, 146쪽.

34) 〈표 5〉에는 일본인사 출신지역은 ‘현(縣)’으로 소개된 경우도 있고, 또는 구체적인 ‘출신지(出身地)’로 소개된 것도 있다.

35) 佐堀伸三, 앞의 책, 16쪽.

36) 개항 직후부터 일본인들의 상권옹호를 위한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본인상업회의소는 수출업자 중심의 목포상화회(木浦商話會)와 수입상 중심의 잡화상조합(雜貨商組合), 일용품 판매업자 중심의 소매상조합(小賣商組合) 등이 통합하여 1900년 1월 25일 발족하였다.

임원 및 서기장	1900년	1901년	1902년	1903년	1904년	1905년
書記長	谷垣嘉市	谷垣嘉市	谷垣嘉市	谷垣嘉市	谷垣嘉市	谷垣嘉市 中田孝之介

출전: 『국역 목포지』, 162~163쪽에서 편집.

당시 일본인상업회의소의 임원진은 7명(會頭 1명, 副會頭 1명, 常議員 5명) 내외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0년부터 1905년 사이에 상업회의소의 임원을 지낸 사람은 총 11명이다. 그 중에서 6명이 <표 5>에 나오는 재목 인사 명단과 중복되는 인물이고, 6년 동안 계속해서 임원을 맡은 인물은 4명(福田有造, 木村健夫, 藤森利兵衛, 木村福次郎)이다. 장기간 상업회의소 임원을 맡은 이 네 사람 가운데서 <표 5>에 나오지 않는 인물은 후지모리 토시베이[藤森利兵衛] 한 사람 뿐이다. 후지모리 토시베이는 해운업을 하면서 잡화를 취급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³⁷⁾ 또 한명의 중요한 인물은 야마노 다키조[山野瀧三]이다. 그는 일본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1895년에 부산으로 이주해서 상업 활동을 하다가, 목포의 개항이 예정되자 1897년 목포로 이주하여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하였고, 1903년에 거류민회의원, 1914년에 목포부협의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목포 개항 초기 일본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한편, 개항 초기 형성된 일본인 사회의 주도층들이 장기간 목포에 머물면서 활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21년 목포상업회의소에서 발행된 『목포안내(木浦案内)』에는 당시 상공인들의 명단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표 5>와 <표 6>에서 살펴본 인사 중에서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불과 6명(山本萬次郎, 渡邊彌太郎, 山野瀧三, 藤森利兵衛, 福田有造, 木村健夫) 밖에 되지 않는다.³⁸⁾ 목포 개항 이후 형성된 일본인 사회 주도층이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요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당시 주도층을 형성한 상공인의 특성상 대부분 이들은 개항이라는 특수정기를 노리고 신개항장인 목포로 이주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개항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또 다른 지역을 찾아 이주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한국 내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본인들이 내륙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다. 개항장 거류지 내의 한정적인 상업 활동에 만족하던 일본인들은 1905년 이후 한반도에서의 정치상황이 일본 쪽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한정된 개항장 지역을 탈피해서 내륙 깊숙이 본인들의 상업 활동 터전을 옮겨가기도 하였다.

37) 植村鏗次郎, 『목포안내(木浦案内)』, 목포상업회의소(木浦商業會議所), 1921, 23쪽 상공인명록 참조.

38) 같은 책. 이 책에 수록된 상공인 명단 참조.

5. ‘만인계’를 통한 조선인 마을의 도시화

조선인 마을의 초입에 해당하는 현 죽동 육거리 언덕에는 ‘마인계터’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그 내력에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마인계’는 ‘만인계(萬人契)’를 발음대로 표현한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만인계터’라고 표기해야 한다. ‘만인계’는 사람들에게 계표(통표)를 판매한 후 추첨을 통해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나눠주는 일종의 복권계이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성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개항 이후 목포의 도시화 특히 조선인 마을의 공공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한 사회적 의미가 담겨있다.

만인계는 시기적으로 1899~1904년 사이에 집중되었고, 전국적으로 분포했다. 사행성 문제로 중앙 정부에서는 금지시켰는데, 지방 차원에서는 일정한 공공성을 명분으로 성행했다. 특히 목포항과 같은 개항장에 집중되었다. 도로 건설 등에 필요한 공공사업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이었다. 대한제국 시기 우리나라에서 성행한 ‘만인계’는 주로 네 가지 형태로 개최된다. 지방군수가 설계하는 방식, 합법적 복권회사 형태를 지향하는 방식, 개인이 설계하는 방식, 외국인이 설계하는 방식이 있었다. 조직 구성은 제주, 계표를 판매하거나 계원을 모집하는 통수, 계표를 산 계원 등이다. 보통 계표 한 장에 5냥이었다. 1901년 부산항 만인계 기록에 따르면 1위에 당첨되는 경우 3,000냥을 배당금으로 받았다.³⁹⁾

목포에서 ‘만인계’가 개최된 장소는 ‘목포극장에서 만복동 고개 쪽으로 가다가 우측 구 법원관사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의 들판’이었다. 추첨 당일에 운집하는 군중들로 주변의 여관, 음식점, 가게들이 호황을 이루었다.

목포의 만인계는 언제 누가 운영했을까?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1900년 전라도 무안항(목포항)에서 박창규, 진서운 두 사람이 계표를 장당 엽전 5냥씩 판매하여 추첨하는 날 1,300냥을 도로수리비에 충당한다고 하고 만인계를 설치했다(『제국신문』 1900년 10월 24일 기사).

감리(시장)는 시장의 번영을 꾀하여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군청의 위쪽 광장에 특별히 장을 열어 만인계(복권의 일종으로 1원으로 1등 5천원이었다)를 허가하였다(『목포부사』, 1930).

이름으로 볼 때 박창규(朴昌圭), 진서운(陳瑞允)은 목포항에서 객주(客主: 물건매매 주선, 부두 노

39) 윤대원, 『한말 만인계(萬人契)의 내부 구조와 실상』, 『한국문화』 6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동 간여)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특히 박창규는 1900년 당시 목포객주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객주회는 후에 '사상회사(士商會社)'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당시 객주들은 일본인의 상권 침탈에 맞서고 있었고, 목포의 교육 문제 등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박창규의 경우 현 북교 초등학교가 사설학교 형태로 운영되다가 1907년 정식 보통학교로 개교할 당시 많은 자금(2,706냥)을 출원하기도 했다.

이천칠백륙량을 해항객주 회장 박창규씨가 교육의 급무를 찬성하기 위해 자담 지출하기로 자원 하였다(『황성신문』 1907년 4월 10일 기사).

현 목포시장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안감리가 만인계를 허가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개항 이후 남포동 지역 시장(市場)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했다는 공익을 위한 목적성이 의미가 있다.

이 일은 풍속의 교화에 해롭다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었으나 이 때문에 목포거류지의 외접지역의 번성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을 것이다(『목포부사』, 1930).

『목포부사』에 담긴 위의 기록은 개항 이후 목포의 도시화 과정, 특히 조선인 마을 쪽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만인계가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개항장 일대에 근대적 시설이 집중 된 반면 조선인들이 사는 지역은 기반 시설을 구축할 방법이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박창규가 출원한 보통학교(현 북교초등학교) 개교 자금도 '만인계'의 수입을 기반을 했을 수 있다. 2,700냥이 아닌 2,706냥을 낸 것을 보면 공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만인계의 수익금이 목포의 조선인마을 건설에 이바지 했다는 것은 목포 도시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HK교수

제3절 개항기 목포의 노동 운동

개항 후 목포부두노동운동에는 목포항의 발달과 항구 도시 목포의 초창기 사회상이 담겨 있다. 광복 이후 목포부두노동운동에 대해 가장 먼저 서술된 자료는 1974년 박노찬이 발간한 『목포사(木浦史)』이다. 그는 목포 역사를 정리한 『목포사』를 집필하면서 「잇단 한일분규」와 「인부쟁의종결」, 「노동조합」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개항 후 목포 지방의 노동운동사를 서술한 바 있다. 비록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목포지』와 『목포부사』에 수록된 내용을 재해석한 수준이었지만, 목포 역사에서 개항 후 노동쟁의가 지니는 중요성을 처음으로 조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김종선(1980년), 이철우(1983년), 양상현(1986년)에 의해 목포 노동 운동 관련된 학술 논문이 연속적으로 발표되었다.⁰¹⁾ 이는 개항기 목포부두노동운동이 한국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철우는 1898년 2월 발생한 목포 지역 노동쟁의를 '한국 최초의 근대적 노사 분쟁인 부두노동자의 노동쟁의'로 평가하였고, 이는 이후 학계 통설로 자리 잡았다.⁰²⁾ 그런데 정작 1987년에 목포시에서 발간한 『목포시사(인문편)』에는 노동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누락되었다. 이후 1994년 배종무가 발간한 『목포개항사 연구』에 비중 있게 다뤄지고, 1997년 발간된 『목포개항백년사』에 「목포의 부두노동자와 노동운동」이 포함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⁰³⁾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목포항 부두노동자층이 형성된 배경과 관련 조직, 한·일간의 대립 구도와 개항기 부두노동운동개요, 부두노동운동의 전개 양상, 그 의미를 정리하였다.

1. 목포항 부두노동자층의 형성 배경과 조직

조선 후기 이래 전국의 장시와 각 지역의 포구를 중심으로 유통권이 형성되고 발달해 왔는데 1876년 개항 이후 각지의 개항장을 중심으로 유통권이 재편되는 양상으로 변모해갔다. 전남의 경우 1897년 목포가 개항된 후 목포항은 서남권 유통권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목포는 서남권 물류 이동과 상업의 중심 항구로 성장하였으며, 수탈항 성격이 강했지만 일본과 중국으로까지 연결되는 국제적인

01) 김종선, 「목포 개항초기 부두노동자의 분쟁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80; 이철우, 「광무연간의 목포부두노동운동 연구」, 『학술논총』7, 단국대 대학원, 1983; 양상현, 「한말 부두노동자의 존재양태와 노동운동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국사론』14, 서울대 국사학과, 1986.

02) 이철우가 「광무연간의 목포부두노동운동연구」(『학술논총』7, 단국대 대학원, 1983)에서 처음 주장한 이후 통설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근자에 윤진호는 기고문(『개항기 인천항 부두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조선신문〉자료를 중심으로-』, 『황해문화』83, 새얼문화재단, 2014.)을 통해 인천에서 먼저 노동자 쟁의가 일어났음을 주장한 바 있다.

03) 고석규, 「목포의 부두노동자와 노동운동」,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58~167쪽.

해상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개항기 목포부두노동운동의 발달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목포항의 유통권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전라남도의 상당 부분이 목포를 중심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북쪽 영광군과 장성군의 일부는 군산과 교차되는 특성이 있고, 전남 동부권의 구례, 곡성, 순천, 여수, 고흥, 보성에는 부산의 세력이 미쳤다. 주요 지역 중 여수, 순천, 광양, 구례 4군을 제외하고는 개항 이후 모두 목포의 상권 내에 있었다.⁰⁴⁾ 그 때문에 전남에서 생산되는 여러 물자들이 목포에 집산되고, 해상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경로로 이동되어 갔다. 개항기 전남의 물자 집산 상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전남의 물자 집산 상황

開港場	物資集散地 主要經路	物資集散區域
釜山	河東(慶南)	求禮 일부, 光陽 일부
	麗水	麗水, 突山, 光陽 일부, 順天 일부, 興陽 일부
	筏橋	順天 일부, 寶城 일부, 興陽 일부
	海倉	寶城 일부, 興陽 일부, 長興 일부, 康津 일부, 海南 일부, 莞島 일부
木浦	海倉	寶城 일부, 興陽 일부, 長興 일부, 康津 일부
	海南	海南 일부, 康津 일부, 莞島 일부, 靈巖 일부
	濟州	濟州, 旌義, 大靜
	木浦	務安, 智島, 珍島
	榮山浦	羅州, 靈巖 일부, 綾州, 長城 일부, 潭陽 일부, 昌平 일부, 谷城 일부
	法聖浦	咸平, 靈光, 長城 일부
群山	茁浦(全北)	長城 일부, 潭陽 일부, 昌平 일부
	群山	昌平 일부, 谷城 일부, 求禮 일부

출처: 탁지부 편, 『개항장 부근시장 경제와 교통관계 제1권(부산세관보고)』, 1900, 163~164쪽 참조.

개항 이후 목포항은 해창, 해남, 제주, 영산포, 법성포를 아우르는 전남 최대의 무역항으로 발전하였다. 주변의 무안, 함평 등에 78개의 시장이 있었고, 이러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자들은 모두 목포항을 거점으로 이동되고 공급되었다.⁰⁵⁾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포항 부두 노동이 활성화되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들어 목포항 노동자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부두노동자들은 업무 형태에 따라 크게 두량군(斗量軍), 칠통군(七桶軍), 지계군(支械軍), 하륙군(下陸軍)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두량군은 미곡을 계량(計量)하고 포장하는 노동자, 칠통군은 선박과 부두 사이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노동자, 지계군은 흔히 지계꾼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로 육상에

04) 목포부, 『목포부사』, 1930, 556~557쪽.

05) 탁지부 편, 『개항장 부근시장 경제와 교통관계 제1권(부산세관보고)』, 1900, 165쪽.

서 화물의 운반하는 노동자, 하륙군은 선박에 실린 물품을 육지로 운반하는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고용 조건의 개선을 위해 조직적인 단결이 필요했는데 초보적인 노동자 조직인 ‘도중(都中)’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도중’의 조직은 전체를 관장하는 ‘검찰(檢察)’과 그 밑에 ‘십장(什長)’이 있었다. 검찰은 도중을 대표하고 십장을 지휘 감독하였다. 십장은 인부 관리와 임금 분배 등을 담당하였다.⁰⁶⁾

2. 한일 간 대립 양상과 부두 노동 운동 개요

목포항 부두노동운동은 1897년 개항 직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미 부산이나 인천 개항장에서 관련 경험이 축적된 후 목포가 개항된 것이었기 때문에 부두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고, 일본 상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매우 발 빠르게 전개되었다.

목포 개항과 함께 한국 정부는 무안감리서를 설치하였고, 일본은 각국거류지에는 일본 영사관을 설치하였다. 둘 다 개항장 내의 외교 및 통상 사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자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무안감리서와 일본 영사관의 대치 구조 하에 상인들의 민간 기구가 형성되어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진남포급목포각국조계장정(鎭南浦及木浦各國租界章程)」에 따라 목포각국거류지회가 1898년 4월 11일에 성립되면서 각국거류지의 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다. 개항 이후 거류민 95% 이상이 일본인으로 이루어져 거류지회의 대표를 일본영사가 맡아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일본 상인들은 각국거류지와 협력 하에 여러 상업 관련 단체를 조직하면서 목포항 내 상업 활동의 주도권도 일본인들이 장악해 나갔다.

1898년 수출상인 조직인 목포상화회(木浦商話會)와 수입상인 조직인 목포잡화상조합(木浦雜貨商組合)이 만들어졌다. 1900년에 두 단체가 통합되어 ‘목포일본인상업회의소’가 발족되었다. 이들은 일본 자본의 조선 항로 진출과 동시에 해운업을 장악하여 부두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하역을 행하는 운반선, 하역 노동자, 운송, 창고업 등 일련의 부속 사업을 독점하였다. 일본의 노동 청부업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목포조(木浦組), 팔두사조(八頭司組), 장문조(長門組) 등을 이용하는 양상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인들 중에는 지방 상인과 일본 상인을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객주들이 있었다. 이들은 객주 단체인 사상회사(士商會社)를 조직하여 일본상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 비록 유통 기구의 기능이나 자금 등에서 일본 상인에 대한 예측성이 강하였지만, 일본인을 대상으로 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는 불평등에 대한 자각으로 일본 상인에 대한 저항 의식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이

06) 배종무, 『목포개항사연구』, 느티나무, 1994, 152~153쪽을 참조하여 정리함.

시기 객주의 특징이다.

이렇듯 개항 이후 무안감리서와 일본 영사관, 일본인 상업회의소와 객주 단체가 대립된 상태에서 개항기 목포 부두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목포 개항기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는 1914년 일본인들이 발간한 『목포지(木浦誌)』와 대한제국의 기록인 『무안보첩』, 그리고 당시 보도된 신문자료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목포지』에는 「제16편 한국인의 통상방해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철저히 일본인의 시각으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명칭이 ‘통상방해사건’으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목포 부두 노동운동이 매우 활발하고 치열했으며 개항 초기 사회상이었음을 보여준다.

1897년 개항 이후 1903년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노동운동이 일어났다. 초기에는 노사 분쟁인 임금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대한제국 정부의 무안감리서와 일본 영사관 사이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었다. 발생 시기와 관련 사건 내용을 정리하면 <표 2>⁰⁷⁾와 같다.

표 2 개항 후 목포부두 노동운동 관련 사건일람

발생시기	사건 내용	통상정지
1898년 2월	한국인 인부 노임지불 방식 문제	7일간
1898년 9월	인부 노임 인상 요구	10일간
1900년 3월	거류지 내 인부 단체 조직사건	2일간
1901년 1월	인부 노임 인하 사건	10일간
1901년 12월	거간 조합설립 사건	없음
1902년 2월	조계 내 한국상인 인탕(引揚) 명령 사건	30일간
1903년 1~2월	인부 감찰 설치 사건	7일간
1903년 11~12월	감리서난입사건	35일간

개항 후 1903년 사이 발생한 총 8회에 걸친 노동쟁의는 시기적으로는 크게 네 시기, 성격상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시기상 1차 시기는 개항 직후 시기인 1898년, 2차 시기는 단체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는 1900년에서 1902년까지, 3차 시기는 1903년 상반기, 4차 시기는 1903년 외교 문제까지 발생하여 무안감리서를 난입하는 사건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성격상으로는 부두 노동자의 임금 유지 및 인상과 관련된 투쟁과 이른바 ‘반일패(反日牌) 운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노동권 쟁취와 관련된 쟁의로 구분된다.

07) 이철우, 앞의 논문, 350쪽 <표5>를 수정하여 인용함.

3. 개항기 부두 노동 운동의 전개과정

1) 임금 인하 반대 운동

목포 부두 노동운동의 출발은 불합리한 임금에 대한 개선과 노동 조직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쟁의는 1898년 2월 발생했다. 한국인 인부 노임 지불 방식에 대한 문제로 동맹 파업을 실행한 것이다. 일본 상인들이 부두 하역 노동자들의 임금 지불과 청구 방식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기존 임금 기준보다 노임을 낮게 책정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쟁의가 발생한 것은 목포가 개항된 지 불과 5개월이 안된 시점이다. 한국인 마을과 일본인 거주 공간과의 교통을 차단한 후 한국 상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일본 상인과의 매매거래를 중단하였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은 거류지 밖 죽동 산기슭에 모여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거류지에 대한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칫하면 한·일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인 日高友四郎이 한국인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자 반일 감정이 더욱 고조되었다.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일본 영사는 일고우사랑을 훈계 방면하고 한국에서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 군함이 목포항에 입항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은 일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후에도 한국인 객주와 일본인 상인들 간의 긴장은 계속되었고, 같은 해 7개월 후 두 번째 쟁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최초 발생했던 임금 인하 반대 투쟁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자 다시 동맹 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10일 동안 통상이 정지되는 사태를 맞기도 하였다. 이때 역시 두 나라의 상인들 간의 조정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쟁의는 한국 정부에서도 부두하역노동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무안감리 진상언이 1898년 6월 외부에 올린 보고서에 “본 항이 창설된 후 계속하여 상업상의 업무가 신장되어 가는 바, 수출입 창구에 갖추어야할 화물을 운반하는 일은 반드시 모군(募軍)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두목을 두어 영솔하게 할 권리가 없다면 모든 상화(商貨)를 검속할 길이 없습니다. 모군 두목과 아울러 십장 15인을 공적으로 차출하여, 그로 하여금 영솔하여 거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보고하오니 널리 살피시고, 모군십장청(募軍什長廳)의 업무규정을 바로 내려주시어, 이로써 편히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안감리서에 ‘모군십장청’을 설치하고, 노동계의 무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나간 것이다.⁰⁸⁾ 이와 함께 부두노동자들에게 ‘감자

08) 『무안보첩』 1898년 6월, 무안감리 진상언이 외부대신서리 외부협판 유기환 각하에게 보낸 보고. 『무안보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였다. 박찬송·고석규 공역, 『국역 무안보첩』, 목포문화원, 2002. 이하 각주에서는 ‘『무안보첩』’으로 약칭하고 문서 제목을 제시하였다.

낙패(監字烙印)를 발급하고 이를 소지한 자만이 부두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쟁의는 1900년 3월에 발생했다. 일본 상인들이 십장제의 폐단을 이용하여 부두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부두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 한 것이 발단이였다. 당시 무안감리서에서는 인부에게 감찰을 교부하고 십장을 두어 인부 통솔과 임금 계산 등의 업무를 맡겼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의 1할을 감독기관의 경비로 충당하고 있었다. 이때 간부의 임명에 뇌물이 오가는 등 폐습이 생겼고, 하역 일에 종사하는 인부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이러한 틈을 노린 일본인 仙石勘九郎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포섭하여 감리서의 낙패를 반납하게 한 후 자신들의 조직 하에 상용 인부가 되도록 함으로써 무안감리서 관리를 받던 기존 부두노동자들의 단결을 와해시키려 했다. 3월 9일 두 조직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양측 경찰이 출동하여 충돌은 진압되었으나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 노동자들은 3월 21일 거류지 출입을 통제하고, 일본인 상점에 고용된 한국인들도 소환하였다. 한국인들의 강력 한 저항에 부딪히자 일본 측은 선석(仙石) 조직을 해체하고 포섭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을 객주회 하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하였다. 비록 일본 측의 의도는 철회되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낙패와 십장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1900년 2월에는 검찰(檢察)을 감리서와는 별도로 경무서에서 임명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감리서와 경무서 간에 분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⁰⁹⁾

네 번째 파업은 1901년 1월에 재발하였다. 임금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일본상업회의소에서 일본인의 노동 임금을 인하하는 개정률을 시행한다는 핑계를 대며 한국인 노동 임금을 화물 1개당 1문 인하한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것이 발단이였다. 그러나 역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은 종래의 부선(浮船) 하역 3문, 기선(汽船) 하역 4문에 해당하던 7문의 임금을 9문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 측은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1월 19일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본 측에 취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고 동맹 파업으로 맞섰다. 두량군이 중심이 되어 전원이 조계지에서 물러나와 교통을 단절하고 파업 태세를 갖추었다. 객주회에서는 종전과 같이 임금을 지불해 줄 것과 아울러 부두노동이 다른 노동에 비해 힘들므로 3~4문의 증액이 불가피함을 지적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¹⁰⁾ 시기적으로 가장 무역량이 많은 때여서 결국에는 서로 양보하는 형태로 임금은 8문으로 체결되었고, 1월 30일에 300여 노동자들이 다시 거류지 내에서 일하게 되는 상황으로 수습되었다. 최종 해결은 3월 3일 일본상업회의소 측과 조선객주회 측의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이루어졌다. 협상에서 일본 상인은 화물의 경증대소를 감안하여 대·중·소로 구별하고

09) 『무안보첩』 1900년 2월 21일 보고 제13호

10) 김정섭 옮김, 『국역 목포지』, 향토문화사, 1991, 586~591쪽.

노동의 형태에 따라 차등 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대·중·소 구별 없이 개당 8문씩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되었다. 일본 상인들의 압박에 맞서 싸운 결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된 의미 있는 투쟁 사례이다.

2) 노동권 쟁취 운동(반일패)

이후 개항기 부두 노동 운동의 쟁점은 노동권 장악과 관련된 것이었다. 십장 운영과 부두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패(牌)’를 일본 측과 한국 측이 각각 발급하면서 그 인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각축이 벌어졌다. 단순한 노동쟁의를 넘어서 양국의 국권(國權) 대립의 양상으로 변졌다.

무안감리서에서 운영하는 십장제도는 노동자 관리에 편리한 면도 있었으나 그에 따른 폐습도 발생하여 부두노동자들 사이에 불만이 커져가고 있었다. 원래 십장을 임명하는 것은 무안감리의 권한이었다. 그런데 1903년 무안경무서 경무관 홍종환(洪鍾萱)이 무안감리가 임명한 두량군 중심의 십장 15명 외에 칠통군 십장 10명을 뇌물을 받고 새로 임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¹¹⁾ 구십장들과 신십장 사이에 대립이 생겼다. 경무서는 신십장에게는 기선과 부선 하역의 중요한 일을 나누어 주는 한편, 구십장에게는 육상에서 두량하는 일만을 맡겼다.¹²⁾ 일본 상인들은 이러한 내부 갈등의 틈새를 절묘하게 악용하여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와해시키고 노동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기회로 활용하였고, 그에 따라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일본상인들은 ‘영자낙패(領字烙牌)’를 발급하여 이를 가지지 않은 자들은 2월 1일부터 거류지 내에 하역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영자낙패’를 교부 받은 자들은 거류지에 집을 얻어 거주할 수 있고, 모든 상거래까지 할 수 있다고 회유하였다.¹³⁾ 구십장 모군 검찰로 있던 이명서(李明瑞)를 앞세워 한국인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책동을 주도했다. 이에 대해 무안감리서는 “조계 내에 조선인은 거주 할 수 없다.”는 규정(장정 9조)에 위반되며, 낙패 발행은 감리서의 권한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임 강조하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¹⁴⁾ 갈등이 깊어지자 경무서는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목포항 사상공회(木浦港 士商會社)’에서 이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도록 하는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11) 『무안보첩』 1903년 3월 5일 보고 제11호.

12) 김정섭 옮김, 앞의 책, 599~600쪽.

13) 『무안보첩』 1903년 3월 5일 보고 제11호.

14) 『무안보첩』 1903년 3월 5일 보고 제11호.

사상회사는 2월 6일 거류지 일본경찰서에 낙패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거류지 내 사무실을 철거하고 2월 8일 동맹 파업을 단행하였다. 거류지내 한국상인과 일반민들의 통상 업무도 중지되었다. 이에 일본상업회의 측은 한국인들이 발행한 ‘한전(韓錢)’어음을 일제히 추심키로 하여 한국인 상인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또한 객주를 거치지 않고도 부두에서 물품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¹⁵⁾ 이렇듯 한국 상인에게도 불리한 점이 많아지자 사상회사는 일본상업회의소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영사가 여전히 자신들이 발급하는 낙패를 소지해야만 거류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감리가 2월 14일 일본영사를 방문 협의하여 거류지와 감리서 각자 직권 행사에서 감찰(낙패)을 발급하는 것을 인정하는 형태로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2월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되고 노동자들의 파업은 8일 만에 일단락되었다.¹⁶⁾ 그러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에 불과한 협상 결과였기 때문에 더 큰 불씨가 되어, 1903년 말 이른바 무안감리서 난입사건이 발생하여 국가 간 외교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다.

십장과 낙패 운영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자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성규(金星圭)를 새 감리로 임명하였다.¹⁷⁾ 4월 4일 부임한 김성규는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후 관련자를 면직 조치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신병에 문제가 생겨 감리서 업무를 서리였던 김면수(金冕秀)에게 맡기고 병가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그 사이 십장의 폐단이 깊어졌다. 이명서 등의 십장들은 상납을 이유로 그동안 15%씩 거둬들이던 십장소료(什長所料)를 20%로 인상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외부 상납은 본래 십장이 먹는 것 가운데서 내는 것이지 모군에게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들의 반십장 운동은 일본 경찰까지 나서서 노동자들에게 폭행 감금 등 강압적 방법이 동원되자 좌절되고 말았고, 결국 20% 인상이 관철되었다.¹⁸⁾

이후 10월 22일 김성규가 복귀하면서 십장에 대한 폐단 해결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모군들이 이명서 등의 소행을 고발하자 김성규는 이명서를 체포하고 모반미행죄(謫叛未行罪)를 적용하여 교수형을 선고하였다.¹⁹⁾ 또한, 새로운 패장제로 각 동의 공원(公員)들이 패장을 겸임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각동공원패장예겸제(各洞公員牌長例兼制)’를 중심으로 11조의 십장 폐단 방지책을 1903년 11

15) 김정섭 옮김, 앞의 책, 162쪽.

16) 김정섭 옮김, 앞의 책, 601~606쪽.

17) 『무안보첩』 1903년 4월 4일 보고 제19호.

18) 『무안보첩』 1903년 11월 26일 보고 제74호.

19) 『무안보첩』 1903년 11월 26일 보고서 제74호.

월 10일 고시하였다. 패장제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십장을 패장(牌長)으로 개칭하고, 항내 7개동의 공원(公員)이 패장을 겸하며, 임원은 검찰 1명, 패장 7명, 서사(書寫) 2명으로 정하고, 검찰이 패장 이하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²⁰⁾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는 전임 감리와의 합의한 내용에 위반된다는 불만을 품고 여전히 일본패 착용을 종용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압박하였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결국 파업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1903년 11월 21일 밤 무안감리서 습격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영사와 경무의 비호 하에 일본상인 谷垣嘉市,²¹⁾ 후지모리 토시베이(藤森利兵衛)²²⁾ 등 5인은 일본 모군 100여 명을 목봉(木棒)과 장검(長劍) 등으로 무장시켜 감리서를 침입하였다. 감리 김성규를 새벽까지 감금 협박하였으며, 무안감리서 주사 및 한국인 모군 등을 구타하였다. 경무서에 갇혀 있던 이명서를 빼돌리기도 했고, 한국인 모군들을 붙잡아가 일본 상인의 창고에 감금하기도 했다.²³⁾ 김성규의 강렬한 요구로 새벽이 되어서야 일본 상인들과 모군들은 물러났다. 이 사건은 대한제국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의 폭력성과 야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폭압적인 분위기에서도 김성규 감리는 굴하지 않았다. 22일 고시문을 통해 종전과 같이 조계지 내에서 작업을 계속할 것을 당부하고, 23일에는 일본 영사관을 찾아가 일본패 착용의 부당성을 항의하였다.

파업이 지속되자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현안 문제에 부딪혔다. 이에 전 경무관 박한근 등은 조선인 객주들로부터 6백 냥 가량을 거두어 생활을 지원하고, 각 동에서도 5백 냥 가량을 거두어 지원하기도 하는 등 일본 상인들의 압박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자 양측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져 갔다.²⁴⁾ 12월 9일에는 장검 등으로 무장한 일본 모군 등이 목포항 경무서를 습격하여 순검 최규진을 구타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또 14일에는 일본 군함 1척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목포항에 입항하여 무력시위를 전개하자 이에 고무된 일본인 모군들은 무장하고 조선인 모군들의 집회 장소를 습격하여 4명의 중상자를 비롯하여 22명의 부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감리 김성규는 12월 이후 신병으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이후 12월 12일 한영원(韓永源)이 사판관(査辦官)으로 파견 오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목포 부두 노동운동계의 노동권 관련 갈등은 엉뚱한 방향으로 종결되어 갔다. 전임 김성규의 추진 방향과는 전혀 다

20) 배종무, 앞의 책, 167쪽.

21) 초기 5년 간 일본인상업회의소 서기장(書記長)을 맡은 인물로 목포신보의 창간과 운영에 관여하는 등 언론부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1914년 발간된 『목포지』 편집위원을 맡기도 했는데, 『목포지』에는 무안감리서 습격 상황이 왜곡되어 있다는 입장으로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22) 후지모리 토시베이(藤森利兵衛)는 해운업을 하면서 잡화를 취급했던 인물이다.

23) 주 19)와 같음.

24) 『무안보첩』 1903년 12월 7일 보고서 제77호.

른 귀결이었다. 한영원은 외부의 지령에 따라 양비론(兩非論)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일 양국의 주동자를 처벌하고, 12월 24일 5개조의 의정서²⁵⁾를 조인하고, 25일부터 조선상인과 모군들을 모두 작업장으로 복귀시켰다. 이듬해 1월 2일에는 양측 모군과 십장에 대한 처벌문제를 다룬 10개조의 의정서를 조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실상 일본 측에 유리하게 처리되었다는 면에서 쇠락하는 국력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²⁶⁾

4. 목포 부두 노동 운동의 의미

목포는 1897년 국내에서 네 번째 통상항으로 개항된 곳이다. 관세가 무엇인지, 개항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부산 등 이전 개항장과는 달리 목포의 개항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달랐다. 개항이 전에 이미 우리 정부 주도로 무안감리서와 목포해관이 설치되고 개항장 업무를 준비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었다. 노동 운동도 마찬가지였다. 이전 개항장에서의 노동 경험이 조금씩 국내에 축적되어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개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 운동이 발생했다. 개항 후 5개월 만에 노동자들의 첫 파업이 실현되었고, 1903년 시기까지 8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

목포 개항 후 서남권 유통은 목포항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그 중심 물품은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미곡이었다. 목포항은 미곡과 면화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고, 목포에 진출한 일본 상인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목포의 무역업을 장악했다. 일본 상인들은 일본 영사관의 비호아래 목포 상권을 장악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권력 하에 복종시키려 했다. 그 과정에서 절대약자였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민족적 저항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일본 상인들의 폭력적인 방법과 민족 간 갈등을 유발하는 회유와 이간질, 무안감리서에 대한 압박 등이 자행되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파업과 단결을 통해 맞서 싸웠다.

개항기 목포 부두 노동 운동은 노동 조직 자체가 매우 초보적인 형태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야말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자연 발생적인 투쟁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단순한 통상적인 노동운동에 그치지 않고 ‘반일패’ 운동으로 변화 발전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단순한 노동자의 이익 옹호에만 그치는

25) 십장의 임명권이 감리서에서 해관으로 넘어갔으며, 일본거류지회 역시 동의권을 얻게 되어 공식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일본인들의 권한이 인정된 셈이었다.

26) 당시 외부대신 이영하는 4년간 일본주재 공사를 지낸 인물이었다. 또한 사판관 한영원은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본의 호감을 얻어 이후 1904년 3월 15일 무안감리로 임명되었다.

것이 아니라 ‘민족적 성향을 겸비한 항일 운동의 첫 장’²⁷⁾을 열었다는 점에서 목포 부두 노동 운동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시기 부두 노동 운동은 1920년대 활발해진 노동 운동처럼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지식인들이 지도자로 참여하거나, 전문적인 노동 단체가 외부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8차례에 걸친 쟁의를 통해 노동권 쟁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웠다. 장기 투쟁을 위해 객주들과 목포의 각 동에서 기금을 모아 지원했을 만큼 단결력도 보여주었다. 흔히 목포항은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주도하는 식민지 수탈항으로 전락했다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개항 이후 발생 한 이러한 부두 노동 운동의 사례는 일제에 저항하고 민족 단결을 통해 노동권 쟁취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항기 목포 부두 노동 운동은 이후 일제강점기에 지속된 노동 운동의 출발점이자 목포 민족 운동의 시작이었다는 의미를 들 수 있다. 더불어 목포의 사례는 한국근대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27) 고석규, 앞의 글, 165쪽.

제4절 대한제국기 목포의 주요 관청과 기능

1897년 개항 이후 목포는 선창가에 조성된 ‘목포각국거류지’와 유달산 아래 ‘조선인 마을’로 구분되는 이중적 구조를 띠며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곳에 각종 관청들이 설치되면서 도시로서의 면모가 조금씩 갖추어졌다. 특히 한국 정부에서는 목포 개항장 운영을 위해 무역 업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목포해관을 목포진 주변에 설치하였고, 개항장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무안감리서 역시 개항 이전에 설치하였다. 이는 이전 개항장과는 달라진 목포의 상황이다. 또한 우체사, 경무서 등이 조선인 마을에 설치되었다. 반면 목포각국거류지 지역에는 일본 영사관을 비롯하여 거류민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일본인의 주도로 설치 운영되었다.

1. 대한제국의 주요 관청

1) 목포해관(木浦海關)

목포해관은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 하는 곳이다.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과 동시에 관세 사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목포해관이라 불렸으며, 1907년 목포세관으로 개칭되었다.

목포의 개항일은 목포해관 개시일이기도 하다. 이미 한국 정부에 의해서 해관 관련 부지가 목포 개항 이전부터 설정되어 있었고, 업무 개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항과 함께 목포해관의 기능이 작동되었다. 지도군수 오형묵이 남긴 정무일기인 『지도군총쇄록(智島郡叢瑣錄)』기록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살필 수 있다. 그가 목포 개항 이전인 1897년 4월 24일 목포를 방문했을 때 이미 해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었음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목포진터 일원에서 해관이 운영될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⁰¹⁾ 목포해관은 개항장 형성과 발전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이다. 해관의 설치는 주변에 항만 시설이 발전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목포해관이 설치된 위치에 따라 시가지 발전의 기본 형태가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위치는 이미 개항 이전에 한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다.

해관 업무는 개항장 목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한국 정부가 목포를 개항한 주된 목적이기도 하였다. 목포 개항 이전 한국 정부의 관세나 국제 무역에 대한 개념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1876

01) 오형묵, 『지도군총쇄록』, 신안문화원, 2008, 243~244쪽.

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가 맺어지면서 부산이 처음 개항되었을 때 일본은 무관세로 부산항을 이용하였다. 부산이 개항된 지 7년이 지난 1883년이 되어서야 부산해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1878년 9월 27일 부산 동구 수정동에 두모진 해관이 설치되었으나, 일본의 철폐 요구로 폐쇄되어 관세를 거두지 못했다. 1883년에 「조일관세협정」이 체결되면서 같은 해 11월 부산 해관이 개설되어 비로소 관세 사무가 시작되었다. 이에 반해 목포의 경우는 이전 개항장들의 경험을 통해 관세 자주권을 깨달은 한국 정부가 관세 수입을 목적으로 목포해관을 미리 설정해놓고 개항하게 된 점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수입을 중요시 여겼던 것은 외국의 차관을 도입할 때 유일한 담보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관세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목포의 경우도 초기 해관세의 수입은 차관 도입의 담보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무안감리서나 무안경무서 같은 행정 기관의 운영을 위한 비용이나 시가지 건설을 위한 비용도 역시 해관세를 활용하였다.⁰²⁾ 개항 이후 목포해관의 역할은 관세를 징수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무안감리서에서 목포각국거류지의 택지 공매를 실시하는 장소로 해관이 활용되었고, 목포 개항장에서 필요한 통역 업무 또한 해관의 직원들이 담당하기도 하였다.⁰³⁾

목포해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영어를 사용하였는데, 수출입의 신고서는 영·한문을 병용하고, 세금액 기재법은 중국식의 원(元)·각(角)·분(分)으로 써야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1907년에 이르러서야 목포세관(이때 명칭이 해관에서 세관으로 변경)의 업무를 장악하고, 세관장 이하 직원을 일본 정부로부터 불러들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시켜 나갈 수 있었다.⁰⁴⁾

당시 목포해관은 처음에는 목포진 동편 언덕아래 있던 구 목포진의 부속건물 하나를 청사로 썼다. 또한 해안의 수로에 튀어나온 반도를 하역장(荷役場) 또는 선적장(船積場)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주변 노천을 해관의 검사장으로 사용하였다. 1903년 목포진 서쪽을 매립하여 해관부지로 활용하였고, 1904년 12월부터 이쪽에 있던 개인 소유의 창고에서 통관 검사를 시작하였다.⁰⁵⁾ 해관 일대는 개항장 목포의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장소가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에 관련 시설들이 하나 둘 형성되어 갔다.

02) 목포부, 『목포부사』, 1930, 869~870쪽; 박찬승·고석규 공역, 『국역 무안보첩』, 목포문화원, 2002, 31~32쪽, 1898년 4월 14일 보고 제 43호. 이하 각주는 『목포부사』, 『무안보첩』으로 약칭.

03) 『무안보첩』, 16~17쪽, 1898년 1월 10일 보고 제24호.

04) 『목포부사』, 292~295쪽.

05) 김정섭 옮김, 『국역 목포지』, 향토문화사, 1991, 87~88쪽.

2) 무안감리서

‘감리서’란 개항장의 외교 및 통상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이다. 목포를 개항장으로 선포한 한국 정부는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해 무안감리서(務安監理署)를 개항 이전에 목포에 설치하였다. 무안감리서의 신설은 1897년 8월 14일 외부대신이 의정부 의정에게 감리서의 설치를 청원하여, 같은 해 9월 12일에 칙령 제33호로 「각개항장감리관제(各開港場監理官制)」를 개정·반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시 목포는 무안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감리서의 명칭도 무안감리서로 붙여지게 되었다. 감리서의 장인 감리(監理)는 정부의 외부(外部)의 지휘를 받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지방 외교관이었다. 개항장이 속해 있는 지방의 행정 기구의 장을 겸하였다.

초대 무안감리인 진상언(秦尙彦)은 16일 서울을 출발하여 18일 목포항에 도착하였으며, 22일 외부대신에게 첫 보고서를 올렸다.⁰⁶⁾ 또한, 같은 날인 9월 22일에는 「목포통상항 10리 이내 우리나라 인민의 토지와 가옥을 외국인에게 매매할 때의 장정」을 지역민들에게 고시(告示)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10월 1일 개항이 되기 이전에 무안감리서가 설치가 되었고, 개항장 업무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목포가 개항되기 전에 토지와 가옥을 외국인에게 매매할 때 주의할 사항을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개항장 업무에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산의 경우 개항장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관청으로서 감리서가 설치된 것은 개항 후 7년이 지난 1883년(고종 20)이었다.⁰⁷⁾

무안감리의 임무와 권한은 목포 개항장에 주재하는 각국 영사와의 교섭과 항내(港內) 일체 사무의 관장, 즉 섭외 통상 사무 및 그곳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또 행정 면에서는 관찰사와 동등한 지위로 상대하고, 각 군수와 개항장 경무서의 총책임자인 경무관에게 훈령·지령을 내리며, 통상 교섭 사무에 관한 한 목사나 부윤에 대해서도 훈령과 지령을 내릴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개항장의 화물 출입과 관세의 다과(多寡)를 조사하여 매월 말 탁지부(度支部)와 외부(外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⁰⁸⁾

〈표 1〉⁰⁹⁾은 역대 무안감리로 파견된 인사들의 명단과 재임 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감리서와 의정부 사이에 오간 공문서의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초대 진상언과 6대 김성규 감리 외에는 대체적

06) 『무안보첩』, 3쪽, 1897년 9월 22일 보고 제1호.

07) 1883년에 부산·원산·인천 개항장에 감리서가 설치된다. 세 지역 모두 개항이 된 후 감리서가 설치되었다.

08) 배종무, 『목포개항사연구』, 느티나무, 1994, 37~38쪽, 무안감리의 업무 참조.

09) 목포문화원에서 발간한 국역 『무안보첩』의 내용을 토대로 재임기간을 설정하였다. 실제 임명되는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으로 재임 기간이 매우 짧았다. 공백기에는 감리서 주사로 근무하는 임병선(林炳旋), 송성인(宋誠仁), 정보섭(丁寶燮) 김면수(金冕秀), 구교수(具敎胄), 박승옥(朴勝玉) 등이 감리서리를 맡아 운영하였다.

표 1 역대 무안감리서 감리 명단

번호	감리 이름	재임기간
1	진상언(秦尙彦)	1897년 9월 16일~1900년 5월 10일
2	이준영(李準榮)	1900년 6월 27일~1900년 8월 15일
3	현명운(玄明運)	1900년 10월 29일~1901년 1월 3일
4	조종서(趙鍾緒)	1901년 1월 18일~1901년 11월 8일
5	민영채(閔泳采)	1901년 12월 9일~1903년 3월 7일
6	김성규(金星圭)	1903년 4월 4일~1903년 12월 26일
7	한영원(韓永源)	1904년 4월 8일~1905년 11월 15일
8	한창수(韓昌洙)	1905년 12월 22일~1906년 1월 10일
9	김준용(金準用)	1906년 2월 6일~1906년 6월 12일
10	안기현(安基鉉)	1906년 7월 10일~1906년 10월 1일

무안감리서 설치 이후의 주요 업무는 개항장의 거류지 설치, 외국과의 섭외 관계 및 통상 관계의 수립, 각국 영사관 부지 문제 및 토지의 경매, 고하도·삼학도의 토지 문제 등을 취급하였다. 무안감리의 처리 업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무안감리의 역할 중 가장 주된 것은 관세 수입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무안보첩』의 기록을 보면 무안감리는 한 달 단위로 목포항에서의 관세 징수 상황을 조사하여 외부대신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 다음 주요 업무는 외국과의 토지 거래에 대한 사항이다. 당시 무안감리가 처리했던 사무의 약 23%가 토지 거래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 중에서도 영사관 부지에 관한 보고 내용이 62건이나 되어 매우 비중 있게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는 개항 후 목포 개항장 주변에서 각국의 토지 침탈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상황과 관련이 있고, 그만큼 무안감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또 다른 무안감리의 역할은 개항장 내 한국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개항 직후부터 목포항에서는 한국인 부두 노동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회유하거나 강압으로 노동권을 박탈해 갔으나, 그 중간에서 무안감리는 한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6대 감리를 맡았던 김성규는 1903년 일본 상인들의 횡포에 대한 한국인 부두노동자들의 노동쟁의 시 일본 남인들이 감리서에 난입하여 갖은 행패를 부리는 큰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일본의 압력에 굴하지 않

10) 배종무, 앞의 책, 44~46쪽, 무안감리의 처리업무의 분석에서 인용.

고 끝까지 단호하게 한국인 노동자들 편에 서서 옹호하는 자주적인 태도를 보였다.¹¹⁾

무안감리서의 청사 역시 초창기에는 구 목포진의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1902년 9월에 남교동(옛 신안군청 자리)에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05년 일본의 을사조약 강제 체결로 인해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1906년 10월 폐지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3) 무안경무서

목포항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897년 9월 12일에 무안경무서가 설치되었다. 무안경무서는 목포의 치안 유지를 위해 설치된 경찰 행정의 시초이다. 즉 목포 경찰서의 뿌리가 된다. 무안경무서는 서장으로 경무관(警務官)을 두고 이하에 총순(總巡)·순검(巡檢) 약간 명이 배치되었다. 1897년 10월 4일에 경무관 양규황(梁圭煌), 총순 김윤수(金允洙)·사윤성(舍允成) 등이 목포항에 도착하여 처음 직무를 시작하였다.¹²⁾ 당시 무안경무서는 무안감리(務安監理)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청사는 처음에는 목포진의 남쪽에 있던 한옥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그 후 현 죽동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1897년 개항 이후 목포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들 사이 크고 작은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크고 작은 분쟁이 있을 경우 경무서는 일본인들의 압력에 시달려야만 했고, 심지어 경찰 신분을 악용하여 자신의 사욕을 채기는 자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1903년 일본인과 조선인 부두노동자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인들이 경무서에 침입하여 경찰들을 구타하고, 관련 범죄자들을 경무서에 빼내가고 온갖 행패를 부렸던 일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는 우리 정부가 경찰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조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선 인물도 있었다. ‘구종명’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총순의 신분으로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조선인을 위해 앞장섰으며, 법률 지식이 없는 조선인들을 대변하여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조선인들의 방패막이 되었던 인물이다. 옛 무안감리서 터 주변에는 그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삼향마을 주민들이 1906년에 세운 공덕비가 현존하고 있다. 비문에 ‘총순구공종명영세불망비(總巡具公鍾鳴永世不忘碑)’라고 새겨져 있다.

또한, 개항장의 치안업무를 책임치고 있던 경무관 김상섭(金商燮)의 경우는 재임 시절 지역에서

11) 『무안보첩』, 351쪽, 1903년 11월 26일 보고 제74호.

12) 『무안보첩』, 4쪽, 1897년 10월 4일 보고 제4호.

좋은 평을 얻었다. 특히 감리였던 김성규의 신임이 컸다. 김상섭의 타항 발령을 막기 위해 김성규가 1903년 10월 29일 의정부에 보낸 문서에는 “본 항 전경무관 김상섭이 부임한 이후에 능히 그 직분을 다하였습니다. …… 경무서에 있으면서 과거의 탐욕한 자들이 남긴 더러움을 제거하고 인민을 대하는데 있어서도 정성을 다하여 보호하여 간사하고 완악한 무리들이 흔적을 감추게 하고 두려워하는 백성이 안정되어 6개월 만에 실적이 이미 현저하게 드러나니 이 항에 이런 경관이 임명됨은 개항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항내의 인민이 조정의 은혜를 입어 이러한 사람이 왔다고 칭송하며 개항 7년에 잘못된 경무관으로 인하여 장차 망하게 되었다가 이같이 경무관의 위상이 제대로 성립되었습니다.”¹³⁾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지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김상섭은 퇴직 후 목포에서 여러 회사를 맡아 운영하였고, 초대 목포청년회장으로 추대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는 일제강점기 목포부회 의원, 전남도평의회 의원, 증추원 참의, 상업회의소 의원 등 요직을 두루 겸하였다. 1906년 이후 경무서도 점차 그 기능이 소멸되어 갔으며, 1907년 일본인들이 세운 목포경찰서(구 초원관광호텔 자리)로 통합되었다.

4) 무안우체사와 전보사

대한제국은 1897년 12월 25일 ‘무안우체사’라는 이름으로 조선인 마을(현 죽동) 쪽에 근대식 우체국을 세웠다. 이것이 목포 최초의 우체국이다. 이듬해 1898년 2월에는 전보사가 함께 병설되었다. 1905년 통신 업무가 일본인들이 세운 목포우편국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전보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목포에서는 이곳이 유일했다. 개항장에 살던 일본인들도 전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곳까지 와야만 했다. 전보는 근대문물의 상징이다. 그런 면에서 근대문화의 유입이 빨랐던 목포의 역사에서 무안우체사와 전보사의 존재는 상징성이 있다. 실제 무안감리서에서 급한 업무는 전보를 사용하였다. 전보는 급변하는 서울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받는 매개체였다. 통신 업무의 발달은 목포가 서남해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이기도 했다. 목포항과 다도해가 기선으로 연결되면 목포우체부들이 여러 섬을 돌아다니면 우편물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였고, 목포에 대한 인근 섬들의 문화적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무안우체사가 있던 지역(현 죽동 노라노미술관 건물 앞)에는 ‘마방골’이라는 지명이 전해온다. 이곳은 조선시대 통신용 말을 키우고 관리하던 ‘말방’ 자리이다. 조선 시대에는 관청에서 공문을 급히 보낼 때 역마에 의존했는데, 목포의 경우에는 이곳에 ‘말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군 기지인

13) 『무안보첩』, 339~340쪽, 보고서 제66호.

목포진과 위치상 얼마 떨어져 있지 않으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체사 부지를 선정하면서, 원래 말방이 있던 곳의 인근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일본 관공서의 설치

1) 일본 영사관

목포 개항 후 일본이 자국민의 보호와 통상사무 등 개항장 목포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히사미즈 사부로[久水三郎]가 목포주재 일본영사로 임명되어 1897년 10월 24일 목포에 부임하였고, 10월 26일에 처음 일본 영사관이 개청되었다. 당시에 관공서로 사용할 만한 건물이 마땅치 않아 초창기 일본 영사관은 임시 청사로 여러 번 옮겨 다녀야만 했다. 1900년에 이르러 예정된 영사관 부지(현 대의동)에 정식으로 일본 영사관 건물이 신축되는데, 총 공사비 14만여 원을 들여 1900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되었다.

영사관 부지는 유달산 남쪽 산록을 깎고, 하단 석축을 기반으로 하여 터를 닦았다. 당시 개항장의 전체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고, 정면 끝 쪽에 배들이 드나드는 부두가 보이는 위치이다. 뒤로는 유달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당시 영사관 자리로서 최고의 장소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목포 일본영사관 건물은 건축 당시 13.65m, 연면적 597.68㎡로서 목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면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한때 이 일본 영사관 건물은 목포 시민들 사이에서 원래 러시아 공사관이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러시아가 지은 건물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빼앗아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건축 양식이 서구적이었던 점에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으로, 러시아는 지금의 서산동 언덕 일대에 영사관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실제 영사관 건물은 건축하지 않았다. 1990년 본 건물 옥내 전기배선 공사와 1992년 천정 및 마루장 보수시 ‘한국목포일본영사관건축장곡천방행(韓國木浦日本領事館建築場長谷川方行)’이라 표시된 여러 개의 장목이 발견되어 일본인의 지휘 하에 일본 영사관 건물로 지어졌음이 뒷받침되었다. 건물 천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 이 건물의 내부에 사용되고 있는 목재들에도 이와 같은 글씨가 찍혀 있음을 발견하였다.

건물의 외형은 장방형의 2층 구조에 붉은 벽돌과 흰색 벽돌을 사용하였고, 좌우 대칭이며 전면 출입구에 목재로 입구를 별도로 만들어 돌출시킨 형태이다. 창문은 수직으로 된 오르내림창으로 만들어졌고, 건물의 내부에는 각 실마다 벽난로가 설치되었다.

목포 일본 영사관은 부지 자체가 높아 개항장 어디에서도 이 건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매우 위압적

인 형태를 취하여 개항장 내에서 일본 영사관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영사관은 개항장에서 일본인 보호와 일본 상인들의 이권을 도모하는 역할을 했고, 목포항을 통해서 전남의 쌀과 다양한 수산물을 일본으로 반출시켰다.

목포 영사관은 처음에는 전라남북도를 그 관할 구역으로 하였다. 1899년 5월 1일 군산이 개항되자 목포 영사관의 군산 분관이 신설되어 관할 구역이 확장되었다. 충청도남부를 접하는 보령, 남포, 홍산, 선산, 공주, 노성, 연산이 목포의 관할이 되어 전북과 충청남부를 군산분관이 분담하여 후일 군산 영사관이 독립될 때까지 폭넓은 영사관 업무를 목포 영사관이 담당하였다. 역대 목포영사의 명단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개항이후 목포영사 명단

구분	성명	재직기간
영사	久永三郎	1897년 10월 24일~1899년 6월
대리(영사관보)	坂田重次郎	1899년 6월 ~1899년 7월 17일
영사	森田季四郎	1899년 7월 18일~1902년 4월 6일
대리(서기생)	小池種三郎	1902년 4월 7일~1902년 7월 9일
영사	若松兎三郎	1902년 7월 10일~1906년 1월 31일

출전: 목포부, 『목포부사』, 1930.

목포와 동시에 개항된 진남포(鎭南浦)의 경우 영사대리가 파견되고 오랫동안 임시 청사에서 지내온 데 반해 목포는 처음부터 일등영사를 주재시키고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대규모 건물을 짓게 된 것은 당시 목포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후 한일 관계의 변화에 따라 건물의 명칭과 기능이 변화하게 되는데, 통감부의 설치에 따라 1906년 2월 1일부터는 목포이사청(木浦理事廳)으로 사용되고, 한일병합 이후는 목포부청사(木浦府廳舍)로 사용되었다.

2) 일본경찰서

일본경찰서는 1897년 10월 26일 목포일본영사관이 개청하자 동시에 부속 경찰서가 개설되었다. 「진남포급목포각국조계장정(鎭南浦及木浦各國租界章程)」 제16조 제5항에 의하면 목포각국거류지에는 형식상 지역 내 거주 각국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필요상 경찰서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일본 외에 경찰서를 별도로 설치한 나라는 없었다. 따라서 일본 경찰서는 거류지 내에서 일본경찰권과 각국 거류지 경찰권을 겸하여 양쪽의 직무를 집행하는 셈이 되었다. 일본경찰서는 처음에는 임시 영사관 청사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이후에는 1900년 12월 영사관 청사 신축 시 만든 부속 건물 중 하나를

경찰서 건물로 사용하였다. 이후 한국의 주권이 기울어 감에 따라 1907년 2월 한일경찰 공조 협정이 체결되고 경찰서는 통합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인들은 한국인과 재목 일본인에 대한 모든 경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 초원호텔 자리로 이전하여 독립된 청사를 확보하였다. 이 경찰서의 위치는 광복 후 1980년 5·18민중항쟁 시기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1981년에 이르러서 용해동 354번지 청사로 이전하였다.

3) 목포우편국

우편국은 1897년 11월 16일 일본영사관 내에 ‘목포우편국(木浦郵便局)’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다. 일본우편국의 개국일에 대해서는 1914년 발간자료인 『목포지』에는 16일로 기록되어 있고, 1930년 발간자료인 『목포부사』에는 15일로 되어 있다. 처음에는 통상우편만을 취급하는데 지나지 않았으나 1898년 7월 1일 환·저금 사무를 시작하였고, 1900년 5월 1일부터는 소포 우편 사무를 개시하였다. 관할구역은 무안·나주·남평·광주에 이르렀다. 1899년 군산이 개항되자 출장소를 두었고, 1903년에는 영산포에 취급소를 두었다. 그밖에 제주도에 우편선의 운항을 시작하였다.

우편국 청사는 처음에는 영사관 내에서 업무를 시작하였고, 1899년 8월에 임차가옥을 신축하게 되면서 영사관 건물에서 분리되었다. 1906년 6월 다시 규모를 확장하여 일본 영사관 건물 바로 앞쪽(현 유달산 우체국)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한편 1905년 시기까지 일본 우편국에서는 전신 업무를 취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도 한국 정부가 죽동에 설치한 무안전보사(務安電報司)를 이용하였고, 1905년 4월 이후 통신 기관이 통합되면서 일본우편국에서 무안우체사와 무안전보사의 사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4) 목포소방조

소방 시설은 1899년 11월 3일 영사 모리카와 키시로(森川季四郎)와 지역유지 등의 알선으로 수동 펌프[龍吐水] 1대, 집꾼 30명을 소방수로 하여 조직되었다. 명칭은 각국거류지 목포소방조라 칭하였다. 그 후 점차 확장하여 수동식펌프 3대를 사들였고 점차 소방수의 인원을 더 늘려서 100명에 이르렀다.¹⁴⁾ 인원이 늘어나자 조원을 팔두사조(八頭司組), 장문조(長門組), 목포조(木浦組)의 3조로 구분하였다. 이후 1903년과 1905년 수동펌프 각 2대, 소방수의 피복 50벌을 구입하였고, 망루·방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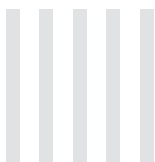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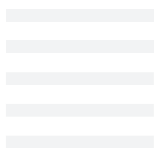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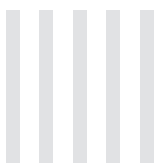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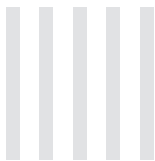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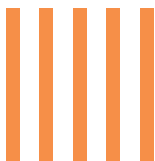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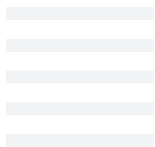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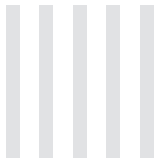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14) 목포소방조, 『목포소방연혁사(木浦消防沿革史)』, 1929, 29~30쪽.

물 등 필요한 시설들을 점차 신설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초창기 목포소방조는 소방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창설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화재에 있어서는 별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당시까지는 수도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웠다.¹⁵⁾ 이 시기 소방조의 역할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팔두사조(八頭司組)의 경우 소방 업무 뿐 아니라 목포각국거류지의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 배급의 임무까지 맡았다는 사실이다. 목포 주변 지역에서 물을 운반해 와서 보급하는 임무를 담당하였고, 심지어 해남 화원반도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물을 옮겨왔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¹⁶⁾ 그만큼 개항 직후 목포의 물 사정이 좋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후 소방조는 경찰서 옆(구 초원 호텔 우측)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15) 김정섭 옮김, 앞의 책, 201쪽.

16) 『목포부사』, 172~173쪽.



제1절 식민지 시기 목포와 일제의 지배구조

이기훈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제2절 목포의 3·1운동

이기훈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제3절 목포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이기훈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제4절 성장과 차별, 목포의 눈물

고석규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3장 목포의 일제강점기

제1절 식민지 시기 목포와 일제의 지배 구조

일제는 대한제국의 기존 통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질서를 이식하고자 했다. 전통적인 지방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조선총독부의 통치력을 지배 기구의 말단까지 확산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였다. 일제는 13도(道) -부(府)·군(郡)·도(島)- 읍·면으로 구성되는 행정 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지방을 통치했다. 그 중에서 부(府)는 경성, 인천, 부산, 원산, 대구, 평양, 목포, 군산, 마산, 진남포, 신의주, 청진 등 12개의 도시 행정 구역으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군의 행정 책임자인 군수로 조선인이 임명되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부윤은 일본인이 임명되었고, 목포부도 마찬가지여서 초대 하시모토 도요타로오[橋本豊太郎] 이래 일본인 관료들이 부윤으로 부임했다.⁰¹⁾

한편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은 우선 1912년 행정 구역 개정을 위해 여러 도시의 시가지 조사를 시작했다. 1910년 10월 8일 행정권을 인수하고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다. 목포에서도 이 시가지 조사에 맞춰 도시의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1913년 공표했다.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거류지와 목포역 앞의 신개발지에는 대화정, 영정, 앵정, 송도정 등 ‘-정(町)’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그 밖의 조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죽동, 양동, 남교동, 북교동, 대성동, 온금동과 같이 ‘-동(洞)’의 호칭을 붙였다. 이 정명(町名) 개정은 단순히 행정 구역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구역과 조선인들의 공간을 행정적으로 분리하고 구분하는 조치였다. 억압과 차별을 위한 식민지 도시의 이중 구조를 위한 행정

01) 목포부, 『목포부사』, 1930, 154~155쪽; 『조선총독부 직원록』 지방관서 중 전라남도 목포부 항목. 1943년 10월 마지막 부윤 佐野吾作이 부임했다. 『매일신보』 1943. 10. 01.

적인 전제였다.⁰²⁾

도시 행정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1914년의 지방제도 개편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군과 면 등 행정 구역을 통폐합하고 일본인 거류민단과 각국 공동 조계를 폐지하는 지방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민단이 사라지면서 일본인 교육은 학교 조합이 담당하게 하고, 민단의 부채는 부(府)에서 인수하기로 했다. 독자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없던 군과 달리, 부는 조례를 제정, 실시하고 독자적인 예산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겉으로는 모두 동등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본인 거주 지역과 조선인 지역이 명확히 분리되고 공공사업이 일본인 구역에 집중되면서 조선인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제는 물리적 통제 기구의 정비에 주력했다. 남한대 토벌 이후 경찰과 헌병대를 곳곳에 배치하는데 더욱 주력하였다. 전남에는 1918년까지 경찰서 10곳, 순사주재소 59곳, 순사파출소 3곳이 설치되었는데, 목포에는 목포경찰서가 목포부와 무안군 전체를 장악했으며 1910년 파출소 2곳과 주재소 5곳이 있었다. 전남 지방에는 헌병대 5개 분대, 6개 분견소, 1개 출장소 및 50개의 파견소가 설치되어 있었다.⁰³⁾ 그런데 목포에는 특별히 목포헌병분주소(木浦憲兵分駐所)가 설치되었다. 조선헌병사령부 산하에는 5개 헌병대 본부가 있고, 그 휘하에 8개 분주소가 있었는데 대부분 국경 지방에 배치되어 있었고, 인천, 군산, 목포 등 세 항구에 분주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목포가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 준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 부임한 총독 사이토는 새로운 조선 통치 방식을 '문화정치'라고 이름 지었다. 헌병 경찰이 아니라 문관에 의해 문치를 실시하고 한국인에 대한 극단적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것이었다.⁰⁴⁾ 헌병 경찰 정치를 폐지하고, 조선인 관리 임용, 대우 개선을 도모하며, 언론, 집회, 출판을 허용하고, 지방 자치를 시행할 목적으로 조사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것 등이었다. 실제로는 참정권도 허용하지 않았고, 언론 출판은 강력한 검열 하에서만 허용되는 기만적인 것이었지만, 무단 통치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했다. 일제는 지방의 자문기관들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했다. 지방의회가 아니라 협의회라는 이름의 자문 기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1920년 7월 총독부는 면제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부협의회원을 관선제에서 민선제로 바꾸었고, 도지사의 자문 기구로 도평의회를 두었다. 부의협의회는 선거로 뽑았지만 학교평의회나 도평의회 의

02)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4. 참조.

03) 박찬승, 「식민지 시기 일제의 지배기구와 목포」,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84쪽.

04) 『매일신보』 1921. 01. 01.

원은 여전히 일제 당국이 임명했다. 또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25세 이상의 남자로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부나 면에 세나 공과금을 5엔 이상 납부한 자들로 제한되어 있었다. 한국인 중 일부의 자산가들에게만 열려 있는 기회였다.⁰⁵⁾ 실제로 목포 부협의회나 부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김상섭, 차남진, 정병조 등 지역의 대표적인 자본가나 변호사 등의 부유층이었다.⁰⁶⁾

부협의회나 부회를 통해 생활 속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은 실질적으로 더욱 커졌다. 1920년 목포의 한국인 인구는 약 12,000명, 일본인 인구는 6,500여 명이었는데, 1929년 조선인이 23,400여 명, 일본인은 8,000여 명이였다.⁰⁷⁾ 일본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다수는 한국인이었다. 목포 시가를 처음 조성할 때부터 일본인 거주 지역과 조선인 거주 지역 사이의 기반 시설과 거주 환경은 크게 차이가 났지만, 식민 지배가 지속되면서 격차는 더욱 커졌다. 상수도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조선인 거주 지역은 더욱 열악해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는 것이 예사였다. 상하수도, 전기 시설, 도로 정비 등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목포 한국인들이 시민대회를 열고 부운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의 요구는 주로 도로 개선, 상수도 개선, 하수도 준설, 화장장 및 도축장 이전, 전등 가설 등이었다.⁰⁸⁾ 1920년대 후반 전기 사용이 늘면서 지나치게 비싼 전기요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⁰⁹⁾

실제 통치의 핵심은 여전히 일제의 물리적 강제력이었다. 경찰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개입했다. 어떤 형식의 공개적 모임도 경찰의 허가 없이는 열 수 없었고 경찰관이 참여하여 감시하는 동안에 진행해야 했다. 경찰은 참석자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수시로 경고를 했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산시킬 수도 있었다. 무단 통치가 아닌 문화 정치라고 했지만 경찰의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경찰력은 3·1운동 이후 문화통치 기간 중에도 정치 사찰을 담당하는 고등경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산미증식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목포에서 쌀과 면화의 일본 수출이 늘어나면서 항구 도시 목포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쌀과 해산물, 면화의 수출로 부를 축적한 자산가들이 목포에 모여들었고, 창고와 회사, 조합도 늘어났다. 부족한 도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교동이 매립되고 죽동 도로가 확장되었으며, 용당리와 온금동의 간석지 개발과 매립 사업도 진행되었다. 1928년 호남선 목포역 서편의 호수를 매립했고, 철도역 주변이 정비되었으며 새로 매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확장

05) 홍건석, 『일제하 조선지방제도 연구』, 형성출판사, 1988, 58쪽.

06)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81~182쪽.

07) 최성환, 「1920년대 목포청년운동과 지역엘리트의 성격에 대한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35-1, 순천향대, 2016, 36쪽.

08) 『동아일보』 1925. 03. 05.

09) 『동아일보』 1931. 07. 08. ; 08. 04. ; 08. 13. 등.

되었다. 1929년 세계 공황의 영향을 받으면서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1930년대까지도 목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1932년 10월 무안군 지역을 새로 편입하여 죽교동, 산정동, 용당동을 신설하고 해안통에 2개의 정목을 더 구획했다. 1935년 인구 6만을 돌파했고 1936년에는 14만 명의 인구 수용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¹⁰⁾

1930년 12월 부제가 개편되면서 부회제도가 실시되었다. 부의원은 임기 4년이며 선거에 의해 선출된 명예직이었다. 부의원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윤이 부회 의장을 맡았다. 의장이 의안의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정회를 시킬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당국의 의사에 완전히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¹¹⁾ 재산권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여서 부회는 일본인들이 훨씬 많았다. 1936년 목포부회 의원 29명 중 일본인이 18명이고 한국인은 11명에 그쳤다.¹²⁾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총독부는 경제적 자원과 물자, 인력을 총동원하고 민족 운동에 대한 억압을 최고도로 강화하며, 사회 전반을 극도로 감시, 통제하게 되었다. 이것을 흔히 전시 체제라 하는데,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는 황민화 정책과 물자의 수탈, 강제 동원 등이 실시되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일제는 한국인 청년들을 군인으로 동원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믿고 전선에 투입하려면 한국인이라는 민족 의식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황국신민의 서사」를 만들어 모든 학교와 관공서, 회사, 은행, 공장 등에서 반드시 제창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일본어 사용을 의무화했다. 소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10장씩 명찰을 주고 한국말을 할 때마다 한 장씩 뺐었다. 10장을 뺐기면 학부모를 모셔 와야 했고, 20장을 뺐기면 정학을 당했다. 1939년에는 창씨개명을 시행했고, 일본식으로 성씨를 만들지 않으면 큰 피해를 당했다. 우선 입학이나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식량과 물자 배급에서도 배제되었으며 심지어는 우선 징용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1942년부터는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어만 쓰도록 했다.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까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전시 총동원 기구를 만들었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식민지 전체-도(道)-부군도(府郡島)-읍면-동리-애국반까지 일관된 체계로 편성했다. 애국반은 10개 호를 하나로 묶어 만든 말단 조직으로 일제의 전쟁 이념과 정책을 전파하고 노동력과 물자 동원을 강제하며 주민들을 상호 감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전시 통제 하에서 고등경찰이나 경제경찰 같은 경찰 기구의 힘이 더욱

10) 고석규, 「일제강점기 대도회 목표의 성장과 선일인 차별」,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1) 장동화·최종현, 『한국행정사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7, 408쪽.

12) 목포부, 『목포부세일반(木浦府勢 一般)』, 1936.

강화되었다. 1943년 부임한 목포부의 마지막 부윤 사노 고사쿠[佐野吾作]도 경기도 경찰부장 출신의 고등경찰이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한국인들에게 일본인 의식을 강제하는 황민화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1937년 8월 21일 일제 당국은 각급 학교에 시국 인식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애국일을 정하여 행사를 시행했다. 1937년 9월 6일 첫 번째 애국일에는 공사립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모두 신사를 참배하고 학교 내에서 일본 황궁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절하는 동방요배와 국기 게양식 등을 거행하게 했다. 예를 들어 1939년 7월 11일 목포에서는 중일전쟁 2주년을 맞아 일본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기념식을 송도의 신사에서 개최했다. 부윤 이하 관공서의 공무원들과 교사, 학생들까지 2,000여 명을 모아 놓고 일본군에 대한 감사전문 낭독, 만세 삼창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¹³⁾ 1942년 이후에는 매월 8일을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로 정해 애국일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고, 애국반원들까지 참가하도록 했다. 애국일 신사참배는 종교 탄압을 불러왔다. 장로교 계열의 기독교 학교들은 신사 참배를 우상 숭배로 여겨 거부해 오고 있었다. 이 문제는 1930년대 중반부터 불거졌지만 일제의 식민 통치가 군국주의적 교육 통제를 강화하고 신사 참배나 애국일 행사는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1937년에 들어서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면 폐교시키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1937년 9월 4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지사는 공동으로 각급 학교의 교장들을 소집했다. 교장 회의의 주요 안건은 애국일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협의였다. 이 자리에서 기독교계 학교들이 도쿄 방향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 요배는 가능하지만 신사 참배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목포에서도 영흥중학교, 정명여학교 등 장로교계 학교들이 9월 6일의 애국일에 신사 참배를 거부했고, 9월 7일 폐교를 명령받거나 자진 폐교해야만 했다.¹⁴⁾

1938년부터 일제는 본격적인 전쟁 동원 체제를 가동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발족되었는데, 이 조직은 애국반에서 시작하여 정(町)·동(洞)과 같은 마을단위의 연맹, 그리고 부·군 연맹으로 조밀하게 구성되었다. 목포에서도 애국반부터 시작해서 각 정동 연맹이 만들어졌으며 행정 구역 외에도 목포군사연맹이니 목포애국국방부인회니 조선방공협회 목포 지부 등의 단체들도 만들어졌다. 초기에 이런 단체들은 일제의 선전 사업과 이념 동원에 앞장섰다. 1939년 방공협회 목포 지부는 4월 14~15일 목포 시내 22개 의용단의 단원 1,040명을 동원해 가두행진과 근로 작업을 하도록 했다. 노동력 동원도 동원이지만 의용단마다 일본 국기와 단기를 앞세우고 가두 행진을 하면서 전쟁 분위기

13) 『동아일보』 1939. 07. 11.

14) 한규무, 「매산학교의 신사참배 거부투쟁」, 『순천시사』,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706~711쪽.

를 고취할 목적이 더 컸다.¹⁵⁾ 목포권변이 목포극장에서 연주회를 열어 모금한 국방 현금 300원을 경찰서에 기탁한 것도 이런 분위기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¹⁶⁾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통제는 강화되고 물자 수탈이 심화되었으며 강제 동원이 실시되었다. 일제는 전쟁을 위해 국채를 강제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목포는 인천과 함께 가장 먼저 할당량을 소화했다.¹⁷⁾ 애국기 헌납과 같은 강제 모금도 진행되어 국민정신총동원목포부연맹에서 폭격기 헌납 대금으로 10만 엔을 모으기도 했다.¹⁸⁾

한편 인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동원 정책도 강화되었다.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어 목포의 청년들도 여기에 동원되었고, 목포 시내 청년들이 선박 건조와 수송 사업에 동원되었으며,¹⁹⁾ 1944년에는 목포상업학교를 공업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²⁰⁾ 국민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끌고 가 노동에 종사시킨 여자 근로 정신대가 목포를 포함한 전남 지역 도시들에서 만들어졌다. 1944년 5월 광주, 목포, 순천, 나주, 여수의 국민학교 졸업생들이 처음으로 나고야의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되었고 1945년 2월에 2차로 수백 명이 도야마의 공장에 동원되었다.²¹⁾

1940년부터는 쌀의 공출 제도가 실시되었다. 농가에서 생산한 쌀을 일제가 지정한 가격에 구매해 가는 것이었는데, 할당량이 주어지면 무조건 내놓아야 했다.²²⁾ 목포 시민들의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은 배급 제도였다. 전시 물자 생산에 자원이 총동원되면서 소비 물품 나아가서는 식량에 대해서도 배급 제도가 시행되었다. 물자가 부족하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제는 1939년 「가격등통제령」을 발표, 공정 가격 제도를 시행하여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제한했다. 또 배급 제도를 실시해 배급표를 받아 그것으로 물자를 사게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 제품의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암시장만 발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암시장이 확대되니 공개 시장에 공급되는 물품은 더욱 부족해졌다.²³⁾

특히 공업 생산 시설이 부족했던 전남의 공산품 암거래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다. 1940

15) 『매일신보』 1939. 08. 14.

16) 『매일신보』 1938. 05. 25.

17) 『매일신보』 1942. 09. 02.

18) 『매일신보』 1945. 01. 22.

19) 『매일신보』 1943. 01. 23.

20) 『매일신보』 1944. 02. 10.

21) 『매일신보』 1945. 02. 26.

22) 『京城日報』 1942. 12. 24.

23) 柳興台, 「음취인야화(暗取引夜話)」, 『조광(朝光)』 6-11, 조선일보사, 1940, 165쪽. 야미는 やみ(暗)에서 나온 말로 암거래, 혹은 암거래 물품을 말한다. 흔히 '야메'로 잘못 전해지기도 한다.

년 1월의 조사에 의하면 광주는 모든 물품의 암거래 가격이 공정가격의 2.5배로 1.5~2.0배 정도였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쌌다. 가격이 급등한 대표적인 물품이 고무신이었다. 고무 자체가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다 전쟁 물자로 활용해야 하는 물품이다 보니 일찍부터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다. 고무신 가격은 1940년 초에 이미 공정 가격의 2.5~2.6배였다. 공정가격이 1원 16전이지만 호남에서는 고무신을 암거래로 구하려면 3원은 주어야 했다.²⁴⁾ 전쟁이 일본에게 불리해지고 해외로부터 물자 공급이 줄어드는 1943년 이후에는 고무 제품 등은 거의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944년 6월에 고무신은 공정 가격의 6.5배, 면포는 9배, 양말은 6.5배, 성냥은 4.5배, 세탁비누도 6.5배까지 치솟았다.²⁵⁾ 생활필수품의 부족은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쌀이었다. 일제는 처음에는 미곡 상인들로 식량 배급 조합을 조직하게 했다. 목포에서도 1939년 목포 지방 식량 배급 조합이 결성되었고 이 조합에서 개별 미곡상들에게 쌀을 공급하여 판매하게 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1940년 2월에는 개별 상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쌀이 소진되어 조합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배급을 담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²⁶⁾ 1944년 6월에는 거의 모든 물자의 암거래 가격이 공정거래 가격의 대여섯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쌀의 암거래 가격은 폭등했고 쌀의 주산지인 호남 지방에서 공정 가격의 8배에 달했다. 일제는 감시와 탄압, 폭력을 통해 불만을 잠재우고 민중을 수탈해 전쟁을 수행하려 했다. 전시 체제 하에서는 고등경찰과 함께 경제 통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경제 경찰이 악명을 떨쳤다. 경제경찰은 생활의 모든 면을 감시했다. 심지어 목포경찰서의 경제 경찰은 음식점, 여관, 하숙집 등을 돌며 혼식을 얼마나 실시하는지, 쌀은 얼마나 도정했는지까지 감시했다.²⁷⁾

이기훈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24) 이승순, 『일제하 전시농업체제와 농업경제』, 선인, 2008, 352쪽.

25) 같은 책, 361쪽.

26) 『동아일보』 1940. 02. 03.

27) 『동아일보』 1940. 05. 14.

제2절 목포의 3·1운동

2019년은 3·1운동 백주년을 맞게 된다. 한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척되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남북한을 막론하고 3·1운동이 민중 대다수가 참여한 ‘전민족적’ 저항이었으며, 한국 민족 운동의 역사적 동력이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역사학자는 없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주도층과 지식인,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민중’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적하였으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더 치열한 연구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3·1운동 50주년인 1969년 이래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민족 운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다양한 갈래의 운동들의 전모가 파악되면서, 3·1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도 점점 깊이 있게 파악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3·1운동을 민족 해방 운동 전개의 한 분기점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제기되었다. 3·1운동이 이후 1920년대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분화, 민중 운동의 본격적인 전개 등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며, 민족 운동을 일종의 발전론 혹은 단계론의 시각에서 파악하는 관점이 확립되었다.⁰¹⁾ 지식인 중심에서 민중 중심으로 주체가 전환하며, 도시에서 농촌으로 공간이 변화하고,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투쟁 양상이 전환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일종의 성장전화론이 3·1운동을 파악하는 주류였다.

그러나 최근 이런 단계적 성장전화의 관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근대성’과 ‘일상’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면서 3·1운동의 다양한 양상을 발전 혹은 진보의 단계가 아니라 ‘근대성’과 ‘농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윤해동은 근대적 저항 수단과 공동체적 저항 방식이 3·1운동의 패러독스이며 이것이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특징이라고 하였다.⁰²⁾ 이정은은 3·1운동의 지방 시위의 조직과 자율성이 농촌의 공동체적 유대에 기반한다고 보았다.⁰³⁾ 배성준은 지방에서 3·1운동의 농민 봉기적 양상에 주목하면서 만세 시위에서 농민 주체는 민족 주체가 아니라 파편화된 민중 주체를 형성하는 데 그친다고 파악하여 지금까지 전민족적 항쟁이라고 하는 일반적 시각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⁰⁴⁾ 한편 조경달은 농민의 만세 시위가 민란의 전통 위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었고 민중 고유의 자율성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만세 시위가 폭동이자 축제로서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음을

01) 한국역사연구회, 『3·1 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02) 윤해동, 「‘무단’과 ‘문화’의 사이 -3·1운동과 식민지근대(성)-」, 『3·1운동 및 5·4운동 9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2009.

03) 이정은, 『3·1 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2009.

04) 배성준, 『3·1운동의 농민봉기적 양상』,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 출판부, 2009.

지적했다.⁰⁵⁾ 목포의 3·1운동은 지방이지만 도시 지역의 근대적 시위운동으로서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히 기독교와 청년 학생들의 연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두드러지며, 3·1운동 참여자들이 이후 지역 사회운동을 주도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목포 3·1운동은 참여자의 수, 시위의 규모와 격렬함에 비해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편이다. 특히 검사의 신문 조서나 재판 기록 등 공식 문서가 의외로 적어 회고에 많이 의존해야 한다. 주도자 중 한 사람인 박상렬(朴相烈)이 1965년 3월 『신동아』지에 회고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또 정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신동아』 1965년 3월호는 ‘1919년 3월’이라는 특집을 싣고 3·1운동의 전체적 상황과 함께 각 지역 시위운동에 대한 회고를 싣고 있다. 박상렬의 회고도 여기에 실렸다. 1896년생인 박상렬은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목포에서 미곡상을 하고 있었다. 2월 중순 북교동 출신으로 도쿄에 유학 중이던 남궁혁(南宮赫)이 박상렬을 찾아왔다고 한다. 남궁혁은 1919년 말 도쿄의 학우회 임원진에도 참가하는 등 재일 유학생들의 민족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⁰⁶⁾ 2·8 독립선언 이후 여기에 참여했던 일본 유학생들은 속속 귀국하여 국내에서 운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1918년 말 일본에는 769명의 조선인 유학생이 있었는데, 1919년 2·8 독립선언 이후 5월 15일까지 조선으로 귀향한 수가 359명이었다.⁰⁷⁾ 유학생 중 절반 넘는 학생들이 돌아왔고 이들 중 다수가 3·1운동에 참여했다.⁰⁸⁾

남궁혁은 먼저 박상렬을 만나 월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포함하여 세계 정세의 변화, 일본과 해외에서 독립운동의 전개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 그리고 목포에서도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의논했다. 남궁혁과 박상렬이 운동의 준비를 시작하는 동안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났고, 3월 초부터 남궁혁, 박상렬은 서울에서 유학하다 내려온 오도근(吳道根), 김영주(金永周), 박상렬의 동생 박상술(朴相述), 박상오(朴相五), 그리고 목포 지역 청년 학생 권영례(權寧禮), 오재복(吳在福), 이금보(李今福), 배치문(裴致文) 등과 함께 시위운동을 준비했다.⁰⁹⁾

이와 별개로 서상봉(徐相鳳), 서화일(徐化一), 박여성(朴汝成), 광우영(郭宇英), 박복영(朴福永), 양

05) 조경달, 허영란 역, 『민중과 유토피아』, 역사비평사, 2009.

06) 1919년 12월 11일 개설했던 학우회 임원 가운데 남궁혁은 서무부원이었다. 어느 학교에 재학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목포에서 영흥학교 교사를 하다 송일학교로 옮겼던 광주북문외교회 장로였던 남궁혁(南宮赫)과는 다른 사람이며, 도쿄 제국대학 출신으로 진도군수로 재직 중이던 남궁영의 동생이다. 남궁영은 후일 도지사까지 오른다(『學之光』19, 1920, 166쪽; 김인덕,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66, 국사편찬위원회, 1995, 122쪽; 『매일신보』1914. 07. 11.).

07) 김인덕, 「일본지역 유학생의 2·8운동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1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1999, 5쪽.

08) 일본 유학생들의 귀향과 3·1운동 참여에 대해서는 최우석, 「재일 유학생의 국내 3·1운동 참여-양주흥 일기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31, 역사문제연구소, 2014. 참조.

09) 박상렬, 「오전 3시의 막걸리 한 되」, 『신동아』1965. 3, 99쪽. 박상렬의 회고록에 배치문의 이름이 없으나 판결문 등에는 함께 나와 있다. 배치문은 이후 목포 지역 노동운동의 핵심인물이며 조선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한다. 아마 이 때문에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듯하다. 배치문의 행적에 대해서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aguni11&logNo=60006426097> 참조.

병진(梁炳震), 강석봉(姜錫奉) 등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이 만세 시위를 준비했다. 박복영의 회고에 의하면 박복영, 서화일, 박종인, 박계천, 양병진, 배치문 등 양동교회 교인들이 일심회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준비했다고 한다.¹⁰⁾ 이들 젊은 신도들이 양동교회의 원로였던 장로 서상봉과 곽우영, 집사 서화일, 정명여학교 한문 교사로 국민회 등에 참여했던 강석봉 등과 함께 투쟁을 준비했다.¹¹⁾

따로 시위를 준비하던 학생과 기독교인들은 곧 서로 협력하여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래 3월 중순께 시위를 일으키려 했으나 일제의 감시가 심해 연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3월 20일 목포에서도 군중들이 만세를 부른 듯하다. 『매일신보』는 1919년 3월 20일 “다수의 군중이 시위운동을 시작했는데, 목포경찰서장과 군수가 설득해서 해산했다.”고 전한다.¹²⁾ 이 시위에 대한 당시의 공식적인 보고나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은 없으며 구체적인 회고도 없다.¹³⁾ 그러나 1919년 2월 말부터 이미 만세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자연 발생적 시위라고 봐야할 것 같다. 일제 당국은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던 듯하다. 고등계 형사들이 박상렬에게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알려 달라고 할 정도였다.¹⁴⁾

목포의 만세 시위에서 사용된 태극기와 선언문 등 유인물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한다. 두 가지 방식 모두 활용해 제작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첫째는 박상렬 형제의 아버지 박성철이 운영하던 신흥철공주식회사의 등사판으로 만들었다는 설이다. 4월 초에 박상렬과 박상오(朴相五)가 회사의 직원을 시켜 등사판을 가져오게 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베로 대형 태극기 여남은 장을 만들고, 중간 크기의 태극기 100장과 소형 태극기 1,000장은 등사판을 인쇄했다. 조선 동포의 봉기에 우리 목포인들도 호응하자, 철시하지 않는 상점은 방화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도 인쇄했다. 이렇게 만든 태극기와 유인물은 박상렬의 미곡 상점에 쌀가마로 위장하여 보관했다.

또 정명여학교 학생들도 태극기와 2·8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 독립가 등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한문교사(곽우영 혹은 강석봉이라고 한다)가 그려준 태극기를 보고 목판을 만들었다. 나무판에 태극과 사괘를 새기고 한지에 대고 솜방망이로 두들겨 태극기 본을 만든 다음 물감을 칠해서 완성한

10) 정병준, 「암태도 소작쟁의 주역의 세 가지 길 -서태석·박복영·문재철-」, 『한국민족운동사연구』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299쪽.

11) 박상렬 등의 회고에서는 서기견으로 나오는데,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서기견(徐岐見)을 서상봉 장로의 이명으로 보고 있다. 박상렬은 서기견이 일경의 칼을 맞고 보석 출감한 이후 곧 사망했다고 했으나 1923년 목포기독교청년회 총무부장으로 서기견이 선출되었으므로 바로 사망한 것은 아니다(『동아일보』 1923. 04. 26.).

12) 『매일신보』 1919. 03. 25. 아마도 1920년까지 무안군수로 재직한 이사필(李思弼)일 것이다.

13) 일부 연구에서는 목포 지역 교회 신도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김수진, 「호남 지방 교회의 역사 -호남지방 선교 초기부터 해방 전후까지-」, 『한국기독교와 역사』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130~132쪽.

14) 박상렬, 앞의 글, 99쪽

것이다. 학생들은 이렇게 만든 태극기를 둘둘 말아 보자기에 싸서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한 다음 등에 업고 양동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집에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¹⁵⁾ 기독교인들은 이와는 별도로 서울과 광주에서 독립선언서를 입수해 여러 곳에 숨겨 놓았다고 한다.

거사 며칠 전부터 목포 시내에 태극기와 전단을 배포하기 시작했고, 전날인 7일 밤과 4월 8일 새벽에는 선언서, 경고문, 태극기를 집집마다 투입했다. 기독교인들이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 학생들을 동원하고, 오재복, 이금득, 박상오는 목포보통학교 학생들을, 박상렬은 목포상업학교 학생들을 동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사전에 이루어 졌다. 영흥학교나 정명여학교 같은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을 비교적 쉽게 참여시키고 전단 작업도 할 수 있었지만, 공립학교인 상업학교나 보통학교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조심해야 했다. 4월 4일 남궁혁과 배치문, 강석봉, 오도근, 권영례, 김영주는 목포시 남교동 부근 장에서 만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고 그 방법을 논의했다. 이 모임에는 목포상업학교 2학년 반장인 정윤기가 참여했는데, 권영례가 목포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며,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니 반장인 네가 참여해달라고 설득하여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한 다음 박상렬이 4월 8일 아침에 상업학교에 가서 시위에 참여할 것을 호소, 15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달려 나와 시위에 가담했다.¹⁶⁾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 보통학교에도 주도자들이 찾아가 학생들을 이끌고 거리로 나왔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나 교사들이 말리려 했으나 학생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4월 8일 사전에 약속한 오전 10시가 되자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 전교생과 상업학교 학생, 양동교회를 주축으로 한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정명여고와 영흥학교 학생들은 양동교회 쪽으로 나갔다. 기독교 계열의 학교 고등과 학생들은 이미 20대로 결혼한 사람들도 꽤 있었고, 시위의 주도자 역할을 충분히 했다. 정명여학교의 학생들은 시위 현장에서 후배들을 이끄는 한편,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는 등 맹활약을 벌였다.¹⁷⁾ 시위는 목포 시내 곳곳에서 격렬히 전개되었고, 당황한 일본 경찰들은 지휘부를 제압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 서상봉 장로는 양팔에 중상을 입고 체포되었으며 부상자가 속출했다. 12시경 시위 행렬이 해산되었으나 오후 2시 죽동에서 기독교 여성들이 만세 시위를 다시 벌였다. 이날 목포에서 시위로 서화일, 곽우영, 배치문(裴致文), 박상렬, 남궁혁, 차남석 등 80여 명이 구속되었다.¹⁸⁾ 체포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박상렬은 손발이 묶인 채 거꾸

15) 윤선자, 「독립운동과 태극기」, 『역사학연구』35, 호남사학회, 2009, 89쪽;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정명 100년사 1903~2003』, 2003, 95~97쪽.

16) 대구복심법원, 1919, 「권영례 외 판결문」,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0743.

17)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2003, 앞의 책, 97쪽.

18) 『독립운동사』 3, 610~612쪽.

로 매달려 구타당했으며 모진 고문으로 정신 이상이 생겨 출감 후 자살하고 말았다.¹⁹⁾

경찰에서 취조를 마친 사람 가운데 남궁혁, 박상열, 김영주, 권영례, 오도근, 곽우영, 배치문, 차남석, 박종인, 박여성, 강석봉, 양병진, 오재복, 박상술, 박상오 외 32명이 4월 17일 검사국으로 넘겨져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들이 재판소에 출정한 날에는 1,0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감옥으로 이송될 때는 울음소리가 자자했다고 한다.²⁰⁾ 재판에 회부된 이들은 집행 유예나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지만 복심 법원까지 상고하는 기간 동안 몇 개월 옥고를 견뎌야 했다.²¹⁾ 집행 유예 선고가 많았다. 박복영도 6개월간 미결수로 있다가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으로 출옥했다.

3·1운동은 극심한 탄압을 받고 일단 좌절되었으나 그 여파는 오래 지속되었다. 배치문은 옥고를 치루고 난 뒤 국외로 망명하여 1923년 1월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했으며 7월에는 의열단에 가입하여 다시 국내에 잠입하다 일제에 구속되었다.²²⁾ 박복영은 박계천, 박봉춘 등 암태도 출신의 동지들과 함께 상하이 임시 정부로 망명했다. 박복영은 상하이에서 1년 반 가량 임시정부 재정부장 이시영을 보필하는 임무를 맡았고, 1922년 이시영의 문서를 서울의 이상재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²³⁾

한편 3·1운동 1~2년 후에 이를 재현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무안군 장산도 출신으로 고향에서 만세 시위를 일으켰던 장병준은,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지낸 후 국내를 오가며 비밀 활동을 벌였다. 1920년 장병준은 국내에 들어와 3·1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대전, 대구, 마산, 목포 등 전국 각지에 선언문을 배포하고 만세 시위를 벌이고자 했다. 장병준은 암태도의 서태석과 자은도의 표성천에게 목포에서 투쟁을 맡겼다.²⁴⁾ 장병준이 1920년 2월 26일 서울에서 표성천에게 태극기 2장과 「대한독립일주년기념경고문」 200여 장을 넘겨주었고, 표성천은 목포로 내려와 서태석에게 유인물과 태극기를 건넸다. 서태석은 2월 29일 시내 곳곳과 여관 주변에 유인물을 뿌렸다. 또 자정 무렵에는 경찰의 눈을 피해 목포역과 송정 공원 나무에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성공했다.²⁵⁾

19)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5쪽.

20) 『매일신보』 1919. 4. 20.

21) 사건 담당 검사가 남궁혁의 형 남궁영과 도쿄 제국대학 동창이었고, 담당 서기가 박상열과 목포상업학교 동창이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박상열, 앞의 글, 1965, 100쪽.

22) 안후상,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독립운동」,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0, 2016, 448~450쪽.

23) 장병준, 2007, 앞의 글, 300~303쪽.

24) 두 사람은 각각 후일 암태도와 자은도 소작쟁의의 주역이 된다.

25) 목포경찰서 도경부보 小俊廣樹, 「의견서(1920. 3. 16)」,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장병준, 서태석, 표성천 등이 모두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으나 배치문, 박복영, 장병준, 서태석, 표성천 등 1920년대 목포 지역 민족 운동과 노동 운동의 주역들이 모두 3·1운동을 전후하여 맹렬한 활약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21년에는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 학생들이 다시 만세 시위를 벌였다. 1921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태평양 지역의 군축 문제를 다루는 워싱턴 회의가 열렸는데, 민족 운동 진영에서는 이 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다루게 하고자 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국내에서 여기에 호응하는 만세 시위가 일어났는데, 목포 지역 기독교 계열 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21년 11월 목포 정명여학교의 천귀례(千貴禮) 등은 신문을 통해 미국에서 워싱턴 회의가 열리며 임시 정부에서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하여 독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성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3·1운동과 같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목포 시가를 행진할 계획을 세웠다. 11월 13일 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대나무와 종이로 태극기를 만들었다. 14일 오전 수업이 끝나자 천귀례, 박선주, 김연순 등 13명의 학생들이 먼저 독립만세를 외치며 학교 정문에서 목포 시내로 행진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들의 뒤를 따라 나섰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 뒷문으로 나와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했다. 곧 경찰이 출동하여 이들 전원을 체포했다.

정명여학교 학생들의 만세 소식에 영흥학교 학생들도 께기하여 시위를 벌였다. 졸업생 양일석과 재학생 김옥남 등이 15일 아침에 학교에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독립만세를 외치자 학생들이 호응하여 대열을 형성하고 시내를 행진하며 만세 시위를 벌였다. 한국인들은 무안통 북쪽의 도로를 가득 메우고 만세를 따라 불렀으며, 일부 학생들은 유달산에 올라가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기도 했다. 1921년 11월의 이 시위로 정명여학교 학생 11명과 영흥학교 학생 5명이 구속되어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이기훈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제3절 목포의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

1. 1920년대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

1) 1920년대 목포 지역 민족 운동의 전개

3·1운동 이후 식민지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민족, 사회 운동의 주체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민족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민족 운동, 사회 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목포 주변의 섬과 농촌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농민 운동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암태도, 자은도 등지의 소작쟁의 지도자들은 목포 3·1운동 참여자들이다. '무목(務木)청년연맹'처럼 지금의 신안군 도서 지역과 목포를 합해 사회 단체를 결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글에서는 목포시 지역에서 발생한 운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므로 소작 쟁의나 농민 운동을 직접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 1920~1930년대 목포와 주변 지역의 사회 운동은 농민 운동, 노동 운동, 청년 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운동들이 서로 자극하고 연대하며 전개되었다.

3·1운동 이후 정치적인 공간이 열리면서 계몽주의적인 문화 운동과 실력 양성 운동이 국내 민족주의 운동의 주류가 되었다. 목포 지역에서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하는 계몽 운동과 한국인 권익 옹호 운동이 두드러지는데, 청년 운동 분야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923년 이후 청년운동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커졌다. 목포에서는 1925년 8월 30일 사상 단체 전위동맹(前衛同盟)이 조직되었다. 김영식(金泳植), 서병인(徐炳寅), 배치문(裴致文) 등이 주도하며 '대중의 생활향상과 역군(役軍)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청년, 사상, 노동, 농민, 여성, 형평 운동을 연구하고 그 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⁰¹⁾ 전위동맹은 9월 5일 목포청년회관에서 대중 강연을 열었고, 이후 목포 청년 운동과 노동 운동 등에서 맹활약한다.⁰²⁾ 이들의 활동은 노동 운동 분야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들은 서울청년회 계열이 많아 화요회가 주도한 1차, 2차 조선공산당의 결성 과정에는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1926년 9월 결성된 제3차 조선공산당에는 목포의 사회주의자들도 활발히 참가해 목포 지역 세포를 구성했다. 1927년 3월 조극환, 김철진, 서병인 등이 목포 지역 공산당 세포였고 김철진, 설준석,

01) 『동아일보』 1925. 09. 04.

02) 김경일, 「일제하 목포지방의 노동운동」,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울아카데미, 1992, 78쪽.

조문환, 김석순이 청년조직인 고려공산청년회 세포였다.⁰³⁾ 그러나 목포 세포는 핵심 구성원들이 공개적인 조직인 신간회와 노동연맹에서 극심한 대립을 벌여 지역 당활동도 원활하지 못했고 당조직이 발각되어 붕괴했다.⁰⁴⁾ 1928년 12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조선의 혁명적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테제(12월 테제)’라는 결정서를 작성했다. 노동자, 농민 등 기층 계급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당 재건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은 혁명적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을 건설하여 그 토대 위에 공산당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2) 청년 운동

3·1운동 이후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청년 운동이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지만, 목포의 청년 운동은 1920년대 전반에는 자산가 지식인층이 주도하는 계몽주의적 단체들이 주도했다.⁰⁵⁾ 1920년 5월 9일 창립된 목포청년회는 “지식 계발·돈의(敦誼)·친목·체육장려”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3명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다. 창립 당시 목포청년회의 회장은 총독부 경무관을 지낸 김상섭이 회장이고 변호사 김택현이 부회장이었으며, 대지주이자 사업가인 차남진이 총무였다. 널리 알려진 지주인 문재철도 평의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⁰⁶⁾

목포청년회는 다양한 형태의 계몽 활동을 벌였다. 강연 및 토론회 개최·잡지 간행·대운동회 개최 등을 통해 활동하였다. 또한 1921년 10월에는 노동야학회를 개설하여 15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1923년 차남진이 목포청년회장이 되자 본격적으로 청년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1925년 3월 남교동 중앙에 대지 100평, 건평 57평의 석조 건물로 청년회관을 건립할 수 있었다. 소설가 박화성은 「혈어진 청년회관」에서 목포청년회관이 ‘청년들의 공동의 집이요, 그들을 가장 옹호하는 길로 인도하며 가르치던 위대한 사명을 가졌던 곳’이라고 했다.⁰⁷⁾ 이후 청년회관은 사회운동의 본거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1920년대 초 자산가와 엘리트 중심의 청년회는 항상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21년 목포청년회의 야학회 경비는 김상섭, 문재철, 차남진, 김명균, 차대균, 남궁훈, 옥풍빈 등 간부들이 전액

03) 배치문이 제2차 조선공산당에 가입했으나 지역 조직에서 활동하지는 않았다. 신주백, 「1925~1928년 시기 전남지방 사회운동 연구」,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II, 여강출판사, 1993, 144쪽.

04) 『동아일보』 1928. 01. 12.; 『조선일보』 1928. 01. 18.

05) 전남지역의 청년운동과 단체들의 개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기훈, 「1920년대 일제하 전남지방의 청년단체와 청년운동 -사회정치적 공간의 구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26-2, 역사문제연구소, 2011 참조.

06) 최성환, 「1920년대 목포청년운동과 지역엘리트의 성격에 대한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35-1, 순천향대, 2016, 40~41쪽.

07) 박화성, 「혈어진 청년회관」, 『홍수 전후』, 백양당, 1948.

부담하고 있다.⁰⁸⁾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지역 엘리트의 영향력이 커졌고, 이들은 지역 정치에 청년회를 이용했다. 1923년 일제가 지방 자문 기구로 운영하던 부협의회 선거가 다가오자, 목포청년회 이사진들은 지역 유지들과 연합하여 전임 회장이던 김상섭과 창립 당시 서기였던 김봉로(金鳳魯) 등을 입후보하도록 지원하고 당선시켰다.⁰⁹⁾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의 청년회가 성격과 활동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청년회가 조직되었다. 목포에서는 새로 청년회가 만들어졌다. 1924년 9월 강석봉·배치문·조극환 등이 주도한 무산청년회(無産靑年會)가 그것이었다. 목포무산청년회는 1924년 9월 30일 보천교(普天敎) 성토 연설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¹⁰⁾ 청년운동, 특히 사회주의 청년들은 보천교를 성토하는 대회를 여는 한편, 과학적 사상, 즉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계기로 삼았다. 목포무산청년회도 보천교 성토대회에 이어 사회주의적인 강연회를 개최했다.¹¹⁾ 이들은 형평운동을 지원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순회강연을 실시했으며 지역 청년 운동의 통합과 전국적인 운동과 연계할 것을 모색했다.¹²⁾

1920년대 중반 목포 주변 지역에서도 사회주의 성향의 청년회들이 부쩍 늘어났다. 특히 이 무렵 목포 인근의 섬에서는 소작 쟁의가 격렬히 전개되었고, 여기에서 각지 청년회가 큰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과 목포무산청년회가 연합하여 무목청년연맹(務木靑年聯盟)을 창립했다. 무목청년연맹준비위원회는 대중분위의 신사회(新社會) 건설을 기도할 것, 무산대중 해방운동의 선구가 되기를 기(期)할 것 등을 강령으로 내세웠다.¹³⁾ 무목청년연맹은 이후 무안과 목포 지역의 사회 운동을 지원하고 소작쟁의에 개입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였다.¹⁴⁾

목포청년회도 활동을 중지한 것은 아니었다. 1925년 초 목포청년회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각 신문사의 목포지국과 연합해 ‘목포시민대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인 마을 도로 개설과 가로 등, 상하수도 시설, 공공시장 등과 마을에 인접한 묘지와 화장장, 도살장 이전 등의 문제였다.¹⁵⁾ 또 목포청년회와 목포여자청년회가 협동하여 1925년 남녀 야학부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했다.¹⁶⁾ 이 무

08) 『동아일보』 1921. 09. 22.; 1921. 10. 17.

09) 최성환, 앞의 논문, 45쪽.

10) 『동아일보』 1924. 10. 03.

11) 『동아일보』 1925. 02. 25.

12) 『동아일보』 1925. 04. 25.

13) 『동아일보』 1925. 01. 02.

14) 『동아일보』 1928. 01. 05.

15) 최성환, 앞의 논문, 45~46쪽.

16) 『동아일보』 1925. 06. 07.; 1928. 10. 19.

렵 목포 청년운동은 이른바 ‘중산청년층’의 목포청년회와 ‘신진청년층’의 무산청년회로 나뉘어 진행되었지만 그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았고, 점차 청년운동의 중심이 신진청년 쪽으로 기울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¹⁷⁾

1927년 조선청년총동맹은 지역에서도 여러 청년 단체들을 통합하여 단일 청년동맹을 결성하여 대중적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목포와 무안군 지역에서도 목포청년회 등 기존 청년 단체들이 해산을 결의하고 1927년 10월 9일 목포청년동맹을 결성했다. 김철진(金哲鎭)이 집행위원장이었고 조문환, 김말봉, 천균, 양미순, 유경애 등이 집행위원이었다.

그러나 목포청년동맹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1928년 제3차 조선공산당 사건의 여파로 청년동맹의 간부진들이 대거 검거되었고, 1931년 8월과 9월 목포 지역에 연이어 격문이 살포되자 일제 경찰은 목포청년동맹을 그 본거지로 지목하여 간부들을 검속했다.¹⁸⁾ 목포청년동맹은 목포청년회가 경영하던 남녀 야학을 인수하여 노동야학원으로 운영했다.¹⁹⁾ 목포청년동맹의 노동야학원이 학생이 380여 명에 이르는 등 활발히 운영되자 일제 경찰이 지속적으로 감시했다. 1931년 9월 목포경찰서의 경관 20여명이 노동야학원을 급습하여 야학 교사와 학생, 목포청년동맹 간부까지 다수를 검거했다. 일제는 교사 세 사람을 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송치하는 동시에 야학을 폐쇄했다.²⁰⁾

이렇게 탄압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목포청년동맹은 활동을 계속하려 했으나, 1933년 이후 실질적으로 활동 정지와 해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목포청년회관이다. 청년회관은 1930년 무렵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목포청년동맹에서 계속 수축을 논의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활동 정지 상태가 되자,²¹⁾ 1933년 목포시 상공동지회 등 9개 단체가 연합해 목포청년회관 수축위원회를 조직하고 기금을 모집하여 개축 공사에 착수했다.²²⁾ 1935년 목포청년회관은 개축되었으나 이미 목포 지역에서는 민족적 청년 운동을 기대할 수 없었다.²³⁾

17)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211쪽.

18) 『동아일보』 1931. 08. 24.; 1931. 09. 09.

19) 『동아일보』 1928. 10. 19.

20) 『동아일보』 1921. 10. 01.

21) 『동아일보』 1932. 09. 25.; 1933. 04. 24.

22) 『동아일보』 1933. 04. 21.; 1935. 07. 21.

23) 『동아일보』 1940. 02. 04.

3) 노동 운동

목포는 전남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며 몇 안 되는 공업 지역이었고, 당시 노동 운동을 대표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목포의 노동 운동 전통은 개항 이후부터 계속되었으며 1924년 7월 목포 해륙노동조합이 창립되었다. 해륙노조는 지역 노조였지만 실제로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중심이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객주조합과 충돌했다.²⁴⁾

192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청년 활동가들이 늘어나면서 노동 운동도 활발해졌다. 목포에서는 전위동맹이 지역 노동 운동을 주도했다. 전위동맹은 직업별 노조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첫 단계로 1925년 9월 초 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다. 9월 24일 전위동맹 구성원들은 목포청년회관에서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목포에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조합창립준비회를 결성했다. 직업별로 나누어 자유노동부, 정미부, 면업부(綿業部), 제유부(製油部), 기타로 조직을 구성하고 위원을 선정했으며 먼저 각 부별로 조합을 창립하도록 했다.²⁵⁾

제유공 노동조합이 9월 27일 목포청년회관에서 창립된 이후 9월 28일 면업노동조합, 29일 자유노동조합, 30일 정미 노동조합 등이 속속 창립되었다. 자유노동조합이 집행위원 선임을 전위동맹에 일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위동맹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²⁶⁾ 서병인, 조극환, 배치문, 오도근 등 전위동맹 관계자들이 노동조합에 이사로 참여했다.²⁷⁾

1925년 10월 13일 8개 부문 조합과 1,770여 명이 조합원을 거느린 목포노동총동맹(木浦勞働總同盟, 이하 목포노총)이 목포청년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²⁸⁾ 목포노총은 총무부, 서무부, 교양부, 조사부, 직업소개부를 두고 집행위원제도를 채택했으며, 조극환, 서병인, 박제민, 설준석, 배치문, 이석, 오도근, 강기부, 최경내, 한인수, 임흥수, 하룡, 박재봉, 성보현 등을 상무 집행위원으로 선임했다. 목포노총은 ‘대중 본위의 신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노동계급의 현실적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강령으로 삼으며, ‘무산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자의 전투력을 강대히’하고 ‘대중을 노동조합에 결속’하여 ‘전투적으로 교육 훈련’할 것을 목표로 했다.²⁹⁾ 목포노총은 10월 목포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임금 실태를 조사하는 등 노동자 생활 개선 투쟁을 먼저

24) 김경일, 「일제하 목포지방의 노동운동」,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울아카데미, 1992, 71~73쪽.

25) 『동아일보』 1925. 09. 30.

26) 『동아일보』 1925. 10. 03.

27) 김경일, 앞의 논문, 75쪽.

28) 『동아일보』 1925. 10. 09.

29) 『동아일보』 1925. 10. 17.

시작했다.³⁰⁾ 목포노총은 인쇄공, 목공, 토공(土工) 등 새로운 직업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총동맹에 참여했다.³¹⁾

10월 중순 목포노총은 목포의 임금 상황을 조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목포자유노조는 12월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³²⁾ 노조원들은 시내를 행진하며 단결을 과시하는 한편, 임시 총회를 열고 표준 임금을 철저히 지킬 것, 또 이를 어기는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³³⁾ 자유노조의 파업에 선박 화물 노동자들도 동정 파업에 나섰다. 그 결과 목포 지역 임금이 상승하여, 목포 지역 자유노동자들의 임금은 약 50%까지 올랐다 한다.³⁴⁾

목포 제유공 파업은 1920년대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장 대규모의 파업이었다. 조선제유주식회사의 목포 공장은 면실유를 등 식물성 기름을 만드는 공장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1926년 1월 15일 제유노동조합이 임시 총회를 열고 동맹 파업을 결의했다. 200여 명의 노조원들은 임금 인상과 12시간의 노동 시간을 10시간으로 줄일 것 등을 요구했다. 파업노동자들은 매일 제유공 노동조합 사무실에 모여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투쟁 의지를 다졌다.³⁵⁾ 회사에서는 새로 노동자를 채용해 작업을 계속하려 했지만, 파업노동자들은 규찰 활동을 강화하여 대응했다.³⁶⁾ 노동자들의 단결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던 회사는 등 주변 지역에서 새로 직공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광주와 나주에서 새로 데려온 30명의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을 알게 되자 공장을 빠져나와 돌아가 버렸고, 파업 노동자들이 목포역에서 이들을 환송하기도 했다.³⁷⁾ 회사는 일단 파업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한편, 이들이 목포 시내 공장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또 파업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목포노총이 공금을 유용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목포경찰서는 이를 빌미로 목포노총 간부들을 호출하고 장부와 서류들을 압수하여 활동을 방해했다.³⁸⁾

2월 2일 파업노동자들은 임시 총회를 열고 회원들의 생계를 위해 행상단을 목포와 주변 지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또 2월 4일에는 파업 20일 간의 전말을 보고서로 만들어 목포 시내에 배부했다. 이들이 오래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적인 지지와 후원 덕분이었다. 목포에서는 도저히 노동

30) 『동아일보』 1925. 10. 23.

31) 김경일, 앞의 논문, 76쪽.

32) 『동아일보』 1926. 12. 16.

33) 『동아일보』 1925. 12. 11.; 12. 16.

34) 김경일, 앞의 논문, 90쪽.

35) 『동아일보』 1926. 01. 08.

36) 『시대일보』 1926. 01. 20.; 『동아일보』 1926. 01. 26.

37) 『동아일보』 1926. 02. 05.

38) 『동아일보』 1926. 01. 23.

자를 구할 수 없었던 회사가 다른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오자, 목포 시내의 거지패가 이들을 ‘남의 밥을 뺏어 먹는 놈들’이라고 구타했다.³⁹⁾ 파업 노동자들의 행상단도 큰 환영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목포 시내와 나주, 광주, 영암, 강진, 진도, 완도 방면으로 행상단을 보냈는데, 해당 지역 노동 단체와 청년회 등의 환영을 받았다. 광주에서는 노동조합들과 광주청년회, 여자청년회 등이 연합하여 후원했다.⁴⁰⁾ 1926년 2월 서울청년회, 조선노동당, 경성무산청년회, 경성노동조합, 서울청년회, 경성 여자청년회, 경성노동회가 위문단을 조직해 방문하고 동정금을 전달했다.⁴¹⁾

2개월 이상 파업이 계속되자 회사는 새로운 노동자를 비밀리에 모집했고, 파업 노동자와 새 노동자들 사이에 충돌이 생기기도 했다. 회사는 3월 중순 150여 명의 새로운 직공들을 한밤중에 공장으로 데리고 들어와 작업을 재개하자, 파업 노동자들은 실력행사에 나섰다. 3월 17일 파업 노동자 20여 명이 공장을 습격하여 기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노동자들도 폭행했다.⁴²⁾ 경찰이 즉각 개입하여 파업 단원 20여 명과 전위동맹의 핵심 활동가 거의 전부를 연행했다.⁴³⁾ 목포노총과 전위동맹의 배치문, 조극환, 김영식, 서병인, 임홍수 등 핵심인물들은 석 달 동안 목포형무소에 갇혀 있었고, 전위동맹원 오도근, 박제민과 공장 습격에 가담했던 노동자 10명은 기소되어 광주형무소로 이감되었다.⁴⁴⁾

목포노총은 파업 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계속했으며 실업자 대회, 지지 연설회를 계속 조직했다. 또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전국적인 지원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조직원이 검거되어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서 1927년 말 시작한 목포 사회 운동의 분열로 목포노총도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목포의 노동 운동은 19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 건설을 시도하는 사회주의 활동가들에 의해 다시 활성화된다.

4) 학생 운동

1920~1930년대 목포의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의 민족 운동 참여가 활발히 일어났다. 목포에는 기독교 사립학교인 영흥학교, 정명여학교와 전남 유일의 상업학교인 목포상업학교가 있었다. 1920년대 목포 지역의 학교에서 여러 이유로 동맹 휴교가 자주 발생했다. 목포 정명여학교는 3·1운동과

39) 『동아일보』 1926. 02. 16.

40) 『동아일보』 1926. 02. 25.; 1926. 02. 27.

41) 『동아일보』 1926. 02. 11.; 1926. 02. 12.; 1926. 02. 13.

42) 『조선일보』 1926. 03. 13.; 『동아일보』 1926. 03. 17.; 1926. 03. 26.

43)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17쪽.

44) 『동아일보』 1926. 06. 29.; 07. 05.

1922년 만세 시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 있었다. 정명여학교 학생들은 1925년 6월 부적격 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동맹 휴교를 벌였고, 교장인 선교사의 폭언과 폭행을 규탄하는 시민적 투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⁴⁵⁾ 한편 목포상업학교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한국인 학생들은 민족 의식이 강하고 민족 차별에 민감했다. 또 서당 교육을 받고 입학한 학생이 많았던 한국인 학생들은 일본인들보다 나이가 많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⁴⁶⁾ 1922년 1월 23일 목포상업학교(당시는 목포상업전수학교) 한국인 학생들은 일본인 교장이 상습적인 모욕과 폭행에 항의하여 동맹 휴교를 벌였다.⁴⁷⁾ 1929년 6월에도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간의 차별 문제로 동맹 휴교가 일어났다.⁴⁸⁾

목포상업학교는 광주학생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다. 목포상업학교에는 일찍부터 반회(班會)라는 독서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1929년에는 20여명의 학생이 반회에 소속되어 잡지 기사를 읽고 토론을 벌이거나 사회주의 서적을 몰래 들여와 돌려 보기도 했다. 목포상업학교 졸업생인 조점환이나 사회주의 활동가 김철진 등이 이 독서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⁴⁹⁾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직후인 1929년 11월 7일 독서 회원들은 토론 모임을 열었으나 주된 관심은 11월 3일 광주의 학생 투쟁이었다. 5학년 최창호와 3학년 이인형이 대표로 광주에 가서 당시 청년 운동 지도부였던 장재성과 만나고 돌아왔다. 장재성은 광주고보 재학 시절 성진회의 구성원이었으며 일본 유학 중 귀국한 1929년 6월 이후에는 광주 지역 학생운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2차 시위를 준비하던 장재성은 광주의 학생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일제 당국과 싸울 것이니 목포의 학생들도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⁵⁰⁾ 목포상업학교 독서회원들은 11월 11일과 14일 두 차례 모였다. 이 자리에서 최창호와 이인형은 광주학생들의 투쟁을 보고했고, 독서 회원들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11월 19일 목포상업학교의 모든 한국인 학생들을 모아 시위를 벌일 것을 결의했다.

독서 회원들은 가두시위를 전개하기로 하고 깃발과 전단 등을 준비했다. 이들은 붉은 천과 대나무를 사서 적기(赤旗) 3개를 만들고, 종이로도 깃발 120여 개를 만들었다. 또 시민들에게 배포할 1,500여 장의 전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1월 19일 정오 목포상업학교 학생들은 학교와 송도 공원 두 곳으로 나누어 집결했다. 학교 부근

45) 『동아일보』 1925. 06. 18.

46) 목포상업학교 교장 岡田嘉高의 진술(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최창호 등 판결문」, 1930,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1987).

47) 『동아일보』 1922. 01. 26.; 1922. 02. 02.

48) 『동아일보』 1929. 06. 10.

49) 김재기·임영언·권향숙 공역, 『일제 관헌이 기록한 광주학생독립운동』, 마루, 2012, 139쪽.

50)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최창호 등 판결문」, 1930,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1987.

에 모인 학생 50여 명이 구호를 써 넣은 붉은 색 깃발을 앞세우고 목포역으로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전단을 배포했다. 송도공원의 학생들도 대열을 이루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예상치 못한 시위와 두 군데로 분산된 대열로 애를 먹었다. 학생들은 시위 전에 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는 전화선부터 끊어 일본인 교직원들이 상황을 보고하지 못하게 했다.⁵¹⁾ 이날 시위 현장에서만 15명이 연행되었고, 이후 다시 12명의 학생들이 체포되었다. 사흘 뒤인 22일 2학년 이상 재학생들이 모두 모여 검거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⁵²⁾

19일 시위에서 학생들은 두 가지 종류의 전단을 만들었다.⁵³⁾ 「이천만 피압박 민중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전단은 ‘피감금 학생을 탈환하자, 총독 폭압 정치 절대 반대, 교육에 경찰 간섭 반대, 치안유지법 철폐, 언론·결사·집회의 자유를 전취하자, 중국 혁명 지지, 적색 러시아를 지지하자, 제국주의 전쟁 절대 반대, 식민지 해방 만세, 무산 계급 혁명 만세’ 등을 주장했다. 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라는 제목의 전단은 조선 민중의 처지를 ‘압박과 모욕을 무참하게 받아왔고, 착취와 압박을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다’고 하면서 민중들에게 학생과 함께 일제에 대한 투쟁에 동참할 것을 주장했다.

목포의 정명여학교 학생들도 1930년 2월 시위를 벌였다. 2월 7일 고등과 4학년 최이순, 서금복, 박순덕, 강안식, 송영은 등은 학생들이 등교한 직후 일제히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목포상업학교 학생 정병철의 지원을 받으며 격문을 만들고 동지를 규합하며 시위를 준비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는 것을 사전에 탐지한 미국인 교장이 목포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시위는 실패하고 주도자들이 구속되었다.⁵⁴⁾

목포의 학생운동은 청년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동지들과 함께 싸운 경험은 민족 운동에 대한 헌신과 유대, 단결을 가능하게 했다. 학생운동 경험은 그 참가자들이 활발한 사회 운동과 민족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5) 신간회와 근우회

신간회는 일제 하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 조직이며, 규모만 아니라 이념과 노선을 떠나 항일을 위해 전민족적 연대를 수행한 통일 전선 운동이었다. 신간회는 전국 각지의 지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면

51) 『동아일보』 1930. 03. 15.

52) 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218쪽.

53) 전단의 내용은 「최창호 등 판결문」에 일본어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

54) 『중외일보』 1930. 02. 08.; 『동아일보』 1930. 02. 29.

서 지역 사회의 민족 운동 ‘네트워크’로서 작동했다. 신간회 목포지회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27년 6월 결성되었다. 1927년 5월 7일 완도 출신으로 신간회 간사로 활약하던 송내호가 목포에 내려와 장병준 등 목포 지역 운동가들과 만나 목포지회 창립을 협의했다.⁵⁵⁾ 1927년 6월 18일 목포청년회관에서 신간회 목포 지회 창립총회를 열어 김면수(金冕洙)를 회장으로, 최경하(崔景河)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⁵⁶⁾ 신간회 목포지회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참여, 운영했다. 결성 당시 신간회 목포지회는 기독교회 장로이며 동아일보 목포지국장인 김면수가 회장을 맡았고 삼산의원 원장 최경하가 부회장이었다. 또 장병준, 김상규 등 임시정부 계열의 운동가, 변호사 등 우익인사들과, 김철진, 서병인, 설준석, 조극환, 배치문 등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곳이었다.⁵⁷⁾

1927년 7월 19일 신간회는 목포극장에서 천여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신간회와 사회운동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고, 12월 제1회 정기 대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개선하고 회관 건축, 기관지 발행 등을 논의했다.⁵⁸⁾ 그러나 이 대회에서 큰 불화가 생겼다. 조극환과 서병인, 김영식은 전위 동맹부터 함께 활동했는데, 조극환이 김영식은 이미 신간회 경성지회 회원이므로 목포지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지역 사회운동이 조극환과 서병인 계열로 분열, 대립하게 된 것이다.⁵⁹⁾

신간회는 조직과 정기적인 모임, 기념식만으로도 지역 사회 운동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 1928년 6월 신간회 목포지회 창립 1주년 기념식에도 수많은 비회원 방청객들이 모여들었으나 경찰에 의해 퇴장 당했다. 기념식 중 총무 간사 유혁의 경과보고, 서무 간사 천균, 서병인의 연설도 모두 경찰에 의해 중지되었다.⁶⁰⁾ 이렇게 신간회 지회의 모임이 항일 운동의 계기가 되자 일제는 지회 대표가 참가하는 의결 기구인 정기 대회를 금지시켰다. 정기 대회가 금지되자 규약과 임원을 개선할 수 없었던 신간회는 공여지책으로 몇 개의 인접 지회가 합동으로 대표를 선정하고, 이렇게 선출된 복대표들이 모여 정기 대회를 여는 방안을 강구했다. 1928년 6월 28~29일 신간회는 복대표 대회를 개최하여 임원진 개선과 규약 개정을 수행했다. 신간회 목포지회는 장흥지회, 강진지회, 완도지회와 합동하여 목포구를 형성하고, 목포구는 목포지회 간사 장병준을 복대표로 대회에 파견했다.⁶¹⁾ 그러나 신간회 목포지회는 1928년 제3, 4차 조선공산당 사건 이후 지역 사회주의자들이 대규모로 구속되는 바람에

55) 『동아일보』 1927. 05. 13.

56) 『동아일보』 1927. 06. 23.

57) 신간회 목포지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356~363쪽.

58) 『동아일보』 1927. 07. 22.; 1927. 12. 08.

59) 이균영, 위의 책, 356~363쪽.

60) 『동아일보』 1928. 06. 21.

61) 이기훈, 「장병준의 생애와 민족운동」, 『도서문화』42, 목포대 도서관연구원, 2013, 174쪽.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후에도 신간회 목포지회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당했으며, 1930년 3월 장병준, 강허봉 등이 일시 구속되는 등 탄압 당했다.

1930년 초 허헌 집행부가 구속된 후 들어선 김병로 집행부의 '온건 노선'은 신간회 내부의 분열을 확대했다. 사회주의 운동 노선의 좌경화가 이 대립을 증폭시켰다. 1930년 말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일부 지회에서 해소론을 제기했다. 신간회 해소론이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신간회를 '해소'하고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협동 투쟁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신간회는 1931년 5월 결국 해소되었지만, 해소론자들의 원래 의도와 달리 경찰이 일체 모임을 불허했으므로 새로운 협동 전선은 조직을 시도할 수조차 없었다.

1930년까지 신간회 목포 지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 특히 1929년 6월 석방된 배치문이 적극적으로 신간회 목포지회에 참여했다. 1930년 2월 22일 개최된 목포지회 제3회 정기대회에서 배치문은 집행위원으로 서기부장, 서무부장, 교육출판부장을 겸하였다. 6월 21일 신간회 목포지회는 임시집행위원회를 열고 '침체된 현하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간부가 총사퇴하기로 했다.⁶²⁾ 이후 7월 초 임시 총회에서 배치문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어 7월 20일 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⁶³⁾ 그러나 1930년 8월 배치문을 비롯한 새 집행부의 다수가 조선공산당 재건 조직과 관련하여 검거됨으로써 더 이상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⁶⁴⁾ 결국 신간회 목포지회는 이 무렵 실질적으로 활동을 종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우회 목포지회는 1927년 말 창립되었다. 근우회는 1930년까지 전국에 약 60개의 지회를 설립했는데, 목포지회는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지회 중 하나였다.⁶⁵⁾ 1926년 1월 13일 목포의 '신진 여성'들이 모여 목포여자청년회를 창립했는데, 이 여자청년회가 목포 근우회의 근간이 되었던 듯하다.⁶⁶⁾ 1927년 12월 3일 목포청년회관에서 근우회 목포 지회가 창립 대회를 열고, 김말봉(金末鳳), 고연우(高連宇), 천귀례(千貴禮) 외 15명을 집행위원으로 선출했다.⁶⁷⁾ 1929년 4월에는 고연우를 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상무집행위원 3명과 부서별 집행위원 8명을 선출했다. 지회장 고연우는 1927년부터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으며, 신간회 지회 회원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었다. 천귀례는 정명여학교 3·1운동에 주도하고 옥고를 치른 후 암태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사회 운동에 가담했다. 방춘화와

62) 『중외일보』 1930. 06. 27.

63) 『중외일보』 1930. 07. 24.

64) 『매일신보』 1930. 08. 12.; 『동아일보』 1931. 02. 10.

65) 윤선자, 「호남 지역 근우회의 설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4, 109쪽.

66) 『동아일보』 1926. 01. 17.

67) 『동아일보』 1927. 12. 06.

오미순은 학교 졸업 후 산파로 근무하다 사회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었다.⁶⁸⁾

근우회 목포 지회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계몽 활동을 벌였고 운동회나 음악회, 연극회 등을 열었다.⁶⁹⁾ 1929년 3월 집행위원회에서는 강제결혼 폐지, 교육문제, 부녀 야학 설치, 강연회, 토론회, 강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런 논의는 그 자체가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제 경찰의 탄압을 받았다. 근우회 목포 지회의 정기 대회는 거의 모든 발언이 금지당하기도 했다.⁷⁰⁾ 신간회 지회보다 더 심한 금지조치였다.

근우회 목포 지회도 심각한 내분을 겪었다. 1928년 5월 개최한 정기 대회를 둘러싸고 고연우와 한국혜(韓國惠) 두 파벌이 심각한 다툼을 벌였다. 결국 근우회 상무위원회가 1928년 4월 목포지회의 해산을 명했으며, 1929년 7월 제2회 근우회 전국 대회에서는 목포 지회의 재조직을 결정하고 본부에서 재조직위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⁷¹⁾ 이후 다시 만들어진 근우회 목포지회는 방춘화가 위원장이 되었고, 김영애, 한국혜, 김정애, 고연우 등이 집행부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 일단 갈등은 봉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²⁾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조차 금지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조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던 듯하다.

목포는 개항장으로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노동 계급 등 사회 운동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공동 투쟁의 전통은 약했고 대중들 사이에 깊이 뿌리 내리지도 못했다. 그러나 신간회나 근우회 목포 지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조사는 주변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이후 사회 운동 전반에 기여했다. 식민지 근대 도시의 빛과 어두움은 사회 운동의 측면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⁷³⁾

2. 1930년대의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

1) 1930년대 목포 지역 민족 운동의 전개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 1930년대 민족주의 운동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농촌에 대한

68) 근우지회 구성원들의 성향과 활동에 대해서는 윤선자, 앞의 논문. 참조.

69) 『동아일보』 1929. 02. 24.; 1929. 05. 02.

70) 『동아일보』 1928. 05. 17.; 1930. 04. 14.

71) 윤선자, 앞의 논문, 126~128쪽.

72) 『동아일보』 1930. 04. 14.

73) 식민지 근대 도시 목포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4. 참조.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농촌 계몽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또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선학 운동이나 고적지 조사, 위인 선양 등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운동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식민지 도시였던 목포에서 '유지'들이 합법적인 개량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청년 회관의 수리나 고등보통학교 설립이 대표적이다. 1935년 변호사 박찬일은 『호남평론』에 목포에도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목포 유지들 60여 명이 고보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러나 실제로 고보 설립은 지지부진했다.⁷⁴⁾

한편 12월 테제 이후 사회주의 운동은 당 재건에 전력을 기울였다. 목포 지역에는 서울상해파가 시도한 '조선공산당재건설 준비위원회'의 지역 조직이 구성되었다. 2차 조선공산당 중앙위원으로 3차 조선공산당 건설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김철수는, 1929년부터 국내로 잠입해 다시 당 재건 운동을 추진했다. 목포의 배치문은 1926년 제2차 조선공산당에 김철수의 보증으로 입당한 바 있었고, 1929년 석방된 이후 목포에서 지역 사회 운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1930년 2월 김철수와 배치문은 만나서 코민테른의 당 재건 방침을 논의하고 목포에서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 것을 결의했다. 배치문은 당 재건을 위해 목포 노동 운동의 노선을 통일하기로 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김철수가 체포되자 목포의 재건 운동 관계자들도 모두 구속되었다.⁷⁵⁾

그런데 이후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을 건설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로 여겼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의 항일 운동도 대부분 노동 운동에서 소개할 것이다. 윤기협 그룹이나 김정수, 이기동 등의 공산주의자 동맹도 기본적으로 노동 운동을 근본으로 삼았다.⁷⁶⁾ 1930년대 전반 목포와 주변 지역에서 혁명적 노동조합, 농민조합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사회주의 운동은 열악한 처지에서 급격히 추진력을 잃었다. 1930년 말 전향 제도가 시행되면서 합법적인 노동 운동조차 사실상 봉쇄되었다. 노동자 농민에 기반한 당 재건이라는 원칙은 지나치게 도식적이었고, 현실적으로는 젊은 청년 사회주의자들의 희생을 더욱 가중시켰다.

2) 1930년대 목포 지역의 노동 운동

항구 도시 목포에서 1930년대 가장 강력히 전개된 것은 노동 운동이었다. 1930년대 초 공황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은 더 나빠지면서 자연 발생적인 노동자 투쟁이 나타나기

74) 고석규, 앞의 책, 2004, 199~221쪽.

75) 김점숙, 「1930년대 전남지방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연구」, 『한국사연구』 74, 한국사연구회, 1991, 76~77쪽.

76) 『동아일보』 1936. 01. 30.

도 했다. 1931년 3월 29일 오후 목포부청과 경찰서에는 50~60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석 달이나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하고 호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래 목포부가 1931년 초부터 대규모 하수도 사업을 광주의 일본인 청부업자 츠보이[坪井鹽大]에게 맡겼는데, 이 업자가 노동자들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일으킨 것이었다.⁷⁷⁾ 박화성은 이 하수도 공사 노동자들의 실태를 직접 취재하여 1932년 5월 『동광』에 단편 소설 「하수도 공사」를 발표하기도 했다.⁷⁸⁾ 자연 발생 적으로 나타난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는 하지만, 당시 목포 지역 노동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코민테른 산하의 노동조합인터내셔널(프로핀테른)이 1930년 9월 채택한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임무에 관한 테제」(9월 테제)에 따라 기존 조합에 들어가 지도부를 몰아내고 조직을 장악하거나, 사회주의자들이 확고히 주도하는 새로운 조합을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일제하의 조선에서는 혁명적 노동조합'이란 결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비합법적인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요구였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지속적으로 대중적인 혁명적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통해 이를 확대하려 했다.

목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혁명적 노동조합을 건설하려 했던 것은 윤기현(尹基鉉)과 그의 동료들이었다. 흔히 윤기현은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926년 소련으로 건너가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마치고 1932년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윤기현은 직접 노동자층에 뛰어들어 동지를 규합하여 김상만, 임중술, 임대수 등의 동지를 모았다. 윤기현과 동지들은 목포의 큰 사업장마다 당당을 정했다.⁷⁹⁾ 이들은 목포의 공장 지대뿐 아니라 보성과 벌교 등지에도 조직을 확대하고 있었다.⁸⁰⁾

이들은 실제로 목포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대표적인 것이 목포부 위생계의 청소 노동자 파업이다. 1932년 10월 목포부 위생계 감독이 노동자들의 임금 가운데 300여 원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분노한 노동자들이 당국에 항의했으나 목포부는 무시했고, 임대수의 지도하에 위생계 노동자 50여 명이 파업을 단행했다.⁸¹⁾ 목포부 당국이 파업을 무시하고 새로 노동자를 모집하여 작업을 재개하자, 파업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달려 왔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목포경찰서에서는 즉각 노동자 11명을 체포하여 파업을 무산시켰다.⁸²⁾ 또 이 무렵 목포항 부두 노동자가 화물 적

77) 『동아일보』 1931. 04. 03.; 1931. 04. 04.

78) 박화성·박연옥 엮음, 「하수도 공사」, 『박화성 단편집』,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 2013.

79) 『동아일보』 1933. 08. 02.; 『매일신보』 1933. 08. 04.

80) 『매일신보』 1933. 06. 29.

81) 『동아일보』 1932. 10. 06.

82) 『동아일보』 1932. 10. 07.

재 작업 중에 중상을 입었는데도 고용주가 책임지지 않자, 임중술 등이 선하자유노동조합원들을 이끌고 파업을 전개했다.⁸³⁾ 눈치를 채고 있던 일제 경찰은 수개월 추적 조사한 끝에 윤기현 등 지도부를 검거했고, 다른 지역의 조직원들도 모두 체포했다.⁸⁴⁾

한편 1934년 12월 목포공산주의자 동맹 그룹이 검거되었다. 해남 출신인 김정수, 제주 출신인 이기동은 와세다 대학 유학 시절부터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목포에 들어온 이들은 1931년부터 사회주의 비밀 결사 레닌주의자동맹을 결성했고, 조직원들이 늘어나자 1933년에는 ‘공산주의자동맹’을 결성했다. 이들은 1934년 1월에는 목포적색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선면화, 일화제유, 동아고무 등 공장과 정미소에서 조직을 확대하려 했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 독서회를 결성하고 반제 동맹을 만들거나 주변 농어민들을 조직화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⁸⁵⁾

배치문, 윤기현, 김정수 등의 혁명적 노동조합 결성과 당 재건 운동이 실패로 끝난 이후 목포 지역에서 조직적인 노동 운동은 크게 약화되고 파업 투쟁은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1935년 목포 삼화고무 여성 노동자들은 보기 드문 대규모 파업을 일으켰다. 조선의 고무공업은 고무 원료를 전량 수입해와 단순 가공해서 고무신을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원료 가격의 인상이나 국내 소비 판도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⁸⁶⁾ 목포 삼화고무공장은 원래 김원희가 경영하던 동아고무공장이었다.⁸⁷⁾ 저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고무 공장들은 1930년대 수지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목포의 동아고무도 임금을 삭감하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⁸⁸⁾ 이 무렵 고무 수입을 독점하던 일본의 재벌 미쓰이[三井]물산은 제조와 판매까지 독점을 확대하려 했다. 결국 1934년 미쓰이물산은 부산의 마루야마[丸大]고무회사 등 중소 규모 고무 공장 14개를 합동하여 삼화고무주식회사를 설립했고, 목포 동아고무도 그 지사 중 하나가 되었다.⁸⁹⁾

합병 이후에도 경영이 크게 개선되지 않자 삼화고무는 1935년 8월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시도했다. 이에 대구와 부산의 삼화고무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격렬히 저항했다.⁹⁰⁾ 목포 삼화고무에서도

83) 김점숙, 앞의 논문, 99쪽; 김경일, 앞의 논문, 84~85쪽.

84) 『동아일보』 1933. 08. 17.

85) 김경일, 앞의 논문, 86~87쪽; 『매일신보』 1934. 12. 07.

86) 『조선중앙일보』 1936. 06. 18.

87) 1925년 김상섭, 김원희 등이 투자하여 설립했다(이승렬, 「일제하 조선인 고무공업 자본」, 『역사와 현실』3, 한국역사연구회, 1990, 255쪽; 『동아일보』 1925. 01. 14.).

88) 이 파업은 경찰이 중재하여 임금 삭감을 줄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윤기현 그룹이 동아고무공장 담당자를 지정했지만, 1933년 2월에 조직이 붕괴되었으므로 이 파업과 뚜렷한 관계를 찾기는 어렵다(『동아일보』 1933. 08. 21.; 『조선중앙일보』 1933. 08. 23.).

89) 『부산일보』 1934. 11. 29.; 『동아일보』 1934. 09. 21. 미쓰이의 삼화고무주식회사 설립과정에 대해서는 이승렬, 위의 논문. 참조.

90) 『동아일보』 1935. 08. 28.; 1935. 08. 29.; 1935. 08. 30.; 1935. 09. 01.

공장 측이 임금 삭감을 시도하자 1935년 8월 16일 파업에 들어갔으나 당시에는 지역 언론사들의 중재로 삭감을 취소하여 타결되었다. 그러나 공장 측이 11월 다시 본사 방침이라며 임금 인하를 시도하자 노동자 97명은 1935년 11월 1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⁹¹⁾ 결국 목포경찰서가 양측을 조정하여, 임금은 인하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 없이 복직하고 기존 생산량을 초과하는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⁹²⁾

1930년대 일제는 강력한 탄압과 집요한 감시로 노동 운동을 비롯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국내에서 전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 체제가 가져온 민족적 차별과 노동 착취 자체는 개선되지 않았다. 1934년 이후 사회주의적인 지하 활동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조직적 노동 운동 자체가 사라지다시피 한 목포에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 삼화고무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기훈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91) 『매일신보』 1935. 08. 18.; 1935. 11. 20.

92) 『매일신보』 1935. 11. 19.; 1935. 11. 23.

제4절 성장과 차별, 목포의 눈물⁰¹⁾

1. '대목포(大木浦)'의 당면 과제

1935년, 가요 「목포의 눈물」이 탄생하던 해, 이때가 흔히 말하듯 목포의 전성기였다. 그해 『호남평론(湖南評論)』 6월호에 실린 김철진(金哲鎭)의 「세사단편(世事斷片) -사물(事物)의 일면관(一面觀)」은 당시 목포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실마리를 제공한다.⁰²⁾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목포의 당면 문제(當面問題)'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大衆)의 중대성'에 대한 것이다. 먼저 목포의 당면 문제로는 모두 8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 "1. 부(府) 당국의 대목포(大木浦) 도시 계획안의 확립을 희망한다.", "2. 중등 정도(中等程度)의 학교의 역립(役立)을 필요로 한다.", "4. 목포의 남북부(南北部)의 균형적 시설(施設) 및 발전의 필요를 느낀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설과 발전은 남부에 편중(偏重)한 느낌이 없지 않다." 등의 조항이 눈에 띈다.

여기서 우리는 이때 목포가 대목포 도시 계획안을 만들 정도로 성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중등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⁰³⁾ 나아가 남북부 즉 일본인 마을과 조선인 마을의 시설과 발전의 차별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성장을 이루면서도 차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던 목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중의 중대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가 불후의 대중가요 「목포의 눈물」이 탄생하던 때임을 생각하면 매우 흥미롭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권리는 일찍이 인식되었다. 사회의 의의(意義)가 객인(客認)되기는 근자의 일이다. 그러나 경(更)히 대중의 중대성에 주목하게 됨은 최근의 일이다. 대중은 개인의 단지 집군(集群)도 아니요, 또 사회에 비하여 그만큼 조직된 구성도 아니라 개인이나 군상(群象)과는 다른 근대의 일사회형태(一社會形態)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 …… 대중은 어찌하여 존중치 아니하면 안 되느냐? 이것은 여좌(如左)한 이유가 생각될 것이다. 대중은 단독적인 개인의 회포(懷抱)한 지식에 반성의 편의(便宜)를 준다. 여하히 현명한 개인의 생각하는 사상일지라도 전혀 주관적(主觀的)이 아니라고 하지는 못한다. 대중은 일견(一見) 무지(無智)의 집결(集結)에 불과하나, 그 맹목적(盲目的)인 동향은 개인의 의

01) 이 글은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서울대 출판부, 2004.) 중 「제3장 일제강점기 대도시(大都會) 목포의 성장과 선일인(鮮日人) 차별」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02) 김철진(金哲鎭), 「세사단편(世事斷片)-사물(事物)의 일면관(一面觀)」, 『호남평론(湖南評論)』 6월호, 1935, 15쪽.

03) 중등학교 설립에 대하여는 고석규, 앞의 책의 「제7장 목포의 '유지(有志)'와 목포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 기대와 현실의 간격」 참조.

식적인 사상보다도 누누(屢屢)히 비판적이라. 대중의 동향은 무의식적으로 인간 생활의 옹호(擁護)를 하고 있다. 몽매(蒙昧)하게 보이면서 용이(容易)로 목적을 오인(誤認)치 않는 건전함을 가지고 있다. 또 대중의 생활은 다수인의 생명을 포함하는 고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경(更)히 대중의 동향은 용이(容易)히 격동(激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견 결성된 시(時)에는 작열(灼熱)된 토열(土熱)과 같이 용이하게는 냉각(冷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복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쇄, 출판, 영화, 레코드, 라디오 등 새로운 복제 문화 영역을 열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 대중문화가 싹틔던 시기는 바로 1930년대였다. 특히 레코드를 통한 대중문화의 확산은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과 함께 왔다. 바로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유지도 아니고 민중도 아닌 대중의 중요성에 주목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은 아닐까?

보통 대중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소시민성이란 단어로 규정되면서 비판받았다. 소시민성은 바로 식민지 근대성의 다른 표현이라 해도 될 것이었다. 무엇보다 돈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목포 대중문화는 신파성을 반복 재생산하여 시민들의 소시민성을 확대시켰고, 목포의 식민지 근대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⁰⁴⁾

그런데 김철진의 대중에 대한 이해는 매우 긍정적이다. 목포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을 대중에서 찾고 있었다. 대중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지만 그래도 기댈 곳은 대중밖에는 없었고, 이 대중이 바로서는 것이야말로 목포가 바로서는 것이라는 기대의 반영이었다고 보인다. 「목포의 눈물」이 가지는 다양한 함의 또한 이 대중의 역할과 통하는 것이라 더욱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1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앨범 재킷 사진

04)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대중문화를 통해 본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9-1, 역사문화학회, 2006. 참조.

2. 3대항 6대도시, 목포

‘3대항 6대도시’, 이는 목포의 전성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만큼 1930년대 목포의 성장은 눈부신 것이었다. 그러나 성장이 식민지 조선인에게는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에서는 성장에서 소외되는 차별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타협, 나아가 타락이란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제 성장, 차별, 그리고 타락으로 이어지는 전성기 목포의 사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목포의 성장부터 살펴보자. 1930년대 목포의 성장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개항 당시 거류지의 가구(街區)가 거류지 안에서 완결되는 구성을 띠고 있었지만 조선인마을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며 변화해 갔다. 그리하여 동서축의 가구 구성이 동쪽 지역의 번영과 함께 남북축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하여 새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류지의 중심은 사카에초[榮町]와 후쿠야마초[福山町] 일대였다. 이 지역은 흥미롭게도 선창과 조선인마을을 연결하는 곳이었다. 그것은 선창이 무역의 거점이고 조선인마을은 그 배후지가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중심지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1910년대의 목포는 주로 구 거류지 내의 정비에 치중하고 호남 철도와 관련된 시설 공사, 약간의 매립을 시행하여 도시 발달의 단초를 마련하는 정도였다. 다만 중요한 변화는 초기에 있었던 동서축의 발달이 남북축의 발달로 전이되면서 시가지 확장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갔다는 점이다.

1920년대 초반부터 조선인 마을을 향한 남북축으로의 시가지 조성이 활발해졌다. 시가지의 활발한 변화 속에서 1925년경에는 목포의 도시 발전 계획을 세워 나갔고 1927년경부터 근대적 의미의 도시 계획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런 1920년대 목포의 발전을 상징하는 사건은 1926년에 열린 전남물산공진회(全南物産共進會) 및 조선면화공진회(朝鮮棉花共進會)였다. 공진회를 거치면서 목포는 이제 ‘전남의 현관이요 물산집합의 중심지로 조선에서는 제3위를 점령할만한 중요항’이자 ‘상업의 요지’로 자리 잡았다.⁰⁵⁾ 항구는 교역을 위해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의 역할이 컸다.

1929년 세계공황의 여파로 맞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1930년대 중반 목포는 최전성기를 맞는다. 그리고 1932년 10월 1일 이르면 산정리의 일부와 죽교리, 용당면, 삼학도 등이 편입되는 등 구역이 확장되었다. 전에 비해 인구는 약 15%, 면적은 72%가 늘어났다. 근대도시 목포는 이로써 튼튼한 배후지를 확보한 셈이었다. 이후 인구는 꾸준히 늘어 1935년 10월에는 마침내 6만을 돌파하였다. 이때 인구와 함께 목포는 전성시대를 맞이한 셈이었다.

05) 고석규, 앞의 책, 99~100쪽.

그리고 1930~1935년간 인구 증가율도 전국 최고였다.⁰⁶⁾

표 1 1915~1944년 목포부 인구수 추이

연도 부명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1944
목 포	12,782	16,701	26,718	34,689	60,734	64,256	67,095

1935년 7월 3일에는 ‘대목포 건설’을 위한 삼대사업 추진을 목표로 목포삼대사업기성회(木浦三大事業期成會)를 결성하였다. 삼대사업기성회의 목적은 ①목포 항만의 수축 및 해륙연락의 설비건, ② 남조선철도회사 제2기선 보성-용당 간 철도 및 경전선(慶全線) 금지(金池)-담양 간 철도의 부설건, ③목포중학교 설립의 촉진건 등이었다.⁰⁷⁾ 즉 첫째는 항만, 둘째는 철도, 그리고 셋째는 중학교였다.

전성기 목포를 부르는 대표적인 표현은 ‘전남의 관문, 상공도 목포’⁰⁸⁾였다. 신문 기사들에서 목포를 다룰 때 흔히 쓰는 표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산명수려(山明秀麗)한 일명소(一名所), 남선(南鮮) 굴지(屈指)의 양항만(良港灣)’⁰⁹⁾

‘목포는 전남의 현관이요 물산집합의 중심지로 조선에서는 제3위를 점령할만한 중요항’¹⁰⁾

‘목포는 전남에 유일한 상업지대’¹¹⁾

‘남조선의 상업적 핵심이 되어 있는 목포항’¹²⁾

이른바 전국 3대항 6대도시의 전성기를 누렸다. 비록 식민지였지만 목포는 근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외형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이런 기세는 6·25 전쟁 전까지는 막힘없이 이어졌다. 1949

06) 권태환, 『일제시대의 도시화』(『한국의 사회와 문화 -일제 식민통치와 사회구조의 변화-』11, 정신문화연구원, 1990)의 <부표 1>에서 재인용.

07) 『매일신보』 1935. 07. 09.

08) 『동아일보』 1939. 01. 14.

09) 『매일신보』 1920. 04. 14.

10) 『중외일보』 1927. 06. 06.

11) 『동아일보』 1930. 11. 08.

12) 『매일신보』 1935. 08. 16.

년 목포의 현황을 알리는 신문 기사를 통해 그 사정을 살펴보자.¹³⁾

약진하는 항도 목포! 12만의 대인구를 포용하고 힘차게 뻗어가는 목포항! 국내 6대강의 하나로 자칭 받는 영산강의 어구 서남부에 돌출한 무안반도의 종점에 위치하여 층암(層岩)의 유달산을 위요(圍繞)한 항도 목포의 웅자(雄姿)는 칠산(七山) 바다 넘실거리는 거센 파도와 더불어 약진하는 전남의 새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목포항은 시대의 각광(脚光)을 띠고 외양(外洋) 진출에 거점으로서 더욱 약동하고 있거니와 …… 민국(民國) 굴지의 상공업시(商工業市)며 대양을 제패하려는 기세 약약(躍躍)한 12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도맡은 시청…….

‘민국(民國) 굴지의 상공업시(商工業市)며 대양을 제패하려는 기세 약약(躍躍)한 12만 시민’이란 표현에서 당시 목포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¹⁴⁾

이와 같은 목포의 모습은 1930년대 전성기가 만들어 놓은 성장의 자취였다.

3. 성장의 뒤편길, 선일인(鮮日人) 차별

목포가 1930년대 전성기를 맞는다고 하지만, 그 길목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삶은 평탄치 못하였다. 1925년 2월 『조선일보』에 이미

목포는 전남 지방에서 가장 첫손가락을 꼽는 개항장이므로 인구도 많고 물산도 풍부하여 상업가의 경쟁이 해를 따라 높아 가는 중 경제적으로 파멸을 당하는 조선사람 된 자는 다만 구석을 찾아 나가고 시가에 즐비한 고루거각은 일본인의 문패가 아니면 기타 외국인의 문패뿐이라 이대로 몇 해만 지나가면 조선인의 정경은 장차 어떠한 구렁에 빠지게 될는지 모르는 중.¹⁵⁾

이라 하여 그 실상을 전하고 있다. ‘파멸을 당하는 조선사람’, 목포 성장의 뒤편길에는 이런 아픔들이 따랐다. 이는 목포가 식민 도시였기에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민족적 차별이 그 배경이었다. 유달산 밑 조선인 마을에 대한 차별은 일제강점기 목포 도시화의 특성이라 지적할 만큼 심각하였다.

13) 『호남신문』 1949. 09. 28.~30.

14) 고석규, 「전남의 관문, 목포가 만난 근대」,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문화로 보는 한국사 1), 태학사, 2009, 398~401쪽.

15) 『조선일보』 1925. 02. 08.

이런 차별은 강점 초기 초메[町名] 개정부터 시작하였다. 1912년에 총독부 토지조사국에서 행정 구역 설정을 위해 각지의 시가지 조사를 시작했는데 목포에서도 이때에 맞추어 초메 개정을 단행하였다.¹⁶⁾ 초[町]란 이름은 일본인들의 거주지인 거류지와 목포역 앞의 신개발지에 붙였고, 반면에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류지 밖 동네에는 동(洞)이란 이름을 붙였다. 죽동, 양동, 남교동, 북교동, 대성동, 온금동 등 6개의 동이 그것이었다. 이런 초메 개정은 일본인 마을엔 초를, 조선인 마을엔 동을 붙여 아예 그 이름부터 갈라놓는 차별적인 행정 조치였다. 이는 그만큼 두 마을을 차별적으로 대하겠다는 뜻이었다.

목포 발전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다. 1931년 3월 29일 목포의 하수도 공사장에서 밀린 샅을 달라는 노동자들의 큰 소동이 있었다. 하수도는 물론 일본인 마을을 위한 것이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제대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는 하수도는커녕 ‘길은 좁고 조금만 비가 와도 다닐 수가 없고’, ‘날마다 송장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전등도 없는’ 그런 곳으로 사람 살 곳이 못 되었다.¹⁷⁾

차별은 곳곳에 나타났지만, 특히 조선인 2만 이상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유달산 아래 북교동을 중심으로 한 죽교리 일대가 심하였다. 첫 출발부터 ‘돼지우리’ 같다고 하더니 30여 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오물이 산처럼 쌓여 있는 등 합리적인 근대 도시와는 거리가 먼 꼴이었다.

동반자 작가 박화성의 데뷔작 「추석전야(秋夕前夜)」(『조선문단(朝鮮文壇)』, 1925)의 일부를 보자.

목포의 낮[晝]은 보기에 참 애처로웠다. 남편으로는 늘비한 일인의 기와집이요 중앙으로는 초가와 넷 기와집이 셋겨 있고 동북으로는 수림 중에 서양인의 집과 남녀학교와 예배당에 솟아 있는 외에 몇 기와집을 내놓고는 땅에 붙은 초가뿐이다. 다시 건너편 유달산 밑을 보자. 집은 돌 틈에 구멍만 뚫어 놓은 도야지마냥 같은 초막들이 산을 덮어 완전한 빈민굴이다.¹⁸⁾

‘남편으로 늘비한 일인의 기와집’이 있는 거리는 바로 구 거류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 마을을 말하고 ‘완전한 빈민굴’이라고 이름 붙인 유달산 밑은 다름 아닌 조선인 마을이었다.

1927년 8월 17일자 『중외일보』에서는

16) 『매일신보』 1912. 08. 18.

17) 『조선일보』 1925. 03. 01.

18) 박화성, 「추석전야(秋夕前夜)」, 『조선문단(朝鮮文壇)』, 1925, 95쪽; 변신원, 「박화성 -계급의식과 주체적 여성 의식-」 『역사비평』 1996. 봄, 역사비평사, 1996, 361쪽에서 재인용.

목포항은 전남의 관문으로 상공업의 발전은 축일(逐日) 번성되어 가는 반면에 도리어 조선인의 생활상태는 점차 참경(慘境)에 몰락되어 거주할 곳이 없어 심지어 유달산의 험악한 석간(石間)까지 「움집」 혹은 토굴을 파고 생활하고 있는 목불인견의 현상

이라 하였다. 소설이 사실이었다.

조선인 마을에 대한 차별은 시설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시설의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찍부터 있었다. 어떤 시설의 차별이 있었는가? 당시의 기록을 보자.

모든 시설이 조선인 사는 곳과 일본인 사는 곳을 갈라서 너무 편벽되어 한다 함은 이미 두 차례 보도하였거니와 그 중 가장 심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건대 조선인 사는 동리의 길은 좁고 불편하여 조금만 비가 오면 다닐 수가 없게 되며 음료수도(飲料水道)로 말하더라도 조선인 마을에는 수통이 적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십여 명의 사람이 물을 길으려고 둘러서게 되며 또 일본인의 화장터로 말하면 바로 조선인 마을 옆에 있고 더욱이 보통학교 옆이라 날마다 송장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게 되며 어린아이들의 눈앞으로 날마다 시체를 실어 가게 되니 이런 것에 대하여서도 벌써 여러 번 교섭하였으나 그대로 두었으며 다 같은 전등도 조선인 마을 길거리에는 설치 아니하였는데 이외에도 다 말하려고 하면 실로 한이 없다.¹⁹⁾

아무리 일제강점기였지만 이런 차별적 시설에 대한 개선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실로 한이 없는 차별이었다. 목포부회에서 김용중은 가로등(街路燈) 시설에 대한 차별을 다음과 같이 거론하였다.

조선인 동네와 일본인 동네를 구별해 보면 조선인 소유 토지는 80만여 평, 일본인 소유는 40만 평이고, 인구별로 보면 조선인은 5만, 일본인은 8천밖에 안 되니 이러한 통계로 본다면 조선인 2,900명에 등 하나, 일본인 580명에 등 하나란 차별적 시설이오니 더욱 조선 동네에 시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인 580명에 하나인 가로등이 조선인에게는 2,900명에 하나라는 현격한 차별

19) 『조선일보』 1925. 03. 01.

이었다.²⁰⁾ 밝은 목포를 만들었던 근대 문명의 이기인 전등은 그 차별적 시설로 말미암아 명암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밤거리마저 차별을 느끼게 하였다.

조선인의 열악한 생활은 이름 하여 유명한 빈민굴조차 생기게 되었다. 코낭마치[湖南町] 일대가 바로 그곳이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계별이와 제승(製繩), 즉 새끼꼬기 등으로 불과 30~40원 가지고 그날그날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²¹⁾

이들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이라더니 생이불여사(生而不如死, 살아 있지만 죽은 것만 같지 못하다)의 경지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유달산계급’이라 불릴 정도였다. 이들은 이른바 사회사업을 위해 제안된 청교구락부(淸交俱樂部)에서 “일년에 한두 번 오는 명절 때면 우리는 우리가 장만한 음식 중에 기(幾)를, 우리의 의복(衣服)감 중에서 몇 척(尺)씩을 거출(據出)하고(물론 현금 상존(尙尊)) 일반에게서 모아서 그 계급들에게 온정과 진심을 가지고 배급하여 그날을 위안하여 드리자. 그러나 그 인격 존중을 잃지 않도록.”²²⁾ 라는 봉사의 일차 대상들이었다. 그들의 처지가 어쩐지 측은해 보이기 짝이 없다. 그러니 “『유달산』 바위틈에 오막살이를 헐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라는 웅변조의 호소가 나올 지경이었다.²³⁾

농촌에서 패잔한 무리와 ‘붓집 행상’들이 방황하는 곳이 상업도시 대목포항의 이면이었다. 청년은 생선 장수·지계별이, 여자는 떡장사·고구마 장수, 소년은 겐마이빵·‘텐뿌라’·수건 양말 장사, 소녀는 콩기름·나물 장사 등으로 나서 길거리에서 먹고 살았다. 이들은 교통 정리 한답시고 내쫓는 바람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가련한 신세들이었다.²⁴⁾ 실로 1934년 목포의 현실이었다.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다. 걸인들도 무리를 지어 다녔다.

이처럼 전성기 목포에서 도시의 차별적 이중성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목포에는 종교 뿐만 아니라 학교, 체육, 청년운동 등등 모든 부문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은 서로 다른 공간과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활동을 하였다. 개항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한 목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어느덧 목포는 차별의 땅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하는 공간의 차이가 시설물의 차이로, 그리고 민족 간 생활과 문화의 차이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런 차이들이 식민성

20) 『매일신보』 1935. 03. 27.

21) 『중앙일보』 1934. 03. 10.

22) 박찬일(朴燦一), 「건전(健全)한 집합(集合)의 결성(結成)을 논(論)함」, 『호남평론』 8월호, 1935.

23) 1935년 8월 10, 11일 양일간 『호남평론』 주최로 개최한 제1회 호남소년소녀웅변대회의 3등 원고(김만석 18세) 「소년(少年)아 분기(奮起)하라」(『호남평론』 9월호, 1935, 58쪽).

24) 『중앙일보』 1934. 10. 28.

을 배태했다.²⁵⁾

이런 차별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정치적 힘의 열세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곳에도 마침내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1930년 이후가 되면 인구 중심점이 조선인마을 안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조선인 마을에서 미미하게 진행되던 시설 사업들이 이제 도로 화장(化粧)이란 이름으로 정리도시(整理都市)로서의 미관(美觀)을 갖추어 나가려는 데까지 나아갔다.²⁶⁾ 그렇게 된 배경에는 유권자수의 증가로 상징되는 조선인의 힘의 성장이 있었다. 유권자수가 1939년에는 일본인 1,074명에 조선인 1,233명에 달함으로써 마침내 일본인 유권자수를 능가하였다.²⁷⁾ 그나마 조선인 마을에 시설 투자가 행해 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조건의 변화가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그러나 격차는 너무 벌어져 있었고 좁히려는 힘도 여전히 미미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내내 선일인의 차별이 쉽게 가라앉을 수는 없었다.

4. 「목포의 눈물」과 식민지 근대성

성장의 뒤편길에는 차별의 아픔이 컸지만, 또 다른 그림자로 이른바 타협, 나아가 타락을 낳았다. 목포의 발전이 우리 조선인에게서는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발전은 목포의 조선인이 희생한 대가로 이룬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면 ‘목포의 발전=조선인의 희생’이란 등식 위에 신파조의 「목포의 눈물」이 자리 잡았던 것이다. 한편 목포의 상업적 발전은 유흥의 발전으로 그 수준이 평가될 만큼 퇴행적 분위기가 컸다.

「목포의 눈물」이 탄생하던 1935년 그해 9월 22일자 『매일신보』에는 ‘남국(南國)의 항구도시, 목포의 쌍곡선’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을 보면 목포는 비약적 발전에 따라 유흥기분이 넘쳐흐른다는 것으로 “상업 도시 목포의 발전의 반영적(反映的) 일면상(一面相)인 숫자적 통계를 추어 보면 다음과 같거니와 늘어가는 것은 음식점과 술집, 음주 청년과 「거리의 신사」 뿐이라고 한다.”라 되어 있다. 근대의 두 얼굴처럼 3대항 6대도시의 전성기를 맞는 ‘목포의 빛’ 그 이면에는 타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부의 상승에 동반하여 타락의 지수도 높아가는 쌍곡선을 그렸던 것이다.

어떻게 문화 도시 목포가 성장의 전성기에 오히려 타락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웠을까? 박화성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찾고 있다.

25)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대중문화를 통해 본 식민지 근대성」 참조.

26) 『매일신보』 1936. 09. 05.

27) 『동아일보』 1939. 02. 21.

한때는 목포에 노동총동맹이니 노동조합이니 청년회의 청년동맹이니 신간지회니 근우지회니 등등의 건설한 단체가 있어서 이들의 정기 혹은 임시의 집회가 있었음은 물론이요 이들 각 단체의 주축으로 문화적 의의를 띤 각종의 모임이 그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목포주민으로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발기하고 지지하던 인사들의 대다수가 영어(囹圄)의 인이 되며 혹은 불귀(不歸)의 객이 되고 기타는 주색잡도(酒色雜道)에 전전타락(轉轉墮落)하게 됨에 칠팔년 전에는 문화도시의 열에 당당히 일석(一席)을 가지게 되던 목포는 근년에 와서 완전히 초토로 화하고 말았다.²⁸⁾

목포 문화의 황폐화가 정치 지형의 변화로부터 왔다는 해석이다. 즉 문명 비판을 이끌고 있던 사회주의의 쇠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진보 세력은 감옥에 갇히거나 죽거나 아니면 타락했다. 반면에 보수의 세는 커졌다. 이에 따라 목포 거리는 퇴폐적으로 바뀌었다. 1929년 공황의 분위기가 바뀌는 1931년 이후 정세가 급변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1920년대 청년 운동은 민중 운동과 계몽 운동의 두 계열로 진행되었는데, 민중 운동은 신간회의 실패 등을 거치면서 끝났고, 계몽 운동만이 남았다. 더구나 그 계몽운동마저 1930년대에 들어서면 청년 자체가 성인이 되면서 타협적 속성의 시민운동으로 변하였다. 1936년 2월 16일 목포협회(木浦協會)의 창립은 도시 1세대들이 벌였던 청년 운동이 기성의 유지활동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 활동의 증점도 이른바 각종 ‘시민대회’에 모아졌다.²⁹⁾

1930년대의 ‘시민운동’으로 전환한 이들의 운동 방향은 박찬일의 「건전한 집합의 결성을 논함」이란 글에 잘 드러나 있다.³⁰⁾ 건전한 집합이란 곧 ‘청교구락부(淸交俱樂部)’를 말하며, 그 모임의 목표는 「사회를 위하여 공헌하자. 각자의 향상을 도모하자.」라는 강령에 담겨 있었다. 이는 「아니 먹고 무엇하리」주의의 세기말적 퇴폐적 생활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박찬일은 이런 제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 글을 읽고 낙관주의자의 일(一) 이상론(理想論)이라고 일소에 부(附)할 분도 계시리라. 배부른 자들의 헛장난이라고 조소(嘲笑)하는 분도 있으리라. …… 오늘의 조선 사람의 특수한 처지를 자각하는 우리는 또 우리의 특수한 사명도 잘 알고 있다. 이 사명의 기분(幾分) 일이라도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집회를 결성하고 무육(撫育)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³¹⁾라 하여 조심스

28) 위와 같음.

29) 『동아일보』 1940. 02. 04. 「목포청년회관(木浦靑年會館) 기지(基地)를 상전승격기금(商專昇格基金)으로 목포협회(木浦協會) 총회(總會)서 결의(決議)」.

30) 박찬일, 앞의 글, 34쪽.

31) 같은 글, 37쪽.

런 우려의 일단을 표명할 만큼 이는 체제 내에 안착하는 운동이었다.

같은 계열의 김철진은 ‘향락의 종류 및 방법의 선택’을 거론하면서 “근일 조선사회 인하여 목포사회에 향락을 고찰하면 주색, 기박, 마작 등에 한정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사회적 원인도 말할 수 있으나 …… 향락의 변혁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체 향락으로 ‘독서, 캠프생활, 위크엔드투립프, 하이킹크, 피크닉크’ 등을 제안하였다.³²⁾ 여기서도 타협적 일면관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목포 대중들이 즐기는 문화의 내용은 크게 달라졌다. 1920년대만 해도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대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그 나름의 엄숙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을 넘어서면서 어느 것이든 쾌락을 누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는 자본주의 문화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를 누릴만한 경제적 성장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유흥의 퇴행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는 이때 목포의 경기가 초호황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목포의 발전 그것은 목포의 빛이었다. 그래서 돈이 넘치니 기분도 넘치는 것은 당연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항구 도시 목포의 퇴행성(退行性), 즉 타락적(墮落的) 향락은 목포의 그림자로 남아 오히려 그 빛을 가리고 말았다.

근대 생활의 이익과 기회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일본 문화의 축수에 말려들었고 잘했건 잘못했건 협조자로 고발되기 쉬웠다. 그런 사정들 때문에 쉽게 쾌락에 노출되었다. 문명 비판의 칼날은 무더질 수밖에 없었다. 일제와의 타협에 쉽게 귀 기울였고, 대중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 식민지 근대성이 낳은 지형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의 전환은 그대로 문화의 전환에 반영되었고 또 문화의 전환 속에서 증폭되었다. 목포는 1930년대에 발전의 절정을 맞는데 그 절정에서 즐겁다기보다는 애절한 분위기를 갖는 「목포의 눈물」이란 신파조의 노래가 탄생하고 유행하였던 것도 바로 이런 현상의 반영이었다. 목포의 빛과 그림자가 그대로 「목포의 눈물」에 담긴 셈이었다.

5. 진짜 목포 사람들

1937년 10월호 『호남평론』의 「목포만필(木浦漫筆)」에서 목포를 ‘주포(酒浦)’, ‘여포(女浦)’라 하고 이에 빗대어서 ‘삼포(三浦)’라고 한탄하는 글이 있다. 타락한 삶의 모습을 여포라 했다면, 타협적인 굴종적 삶을 사는 모습은 주포로 표현하였을 듯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글의 끝 부분에 “이제까지는 여포, 주포에서 인간의 추면상(醜面相)만 보고 듣고 하였으니 이제 목포에서 다른 것을

32) 김철진, 앞의 글, 38쪽.

보자.”라고 하면서 목포의 진면목을 지적하고 있다. 유달산에서 내려다 본 다도해의 아름다움을 시(詩)로 묘사한 다음, 목포를 드나드는 여러 배들은 목포의 생명선이라고 하면서 아침 선창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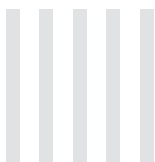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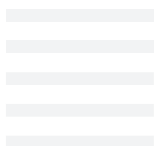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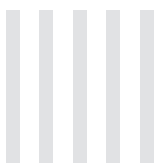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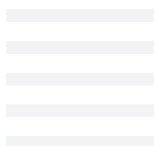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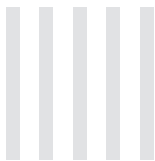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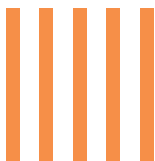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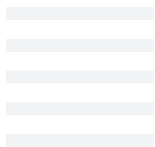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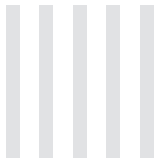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아침 선창의 여러 사람들의 기풍(氣風)은 다른 문화도시에서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생생한 맛이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률적으로 돈에 대한 야심이 물결치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는 최첨단을 걸어가는 모던보이도 신사연(紳士然)하는 종류의 인간도 찾아 볼 수 없고 생에 대한 욕망으로 두 눈이 빨게진 인간들뿐이다. 그들 인간들은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는 체면과 의리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한다면 돈을 벌기 위하여서는 적(赤) 나체(裸體)가 되어 버린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한다면 너무도 가증스런 것 같지만 다른 문화도시에 있어서 외면으로는 교육자 연하고 종교가연하고 자선가연하는 인간들이 뒤흔무니로는 갖은 악행과 갖은 허위의 생활을 감행하는 인간들보다는 이들의 나체적 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³³⁾

주포, 여포로 타락한 와중에도 목포의 생명선 항구에서 먹고살기 위하여 처절한 삶, 나체적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진짜 ‘목포’라고 불렀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목포 사람들로 목포 성장의 말없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들이 있어 「목포의 눈물」은 목포의 노래가 되었고 목포의 희망이 될 수 있었다.

고석규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33) 박덕상(朴德相), 「목포만필(木浦漫筆)」, 『호남평론』 1937년 10월호, 69쪽.



제1절 해방 이후(1945~1960) 격동의 목포

이기훈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제2절 1960~1970년대 지역의 차별과 목포의 침체

이기훈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제3절 1980년대 이후 목포의 새로운 도약

이기훈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제4절 1980년대 목포의 민주화 운동

곽재구 |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제5절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과 현재

고석규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4장 목포의 현대

제1절 해방 이후(1945~1960) 격동의 목포

1. 해방과 미군정기의 목포

1) 목포의 정치적 격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정치적 발언과 행동이 급증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정치적 행위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국가를 만들고 정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등장한다는 뜻이며 결국 다른 견해들 사이에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크게 개탄하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해방은 단순히 일본인들이 물러간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통치만 존재했던 공간이 새로운 권력과 사회 운영의 방식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며 비어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 다른 주장들을 평화롭게 통합하는 것이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과제였던 것이고, 결국 분단과 전쟁으로 갔던 것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해방이라고는 해도 권력이 완전한 진공 상태가 되지는 않았다. 일제가 항복을 선언했어도 승리를 실제로 거둔 군대인 미군이나 소련군은 아직 한반도에 도착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던 물리적 국가 기구로부터 벗어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실체가 필요했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았다.

해방될 무렵에 목포부의 인구는 8만 5천명이었고, 그 중에 약 1만 명이 일본인이었다. 다른 곳보다 일본인도 많고 그 세력도 큰 고장이어서 해방의 감격도 더 컸다. 1945년 8월 17일을 전후하여 목포에도 건국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목포의 건국 준비 위원회도 좌우가 공존했다. 위원장 이남규(李南圭)는 1901년생으로 무안 복길리 출신이며 중등학교를 거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회 활동을 하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 2년간 옥고를 치른 목사였다.⁰¹⁾ 부위원장 김백동(金百東)은 1931년 전남노동협의회에서 활동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박헌영 직계로 활동한 사회주의자였다.⁰²⁾ 또 다른 부위원장 국순홍(鞠淳弘)은 순창 출신의 내과 의사로 1946년에는 여운형이 주도한 정당 인민당의 목포시 지부 준비위원장을 맡았다.⁰³⁾ 내무국장 및 교통부장을 맡은 유치오(兪致五)는 광주학생운동 당시 광주농업학교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1930년대에는 역시 전남노동협의회에서 활동했다.⁰⁴⁾ 선전부장 임영춘(林永春)은 목포상업학교 격문 사건으로 1931년 구속되었으며 1938년에는 시국대응사상보국연맹에도 가입했다.⁰⁵⁾ 치안대장 임태오는 일제 시기에는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은 인물이었다.

미군 진주가 확정되자 1945년 9월 여운형이 중심이 된 좌파는 조선 인민 공화국 창설을 선포하였고 안재홍 등은 탈퇴하였다. 목포에서도 건국 준비 위원회가 인민 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국순홍, 김백동, 유치오, 임태오, 임영춘, 최규문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목포의 일본인들이 부산에 집결하여 한국을 떠나는 동안, 고국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목포를 통해 귀환했다. 이들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상당수가 목포 시내에 머물면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임태오가 이끄는 150여명의 인민 위원회의 치안대는 10월 중순까지 목포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10월 18일 미군 6사단 제20연대의 55군정 중대가 목포에 진주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미군정은 인민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목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군은 11월 14일 목포인민 위원회의 해산을 명령했고, 16일과 23일 인민 위원회 사무실을 급습하여 관계자를 연행하고 기물을 압수했다. 결국 1946년 1월 미군정은 인민 위원회와 청년동맹, 노동조합 등을 급습하여 치안 대장 출신인 목포경찰서장 임태오 등을 체포하여 인민 위원회의 기반을 완전히 해체했다. 1946년 2월 목포 지역

01)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람』44, 217쪽.

02) 김점숙, 「1930년대 전남지방 혁명적 농민조합 연구」,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울아카데미, 1992, 37~38쪽.

03) 『자유신문』 1946. 03. 06.

04) 이기훈, 『일제하 광주·전남의 민족운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05) 『동아일보』 1938. 07. 25.

인민 위원회와 청년동맹의 주요 간부들은 재판에 회부되어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⁰⁶⁾

한편 해방 직후 좌익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우익 진영은 1945년 12월말부터 반격에 나섰다. 연말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 세 나라 외무장관들이 모여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 방안을 결정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한국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 임시 민주 정부를 세우고 이 임시 정부와 미·소가 협력하여 완전한 자주정부를 구성하기 전까지 신탁 통치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우익 진영에서 이 신탁 통치안이 식민 통치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며 ‘반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대해 좌익은 ‘임시 민주 정부’의 구성을 강조하며 삼상회의 결정 지지를 선언했고, 우익과 좌익은 전면적으로 충돌했다.

목포에서도 1946년 1월 12일 우익 세력이 결집하여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목포 위원회가 결성되어 14일 반탁시위를 일으켰다.⁰⁷⁾ 이에 대응하여 좌익 정당과 사회 단체들은 1946년 3월 7일 목포극장에서 목포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을 결성했다. 목포의 좌우익도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4월 15일 독립축성국민회(독촉국민회) 목포지부가 목포극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을 때 목포상업학교의 좌익 학생이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반대로 5월 17일에는 독촉국민회의 청년들이 조선공산당 목포 지부 사무실을 습격하여 양쪽 군중이 충돌하기도 했다.⁰⁸⁾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1946년 3월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미소공위)를 열었다. 그러나 미소공위와 협의할 정당 사회 단체의 범위를 놓고 대립을 거듭하다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이후 우익의 공세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1946년 4~6월 이승만은 남부 지방을 순회하며 우익 세력을 결집하고 세력을 강화했다. 이 ‘남선순행’을 계기로 독촉국민회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이 좌익으로부터 주도권을 탈취하려 했고, 좌익이 여기에 대응하면서 정치 세력 간의 물리력 대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목포에도 1946년 8월 천진철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민당 지부가 결성되었다.⁰⁹⁾

미소공위의 결렬, 우익의 공세, 미군정의 탄압 등 여러 면에서 압박을 받던 조선공산당은 7월말 이른바 “정당방위의 역공세”를 주장하는 신전술을 채택했다. 좌익 진영이 반격에 나선 것인데, 조선공산당의 신전술은 곧 9월 총파업과 10월의 전국적인 폭동으로 이어졌다.

9월 23일 철도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이 벌어지고 10월 들어서 대규모의 시위와

06)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332쪽.

07) 『조선일보』 1946. 01. 19.

08)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34쪽.

09) 『동아일보』 1946. 08. 14.

폭동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었다. 목포에서도 격렬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946년 10월 31일 새벽 군중이 남교동 파출소를 습격하여 불을 질렀다. 목포 시내 중등학교 학생 수백 명이 목포역 앞에 모여 가두행진을 벌였고, 노동자 수백 명도 해안통 항무청 근처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오전 9시 학생들과 목포민주청년동맹원 700여명이 파출소 세 곳을 습격했다. 격렬한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시위 군중 2명이 사망했다. 이날 검거된 사람만 8명이었다. 목포의 경찰력만으로 시위를 진압하기 역부족이어서 미군 부대가 목포에 파견되었고 광주에서도 경찰 병력이 증파되었다. 미군과 경찰 지원 병력이 도착하자 시위대는 해산되었지만, 목포 전화국 교환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날 무안군 일대에서도 좌익이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좌익 주도 하에 군중들이 경찰 지서 두 곳을 습격했으며, 이 와중에 경찰관 4명이 납치되었다. 무안군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미군정 공보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가 7명이나 되었고 중상도 7명이었으며, 23명이 검거되었다. 미군정은 목포 시내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경찰서 주변에는 교통이 차단되었고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었으며, 무장 경찰들이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계속 순찰하고 있었다.¹⁰⁾

다음날인 11월 1일에는 목포와 주변 지역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미군정과 경찰은 시위와 폭동 주모자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목포민주청년동맹 위원장이던 송재경이 광주에서 체포되었다.¹¹⁾ 미군정, 경찰, 우익 정치 단체들이 검거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했다. 목포에서도 한민당, 독립촉성국민회(지부장 이남규) 등 우익 정당과 단체들이 세력을 강화했고, 경찰과 협력하여 좌익을 축출하고 지역 사회를 확실히 장악해 갔다.

좌익 측에서도 전선을 정비하려 노력했다. 1946년 11월 조선공산당, 신민당, 인민당 등 좌익 정당들이 합당하여 남로당을 결성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여운형은 근로인민당을 따로 결성하고 1947년 1월 목포 방문 계획을 세우는 등 호남 지역에도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다.¹²⁾ 한편 미군정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국대안 반대운동이 목포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1947년 2월 17일 목포공업중학교 학생들이 국대안 반대를 주장하며 동맹 휴학에 돌입했던 것이다. 미군정은 2월 19일 목포공업중학교를 휴교 처분했다.¹³⁾ 3월 7일 다시 학교 문을 열었으나 절반 정도의 학생만 등교하는 등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었다.¹⁴⁾

10) 『자유신문』 1946. 11. 02.; 11. 03.; 11. 05.

11) 『동아일보』 1946. 11. 13.

12) 『자유신문』 1947. 01. 12. 실제로는 김규식과 면담 때문에 불발되었다.

13) 『자유신문』 1947. 02. 25. 신문 보도에는 폐교라고 했으나 학교 인가를 취소하는 폐교가 아니라 일시 휴교였던 것 같다.

14) 『동광신문』 1947. 04. 10. 경찰에 체포된 맹휴 주동학생들은 재판에 회부되어 흑산도의 감화시설에 수개월씩 감금되는 처벌을 받았다.

1947년 5월 1일 메이데이에도 시위가 벌어졌다. 남로당이 400여명 군중을 동원하여 목포 시내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전단과 포스터를 살포했고, 목포항에서는 8척의 배가 해상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1946년 하반기 이후 좌익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고 있었다. 1947년 메이데이 시위 과정에서 남로당 지도자가 극우 청년 단원들에게 맞아 숨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좌익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민주청년동맹 등 좌익 조직들은 강제 해산 당했고, 새로 조직을 만들었지만 크게 약화되었다. 대규모 구속과 지도부의 붕괴, 우익 정치 세력의 공세, 경찰의 감시와 탄압, 청년단의 테러가 좌익을 압박했다.

이에 비해 우익의 힘과 영향력은 날로 강화되었고 특히 극우 청년단들이 극성이었다. 목포에는 민족청년단,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등 우익 청년단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단원들이 많았다.¹⁵⁾ 서북청년단은 1947년 6월 목포의 좌익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서 내려왔다. 서북청년단 목포지부 결성식에는 목포 경찰서장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이 참여했으며 이후 세력을 계속 확대했다. 이들은 무고한 시민을 공산당이라고 함부로 끌고 가 폭행하기도 했고, 순찰하는 해안경비대원들을 구타하는 등 말썽을 일으켰다. 대동청년단도 서울에서 조직원을 보내 11월 초에 목포지부를 결성했다. 서로 경쟁하던 두 청년단이 자주 마찰을 빚었고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등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1947년 전국적으로 우익 청년단의 정치 테러가 급증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민족전선 조사가단이 현지 조사에서 나섰다가 목포에서 테러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¹⁶⁾

2) 미군정기 목포의 사회 경제

전형적인 식민지 항구였던 목포는 해방 이후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선 도시의 인구 이동 자체가 극심했다. 정치적 격변이 인구 구성 자체를 변화시켰다. 목포 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시내 중심가와 노른자 위 주택가를 차지했던 일본인들은 해방 이후 석 달 안에 모두 일본으로 떠났다. 반면에 새로운 사람들이 목포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생활 근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우선 징용이나 징병으로 중국,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등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왔고, 만주로 농업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도 농장이 해체되며 돌아 왔다. 다수는 고향을 찾아 갔지만, 일부는 목포에 남았다. 또 농촌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도시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 1947년 이후 북

15) 임나영, 「1945~48년 우익 청년단 테러의 전개 양상과 성격」, 『한국사론』5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17, 432~433쪽.

16) 『자유신문』 1947. 06. 14.

한의 정치적 변화와 흉년이 겹치면서 월남민이 크게 늘었다. 이들 중 일부가 목포로 유입되었는데 1949년까지 약 1,000여 명이 들어왔다.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당장 정착할 집도 없었다. 목포부 당국이 망운 비행장에 가건물 50동을 지어 일단 이들을 수용하고, 전쟁동포 원호회에서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었다. 일본인들이 떠났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목포의 인구는 1949년까지 12만으로 늘었다. 제대로 된 도시 계획도 없이 도시 인구 50%가 늘어난 셈이니 도심의 슬럼화를 피할 수 없었고, 도시 기반 시설이 극히 부족했다. 특히 일본과 교역이 끊기면서 도시의 산업 기반이 사라진 상태에서 인구 증가는 혼란을 초래했다.

도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었다. 특히 미군정의 경제 정책 실패가 큰 원인이 되었다. 일제는 전시 체제 하에서 강력한 통제 경제를 실시했다. 특히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식량 공출과 배급 제도를 실시하여 국가 권력이 식량 수급을 독점하고 통제하고 있었다. 독점적인 수급망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방 이후 미군정은 자유 시장 경제를 곧바로 구성하려 했다. 시장 기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식량 수집과 유통 기구는 소수의 손에 장악당했다. 당시에 “모리배”라고 불린 소수의 지주나 자본가들이 식량을 매점매석했다. 1945년 가을의 작황이 비교적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1945년 말부터 도시의 식량난이 극심했다. 미군정 당국은 다시 공출과 배급 제도를 시행했으나, 농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배급량은 턱없이 모자랐다.

유동인구의 증가, 도심의 슬럼화, 식량 부족 등의 조건 하에서 도시는 공중위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적 혼란 속에서 검역이나 보건 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전염병이 돌았다. 1946년 5월 콜레라가 들어와 확산되었는데, 부산과 대전, 목포, 마산, 인천 등 항구 도시와 교통 요지에서 만연하기 시작했다. 목포부 당국은 콜레라 전염을 막기 위해 광주 송정리와 목포 간 철도와 도로 교통을 통제하기까지 했으나 6월 중순까지 목포에서만 3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6명이 목숨을 잃었다.¹⁷⁾

2.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

1) 5·10 선거

1947년 2차 미소공위마저 결렬되자 미·소의 협력에 의해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고, 1947년 11월 유엔은 인구 비례에 의

17) 『동아일보』 1946. 06. 15.

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소련이 이 결의를 거부하자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우익 정치 세력 중에서도 김구, 김구식 등은 남한만의 총선거에 반대하여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승만과 한민당 등은 남한 지역만의 정부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좌익 세력은 사활을 걸고 단독 정부 수립 저지에 나섰다. 남로당과 민전은 1948년 2월 7일 이른바 '2·7 구국 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파업, 동맹 휴학, 시위, 봉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목포에서도 철도와 통신, 부두와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정작 노동자들은 미소 양군의 철퇴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도 했으나, '쌀을 줄 것이냐, 죽음을 줄 것이냐'는 경제적 요구가 많았다. 미군정의 거둬들인 경제 정책 실패, 기대에 못 미친 사회 경제적 개혁 등에 대한 불만이 민중 저항의 원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¹⁸⁾ 그러나 이미 약화된 좌익의 세력은 이후 거의 공개적인 투쟁을 하지 못했다. 제헌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5·10 선거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4월 중 몇 번 목포 유달산이나 죽교동 앞 산 등에서 봉화를 올리고 인민 공화국 만세를 부르는 일이 있었지만 금방 관련자가 체포되고 무산되었다.¹⁹⁾

한편 우익은 점점 세력을 과시했다. 1948년 2월 29일 목포 시장, 공무원, 무장 경찰을 포함한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우익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공산주의와 대결하기 위해 선거를 즉각 실시하고 정부를 세울 것을 주장했다. 단독 정부 수립 정국을 주도하던 한민당은 각 지역에 대표적인 출신 인사들을 보내 선거 분위기를 고취했는데, 목포에는 영암 출신의 김준연이 내려 왔다. 1948년 4월 김준연은 소련이 조선 주권에 개입하려 하므로 남한만이라도 유엔 결의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며, 북측의 공작은 소련이 우리를 자기네 연방의 한 부분으로 하려는 야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²⁰⁾

5·10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목포의 등록 유권자는 약 4만여 명이었고, 4월 6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선거 전날인 5월 9일 목포부청 문서고에 괴청년들이 침입하여 투표용지와 선거 서류 일부를 불태우기도 했고, 선거 당일에도 투표장에 권총을 든 괴한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전체적인 진행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선거 결과 목포 건국 준비 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과도 입법 의회 의원이기도 했던 독립촉성국민회 소속 이남규가 당선되었다. 독립촉성국민회는 이승만 직계에 해당했으며 제헌 의회 의석 200석 중 55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초대 제헌 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7월 20일 원내 선거

18)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실천문학사, 1991, 18~19쪽.

19) 『자유신문』 1948. 05. 01.

20) 『동광신문』 1948. 04. 09.

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했다. 8월 1일 이범석이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9월 13일에는 행정권 이양이 완료되었고, 10월에는 각 도지사가 임명되면서 정부 수립이 마무리되었다. 전라남도지사로 국회의원 이남규가 임명되자 목포 지역구가 비게 되었고, 1949년 1월 15일 보궐 선거가 실시되어 강선명(姜善明)이 당선되었다.²¹⁾

정부 수립 이후 남로당은 본격적인 무장투쟁으로 전환했다. 194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후에 '인공기 계양 투쟁'을 지령하기는 했으나 10월부터 당원들에게 입산하여 유격투쟁을 벌이도록 했다. 1949년 전남도당은 모든 조직을 유격투쟁 형태로 개편했다. 북부지구, 광주지구, 지리산 지구 등에 유격 활동을 벌이는 인민유격대 병단 조직을 만들고, 전남 곡성, 나주, 순천, 보성 등지에서 유격대가 군경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원래 조직 가운데 실제 입산한 세력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1949년 겨울 군경의 동계 토벌 작전 이후 호남유격전구는 크게 약화되었고, 일부가 소부대로 흩어져 명맥을 유지했으나 실질적으로 소멸했다.²²⁾ 도시 지역의 지하 조직도 완전히 붕괴되었다. 목포 인민위원회 치안대장 출신으로 남로당 중앙간부였던 임태오가 1949년 4월 체포되었다.²³⁾ 1949년 8월 3일에는 경찰이 남로당의 목포 아지트를 급습하여 조직원을 사살했고, 9월 18일에는 군경이 함평군 학교면 산옥리에 남로당 인민유격대 아지트를 급습하여 남로당 목포시 총무부장 문병태 등 조직원들을 사살했다.²⁴⁾

1949년 9월 14일 저녁 목포형무소 수감자들이 대규모로 탈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목포형무소는 목포영사관 감옥에서 출발했다. 1914년 현재 목포시 산정동 일대에 건물을 준공했고, 1923년부터 목포형무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해방 이후 좌우익 대립이 격렬해지는 1946년부터 수형자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특히 1948년 제주 4·3과 여순 사건에 관련된 죄수들이 목포형무소에 많이 수감되었다. 1949년에는 일반 재판과 군법 회의를 통해 약 600명의 제주 4·3 관련 죄수들이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여순 사건 등 전남 지역 정치범 중 상당수가 목포형무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1948년 이후 정치범들이 대규모로 늘어나면서 목포형무소의 수용 실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1949년에는 최대 600명 수용 시설에 1,421명 수용되다보니 누울 수가 없어 앉아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한 방에 30~40명씩 수용하기도 했다. 의료 시설은 제대로 없었고, 경비 및 관리 인력도

21) 『자유신문』 1949. 01. 31.

22)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개, 1984, 412~419쪽.

23) 『자유신문』 1949. 04. 10.

24) 『호남신문』 1946. 08. 06.; 1949. 09. 21.

태부족이었다. 9월 14일 밤에 노역을 나간 120여 명의 재소자들이 집단적으로 탈옥을 주도하고 공장 출역 갔던 재소자 수백여 명도 여기에 참여했다. 형무소 내에서 교전이 벌어졌고 형무관 5명과 재소자 58명이 사살되었고 400명 이상이 탈옥했다.

주로 형무소 복문을 통해 탈옥한 죄수들은 공동묘지와 해변, 시가지로 달아났다. 사건 발생하자 바로 지역 군과 경찰, 헌병대는 물론이고 소방대, 대한청년단, 철도 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비상경계망이 펼쳐졌다. 9월 14일 밤 10시까지 탈옥수 80여 명이 사살 또는 체포되었으며, 15일 새벽 2시에 함평경찰서 경찰대가 목포보안서 간부였고 좌익청년운동에 참여했던 주모자 서기오를 체포했다. 9월 17일에는 목포 시내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오전 3시부터 10시까지 군경과 청년단원 6,000명을 동원하여 가가호호 검색을 실시했다. 이 와중에 다수의 탈옥수들이 사살되거나 검거되었으며, 또 다른 주모자인 김두주도 체포되었다. 9월 23일까지 85명의 탈옥수가 체포되고, 298명이 사살되었으며, 10명이 자수했으며, 체포하지 못한 사람은 23명이었다. 한편 일부 군경은 수색 과정에서 사살된 탈옥수의 시신을 반이승만 성향의 정당 관계자들의 집 앞에 일부러 버려두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또 탈옥수들이 옷을 바꿔 입은 나환자촌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²⁵⁾

2) 농지 개혁의 실시

토지 개혁은 해방 직후부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손꼽혔다. 좌익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무조건 무상 몰수하여 무상 분배하는 토지 개혁안을 제시했고, 지주와 자본가들이 중심이 된 한민당 등 우익 세력은 토지 개혁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유상 몰수 유상 분배안을 제시했다. 1945년 11월 미군정이 일본인 지주나 토지회사에서 몰수한 귀속 농지를 신한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기구를 그대로 이어 받아 활용했다. 신한공사 목포 지점에서 농지의 소작료는 생산량의 1/3이었고, 미곡 공출에서 수집도 담당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시행되고 남한에서도 토지 개혁의 요구가 높아지자 미군정은 1948년 3월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귀속 농지를 농민들에게 불하했다. 정부 수립까지 귀속 농지는 86%가 불하되었다. 또 5·10 선거에서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토지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므로 토지 개혁은 불가피했다. 결국 1949년 4월 농민이 연평균 생산액의 125%를 5년에 걸쳐 상환하고 지주들에게는

25) 목포형무소 탈옥 사건에 관해서는 김양희, 「1949년 목포형무소 집단탈옥사건」,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4; 박찬식, 「제주 4·3사건 관련 목포형무소 재소자 연구 -행방불명자 규명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30, 호남사학회, 2007. 참조.

150%를 5년간 보상하는 농지 개혁법이 통과되었다.²⁶⁾ 논밭의 최고 소유 면적은 3정보로 정해졌으며 실제로 1950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농지 개혁이 진행되었다. 목포에서는 약 30명의 개인 및 법인 대지주들이 20정보 이상의 토지를 분배 당했는데, 선일척산이나 상성회사 등 회사법인, 문태중학교 등 학교 법인 등의 토지가 분배 대상이 되었으며 개인 지주들의 토지는 대개 60정보 이하로 농지 개혁 이전에 토지를 방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분했음을 알 수 있다.²⁷⁾ 농지 개혁으로 지주층은 사라졌지만 영세한 농민들이 토지 자금을 상환하는 데 큰 부담을 지면서 빈곤화가 심해졌고, 한국 전쟁 기간 중 인플레이션으로 지주의 산업 자본 전환은 원활하지 못했다.

3) 6·25전쟁

김일성 등 북한 정권의 핵심은 1949년부터 공세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혁명을 수행하고자 했고, 1950년 들어 소련과 중국의 동의를 얻었다. 6·25전쟁이 시작되었고, 국군의 방어선은 급격히 무너졌다. 이승만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전쟁 지휘도 초반 혼란의 큰 원인이었다. 7월 20일 북한 인민군이 대전을 함락했고 미군은 경상도 방면으로 철수했다. 국군은 중부와 동부 전선에 주로 배치되어 있어 1950년 7월 하순 실질적으로 호남 방어 병력은 제대로 없었다. 7월 17일 국군 7사단, 5사단 일부 병력으로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가 편성되었으나 급히 모병한 신병으로 구성되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병력이라 급격히 무너졌다. 7월 20일 전주가 함락되었고 7월 23일 광주가 점령되었으며 서해안 지구 사령부는 26일 여수를 거쳐 부산으로 퇴각했다. 24일 인민군이 목포에 진입했고 목포 시민 중 일부는 주변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기도 했다. 인민군 점령 하의 목포에는 노동당 지부와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목포의 인민군 점령 기간은 약 70일 정도에 불과했다.

한편 전쟁 기간 동안 민간인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후퇴하던 국군이 목포 형무소의 좌익 사범이나 보도연맹원들을 불법적으로 학살했다. 1949년의 대규모 탈옥 사건 이후에도 목포형무소에는 약 1,000명의 죄수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1950년 7월 23일 인민군이 광주에 진입하던 시점에 해군경비사령부가 소개 명령을 내리자 형무소는 일반 수형자는 일시 석방하고, 직원들은 부산으로 철수했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 이후 법무부는 사상범들은 군에 인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교도관들은 제주 4·3 관련자, 여순 사건 관련자,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사상범들을 군

26) 실제로는 상환액과 보상액을 동일하게 하는 1950년 3월의 개정법률에 의해 진행되었다(강만길,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232~237쪽).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1985, 59~60쪽.

인들에게 인계했다. 군인들은 이들을 트럭에 싣고 사라졌다. 현재 진실 화해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진 사람만 39명이 이때 사라졌으며, 제주 4·3 사건 관련자 중 1949년 탈옥 사건으로 처형되지 않은 사람들과 목포 인근에서 보도연맹원으로 연행되어 목포교도소로 넘겨진 사람 등이 모두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⁸⁾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목포의 우익 인사들이 대규모로 학살당했다. 8월부터 목포시 인민 위원회가 우익인사들을 검거했고, 9월 유엔군의 인천상륙과 반격이 본격화되자 학살이 시작되었다. 연동 미곡 창고에 수감되어 있던 우익 인사들이 우선 살해당했고, 목포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도 석현동에서 학살되었으며 10월 2일 인민군과 좌익이 영광 방면으로 퇴각하기 전에는 우익 인사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 10월 2일 국군이 목포에 상륙했으나 이번에는 부역자 색출과 처벌이 시작되었다. 인민 위원회 등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목포의 모든 시민에게 인공 치하의 행적에 대한 자술서를 쓰게 하고 밀고를 권장했다. 초기의 부역자 처벌은 고발이나 혐의만으로도 이루어졌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었으니 자의적인 폭행이 난무했다. 좌우익의 거듭된 불법적인 학살과 복수, 처벌은 시민들의 희생과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왔다.

4) 1950년대 목포의 변화

1950년대부터 목포는 야당색이 강한 도시였다. 1952년 이승만을 이룬바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출을 직선제로 바꿨다. 바뀐 헌법으로 실시한 2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목포에서도 이승만에게 과반수 이상의 지지표가 나왔다. 그러나 다른 선거에서는 여당인 자유당이 연패를 거듭했다. 1952년 지방 선거에서 여당에 협조하지 않던 하동현이 목포시장에 당선되었다. 자유당에서 목포시장에 대한 불신임 공작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론의 역풍만 불러 일으켰다. 1954년, 1958년 선거에서도 야당 후보들이 계속 당선되었고,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목포의 유권자들은 이승만보다 조봉암에게, 이기붕보다 장면에게 더 많은 표를 주었다. 자유당 정권은 목포 시민들에게 선거 패배의 보복을 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행정권을 동원해 갖가지 치졸한 방법으로 시민들을 괴롭혔다. 각종 세금 독촉장이 난무하고 경찰서는 온갖 업종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사실 1950년대 목포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40년대까지 목포는 호남 지역의 쌀과 면화를 반출하는 식민지 항구였지만, 또 한반도, 일본, 중국을 연결하는 국제 항로 상의 주요한

28) 6·25전쟁 발발 당시 목포형무소에는 4·3 관계자 및 좌익수들이 다수 수감되어 있었고, 제주 4·3 관계자만 4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후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제주 4·3 관련자 중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형무소, 전주형무소 등의 사례에 비해 전쟁 직후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보고서』4, 2012, 515~530쪽; 박찬식, 앞의 논문).

항구였다. 그러나 일본과 교역 중지, 중국의 공산화, 남북한의 분단 등 여러 조건이 항구로서 목포의 위상을 급격히 하락시켰다. 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었으나 그 중심 항구는 부산과 인천이었다. 목포의 수출입은 급감했고 6·25전쟁 이후의 하역 능력이 해방 직후보다 반으로 감소할 정도로 위축되었다.

이 속에서도 섬유,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귀속 산업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대한조면공사나 동양면업공사 등 면업 관련 회사 등 목포를 대표하는 섬유 공업 회사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를 복구하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었다. 한편 행남사 등 도자기 공업, 조선내화 등 화학 공업 등의 분야에서 일부 자본들이 부흥을 시도했으나 전반적으로 산업 네트워크가 붕괴된 목포 지역의 산업은 위축되었다. 특히 미국의 원조가 부산, 인천 등의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경부축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현상은 심해질 터였다.

이기훈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제2절 1960~1970년대 지역의 차별과 목표의 침체

1960~1970년대의 산업화는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발전 구도와 지배 및 위계의 구조를 결정했다. 이 시기 군사 정권은 경제 개발과 국토 개발 등 ‘개발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의해 철저히 총액 중심의 목표 달성 전략을 수행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미리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자본과 인력을 기존의 경부축을 중심으로 투입했다. 호남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력했다.

1. 편중된 교통망

호남 지역, 특히 목포의 경제적 침체와 위기는 1960년대 이전부터 심화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목포는 항구로서의 기능도 약화되었고 마땅한 공업 기반도 없으면서 인구는 늘어나는 ‘산업화 없는 도시화’의 전형적인 지역이었다. 농업 기반이나 국제적 교역항으로서 위상 약화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교통망 구성에서 소외는 심각했다. 특히 1960년대 말 급격한 수출 중심 산업화로 도로와 철도망을 재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호남의 소외에 대한 불만도 폭발했다.⁰¹⁾

호남에 대한 개발 공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부분 실제로 제대로 진행할 의지가 없는 ‘공약(空約)’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것이 호남선 복선화였다. 경부선 철도는 이미 1945년에 전구간이 복선화되어 있었지만, 호남선은 여전히 단선 철도이었다. 1960~1970년대 호남선 철도는 이미 소외와 가난의 상징이 되고 있었다. 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선 복선화와 서울-목포 간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⁰²⁾ 그러나 처음부터 정부 여당은 전혀 실현 의지가 없었다. 선거가 몇 달 지나지도 않은 1967년 8월 대통령은 철도 건설 비용을 고속도로로 전환하라고 했으며, 1968년 1월 19일에는 교통부 연두 순시에서 호남선 복선화계획을 ‘호남고속도로 계획과 연관 아래 건설부와 협조’하라고 했다.⁰³⁾ 호남선 복선화를 중단하고 그 예산을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하라는 것이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1971년까지 25km 구간을 복선화했다. 전남북의 도로망도 대부분 일제 시기의 신작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포장도로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거의

01) 『동아일보』 1970. 08. 27.

02) 『동아일보』 1967. 04. 27.

03) 『경향신문』 1968. 01. 19.; 『동아일보』 1968. 01. 19.

대부분이 자갈 도로였다. 광주와 목포를 잇는 국도 1호선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곳곳에서 대형 차량 두 대가 교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표 1 1971년 현재 지역별 도로 포장률

	포장도로 비율	자갈도로 비율	미개수 도로 비율
전국	14.2%	78.0%	7.8%
전남	6.1%	89.0%	4.9%
전북	6.0%	85.0%	9.0%

자료: 『한국통계연감』 1973년에서 재작성.

전남 지역에서도 여수를 중심으로 공업 지역이 개발되기는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울산-부산-마산을 잇는 남해안권의 연장선에 있었다. 1969년 정부는 호남정유공장의 준공에 맞춰 여수-광주-목포를 잇는 전남의 3각 공업 지대를 건설하겠다고 선전했지만,⁰⁴⁾ 구체적인 자금 투입 계획을 확정한 것도 아니었다.

이미 1960년대 말부터 각계각층에서 저개발과 지역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제기되었다.⁰⁵⁾ 이런 주장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려 했지만, 물적 인적 자원을 실질적으로 대량 투입하지는 않았다. 결국 임시방편의 대책은 지역 불균형만 심화시켰다.

호남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⁰⁶⁾ 호남선 복선화도 미루고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 마당에 호남고속도로 건설을 완전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다. 정부는 1970년 호남고속도로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의 경부고속도로에다 대전-전주의 79km 구간 만 건설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호남’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웠다. 이 도로조차 제대로 된 고속도로라고 보기 어려웠다. 노폭도 좁고 입체 교차로는 부족했으며 급격한 곡선 구간도 많았다. 경부고속도로는 건설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기까지 했으나 호남고속도로는 투자를 줄여서 완성했다. 어쨌거나 1970년 12월 30일 호남고속도로가 ‘연내’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해(1970년) 초 발표된 국토 종합 개발계획의 고속도로망 구상에서는 원래 대전-광주는 물론이고, 전주-군산 간, 광주-목포간 고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다. 먼저 1974년까지

04) 『경향신문』 1969. 05. 11.; 『동아일보』 1969. 06. 04.

05) 『동아일보』 1970. 09. 01.

06) 이하 호남고속도로 건설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기훈, 「차별의 실제 -호남고속도로의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46, 이화사학연구소, 2013. 참조.

나주-성전 간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이후 목포-순천 간 도로를 개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 망을 바탕으로 목포, 광주, 순천을 연결하는 전남의 삼각공업지대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이었다.(지도 하단에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 지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목포 간 고속도로 건설은 아예 포기되었고, 당연히 전남 공업 지대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다. 호남고속도로는 서해안 항구인 목포와 연결되지 않고 순천, 여수를 통해 남해안 고속도로로 연결되거나 대전을 거쳐 경부고속도로망에 직접 흡수되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강력한 경부고속도로가 등골이 되고, 영동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는 여기에 연결되는 형태로 전국의 고속도로망이 구축되었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육상 교통의 중심은 철도에서 고속도로로 급격히 이동했고, 고속도로망에서 소외된 호남, 특히 목포는 점점 더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

国土綜合開發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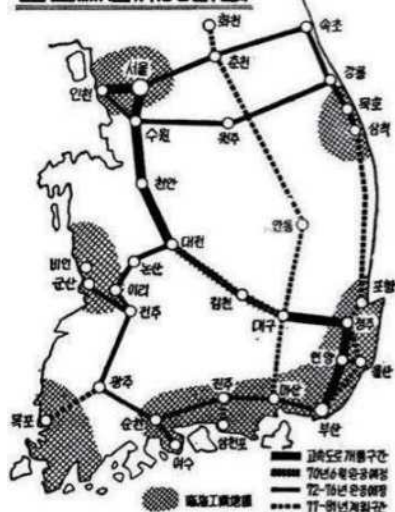


그림 1 1970년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고속도로망
(『동아일보』 1970. 01. 14.)

2. 개발 배제와 경제 침체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는 처음부터 목포 같은 서해안 권역에 울산이나 창원 같은 대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은 없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영산강 유역의 서남권 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위주의 공단 건설, 수산업 개발, 영산강유역개발계획 등이 입안되었으나 그것도 실현이 지체되었다. 영산강유역개발계획은 1963년 예비조사가 실시되어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1967년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정부는 개발 자금이 없어 차관을 들여올 때까지 개발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어업이나 수산업 진흥 계획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1960년대 후반 흑산도 어업 전진 기지 건설, 북항 개발 등의 공약도 주민들의 기대만 키웠지만 막상 실현되지는 않았다.⁰⁷⁾ 1969년 목포 어업 조합에서 목포 종합 어시장을 준공하여 그나마 수산업 유통은 활성화되었지만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과 장비의 노후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1960년대 목포는 특별한 산업 기반도 없이 도시의 규모만 확대되었다. 그러다 보니 2차 산업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만 커졌다. 1940년 10.7%였던 2차 산업종사자 비중은 1960

07) 『전남일보』 1968. 02. 21.

년에는 5.9%로 줄었다. 시역이 확대되어 농촌 지역이 편입된 탓이기는 하지만, 1차 산업 비중이 1940년 4.2%에서 1970년 17.4%로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기반 없이 도시가 확대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없으니 도시 기반 시설은 더욱 열악해져갔다.

1970년대 초반 유가가 급격히 오르는 석유 파동과 불경기가 목포 지역 경제를 강타했다.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목포항의 부두 노동자들이 바로 타격을 입었고, 게다가 1972년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던 삼학양조가 파산하면서 연쇄적인 기업의 휴폐업을 불러왔다. 삼학양조는 1965년 한때 소주 최고 생산 실적을 올리기도 했고, 소주, 청주, 탁주 등을 주류 업계의 수위를 다투는 대기업이었다. 1971년 11월 납세필증을 위조하여 역대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사장 등이 구속되었고, 경영난에 빠져 6개월만인 1972년 5월 회사의 문을 닫았다.⁰⁸⁾

목포에 공단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12월이었다. 당시 무안군 이르면 일대 하당 13만평의 임해 공업 단지가 1972년 말 준공되었다. 목포의 임해 공업 단지에 공장이 들어선 것은 1972년이였다. 대기업 공장들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으나, 주된 입주 업체들은 농수산물물을 가공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식품업체나 주변 농촌에 농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등이었다. 목포 임해 공단의 공장 입주가 완료되는 것은 1981년이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 불황을 견디지 못한 일부 기업이 노동자 50%를 감원하는 등 파란을 겪기도 했다.⁰⁹⁾

목포의 가장 큰 문제는 항만 개발이었다. 1969년 북항 개발 계획이 세워졌으나 1973년까지 공정의 10%밖에 진척되지 않았다. 수출 최우선의 경제 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선박이 나날이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구가 개발되지 않으니 목포항은 대형 선박이 아예 들어올 수 없었다. 대형 화물선은 고사하고 원양 어선도 제대로 정박하지 못하는 항구에 연안 어선들만 가득했으나 이 배들조차 노후하여 항구의 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도시가 만들어진 이후 목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상수원의 부족과 홍수 통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영산강 종합 개발은 재정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졌고, 여름마다 물난리와 식수 부족을 함께 겪어야 했다. 영산강 유역의 종합 개발은 197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영산강 개발은 결국 세계개발은행(IBRD) 차관을 들여와 시작되었는데, 먼저 영산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목포와 직접 관련된 영산강 하구언 사업은 1972년 2단계 사업의 핵심으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다. 1974년 세계개발은행 부총재의 현지 조사와 계획 수정까지 완료한 다음, 차관과 국내 자금이 함께 투입되었다. 영산강 하구언 공사는 1978년 1월 착공하여 1981년 3월 완공되었다.

08) 『경향신문』 1971. 11. 25.; 『매일경제신문』 1972. 05. 31.

09) 『경향신문』 1979. 08. 01.

무안과 영암 사이 영산강 하구를 막아 목포 지역의 홍수를 조절하고 농업용수 및 상수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영산강 하구 개발은 우선 목표는 달성했지만, 강 하구의 수산 자원이 상실되고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목포공단의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중앙의 정책 담당자들은 목포공단을 서울 공해 업체가 이전할 지방 공단 중 하나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고, 목포시에서는 당장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¹⁰⁾

산업 기반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나, 도시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다. 워낙 시가지가 좁았던 목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삼학도 부근의 공유 수면 매립을 시작하여 1970년대 일부 완공되었고 신시가지 조성이 시작되었다. 1977년 10월 목포시의 인구가 20만 명을 돌파하는 상황이었으니, 우선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1969년부터 하당지구, 북항지구 등에 대한 주택 단지 조성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삼학도 주택단지, 용당아파트, 신용해아파트 등이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대반동, 북교동, 남교동 같은 일제강점기의 시내 중심지의 인구가 줄고 산정동, 용당동 등 신시가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산업화 없는 도시화’의 전형적인 현상이었지만, 인구의 집중과 교육열은 1980년대 목포 지역의 본격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3. 지역 정치의 전개

1960년대 초반까지 전남의 농촌 지역은 여당인 공화당이 석권하고 있었고, 목포나 광주 같은 도시에서는 야당이 우세했다. 이른바 ‘여촌 야도’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선거에서 뚜렷한 지방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목포에서도 역대 대통령 선거나 국회 의원 선거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두드러졌다. 목포의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67년 총선거부터였다.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가 1963년 민정 이양을 선언하고 공화당을 창당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삼선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박정희가 계속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1969년 선거 전에 개헌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67년 총선거에서 공화당은 개헌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고, 도처에서 부정 선거가 행해졌다. 그중에서도 주목받는 야당 정치인인 김대중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은 물론, 박정희와 행정부가 직접 나섰다. 1967년 6월 8일이 선거일이었는데, 5월 25일 박정희가 목포에서 국무총리, 부총리, 주요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국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명백히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었으나 목포 현지에서는 이보다 더한 부정선거가 횡행했다. 시청과 경찰이 직접 나서서 관권 선거였지만, 신민당 후보인 김대중이 국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10) 『매일경제신문』 1973. 09. 27.

결국 박정희와 공화당은 삼선 금지 조항을 없애는 개헌을 추진했고, 전국적인 반대운동을 억누르고 개헌에 성공했다. 그러나 삼선개헌 이후 치러진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놀라운 선전을 보였다. 4강대국 안전 보장, 예비군 폐지, 대중 경제 등의 정책 공약은 유권자들의 큰 지지를 얻었고, 박정희 정권은 선거 막판에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선거 공작까지 벌여야 했다. 이 선거는 1960~70년대 정치 풍토에서 보기 드문 정책 대결이 이루어진 선거지만, 동시에 지역감정을 선거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선거까지만 해도 목포에서 김대중 후보가 약 33,000여 표, 박정희 후보가 18,000여 표를 획득하여 지역 몰표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어서 치른 총선거에서도 신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고 신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를 구축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없앴고 국회 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나머지 국회 의원도 한 선거구에서 두 사람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하자 실질적으로 여당 한 사람, 야당 한 사람이 국회의석을 나눠 가지게 되었다. 목포와 주변 농촌 지역이 한 지역구가 되면서 유신체제 하에서 공화당 후보가 1등을 하는 현상이 1972년 이후 계속되었다. 1970년대 목포와 호남 지역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심화되면서 여당 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되어야 지역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유권자들로서는 지역 개발과 민주주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었다.

이기훈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제3절 1980년대 이후 목포의 새로운 도약

1. 목포항의 부활과 도약의 준비

1980년대 초반까지도 목포항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변의 큰 섬들에 연륙교가 건설되어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섬의 항만들이 경쟁자로 부상했다. 제주도로 가는 항로도 직항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감소했다. 목포항의 물동량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때때로 줄어들기까지 하여 1983년 입항 물동량으로는 전국 9위에 불과했고, 출항 물동량으로는 더욱 추락하여 전국 12위에 머물렀다. 1980년대 초에도 유류, 시멘트, 철재, 무연탄 등이 주된 화물이었는데, 이런 화물들은 목포와 주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1980년대 초 전국 여객선의 30%가 목포항을 기점으로 취항하고 있었고, 목포는 산업 항구라기보다는 다도해의 주민을 육지와 연결하는 여객항으로서의 기능이 대부분이었다.⁰¹⁾ 1990년대 초에도 화물 처리량은 전국 항만의 0.5%에 불과했지만, 전국 여객선의 45%가 목포를 기점으로 하는 항로를 운항했고 여객수송의 38%를 수송하여 도서민들의 생활 교통항으로서 기능했다.⁰²⁾

그래도 1980년대 중반 내항의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여객터미널과 3만톤급, 1만톤급, 4천톤급, 1천톤급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었고, 500톤 이하의 소형 선박을 위한 9개의 잔교 시설도 정비되었다. 3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석탄부두가 1984년 10월 개장했다.⁰³⁾ 이후 1992년대 초까지 3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물양장이 추가로 건설되었다.

198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 개방이 진행되고 한중 간의 물적 인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서해안 일대의 교역 중심지들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목포의 물류 기능도 강화되기 시작했다. 1994년 9월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을 수립했는데, 대불항의 완공을 포함, 호남선 송정리-목포 구간 복선화도 포함. 「국토개발의 방향과 추진계획」 발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7개 광역권으로 아산만권, 부산권, 군산-장항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광양만권으로 구성. 광주-목포권은 광주의 첨단 산업 기지와 대불공단을 연계 개발하고 국제 기능을 보강하여 서남권 경제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하도록 국제공항과 항만을 건설한다는 계획. 목포 신

01) 이원철, 「목포항의 이모저모」, 『월간 해양한국』146,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85.

02) 주재환, 「목포항의 오늘과 내일」, 『월간 해양한국』235,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3.

03) 이원철, 앞의 글.

외항을 건설하여 대불공단을 지원하는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할 계획도 수립되었다.⁰⁴⁾ 이후 목포항은 내항은 연안 여객 및 화물 전용항, 북항은 연근해 어업 전용항, 남항은 산업화물 전용항, 대불항을 대불공단화물 전용항으로 개발하고 신외항 개발 계획도 수립됨으로써 서남해 물류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항만 외의 교통 시설에 대한 정비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호남선의 복선화도 계속 추진되었으나 목포까지 완전한 복선화는 2000년대에나 가능했다. 한편 1970년대 여객기가 잠시 다니다 군용 활주로로만 사용되던 목포비행장은 활주로를 늘리는 보완 공사를 한 다음 1992년 7월부터 여객기가 다시 취항했다.⁰⁵⁾ 그러나 비행장 시설이 열악해 국내 어떤 비행장보다 결항률이 높던 목포비행장은 1993년 7월 26일 아시아나 항공의 737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해 승무원과 승객 61명이 숨지는 대참사를 빚기도 했다.⁰⁶⁾

2. 도시의 변화

1985년 9월말 목포의 인구는 23만 2천여 명이었다. 당시 광주 인구가 이미 90만 명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개발이 지체된 호남권역에서도 성장의 상대적 속도가 느린 편이었다. 원래 목포의 도시 계획은 일제하 1937년 30년을 목표로 장기 계획을 수립했지만, 당시로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고, 1966년 도로망,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지역 지구를 지정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남해, 죽산, 하당 지구를 포함하는 방대한 구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1976년 크게 축소, 재정비되어 수립되었다. 이어 1986년 하당을 주거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업지구와 주거지역을 확장하고 해수면 매립과 항만 건설 계획 등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 계획을 수립했다.⁰⁷⁾

1980~90년대 목포는 지역의 재정비, 관광 개발 등 지역 발전 전략을 다시 수립하고 항만과 산업 시설의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비로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 목포의 도시계획은 약 45만 명의 도시를 목표로 수립되었다. 우선 영산강 하구언이 1981년에 준공되어 목포항의 토사 유입이 방지되었고 영산호가 형성되었다. 항상 식수난에 시달려 온 목포 시민들은 풍부한 수량을 가진 영산호의 물을 마음껏 쓸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수질 악화가 문제가 되었다. 영산

04) 이동산·박석호, 「목포권 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목포항 개발전략」,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1, 한국항만경제학회, 1995.

05) 『경향신문』 1992. 06. 28.

06) 『경향신문』 1993. 07. 27.

07) 박종철·강병기, 「목포 시가지 형성과정과 도시계획의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1, 한국지역개발학회, 1989.

강이 오염되면서 영산호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진 것이었다. 1987년 6월 영산호 계통 상수도 확장 공사가 준공되어 물 자체의 공급은 원활해졌지만, 4대강 가운데 가장 수질 오염이 심한 영산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다. 1980년대 목포 지역에서는 영산강의 오염을 막는 데서 환경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목포와 전남 지역 시민운동의 첫 걸음이 되었다.⁰⁸⁾

1980년대 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용당동과 산정동 지역의 제1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1975년 5월 20일 착공하여 1984년 12월 완공되었다. 죽교동, 산정동, 이로동과 산정동, 용당동의 죽산지구 및 용해지구 택지 개발도 1981년말 착공되었다. 이 택지 개발로 저렴한 용지가 공급되고 비교적 정연한 시가지가 조성되었지만, 공공시설이 부족하고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시가지 경관이 형성되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부작용도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다.

1989년부터는 하당지구, 용해동 상동 일대 택지 개발에 착수했다. 360필지 13만 3천여 평의 개발 지역은 단독 주택 지역, 주상 복합용지, 상업용지, 중심 상업용지를 구분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무렵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때라 용해동 일부 지역은 1990년 1/4분기에만 지가 상승률 12.5%에 달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⁰⁹⁾ 개발이 종료된 1992 말년까지 128 필지 1만 4천여 평이 매각되지 않아 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었다. 곤란한 상황에 빠진 목포시는 토지 개발 공사에 매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 거절당하면서 불가피 재분양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¹⁰⁾ 신시가지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도심을 형성하고 지역 문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건축 사업도 실시되었다. 목포시청이 1983년 4월 1일 용당동에 새로 신축하여 이전했으며 1986년에는 유달경기장, 카누 조정 경기장, 실내 수영장, 서산동 종합어시장 등의 공사를 착공했다. 택지 개발과 함께 지역의 확대와 개편도 추진되었다. 1987년 무안군 삼향면 옥암리, 대양리를 편입하고 석현동 일부와 합쳐 삼향동을 신설했다.

2차 산업이나 항만 개발은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 없이 수행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목포시는 1980년대까지 제대로 된 공업 지역을 갖추지 못해 1982년 말 현재 전체 공장의 83%가 주거 및 상업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졌다. 1984년 말 목포 시내 286개 기업이 있었는데, 이로동의 목포 공업 단지에는 29개 기업에 노동자 4,126명이 고용되어 있을 뿐이었다. 목포 시내 기업들 가운데 식품 및 음료업체가 32%, 기계금속업체가

08)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4, 277~278쪽, 291~292쪽.

09) 『동아일보』 1990. 05. 21.

10) 『매일경제신문』 1992. 12. 16.

30%를 차지하고 있었고, 도자기 회사들이 가장 큰 기업체로 다른 지역에 비해 2차 산업은 침체를 면하지 못했다.¹¹⁾

하지만 범시민적인 관광 자원의 개발은 성과를 거두었다. 목포는 1980년대부터 관광 자원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80년대 유달산과 갯바위 개발이 시작되어, 1981년 12월 유달산공원화 추진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1981년 유달산의 불량 주택 이전, 1982년 공원 개발 계획 수립과 조각공원 개장, 1984년 유달산 일주도로의 완공 등이 착착 진행되었다. 1983년 갯바위에도 관광 도로를 개설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1986년에는 관광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1980년대 목포는 관광 도시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2. 민주주의의 도약과 지방자치의 실시

1980년 신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 항쟁을 무력 진압한 후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켰다. 김영삼, 김대중 등 유력한 야당 지도자들을 연금하거나 추방하고 여당인 민정당과 관제 야당인 민한당 등이 참여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그리하여 1981년 실시된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목포에서도 민정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1985년 12대 선거에서는 정치 금지에서 풀린 김영삼과 미국에서 급거 귀국한 김대중이 신한민주당(신민당)을 창당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목포에서도 신민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후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평화민주당 등 김대중 중심의 정당 지지가 목포 지역의 확고한 정치적 색채로 고착되었다.

한편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지방 자치제가 현실화되었다. 원래 1952년부터 1960년까지 3차례 시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군부가 집권하면서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1988년 5월 1일 지방 자치법이 실시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1991년 3월 26일 기초 지자체 의회 선거가 이루어졌다. 목포시에서는 28개 선거구에서 30명의 시 의원이 당선되어 4대 의회를 구성했다. 기초 지자체는 정당 공천이 불가능했지만 30명 중 25명이 평민당 당원으로 1980년대 후반의 지역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김천옥 의원(유달동)이 초대 시의장, 이춘웅 의원(호남동)이 부의장이 되었으며 운영 위원회, 총무 위원회, 산업 건설 위원회 등 3개 상임 위원회와 사안마다 대응하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다. 초기 목포시 의회는 그동안 시정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특위를 자주 구성했다. 특히 1992년 목포시 의회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 특위는 1970년대 전직 세무 공무원인 이석호가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불하받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사건은 인근 지자체와 전

11) 이원철, 앞의 글.

라남도의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검찰이 이석호를 구속하고 국가가 재산 환수에 나서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또 1994년에 목포와 무안 통합에도 목포시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등 지역의 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그러나 지방 정치 초창기의 혼란을 피해갈 수 없어 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하고 내분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¹²⁾ 1995년 6월 지방 선거는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와 단체장, 도의회, 도지사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민선 목포 시장에는 당시 야당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권이담(權彝淡)이 당선되었으며 33명의 목포시 의원이 당선되어 시의회를 구성했다. 5대 시의회는 도청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한편 1990년대 목포와 무안 등 무안반도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3년 당시 김영삼 정부 부는 자치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며 인접한 도시와 농촌 시군 통합 작업을 추진했다. 전국적으로 추진된 이 통합 과정에서 정부는 인접한 시군들을 통합 권유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통합을 진행하도록 했다. 전라남도에서는 6개 시와 5개 군이 대상이었는데, 목포시와 무안군은 다른 지역보다 뒤늦은 1994년 3월 통합 권유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¹³⁾

목포시와 의회는 서해안 중심 시대 개막을 위한 통합의 필요성 강조했는데, 무안군과 의회는 통합 반대가 강했다. 무안군의 반대 여론이 강하자 목포시 의회가 통합 행정 구역의 이름을 무안시로 할 것, 시청 및 행정 기관, 터미널 등을 모두 무안으로 옮길 것 등을 결의하기도 했다.¹⁴⁾ 1994년 4월 목포와 무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찬반이 과열되며 대리 기표나 공개 기표까지 나타나는 등 조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자 전라남도에서 재조사까지 실시하였으나 결국 불발되었다.¹⁵⁾ 1995년에는 신안까지 포함한 무안반도 통합을 추진했으나 무안 지역 주민의 반대로 실패하여 오늘날까지 지역의 현안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기훈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12)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360~361쪽, 396~399쪽.

13) 『한겨레신문』 1994. 03. 26.

14) 『한겨레신문』 1994. 04. 01.; 『경향신문』 1994. 04. 27.

15) 『경향신문』 1994. 04. 29.; 『한겨레신문』 1994. 05. 08.

제4절 1980년대 목포의 민주화 운동

1. 1970년대 목포 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의 성장

1970년대 목포 민주화 운동은 1974년 민주 회복 국민 회의 목포지부 결성으로부터 시작한다. 민청학련 사건 이후 반 유신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1974년 11월 27일 민주 회복 국민 회의를 발족시키고, 민주회복국민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 12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975년 3월 초까지 7개 시도지부와 20개 시군지부를 결성하였다. 1974년 겨울 목포지부가 결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은 김기열(金己烈), 박광웅(朴光雄), 김대유, 명재용(明在用), 최형주(崔亨周), 이수명, 김상옥(金相玉), 김청수(金淸洙), 안철(安哲) 등 재야인사와 김길도(金吉道), 정석봉(鄭錫奉) 등 통일민주당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민주 회복 국민 회의는 긴급조치 9호 발동 이후 박정희 정권의 탄압이 심해짐에 따라 역할을 다하기 어려웠으며, 그 과정에서 목포지부는 해체되고 말았다.⁰¹⁾

긴급 조치 9호 발동 이후 민주화 운동 세력의 활동은 더욱 위축되었다. 이 시기 목포에서 민주화 운동의 명맥을 이어나간 것은 기독교 세력과 엠네스티 운동 세력이었다.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3·1절 기념미사에서 민주화 인사들이 모여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한 ‘명동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민주 회복 국민 회의의 주요 인사들이 구속되는데 성직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항의하여 8월 10일 광주 양림교회에서 강신석(姜信錫) 목사(연동교회)가 ‘유신헌법 철폐’의 성명서를 낭독하였고, 이로 인해 강신석 목사, 이한철 목사(경동교회), 류기문(柳祈文) 목사(죽동교회), 임기준(林基俊) 목사(장흥읍교회) 등이 연행되고 강신석, 임기준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을 ‘제2명동사건’이라 하며 광주, 전남에서 최초로 목회자들이 구속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목포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사들은 민주화 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1975년 8월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연합회(이하 기장청년회)가 재건되면서 목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안철이 회장을 맡았다. 기장청년회는 1976년 8월 목포해양전문대(현 목포해양대)에서 기장청년회 전국대회 개최, 1977년 1월 12일 광주 양림교회에서 열린 신앙강좌, 1977년 4월 4일 광주 YMCA에서 개최된 수난주일 연합 예배회 등을 통해 군부 독재 반대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 선교의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안철, 이철우(李哲佑, 죽동교회 전도사), 정영근(鄭永根, 기장청년회 부회장), 김상곤(金

01) 박찬승, 「1980년 목포항쟁의 전개과정과 주도층」, 『지방사와 지방문화』9-2, 역사문화학회, 2006, 288쪽. 이하 1970년대 목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은 박찬승의 논문을 요약하였으며, 이하 각주는 생략한다. 보완이 필요한 내용만 각주를 달아 그 출처를 언급하고자 한다.

相坤) 등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1979년 10월 11일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목포지부가 죽동교회에서 창립식을 가지고 결성되었다. 창립 당시 목포지부 회원은 23명으로, 이두영(李斗永), 김현식(金現植), 류기문 등의 목사와 명재용, 박광웅, 이수명, 김청수 등의 재야 인사가 주축이었으며, 지부장은 이두영, 총무는 안철이 맡았다. 그러나 엠네스티 목포지부는 창립 직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목포엠네스티의 결성과 비슷한 시기 민주헌정동지회가 결성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목포 엠네스티의 인사들과 동일했는데, 명재용, 박광웅, 최형주, 김대유, 김상옥, 이수명, 안철이 그들이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적어 발표를 보류하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결국 유보되고 말았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김대중 계열에서 민주헌정연구회를 만들자 민주헌정동지회는 민주헌정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편 목포 지역 학생들의 움직임도 있었다. 목포 출신으로 서울과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양지문(梁誌紋), 김명원(金明源), 서지근, 박태울, 곽재구(郭裁求)와 긴급 조치 석방자 최문(崔文), 양희승(梁熙昇)등은 연동교회에서 야학을 개설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또 목포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사회과학 공부를 하고, 목포대학교 내에 RUSA 등 학생 서클이 만들어 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위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받은 목포대학교, 목포전문대 학생들은 1980년 학원 자율화 추진 협의회를 꾸리고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또 각 교회 청년회 학생들은 연동교회, 중앙교회 등에서 모여 성서 연구를 구실로 해방신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다.

1970년대 목포의 민주화 운동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점차 조직적인 운동으로 변하고 있었다. 안철을 비롯한 재야세력과 목회자들은 향후 1980년 민중 항쟁에서 지도부를 꾸리고 항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민주화를 위한 이들의 경험은 이후 1980년 목포 민중 항쟁, 이후 목포에서의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림 1 1980년 5월 15일 목포역 앞 목포대학교학교학교 교수와 학생 민주화성회

2. 1980년 5월 목포민중항쟁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고조되었다. 소위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이 시기, 민주화를 열망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3김’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해방 후 경제 개발 과정에서의 소외와 좌절감,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강했던 목포는 야당 도시로서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 목포 출신으로 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던 김대중에 대한 지지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일련의 쿠데타로 민주화의 요구는 또 다시 묵살되고 말았다.⁰²⁾

12·12사태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을 기해 계엄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했고, 김대중을 소요 배후 조종 혐의로 체포 구금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목포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또한 목포 대학생 12명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지고 김재홍(金在洪), 김청식, 김성운 등이 체포되고 나머지는 피신하였다. 5월 18일 광주의 민중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공수 부대가 투입되었고, 평화로운 시위를 하던 시민들을 향해 무자비한 폭행과 살상을 서슴지 않았다. ‘화려한 휴가’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철저한 학살이었다. 피로 얼룩진 광주의 소식은 목포로 전해졌으며, 목포에서의 분노와 항쟁의 열기도 높아져 갔다.



그림 2 광주참상을 전해 듣고 목포역 광장에 모여든 목포시민들

02) 목포의 민중항쟁에 대한 내용은 박찬승, 같은 논문을 요약·보완 하였으며, 이하 각주는 생략한다. 보완이 필요한 내용만 각주를 달아 그 출처를 언급하고자 한다.

목포의 민주 인사들은 직간접적으로 광주의 참상을 전해 들었다. 엠네스티 목포지부 이사였던 박광웅은 5월 19일과 21일 두 차례 광주를 찾았으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였다. 박정두, 오양수, 장홍섭은 20일 금남로에서의 시위에 직접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안철은 수배령으로 해남으로 피신했다가 광주 소식을 접하고 목포로 돌아온다.

21일 오후 1시경 광주에서 계엄군의 발포가 시작되었고, 시위대는 총기를 구하고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전남 전역으로 이동하였다. 오후 2시 15분경 버스 4대에 분승한 120여 명의 시위대가 목포에 도착하였다.⁰³⁾ 이들은 가두방송을 하면서 광주의 상황을 알리고, ‘계엄령을 해제하라’, ‘살인마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고 외치면서 목포 시민들의 궤기를 호소했다. 광주의 소식을 들은 목포 시민들은 목포역 광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내 만여 명이 되었다.

저녁이 되자 광주에서 온 시위대가 일부의 목포 청년들과 함께 광주로 향했다. 시위대는 떠났으나 목포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되었다. 5시 MBC 방송 시설이 파손되고 5시30분 방송이 중단되고 8시 이후 세무서, 목포역, 법원 검찰지청, 시청, 파출소 등 관공서들이 파손되었다. 10시경 무안과 함평에서 자체 봉기한 시위대가 목포 시위대와 합세하였다. 5월 22일 새벽 2시 목포역 대합실이 파괴되고 연동파출소가 방화, 전소되었다. 또 중앙정보부 목포 분실, 항동파출소, 세무서, 해군헌병대가 파괴, 방화되고 시위대는 파출소, 경찰서, 예비군 무기고에서 획득한 무기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⁰⁴⁾

일련의 사태 속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청년, 학생들이었다. 목포역 광장에 모인 청년, 학생들은 이날 밤에 회의를 통해 다음날부터 시위를 주도하기로 합의하였다. 22일 새벽 6시부터 양지문 등 학생들은 목포역에서 상황을 주시했고, 8시경 학생들 40여명은 일단 무기들을 회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년, 학생들은 22일 오전 목포 청년 학생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양지문을 선출하였다.

재야인사와 정당인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1일 시위대 버스가 도착했을 때 안철은 이들 버스에 탑승하여 MBC로 가 방송을 하려했으나, 직원들이 미리 철수하면서 실패하였다. 강수복(姜壽福)은 오후 4시 버스에 탑승하여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부착했고, 안철은 최문을 통해 목포역 방송실을 점거하고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방송을 하도록 하였다.⁰⁵⁾ 안철은 무질서한 시위를 자제하고, 시민과 학생들을 하나로 조직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에 22일 아침 9시 중앙교회에서 명재용, 박광웅, 류기문, 정권모(鄭權模) 등을 만나 수

03) 박찬승, 앞의 논문, 297쪽;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안철·강수복·이성숙·명재용·양지문·이남건·박상규·최문·김상욱 판결문」(이하 「안철 등 판결문」),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45, 2007; 목포시, 「목포관내사태보고」(1981년 5월 19일 전 목포시장 이병내 제공).

04) 목포민중항쟁 관련 수기본(곽재구 개인 소장자료), 2쪽.

05) 「안철 등 판결문」.

습방안을 논의하였다. 11시 안철은 통일당 당사에서 강수복, 김길도 등을 만나 목포에서의 시위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수습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관도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2일 아침 8시 시장, 경찰서장, 군부대장 등은 지역대책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강구했다. 이 회의에서 “1) 93연대 및 각 기관과의 상황 유지와 통신망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함, 2) 국도에 청소차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난동자들의 이동을 방지토록 함, 3) 시내 금융 기관을 휴업토록 함, 4) 사태가 험악하지만 유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93연대장에게 계엄군 진주 유보를 요청함, 5) 유혈 방지책으로 난동자와 협상하도록 함.” 등을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계엄군 진주 유보를 결정한 것은 앞서 시위대가 탈취한 무기를 회수하고, 무장을 해제하면서 평화로운 시위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줌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목포 민중 항쟁은 유혈사태가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어 갔다.

관이 대책을 강구할 때도 시위는 계속되었다. 아침 7시부터 목포역 광장으로 시민들이 결집했으며, 9시 안철의 지시로 최문과 학생들은 역 건물에 ‘계엄령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광주사태는 양민학살이다’는 플랑카드를 내걸었다. 11시 목포 청년 학생 투쟁 위원회는 유인물 200장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림 3 5월22일 목포역 광장에서 광주학살을 성토했던 시민들

안철은 현 상황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댈 것을 목포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달하였다. 오전 11시경 안철의 안집에서 목포시장 이병내(李炳奈), 목포대학교학장 오창환

(吳昌桓), 교회 목사, 엠네스티 간부,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민관 대책 회의가 열렸다.⁰⁶⁾ 안철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다. 첫째, 부정부상태 속에서나마 치안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광주시민 학살 만행을 규탄하고 군부와 유신 잔당의 정치적 음모를 폭로하며, 민주 헌정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평화적 의사 수렴 및 주장의 실천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시민의 이름으로 켈기대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위의 내용들이 실행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①이 시간 이후 사태에 개입한 데 대해 추후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지 말 것, ②계엄군이 목포에 진입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가 예상되므로 시장은 계엄군의 목포 진입을 중지토록 요구할 것, ③시장은 시위 학생, 청년들에게 대용식을 제공하고, 역 광장에 방송 시설을 준비할 것, ④시내에 있는 모든 식량은 외부 방출을 중지하고 비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측의 회의 끝에 ①시위대의 무기를 회수하여 반납한다. ②시장은 연설을 통해 평화적 시위를 유도한다. ③목포대학교 학장은 연설을 통해 평화적 시위를 유도한다는 세 개의 항에 합의하였다.

민관 회담 직후 수습 대책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안철이 맡았다. 대책위는 목포역 2층에 본부를 차리고 오후 2시 대책위 주최로 ‘제1차 민주 헌정 수립을 위한 시민켈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목포대학교 오창환 학장이 질서 유지와 평화적 시위를 호소하였다. 이어 안철이 “광주사태는 유신세력이 기득권 학보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데서 기인된 것이고, 김대중 선생은 자유투사이고 민주주의 신봉자인데 용공분자로 모는 것은 부당함으로 즉시 석방하고, 목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경찰에 맡길 수 없으니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신군부의 잔학성과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고, 시민자치대의 구성과 무기의 회수를 제안하였다. 또 “목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경찰에 맡길 수 없으니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시민 스스로 치안대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위대의 무기는 모두 수습 대책 위원회에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평화적인 투쟁을 주장하면서 희생이 필요한 경우 자신이 앞장서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였으며, 식량 확보를 위해 성금이 모금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협조는 27일까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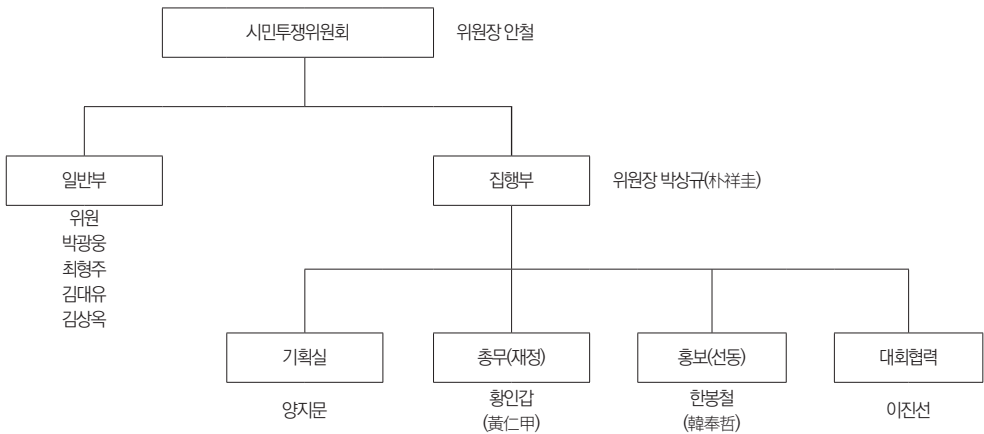
그러나 수습 대책위가 시위대를 전면 통제한 것은 아니었다. 22일 오후 무장 시위대 1백여 명은 대형 소방차, 해군 지프차, 교회 버스 등에 분승하여 법원, 검찰청 등 파괴하였다. 청년 학생 투쟁위 학생들은 시위가 끝난 오후 4시 목포역 광장에서 무장 시위대의 총기를 회수하고자 하였다. 이날 회수

06) 민관대책위원회의 개최시기에 대해 「안철 등 판결문」은 11시, 박찬승, 앞의 논문은 11시 30분, 광주매일정사5·18특별취재반, 『正史 5·18』(사회비평, 1995)은 12시, 「목포관내사태보고」는 15시 30분으로 적고 있다.

된 총기는 모두 1천여 정에 달했다.⁰⁷⁾ 청년 학생 투쟁위 측은 230여 정은 목포역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군부대에 반납하였다. 총기의 관리는 양지문이 맡았다.⁰⁸⁾ 이날 밤 목포역에 모인 시민들은 재차 쫓기 대회를 가졌다. 목포 시내 초·중·고등학교는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다.

수습 대책위가 구성되었을 무렵 학생들을 중심으로 명칭과 조직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수습’이라는 단어가 군부독재에 항거해 일어난 시민 항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습 대책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수습 대책위를 ‘목포 시민 민주 투쟁 위원회(이하 시민투)’로 변경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직은 아직 구성하지 못하다가 다음날인 23일 3시경 구성을 마칠 수 있었다. 위원장은 안철이 맡았으며, 하부 조직은 일반부와 집행부로 구성하였다. 일반부는 재야인사들인 박광웅, 최형주, 김대유, 김상옥 등이 맡았으며, 집행부는 다시 기획실, 총무(재정), 홍보(선동), 대외 협력으로 나뉘었다. 집행부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집회의 일정을 따라 실무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일을 맡았으며, 이 밖에도 분향소 설치, 치안 유지 등의 일을 하였다. 학생들은 시 중심가와 외곽 경비를 위해 경비대를 조직하였다.

표 1 목포 시민 투쟁 위원회 조직도



시민투가 결성된 23일 이후 집회와 시위는 훨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오전 8시부터 시민들이 목포역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은 태극기를 앞세우

07) 당시 시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무장 시위대의 총기를 회수하는 데에 참여했던 김호남에 의하면, 이형래 회장을 중심으로 한 목포 JC 회원들이 236정의 총기를 회수하여 해역사에 반납했다고 한다.(김호남, 「목포 5·18 민주화운동과 JC」, 『목포백년회 10년사』, 목포백년회, 2001)

08) 「목포 5·18 관련 증언록」 출력본, 5쪽.

고 4백여 개의 횃불과 150여 개의 피켓을 들고 시가행진을 시작했다. 이날부터는 휴교령으로 학교를 가지 못한 중고생들도 시위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연단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 오전 9시 시민투는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민주정부 수립하라’는 등의 구호를 적어 목포역 건물에 부착했다.

오전 10시 제2차 민주 헌정 수립을 위한 목포 시민 쫓겨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목포 시위 보고, 광주 시위 상황보고, 대표자 연설, 성명서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안철은 연설에서 “더 이상 김대중 선생을 탄압하지 마라. 김대중 선생은 우리 목포 시민이 30년 동안 탄압받으면서 탄생시킨 목포가 낳은 민족의 지도자다.”라고 주장하였다. 연설 후 정권모가 작성한 「우리 겨레와 세계

자유민에게 보내는 목포시민 결의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강수복이 낭독하였다. 결의문의 주요 요구 사항은 광주 학살 책임자 처벌, 비상계엄 해제, 교통과 통신의 정상화, 광주 시민의 피 값에 대한 보상과 신군부의 퇴진 등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시민투 위원들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자유롭게 연단에 올라갈 수 있었다. 시민투에서 광주의 상황과 투쟁 방향을 말하면, 광주시민이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 학생들도 연단에 올라 자신의 주장을 폈다. 시민 중심의 집회로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식사를 준비해서 시위대에 주자.”는 안내 방송이 있은 후 먹을 것과 성금이 답지하기 시작했다. 집회 이후 시가행진이 전개되었다. 시위대는 목포역을 출발하여 1호광장-목포여고-죽교동-북교초등학교-남교시장-무안동-구 경찰서 앞-항만터미널-선창-대한통운-목포역으로 되돌아오면서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어둠이 내리고 오후 8시에 학생과 시민을 포함한 2만여 명의 시위대는 횃불을 들고 목포역을 시작



그림 4 광주 학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투위원장 안철



그림 5 목포 지역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하고 목포역 광장으로 들어오는 모습

으로 1호광장-2호광장-버스터미널-2호광장-연동육교-1호광장-목포여고 앞-시민극장-중앙극장-중앙시장-목포극장-구 중소기업은행-경찰서-항만터미널-선창(어판장)-대한통운-목포역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행진 과정에서 시위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은 크게 박수를 치면서 호응하였다. 햇불시위가 끝나고 10시 40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시위대는 ‘전두환 물러가라’, ‘김일성은 오판마라’, ‘유신 잔당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노동 삼권 보장하라’, ‘민주 인사 석방하라’, ‘광주 사태 책임져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계속했다. 이 시위는 한 시간 가량 지속되다가 11시 30분경 해산하였다.

24일 오전 9시 시민들이 목포역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10시 제3차 민주 헌정 수립을 위한 목포 시민 쉼기대회가 시작되었다. 이날은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광주인성고 1명, 광주체고 1명, 진흥고 1명, 살레시오고 1명 시민 1명 등 5명의 광주 시민은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걸어서 목포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보고 겪었던 광주의 상황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목포 시민들이 함께 하기를 바랐다. 이들이 목격했고 증언한 광주의 상황은 참혹 그 자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 중 한 명은 울분을 참지 못해 ‘민주 인사 석방하라’는 현서를 쓰기도 했으며, 학생들은 ‘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오전 10시부터 고등학생 5,000여 명 참여한 시가행진이 이어졌고, 이 행진은 오후 2시 반까지 진행되었다. 오후에도 시위와 행진은 계속되었는데, 특히나 휴교령 이후 학교를 가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 시민투는 분향소를 설치하여 광주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도록 하였다. 비록 영정 사진도 없는 제단뿐이었으나 분향 행렬은 줄을 이었다. 이날은 비가 많이 왔다고 한다.

시민투는 시민들에게 김밥과 먹을 것을 직접 가지고 오라고 호소하였다. 이는 목포역에서 철야 농성을 하는 학생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 시민들뿐 아니라 주변 가게의 주인들도 십시일반 김밥과 먹을 것을 시위대에 전해주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플래카드를 들고 나오도록 요구하였다. 목포 시민 전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날 안철은 목포시장과 경찰서장을 만나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시내버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 둘째, 공무원들이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경찰은 시내에 나오지 말 것이며, 대신 교통경찰 몇 명만 보내줄 것 등이었다. 안철의 요구 사항은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이날부터 시내버스의 운행이 차츰 정상화되었다. 밤이 될 무렵 경찰서장과 정보과장이 안철을 찾아와 시위를 그만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안철은 “지금 목포 사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중지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광주의 사태가 종결된다면 목포 시민도 자진해서 시위를 중지할 것이요, 나는 물론 당신들은 시위대로부터 보호하면서 광주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요. 목포 사태는 광주 사태가 언제 종결되느냐에 달려 있으니 이리저리 말고 돌아가시오.”라며



그림 6 목포시민들의 가두시위 장면

항쟁을 계속 이어갈 것을 선언하였다.

25일은 일요일이었다. 시민투는 목포 각 교회 목사들에게 목포역 광장에서 구국기도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12시 교회별로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목포역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목포시 기독교연합회 비상구국기도회의 주최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광주시민 혁명에 대한 목포 지역 교회의 신앙 고백적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 예배에서 광주 만행은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시민 학살이다. '김대중 및 민주인사석방', '언론의 정확한 보도' 등을 요구하고 5·18항쟁을 시민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또 광주와 목포의 소식을 교환하고자 사람을 통해 유인물을 보내려 하였으나 교통 두절로 실패하였다.

26일 오전 10시 민주 헌정 수립을 위한 제4차 시민 쫓겨대회가 열렸으며, 약 2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하지만 오후 4시 광주에 계엄군 진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다급하게 시민투 운영위원 회의가 열렸다. 시민투는 계엄군의 광주 진압에 맞춰 시위를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상황 정리를 안철에게 맡겼다. 광주에서 계엄군의 도청 진공 작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도 저녁 8시 수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횃불시위가 전개되었다.

27일 새벽 광주가 진압되었다는 소식이 목포에 전해졌다. 광주가 진압된 상태에서 시민투는 목포 시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정해야 했고, 오랜 고민 끝에 광주의 시위가 종결된 상태에서 목포의 시위를 끌고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⁰⁹⁾ 그러면서 시민투는 항쟁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전 9시 시민투의 일반부 위원들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사태를 마무리하기

09) 「목포 5·18 관련 증언록 - 안철」, 연도 미상, 5쪽

위한 집회 및 시위를 예정대로 갖기로 합의하였다. 광주를 진압한 계엄군은 9시 30분경 헬기를 통해 해산을 종용했으며, 11시 반경에는 12시까지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며, 이후 강제 진압이 있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시민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오전 10시 마지막 시민 쫓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쫓기 대회에서는 「우리 겨레와 세계 자유민에게 보내는 목포 시민의 결의문(2)」을 낭독했으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광주 사태의 책임자를 남김없이 처단하라’, ‘광주 및 목포 사태는 시민 혁명이다’, ‘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 항쟁을 계속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성명문 낭독 후 시가행진이 이어졌으며 시민투는 오후 3시 시위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집행부의 결정과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집행부의 해산 방식에 불만이 있었으며, 이 시위를 더 이어가고자 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집행부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 결국 10여 명의 집행부 학생들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역 광장에서는 여전히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학생들은 이날 밤 햇불시위를 계속했으며,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계엄군의 강제 진압 통보에도 학생들은 계속 항전할 것을 천명하였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고등학생 2천여 명은 마지막까지 시위를 계속해 나갔으며, 시위 후 목포역으로 돌아와 현장을 정리하다 체포되면서 목포 항쟁은 막을 내렸다.

목포 5월 항쟁은 사망 1명과 부상자 11명의 사상자와¹⁰⁾ 수백 명의 시민들이 연행, 구금, 구속자를 발생하였고 이들이 그 과정에서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시민투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내란 부화수행, 계엄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다.

표 2 목포지역 활동 구속 기소자 명단¹⁰⁾

번호	이름	출생년도	혐의 내용	처분 내용
1	강수복 姜壽福	1914	내란 부화수행	징역 3년(형집행면제)
2	고경석 高卿碩	1963	소요죄, 계엄법 위반	징역 2년, 징유 3년
3	고성수 高誠守	1962	소요죄, 계엄법 위반	징역 1년6월
4	김강호 金江浩	1957	소요죄	징역 2년, 징유 3년
5	김남국 金南國	1960	소요죄, 계엄법 위반	징역 1년, 징유 2년
6	김상옥 金相玉	1934	내란 부화수행	징역 2년, 징유 3년
7	김영춘 金英春	1960	계엄법 위반	징역 1년 6월, 징유 3년
8	김옥수 金玉洙	1955	소요죄, 계엄법위반	징역 3년
9	김재량 金在良	1964	소요죄, 계엄법 위반,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	징역 1년, 징유 2년
10	명재용 明在用	1923	내란 부화수행	징역 3년
11	박광웅 朴光雄	1935	내란 부화수행	징역 2년
12	박상규 朴祥圭	1959	내란 부화수행	징역 2년, 징유 3년

10) 「목포관내사태보고」의 사상자 숫자이다. 하지만 항쟁이후에 밝혀진 숫자는 훨씬 많다.

번호	이름	출생년도	혐의 내용	처분 내용
13	박종근 朴鐘根	1958	소요죄, 계엄법 위반	징역 1년 6월, 징유 3년
14	안철 安哲	1946	계엄법 위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징역 5년, 81.4.3 3년으로 감형
15	안통일 安統一	1961	계엄법 위반	징역 2년, 징유 3년
16	양지문 梁誌紋	1957	내란 부화수행	징역 2년
17	유정환 劉正煥	1961	소요죄, 계엄법 위반	징역 장1년6월, 단1년
18	이남견 李南見	1933	내란 부화수행	징역 1년, 징유 2년
19	이성숙 李成淑	1935	계엄법 위반	징역 3년
20	이종철 李鐘喆	1962	소요죄, 계엄법 위반,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	징역 1년, 징유 2년
21	임성택 林成澤	1959	소요죄, 계엄법 위반	징역 장1년 6월, 단1년
22	장창석 張昌石	1961	계엄법 위반	징역 1년, 징유 2년
23	천실우 千實雨	1960	소요죄, 계엄법 위반,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	징역 1년, 징유 2년
24	최문 崔文	1956	내란부화수행	징역 1년 6월, 징유 3년
25	최성옥 崔成玉	1961	소요죄, 계엄법 위반,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	징역 장2년, 단 1년(형집행면제)
26	한봉철 韓奉哲	1959	소요죄	징역 1년, 징유 2년
27	황인갑 黃仁甲	1960	소요죄	징역 2년, 징유 3년

표 3 목포 출신 구속 기소자 중 광주 지역 활동자¹¹⁾

번호	이름	출생년도	혐의내용	처분내용
1	김영휴 金榮休	1956	소요죄, 계엄법위반	징역 1년, 징유 2년
2	김종태 金宗泰	1957	소요죄, 계엄법위반	징역 2년(형집행면제)
3	김창길 金昌吉	1958	소요죄, 계엄법위반	징역 2년, 징유 3년
4	김행남 金幸男	1963	내란실행	징역 3년, 징유 5년
5	양희승 梁熙昇	1958	계엄법위반,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10년, (82. 3. 3)4년으로 감형
6	이경희 李敬姬	1960	계엄법위반, 내란부화수행	징역 1년(형집행면제)
7	이명남 李明男	1949	소요죄, 계엄법위반	징역 1년, 징유 2년
8	정인서 丁仁敍	1961	계엄법위반	징역 1년, 징유 2년
9	곽재구 郭裁求	1959	소요죄, 계엄법위반	징역 1년6월, 징유 3년

지금까지 목포 5월 항쟁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범주 아래에서 광주에 동조하여 일어나 시위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목포 항쟁은 광주의 참혹한 사태에 동조하여 일어난 것이 계기였다. 22일 제1차 시민 쫓기 대회에서 ‘광주 시민 학살은 자유 시민을 억압하던 유신 독재 잔당들과 군인들의 정권욕이 결탁하여 빚어낸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역사적, 반민족적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11) (재)5·18기념재단 제공, 항쟁관련자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 전에 석방되고 최종적으로 군사재판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사람들 이다. 명단의 사람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광주 시민의 학살을 언급하거나, 23일 「우리 겨레와 세계 자유민에게 보내는 목포 시민 결의문」에서 “광주 사건을 조직적으로 감행된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양민 학살로 본다.”거나 “광주 시민들이 흘린 피의 값은 구체적으로 즉각 보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광주의 참상에 동조하여 분연히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5월 25일 「광주 시민에 대한 목포 지역 교회의 신앙 고백적 선언문」에서 ‘광주와 목포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시위 항거는 동학 혁명, 3·1운동, 광주 학생 사건, 4·19와 명동 민주구국 선언의 법통을 잇는 역사적인 시민혁명’이라고 규정하고, 5월 27일 「우리 겨레와 세계 자유민에게 보내는 목포 시민 결의문(2)」에서 ‘광주 및 목포 사태는 시민 혁명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5·18항쟁을 단순한 물리적 폭압에 대한 저항 뿐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변혁 운동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이 목포 항쟁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3.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두 축

1) 목포 청년 운동의 시작과 성장

1980년 5월 광주와 목포에서 전개되었던 항쟁의 패배 이후 민주화 운동 세력은 좌절과 시련을 경험하였다. 신군부의 강압으로 인해 무림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등 학생 운동권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용공조작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더욱이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이념서클은 비합법화 되었으며, 민주화 운동은 대중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채 산발적이고 고립적인 운동만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목포의 민주화 운동도 1980년 5월 목포 항쟁 후 지도부의 수배와 구속, 수감으로 이어지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목포의 민주화 운동은 표류하였다. 전국적으로 계속된 탄압으로 모든 단체는 지하로 숨어들었고, 그로 인해 대중과는 더욱 괴리되어 갔다.

하지만 1981년 이후 1980년 5월 항쟁 과정 중 구속 수감되었던 지도층 인사들이 형 집행 정지 등으로 출감하면서 목포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들은 경찰의 감시와 탄압을 뚫고 5·18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유인물을 만들어 가가호호 배포하는 활동을 하면서 YMCA내에 안신(安信), 양희승, 곽재구, 이현희(李賢熙)등이 청년목민회를 만들어 여러 분야의 운동가들이 결집하여 함께 논의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또 한편으로 목포교회 협의회 인권 선교 위원회는 해마다 중앙교회, 연동교회, 죽동교회 등에서 5·18추모 연합 예배를 개최하여 5·18 실상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목포지역 민주화운동의 공백 속에서 이 틈을 메우기 시작한 것이 문화운동이었다. 문화운동의 시

작은 1981년 4월 창단된 YMCA 극단 민예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엄혹한 환경 속에서 초기 민예는 선도적인 대중 투쟁이나 풍자적인 정치 비판보다는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에 집중하였다. 이 시기 민예는 목포 지역의 유일한 대중 운동 단체로서 자리매김하였지만 「나라놀이」 뒤이어 나온 「의병굿」, 「어부놀이」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1982년 쇠퇴길에 들어갔다.

민예의 뒤를 이은 것이 갯돌이었다. 83년 민예의 활동이 미비해지자 목포대학교 출신의 강대화, 김대상 등이 새로운 단체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민예 출신의 김상전, 김영정과 이현희가 합류하면서 1984년 탈춤 강습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에 홍성담, 이상호, 김화성이 합류한 후 강습회의 상설화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결국 YMCA놀이패 갯돌이 조직되었다.¹²⁾

유화조치 이후 목포 지역의 민주화 운동 또한 변화하였다. 쇠퇴기에 접어든 문화운동은 소수의 문화적 역량을 보유한 활동가와 조직 구성 능력을 가지고 있던 활동가를 중심으로 강연회 등의 대중 활동을 통해 새로운 단체로 변화 발전했다. YMCA의 지원과 후원 아래 갯돌 아래 연행, 미술, 문화 분과로 분화되었으며, 청년목민회, 새벽클럽 등 독서클럽이 조직되었다.

1983년 전두환 정권은 잇따른 집권층의 부패와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1980년 신군부에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던 이들의 활동이 해금되었으며, 교수와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의 국면이 전환되었으며, 보다 활발한 활동이 가능케 되었다.

이 흐름 속에서 민청련의 창립은 큰 주목을 받았다. 1970년대 후반 학생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학 졸업 이후에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공개적인 정치 투쟁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진보적 지식청년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 단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1983년 9월 30일 민주화 운동 (전국)청년 연합(이하 민청련)이 창단되었으며 김근태가 의장으로 추대되었다. 민청련은 점차 활기를 띠어가던 농민, 노동, 종교, 언론 등의 청년 운동가들이 청년 운동단체를 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¹³⁾

공개 정치 투쟁 단체인 민청련의 건설은 유화 국면으로 다시금 기지개를 펴던 목포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84년 인천사회운동연합, 전남사회 운동 연합 등 지역사회운동연합이 대중노선의 기치를 들고 각 지역에서 생기면서 목포에서도 지역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연합 운동 단체를 건설하자는 논의가 양지문, 곽재구, 이현희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1985년 상반기까지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재야 진영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조직 구성

12) 홍미희, 「극단 '갯돌'의 20년사 고찰」, 『갯돌30 문화운동: 1981~2010』, 갯돌30년문화운동3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1, 450~452쪽.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3, 돌베개, 2010, 214쪽.

에는 실패하였다. 연합 운동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구상을 향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우선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명칭을 가칭 ‘목포사회운동청년연합’이라 하였다.

목포사회운동청년연합(이하 목청련)은 1985년 9월 16일 YMCA강당에서 100여명의 청년과 민중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했다. 초대 의장에 양지문, 운영 위원장 곽재구, 운영 위원회 산하 각 부와 국에 최문, 문상기(文相基), 한봉철, 김일(金日), 박정모, 이현희, 강덕수(康德洙) 등이 임명되었다. 또한 지도 위원으로 임기준, 배형남, 박광웅, 김현삼(金鉉三), 조명철, 최형주, 김청수 등이 참여하였다. 목청련은 목포 지역에 결성된 최초의 공개대중 사회 운동 단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¹⁴⁾

목청련은 창립 선언문에서 ‘분파주의를 경계하고 적합한 자기운동론을 창출하며 소도시와 농어촌의 매듭을 통한 중앙과 지역의 연대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운동의 동질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운동 구조를 창출하는데 출발점이자 토양’이라며 목청련의 결성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최우선 과제로 ‘기층 대중의 조직 운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운동 이론을 창출하고, 대중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지역 단위 운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삼았다.¹⁵⁾

이를 위한 주요 활동으로 1) 모든 일하는 청년들의 민주적 제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 2) 일하는 청년들이 참된 민주주의 깃발 아래 굳게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 활동, 3) 일하는 청년들이 권리 향상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조사 활동, 4) 일하는 청년 대중의 올바른 정치적 입장 제시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실천 활동, 5) 민족, 민주 세력의 행동 통일을 위한 노력과 결속을 다지는 사업과 활동 등으로 삼았다.

목청련 결성 이후 우선적으로 다가간 것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결부된 목포 수돗물 오염문제와 수도세 인하 요구였다. 이는 창립 선언문에서 나타나듯 “지역 특성을 감안” 하면서 “대중성 확보를 위한” 운동의 일환이었다. 수돗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중의 생존권 문제와 국민들의 평등한 수혜의 권리, 필수 공공재를 화두로 부각시키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85년 9월 19일 발행된 목청련의 신문 『북소리』에서 목포 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돗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시간 제한 급수’에 ‘씻벌건 녹물’, ‘시궁창 냄새’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 상수도 문제의 해결은 목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¹⁶⁾ 목청련의 수돗물 오염 문제 해결 운동

1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http://archives.kdemo.or.kr>, 2016. 09. 08) 「목포사회운동청년연합 창립총회」(1985. 09. 16.).

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http://archives.kdemo.or.kr>, 2016. 09. 08) 「목포사회운동청년연합 창립선언문」(1985.09.16.).

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http://archives.kdemo.or.kr>, 2016.09.08.) 「북소리」1(1985. 09. 19.).

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광주·전남 사회 운동 청년 연합에서 모범으로 삼을 정도였다. 수돗물 투쟁을 통해 목청련이 대중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정치투쟁의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1985년 12월 김대중과 김영삼이 민주화를 위한 추진 협의회(이하 민주협)를 중심으로 ‘민주제 개헌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개헌 정국이 펼쳐졌다. 1986년 목청련은 개헌 정국에 맞추어 개헌 서명 운동과 개헌 투쟁을 주도했으며, 1986년 5월 17일 목포역 광장에서 「5·18 광주·목포 민중 항쟁 계승 및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목청련은 5월 민중 항쟁의 의의를 시민들에게 선전하고 그 뜻을 이어 받아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개헌 정국 속에서 투쟁을 계속하던 1986년 6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

1986년 6월 6일 목청련 사무차장이던 강상철(姜相喆)이 목포역 광장에서 민주화 운동 탄압 중지와 5·18 규명, 직선제 개헌 단행을 촉구하면서 분신을 시도했다. 6월 6일 낮 12시 강상철은 자신이 작성한 유인물 「민중신문 제하의 양심선언문」(이하 양심선언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는 “정의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고 승리의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여러분의 합성이며 동참이며 투쟁의 길이며 승리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라며 「우리의 주장」에서

1. 각 민중, 민주화 단체 탄압을 중지하라.
1. 각 민주인사 사면복권 및 석방하라.
1. 직선제 개혁을 단행하라.
1. 상수도세 지역차별 중지하라.
1. 5·18을 규명하라.
1. 전두환 및 5·18 쿠데타 주동자는 물러가라.
1. 하수도세 폐지하라

고 요구하였다.

12시 30분경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 독재 타도하자’, ‘5·18 배후 조종한 미국은 물러가라’, ‘운동 단체 탄압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분신하였다. 오후 1시경 성골롬반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전신에 95%의 화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다가 6월 25일 숨을 거두었다.¹⁷⁾ 강상철 열사가 죽은 후 경찰은 민주 인사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탈취하여 매장하려 했으나 재

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http://archives.kdemo.or.kr>, 2016. 09. 08) 「민주투사 강상철씨 약력과 분신행거일지」(1986. 06.).

야인사들이 다시 되찾아 고향인 해남 옥천 산자락에 안장하였다.

목청련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은 6월 27일 오후 2시 목포평강교회에서 ‘고 강상철 열사 목포민주시민장(故 姜相喆 烈士 木浦民主市民葬)’으로 집행하기로 하였다. 장례위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목포민주회복국민회의,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신한민주당 전남 제3지구당, 목포사회운동청년연합,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목포연합회, 목포대학 총학생회, 목포전문대학 학생회, 목포대학 목고 동문회, 목포평강교회 등 단체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김신원(金信元)목사, 집행 위원장 안철이 맡았다.¹⁸⁾

장례식이 열리는 오후 2시가 되기 30분 전인 1시 30분부터 경찰은 장례식장인 평강교회를 봉쇄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 사거리와 동아약국 앞 사거리를 전면 차단하였다. 장례위 측에서 이를 즉각 항의하였으며, 경찰과 장례위 측의 공방전이 2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2시 40분 목포인권선교위원장 김종채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2시 50분부터는 대치 중인 경찰과 장례위, 시민 사이에 몸싸움이 계속되고 최루탄이 발사되었다.

장례위 측은 경찰의 야만적인 행위에 즉각 항의하며 1) 고 민주 열사 강상철 목포 민주 시민장은 당국의 폭력적인 작태로 인해 연기한다. 2) 영결예배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경찰 당국의 불법성과 폭력에 대해 항의, 규탄하며, 특히 고인을 위한 평화적 예배마저 철저히 파괴할 뿐 아니라 기도 중인 사람들을 향해 인접거리에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것은 무장 경찰들에 의한 계획적인 인명 살해임을 밝히는 성명서를 기독교 이름으로 발표한다. 3) 민주 열사의 시민장을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린 폭력 경찰의 만행을 항의하고, 당국에 그 책임을 묻는다. 4) 금일 사태에 대해 당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건 현장 책임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는 등의 4개 항을 결의하고, 안동해(安東海) 목사는 즉각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¹⁹⁾

한편 목청련은 범국민적인 KBS 시청료 거부 투쟁과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문희경 교사에 대한 지원과 부당한 해고를 철회할 것 요구하는 등의 투쟁을 진행한다.

1987년 4월 26일 수강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간의 활동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결의하고 조직정비 사업과 함께 이현회가 의장직을 수행한다.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http://archives.kdemo.or.kr>, 2016. 09. 10) 「고(故) 강상철(姜相喆) 열사(烈士) 목포민주시민장(木浦民主市民葬)」(1986. 06. 27.).

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http://archives.kdemo.or.kr>, 2016. 09. 10) 「폭력경찰에 의해 계획적이고 고질적으로 철저히 유린당한 고 강상철 열사 장례 예배 방해를 규탄한다」(1986).

2) 목포 민주 회복 국민회의 결성

청년, 학생들이 목청련을 중심으로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였다면 또 다른 한축인 재야인사들과 목회자들은 목포 민주 회복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5·18 당시 시민투위원장 안철이 경영하던 '동아약국'²⁰⁾은 목포 민주화 운동의 본거지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많은 민주인사들이 모여 정세분석, 활동방향을 모색하면서 서로 교류하던 중 1986년 5월 17일 행복예식장에서 목포, 무안, 신안 각계각층의 양심 세력으로 '목포 민주 회복 국민회의'를 창립한다. 이들은 '민주주의 본고장 이라는 명예를 회복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5·18 정신을 이어받아 군사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 사회 건설에 매진할 것이며 열화와 같은 직선제 헌법으로의 개정이라는 국민의 뜻을 밝혀 내각 책임제, 이원집정제로 정권 연장을 피하려는 음모를 분쇄할 것이다. 2) 5·18당시 도둑맞은 시민권을 회복하고 고통 당하는 농민의 권리와 도시 빈민의 설움을 대변하여 지역민의 권익 옹호에 힘쓸 것이다. 3) 전 정권이 진정으로 민주화를 할 의사가 있다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김대중선생을 비롯한 민주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즉각 단행하라.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진실하고 겸허한 자세를 갖기를 권고한다. 4) 우리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제 단체와 연대할 것이며, 이 땅의 민주화 하나만을 위해 총 매진할 것이다.²¹⁾ 선언문을 채택하고 명재용, 김신원을 공동 의장에 안철을 집행부 의장에 선출하였다. 그리고 기관지 '민주목포'를 발행한다.

국민회의는 1985년 2.12 총선에서 신민당이 승리한 이후 개헌 열풍이 불자 동아약국에 개헌서명소를 설치하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구호로 개헌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던 중 평강교회 청년회 총무이자 국민회의 청년국 차장으로 일하던 강상철 열사가 분신하여 사경을 헤매자 '구명소식'을 만들어 열사의 뜻과 의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빨리 완쾌되기를 헌신적으로 돌보았으며 사망 이후에는 장례 위원회를 결성하고 '동트는 새벽'이라는 기관지를 만들어 열사의 삶과 죽음을 알린다.

국민회의는 1987년 박종철 군 분향소를 동아약국 2층에 설치하고 '목포시민추모위원회'를 결성하여 시민 추도회를 개최하는 등 이를 계기로 목포 지역 청년, 학생들이 함께 투쟁하고 앞장서며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6월 항쟁 때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목포지부'를 결성하여 주로 고문, 공동 대표, 지도 위원단으로 참여하고 항쟁을 이끌어 간다. 항쟁 이후 대통령선거 투쟁에 나서는데 10월 15일 봉황예식장에서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전남 목포 시지부' 창립대회를 갖고 '군부 독재

20) 동아약국은 목포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장소이다. 목포시 해안로 237번길 24(구 주소 행복동2가1-8)에 위치해 있었다.

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http://archives.kdemo.or.kr>, 2016. 09. 10) 「목포민주회복국민회의 창립선언문」(1986. 05. 17.).

종식 및 자주적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거국 중립 내각 쟁취 범시민 실천대회'를 11월 14일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에서 열고 가두행진을 한다. 또한 '노태우에 속지 말고 군부 독재 끝장내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민주 쟁취 국민 운동 공정 선거 감시단 목포 본부를 구성하여 공정선거 감시활동을 한다. 이때 구성된 조직을 살펴보면 고문과 지도 위원은 민주 쟁취 국민 운동 전남 목포시 지부 인사들이고 본부장 안철, 집행 위원장 양지문, 사무국장 김태진, 조직실장 곽재구, 조직1국장 윤소하, 조직2국장 김재홍, 조직3국장 김기원, 정책실장 이현희, 교육국장 정선수, 선전국장 강덕수, 방송국장 황정호이다. 상층부는 국민회의 사람들과 집행부는 목청련을 비롯한 청년, 학생들이 참여한 목포 민주 세력을 총집결한 거대한 조직이었다.

이처럼 국민회의에 참여한 재야인사와 목사들은 목포 민주화 운동사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재야인사들은 정치적 이해 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대부분 김대중을 지지하거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김대중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자 정치권으로 편입된다. 특히 목포 민주화의 상징이라 불리던 안철이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자연스럽게 국민회의는 해체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임기준(서부교회), 김현삼(죽동교회), 강만동(姜萬同, 상락교회), 류재기(柳在基, 금란교회)등 목사들은 이후 민주화 투쟁에 계속 참여하면서 상층부 역할을 수행한다.

4. 1987년 목포에서의 6월항쟁

6월 항쟁은 개헌정국, 박종철 군 고문 사망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1985년 2월 12일 치러진 15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명 여당을 표방하며 한 달 전 창당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이 되었다. 1년 뒤인 1986년 2월 12일 1,000만 명 개헌 서명 운동을 전개했으며, 수십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개헌 정국은 인천 5·3항쟁과 유성환(兪成煥) 의원의 국시 발언, 이민우(李敏雨) 구상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1987년 새해 민주화 운동을 촉진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朴鐘哲)이 1월 14일 치안 본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라며 쇼크사라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은 더해졌다. 동아일보에 의해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박종철을 추모하기 위한 2·7 추도대회와 3·3 평화대행진이 전국에서 진행되었다. 목포에서도 박종철 군에 대한 분향소가 동아약국에 설치되었으며, 2월 7일 오후 2시에 ‘고 박종철 군 목포

시민 추모 위원회'의 주도로 평강교회 2층에서 '고 박종철 군 목포 시민 추도회'가 열렸다.²²⁾

전두환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4월 13일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이라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



그림 7 목포민주화운동의 성지인 동아약국에 설치된 박종철 분향소

였다. 전두환의 4·13 호헌 조치 이후 전국적으로 호헌 조치에 대한 반대 투쟁이 계속되었다.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 7주년을 맞아 명동성당에서 '광주민주항쟁 제7주기 미사'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승훈(金勝勳) 신부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실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를 계기로 5월 27일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운동 세력의 연대로 광범위한 연합 전선체인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혹은 국본)가 결성되었다. 국민운동본부는 반군부독재운동의 구심체로서 이후 벌어질 항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첫 활동으로 6월 10일 '박종철 군 고문 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 헌법 쟁취 범국민 대회'를 기획하였다.

6월 10일 '박종철 고문 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민주 헌법 쟁취를 위한 목포 시민 대회'는 당국의 조직적인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8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인파가 목포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다.²³⁾ 당국은 대회 하루 전인 9일부터 주최 단체인 목포 사회 운동 청년연합과 민주 회복 국민 회의, 목포대학교 총학생회, 목포 기독교 교회 협의회 등 각 사회·종교단체의 목사·재야인사 등을 가택연금 했다.

대회 당일 오후 3시경에는 전경과 사복을 포함한 일반 경찰 그리고 인근 신안 지역에서 동원된 경찰 및 행정 공무원들을 대회장 주변과 관공서 등지에 집중배치 했다. 학교 당국은 오후 4시경에 중·고등학생들의 수업을 중단시키고 모두 귀가토록 했다. 학생들에게 빨리 귀가토록 종용하면서 '시내

22) 객재구 소장 사진자료.

23)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 항쟁을 기록하다』4, 2007.



그림 8 6월 항쟁 당시 중심 구호이다. 글씨는 일명 '타도체'로 불리워졌다.

에서 깡패 소탕 작전이 있으므로 절대 시내를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교사들을 동원하여 학생 생활 지도라는 명목 하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고 중고생은 한 사람도 시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을 시달렸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비롯하거나 하듯 많은 교사들과 중고생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시위에 참여했다. 오후 5시 20분쯤 2호 광장에서 목포대생 1백여 명이 '살인 정권 물러가라',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성명서, 전단 등을 배포했다. 약 5백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열기는 계속 고조되어갔다. 이때 목사·재야인사·시민 등 1백여 명이 주변에서 '4·13 철회하라'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은 끝내 최루탄을 발사했다. 시위대가 가두행진을 계속하자 많은 시민들이 이에 가담했다. 이때 2백여 명의 청년·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시위를 주도했다.

오후 6시 20분경 1천5백여 명의 시민들이 시민회관 앞 광장에 운집, 시위를 계속했다. 한편 여기 저기 모여 있던 시민들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최루탄이 발사되면 흩어졌다가 시민회관 쪽으로 이동했으며 소규모 투석전도 전개했다.

주변 건물에서 시위를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이 얼음과 삶은 계란을 시위대에 나누어주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6시 30분경 시민 1천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학생들의 주도로 대회가 진행되었고 시민들은 계속 불어났다. 대회 후반 집회를 주도하던 목포대학교 학생들이 역전 진출을 시도하면서 최루탄이 무차별 난사됐다.

시내 곳곳에서 분산 시위를 계속하던 시민·학생들은 오후 8시로 예정된 연합 예배와 미사 참석을 위해 연동교회와 연동성당 쪽으로 이동했다. 교회와 성당에 각각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었고 일부는 거리에서 싸움을 계속했다.

10시경 연합 예배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다시 시내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연동성당 쪽으로 가서 합세했다. 성당의 미사가 끝나자 시민들은 가톨릭회관 앞까지 평화적 행진을 하기로 결의한 후 신부·수녀들이 앞장선 가운데 2호 광장 입구까지 진출,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평화적 행진임을 강조하고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여 시위대를 분산시켰다. 주변 상가가 모두 철시한 가운데 오히려 2천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가 2호 광장으로 집결하여 경찰과 다시 대치 상태에 들어갔고 신부들은 재차 평화적 시위를 약속하며 경찰과 협상을 벌였다. 40여 분간의 대치 끝에 마침내 경찰이 길을 열어주자 시위대는 송홍철(宋鴻哲) 신부 주도로 「애국가」, 「선구자」,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를 부르며 십자가를 앞세우고 행진했다.



그림 9 목포역으로 진출하려는 시민들과 전투경찰들의 대치모습



그림 10 항쟁 당시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는 목회자와 시민들

5천여 명으로 불어난 연도의 시민들은 시위대와 함께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3호 광장 쪽으로 나아갔다. 시민들은 계속 불어나 3호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1만여 명을 훨씬 넘어섰다.

자정 무렵 가톨릭회관 앞에 도착한 시위대는 5천여 명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살인 정권 규탄 및 개헌 쟁취 결의 대회'를 갖고 자진해산을 결의했다. 시민들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이를 지지했다. 그렇지만 일부 시민들은 귀가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며 당일 연행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²⁴⁾

한편 교회와 성당에서 나온 일부 시위대는 역전광장 쪽으로 가두행진을 감행, 경찰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한 때 역 광장을 점거하기도 한 시위대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시위는 자정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됐다. 이날 시위로 역전·대성동·남교동 등 6개 파출소가 시위대의 투석에 의해 파손되었다. 17일에도 목포대생 50여 명이 30분가량 가두시위를 벌이며 전단을 살포하고

24) 같은 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http://archives.kdemo.or.kr>, 2016. 10. 17.) 「6·10 박종철 고문살인은폐규탄 범국민 대회 전국상황 일지」(1987. 06. 11.).

“매일 6시 역전광장에 모이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18일 오후 6시 역 광장이 봉쇄된 가운데 시민회관 앞(현 트윈스타 주변)에 3백여 명이 1시간가량 집회를 가진 뒤 역 앞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때 시민들은 1천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이들은 다음날 새벽 3시 30분경까지 산발 시위를 계속했는데 4개 팀으로 갈라져 파출소를 습격, 역전파출소가 파괴됐다.

국민 운동 본부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최루탄 추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목포에서도 목포대학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19일 「최루탄 추방을 위한 목포 애국 시민 쫓기 대회」라는 성명서를 통해 매일 목포역 광장에서 최루탄 추방대회를 열자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각 종교 단체에서는 독재 정권 타도, 최루탄 추방 기도회 개최할 것, 가정과 시내 전역에서 매일 오후 9시 무엇이든 두드릴 것, 우리의 주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오후 6시에 목포역 광장에 모일 것을 주장하면서, ‘민족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최루탄을 즉각 추방하라’, ‘장기 집권 획책하는 군부 독재 타도하자’, ‘4·13조치 철회하고 민주 헌법 쟁취하자’, ‘호헌론을 지지하는 미국놈을 몰아내자’,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위해 시민이여 총 쫓기합시다’를 외치자 하였다.²⁵⁾

19일 오후 6시경 전날처럼 역전광장이 봉쇄된 가운데 수문당제과점 앞에서 1백여 명이 모여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시위가 시작됐다. 4백여 시민들은 시민회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대중집회를 가졌다. 8시경 역전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한 시위대는 2개 대열로 분산하여 2호 광장으로 향했다. 2천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전경 약 1백여 명을 5분여 동안 포위하고 대치했으나 최루탄 난사로 흩어져 유달중학교, 3호 광장, 연동성당 등 3개 방향으로 나뉘어져 산발적인 투석전을 계속했다. 9시 반경에는 시민 2백여 명이 길가에 세워둔 전경버스를 둘러싸고 불을 질렀으나 잘 타지 않아 파괴해버렸다. 11시 반경에는 연동육교 밑에서 대중 집회를 연 뒤 경찰과 격렬하게 싸웠다. 이러한 산발 시위는 다음날 새벽 2시 반경까지 계속됐다.²⁶⁾

20일부터 고등학교가 다시 단축 수업에 들어갔다. 6시 30분경 시민회관 앞에 모인 2천여 시민들은 또다시 역전광장 진입을 시도한 뒤 흩어져 11시경까지 조직적인 시위를 벌였다. 그 후 새벽 2시 반경까지 산발 시위를 벌이던 중 11시 반경에는 목포 고교생 2~3백 명이 시위에 가담하기도 했다. 북교동성당에는 150여 명이 철야 농성한 후 새벽 6시경에 자진해산했다. 21일,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된 시위는 8시경 3천여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운 가운데 대중 집회로 이어졌다. 9시 반경 역전광장 진입이 시도됐으나 실패하자 다시 집회를 가졌다. 한편, 같은 시각에 NCC 산하 목사들이 모여 시

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http://archives.kdemo.or.kr>, 2016. 10. 17.) 「최루탄 추방을 위한 목포 애국 시민 쫓기대회」(1987. 06. 19.).

26)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앞의 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http://archives.kdemo.or.kr>, 2016. 10. 17.) 「최루탄 추방 및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 목포 애국시민 쫓기대회의 상황일지」(1987. 06. 24.).

위대에 가담하기 위해 집회장으로 향했다. 경찰은 오거리 중앙교회를 차단하고 목사들의 시위 가담을 저지하려 했으나 시민 2백여 명이 목사들을 호위하고 집회장으로 왔다. 1만여 명의 시위대는 문화패들의 탈춤과 품바 약식공연에 열광하며 가두시위를 전개하고 전신전화국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자 재야인사와 목사들은 선두대열로 2호 광장 방면으로, 후미는 남교동으로 나뉘었다.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난사로 부상자가 속출하자 참다못한 일반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경찰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시민들은 격분한 나머지 ‘최루탄 쏘지 말고 1:1로 싸우자’고 소리쳤으며 고교생들도 폭력을 행사하려 해 대학생들이 이를 만류했다.²⁷⁾

이 무렵 목포시 당국은 9시 반이 지나면 시가지의 가로등을 꺼버렸고, 경찰은 자정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위자들을 집단폭행한 뒤 연행해갔다. 이날 시위는 새벽 4시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됐다. 비상조치설에 아랑곳없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목포 시민들의 투쟁은 5·18항쟁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었고, 전국적인 시위의 파고를 극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26일 오후 6시부터 시위가 동시다발로 시작됐다. 2호 광장에서는 재야인사들이, 중앙교회에서는 개신교 목사들이, 남교동 시민회관에는 청년학생들이 중심되어 시작된 시위는 6시 30분경부터 조직적으로 전개되어 2만여 명이 2호 광장까지 진출했다. 이때까지 최루탄을 쏘지 않던 경찰은 이날 최초로 역전광장이 시위대에 의해 점령당하자 후미를 끊은 뒤 최루탄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다시 10여 곳으로 흩어진 시위대는 격렬한 투석전을 전개했다. 8시 30분경 시민회관 앞에 재집결한 3천여 군중은 다시 역전광장으로의 진출을 기도했으나 저지당하자 1시간 여 동안 투석전을 전개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화염병이 등장했다.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하자 쫓겨 다니던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계속 화염병 투척을 요구하는 등 시민 무장을 주장했다. 11시 반경까지 투석전을 계속한 뒤 북교초등학교 앞까지 밀린 시위대는 4곳으로 분산되어 새벽 4시까지 산발 시위를 계속했다.

27일에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극에 달했다. 이날도 오후 6시에 시민회관 앞에서 학생 20여 명이 구호를 회치며 시위를 시작하자 사복조 40여 명이 들이닥쳐 난투극이 벌어졌다. 곧 달려온 전경들이 방패로 가린 뒤 학생 8명을 연행해갔다. 학생들이 연행되자 시장아줌마 등 시민들이 전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먹살을 잡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9시경 학생 2백여 명이 화염병 2개씩과 각목으로 무장하고 중소기업은행 앞에 집결했다. 시민들은 무장을 요구했었으나 실제로 이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 시위대들은 약 30분간 대중 집회를 가진 뒤 역 앞 광장 진출을 시도했다. 이때 시민들이 사복조 4명을 잡아 폭행을 가했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자정 무렵 시위대는 남

27) 주 26)과 같음.

교통 쪽으로 밀려나 재집결한 뒤 다시 역전으로 나아갔다. 시위대는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소파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 바리케이드를 설치했고, 시민들은 최루탄이 터지면 옥상에 올라가 물을 뿌렸다. 이때 대성동파출소가 1백여 시위 군중에 의해 전소되었다. 새벽 1시경 2호 광장에서 3호 광장으로 밀려난 시위대는 2시경 경찰이 적극공세로 나오자 흩어져 새벽 4시까지 격렬한 산발시위를 전개했다.

한편, 새벽 3시경 트럭운전사가 시위자 20명을 태우고 역 앞으로 진입했다. 이들 20명은 교통센터와 역전파출소를 전소시킨 뒤 모두 연행돼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이때 경찰은 밖에 나와 있던 모든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한 후 연행했다.

28일에도 밤 10시경 1백여 명이 2호 광장에 집결, 전경들과 1시간여 동안 몸싸움을 벌여 그중 30여 명이 연행되고 나머지는 흩어져 새벽 1시까지 산발 시위가 벌어졌다. 29일은 세무서를 주 공격 목표로 삼고 6백여 개의 화염병이 준비됐으나 이른바 6·29선언으로 무위에 그쳤다. 고교생들은 이날까지 단축 수업을 받았다. 목포시민들은 시위가 없는 날도 관성적으로 집결지에 나와 항상 6~7백 명이 모여 있었다.

6월 29일은 국민들에게 위대한 날이었다. 독재 타도와 직선제 쟁취를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결국 전두환과 신군부는 굴복했다. 6월 29일 오전 9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8개 항을 된 6·29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한다.

둘째,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한다.

셋째, 김대중 씨 등을 사면 복권하고, 시국 관련 사법들을 석방한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며, 인권 침해를 시정한다.

다섯째, 언론 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언론기본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방 자치제와 대학의 자유화 및 교육 자치제를 조속히 실현한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를 마련한다.

여덟째,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한다.

노태우의 6·29 선언 이후 7월 1일 전두환의 6·29 선언 수용, 7월 24일 국회 개헌안 협상, 10월 12일 개헌안 국회 찬성, 10월 27일 국민 투표 찬성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헌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통과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양 김에게로 향했다.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킨 만큼 신군부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김대중과 김영삼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양김은 서로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눈치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 독자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다.

후보 단일화의 실패로 민주진영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다. 김대중을 지지하는 ‘비판적 지지’와 김영삼을 지지하는 ‘후보 단일화론’, 백기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민중 후보 추대론’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 목포는 압도적으로 김대중을 지지하였다. 그것은 앞서도 밝혔듯이 목포의 개발 소외와 분노가 목포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김대중에 대한 기대로 나타난 결과였다. 물론 일부 김영삼계 사람들이 김영삼으로 단일화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여론의 확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목포의 민주 세력은 김대중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양분되었으며,²⁸⁾ 청년 운동 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청년운동 내에서는 김대중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보다는 지역주의 색채를 배제한 채 민중 운동적 시각에서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 비극의 분열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 목포대학교 학생이던 박태영(朴泰泳)은 민주화 세력의 분열을 마냥 지켜볼 수 없었다. 10월 29일부터 ‘이 땅의 민족 지성인에겐 행동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억눌림도, 갈라짐도, 분노도, 저항도, 시행착오도, 피 흘림도, 여기서 끝냅시다. 民主人本’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양 김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의 시위는 정문에서 교정에서 계속되었으나 목소리가 그들에게 전달되지는 못하였다. 10월 10일 김영삼의 출마에 이어 11월 12일 김대중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분열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정치권의 분열과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시위 동력을 상실한 박태영은 분신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통해 이 땅의 민주화를 바라고자 하였다. 투쟁 42일째가 되던 12월 9일 12시 30분경 목포대학교 후문에서 ‘군부 독재 타도’, ‘제도 교육 철폐’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다. 온 몸에 화상을 입고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0일 오후 4시 26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민주쟁취 국민 운동 본부를 비롯한 민주 세력은 ‘애국학생 故 박태영 열사 장례 위원회’를 결성하고 장례를 ‘애국학생 故 박태영 열사 민주 도민장’으로 결정했다. 장례 위원장엔 문정식 목사, 집행위원장엔 박흥도 목포대학교 총학생회장 장이 맡았으며, 장례 위원으로 김영진(金永鎭), 홍남순(洪南淳), 조아라, 조비오, 임기준(林基俊), 장하원, 윤기석(尹基錫), 정상용, 안철, 배종렬(裴宗烈), 박석무(朴錫武), 신기하, 문병란, 장만동, 명노근 등이 참여했다. 12월 12일 광주도청 앞 광장에서 ‘애국학생 故 박태영 열사 민주도민장’이 거행되었으며, 망월동 오월묘역(묘지번호 78)에 안장되었다.

28) 박광웅과의 인터뷰(2008년 9월 24일), 목포대학교 사학과 학생심포지엄, 『목포와 민중』, 2008에서 재인용.

후보 단일화의 실패로 1987년 12월 16일 치러진 13대 대통령 선거는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의 4자 대결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36.6%를 기록한 노태우가 제 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대선 결과가 노태우의 당선으로 드러나자 평민당과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부정 선거로 규정하고 선거 무효화 운동에 돌입하였다. 김대중은 이번 선거가 관권의 전면 개입, 선거 자금 독점, 전국적인 매수와 함께 부재자투표와 일반개표에 있어서 부정이 자행됐다고 비난하면서 1988년 1월에 『부정 선거백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목포에서도 민주 쟁취 국민 운동 본부 목포지부의 주도로 부정 선거 무효화 투쟁이 진행되었다. 17일 11시부터 목포역으로 모인 시민들은 부정 선거 무효를 외쳤으며 오후에는 1,200여 명이 모여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등 격렬한 대치를 하였다. 18일에는 오후 6시부터 집회가 진행되었으며 수 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0일의 시위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되었다. 700여 명으로 시작한 시위행렬은 1,0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대치 과정에서 5명이 부상을 당했다.²⁹⁾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부정 선거 무효화 투쟁은 서울, 광주에 비교해 봐도 전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속한 투쟁이었다. 당시 국민 운동 본부는 김대중이 낙선할 경우 무조건적인 부정 선거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부규정을 세우고 있었다.³⁰⁾ 이 투쟁은 군부 파쇼 재집권 반대 집회라는 의미를 넘어 목포 시민들의 김대중에 대한 지지 확인 투쟁으로 전개된다. 12월 17일 목포역에서 대규모 시위와 시민회관 앞에서 부정 선거 규탄 대회가 진행됐으며,³¹⁾ 21일에는 목포극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³²⁾ 그러나 부정 선거 무효화 투쟁은 국민 운동 본부 목포지부 내부의 혼란을 가져왔고 21일 이현희가 구속되고 국본의 조직1국장 윤소하, 선전국장 강덕수 등은 피신 생활을 하게 되고 투쟁의 열기는 점점 사그라졌다.

5. 1987년 이후 목포 민주화 운동의 분화와 확산

1985년 결성된 목청련은 6월 항쟁 과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되기

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http://archives.kdemo.or.kr>, 2017. 08. 16.) 「부정선거 무효 투쟁관련 전남지역 상황」(1987. 12. 20.).

30) 이현희와의 인터뷰(2008년 9월 5일).

31) 월간 『말』 1987. 12. 「부정선거 규탄과 선거무효화 투쟁 격화」, 13~14쪽.

3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http://archives.kdemo.or.kr>, 2016. 10. 17.) 「국민운동」호외 8호(1987. 12. 22.).

시작하면서 조직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그 시작은 1987년 8월 월출산에서 17명이 참여한 하계 수련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는 목청련이 목포 지역의 청년 대중들과 함께 하는 조직인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소수의 운동가 중심에서 명실상부한 청년 대중 조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일하는 청년 대중을 계급, 계층별로 묶어 세워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1987년 8월, 9월 전개된 노동자 대투쟁 당시 목청련에서는 『목포의 소리』 11호, 12호를 발행하면서 대대적인 선전 활동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학습체인 ‘노동반’이 만들어졌다. 노동반의 창립 이후에는 ‘여성반’, ‘직장반’이 차례로 구성되었다. 노동반은 운수노동자, 생산직 노동자를 주축으로 노동법 연구, 노동문제 연구, 노동청년 강좌 등을 실시하고, 직장반은 민주주의에 관심과 참여를 표명하는 양심적인 중소기업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여성반 또한 여성문제 연구를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1988년 3월 6일 목청련은 상반기 정기 총회를 열고 목포 사회 운동 청년 연합에서 목포 민주주의 청년 연합(이하 목청련)으로 개칭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였다.³³⁾ 목청련의 활동을 살펴보면 4월 5일 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반이 창립되었으며 4월 26일 치러진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정당 낙선 투쟁을 전개하면서 같은 기간 발생했던 호남고무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지원했다. 5월 18일 목포 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와 공동으로 목포·광주 민중 항쟁 기념행사를 열었으며, 7월에는 지도의 태원농장 농민 생존권 지원 투쟁, 8월 2일부터 7일까지 북한 바로알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 신명여상에서 발생한 사학비리에 대해 교사, 학생들과 연대하여 사학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도 했다.

89년에 이르러서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상반기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의장으로 윤소하(尹昭夏)를 선출하였다. 4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청년학교’를 개설하여 목포 지역 청년들의 정치적 각성과 권리 의식 성장을 돕고자 하였다. 5월에 들어서는 5·18 투쟁 본부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철규(李哲揆) 열사 진상 규명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 목포 지역 노점상들의 생존권 지원 투쟁을 전개하며 이를 통해 민중 생존권 탄압을 폭로,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한편으로 6월 항쟁을 겪으면서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고 통합된다.

참세상청년회는 1987년 12월 30일 ‘목포새로운청년회준비모임’으로 발기하여 1988년 7월 ‘목포 참세상청년회’(이하 참세상)로 정식 창립하였다. 참세상은 ‘정의로운 청년, 의리있는 청년, 애국하는 청년’의 가치를 들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의 부름에 달려 나가기 위하여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청년회로 나아가겠다고 결성 목적에 밝히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공부방세상, 건강세상, 노래세상, 연극영화세상, 풍물세상 등 6개 세상을 만들어 청년들이 건강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33) 이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목청련은 목포민주주의청년연합을 가리킨다.

건전한 열기를 발산하여 청년 고유의 기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공안정국의 탄압에 노출되어 1989년 11월 7일 회장 박석룡(朴錫龍)을 비롯한 강성휘(姜誠輝), 여병창(呂炳昌), 박창식(朴昌植), 곽규현(郭奎炫) 등이 이적 표현물 소지, 선동, 불온 유인물 유포죄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목포에서는 국가보안법 적용 첫 번째 사건이었다. 정치적인 의무를 다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조직을 표방하는 목청련과 건강한 취미 속에서 청년 고유의 기질을 실현하자는 참세상, 두 청년회는 활동방향이 달랐지만 서로의 장점을 살리며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YMCA에서 독립해서 활동하던 갯돌은 우리문화연구회 어울림과 통합하여 ‘목포민족문화운동연합’을 결성하고 노래패 ‘어울림’, 극패 ‘갯돌’, 미술패 ‘대반둥’으로 활동한다.

그런가 하면 해고노동자 중심으로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공해와 핵을 반대하는 청년모임’이 결성되고 YMCA를 중심으로 독서클럽과 야학 등이 만들어 진다.

또한 항쟁 이전부터 오랜 기간 목포 민주화운동의 한축이었던 목포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연합, 가톨릭청년회도 꾸준한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사회운동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1990년 1월 23일 민정당의 노태우, 민주당의 김영삼, 공화당의 김종필이 3당 합당을 선언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목포의 민주세력은 이를 군부파쇼 정권의 연장을 위한 국민에 대한 기만정책이라고 규정하고, 3당 합당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민주 세력들은 낮은 단계의 상설 연대체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더욱 발전된 형태로 목포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선체 조직을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논의의 결과로 1990년 4월 19일 목포 지역 22개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여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이하 목민협)가 창립되었다.

목민협은 임무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하였다. 첫째, 지역 내 민민진영(민족민주운동진영)의 지도력을 올바로 건설하고 민주 세력의 결합력을 높인다. 둘째, 매시기 대중 투쟁을 주체역량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폭넓게 전개한다. 셋째, 지역 시민대중에 알맞은 교양선전사업을 전개하고, 조직화를 꾀한다.

1990년 이후 목민협은 명실상부한 목포 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집결체로 지역 문제, 민주화 운동, 조국 통일 운동을 이끌어 간다.

곽재구 |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제5절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과 현재

1. 얼마나 부르고 싶던 이름인가?⁰¹⁾

1) 김대중 대통령(1998~2003)의 당선

1997년 12월 18일, 김대중 후보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네 번째 도전만에 이루어낸 기적 같은 승리였다. 전남도청 앞 분수대 주변에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나왔고, 그들의 손에는 ‘드디어 해냈다! 50년만에 정권 교체’ 등의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다. 길가의 시민들도 「목포의 눈물」을 부르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⁰²⁾

목포역에도 마찬가지로였다. 역 앞 육교에는 ‘얼마나 부르고 싶던 이름인가? 김대중 대통령!’이라 쓴 현수막이 내걸렸다. ‘행동하는 양심’, ‘인동초’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큰 별이지만, 목포를 비롯한 호남인들에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신 같은 존재였다. 김 대통령의 당선은 목포 시민들에게 감동 그 자체였다.

그 감동의 순간을 영원히 누리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정권만 잡으면 ‘고통 끝, 행복 시작’인줄 알았지만, 김영삼 정부가 물려준 IMF 사태는 그런 기대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었다.

IMF 관리 체제라는 경제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해내는 일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행복은 뒷전으로 밀렸다. 목포 시민들은 ‘이 기회에 보다 많은 것을 얻어냈으면……’하다가도 ‘그러다 역풍을 맞아 대통령님이 곤경에 처할까……’우려하였다. 그래서 우리 것 챙기기는 차라리 뒷전이였다. 자신의 이익을 뒤로 할 만큼 대통령의 성공을 바랐다. 김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그동안의 지역 차별에 대한 한 풀이를 했고 자존심을 회복했는데, 그걸 분명히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답은 성공한 ‘호남’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듯이 2001년 8월 23일, IMF 관리 체제를 조기 종료하여 경제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흑독한 기업 구조조정과 정부의 자구 노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일치·단결하여 극복에 앞장섰던 국민들 덕분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삶의 기간 내내 숭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 특히 재임기간

01) 이 글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지역 사정을 전하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주로 활용하였다. 단순 소식을 전하는 기사는 번거로움을 피해 생략하였다.

02) 『조선일보』 1997. 12. 19. 「시민들 ‘김대중’ 연호 물결 / 광주 중심가 환호의 눈물」.

동안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의 초대로 평양을 방문해서 6·15 공동 선언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50여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냉전을 남북 화해와 평화의 기틀로 바꾸는 데 온 힘을 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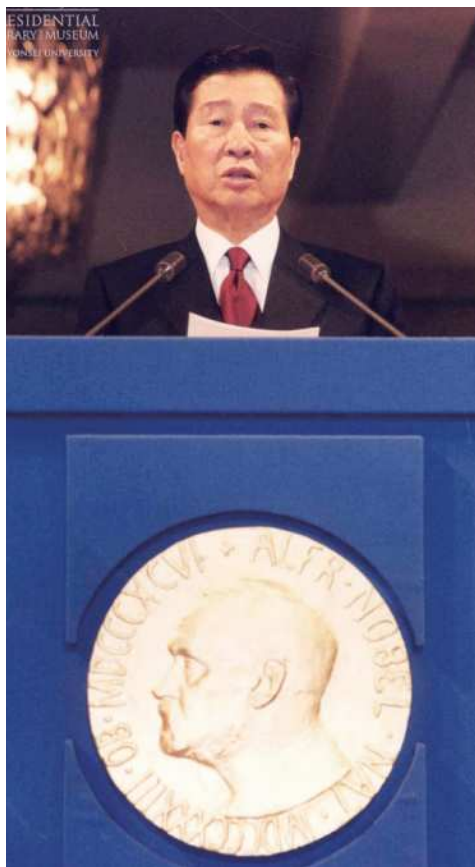


그림 1 노벨평화상 수상소감을 말하는 김대중 대통령(2000년 12월 10일, 김대중도서관)

2)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

김대중 대통령 만세, 만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타전된 2000년 10월 13일 오후 6시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 대통령의 생가에 모인 고향 사람들은 일제히 만세를 높이 불렀다.⁰³⁾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동안 14번이나 후보로 추천되었었다. 한국인으로는 첫 노벨상 수상이었다. 패트릭 스미스(Patrick Smith)는 2003년 1월 말, 미국의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에서 “수주일 후면 5년의 임기를 마치는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이룬 업적으로 반세기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하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하였다.⁰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 ‘한국 현대사의 거목’ 김대중 대통령은 2009년 8월 18일 오후 1시 42분, 향년 85세로 생을 마치고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당시 장의 위원장이었던 한승수 국무총리는 조사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를 이뤄 정치 발전의 확고한 기틀을 닦았고,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길을 열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한국

03) 『조선일보』 2000. 10. 14. 「하의도 김대통령 생가 표정/ “섬마을서 세계인물 났네”」.

04) 정태영, 『목포발 청춘열차』, 뉴스투데이, 2014, 348쪽.

의 위상을 드높인 일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라며 추모하였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역사의 현장이었다.

이처럼 호남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얼마든지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호남이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 지역이란 점을 확인해 주었다. 성공한 대통령! 이것만큼 큰 유산은 없을 것이다.

3)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억과 기념

목포 삼학도에 세워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학습의 장, 기념의 공간으로서 이를 기리는 기억의 장치이자 목포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2006년 10월 목포시는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목포를 방문했을 때 삼학도에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념하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2007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완료했으나 이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2009년 10월에 들어서 국비를 확보하고 실시 설계, 유품 수집 등에 진전을 보이며 활기를 띠었다. 2011년 9월 5일 착공식을 가졌고, 6·15 남북공동선언 13주년인 2013년 6월 15일에 문을 열었다.

서거 3주기를 맞아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일대기 창작 공연을 열기도 하였다. 김성옥 연출가가 애니메이션·영상·무용·노래 등을 결합해 만들었다. '당신은 우리입니다'라는 주제로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온갖 역경을 딛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세계 평화의 지도자로 업적을 남긴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렸다.⁰⁵⁾ 이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기념관으로, 일대기 공연으로 다양하게 기억되고 있다. 목포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며 여전히 살아 있다.

사실 역사란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또 만들어 가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우리 지역의 훌륭한 유산으로 만드느냐 여부는 그대로 우리들 하기 나름이다. 행동하는 양심, 인동초 등의 수식어가 말하듯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좌절하지 않는 도전정신이다. 칠전팔기의 도전 정신, 지역 차별의 왜곡된 구조 속에서도 호남인이란 치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이끈 불굴의 투지, 그런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05) 『조선일보』 2012. 08. 17. 「[호남] 목포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일대기 창작공연」.

2. ‘국민의 정부’와 목포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지역이 거는 기대는 당연히 컸다. 기대가 너무 커서였을까? 임기를 마쳤을 때 ‘DJ가 우리에게 뭘 해줬지?’하는 말을 던지며 ‘역차별’을 당했다는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반대로 ‘DJ 만한 정치가가 앞으로 안 나올 것이여’하며 자긍심을 보이기도 한다.⁰⁶⁾ 그런데 돌이켜 보면, 기대만큼은 못할지 몰라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김대중 정부 기간이 좋은 시절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1) 서해안 시대, 신도청 시대를 열다.

(1) 한-중수교와 서해안시대

1992년 8월 24일 한-중 간에 역사적인 수교가 맺어졌다. 한-중 수교는 경제외적인 장애를 제거해 줌으로써 무역, 투자, 기술이전, 건설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경제 협력 관계를 본격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해안이 그 일차적 수혜지역이 되리라 기대하였다.

서해안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목포도 그런 기대에 부풀었다. 이른바 ‘서해안 시대’의 개막이었다. 그 해 11월 1일에는 목포시와 중국 연운항시가 자매결연식을 갖고 양 도시 간 경제 협력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수교 이후 공식 대표단이 파견돼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소외된 땅’이라 불리던 목포는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위해 ‘아껴놓은 땅’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이제 나아가 ‘크게 써야할 땅’이 되었다. “1897년 개항 이래 1세기 만에 제2의 도약을 향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⁰⁷⁾고도 말하였다. 한국미래학회 세미나에서는 목포권이 서해안 개발에서 이른바 태풍의 눈이 될 것이며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무안군 등을 포괄하는 인구 2백만의 목포직할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구상까지도 제시하였다. 한마디로 ‘목포의 야심’이란 신문 기사가 나올 만큼 21세기 국제 교역 도시로서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⁰⁸⁾ 이때에 맞춰 목포백년회를 중심으로 지난 1백 년을 돌아보고

06) 김종익, 『목포의 내일을 건다』, 가지, 2014, 82쪽.

07) 『조선일보』 1993. 02. 27. 「서해안시대 위해 아껴둔 땅」.

08) 『조선일보』 1994. 05. 26. 「“목포의 야심” / 21세기 국제교역도시로」.

이를 바탕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 세계 속의 목포를 이루자는 제2개항을 선언하기도 하였다.⁰⁹⁾

그러나 1997년 11월 목포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던 한라중공업이 부실화로 인한 위기를 맞았다. 전체 인원의 절반을 줄이겠다는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도 사태를 맞았다. 형제그룹인 현대의 인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던 터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지만 목포가 당장 달라질 수는 없었다. IMF 관리 체제의 위기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서 그나마 목포의 기대가 현실화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10월에는 중소기업에 공장 터를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대개 10여만 평에 그쳤던 다른 지역에 비해, 목포의 대불산단은 1백3만 4천 평이나 되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건교부는 광주-목포 권역 개발과 관련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신외항도 대폭 확장하기로 하였다.¹⁰⁾

1999년 기묘년 새해를 맞아 서남권 중추 도시로의 부상을 꿈꾸며 목포는 10년 침체를 털고 재도약을 시작하였다.¹¹⁾ 김대중 대통령도 목포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무안 망운 국제공항과 목포신외항이 건설되면 이 지역은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해 동북아와 연결되는 국제 물류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¹²⁾ 부산에서 목포까지 11개 시 12개 군을 잇는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사업도 착수하였다.

이제 겨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는 정도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에서는 이를 심하게 왜곡함으로써 역차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한나라당은 마산 집회에서 ‘국민의 정부는 특정 지역의 정권’, ‘한일합섬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는 등으로 지역감정을 자극하였다.¹³⁾

영남권의 왜곡은 도를 더해갔다. ‘대구-경북은 연일 건설 회사가 부도나는데 광주-전남에는 덤프 트럭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이라거나 ‘경상도 고속도로 주변에는 연기 나는 공장이 별로 없는 데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면 모든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전라도에는 없는데 경상도에만 실업자가 득실거린다’는 등 각종 루머를 만들어냈다.¹⁴⁾ 실제로 1989년 조성된 대불산업단지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망스런 수준이었고,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하는 정도였을 뿐이었다. 각종 루머들은 왜곡된 거짓이었음이 분명했지만, 영남권 야당이 민심 흔들기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부추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 때문에 목포를 비롯한 호남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

09) 『조선일보』 1997. 09. 29. 「세계 속의 목포 겨냥 제2 개항선언 계획 중」.

10) 『조선일보』 1998. 12. 17.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신산업지대 조성」.

11) 『조선일보』 1999. 01. 06. 「새희망 기묘년 / 10년 침체 털고 재도약 '망치소리'」.

12) 『조선일보』 1998. 08. 26. 「대통령 돼서 고향에 왔습니다」.

13) 『조선일보』 1999. 01. 25. 「보복정치-지역차별 / 2만여 청중에 호소」.

14) 『조선일보』 1999. 01. 25. 「흔들리는 영남민심을 붙잡아라 / 정부-여당/야당, 마산집회서도 지역감정 선동」.

었다. 이는 결국 호남에 대한 ‘역차별’을 낳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호남과 충청의 지지는 더욱 강고해졌다. 예를 들면, 1999년 4월 1일 확대 실시를 앞둔 국민연금 가입 신고율이 전국적으로 58% 선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전남 목포시가 23일 이미 신고율 100%를 달성했다. 공주도 100%를 달성했고, 충남과 전남이 각각 1, 2위를 달렸다.¹⁵⁾ 이를 두고 당시 언론에서는 연금관리공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지역별 신고율 추이가 마치 공동 정권의 지지 기반인 지역끼리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고 보도할 정도였다.

지지가 확고한 만큼 보상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시민 단체들도 나섰다. 목포에서는 목포YMCA, 목포 YWCA,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목포포럼, 미래를 여는 공동체, 민예총 목포지부, 목포시정지기단 등 8개 단체가 목포 시민 단체 연대를 구성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전남도청 이전이 확정되고 서해안고속도로, 호남선 철도복선화, 목포신외항, 무안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시설이 속속 갖춰지는 등 목포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 같은 외적 변화에 걸맞는 시민 사회의 성숙을 위해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¹⁶⁾

한국능률협회 공공자치연구소는 지방 자치제 출범 5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1999년도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여수시가 도시경쟁력 1위에 선정되었고, 도시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목포시가 1위를 차지했다.¹⁷⁾ “‘우는 아이에게 먼저 젖 준다.’는 속담이 전남도의 대 정부 예산 투쟁에 잘 적용되고 있다. 최근 몇 해간 부지런히 뛰어 정부 예산 확보에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전남도가 올해도 빈틈없는 작전에 나섰다.”라는 신문 기사가 보여주듯이 그래도 김대중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¹⁸⁾

그런 와중에 삼호중공업(옛 한라중공업)도 1997년 부도를 딛고 1999년 현대중공업의 위탁경영 2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2년 5월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결정하여 세계 최대 조선그룹으로 재출범하였다.

(2) 신도청 시대의 개막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서남권은 새 역사를 써나갔다. 2001년 12월 21일 서해안고속도로 완전개통식이 열렸다. 그리고 그에 앞서 전남도청이 옮겨갈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에선 새청사 기공식이 열렸다.

15) 『조선일보』 1999. 03. 26. 「우리가 확실히 밀어주자」.

16) 『조선일보』 1999. 10. 18. 「호남의 NGO / 소비자 보호에서 정책 감시까지」.

17) 『조선일보』 2000. 06. 30. 「여수 도시경쟁력 1위 / 능률협」.

18) 『조선일보』 2001. 02. 17. 「현안사업 151건 4조 2116억 요구 / 전남 국비예산 확보 '총력'」.

‘서남권 시대가 열렸다’, ‘서남해 지도가 바뀐다’는 말들이 머뭇거림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로 불리던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이 발전을 기약하는 현상이 되었다.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¹⁹⁾ 목포 시민들은 ‘목포신외항, 무안국제공항, 남악신도시’가 삼각축을 형성, 목포권이 이제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환영하였다.

전남도청의 이전 논의는 1993년에 시작되었다. 1993년 4월 7일 전남도청 이전 특위 구성에 대한 도의회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이어서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통해 “도청을 옮기고 현 청사를 5·18기념관으로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예산 지원도 약속하였다. 5·18 해법 차원에서 도청 이전 방침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도청 이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다. ‘도청을 내 고장에’를 목표로 유치경쟁이 치열했다.²⁰⁾ 전남도는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 같은 해 12월 21일 이한빈 전 부총리 등 각계 권위자 30여 명의 검토 끝에 표결로 목포권인 전남 무안군 삼향면 일대를 선정해 발표하고 전라남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였다.²¹⁾

도청 이전은 지방 자치법에 따라 도지사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전남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나주, 장흥 등 끝까지 후보지 경합을 벌였던 지역 주민들은 무안 이전에 여전히 반대하였고, 광주-전남 통합론을 주장하면서 도청을 그대로 광주에 두자는 의견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1999년에 들어와 ‘도청은 목포’, ‘엑스포는 여수’로 가닥을 잡았고, 지리한 논란 속에 6년여를 끌어온 전남도청 이전 문제는 6월 30일, 마지막 관문인 도의회를 통과했다.²²⁾ 도청 이전은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얹히고설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였다. 이 문제를 풀어 원안대로 목포에 인접한 무안군 삼향면으로 옮기게 된 것 역시 김대중 정부가 있어 가능했던 일 중 하나였다.

1999년 7월 도청 이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이어서 2000년 3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확정, 2001년 12월 21일 도청사 착공, 2005년 11월 11일 개청하였다. 전남의 행정 중심이 개도(開道) 109년 만에 ‘광주시대’를 끝내고 ‘무안시대’, ‘신도청 시대’를 열었다.

반세기의 쇠락을 만회하기 위한 목포의 노력은 뜨거웠다. 그러나 하드웨어는 벌여놨는데 소프트웨어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목포의 딜레마였다. 인구 25만 명, 낙후된 인프라와 인적 기반으로 도약의 발화점을 찾기 어려웠다.²³⁾

19) 『조선일보』 2001. 12. 22. 「서해안고속도 완공·신도청 기공…… “목포권 도약 발판 마련”」.

20) 『조선일보』 1995. 06. 14. 「“도청을 우리동네로” 쟁점」.

21) 『조선일보』 1993. 12. 24. 「무안 삼향면-목포일부-영암 삼호면일대 / 새전남도청 소재지 결정」.

22) 『조선일보』 1999. 07. 03. 「전남도 2002년 무안 이전 결정났지만 ……」.

23) 『조선일보』 2002. 05. 27. 「서해안 시대의 목포 광역권」.

겉으로 보기에는 목포가 도로 정비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장밋빛 청사진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 내 경제 정책들을 살펴보면 실제 체감지수가 그리 양호하지 않았다. 대불공단, 삼진산단의 지지부진한 분양, 담보 상태인 신외항의 민자 유치, 행남자기의 본사 이전설 등으로 인하여 목포권 자치 단체들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 부재하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높았다.²⁴⁾

2) 목포가 얻은 것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사회 간접 자본(SOC) 즉 인프라(infra)라 불리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들의 확충이었다.

(1) 서해안 고속도로



그림 2 김대중 대통령 내외 서해안고속도로 무안-목포간 개통식 참석(1998, 국가기록원)

먼저 총연장 353km의 서해안고속도로를 들 수 있다. 1990년 8월 착공하여 1996년 완공 계획이었으나 착공부터 연기되어 이듬해 1월 기공식을 가졌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인천과 목포를 3시간 대로 이어 주고 국토의 서쪽지역을 종단하는 변영의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완공 시기는 2001년이었으나 기약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국민의 정부에 들어오면서 달라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월 25일 서해안 고속

24) 정태영, 앞의 책, 57쪽.

도로 무안-목포(23.2km) 구간 개통식에 참가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의 완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산을 투입, 계획된 공기를 1년 앞당겨 오는 2001년 전 구간을 개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 결과 서해안 고속도로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져 2001년 12월 21일 전 구간 개통이 이루어졌다.

“인천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9년째 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달팽이가 기어가도 벌써 도착했겠다.”²⁵⁾ 김대중 대통령의 지적이 있을 만큼 지지부진했던 일이 1년 앞당겨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목포가 얻은 것이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목포를 찾는 외지인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객 증가 대책으로 ‘미항(美港) 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2) 호남고속철도

1990년 6월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의 완공에 맞추어 1998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완공시킬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호남선 복선화도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도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송정리-목포간 호남선 복선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²⁶⁾ 그러나 “호남선(목포-송정) 복선화 및 전철화 사업 등 지역의 숙원 사업들은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 돼 4년째 표류하고 있다.”²⁷⁾는 기사처럼 말 뿐이었다.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도 수도권 외곽고속도로 등은 앞당겨 마무리 짓는 대신 무안신공항이나 호남고속철사업 등은 연기되었다. 경부고속철이 1999년에 시험선 운행으로 본 궤도에 오른 반면, 호남고속철은 상대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호남선(대전-목포)을 2004년까지 전철화, 호남에도 고속열차가 조기 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04년 고속열차가 진입하는 영남권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⁸⁾ 마침내 2001년 9월 6일 대전-목포간 호남선 전철화 사업이 착공되었다.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대전) 개통에 맞춰 호남선에서도 고속열차가 운행되도록 하였다. 이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2004년 3월 24일 목포역 광장에서 호남선(서대전-목포, 256km)의 복선화(複線化) 및 전철화(電鐵化) 완공식을 가졌고 4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호남선구간(익산-목포)은 KTX 전용선이 아닌 기존 호남선을 활용했기 때문

25) 『조선일보』 1999. 04. 08. 「확성기」.

26) 『조선일보』 1991. 02. 06. 「호남선 복선사업 조기착공 검토」.

27) 『조선일보』 1992. 11. 04. 「6공 지역공약 공약 많다 / 임기 석 달 남기고 “주민실망”」.

28) 『조선일보』 1999. 12. 20. 「집중취재 / 고속철도<하>」.

에 KTX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반쪽 고속철이었다. 이에 지역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를 반드시 조기에 착공, 2015년까지는 전용선으로 완공해줄 것을 재촉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 착수 시기는 추후 결정할 문제'라고 미루었다. 그때는 2005년이었고, 이미 김대중 정부는 끝난 시점이었다.

호남고속철은 지리한 공방 속에 천연되다가 겨우 2009년 12월 4일 광주에서 기공식을 할 수 있었다. 이날 착공한 호남고속철도는 오송역에서 공주, 익산, 정읍, 광주를 거쳐 목포에 이르는 230.9km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오송에서 광주까지 1단계 구간은 2014년, 나머지 광주에서 목포까지 2단계 구간은 2017년 완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목포 노선은 무안국제공항 경유 여부를 두고 정부·전남·나주시 간 갈등을 구실로 '기존 노선을 활용할 것'으로 정해졌다.

2015년 4월 2일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인 오송역에서 광주송정역 구간이 개통하였다. KTX 전용선을 놓는 데 무려 11년이 더 걸렸다. 광주송정-목포 구간의 고속선은 언제 놓일지 여전히 미정이다.

(3) 무안공항과 목포 신외항

정부는 1986년 8월, 양양 국제공항과 함께 호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내정하였고, 1994년 4월, 전국 공항 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에 따라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 호남권 신공항, 즉 무안공항을 건설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공항으로 당초 사업 기간은 1995년~2000년이였다.

그러나 실제 공사 진행은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다가 역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8월 11일, 호남권 거점공항 대역사의 '첫 삽'을 떴다.²⁹⁾ 참여정부 때인 2007년 11월 8일, 착공한지 8년여 만에 역사적인 개항을 하였다.

무안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지난 1년 동안 나아진 자치 단체' 평가에서 무안이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무안에 신국제공항이 들어서 호남권의 교통중심지가 되어 개발의 여지가 '무한'하다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확대되고 있던 결과였다.³⁰⁾ 그러나 광주공항의 국제선 존치 여부나 광주공항의 폐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어 무안공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첫 민자항만인 목포 신외항은 2001년 1월 착공한지 4년만인 2004년 6월 1일 개장하여 서남해 거점항만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규모에는 크게 못 미쳤다.

29) 『조선일보』 2000. 08. 11. 「무안국제공항 기공식」.

30) 『조선일보』 1996. 06. 15. 「무안-영암-강진등 호남 9개군 20결에」.

3) 목포에 남긴 숙제

앞서 본 것처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 호남고속철도 건설 추진, 신도청 이전 결정 및 착공, 무안공항 및 목포신항만 착공 등 중요 인프라가 완성되거나 가닥이 잡히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이를 통해 서해안 시대를 열었고, 신도청 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역차별’이란 말이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느끼고 있다. 역차별이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DJ를 바라보는 전라도인들의 마음은 이중적이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가 혹독한 시련을 넘어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과 대통령 DJ를 통하여 그동안의 불이익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서로 상충된 채 존재할 것이다.”³¹⁾라고 하는데서 살펴 볼 수 있다. 성공한 대통령을 위해 역차별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바로 지역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숙제 때문이었다. 박정희 정권에서 3김 시대를 거치면서 지역감정을 불모로 한 지역주의는 DJ에게 숙명처럼 따라 다녔다. DJ와 호남인들은 이 지역주의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들이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이른바 ‘동진 정책’ 등 지역주의 극복에 앞장섰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가장 애쓰는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월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향인 전남 목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를 대통령 시킨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 일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 땅에 경상도, 전라도가 없고 특해도 차별도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³²⁾ 다음 날 광주 5·18묘역을 찾아가 “나는 반드시 임기 내에 악마의 주술과 같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지역주의를 종식시키겠다.”고도 하였다.

여기에 발맞추어 마산-목포 간 자매결연, 영·호남 공무원 교환 교육, 영·호남 중학교 자매결연, 영·호남 무용축제, 영·호남 음악인 ‘화음’ 한마당 등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역사상 처음으로 목포인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대사건’이라고 칭할 만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거꾸로 역차별 정도는 기꺼이 견뎌야 한다고 여겼다. 그런 노력의 결과, 지역주의는 종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남아 호남인을 괴롭히고 있다. 역차별 논란과 지역주의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우리 지역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31) 정태영, 앞의 책, 226쪽.

32) 『조선일보』 1998. 08. 26. 「대통령 돼서 고향에 왔습니다」.

3. 김대중 대통령, 그 이후

1) 참여정부(2003~2008)와 목포

김대중의 운명을 가름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우선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마친 후 시간이 흐르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보다 긍정적으로 되어갔다. 아무래도 IMF의 극복, 햇볕정책과 노벨 평화상 수상 등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이를 뒷받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때인 2003년 1월 28일 광주에 와서 지방 순회 토론회를 가졌다. 거기서 노 당선자는 광주·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차별을 받아왔다는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지식 정보화·문화 산업의 시대인 지금, 호남은 소외되지 않는다.”면서 “광주·전남이 유리한 아이디어를 찾아 도시 역량을 집중시켜 성과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도민의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불만·불평만 늘어놓기 보다는 경쟁력 있는 지방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하였다. 그저 ‘우리가 표를 많이 모아주었으니까 뭔가 하나 내려 주겠지’하는 식의 허튼 기대는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을 국민의 정부 5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그 5년은 이기고도 진 경기 같았다. 이를 반성하면서 광주·전남의 체계적 발전 전략을 세워나갔다.

이때 전남 특히 목포 등 서남권의 전략 산업으로 조선업이 부각되었다. 한라그룹의 부도로 침몰했던 현대삼호중공업이 부도 6년만인 2003년 4월경에는 조선 수주 호황에 따라 2005년까지 일감 걱정이 없을 만큼 되살아나 목포·영암 경제의 젖줄로서 큰 몫을 하기에 이른다. 조선 생산 능력은 세계 5위에 이르렀다.³³⁾

국내의 대표적 조선업체인 현대 미포조선은 전남에 유치하여 대불 국가 산업 단지에 제2공장을 건설하였다. 이때를 즈음하여 전라남도도 대불산단에 ‘조선업 집적화단지’를 만들어 조선산업을 집중 육성하게 된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형 중심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이었다. 2007년에는 선박용 블록 제작 전문 업체인 대한중공업이 6월 15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또 8만톤급 건조 규모의 중형 조선소로 C&중공업이 들어섰다.

한편 2004년에는 목포 신외항이 준공되었다. 목포 개항 108년만에 내항을 벗어나 ‘신외항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외항이 대 중국 전진 기지와 전남 서남권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

33) 『조선일보』 2003. 04. 12. 「르포 / 부도 6년만에 되살아난 현대삼호중 2005년까지 일감 걱정무!」.

할을 할 것으로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특히 목표는 전국 3대항의 옛 영화를 되찾고자 하는 희망이 컸다.³⁴⁾

목포대교도 2005년 상반기에 건설을 시작하였다.³⁵⁾ 목포대교는 목포 신외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국제공항 등 물류시설 간의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012년 6월 29일에 개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9월 「전국 시·군·구 활력도 조사」에서 전남 지역은 64%가 하위 50위에 포함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었다. 전남의 1등이라야 전체 87위에 그칠 정도로 낮았다. 다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목포가 그나마 전남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³⁶⁾

한편 전남 서부권에 호남고속철, 무안 국제공항, 목포 신외항 등 각종 사회 간접 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가자, 광주·전남은 공동으로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기업도시 유치를 건의하기에 이른다.³⁷⁾ 이는 2004년 7월 목포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관광·레저·스포츠 분야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전남도에 정부 차원에서 큰 계획을 하나 세우려 한다.”고 밝힌 데서 구체화하였다. 여기서 말한 ‘큰 계획’은 J프로젝트로 구체화하였다.³⁸⁾ 이 사업은 박태영 전 지사가 물밑에서 2년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이어받아 박준영 지사에 의해 본격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J프로젝트와 전남도청 이전 등으로 인하여 목포는 제2의 전성시대를 맞았다. 남약 신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이 러시를 이루었다. 공공 기관들도 광주에서 단계적으로 옮겨오게 되어 목포 사람들은 ‘오랜 침체를 벗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³⁹⁾ 땅은 서해안고속도로로, 하늘은 무안 국제공항으로, 바다는 목포 신외항으로 연결되고 거기에 신도청시대, J프로젝트 구상 등이 감히 그런 꿈을 꾸게 만들 만하였다.

이는 나아가 S프로젝트로 확대되었다. 전남 서남해안 일대를 종합 해양 레저 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한국형 싱가포르 구상이었다. 전남 서남해안은 대표적인 낙후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혀왔는데 이곳을 2025년까지 250만 명이 사는 국제도시와 물류 중심지로 만들면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노무현 정부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호남판 행

34) 『조선일보』 2004. 03. 01. 「목포 신외항 준공」.

35) 목포대교는 일반적으로 2004년 11월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명치 않다. 『조선일보』 2005. 02. 11. 「목포대교 상반기 첫삽 뜬다」의 기사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기사를 따랐다.

36) 『조선일보』 2004. 09. 25. 「전국 시·군·구 활력도 조사」.

37) 『조선일보』 2004. 04. 07. 「전남 서부권에 기업도시를」.

38) 『조선일보』 2004. 12. 27. 「울해의 지역 현안 사업/전남」.

39) 『조선일보』 2005. 04. 23. 「현장, 이곳은/목포 “제2 전성시대” 개발 러시」.

정 수도 공약'으로까지 불렸다.⁴⁰⁾ 그리하여 2005년은 전남도에서 전남 미래를 위한 4개 도시, 즉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J프로젝트), 무안 기업도시, 나주 공동 혁신도시, 그리고 남악 신도시의 선정과 개발에 집중했고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자평하기에 이르렀다.⁴¹⁾

부품 꿈은 이어졌다. 2006년에도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전라남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 개발계획 'J프로젝트'와 충돌하지 않고 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S프로젝트, 즉 '서남권 종합 발전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남 목포·무안·신안 등을 잇는 서남해안 지역에 오는 2020년까지 민자(民資) 포함 총 22조원을 투입, 종합 관광 단지와 물류 거점 등을 육성하는 사업이었다.⁴²⁾

전남도는 10월 2일 '꿈의 레이스'로 불리는 포뮬러원(F1)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 유치를 확정, 발표하였다. 대회는 2010년부터 7년간 전남 영암군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의 전용 경주장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다.

이처럼 전남 서남권이 거대 프로젝트 시대를 맞았다. 참여정부 때까지는 비록 그것이 선거용이라고 해도 뭔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계획들은 이어지지 못하였다. S프로젝트, J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F1 등등 거대 프로젝트에 현혹되어 꿈만 키우다가 실패만 거듭하였다. 그 결과, 이후 무기력한 서남권을 남겼던 것은 아닐까?

2) 원조기업의 쇠퇴와 후속 기업의 부진

세계 최대 어망 제조업체인 ㈜남양이 1994년 6월 14일 끝내 부도 처리되었다.⁴³⁾ ㈜남양은 1960년 남양어망공업으로 창설한 목포의 원조기업이었다.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까지 성장하였으나 수산업계의 어망 수요 감소에 따른 주력 사업 부진과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인하여 부도가 났고 2003년 5월 회사 정리 절차를 종결하였다.

남양어망의 부도를 시발로 목포의 다른 원조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하거나 목포를 떠났다. 창업주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1950년 창립하여 보해산업·보해주정·보해식품·보해매원 등을 설립, 호남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일궈냈던 임광행(林廣幸) 회장이 2002년 7월 6일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

40) 『조선일보』 2005. 05. 24. 「행남도 개발 감사 /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41) 『조선일보』 2006. 01. 04. 「2006년 새해 호남 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3) / 박준영 전남지사」.

42) 『조선일보』 2006. 11. 25. 「서남권 개발’ 22조 투입 “무안·목포·신안 ‘제조업 고용’ 10배 늘리겠다”」.

43) 『조선일보』 1994. 06. 15. 「세계 최대 어망업체 / 남양 끝내 부도」.

다. 2011년 11월에는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보해양조 목포공장을 장성공장에 통합하면서 62년 만에 원조공장의 문을 닫았다.⁴⁴⁾

또 목포에서 73년간 향토기업으로서 맥을 이어온 (주)행남자기도 매각되어 주인이 바뀌는 변화를 겪었다. 행남자기는 1942년 '행남사'로 출발한 국내 최초의 도자기 생산기업이다. 김창훈 창업주와 김준형·김용주 회장에 이어 2012년 취임한 김유석 대표까지 4대째 가업을 이어왔다. 2000년대 들어 유럽산 고급 제품과 중국산 저가 제품 사이에서 고전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2012년 목포 공장을 여주로 합치려 했으나, 목포시와 지역 주민들의 설득으로 남아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목포 시민들도 행남자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⁴⁵⁾ 향토기업이 지역 사회와 호흡하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동안 목포를 지탱해온 중요한 산업은 수산업과 제조업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조기업들이 조선내화, 행남자기, 보해양조 같은 큰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그 축이 무너졌다. 한때 조선산업의 호황에 기대였지만, 그나마 C&중공업의 퇴출 등으로 끝나버렸다.

이런 대규모 공장들이 목포를 떠나면서 그 자리를 메운 게 삼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 그리고 지금 분양 중인 대양산단 등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공장들을 대체할 만한 구심력을 갖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⁴⁶⁾

3) 잃어버린 9년(2008~2017)

2007년을 경계로 목포권이 정점을 찍었다. 한편에서는 조선 관련 업체가 급증하면서 서남권 경제가 살아나는 듯이 보였다. 목포 대불단지가 280여 개 공장으로 꽉 찼고 영암·해남 등 가는 곳마다 조선소가 들어서서 차량·사람이 북새통을 이루었다고도 하였다.⁴⁷⁾ 돌아보면 이때가 목포권 전성시대의 정점이었다.

이미 이때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는 조심스런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이후 산업 다각화 실패, 무안반도 통합 실패, 각종 프로젝트의 부진 등이 원인이 되어 차츰 기울기 시작하였다. 서남권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다.

44) 『조선일보』 2011. 09. 20. 「보해 목포공장, 62년만에 문닫는다 / "정상화 위한 자구노력"」.

45) 『조선일보』 2015. 11. 16. 「[잠깐만요] 행남자기, 목포 주민의 사랑 잊지 말길」.

46) 김종익, 앞의 책, 175쪽.

47) 『조선일보』 2007. 12. 08. 「[산업단지 르포] 살아나는 전남 서남권 경제」.

F1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고, 목포, 신안, 무안 등 서남해안개발 특별법도 지역명은 빠진 채 낙후 지역 특별법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서부권 관련 특별법도 차질을 빚고 있었다. 이에 반해 엑스포 특별법은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동부권은 발전, 서부권은 침체’하는 동고서저(東高西低) 현상이 예견되었다.⁴⁸⁾ 전남 발전의 축이 동부권으로 이동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뒤떨어져 있는 서남권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터에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호남은 여전히 한나라당을 외면하였고, 그 결과 한나라당의 바다에서 고립된 섬처럼 외톨이가 되었다. 지역민들은 차기정부를 수도권과 영남의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 인사의 차별 등용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서도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호남 성공 시대를 기원하고 있었다.⁴⁹⁾ 그러나 막상 이명박 정부 당선 직후부터 우울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불공정 의혹 속에 서남권은 경제 자유 구역 지정에서 탈락하였고,⁵⁰⁾ 조선업 호황 속에서도 중소기업체의 과잉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07년에 우리 조선업계는 전 세계 수주량의 40.4%를 휩쓸어 1위를 차지했다. 이듬해에도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수주 신기록을 이어갔다. 신생 중소 조선소도 대부분 일감이 3~4년치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늘어나는 양에 비해 질적 수준은 떨어졌다. 대형 조선소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반면, 중소 조선소 중에는 겨우 흑자를 유지하는 곳도 많았다.⁵¹⁾

이렇게 지난 3~4년간 조선업 호황을 타고 남해안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던 중소 조선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미국·중국·유럽(EU) 등 세계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 부동산으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수년 동안 승승장구해 오던 해운·조선업계 경기마저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었다.⁵²⁾

특히 중소 조선업계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었다. C&중공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하였고, 대한조선도 상황은 비슷하였다. C&그룹은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거쳐 2009년 1월 최종 퇴출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말처럼 IMF 사태 이후 중견기업·대기업들의 연쇄 퇴출이 시작된 것이었다.⁵³⁾ 목포 경쟁력이 10년 전보다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

48) 『조선일보』 2007. 11. 30. 「전남 발전 축 동부권으로 이동하나」.

49) 『조선일보』 2007. 12. 24. 「[호남시론] 호남 성공시대를 열어야 한다(이정록)」.

50) 『조선일보』 2007. 12. 27. 「전남 경제단체 “불공정 의혹 …… 서남권 조속 지정을”」.

51) 『조선일보』 2008. 05. 12. 「우후죽순 중소기업체, 과잉투자나 틈새공략이나」.

52) 『조선일보』 2008. 09. 22. 「줄이고 멈추고 …… 산업계 ‘비명’」.

53) 『조선일보』 2009. 01. 21. 「‘퇴출’ 판정 받은 대주건설·C&중공업」.

했다.⁵⁴⁾

2010년 7월 1일, 박준영 전남지사는 민선 5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위기 때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의로운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는 데 사용해 전남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자.”, “다시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 도전하며 희망의 싹을 키워나가자.”고⁵⁵⁾ 호소할 지경이었다.

목포는 인구가 2008년에 2,300여 명 늘어나는 등 3년째 증가세에 있었고, 2011년에는 목포수협이 조기 풍어와 안정적인 수협 운영 등으로 1400억 원을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위판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종득 목포시장 역시 ‘올해는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고 기민하게 적응해나가야 하는 기로에 선 한 해’라며 ‘오늘이 힘들더라도 긍정적 생각으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힘을 합쳐 나가면 희망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⁵⁶⁾ 어려운 처지를 실감하게 했다.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여 광주·전남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관광 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는 광주·전남을 위해서라도 호남고속철도를 가능한 한 빨리 앞당겨 건설할 생각을 갖고 있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라 하고, 또 ‘(당장의) 경제적 효과만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되면 호남고속철도를 놓는 것은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호남고속철도를 1년 이상 앞당겨 완공하도록 하였다.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 건설(J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전남이 고심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진척도가 늦었다.”면서 “그것도 앞으로 구체적 사업 계획과 맞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⁵⁷⁾

광주·전남, 그리고 목포시의 위기 대응 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덕분에 2010년 전후 움츠렸던 지역이 조금은 허리를 펴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2월 불법 대출과 횡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시작된 보해저축은행 사태가 덮치면서 목포 경제에는 다시 먹구름이 겹쳤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연이은 대형 사건으로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2014년 4월 16일에는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 실종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 모든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하였다. 게다가 정부의 수상쩍은 대응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이듬해에는 정부의 무능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다시 한 번 모든 생산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 두 사건은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다. 가뜰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54) 목포투데이포럼 엮음, 『이명박 정부 통일정책을 모색하자(2008. 05. 07.)』, 『10년 전 목포 10년 후 목포』, 2012, 220쪽.

55) 『조선일보』 2010. 07. 02. 「[호남] [민선 5기 광역단체장 취임] 박준영 전남지사 “포기와 체념 벗고, 역사 새로 쓰자”」.

56) 『조선일보』 2009. 01. 05. 「“공약사업 마무리 …… 성장동력 창출 희망 갖고 목포발전에 힘 모으자” / 정종득 시장 인터뷰」.

57) 『조선일보』 2009. 01. 17. 「李대통령 “호남고속철 적극 지원” / 광주·전남 업무보고 받아」.

4. 지금 목포는

1) 원도심·신도심의 균형 발전

개항장으로 출발한 목포의 옛 중심지, 즉 원도심은 1990년 초부터 급격히 쇠락했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하당지구의 개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목포시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상동, 옥암동, 용해동, 산정동 일대 278만 940㎡와 공유 수면 68만 6400㎡를 매립해 신도심 하당지구를 완성했다. 입암산과 부주산 사이의 저지대와 개펄을 메워 조성하였다. 이 지구가 개발되자 목포역 앞 죽교동 일원인 ‘원도심’ 중심의 단일 도심권 구조가 하당지구로 분산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⁵⁸⁾ 하당지구는 ‘아파트 숲’을 이루며 원도심과는 다른 새로운 도시 경관을 연출하였다. 2010년 6월에는 평화광장에 ‘춤추는 바다분수’가 가동하면서 목포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등장하였다.

하당에서 동쪽으로 연이어 자리한 신도심이 옥암과 남악지구다. 옥암동 부주산에는 3만 평 규모의 문화 휴식 공간이 조성되었다. 목포시청 주변에 있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목포지방검찰청 목포지청도 옥암지구로 청사를 옮겼다.

남악지구에는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주요 관공서들이 자리를 잡았다. 공공 기관 22개가 광주 등에서 이전, 입주했다.⁵⁹⁾ 아파트 26개 단지가 들어섰고, 인구 3만 명이 넘게 사는 진짜 ‘신도시’가 됐다. 대형 상업 건물들도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이곳을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 원도심은 침체에 침체를 거듭했다. 1978년 말 원도심 인구는 20여만 명이었으나 2004년 말 인구는 15만 명으로 줄었다. 4명 중 1명꼴로 원도심을 떠났다. 유달산 주변 원도심 인구는 급격히 하당을 거쳐 주거 여건이 보다 좋은 옥암과 남악으로 빠져나갔다. 하당지구 주민들마저 옥암·남악지구로 이사하여 2003년부터는 하당 공동화란 말도 나왔다. 이렇듯 신도심 개발로 인해 ‘상전벽해’라는 말을 쓸 만큼 목포의 도시 공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2010년 현재 목포인구 24만 3천 명 중 10만 명가량이 신도심에 거주한다. 따라서 ‘원도심·신도심 균형 발전’은 목포가 안은 큰 숙제였다. 이를 위해 목포시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우선시했다. 도심형 뉴타운, 주거중심형 뉴타운 등 개발을 추진하고 관광·쇼핑·수산·항만 기

58) 『조선일보』 2004. 03. 09. 「지금 이곳에선 / 목포 하당지구 / 쾌적한 신도심 …… 5만 7천명 입주」.

59) 『조선일보』 2009. 12. 21. 「[호남] [지금 이곳에선] 전남도청 소재지 ‘남악신도시’ 개발 어디까지 왔나」.

능의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하였다.⁶⁰⁾ 특히 원도심 남교지구 옛 공설시장 자리에 31층 쌍둥이 주·상·관 복합빌딩, 트윈스타를 세웠다. 이는 원도심의 랜드마크가 되어 경관을 크게 바꿨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북항에는 서남해권의 수산물을 한데 모아 처리할 수 있는 ‘해양수산복합센터’를 세웠고, 대양동에는 158만㎡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또 2002년 이래 원도심 일대 근대역사의 흔적들을 정비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포역사 문화타운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원도심 38,047㎡를 5개의 길(권역)로 설정, 도심의 역사 체험 공간을 연결하는 관광 루트로 개발한다는 구상으로 역사·문화 도시로서 목포의 이미지를 심고,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 위에 추진하고 있다.⁶¹⁾ ‘잘 정비한다면’이란 전제가 붙었지만, 목포에 제2의 번영기를 가져다 줄 관광 문화 중심지로 탄생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⁶²⁾

삼학도 ‘복원화 사업’도 균형 발전의 한 축을 이루었다. 목포시는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이었던 삼학도를 섬으로 되돌리는 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시작한 지 10년 만에 호안수로 공사를 마무리, 2010년 3월 19일 오후 대삼학도 교량에서 ‘통수식’을 열어 시민 공원으로 재탄생하였다.

「신도시 쑥쑥 …… 원도심도 활력」⁶³⁾이란 신문 기사의 제목처럼 이런 목표를 갖고 원도심과 심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은 목포가 줄곧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2) 전남의 수위(首位)도시를 지향하며

1994년 광역시, 통합시 등이 출범하면서 전국의 행정 지도가 크게 바뀌었다.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인구 23만 6천 명으로 22만 5천 명의 목포시를 누르고 제1의 도시로 떠올랐다.⁶⁴⁾ 1998년이 되면 전남 여수시가 4월 1일 통합시 개청식을 갖고 전남 제1의 도시이자 전국 17번째 도시로 새 출발하였다. 여수시는 기존 여수시와 여천시·군 등 3여 통합으로 인구가 모두 33만 1천 7백여 명으로 늘어나 순천과 목포를 제치고 전남도 제1의 도시가 되었다.⁶⁵⁾

60) 『조선일보』 2006. 01. 10. 「[2006년 새해 호남 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4)] “원도심·신도심 균형발전 ‘빛의 도시’ 사업 계속 추진” / 정종득 목포시장」.

61) 『조선일보』 2009. 07. 13. 「목포에 ‘역사문화타운’」.

62) 『조선일보』 2010. 08. 18. 「[해양중심도시 목포] 원도심이 살아난다 …… 목포의 근대 문화유산도 살아난다」.

63) 『조선일보』 2010. 08. 18. 「[해양중심도시 목포] 긴 잠 깨어난 목포」.

64) 『조선일보』 1994. 12. 31. 「새해 전국 행정지도 바뀐다 / 광역시-통합시 출범」.

65) 『조선일보』 1998. 03. 29. 「여수, 전남 제1시로 / 통합시 출범……」.

목포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행정 서열에서는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인구는 3위로 밀린지 오래다. 무안반도 통합의 실패로 인한 요인이 크다. 무안반도 통합 논의의 진행사정을 살펴보자.⁶⁶⁾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1994년 3월 내무부가 통합 권유 대상 시·군을 발표하면서 시작하였다. 목포시와 무안군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내무부에서는 주민 의견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통합 시·군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 찬반 논쟁이 가열되었다.

목포 시민들은 서남해 시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새 도청과 망운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무안과의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반면, 무안 군민들은 통합해봐야 도시 혐오 시설이나 물려올 뿐 다른 득은 없을 것이라고 보아 반대하였다. 5월 7일 실시된 주민 의견 조사 결과 목포는 98.2% 찬성, 무안은 60% 반대였다. 이로써 1차 통합 논의는 무산되었다.

1994년부터 시작된 통합 논의는 주민투표 3차례, 여론 조사 3차례를 거쳤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목포와 신안은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무안은 목포에의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반대기류가 여전히 강하였다.

2007년에 7월 목포·무안·신안 통합이 다시 제기되었다. 당시 지역 일간지가 도민 의견 조사 결과 무안 66.3%, 신안 7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⁶⁷⁾ 그러나 2009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도로 자율 통합 의견서가 접수된 호남 지역 3개 지역(여수권, 목포권, 전주·완주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세 곳 모두 반대 여론이 우세해 통합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때 목포권에서는 무안군은 물론 신안군까지도 찬성 50%를 넘기지 못했다.⁶⁸⁾ 신안에서는 통합보다 섬으로서 특수성을 인정받는 별개 자치 단체로 남기를 바라는 여론이 확산되었던 때문이었다. 비록 수차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통합 논의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목포권이 다시 전남의 명실상부한 수위 도시가 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전남도청이 109년 만에 ‘광주 청사’ 시대를 접고 지난 2005년 11월 11일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대로 옮겨 개청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곳은 목포로부터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목포로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로써 목포는 전남의 행정 1번지가 되었다.

2009년 6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도 광주 매곡동 시대를 마감하고 무안 남악신도시에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이처럼 도청은 물론, 도교육청, 도경찰청 등의 기관들이 옮겨와 목포는 전남의 행정,

66)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승주, 『제3장 무안반도 하나 되기』, 『목포 목포사람들』2, 경인문화사, 200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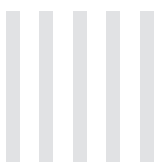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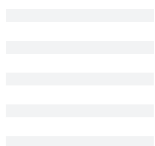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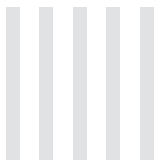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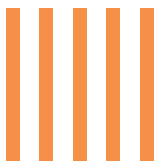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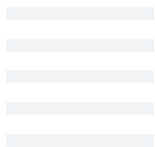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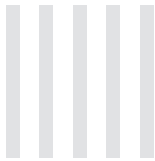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67) 『조선일보』 2007. 07. 24. 「‘무안반도’ ‘광양만권’ 통합 논의 일기 시작 / 목포·무안·신안 통합 다시 제기……」.

68) 『조선일보』 2009. 11. 11. 「[호남] 호남 3개지역 사군 통합 무산」.

교육, 치안의 1번지가 되었다.

한 때 전국에서 3대항 6대도시의 지위에 있었다는 낭만적인 회고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1위 즉 수위 도시의 지위에 걸맞는 인구 규모, 경제력, 문화력, 그리고 인문정신 등을 갖추어 일등 목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안반도 통합은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숙제를 풀어야만 명실공히 전남의 수위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석규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1절 목포 최초 기록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2절 일흔 삼백의 고장 목포

김정섭 |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제3절 목포시사(木浦詩社)의 창립과 그 연혁

오홍일 |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제4절 목포의 물 사정과 해결을 위한 노력

고석규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5장 목포 이야기

제1절 목포 최초 기록 ⁰¹⁾

목포 역사 흐름과 도시화 과정에서 목포 최초, 한국 최초의 많은 기록들이 발생하였다. 그러한 최초의 기록을 통해 근대 항구 도시 목포의 사회상을 살펴 볼 수 있다. 크게 사회 분야(행정, 교육, 시설), 문화 예술 분야, 인물 분야로 구분하여 의미 있는 최초의 기록을 정리하였다.

1. 사회분야

1) 기록상 목포 최초 관청: 목포진

목포시 만호동에 소재한 목포진은 조선 시대 수군의 진영으로 지금의 해군 기지에 해당된다. 통솔 책임자로 ‘만호’ 라는 관직이 배치되어 만호진이라 불렸다. 처음 설치된 시기는 1439년(세종 21)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설치 배경이 나와 있으며 성이 설치된 것은 연산군 때인 1501년(연산군 7)이고, 이때 목포진 내부에 객사와 아사 등 관청 건물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01) 이 글은 필자가 확인한 목포 관련 근대 기록(신문기사, 호남평론 등)과 목포시에서 발간한 『목포 기네스 내가 목포 최고』(2010)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2) 개항 후 최초의 행정 시설: 무안감리서

개항장 목포의 외교 및 통상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설치한 관서로 목포시청의 전신에 해당한다. ‘무안감리서(務安監理署)’는 1897년 9월 12일에 칙령 제33호를 이루어 졌다. 당시 목포가 무안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감리서의 명칭이 ‘무안감리서’로 붙여지게 되었다. 1897년 개항 당시에는 구 목포진 청사를 임시 사용하다가 1902년 현 북교동 177(구 신안군청 자리)로 신축 이전하였다.

3) 목포 최초의 경찰서: 무안경무서

1897년 개항 이후 목포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1897년 9월 12일 한국 정부에서 설치하였다. 위치는 현 죽동 초원빌라 자리 인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안경무서는 목포 경찰의 시초이다. 일본인 경찰서는 개항장 내에 별도로 존재했으며, 1907년 일본인들에 의해 목포경찰서(대의동 현 초원 실버타운 자리)로 이전 통합 되었다.

4) 목포 최초의 우체국: 무안우체사

대한제국에서 조선인 마을(현 죽동 노라노미술관) 내에 1897년 12월 25일 ‘무안우체사’를 설치하였다. 1898년 2월에는 무안전보사를 함께 병설하였다. 무안우체사는 목포우체국의 뿌리가 된다. 일본인들은 1897년 11월 16일 일본 영사관 내에서 우편 업무를 처리했고, 1899년 별도건물을 신축했다. 1905년이 되어 일본인들이 세운 무안우체사는 목포우편국(현 유달우체국)으로 통합되었다. 통신 업무의 발달은 목포가 서남해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이기도 했다.

5) 목포 최초의 소방서: 목포소방조

최초의 소방 시설은 1899년 11월 3일 개항장 내 ‘목포소방조’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다. 이후 팔두사조(八頭司組), 장문조(長門組), 목포조(木浦組)의 3조로 구분되었다. 초기 소방조의 역할은 소방 업무뿐만 아니라 물 배급의 임무까지 맡았었다. 목포소방조는 목포경찰서 옆(현 초원실버타운 우측)에 설치되었다.

6) 목포 최초의 교도소: 광주감옥 목포분감

무안감리서 내 감옥과 일본인 이사청 감옥이 있다가 폐지되고 독립적인 형태의 목포 최초 교도소는 1909년 9월 광주감옥 목포분감으로 설치되었다. 1909년 10월 21일 목포감옥으로 승격, 목포형무소로 불리다가 1961년 '목포교도소'로 개칭되었으며, 1989년 목포시 산정동에서 무안군 일로읍으로 이전하였다.

7) 최초 근대 도로망의 출발지: 국도 1호선(목포-신의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도로망의 출발 기점이 목포였다. 현 유달산 우체국 왼쪽 화단에 목포가 대한민국 근대 도로망의 출발지임을 기념하기 위한 국도 1호선 기념비와 도로 원표가 조성되어 있다. 국도 1호선은 1906년에 착공하여 1911년 개통된 도로로 목포에서 신의주까지(939.1km)이다.

8) 목포 최초의 상수도 시설: 제1수원지

목포시의 수돗물은 1910년 5월 최초의 상수도 시설로 제1수원지(목포실내체육관 아래)가 조성되어 급수를 시작한 것이 최초이다.

9) 목포 최초의 공설 시장: 중앙 공설 시장

남교동 일대에는 개항이전부터 '쌍교장터'라는 곳이 있었다. 개항 후 쌍교장터가 발전하여 현 중앙식료시장 일대의 상설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1929년 7월 8일에 목포부에서 이곳(남교동 111-9)에 목포 최초의 공설 시장을 설치하였다. 해당 위치에 현재는 트윈스타 건물이 지어졌고, 주변 중앙식료시장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0) 목포 최초 노동 운동: 부두 노동 운동

목포 최초의 노동자 파업은 부두 노동 운동이다. 개항한지 5개월만인 1898년 2월 일본인에 맞서 임금인하를 반대하며 투쟁한 것으로 7일간 동맹 파업을 계속하였다. 노동조합형태를 띤 최초의 노동 운동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개항 된지 5개월 만에 집단행동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민족 저항 정신과 한

국 노동 운동사에서 주목되는 사건이었다.

11) 한국 최초 육지면 발상지: 고하도

1904년 목포 일본 영사 와카마츠 도사부로[若松兎三郎] 주도로 고하도에서 육지면 시험 재배가 성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산 육지면이 전국으로 보급되었다. 이후 목포항은 면화를 일본으로 이출하는 중심 항구가 되었고, 목포 남해안가에는 면화공장들이 늘어났다. 1926년에는 조선면업박람회가 목포에서 개최되었다. 시험 재배가 이루어졌던 고하도 현지에는 1936년에 건립한 ‘조선육지면발상지(朝鮮陸地綿發祥之地)’가 남아 있다.

12) 최초의 여학교: 목포 정명여자 중·고등학교

정명여학교는 1903년 9월 15일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에서 목포여학교로 설립 개교한 호남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이다. 선교사들이 교장을 맡아 학교를 운영하였다. 1911년 정명여학교로 개칭되었고,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1919년 4월 8일 목포독립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3) 목포 최초의 초등학교: 목포 북교 초등학교

목포에서 가장 먼저 생긴 근대적인 초등학교 교육 시설이다. 1897년 무안읍 향교 양사재를 토대로 ‘무안공립소학교’로 창설 개교했고, 1901년에 목포의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목포 북교동은 남교동과 함께 ‘쌍교촌’으로 불리며, 목포가 개항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이다. 따라서 ‘북교’라는 학교 이름은 이 지역만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북초등학교는 많으나, 북교 초등학교는 목포에만 있는 학교 이름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근대 초등 교육의 산실이다. 목포 북교 초등학교 교정 내에는 학교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느티나무가 자리하고 있으며, 교내에는 역사관이 조성되어 있다.

14) 목포 최초의 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 최초의 대학교인 목포대학교는 1946년 목포 사범 학교를 모태로 하여 1963년에 목포 교육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1978년 목포 초급 대학으로 개편, 1979년 4년제 목포대학으로 승격하였고, 1990년 종합대학이 되었다. 한편 대학 교육과 관련하여 1950년 독립 목포 초급 상과 대학이 설치되었다가 1952년 전남대 상과 대학으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15) 목포 최초의 서양식 석조 건물이자 최초 국가 사적: 구 목포 일본영사관

목포에 지어진 최초의 근대 서양식 건축물은 1897년 목포 개항 이후 일본의 영사 업무를 위해 1900년 12월에 완공한 일본 영사관 건물이다. 근대 건축의 상징인 붉은 색 벽돌 건물로 지어졌고, 건립 당시 높이 13.65m로 목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이후 목포이사청, 목포부청사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광복 이후에는 목포시청, 목포시립도서관 등으로 사용되다가 1990년부터 목포문화원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목포 근대역사를 전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1981년에 역사성과 근대 건축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 제289호로 지정되었다. 목포 역사유적 중에는 최초 국가지정문화재이다.

16) 목포 최초 도 지정 문화재: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고하도는 임진왜란 이후 1597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재 침입했을 때 이충무공이 울돌목(명량)에서 승리를 거둔 후 그 해 10월 29일 고하도에 진을 설치하고 이듬해 2월 17일 진을 옮길 때까지 머물렀던 곳이다. 고하도에서 전투에 필요한 배를 만들고 전투력을 증강하여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다.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1722년에 이순신의 5세 손인 이봉상(李鳳祥)이 건립한 것이다. 1974년 9월 24일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었다. 동시에 고하도 진성은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다.

17) 목포 최고(最古)의 기념비: 만호 방대령 선정비

목포진 역사공원 객사 내에 세워져 있다. 이 비는 조선 시대 수군진이었던 목포진에 근무하던 만호(萬戶) 방대령(方大寧)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진흙을 베풀어서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건립 시기는 1714년이다. 개항 이전 목포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현재 목포에 보존되어 있는 기념비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 되었다.

18) 목포 최초의 조선인 은행: 호남은행

목포시 상락동 1가 10-2번지에 위치한 호남은행 목포지점은 이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 1920년 10월 2일에 설립한 순수 민족 자본 은행으로 등록 문화재 제29호로(2002 05. 31.) 지정되었다. 당시 지역 경제가 현저히 성장하면서 보통 상업은행의 필요성 대두되어 호남 부호 현준호, 김상섭 등이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본점은 광주에 두었다. 현 건물은 1929년 11월에 건립되었으며 일본 식민 자본의 잠식에 맞서 설립한 은행으로서 근대화의 자주성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 전남 최초 천주교회, 최초의 레지오 마리아: 천주교 목포 산정동 교회

천주교 목포 산정동 성당은 전남에서 최초이며, 현 광주대교구의 모태가 되는 곳이다. 1897년 5월 8일 전라북도 김제의 수류(水流)성당에서 분리되어 전남 지역이 새로운 구역으로 설정되었고, 1898년 7월 2일 지금의 위치에 부지를 마련하여 ‘목포성당’이 설립되었다. 1951년 경동성당을 분리함과 동시에 산정동 성당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레지오 마리아’의 한국 발상지이기 때문에 한국천주교의 성지로 평가되고 있다. 레지오 마리아(Legio Mariae, The Legion of Mary)는 라틴어로 ‘마리아의 군단’이라는 뜻이다. 천주교 단원의 교화와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53년 5월 31일 목포에서 창단되어 산정동 본당과 경동성당에서 그 첫걸음을 시작했다. 산정동 성당에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다.

20) 전남 최초 교회: 양동교회

양동교회는 남도 근대 문화의 1번지를 상징하는 목포의 문화 공간이다. 목포의 개항이 예견되자 미국의 선교사들은 목포를 새로운 선교기지로 선택했고, 그 중심이 된 교회가 바로 전남최초의 교회인 양동교회(陽洞教會)이다. 선교 활동은 1897년부터 이루어졌고, 공식예배는 1898년 5월 15일에 시작되었다. 현 건물은 1910년에 신축한 것이다. 양동교회는 교육, 의료 등 근대 문화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1) 목포 최초의 한국 사찰: 반야사(般若寺)

개항 이후 한국 불교 가운데 사찰의 형태로 가장 먼저 설치 된 곳은 현 반야사였다. 유달산 아래 죽교3동 주민센터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의 명칭은 백양사포교당(白羊寺布教堂)이고, 일명 영명사(永明寺)라 했다. 1908년 10월 6일 영광불갑사(靈光佛甲寺)의 주지 송혜은(宋慧恩)이 개설한 곳이다. 그 후 대한불교 조계종(曹溪宗)에 속하게 되었으며 사호(寺號)를 ‘반야사’라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2) 목포 최초의 전통사찰 지정: 달성사(達聖寺)

달성사는 유달산 동남쪽 중턱(죽교동 317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로 양산 통도사 출신으로 알려진 노대련(盧大蓮) 선사(禪師)에 의해 1915년 4월 8일에 세워졌다. 본래 해남 대흥사(大興寺)의 포교당으로 창건되었다.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 제228호와 제229호인 달성사 목조 아미타삼존불(阿彌陀三尊佛)와 달성사 목조 지장보살상(地藏菩薩象) 및 시왕 및 권속상(十王·眷屬象)이 있다. 전통사찰 제69호 지정되어 있다.

23) 근대 기상 관측의 출발, 목포 최초의 기상대: 목포 기상대

목포 기상대는 1904년 대한제국 칙령 제10호에 의거 신안군 하의면 옥도리에 창설되어 기상 관측 업무가 시작되었고, 1906에 유달산 노적봉 인근(일명 천기산)으로 옮겨졌다. 옥도에서의 기상 관측은 일본해군이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해상 관측의 필요성에 따라 시행된 것이지만, 한국 근대식 기상 관측의 시초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기상청에서는 노적봉 옆 목포기상대 자리에 근대 기상 100주년 기념 표석을 세웠다.

24) 전국 최초 무선 전신 시설: 목포무선전신소

목포 무선 전신소는 『목포부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무선 전신 시설로서 목포부 향정 2번지에 1910년 8월 25일 기공하여 1910년 10월 21일에 완공 되었다. 조선에 무선 전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에 시설된 목포 중계, 근해 항로 선박에 대한 경보 및 해난 구조, 기상 관측 통보 등 주요 임무를 수행 하였다.

25) 목포 최초 전화 개통: 1907년 4월

목포의 전화 업무는 1906년 말부터 1907년 봄까지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4월 6일부터 개통되었다. 이어 광주, 영산포 등과 시외 전화를 교환할 수 있었으며, 경비상 필요에 따라 경찰서, 헌병대 등 경비 전화로 이용되어 오다가 1909년 6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6) 전남 최초의 서양식 의료 시설: 부란취 병원

부란취(富蘭翠) 병원은 목포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남장로선교회의 의료 활동에 의해 시작된 최초의 의료 시설이다. 1899년 봄, 한국명 오기원(C.C. Owen)에 의해 서양식 의료가 처음 목포에 보급되고, 10년 후인 1909년 건평 191평의 규모를 갖춘 번듯한 석조 양옥의 병원이 만들어졌다. 일제강점기 목포 부립병원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개항장 지역에 설치되었고, 일본인 의사들이 진료를 했다. 그에 반해 부란취 병원은 조선인을 위한 병원이었다. 매년 7~8천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부란취 병원의 주소는 당시 호남정 6번지로 되어 있다. 현재 양동이며, 양동제일교회 옆 도로변 건물자리에 해당된다. 서양인에 의해 시작된 부란취 병원은 이후 조선인에 의해 운영되었다. 연희의료전문학원을 졸업하고 목포에서 의사로 활동 한 최섭(崔燮)이 원장을 맡았다.

27) 목포 최초의 시민 회관: 목포 청년회관

목포 청년회관 건물(등록문화재 제43호, 2002. 09. 13.)은 일제강점기 목포 청년들이 펼쳤던 민족운동의 산실로 주목되는 유적이자, 최초 목포 시민 회관 성격을 지닌 근대 건축물이다. 목포 청년회에서 성금을 걷어 1925년에 완성하였다. 1927년 신간회 목포지부 창립식을 비롯하여 목포 청년들의 지덕 함양과 민족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공간이다.

28) 목포 최초 방송국 개국: 조선방송협회 목포방송국

목포 KBS 방송국은 1942년 11월 1일에 목포시 양동 미국선교사 사택에서 조선방송협회 목포방송국으로 개국하였다. 당시 출력은 50KW, 주파수 1,080KHZ였다. 1984년 12월 현재 목포시 용당동 소재 청사를 준공 이전하였다.

29) 광복 후 최초 한국발전소: 목포중유발전소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우리나라 첫 발전소인 목포중유발전소(木浦重油發電所)가 목포에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이던 남선전기주식회사가 1948년 12월 원조자금을 받아 건설했으며, 1949년 5월 5일부터 시험운전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이 발전소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24일 폭격으로 소실되었다. 운영기간은 짧았지만 최초발전소로 기록되고 있다.

30) 전국 최초 교육 방송: 신안 교육 방송

신안 교육 방송은 1974년 9월 27일 목포시 중동 2-6번지에 개국하였다. 제4공화국의 도서 벽지 교육 진흥법에 따라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들어 낙도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 118개 교에 고정 수신국을 두고 전파를 송출했다.

31) 목포 최초의 아동 복지 시설: 공생원

전남 지역 최초의 아동 복지 시설이다. 1928년 윤치호가 7명의 아이들을 보살피기 시작하면서 만들어 졌고, 1937년 4월 현 위치(대반동)에 자리를 잡았다. 6·25 혼란기에 윤치호가 실종 된 이후에는 그의 일본인 아내였던 윤학자 여사가 남편의 뜻을 이어 아이들을 돌보아서 더 의미가 있는 곳이다. 오늘날까지도 그 정신이 면밀히 이어져 오고 있다.

32) 목포 최초 장애인 복지 시설: 광명원

목포 최초의 장애인 복지 시설은 1953년 8월 27일 설립한 시각 장애인 생활 시설인 목포광명원이다.

33) 목포 최초 공장 등록: 행남사

국내 최초의 도자기 제조 회사였던 행남사는 1942년 5월 김창훈 창업 회장이 목포 상동에 설립했다. 1953년 국내 최초 서양식 식기 개발, 1957년 국내 최초 본차이나 자체 기술 생산, 1963년 국내 최초 도자기 해외 수출 등 국산 도자기 산업사를 대변해 주고 있다.

34) 우리나라 최초 하구둑: 영산강 하구둑

영산강 하구둑은 1978년 착공, 1981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하구둑이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와 영암군 삼호면 삼호리 사이를 막은 토석제이며 영산강 지구의 농업용수 개발 계획 사업의 핵심으로 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의 하구를 막아 거대한 영산호가 형성되었고 수량도 확보되었다.

35) 최초 국제 자매결연 도시: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와 영주시

목포시에 처음으로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1962년 3월 23일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Hammerfest)가 최초이다. 항구 도시로 기후가 온화하여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유명하며, 수산 가공업이 발달된 관광 도시이다. 국내 도시 가운데는 1998년 8월 경북 영주시와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2. 문화 예술 분야

1) 목포 최초의 신문: 『목포신보』

1899년 6월 16일에 『목포신보(木浦新報)』가 발간되었다. 이 신문은 호남 최초이자 지방 신문으로 부산 인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알려져 있다. 『목포신보』는 4×6판 8페이지의 규모에 본문은 4단으로 되어있는 일본판 순간이었다. 1941년 『광주일보』와 통합되어 『전남신보』로 변경되었다.

2) 목포 최초 종합 시사 평론지: 『목포평론』

1933년 1월 목포 최초의 시사 잡지인 『목포평론(木浦評論)』이 발간되었다. 편집장 겸 발행인은 지도 출신의 사회 운동가이자 기자로 활동한 나만성(羅萬成)이었다. 호남 최초의 시사 잡지로 평가되는 이 잡지에는 김성호(金聲浩)의 창간사를 비롯하여, 목포 상점 순례기, 목포 음식점 평판기, 목포 권번 기생 총출동 등 다양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1935년 김철진에 의해 창간된 『호남평론』은 이 『목포평론』을 계승한 것이다.

3) 목포 최초 문학동인회: 5월회(Société Mai)

1925년 5월에 목포 최초 문학 동인회인 '5월회'가 발족되었다. 김우진을 중심으로 목포 지역 문학도들이 결성한 것으로 목포 문학의 뿌리를 상징한다.

4) 목포를 주제로 한 최초의 대중가요: 「목포의 눈물」

1935년대 가수 이난영이 불러 국민가요 「목포의 눈물」은 1935년 오케이레코드에서 실시한 '조선 10대도시 찬가모집'에 응모된 작품이다. 공모 취지에 맞게 항구 도시 목포의 향토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목포의 문인 문일석이 가사를 지었으며, 작곡가 손목인이 곡을 붙여 탄생하게 되었다. 1935년은 목포항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이다.

5) 광복 후 목포 최초 잡지: 『갈매기』

광복 이후 목포에서 발행된 최초의 잡지는 1951년 2월 1일 발행된 『갈매기』이다. 해군 목포 경비구 정훈사업으로 월간으로 발행되었다. 『갈매기』는 지령 4호로 중단 되었지만 6·25전쟁 후 모든 출판계를 통틀어 최초의 월간지라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광복 후 목포문단의 활동에 많은 자극제가 되었으며, 혼란의 시기에도 문인들의 작품 발표를 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6) 광복 후 목포 최초 신문: 『목포신보』 속간호

광복 후 목포 최초의 신문(목포 최초의 지방 일간신문)은 1945년 10월 손수검에 의해 발행된 『목포신보』이다. 일제 때 창간되었다가 1941년 중단된 『목포신보』의 속간호이다. 이후 1946년 『목포일보』로 새롭게 출발하였다가, 1965년 『호남매일신문』으로 변경되었다.

7) 목포 최초 주간신문: 『목포신문』

목포 최초의 주간신문은 1990년 6월 7일 창간한 『목포신문』(『주간목포』, 타블로이드 배판 16면)으로 창간 당시 발행인 겸 편집인은 임태유 변호사였다.

8) 목포 최초 출판기념회: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

1947년 박화성의 첫 번째 단편집 『고향 없는 사람들』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이것이 목포 최초의 출판 기념회로 기억되고 있다. 이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박화성의 서재 세한루는 목포 문학인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9) 한국 최초 대중가요 노래비: 「목포의 눈물」 노래비

유달산에 있는 「목포의 눈물」 노래비는 1969년 한 목포 시민(박오주)의 기금을 토대로 1935년 발표된 국민가요 「목포의 눈물」과 가수 이난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이난영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후에 해당하며, 대중 가요비로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금을 제공한 박오주씨는 평생을 목포 시내에서 음반가게를 하면서 살았다. 그는 자신이 목포에서 음반을 팔면서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목포의 눈물 노래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10) 목포 최초 한국인 설립 극장: 목포극장

목포는 개항이후 극장 문화가 발달한 도시이다. 1904년 일본인에 의해 ‘목포좌’가 설립된 것이 시초이고,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극장은 1926년 11월 19일 세운 ‘목포극장’이다. 1926년 목포에서는 전라남도물산공진회와 조선면업공진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 개최를 앞두고 목포극장이 문을 열어 이 지역 문화 예술 진흥에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1) 최초 영화사: 오리엔탈 프로덕션

일제강점기에 목포에서 영화사가 설립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목포 최초의 영화사는 1927년 5월 9일 목포극장에서 김찬 외 4~5명이 모여 목포에 영화 촬영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오리엔탈 프로덕션’을 설립했다.

12) 목포 최초 공원: 송도공원

목포 최초의 공식적인 공원은 송도공원으로서 1898년 6월 4일 각국 거류지회에서 정하였다. 송림

이 울창하고 경치가 수려하여 소풍 장소로 널리 이용되었다. 1911년에는 이곳에 신사가 조성되었다. 송도는 현재의 동명동 일원으로 광복 이후 촌락이 형성되면서 공원과 신사의 대부분 흔적은 사라졌다. 현재 신사로 올라가는 77계단의 흔적과 옛 종무소로 사용된 가옥 한 채 등이 남아 있다.

13) 목포 최초의 산업 박람회: 전남물산공진회 및 조선면업공진회

목포에서 열린 전국 규모의 최초의 산업 박람회는 1926년 ‘전남물산공진회 및 조선면업공진회’이다. 목포 개항 30주년과 조선면화재배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 해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間に 걸쳐 대대적인 행사가 열렸다.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추진되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이 행사를 통해 목포는 ‘전남의 대도회’로서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14) 국내 최초 야외 조각 공원: 유달산 조각공원

유달산 조각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야외 조각공원으로 1982년 10월 문을 열었다. 당초 유달산 주변의 무허가 주택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하여 유달산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 졌으나, 지금은 목포 시민의 편안한 쉼터이자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3. 인물분야

1) 한국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 목포 출신 최초 대통령: 김대중

김대중(1924~2009)은 신안 하의도에서 태어났고, 목포에서 자란 정치인이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목포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다. 또한 5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한반도 냉전 과정에서 상호 불신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2) 목포 최초의 감리서 감리: 진상언

개항 이후 설치된 행정 관청인 감리서의 장인 감리(監理)는 한국 정부 외부(外部)의 지휘를 받는 전문 행정관이자 외교관이었다. 1897년 9월 12일 설치된 무안감리서의 초대감리는 진상언(秦尙彦)이

었다. 1897년 9월 18일 목포항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3) 목포 최초의 예술인, 극작가: 김우진

김우진(金祐鎭, 1897~1926)은 제6대 무안감리(務安監理)를 지냈던 김성규(金星圭)의 맏아들이다. 근대극의 개척자인 김우진은 생년과 활동 시기로 볼 때 목포 최초의 근대 예술인에 해당된다. 목포 북교동 성당이 그가 문학 활동을 하며 머물렀던 옛 성취원 터이다. 그의 대표작 「이영녀」는 목포 유달산 아래 판자촌 서민들의 삶을 배경으로 집필되었다. 1921년 목포에서 연극동우회 공연을 올려 무대 감독을 맡기도 했다.

4)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장편 소설가: 박화성

박화성(朴花城, 1903~1988)은 목포 죽동에서 태어난 문인이다. 1932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백화(白花)」는 한국여성이 발표한 최초의 장편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와 관련된 『한귀』, 『홍수 전후』, 『하수도공사』, 『혈어진 청년회관』 등을 집필하였다.

5) 우리나라 최초의 수필가: 김진섭

김진섭(金晉燮, 1903~미상)은 무안감리서 감리서리를 지낸 김면수의 아들로 목포에서 태어나 7살 무렵까지 생활했다. 이후 아버지의 발령지에 따라 제주와 나주 등지에서 성장하였다. 일본 호세이 대학[法政大學]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수필 작가이자 평론가로 활약했다. 「창(窓)」(1934), 「우송(雨頌)」(1935), 「권태예찬」, 「주찬(酒讚)」(1937), 「백설부(白雪賦)」, 「매화찬(梅花讚)」(1939) 등을 일제강점기에 발표했고, 1947년에 수필집 『인생예찬』, 1948년에 『생활인의 철학』을 발표하였다. 6·25전쟁 당시 납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목포 최초 국가 지정 무형 문화재: 이매방

한국 무용가 이매방(李梅芳, 1927~2015)은 중요 무형 문화재 제27호 「승무(僧舞)」 및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예능 보유자였다. 한국 무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이매방은 1969년 7월 4일 「승무」를 통해 목포 최초로 국가 지정 무형 문화재로 기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7) 목포 최초 화가: 허형

미산(米山) 허형(許瀞, 1862~1938)은 ‘호남화단의 종조(宗祖)’라 일컬어지는 소치(小癡) 허련(許鍊)의 넷째 아들이다. 1921년 목포로 이주하여 활동하여 목포 최초의 화가로 평가된다. 80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허련의 화법을 본받은 산수화·사군자·괴석 등을 수묵 또는 수묵담채로 주로 그렸다. 아들인 허건(許健), 허림(許林)에게 그림을 가르쳐 호남화단의 계보를 이어갔다.

8) 최초 서양화가: 문재덕

목포 최초의 서양화가는 문재덕(1918~1950, 일명 문원)이다. 1918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목포 북교동에서 자랐다. 1930년경에 일본에서 유학했고, 광복 후까지 목포에서 활동했다.

9) 호남 최초의 여성 화가: 김영자

김영자(1922~2015) 화백은 호남 최초의 근대 여성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1943년 일본 동경우에노 미술학교를 입학하여 서양화를 배웠다. 서양화지만 작품은 한국적인 풍격과 풍속화를 그려 ‘김영자 화풍’을 이뤘다. 1993년부터 목포 토박이 모임 ‘예목회’를 운영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고, 목포 예술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섰다.

10) 한국 최초 바둑 9단: 조훈현

조훈현 프로 바둑기사는 1953년 3월 10일 목포에서 출생하였으며, 1962년 세계 최연소(9세)로 바둑에 입단하고, 일본에 건너가 수행, 1982년 29세의 나이에 한국 최초로 바둑 9단에 오르게 되었다.

11) 목포 최초 국회의원(제헌의원): 이남규

목포시 최초 국회의원은 이남규이다.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국제 연합(UN)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 실시한 총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때 구성된 국회는 한국 제1대 국회로서 회기는 1948년 5월 31일~12월 18일, 총203일간이었다. ‘제헌 의회’라고도 불린다.

12) 목포 최초의 시장: 김영하

목포시의 초대 시장은 1949년 8월 15일~1950년 8월 14일, 1년 동안 재직한 김영하이다.

13) 초대 민선 시장: 권이담

목포의 초대 민선시장은 1995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 7년간 재직한 권이담이다.

14) 목포시 의회 최초 의장: 유정두

목포시 의회 최초 의장은 유정두 의원이다. 1952년 5월 5일부터 1954년 5월 29일까지 재임했다. 당시 부의장은 이소규였다.

15) 우리나라 외과 전문의 면허 제1호: 차남수

차남수(車南守, 1903~1990)는 규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 의학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외과 전문의 제1호로 1941년~1990년, 50년간 오직 지역민을 치료하는데 일생을 바친 인물이다. 1941년 대안동에 ‘차남수의원’을 개설하였다.

16) 목포 최초 한국인 치과 전문의: 노기섭

목포 최초의 한국인 치과 의사는 1924년에 ‘목포치과의원’을 개설한 노기섭이다. 치과 의원 개설에 필요한 자본은 남교동에 거주하던 홍재영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목포 최초 한의사 면허자: 최영대

목포시 대의동에서 ‘최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 최영대는 1974년 12월에 보건 사회부 장관(현 보건 복지 가족 부장관)이 발행하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목포 최초 한의사 면허자로 기록되고 있다.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2절 일흑 삼백의 고장 목포

조선의 부는 삼남(충청, 전라, 경상)에 있고, 삼남의 부는 조선의 부의 과반을 차지한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마침 목포는 그 부의 원천의 중심인 전라도에 있다. 북쪽으로는 군산, 동쪽으로는 여수의 중앙에 있어 이 사이를 거의 직각을 이루는 연안선의 첨단에 있으며, 앞쪽에는 다도해를 끼고 뒤쪽으로는 호남평야의 광활한 옥도가 널려있다.

바다에는 무진장의 수산 자원이 있고, 육지에는 풍부한 농산물이 있다. 항구는 깊숙이 들어와 있고 배후에는 유달산이 있어 북풍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영암반도를 바라보고 고하도가 항구를 가로막으니 아마도 조선의 전연안중 보기 드문 양항이다.⁰¹⁾

목포를 흔히들 일흑 삼백(一黑 三白)의 고장이라고 한다. 일흑 삼백이란 ‘일흑’은 김[海衣], 삼백은 쌀, 면화, 누에고치를 말한다고 한다.⁰²⁾ 그러나 누에고치 대신에 소금을 말하기도 하는데, 본도의 염업은 종래 전남 삼백의 하나로 들어 말한다고도 했다.⁰³⁾ 또한 쌀, 솜, 누에고치의 세 가지 중 쌀과 솜은 그 산출량이나 품질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를 점하고, 누에고치는 경상남도에 이어 산출량이 두 번째였다.⁰⁴⁾ 소금은 전남 연안의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래식 전열염(煎熟鹽)의 집산항이다.⁰⁵⁾ 삼백의 고장이란 이들 물산의 집산지로서의 목포를 말하는 것이다.

목포의 일흑으로 불리는 김이 언제부터 양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신빙성이 있는 것은 전남 광양 태인도에서 인조(仁祖, 1623~1649) 때 김여익(金汝翼)이 개시하였다는 전설이다.⁰⁶⁾ 그 밖에 완도의 조약도, 완도 고금면 용장리라는 설도 있다.

전라남도는 갯벌이 많고 어느 곳이나 양식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없다. 김은 연안의 모든 섬이 그 산지이다. 그러나 양식을 많이 하는 곳은 광양만과 고금도, 조약도의 두 섬의 연안이다. 광양만의 해태양식은 매우 왕성하여 불만 하지만 다른 두 곳은 지역이 좁아 말 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여러 섬들 가운데 저명한 산지는 조도군도와 진도로 채취 시기는 2·3월경이다.⁰⁷⁾

01) 목포지편찬회, 『목포지』, 1914, 1쪽.

02) 목포부, 『목포부사』, 1930, 708쪽.

03) 같은 책, 706쪽

04) 같은 책, 711쪽.

05) 목포시, 『목포시사』, 1990, 615쪽.

06) 김 시식지 유적 보존회, 『광양 김 시식지』, 홍익기획, 2008, 45쪽. 김여익 공 묘표 “경진년(1640) 봄 드디어 본현의 인호에 은둔하여 갈매기를 벗 삼아 즐겁게 살면서 처음으로 양식을 시작하였다.(庚辰春遂隱遁于本縣仁湖伴鷗寓樂始殖海衣). 甲午(1714) 光陽縣監 許鐸 撰”.

07) 片岡謙, 『보고의 전남(寶庫の全南)』, 편강상점, 1913, 71쪽.

일본인들은 이처럼 자국민의 기호에 맞는 김의 양식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양식장의 미개척지의 조사로 양식장의 확장에 힘쓰고, 김 포자의 이식 등으로 일본 본토의 수요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였다. 더구나 김은 우리나라 중요 생산물 중의 하나로 전라남도도 전국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한다.

따라서 장래 최대 수용지인 일본 본토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남의 김 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간사이[關西]지방의 김 시장은 거의가 조선김(주로 전남의 김)이 독차지하고 있는 듯하였다.⁰⁸⁾

목포는 육상 교통의 요충지로 호남선 철도의 기점이며, 다도해의 중심 시장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의 집산지로서 그 이름을 떨쳤다

목포는 1897년 고종의 칙령으로 개항이 되었다. 개항이 되자 일본 상인이 모여 들어 우리의 쌀을 실어내가기에 혈안이 되었고, 우리나라 상인들은 우리 쌀을 사모아 장사에 열중하였다. 목포의 부두에 일감이 생기면서 이미 개항이 되어 부두의 하역 업무에 경험이 있는 부산이나 인천의 노동자들이 모여 들었고, 이 지방의 농어촌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목포로 모여들어 하루가 다르게 농산물의 집산항으로 변해갔다.

이렇게 개항이 된 189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 동안 일본으로 실어 내간 쌀이 1,694집(担), 5년 후인 1901년에는 1년에 213,873집이었다. 1988년 전년도 3개월분을 1년간으로 환산한 수자와 비교하면 수량에 있어서 8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낸 꼴이었다.⁰⁹⁾ 이렇게 목포는 빠르게 우리 농산물의 집산지가 되어 일본의 원료, 식량의 공급지가 되었다.

목포항에 있어서의 수출품은 거의가 쌀이었다. 쌀의 거래가 활발하여짐에 따라 개항 초기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각 지역 상거래의 장단점을 가려서 목포에 알맞은 상·관습을 세우려, 한일 양국의 상인들과 일본인 상업 회의소가 협의하여 벼, 쌀의 거래법을 새로 만들어 실시하였다.¹⁰⁾ 이것은 일본인들이 벼나 쌀의 거래에 있어 품질이 좋고 혈값으로 반출하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02년에는 목포 영사관의 주선으로 목포농협회가 조직되었다. 그 규약을 보면 “한국 농사의 진흥을 도모하여 피아의 이익을 증진하고 통상 무역의 융운을 기하기 위하여 목포 지방에서 농사의 개량 시작(試作)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한 것처럼 농업 경영자보다 일본인 곡물상들이 반출 미곡의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었다.¹¹⁾

08) 목포부, 앞의 책, 689쪽.

09)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481~482쪽.

10) 목포부, 앞의 책, 583쪽.

11) 김용달, 『일제의 농업정책과 조선농회』, 해안, 2003, 40~41쪽.

목포의 쌀의 집산은 종자의 개량, 시비 방법의 개선과 화학 비료의 보급, 수리 시설의 확장과 개선 등 산출량의 증가와 일제의 산미증산운동 등으로 목포에 반입되는 벼와 쌀이 증가하면서 목포의 부두에 “나락마당”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이렇게 목포항의 호경기는 바로 이 쌀 수출이 주도하고 있었다. 1928년 목포항의 수이출액 가운데 쌀 수출이 68.7%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같은 해 전라남도 전체의 쌀 생산량은 228만 4천여 석이었는데 이 가운데 목포항을 통해 수이출된 것이 53만 6천여 석으로 전체의 23.5%였다. 1930년경 일본으로 실려 간 쌀이 약 6백만 석이었는데 이 가운데 목포에서 실려 간 것이 약 50여만 석이었던 것이다.¹²⁾ 이렇게 많은 양곡을 긁어모으기 위하여 일제는 1939년 「미곡배급조합통제법」을 제정하여 쌀의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농민의 자가 소비분 까지도 헐값으로 강제 공출시켰으며 그 대신 만주 지역에서 들여오는 콩이나 피 등의 동물용 사료를 배급하였다. 또 1943년에는 「식량관리법」을 제정하여 맥류(麥類), 면화(棉花), 삼(麻) 등 40여 종에 대하여 공출 제도를 확대하고 강제 공출을 이행시키기 위하여 무력까지 사용하는 등 전시 군량 확보를 위하여 온갖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였다.¹³⁾ 이렇게 확보한 미곡은 목포의 창고에서는 연중 입출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운반에는 말이 끄는 달구지(말구루마)가 이용되었다.

우리나라는 문익점이 면화씨를 들여온 이래 북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재배하였고 그 중에서도 전남 지방은 옛날부터 특산지로 알려졌다. 목포에서 면화의 수출은 1901년으로 일본의 오사카 시장에서 거래되었다.¹⁴⁾ 이는 재래종으로 육지면보다 섬유의 길이가 짧고 질기기가 떨어진다고 한다. 1904년 고하도에서 개량종인 육지면의 시험 재배에 성공한 이래 목포에서의 면화는 일본이 우리 농산물 수탈의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2년 목포로 발령을 받은 목포 주재 일본 영사 와카마츠 도사부로(若松龜三郎)가 목포로 올 때 일본 농무성 농무국장 사고우 쓰내아키[酒勾常明]와 한국의 면화에 대하여 예기하고 면화의 산지로 알려진 중국의 근무지였던 사시(沙市)가 위도상으로 목포와 같고 기후조건이 비슷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고하도에 육지면의 시험재배에 착수하여 성공하고 그 결과를 일본정부에 보고하여 본격적인 면화의 재배를 장려하게 된다.¹⁵⁾ 이 사실을 와카마츠는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2)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90쪽.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 1997, 886쪽.

14) 목포부, 앞의 책, 594~595쪽.

15) 같은 책, 732쪽.

“나는 장래를 달관하여 한국의 농사개발에 노력하여 미종(米種)의 개량, 일본농민의 이주 등을 장려하고, 특히 면화에 대하여 미국육지면의 종자를 조선에 재배할 것을 외무성에 품신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아서 명치 37년(1904)에는 자비로써 목포부근 고하도에 육지면을 재배하고 추수를 하여 한편의 영사보고로서 시험재배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많은 주의를 야기하여 제국의회 상하 양원의 주된 의원도 찬성하고 민간방직업자와 협력하여 면화재배협회를 조직하여 명치 38년(1905)에는 동협회의 사업으로 목포 그 밖의 여러 곳에 시험재배를 속행하였다. …… 나는 경성에 가서 우선 한국정부의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를 만나 육지면의 재배를 장려하는 방법으로 전라남도 각지에 육지면 채종포를 설치하는 일에 한국정부에서 동의하여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을 요청함과 동시에 하기하라[荻原] 임시대리공사에게 설명하여 공사의 명의로 일본정부에 면작 지도를 위하여 기사의 파견을 건의하였다. 메가다 고문은 바로 나의 제의에 동의하여 면작의 개량에 필요한 경비는 한국정부에서 부담할 것을 승낙하였다. 또 공사의 건의는 정부에서 채용되어 명치 39년(1906) 목포에 면작지도를 위한 기사 수명을 두었다.”¹⁶⁾

이렇게 정부의 면화 재배의 개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승낙 받은 와카마츠 영사는 일본 농무성 농사 시험장, 면화 재배 협회 등과 시험 재배지를 확대하고 면화 재배의 개량에 박차를 가하였다. 1906년에는 권업 모범장 목포지장이 설립되어 면화에 관한 시험사업을 하고, 면화농사를 독려하였다.

면화의 재배가 활발해 지고 산출량이 늘어나면서 육지면 종자의 산일과 재래종 종자가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구실로 농산 당국은 사들이는 창구를 한 곳으로 정하고, 그 곳에서 조면하여 그 종자를 재배농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육지면 재배 면적이 늘고 재래종 면화의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판매가 불편하고 또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 일반 상인들은 비밀거래로 농민들로부터 지정 판매처보다 높은 값으로 육지면을 사들여 일본으로 실어냈다. 이런 일 이 발생하여 자유 판매가 허용되자 혼면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육지면과 재래종 면화를 섞어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는 구실로 면화 취급 규정을 만들어 면화의 검사를 강화하고 불합격품은 매매를 금지하였다.¹⁷⁾ 이렇게 면화의 거래를 통제하고 수탈하는 수단으로 각 면에 면작조합을 만들고 조합원이 경작한 면화는 공동 판매소에서 수매하도록 하여 조면공장은 중매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살 수 있도록 하였다. 구매 가격은 도청에서 일본의 시세를 전보로 받아서 거기에 운송비, 제비용 등을 감안하여 표준가격을 고

16) 「와카마츠 도시부로, 어느 조선 근무 고급 관료의 자서전에서 (若松五郎, 或る朝鮮勤務高級官療の自伝より)」에서 발췌(<https://blog.naver.com/okinawapark>).

17)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552쪽~556쪽.

시하여 거래하도록 하였으나 통신 수단, 교통 수단의 미비를 핑계로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일정치 않고 며칠씩 가격의 변동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곤 하였다, 이것은 가격을 조작하여 면화 재배 농민들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912년 조선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는 면화 재배 장려에 관하여 육지면의 재배확장으로 일본의 수요 면화를 공급하고, 조선 농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 경제의 신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육지면 장려의 방침을 제시하였다.¹⁸⁾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남면북양(南綿北羊)정책을 펴면서 면화 증산에 더욱 힘을 쏟았다. 이는 일본이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했던 공업 원료인 면화의 증산에 충력을 기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면화 재배를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는 면작지장 장장에 당시 도지사와 직급이 같은 일본천황이 발령하는 칙임관(勅任官) 2등의 기감(技監)으로 보임했던 사실로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이런 면화의 집산지가 바로 목포였다. 면화의 집산지로서의 목포는 우리 농산물의 집산지가 되었고 육지면의 시험 재배에 성공하고 면작 시험장이 설립되어 면화 재배의 선진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은 면화재배를 강요당하고 면화, 면포의 유통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1940년대에는 전시 체제에 들면서 소위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수탈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져 갔다. 더구나 전쟁이 한창 패전으로 기울 때는 심지어 초등학교생들까지 조면공장에 근로봉사란 미명아래 동원되는 일까지 있었다.

“학도근로령, 여자정신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이 공포·실시되어 12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여성은 농촌이나 군수공장에 동원되었다. 목포에서는 조면공장에 초등학교 여학생들까지 동원되었다. 면화의 집산지로서 큰 조면공장이 여러 군데 있었다.”²⁰⁾라고 목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일본인 여류작가는 이렇게 적고 있다. 조면된 면화는 압축 포장되어 달구지에 실어서 부두로 나가 선적되어 일본으로 실려 나갔는데 목포항에는 항상 면화등치가 쌓여있었다. 항만별 면화수출의 상황을 보면 1922년의 목포, 인천, 진남포, 부산의 네 항구 중 목포가 87.97%를 점하고, 1926년에는 총합계 124만 1천여 관 중 목포항은 108만 2천여 관이었다. 1922년부터 1926년까지의 5년간의 평균도 목포항은 73%를 점하고 있다. 수출은 대부분 일본으로 나갔다. 목포항이 면화의 집산지로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²¹⁾

18) 목포부, 앞의 책, 740쪽.

19) 조효석, 『서석대(瑞石台)』, 삼화문화사, 1992, 393쪽.

20) 辻美沙子, 『무궁화를 몰랐을 무렵: 회상·우리마음의 목포(無窮花を知らなかった頃: 回想·わが心の木浦)』, 세계일보사, 1995, 212~213쪽.

21) 永野愼一郎, 「한국 목포지방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일고찰(韓國木浦地方の近代化過程に 關する一考察)」, 『경제논집』97, 대동문화대학경제학회, 2012, 107쪽.

일본은 면화의 대량 소비국임에도 면화 재배에는 기후나 풍토상의 관계로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였다. 이런 일본 국내의 면화 수요에 대응하는 방책으로 식민지에서의 육지면 재배의 장려로, 그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 목포 지방이었다. 고하도에서의 시험 재배의 성공이 계기가 되어 전라남도 지역으로 면화 재배 지역이 확장되어 목포 지방이 육지면 재배의 중점지역으로 일본에의 수출기지가 된 것이다.²²⁾ 이것이 전남 삼백의 하나로 면화를 꼽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양잠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약 3천 년 전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어 온 잠업이 조선 시대에 비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양잠 권장을 위한 기구설치, 법령제정, 관련서적 편찬, 기술 보급에도 불구하고 양잠업은 전근대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이 누에를 기르는데 적지임을 확인하고 후진적인 잠업을 개량하고자 개량된 뽕나무와 누에씨를 도입하여 잠업의 개량과 장려에 힘을 기울였다. 잠업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기구를 설치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조선잠업령」이라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1919년에는 전국 각도에 모범잠실을 설치하여 일본이 식민지의 수탈 정책의 하나로 삼았다. 그 결과 1939년에는 세계 제4위의 잠업국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²³⁾ 이렇게 양잠 장려와 양잠 농가에 대한 일원적인 통제, 그리고 생산된 누에고치에 대한 불공정한 등급 판정과 검량 등으로 공판제를 시행하면서 일본의 제사·견직공업의 초과이익을 보장하고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실현하여 갔다.²⁴⁾ 목포의 누에고치는 생산량에 있어 전국에서 전남이 2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이 목포항을 통해 일본으로 실려 나갔으니 전남의 삼백의 하나로 이름을 떨쳤을 것이다.



그림 1 해태 양식
출전: 『개항 만 35년 기념 목포사진첩』(목포신보사, 1932, 목포근대역사관 1관 소장)



그림 2 면화 판매
출전: 『개항 만 35년 기념 목포사진첩』(목포신보사, 1932, 목포근대역사관 1관 소장)



그림 3 부두에 쌓여 있는 쌀

22) 같은 책, 107~108쪽.

23) 동광(<http://blog.naver.com/ksh85209>, 2016. 12. 18.)

24) 김용달, 앞의 책, 227~228쪽.

소금은 예전부터 전남 삼백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오늘날에는 누에고치에 그 위치를 빼앗겼다.). 목포 지방의 염업에 대하여 “1904년에 당시 목포주재 일본영사 와카마츠 도사부로의 천일제염에 적합한 지역으로 일본 정부에 제안하여 전문 기사에 의한 실지 조사를 한 결과 천일제염에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이 주목을 받아 1906년 6월 목포제염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천일염 시험장이 인천 주안에 건설되어 목포지방의 제염업자는 관업으로 위축되어 중국염을 수입하여 재제염으로 살아남았다.”²⁵⁾고 하였다. 그러나 이 지방은 제염에 유리한 자연환경, 즉 기후나 넓은 갯벌 등 염업에 적합하여 도서 지방 도처에 염전이 있어 일 년에 1억 수천만 근을 생산한다고 알려지기도 하였다. “본도의 염업은 매우 왕성하여 전 조선에서 으뜸이다. 저명한 산지는 지도군의 지도와 나주의 각 군도, 무안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으로 기타 임해 각 군이 모두 산지 아닌 곳이 없고 전도 1년 산액은 대략 1억3백73만3천1백70근이라 한다. 매우 조잡한 제품이 많아 더욱 지도 장려의 여지가 있다.”²⁶⁾라고 전남의 염업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방의 염전은 전오법에 의한 생산으로 연료비의 앙등으로 폐업하거나 축소하였다. 더구나 산미 증산 계획에 따른 경지 조성 사업은 염전을 논으로 바꾸는 등 생산량이 3천만 근도 어렵게 되었다²⁷⁾ 목포의 소금은 종래 자염(煮鹽)으로 제조 방법은 오전방식(熬煎方式)이었다. ‘1910년 전후 우리나라의 자염 생산 현황’에 따르면 전라남도에서는 1억 4백여만 근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37%를 차지하였다²⁸⁾ 그러나 목포 지방의 자염은 이 지방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군산, 인천, 일본에서 들여오기도 하였고, 중국의 소금이 밀수입되기도 하였다. 이런 소금이 목포 지역을 포함한 섬지방과 연안에 천일염전이 조성되어 본격적으로 천일염의 생산이 시작되면서 그 생산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천일염의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목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금의 집산지가 되어 내륙으로 수송되었다.

목포의 일후 삼백은 언제 어떻게 해서 불려 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쌀, 면화, 누에고치, 혹은 소금을 일컫는 삼백은 『목포부사』에 ‘소금은 옛적부터 전남 삼백의 하나로 열거되어’(오늘날에는 누에고치 때문에 그 위치를 빼앗겼지만), 또는 ‘본도의 염업은 종래 전남의 삼백의 하나로 열거되어’로 적혀있고, ‘쌀, 면화, 누에고치는 고래로 전남의 삼백으로 칭하여져’라고, 또 ‘쌀, 면화, 누에고치는 소위 전남의 삼백으로’라고 적혀있다. 이것을 볼 때 전남 삼백의 집산향으로서 목포가 삼백의 고장으로 일컬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후가 더해진 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25) 永野愼一郎, 『일·한을 잇는 「흰 꽃」 면과 소금 명치기 외교관 와카마츠 도사부로의 생애(日韓をつなぐ「白い華」綿と塩 明治期外交官 若松 兎三郎の生涯)』, 명석서점(明石書店), 2017, 111~112쪽.

26) 편강의, 앞의 책, 71쪽.

27) 목포부, 앞의 책, 616쪽.

28) 국립민속박물관, 『소금꽃이 핀다』, 2011, 37쪽.

목포에 물산이 모여 들어오고 이 물산이 실려 나가게 된 것은 목포가 개항되면서 부터이다. 일제가 목포를 개항지로 지정한 것은 영산강 유역의 기름진 농지와 영산강 수로를 이용한 내륙으로의 진출에 유리하고, 목포의 위치가 북으로는 인천, 동으로는 부산의 중간에 있고 풍부한 농산물과 무진장의 수산물이 있으며 천연의 방파제로 둘러싸인 드물게 보는 양항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양항을 그들의 수탈의 전초 기지로 만들고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쌀을 걷어 들이기 위하여 그들은 「미곡법」을 만들고, 이 법도 모자라 「미곡통제법」을 만들어 우리의 쌀을 일본으로, 만주로 실어내고, 전쟁으로 절대로 필요한 면화는 통제가 더욱 심해지고 수탈의 강도는 더욱 높아져 목포 부두에는 연중 면화 뭍치가 쌓여 있었다. 또한 김(해의, 해우)도 일본으로 반출되는 중요 품목의 하나였다. 동경만에서 생산되는 김(참김, 아사꾸사노리[淺草海苔])이 있었지만 그들의 수요에 도저히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남 연안의 질 좋은 김은 목포항의 수출품 가운데 큰 몫을 차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목포항에 들어오는 물산이 쌀, 면화, 누에고치가 대종을 이루었고, 이의 수출항으로 일혹 삼백의 고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우리 목포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한이 서려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목포역 부근의 미곡 창고나 동명동의 미곡 창고에서 부두로 가는 쌀이나 벼를 실은 말달구지 뒤에는 쓰레받기를 든 여인네가 혹시나 가마니에서 흘러나오는 쌀이나 벼를 쓸어 담아 가려고 뒤따라가고, 면실유 제유 공장에서 기름을 정제하고 나온 찌꺼기를 가지고 양젖물과 겨를 섞어 만든 소위 ‘똥비누’를 만들어 시골로 가서 곡식과 바꿔오다가 단속에 걸려 순사(경찰관)에게 몰래 가져오던 곡식을 압수당하고 호소할 곳도 없이 망연자실 눈물을 흘려야 했던 설움이 있었으며, 만주에서 온 대두박을 배급받아 밥을 해먹고 배탈이 나서 고생을 했던 시절이 있던 많은 애환을 지니고 있었던 목포였다. 그러나 일제는 김, 쌀, 면화, 누에고치(혹은 소금)을 수탈하기 위하여 개발한 목포를 그들이 발전시키고 삼대항, 6대 도시로 만들었다고 미화하면서 목포가 일혹 삼백의 고장임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김정섭 |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제3절 목포시사(木浦詩社)의 창립과 그 연혁

-광복 이전을 중심으로-

1. 시사(詩社)와 목포시사

시사란 중국에서 시 동호인들의 결사(結社)를 가리킨 데서 온 말이다. 그 중심에는 대개 주도적인 인물이 있었다. 참가 계층도 조선 후기 이후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는 달라서 사족(士族)에서 중인, 더 나아가 평민층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런 시사는 산수와 풍월을 즐기며 한시를 짓는 동인(同人)의 성격이 짙었다.

이와 같은 시사의 기원은 중국 동진의 서가인 왕희지(王羲之, 307~365)의 난정계(蘭亭禊) 즉 난정시사(蘭亭詩社)에서 비롯하여 중당기의 시인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 등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이 땅에서는 이들 중국의 모임을 본떠서 만들어졌는데 17세기말의 낙송루시사(洛誦樓詩社, 1682~1689)나 18세기말인 1790년대에 정약용(丁若鏞)·이치훈(李致熏) 등 14인이 모였던 죽란시사(竹欄詩社)와 같이 선비들의 시사도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조선 후기에 중인층 시인들이 서울 주변에서 조직한 시사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시사는 여항(閭巷)문학의 발달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의원(醫員), 역관(譯官) 등 기술직 중인과 서울 중앙관서의 경아전을 여항인이라 일컫고 이들의 한시문학을 여항문학이라 했는데 이는 주로 시사 활동을 통해서 발달했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17세기 말 숙종 때의 서헌 임준원(西軒 林俊元)을 맹주로 한 낙사시사(洛社詩社)를 필두로, 1786년(정조 10) 규장각 서리들이 중심이 되어 30여 년간 존속했던 옥계시사(玉溪詩社, 1786~1818)의 활동이 시사의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모이는 장소의 이름을 따서 달리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라고도 했는데 그 맹주는 송석원도인 천수경(松石園道人 千壽慶)이었다.⁰¹⁾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여러 시사들이 등장하여 한말까지 그 흐름이 이어졌다. 그 뿐만 아니라 시사는 일제강점기에도 존속하였으며 지금도 한시 창작이 가능한 일부 인사들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시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봄·가을의 좋은 날을 택하여 오늘날의 백일장에 해당하는 백전(白戰) 또는

01)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 민학사, 1974, 60~62쪽, 75~79쪽; 『한국일보』, 2011. 11. 19. 「조선시대 중인문학의 보고 송석원 터 등 문힐라」에서 발췌 인용.

백전회(白戰會)라는 시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러한 시사들을 본떠 이 고장에 창립하여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목포시사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나주 반남의 자미산(紫薇山)을 중심으로 모였던 반양시사(潘陽詩社, 1926)⁰²⁾와 광주 지역의 해양음사(1933)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타 호남 지역의 시사들이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에야 발족한 것으로 보아 이 지역 시사의 효시라 할 목포시사는 유달산 동면의 중턱⁰³⁾에 위치하며 1976년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21호로 지정되었다.⁰⁴⁾ 목포시사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봄·가을에 한시 백일장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목포시사라 부르기 이전의 명칭은 유산시사(儒山詩社)라 했다. 그 사정(社亭)의 이름 또한 유산정(儒山亭)이었다. 이와 같이 유산시사라 이름지은 연유를 『유산사안(儒山社案)』⁰⁵⁾의 서문에서 당시의 시사장인 조면형은 “지금에 이 유산시사는 그렇지 않아서 산의 명칭인 유달에서 그리 이름한 것이다.”라고 시사 명명(命名)의 내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⁰⁶⁾ 그밖에도 「유산정기(儒山亭記)」의 첫머리를 비롯하여 시사원들의 시 작품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도 유달산을 줄여서 ‘유산(儒山)’이라 하고, ‘유달산을 중심으로 모인 시객들의 결사’여서 ‘유산시사’이며, ‘유달산에 세운 사정’이기에 ‘유산정’이라 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유산시사에 대해 현재 목포시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유산시사의 창립과 유산정의 창건 그리고 그 주동 인물 등에 주안점을 두고 그 연혁과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산시사 창립과 유산정 창건

1) 유산시사 창립과 유산정 창건 시기

그런데 그에 앞서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에 나오거나 쓰인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그 까닭은 기록에 따라서는 한 가지 대상에 여러 호칭을 쓰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에는 유산시사, 유산음사(儒山吟社), 유산음사(儒山唸社), 유산사(儒山社)가 있고, 유산정,

02) 김경욱 역, 『국역 반양시사』, 나주문화원, 2010, 3쪽.

03) 목포시 죽교동 330번지의 3에 위치하며 전면 4칸 측면 1.5칸의 한옥 두리기둥 팔작지붕 골기와 집이다.

04) 전라남도, 『문화재도록』, 1981, 522쪽.

05) 목포시사의 전신인 유산시사의 초기 내력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의 하나이다. 첫머리에 제 2대 시사장인 윤곡 조면형이 1922년(임술) 음력 9월 상순에 쓴 서문(歲壬戌菊秋上浣 眞谷趙冕衡序)과 유산시사의 규약(規約), 그리고 시사원들의 명부라 할, 개인 정보를 연령순으로 적은 좌목(座目)으로 되어 있다. 좌목에는 개개인의 성명, 본관, 호, 생년, 거주지를 기록해 놓았다.

06) 『유산사안』 1면, “今夫儒山詩社則不然 山之名以儒達.”

그리고 목포시사 등이 있다.

이들 중 유산시사와 유산음사(儒山吟社), 유산음사(儒山吟社)의 셋은 한 책에서도 그 표기를 달리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음(吟)’과 ‘음(吟)’은 다른 뜻으로 쓰기도 하나 둘 다 ‘옹을 음’이고 같은 뜻으로 넘나들어 쓰인다. 그런데다 음사(吟社)와 음사(吟社)는 한자 표기만 다르지 시사를 일컫는 같은 말이니 이 셋의 실체는 ‘유달산을 중심으로 모인 시객들의 결사’를 달리 표기한 것일 뿐이다. 또 유산사는 앞의 셋의 약칭이니 이 또한 같은 말이다.

이와는 달리 유산정은 ‘유산 시사원들이 모여서 시회를 갖는 정자 즉 건물’의 명칭이다. 따라서 앞의 유산사와는 그 실체와 성격이 다르다.

그런가 하면 현금에 쓰이는 목포시사는 조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이 용어 하나로 지난날의 유산시사를 이르기도 하고 유산정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것은 1961년(신축)에 유산시사가 목포에 있던 또 다른 시사인 보인시사(輔仁詩社)와 통합하여 ‘목포시사’로 개칭·발족한 이후부터의 일이다. 그밖에 사정(社亭)과 시정(詩亭)이 있는데, 이는 둘 다 시사 건물을 뜻하는 같은 말이다. 그러면 유산시사 창립, 그리고 유산정 창건 과정을 보자.

목포시사에는 모두 48종의 전적(典籍)과 많은 수의 현판(懸板)이 보관되어 있다. 그 가운데 시사 창립과 연혁에 관련이 있는 전적으로는 『초정집(草亭集)』,⁰⁷⁾ 『유산사안』, 『목포음사사안(木浦吟社社案)』, 『목포시사역대사장급임원명부(木浦詩社歷代社長及任員名簿)』, 그리고 『목포풍아집(木浦風雅集)』⁰⁸⁾이 있고, 『보인계안(輔仁契案)』⁰⁹⁾도 참고가 된다.

여기에 더해 1976년 10월 1일자로 목포시사에서 등사기로 유인(油印)한 「목포시사의 역사적 사실(木浦詩社의 歷史的 事實)」이라는 본문이 5쪽인 유인물도 있다.¹⁰⁾

또 현판으로는 목포시사 대청에 걸려 있는 1932년(임신) 10월에 무정 정만조가 지은 「유산정상량문(儒山亭上樑文)」, 1932년 10월 하순에 다현 정언식이 쓴 「유산정기」, 그리고 현 목포시사 현판 뒷

07) 초정 김성규의 문집. 원본은 1937년 음 5월에 12권 6책으로 간행되었다. 1999년에는 이를 다시 한국인문과학원에서 전 3책으로 영인 간행하였다.

08) 1965년(을사) 3월 목포시사에서 석판인쇄로 간행한 총 210면의 소책자이다. 목포시사의 연혁과 초창기부터 그때까지 보유하던 역대 시사원들의 작품과 목포에 관한 자료를 정리 수록한 시문집 겸 자료집이다. 2012년에 김정섭과 김형만이 공역한 번역본이 목포문화원에서 간행되었다.

09) 1939년(기묘) 보인계(輔仁契)로 출발하여 1946년(병술) 3월에는 보인시사(輔仁詩社)로 개칭하고 1961년(신축) 가을에 유산시사와 통합하여 목포시사가 된 시사의 초창기 시사안(詩社案)이다.

10) 그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을 간추려 보이면 “1890년(경인) 당시 목포는 한산한 포구로서 향교나 교육기관도 없을 때 함양인 하정 여규형(荷亭 呂圭亨) 허석제(許石齊) 선생 박만취(朴晩翠) 선생은 이 고장 시문 동호인을 통하여 시문을 파급시키고 오던 중 목포 설관(設關) 직후에는 백일전(白日戰)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니다. …… 무정 정만조(茂亭 鄭萬朝) 선생께서는 …… 1920년(경신) 4월 29일 …… 광주군에 거주한 박윤동(朴允東) 외 104인을 규합하고 유산정을 창건하신 후 …… 1932년(임신) 10월에는 의연금 510원을 들여 무정 정만조 선생께서 자작자서(自作自書)한 시정(詩亭) 상량문을 써서 중건하였고 ……” 이상의 내용은 이후 1981년부터 나온 목포시사 연혁에 대해 논한 간행물의 전거(典據)가 된 것으로 보인다.

면에 그대로 남아 있는, 1933년(계유) 3월에 초정 김성규(草亭 金星圭)¹¹⁾가 휘호한 「유산정(儒山亭)」과 그 낙관, 1940년(경진)에 무력산인 이회문이 쓴 「유산사원운하거사김공현서창적서(儒山社員雲河居士金公賢瑞彰續跋)」, 1946년(병술)에 청와 이원창이 쓴 「유산정중수기(儒山亭重修記)」, 1962년(임인) 봄에 김보형이 쓴 「목포읍사기(木浦吟社記)」, 1973년에 작성한 「목포시사원명단일람(木浦詩社員名單一覽)」 등이 있다.

그밖에 시사 운영 자금 관련 자료로는 「창립의연방명록(創立義捐芳名錄)」, 「건축의연방명록(建築義捐芳名錄)」, 「특별유지의연방명록(特別維持義捐芳名錄)」, 「을유추중수의연방명록(乙酉秋重修義捐芳名錄)」, 「중수의연씨명(重修義捐氏名)」 등이 있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8·15 얼마 후까지의 목포시사의 연혁과 관계있는 사항을 연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¹²⁾

- 1915년(을묘) 10월 초9일, 초정 김성규가 ‘목포백전회’ 때 남을 대신하여 지은 ‘목포만추사수’라 제영(題詠)한 시가 있다.¹³⁾
- 1916년(병진) 4월 21일, ‘시사’의 여러 벗들이 찾아오고 척재(拓齋)¹⁴⁾도 합석한 자리에서 지은 시가 있다.¹⁵⁾
- 1917년(정사) 9월, 초정 김성규가 역시 ‘목포백전회’ 때 남을 대신하여 지은 ‘유달산’이라 제영한 시가 있다.¹⁶⁾ 이상 세 기록에 나오는 ‘목포백전회’와 ‘시사(詩社)’라는 용어에서 이 시기부터 일찍이 이 고장 문사들이 ‘목포백전회’라는 이름의 ‘시회(詩會)’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 1920년(경신) 유산시사를 창립하다. 『유산사안』 표지에 ‘1920(경신)년 4월 29일에 설립한 유산사안’이라 써어 있어 유산시사 창립일자를 밝힐 수 있다.¹⁷⁾ 또 이것은 「창립의연금방명록」 작성

11) 김성규(1863~1936): 본관은 안동. 호는 초정. 자는 보형(寶衡). 1887년 관직에 나아가 고창현감, 장성군수, 전라남도 양무감리 등을 거쳐 목포 개항 후, 1903년 제6대 무안감리 겸 무안향재판소 판사를 지냈다. 1905년 2월 강원도 순찰사를 끝으로 퇴관한 후에는 목포에 정착하였다. 유산시사 초대 및 제3대 시사장으로 그 활동 면에서나 재정적으로나 시사 창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 근대 희곡문학과 근대극의 선구자인 초성 김우진(焦星 金祐鎭)의 부친이기도 하다. 문집으로 『초정집』이 있다.

12) 이하 이를 ‘연표’라 약칭하고 원문의 인용은 필요한 부분만으로 한정한다.

13) 『초정집』권1, 33장; 한국인문과학원, 『초정집』, 1999, 113쪽. “木浦晩秋四首 乙卯十月初九日 木浦白戰會時 代人作.”

14) 본명은 한치유(韓致愈, 1857~?). 본관은 청주, 전남 장성 출생. 동래부윤을 거쳐 구한말 마지막 무안부윤(1908년 3월~1910년 11월)을 지냈다(『무안군사』, 1131쪽). 퇴관 후에는 목포에 거주하였던 이로 『유산사안(儒山社案)』에도 그 이름이 올라 있다.

15) 『초정집』권1, 34장; 한국인문과학원, 앞의 책, 115쪽. “詩社諸友來訪 拓齋亦共席 丙辰四月二十一日”.

16) 『초정집』권1, 24장; 같은 책, 153쪽. “儒達山 丁巳九月 木浦白戰會時 代人作”.

17) 『유산사안』, “庚申四月二十九日設 儒山社案”(표지에 쓰인 제목). 주 5) 『유산사안』의 해설 참조.

시기가 같은 1920(경신)년 4월인 것과도 일치한다. 그밖에 「유산정기」,¹⁸⁾ 「목포읍사기」¹⁹⁾가 있다. 또 그 방증으로는 『초정집』에 이 해부터는 ‘목포백전회’라 하지 않고 ‘유산시사 시회’에서 지은 시 작품들이 실려 있다.²⁰⁾

· 1932년(임신) 유산정 신축 공사를 시작하다.²¹⁾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유산정상량문」,²²⁾ 「유산사원운하거사김공현서창적서」,²³⁾ 「유산정중수기」,²⁴⁾ 「목포풍아집서」²⁵⁾ 등이 있다. 또한, 최근 목포시사를 실측 조사한 보고서에서 ‘현재의 건물은 1800년대 후반의 건축술을 보여주기보다는 1930년대 이후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측면에서……’²⁶⁾라고 밝힌 대목은 목포시사의 창건시기가 1800년대 후반이 아니라 1930년대임을 입증하는 건축공학적인 시각(視角)에서의 증언이라 하겠다.

· 1933년(계유) 3월 초사흘날 유산정 낙성식을 갖다. 1933년 3월 3일에 초정 김성규가 유산정 낙성을 읊은 시가 있다.²⁷⁾ 그리고 지금의 목포시사 현판의 뒷면은 초정이 ‘유산정’이라 휘호하고 ‘계유년 3월 초 초정거사 김성규’라 낙관하였다.²⁸⁾

18) 『목포풍아집』, 1장, 「유산정기」, “생각건대, 우리 유산시사는 1920년(경신)에 창립하였다.(惟我儒山詩社册自上章滄澗之年).” 고갑자(古甲子)로 상장(上章)은 천간의 경(庚)을, 군탄(涓澗)은 지지의 신(申)을 이른다. 따라서 상장군탄(上章涓澗)은 경신(庚申)년이다.

19) 『목포풍아집』, 7장, 「목포읍사기」, “지난 1920년(단기 4253년, 경신)에 청호(목포의 별칭)의 유지들이 유산시사를 창립하였다(粵在癸紀4253年庚申靑湖有志勗立儒山詩社).”

20) 『초정집』 권2, 10장; 한국인문과학원, 앞의 책, 165쪽.

21) 유산정 창건에 관해 근년(1981년 이후)에 출간된 간행물의 기술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1년 3월 전라남도에서 펴낸 『문화재등록』(522쪽)에는 ‘목포시사(木浦詩社)는 한말 대학자 무정 정만조(茂亨 鄭萬朝)가 1907년 창건한 목조와가 건물로써……’라 했고, 1981년 12월에 내고장 전통가꾸기 목포시편찬위원회에서 펴낸 『내고장 전통가꾸기』(31~32쪽)에는 ‘무정(茂亨)은 …… 1920년 4월 29일에는 …… 목포 유달산에 모여 유산정(儒山亭)을 건립했고……’라고 되어 있으며, 1987년 목포시·목포문화원이 공동 편찬한 『목포시사(木浦市史) 인문편』(219쪽)에는 ‘1890년 하정 여규향(荷亭 呂圭享) 선생과 허석재(許石齋) 선생, 박만취(朴晩翠) 선생이 유달산에 유산정(儒山亭)을 창건하여……’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간행물에서는 앞의 셋 중의 하나와 부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책자들이 있다. 목포시범시민유달산공원화추진위원회, 『유달산』, 1990, 69~70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1991, 71쪽; 목포문화원, 『목포향토지』 7(역사편 II), 1991, 71~75쪽; 목포문화원, 『목포향토지 제10집』 마파지, 1994, 134쪽; 목포시·목포대 박물관, 『목포시의 문화유적』, 1995, 131쪽; 김선기, 『호남정신 뿌리 깊은 전라도 정자 기행』, 도서출판 보림, 2003, 87쪽.

22) 『목포풍아집』, 2~3장, 「유산정상량문」, “지난번에 문예를 즐기는 이들이 시를 읊는 모임을 새로 만들어 …… 노닐며 즐겁게 자리를 빌려도 거리낄 것이 없으나 누대를 일으켜 세울 땅이 없어 모일 곳을 정하지 못하여 여태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비로소 이 산의 한 곳을 골라 우리 사원들의 여러 힘을 모으며 걸구름은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약원이나 승방보다 낫도다. 1932년(임신) 10월 (曺君遊藝之徒勗爲陰詩之社 …… 遊縱不妨於借榻 樓臺無地起尙未達於定業 始擇茲山之一區 遂集吾社之衆力 無外飾之美而猶勝藥院僧房. 壬申十月.).”

23) 『목포풍아집』, 3~4장, 「유산사원운하거사김공현서창적서」, “1920년(경신)에 8~9명의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시사를 창립하고 …… 1932년(임신) 겨울에 공사를 시작하니 온갖 일을 현서공 몸소 홀로 힘쓰며 집안일도 포기하고 풍설을 무릅쓰며 석 달 동안 오직 한마음으로 건축 공사를 감독하여 공사를 끝마치었다(庚申與八九同志勗爲陰社 …… 於壬申冬凡百事務躬獨勞拋家事冒風雪一心董工三閱月而功告訖).” 유산정 준공 8년 후인 1940년(경진) 가을에 유산정 창건의 공적을 기리자는 시사원들의 중의에 따라 김희문이 씀.

24) 「유산정중수기」, “시사를 결사한 뒤 1932년(임신) 가을에 시정을 창건하니 이름하여 유산정이라 하는데 그것은 이 정자이다(結詩社後 壬申秋建詩亭 名之曰儒山亭 斯亭也).”

25) 『목포풍아집』, 서문, “대저 유산읍사는 …… 1932년(임신)에 이르러서는 정자도 축성하였다(夫儒山陰社 …… 而至于壬申亭亦成之).”

26) 목포시, 『목포시사(木浦詩社)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2011, 60쪽.

27) 『초정집』 권2, 40장; 한국인문과학원, 앞의 책, 224쪽. “儒山亭落成 癸酉三月初三日 十載儒山成此堂 花朝宴落把群芳 三方海濶如明鏡 百里山低似小岡 …….” 이것이 유산시사를 결사한 지 10여 년만인 1933년 3월 3일에 유산정을 낙성하고 삼면이 거울과 같이 잔잔한 바다로 특 인 유달산 중허리의 드높은 유산정에서 먼 산을 마치 발아래 작은 언덕처럼 굽어보며 즐거움을 나누는 정경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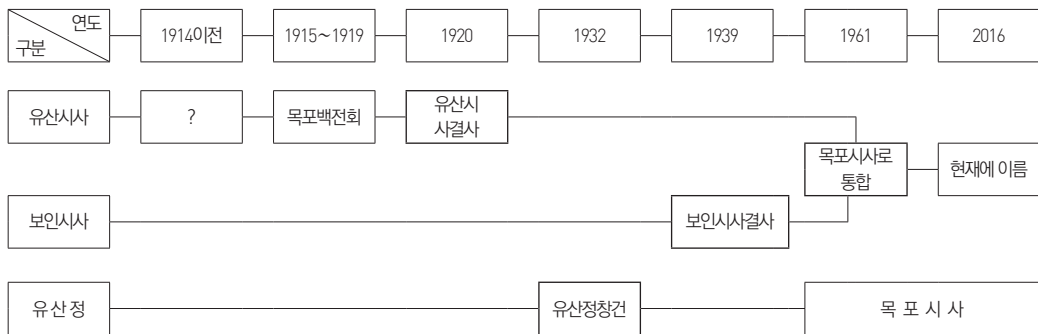
28) 현 목포시사 현판의 후면 「儒山亭」, “癸酉暮春之初 草亭居士 金星圭.”

·1939년(기묘) 보인시사가 창립하다.²⁹⁾

·1961년(신축) 가을에 유산시사와 보인시사가 통합하여 목포시사로 개칭·발족하다.³⁰⁾

이 연표를 하나의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되겠다.

그림 1 목포시사 연혁도



2) 유산시사 창립과 유산정 창건을 주도한 사람들

목포시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여러 의연 방명록에는 창립 이래로 목포시사에 재정적인 기여를 한 이들의 명단과 아울러 그 출연 내역이 명기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보유 자료를 통해서도 목포시사를 위해 주동적으로 활동한 이들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 광복 이전 것으로 한정하여 시사 창립과 시정 창건 내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창립 의연 방명록」, 「건축 의연 방명록」, 「특별 유지 의연 방명록」의 세 가지에 국한하기로 한다. 이는 이 책의 체제상 지면 사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 「창립 의연 방명록」

목포시사 옥내에 걸려 있는 현판이다. 1920년(경신) 4월 유산시사를 창립하면서 장차 소요될 기금을 출연한 내역이겠다. 말미의 임원 명단으로는 초창기 시사 운영을 주도한 이들이 누구누구인지 알

29) 『목포풍아집』, 서문, “1939년(기묘)간에 또한 보인시사를 창시하다(己卯年間又勸輔仁詩社).”

30) 『목포풍아집』, 서문, “1939년(기묘)간에 창시한 보인시사와 …… 1961년(신축) 가을에 이르러 다시 통합논의가 일어나 이에 양사가 통합하고 목포시사로 개칭하였다(己卯年間又勸輔仁詩社 …… 至于辛丑秋公議復起兩社乃合改稱木浦詩社).”

수 있다. 원문은 한자이고 세로쓰기이다. 이 글에서는 한자는 괄호로 묶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바꿨으며 체제는 가로쓰기로 고쳤다.

참고로 다음 의연금의 화폐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필자가 기억하는 1930년대 말의 물가를 보자. 그때 초등학생의 주된 필기구이던 연필 값은, 쓸 만한 것 두 자루에 1원(圓)의 100분의 1인 1전(錢), 그러니까 1원이면 연필 200자루다. 지우개가 달린 좀 나은 연필이라야 한 자루에 1전, 목포와 일로 간 기차값은 초등학생은 어른의 반액인 7전, 다달이 학교에 납부하던 초등학생의 월사금(月謝金)은 1원의 반이 조금 더 되는 55전이었다.

표 1 「창립 의연 방명록」

창립 의연 방명록(創立義捐芳名錄)			
김성규(金星圭)	금 100원	한명리(韓明履)	금 50원
이상규(李祥圭)	금 30원	최방현(崔芳鉉)	금 15원
김봉거(金鳳舉)	금 10원	김상대(金相大)	금 10원
김현서(金賢瑞)	금 10원	신중집(申中執)	금 10원
백재옥(白在玉)	금 10원	최우현(崔右鉉)	금 10원
박성오(朴成午)	금 10원	황굴성(黃橘性)	금 10원
박윤동(朴允東)	금 5원	박양래(朴陽來)	금 5원
정학풍(鄭學豐)	금 5원	김봉주(金鳳周)	금 5원
경신(庚申) 4월 일		사장(社長) 김성규(金星圭)	
		재무(財務) 한명리(韓明履)	
		간사(幹事) 엄정평(嚴正平)	
		정학풍(鄭學豐)	
		평의(評議) 김봉주(金鳳周)	
		김현서(金賢瑞)	
		최방현(崔芳鉉)	

(2) 「건축 의연 방명록」

이 역시 <표 1>과 같은 현판에 새겨져 있다. 1932(임신)년 9월 유산정 창건을 결의하고 이를 전담 할 기구를 구성함과 아울러 유산정 건축에 소요될 경비를 출연한 명세이다. 현판을 새긴 이는 강진의 최경수인데 건축 의연 방명록에만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판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임신 10월 건축 공사 시작에서 이듬해 유산정 낙성 때 사이가 아닌가 한다.

표 2 「건축 의연 방명록」

건축 의연 방명록(建築義捐芳名錄)			
김성규(金星圭)	금 50원	김현서(金賢瑞)	금 50원
최방현(崔芳鉉)	금 40원	백재옥(白在玉)	금 40원
최우현(崔右鉉)	금 40원	손병익(孫炳翊)	금 30원
한명리(韓明履)	금 30원	허 준(許 準)	금 30원
김상호(金尙浩)	금 20원	김명준(金命俊)	금 20원
김용선(金容善)	금 20원	허 형(許 滢)	금 10원
김상대(金相大)	금 10원	김상배(金相培)	금 10원
박봉흔(朴鳳欣)	금 10원	김봉로(金鳳魯)	금 10원
조순섭(曹舜燮)	금 10원	이상규(李祥圭)	금 10원
차남진(車南鎭)	금 10원	김재풍(金濟豐)	금 5원
정희회(鄭曦會)	금 5원	홍인표(洪寅杓)	금 5원
정학풍(鄭學豐)	금 5원	정언식(鄭彦植)	금 5원
노영수(魯瑩洙)	금 5원	김주현(金周鉉)	금 5원
김명집(金明集)	금 5원	지진남(池鎭南)	금 5원
김규현(金奎鉉)	금 5원	신병익(愼炳翊)	금 5원
최경수(崔景洙)	금 5원		
임신(壬申) 9월 일			
사장 겸 건축전문(社長兼建築專務)		김현서(金賢瑞)	
전 사장 겸 감역(前社長兼監役)		김상대(金相大)	
재무 (財務)		김봉로(金鳳魯)	
평의원 겸 감역 (評議員兼監役)		백재옥(白在玉)	
결산문부수정 (決算文簿修整)		정언식(鄭彦植)	
		이종석(李鍾奭)	
평의 (評議)		김상호(金尙浩)	
		최우현(崔右鉉)	
		조순섭(曹舜燮)	
		지진남(池鎭南)	
기결 (割願)		최경수(崔景洙)	

(3) 「특별 유지 의연 방명록」

〈표 3〉인 이 현판도 시사 안벽에 따로 걸려 있다. 제작 시기는 미상이나 내용으로 보아 1934(갑술)년 3월에 장차 있을 유산정의 보수 관리 유지 기금으로 미리 각출한 출연금 명세이다.

한데 그 맨 앞과 끝에 김성규의 출연 명세가 두 번 나온다. 맨 끝은 앞의 명세들과는 그 글씨체가 다르고 글씨의 크기도 조금 작다. 간격 또한 조금 떨어져 새겨져 있다. 게다가 ‘1936(병자)년 10월 16일 세상을 뜨면서 유언

표 3 「특별 유지 의연 방명록」

갑술(甲戌) 3월 일 특별유지의연방명록(特別維持義捐芳名錄)			
김성규(金星圭)	금 30원	김상호(金尙浩)	금 30원
김현서(金賢瑞)	금 30원	최방현(崔芳鉉)	금 30원
백재옥(白在玉)	금 30원	최우현(崔右鉉)	금 30원
김상배(金相培)	금 10원	김상대(金相大)	금 10원
정언식(鄭彦植)	금 10원	노영수(魯瑩洙)	금 10원
김봉로(金鳳魯)	금 10원	이상규(李祥圭)	금 10원
유관오(柳官五)	금 10원	김명준(金命俊)	금 10원
신병익(愼炳翊)	금 5원	윤승혁(尹承赫)	금 5원
김성규(金星圭) 금 50원 병자 10월 16일 임종시 유기 (丙子10月16日臨終時遺寄)			

하여 기탁하다(丙子十月十六日臨終時遺寄).’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서 초정의 사망일, 시사에 대한 관심도, 의연금출연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 덧새긴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의 <표 4>는 <표 1>~<표 3>의 세 의연금 명세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표 4 시사원 출연금 명세

시사원출연금명세													
													(단위: 원)
구분	성명	창립	건축	유지	특별	계	구분	성명	창립	건축	유지	특별	계
1	김성규	100	50	30	50	230	22	허형		10			10
2	김현서	10	50	30		90	23	박봉흠		10			10
3	최방현	15	40	30		85	24	조순섭		10			10
4	한명리	50	30			80	25	차남진		10			10
5	백재옥	10	40	30		80	26	신병익		5	5		10
6	최우현	10	40	30		80	27	류관오			10		10
7	이상규	30	10	10		50	28	정학풍	5	5			10
8	김상호		20	30		50	29	박양래	5				5
9	김상대	10	10	10		30	30	박윤동	5				5
10	손병익		30			30	31	김봉주	5				5
11	하준		30			30	32	김제룡		5			5
12	김명준		20	10		30	33	정회희		5			5
13	김용선		20			20	34	홍인표		5			5
14	김상배		10	10		20	35	김주현		5			5
15	김봉로		10	10		20	36	김명집		5			5
16	정언식		5	10		15	37	자진남		5			5
17	노형수		5	10		15	38	김규현		5			5
18	김봉거	10				10	39	최경수		5			5
19	신중집	10				10	40	윤승혁			5		5
20	박성오	10				10	계		295	510	270	50	
21	황굴성	10				10	총계		1125				

<표 4>에서 상단의 ‘구분’ 중 ‘창립’은 <표 1>에서, ‘건축’은 <표 2>에서, ‘유지’는 <표 3>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고, ‘특별’은 <표 3>의 맨 끝의 내역을 따로 적은 것이다.

출연 금액 총액이 많은 차례로 엮은 것은 광복 이전까지의 시사원들의 의연금 명세와 시사원 각자의 재정적인 기여도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출연 금액 상위 17위 안에 드는 이들이 낸 금액이 955원으로 의연금 총액의 85%에 가깝다. 그뿐만 아니라 역대 임원 명단과 대조해 보건대도 여기에 포함되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 시사가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초정 김성규는 초대 시사장(1920~1921)에다 신병으로 사양한 제2대를 빼고 제3대 시사장(1924~1929)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의연금 총액의 20%이상을 출연하고 있다. 그리고 윤하 김현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산정를 창건하면서는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온갖 노력을 다

한 이로 기록에 남아 있다.³¹⁾

이와는 달리 종래 유산정 창건을 주도한 이로 거명되어온 무정 정만조나 하정 여규형의 이름은 이들 세 차례의 의연금 명단의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 이것은 유산정 창건을 주동한 이로 무정이나 하정을 운위하는 것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 하겠다. 거개의 시사원들이 의연금을 내는 마당에 유독 이를 주동하는 인물이 빠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표 4>와 함께 앞에서 본 유산시사 창립 때와 유산정 창건 때의 임원 명단, 『목포시사 역대 사장급 임원 명부』 등을 대조하여 종합하건대, 광복 이전에 시사의 임원으로 시사 창립과 유산정 창건에 이바지하고 유산시사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이들을 그 기여도에 따라 차례로 들자면 김성규(목포), 김현서(목포)를 위시하여 최방현(목포), 한명리(진도), 백재옥(목포) 최우현(목포), 이상규(목포), 김상호(목포) 등이 있고, 그밖에도 김상대(진도), 김명준(평남 평원), 손병익(진도), 허준(진도), 김봉로(목포), 김상배(목포), 정언식(목포), 조면형(강진) 등을 들 수 있겠다.

3. 목포시사의 초창기 상황과 그 후의 위상

『유산사안』에는 1922년(임술) 9월 상순에 시사장이던 조면형이 쓴 서문 다음으로 규약이 나온다. 규약은 모두 16개항이다.³²⁾ 그 다음은 좌목(座目)으로 박윤동(朴允東)을 비롯하여 114명을 같은 필치로 그 연령순에 따라 적었다. 그 이하는 고르지 않은 글씨체로 222명을 적어, 모두 336명의 명단과 함께 그 본관, 호, 출생년도, 거소(居所)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목포읍사사안』을 보자. 그 제목으로 미루어 목포시사의 이름으로 발족한 1961년 이후

31) 「유산시사원운하거사김공현서창적서」, “1932년(임신) 겨울에 공사를 시작하니 온갖 일을 현서공 몸소 홀로 힘쓰며 집안일도 포기하고 풍설을 무릅쓰며 석 달 동안 오직 한마음으로 건축 공사를 감독하여 공사를 끝마치었다. …… 무력산인 전주인 이회문이 쓰다.(於壬申冬凡百事務躬獨賢勞拋家事冒風雪一心董工三閱月而功告訖. …… 無曆山人 全州 李晦文 書).”

32) 그 중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내용은 의미가 통할 정도로만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히 줄이고 용어는 지금의 어휘로 고쳤다.
1. 시나 글을 하는 벗이 모여 결사하니 이름하여 유산사(儒山社)라 한다.
2. 본사 자금은 시사원들이 최하 5원씩 낸 돈으로 한다.
3. 본 시사는 목포에 둔다.
4. 모이는 날짜는 3월 3일과 9월 9일이다.
5.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2인), (총무 1인), 재무 1인, 간사 2인(약간), 평의원 3인(약간)으로 한다. 그리고는 재무의 자격 요건을 재정적 보증이 되도록 상세히 기술해 놓았다. 이하 6 생략. ※여기서 괄호 안은 훗날 덧붙여 쓴 듯 따로 작은 글씨로 써어 있다.
7. 시사원 중에 저술을 하였을 때는 본 시사에서 출간(出刊)한다. 8. 생략.
9. 시사 가입을 원하는 이는 현재의 시사 자금 총액을 시사원 수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10. 시사원의 부모나 조부모상에는 금 1원을 부의하고 문상한다. 11. 12. 생략.
13.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이하 14항부터는 1932(임신)년 9월 9일에 새로 덧붙인 것으로 되어 있다. 14. 15. 생략.)
16. ‘품행을 상실한 자는 물러나게 한다.’라고 하고 그 요건으로, 가) 부모에게 불효한 자. 나) 어른에게 불순(不順)한 자. 다) 시사의 이름을 더럽힌 자. 라) 나쁜 죄목에 지목된 자. 마) 시사의 재물이나 시사원의 재물을 사취한 자라 적시했다.

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문이나 규약 등은 생략하고 바로 최방현(崔芳鉉)을 위시하여 시사원 254명의 명단만을 유산사안과 같은 체제로 수록하였다. 그 내용도 초창기 시사원으로 선화(仙化)했을 듯한 연만한 이들은 빠졌다. 그 대신 보인계안에 들어있는 인사들의 면면이 올라 있다.

그 밖에 목포시사의 지난날을 헤아릴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는 『목포풍아집』과 『목포시사원명단 일람』이 있다.

이제까지 살핀 바를 간추리면 『초정집』에 ‘시 동인(詩同人)들의 단체’를 의미하는 ‘시사(詩社)’라는 용어나 ‘목포백전회’라는 어휘를 1910년대 중반부터 쓴 것으로 보아 현 목포시사의 전신인 유산시사는 유산시사라는 명칭으로 창립되기 이전에 벌써 몇몇 이 고장 문사들 사이에 ‘목포백전회’라는 이름으로 시회를 가졌던 태동의 시기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다가 1920년 4월 29일에는 초정 김성규를 초대 시사장으로 추대하고 정식으로 ‘유산시사’라는 이름으로 창립 발족하였다.

그 사정인 ‘유산정’은 시사 창립 12년 뒤인 1932년에야 제 4대 시사장이던 운하 김현서의 주도 아래 초정을 비롯한 많은 시사원들³³⁾의 의연금을 재정적 기반으로 그해 겨울에 착공하여 석 달 뒤인 1933년 봄에 준공하였다. 이때 「유산정상량문」은 무정 정만조가 지었다. 그 낙성식은 1933년 음력 3월 3일에 가졌다.

그 뒤 1961년 가을에는 그에 앞서는 1939년에 창립한, 목포의 또 다른 시사인 ‘보인시사’와 통합하면서 ‘목포시사’라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초정집』, 『유산사안』, 『목포읍사사안』, 『목포풍아집』 등을 비롯하여 목포시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느낀 바는 적어도 창립 초기부터 1960~1970년대까지의 목포시사를 당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지금의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역대 구성원의 면면으로 보거나 그 밖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목포시사는 초창기와 같은 문사들의 단순한 결사나 그 모이는 장소인 한낱 사정임을 넘어, 이 고장과 끈이 닿아 있는 시객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식인들이나 이름 있는 이들의 소통의 장이요, 조선 시대의 향교나 서원에 진배없는 위상으로 이 고장의 유학(儒學)을 이끄는 아우러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것이 목포 시사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보건대 초창기 목포시사 구성원인 진도의 강재 박진원(康齋朴晉遠)³⁴⁾을 비롯하여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이 나라 서남권을 망라한, 이름 있는 문사들은 말할 것도

33) 유산시사의 ‘창립’과 유산정 ‘건축’의연금을 낸 이는 모두 38명이다.

34) 본관은 밀양, 자(字)는 일삼(日三), 호는 혜사(蕙史), 생몰년은 1860~1932년, 충정공 박심문의 일족으로 덕망이 높고 지조 있는 선비로 알

없고, 초정 김성규(무안향감리), 척재 한치유(무안부윤), 혁암 윤길중(무안군수), 청와 이원창(무안군수), 석호 하동현(목포시장), 석계 송성룡(목포시장)과 같은 이 고장 당대의 전·현직 행정 수장들, 미산 허형, 남농 허건 부자와 소전 손재형과 같은 국내 굴지의 서화가들, 무정 정만조, 우당 윤희구, 추정 황굴성과 같은 당대 중앙의 쟁쟁한 문사 겸 서가들, 조금 내려와서는 청오 정중섭, 석정 김문옥, 우촌 김대중과 같은 국회의원들의 한시 작품과 이름이 올라 있는가 하면, 현대 시인으로는 권일송(權逸松)의 시 작품을 비롯한 작품들도 실려 있다.

그리고 목포시사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목포에 조성된 것으로 우리 것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유형 문화 유산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창작되어 나온 수많은 시문은 그 밖의 예술 분야 창작물과 함께 목포를 전통적으로 명실상부한 예향(藝鄕)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손색이 없는 객관적 자료요, 굳건하고 든든한 기반이라 하겠다.

오홍일 |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려져 있다. 그가 살았던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오리정에는 후학들이 세운 학행비가 서있다. 중앙의 시회에서 장원하기도 하고 진도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진도 박문규 증언). 무정의 진도 적거(適居) 시의 시집 『은파유필(恩波濡筆)』에 따르면 귀양 간 무정을 맨 먼저 찾아갔고 적거 기간 동안 가장 막역하게 지냈다. 무정이 새로 강재(康齋)라는 호를 지어준 것으로 전한다. 『유산음사안』에 따르면 유산음사 창립 시사원이다. 그의 유고인 『혜사시집(惠史詩集)』도 전한다. 그 시에 따르면 하정 여규형(荷亭 呂圭亨)과도 교유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장자 중혁(1901~1943)은 광주 송일중 재학 시 3·1운동에 가담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복역 중 고문으로 타게했다. 1977년 독립유공자로 건국포장을 받았다. 『혜사시집』; 『은파유필』; 『유산음사안』; 『진도향교지』(진도향교지편찬위원회, 1988); 박병술, 『(역사속의) 진도와 진도 사람』, 학연문화사, 1999, 352~357쪽; 장선희, 『목포시사연구 -근대 후기 한문학 활동의 일단면-』, 『한국언어문학』45, 한국언어학회, 2000, 237~239쪽.

제4절 목포의 물 사정과 해결을 위한 노력⁰¹⁾

1. 지금 목포는

2016년 현재, 목포는 상수도 보급률 99.8%, 시설용량 12만㎥, 1인당 급수량은 348ℓ이다. 목포시 상수도는 2개 광역댐인 주암댐과 장흥댐에서 용수를 공급 받고 있다. 주암호 계통은 1일 6만톤의 원수를 공급받아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몽탄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한 후 상동 및 원도심 일원에 공급한다. 장흥댐 계통은 정수된 물 1일 3만톤을 옥암과 대양 배수지를 통해 하당과 옥암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급수계통도는 <그림 1>과 같다.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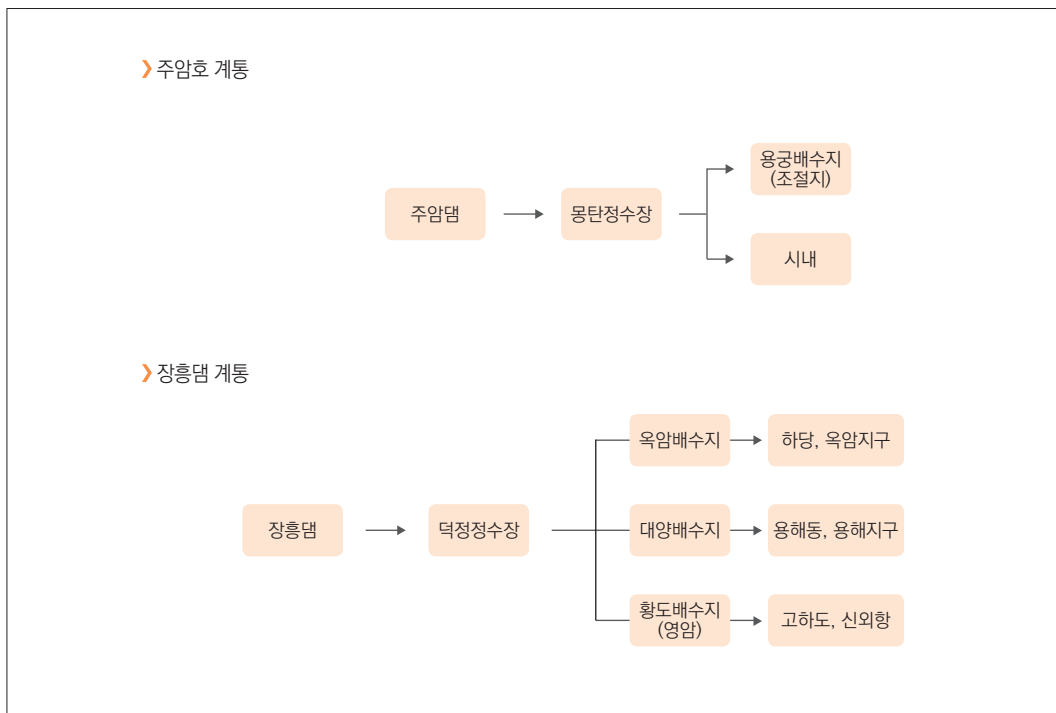


그림 1 목포시 급수계통도(2016년 기준)

01) 이 글은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서울대 출판부, 2004) 중 「제9장 물과 도시생활 -제1수원지에서 주암댐까지」를 주로 참조하여 간추리고 일부 보완하였다.

02) 『광주매일신문』 2017. 01. 10. 「목포 상수도 효율적 관리 총력 / 20년 이상 노후 배수관로 지속적 교체 시행 /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 식수난 해소 기대」.

유달동 달리도, 울도, 외달도 등의 도서 지역은 자체 정수 처리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도서 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공사를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식수난이 해소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⁰³⁾

한때 ‘목포 수도로 전국 최고’, ‘전국에서 수돗물값이 가장 비싼 목포’, ‘가장 더러운 물을 가장 비싸게 사먹는 목포’ 등등의 신문 머리기사들이 말해주듯이 목포의 물사정은 악명이 높았다. 그러던 것이 그야말로 팔목상대할 정도로 달라졌다. 수돗물값을 보면, 현재 가정용 1단계 1톤당 520원이다. 전국 평균은 526.2원이니 목포의 수돗물값은 어느 틈엔가 전국 평균값으로 떨어졌다. 경북 봉화가 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양구가 180원으로 가장 낮았다.

“내 생전에 물 걱정 없는 날을 볼 수 있을까?”⁰⁴⁾ 라는 넋두리가 낫설지 않았던 목포의 물사정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2. 태생적 한계



그림 2 「유학정인호시혜불망비」 전경. 지금은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우물 옆으로 옮겨졌다.

1897년 개항을 계기로 목포는 근대도시로 출발하였다. 유달산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비탈에 터전을 마련하였는데 ‘이 산은 석골(石骨)이 노출된 험한 산으로서 그 암석의 안 보이는 부분도 외피(外皮)의 두께가 5, 6척의 흙으로만 덮여 있어’ 물을 품을 수 없었고,⁰⁵⁾ 그 후 늘어난 도시 공간의 대부분은 갯벌을 메워 매립하였기 때문에 애당초 우물을 팔 수 없었다. 이처럼 목포는 태어날 때부터 물 부족이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물 위에 세워진 물의 도시이면서 역설적으로 물이 귀한 도시’가 되고 말았다.

서산초등학교에서 유달산으로 넘어가는 언덕길(일명 아리랑고개) 중간쯤에는 목포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독특한 비가 하나 있다. 1922년 5월에 세워진 「유학정인호시혜불망비(幼學鄭麟浩施惠不忘碑)」이다. 이 비가 각별한 이유는 그 시혜

03) 위와 같음.

04) 『조선일보』 1994. 01. 18. 「물품도 사라진 5급수 “지옥천” / 영산강 오염 주범 광주 극락천 …… / 상수도원 의존 목포시민들 “언제나 물 걱정”」.

0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중 「출장원 전각공작(前間恭作)의 복명서」(1896. 11. 11.).

의 내용 때문이다.⁰⁶⁾ 즉 정인호가 천금의 돈을 출연하여 우물을 파서 물 없는 마을에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그 덕을 기리고자 비를 세웠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물이 귀했다는 뜻이다. 이 우물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이 일에 자극 받았음인지 같은 해 10월에 목포부 죽동의 실권가(實權家) 차성술(車成述)씨가 자기 소유의 창평정(昌平町) 17번지 약 4평가량의 토지(시가 120원)와 돈 15원을 기부하여 굴정(掘井) 비용에 충당하게 하였다.⁰⁷⁾ 우물 파는 일이 유지들의 주요 자선 사업의 하나였던 셈이다.

북교동 성당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난 샛길로 들어가면 1928년에 세운 「전주사최공여장송덕비(前主事崔公汝章頌德碑)」(달성길 74번길 6-1 소재)가 있다. 이 비 역시 우물터를 제공해 백여 호가 혜택을 본 데 대한 내용을 적고 있다.

목포에는 “물지게 한 번 안 저본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물을 얻기 위한 고통은 목포의 일상이었다.⁰⁸⁾ 샘이나 우물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큰샘이니 쌍샘이니 짓샘이니 하는 것들이 있었고, 정토사 경내 등에도 있었다고 전해온다. 하지만 이는 그저 상징적일 뿐 급수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3. 제1수원지에서 제5수원지까지

자연에서 얻는 물은 그야말로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목포가 개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물 부족의 해결이었다.

수도의 부설은 부산이 처음이지만, 목포는 1909년 준공하여 1910년 5월 통수하였고⁰⁹⁾ 평양은 1910년 7월에, 인천은 같은 해 12월 1일에 급수를 개시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목포는 해항(海港) 중에서는 두 번째로 빨랐다. 근대의 위생 시설이



그림 3 한굴(한굴, 汗洞坪)이라 불리는 대박산 골짜기를 막아 만든 제1수원지

06) 시혜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唯公治井 渴水源長 捐千金額 護一里方 旱亭甘雨 陰谷太陽 頌德銘石 芳名遠揚”.

07) 『동아일보』 1922. 10. 24. 「차성술씨호의(車成述氏好意)」.

08) 이러한 목포 물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천사처럼 고운 마음으로 물지게를 지어 나르던, 그러나 조금 모자란 듯한 아낙, 옥단이의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온다. 그 전설은 목포 출신의 대표적 극작가 차범석이 극본 「옥단어!」로 만들어 2003년 12월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무대에 올랐다.

09) 『목포부사』(1930, 목포부), 173쪽; 『순종실록』 권2, 1908년(순종 1) 10월 22일에 따르면, 내각에서 탁지부의 청의(請議)로 인하여 목포의 수도 보조 대부금 6,000원을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하는 사안에 대해 상의를 거쳐 상주(上奏)하여 재가(裁可)를 받았다.

빨리 들어왔다는 점은 언뜻 좋아 보이지만 이는 그만큼 물 사정이 나빴다는 증거도 되기 때문에 좋기만 한 일은 아니었다.

자연 그대로의 물이 턱없이 부족했던 목포에서 도시라는 기본꼴을 만들기 위하여 최소한의 물을 시급히 확보하여야 하였다. 수원을 만들고 이를 배급하는 상수도 시설은 개항 직후부터 요청된 긴급사안이었다. 그러나 목포는 지형상 경제성 있는 수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재정이나 기술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여의치 않았다.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늘 늦장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뒤쫓아가 해방될 때까지 다섯 개의 수원지를 지었다. 그 사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목포시 수원지 개발 이전

구분 수원지	위 치	급수개시일	시설용량*(m ³ /일)	거리(km)	비 고
제1수원지	목포시 상동 대박산	1910. 05.	877	6.5	1976. 01. 폐쇄
제2수원지	목포시 온금동 유달산록	1910. 05.	20	0	폐쇄
제3수원지	무안군 삼향면 국사봉	1916. 10.	1,670	13	1982. 6. 폐쇄
제4수원지	무안군 삼향면 국사봉	1928. 03.			1982. 6. 폐쇄
제5수원지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1937. 06.	11,320	32.5	보조수원(호소수)

주: * 시설용량은 폐쇄 직전 상황이다.

물 부족으로 인한 급수 제한은 목포 개항 이래 다반사였다.¹⁰⁾ 하늘만 바라보던 수원 때문에 가뭄만 들면 여지없이 제한 급수였다. 그러던 중에도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수원 확보가 뒤따르지 못하던 때가 심했다. 즉 제4수원지 완공 전의 1920년대 초반, 제5수원지 완공 전의 1930년 전후가 특히 심했다.

이런 물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초미(焦眉)의 극에 달한 바’¹¹⁾있었고 이런 고통은 마침내 목포의 인심까지 변하게 하였다. ‘식수난에 처하여 적지 않은 곤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심까지 극도로 변하여 끼니마다 물통으로 장사진을 지어놓고 반나절의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한 동이의 물을 얻고자 남녀노소가 혼잡하여 싸우는 광경은 마치 일대 민란을 보는 듯’하다고 할 정도였다.

물은 가난한 조선인 가정주부의 문제였다. 그리 크지 않은 목포 시내에서 매일 계속되는 물 전쟁은

10) 『매일신보』 1922. 07. 27. 「목포급수제한 25일(木浦給水制限 二十五日)부터」.

11) 『동아일보』 1922. 10. 14. 「급수권교부실시(給水券交附實施)」.

물이 메마른 만큼이나 목포의 인심을 메마르게 했다.¹²⁾ 특히 ‘하루 벌어서 그 날을 연명하여가는 가난한 가정부인들’¹³⁾의 인심을 메마르게 했다.

4. 영산강을 거슬러 나주로

일제강점기 동안 5개의 수원지를 만들었지만 모두가 소규모의 저수지들이었다. 목포는 지형상 이런 저수지 물 외에는 다른 물이 없었다. 따라서 급수 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이런 사정은 해방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수도의 혜택을 볼 수 없었던 가난한 가정주부에게 물은 여전히 힘든 일이었다. ‘전 시내 각처에서는 물 구득에 하루 종일 부인네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었다.¹⁴⁾

수도 있는 집을 얻는 것은 1950년대 목포 시민들의 꿈이었다. 물 때문에 병든 여인들은 “아이고 어찌든지 수도 있는 집 얻어야 저 것을 살리겠네.”라는 말을 듣곤 했었다. 수도는 물을 길는 고달픔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문제였다.¹⁵⁾ “고마운 일이다. 물이라도 푼해서.” 이 말은 부엌과 목욕통에 수도가 들썩 있는 적산가옥에 살던 조희관이 앞 길가의 판잣집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있음을 고마워서 하는 말이었다.¹⁶⁾

이렇듯 물 문제가 심각해도 목포 근처에서는 더 이상 수원지를 만들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다. 물을 찾아 영산강을 거슬러 나주까지 올라가는 길뿐이었다. 그 거리는 경제성을 따지기에는 아무래도 먼 거리였다. 그렇지만 거리 때문에 물값이 비싸져도 영산강물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영산강물을 얻는 것도 결코 여의치 않았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1957년 5월 11일, 황룡강(黃龍江)에서 목포에 이르는 구경 160mm의 송수관 상수도 공사가 마침내 기공되었다. 목포시민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기공식은 용당동 목포사범학교(현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뒷산인 비내산(비녀산 또는 양을산) 기슭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 목포시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장벽을 부수고, 12만 시민의 물에 대한 슬픔을 해결하여 주는 공사였다. 1955년 초부터 시장 하동현(河東鉉)과 초대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과 동시에 중앙당국을 비롯한 OEC당국과의 절충이 거듭되었다. 또 한 그 당시 목포천주교신부였던 핸리 주교의 중간 역할 등에 힘입어 서광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12) 『동아일보』 1929. 11. 18. 「목포급수난(木浦食水難)」.

13) 『동아일보』 1930. 02. 19. 「목포(木浦)에 수기근(水飢饉)」.

14) 『전남일보』 1955. 03. 27. 「목포시 식수난(食水難)」.

15) 조희관, 「철없는 사람」(1954년경), 『소청 조희관 -문학과 인간-』, 동아인재대학 남도문화관광진흥센터, 2000, 83쪽.

16) 같은 책 중 「물 선물」, 24쪽.



그림 4 1957년 5월 11일 목포사범학교(현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뒷산 비내산 기슭에서 있었던 상수도 확장공사 기공식

기공을 알리는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 「무산(霧散)될 목포 시민의 식수 타령」이었다. 그야말로 개항 이래 반백년을 외치던 ‘식수 타령’이 이 공사로 큰 고비를 넘어 아침 햇살에 안개 거치듯 사라지리라는 뜻이었다. 그리하여 이 공사는 ‘앞날의 목포시 발전사에 찬란한 한 ‘페-지’를 장식한’ 기공식이라고 기록되었다.¹⁷⁾

이는 수원지인 나주에서 목포에 이르는 160리 거리를 연결하는 대역사였다. 그만큼 목포 시민들에게는 감격스런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목포는 이로써 도시 성장의 기본 조건 중 하나를 갖추는 셈이었다. 인수 공사는 1964년 11월에 54km의 송수관로를 완공하여 영산강 나주교 지점 삼도리 취수장에서 20,000m³/일을 취수, 급수하기 시작하였다.

물의 총량이 해결되었다고 물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여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먼저 배수관도 부족했고, 48%에 이르는 누수율도 문제였다. 이는 성수기인 여름철 가수요가 겹치면 “상수도 수원 절대량 부족”이란 말을 다시 되뇌게 한다.¹⁸⁾ 물 소동은 계속되었다.

또 전기도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잦았다. 이는 물이 있어도 이를 전달할 수 없는 일이 잦아졌다는 뜻이다. 상수도 보급률도 낮았다. 1990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이 74% 선이었는데, 전남은 33%에 그쳤다.¹⁹⁾

17) 위와 같음.

18) 『전남매일신문』 1975. 08. 07. 「上水道 水源 절대량 不足/ 漏水率 무려 48%」.

19) 『조선일보』 1990. 10. 02. 「상수도 보급률 저조 / 충남-전남 32%선 그쳐 / 전국 평균은 74%」.

그래서 ‘목포 식수난’은 뜻밖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수원이 먼만큼 그에 따른 추가부담 또한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래저래 목포의 물은 문제였다. 그래도 절대량이 부족하던 때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5. 보성강의 주암댐까지

영산강 물을 끌어들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수질의 문제였고 환경의 문제였다. 이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가 또다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뜻하였다.

영산강 상류에 있는 광주시의 도시 하수가 주 오염원으로 갈수기의 수질 악화는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나주 계통의 수질이 극히 악화되어 취수할 수 없을 정도가 되거나 송수관 사고가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예비 수원으로 제5수원지 계통을 10,000m³/일로 확장하였다. 또 대동계 계통의 상수도 확장 사업을 1981년 말에 완공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영산강의 수질 악화로 인한 수량의 부족을 대체하기 위하여 1978년에는 취수원을 영산강 삼도리 취수 지점에서 약 13km 떨어진 나주호(농지 개량 조합 소유)로 이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영산강이었다.²⁰⁾ 영산강은 흔히 ‘뚜껑을 덮지 않은 하수구’,²¹⁾ ‘강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하수구’²²⁾라 불렸다. 우리나라 4대강 중 오염이 가장 심한 강이었다.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주범들은 생활 하수, 농약, 축산물 오수 등이었다. 특히 1994년 4월에는 영산강 수계의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수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수도물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²³⁾ 영산강의 오염은 곧 목포의 단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였다.

1991년 3월경 영산호 수질을 분석한 환경처 관계자는 아예 ‘식수사용 불가’로 판정하였다. 3급수 기준을 넘어서 4급수로 떨어져서 결국 영산강물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목포 시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영산강물을 식수로 마시라는 것은 간접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처럼 목포의 수질은 전국에서도 최악이었다.

수도요금은 수원으로부터의 거리, 관로의 길이, 약품처리 정도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20) 『조선일보』 1991. 03. 23. 「4대강 수계 이상 있다 / 병드는 4천만 젖줄 국민들 마실 물 공포, 영산강은 이미 사망 판정」.

21) 『물 맑으면 마음 맑다 -환경운동가 서한태 박사 고회 기념 이야기 모음집』(디자인 내일, 1997), 80쪽. 이하 환경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이 책을 주로 참고하였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각주를 달지 않았다.

22) 『조선일보』 1994. 04. 21. 「오염 사고 자연탓만 한다 추궁 / 영산강 사태 국회보사위 / “목포시민 95%가 수도물 이미 안 마셔”」.

23) 『조선일보』 1994. 04. 16. 「영산강 취수 중단 / 수질 급속 악화 / 목포 지역 격일제 비상 급수」.

수질 자체가 떨어져 정수 비용 등이 가중된 데다 상수도 시설에 든 빚을 갚느라 목포 수돗물값은 톤당 47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²⁴⁾ 전국 평균 수도 요금이 188원이었고, 경북 구미는 99원, 서울은 161원에 지나지 않았다.²⁵⁾ 1995년도에는 343원으로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비싼 곳이었다.²⁶⁾

영산강 물은 양의 풍부함은 주었지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수질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수질 문제는 갈수기 때마다 문제가 되긴 했지만, 영산강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수질 그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목포의 물 문제는 양에서 질로 근본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다. 영산강의 물을 절대량 해소의 수단으로 삼는 한 수질은 항상 목포를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영산강의 환경을 지키는 일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또 다른 연속이었다. 따라서 영산강을 거슬러 물을 찾아 나섰던 목포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영산강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 싸움은 우리나라에서는 선구적인 환경 운동이었다. 그러나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통해 식수화하는 길은 멀기만 했다.

이제 그 질의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길은 영산강이 아닌 또 다른 취수원을 찾는 것이었다. 섬진강 지류인 보성강을 막아 만든 주암댐이 그 근본적인 대안이었다. 1991년 2월, 전남도의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에서는 목포시를 비롯한 서남 지역의 용수난 확보를 위해 광주-나주지역까지 포괄하고 있는 주암댐의 생활용수 공급 계획을 목포권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새로운 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²⁷⁾

주암댐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에 축조된 다목적 댐이다. 본 댐 길이 330m, 높이 57m, 저수량 4억 5700만톤이며, 유역면적은 1,010㎢이다. 1984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1년 5월에 완공하였다. 댐은 보성강 하류인 순천시 주암면 대곡리(大谷里)와 구산리(九山里) 사이 협곡을 막아 넓은 승주호(昇州湖)를 만들었다. 주암댐이 완공되자 화순 터널에서 몽탄 정수장까지 80km의 관로를 묻어 하루 20만톤씩 목포에 공급하는 새로운 취수 계획을 추진하였다.²⁸⁾ 사업비 문제 등으로 난산 끝에 마무리되어 1996년 1월에 겨우 통수를 개시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주암댐이 완공되었고 1996년에 통수를 개시하였다. 목포도 그 주암댐의 물을 얻어먹을 수 있게 되었다. 주암댐이 통수를 시작하는 1996년을 전후한 목포시 급수현황의 변화를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24) 『조선일보』 1991. 03. 23. 「4대강 오염 긴급 진단」.

25) 『조선일보』 1991. 11. 15. 「한 사람 수돗물 사용 맥주 577병 분량 / 작년 건설부 상수도 통계」.

26) 『조선일보』 1995. 12. 08. 「목포 수도료 전국 최고 / 영산강-낙동강 하류 비싸 / 환경부 올해 통계」.

27) 『조선일보』 1991. 02. 06. 「호남선 복선사업 조기 착공 검토 / 목포-광양 서해안 중심항으로 / 노 대통령, 전남도 순시」.

28) 『조선일보』 1991. 03. 23. 「4대강 오염 긴급 진단」.

표 2 목포시 급수현황(1995~1999)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총인구(명)	239,571	245,471	250,178	248,950	246,741
급수인구(명)	233,632	241,951	247,653	247,855	245,646
보급율(%)	97.5	98.6	99	99.6	99.6
시설용량(m ³ /일)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급수량(m ³ /일)	89,715	93,357	104,145	115,815	111,408
1일1인당급수량(ℓ)	384	386	386	453	453

당시 목포시 상수도 사업소의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시 정수장 및 수도꼭지의 수질 검사 결과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합니다. 1996년부터 순수 주암호 물로 생산한 우리시 수도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이 구호처럼 써 있었다. 그리고 정수장의 수도물 수질에 대한 검사 결과도 당당하게 밝히면서 수질 기준에 적합함을 과시하였다.

‘순수 주암호 물!’ 이제 목포는 양과 질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다 잡은 셈이다. 다만 그때까지도 수도물값은 여전히 비쌌다.

6. 탐진강의 장흥댐까지

정부에서는 상수원의 확보를 위해 추가 댐 건설 및 광역 상수도 계획을 여러 차례 공개하였다. 그 안에 1995~2001년 사이 전남 장흥 탐진댐(후에 장흥댐으로 명칭 변경)과 전북 순창 적성댐, 강원도 영월댐 등 3개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이 들어 있었다.²⁹⁾ 1997년 6월 5일, 건설교통부는 현재 건설 중인 탐진댐으로부터 하루 35만톤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남 남부권의 광역 상수도 사업에 대한 조사 설계를 이달 중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목포와 완도·영암·해남·장흥 등 전남 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사는 1999년 시작되며 2001년 탐진댐 완공시기에 맞춰 가동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³⁰⁾

전남 남부 지역의 광역 상수도가 완공되어 가동에 들어가면 상습적인 가뭄 피해를 겪어온 이들 지역에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가뭄 때의 제한 급수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공단 개발 등 지역 발전 사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실제로 1997년 착공한 장흥다목적댐 건설 사업이 2006년 6월, 10년의 대역사 끝에 완공되었다. 장흥댐은 목포·장흥·강진 등 전남 서남부 지역 9개 시·군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탐진강 하류 지역

29) 『조선일보』 1994. 01. 16. 「상수원 대책 새로운 것 없어 / 건설부 대응책 / 주암댐 1단계 광역상수도 2개월 앞당겨」.

30) 『조선일보』 1997. 06. 06. 「전남남부 광역상수도 / 이달 설계 착수」.

의 홍수 방지를 위해 6,679억 원을 들여 높이 53m, 길이 403m 규모로 건설되었다.³¹⁾

목포시는 2006년 9월 29일부터 장흥댐 물을 공급받았다. 장흥댐의 물은 주암댐보다 질적으로도 더 좋고 거리도 더 가까웠다. 그 장흥댐의 물이 이제 비싼 수도물값까지도 해소해 주었다. 이로써 목포의 고질적인 물 문제는 사실상 해결되었다.

이에 목포시 상수도 사업 본부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할 장흥 지역 오지 마을과 자매결연, 농산물 구입 등을 통해 보답하기로 했다. 장흥댐 건설로 정든 마을이 수몰되는 등 아픔을 겪고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³²⁾ 2008년에는 장흥댐 광역 상수도과 주암댐 계통 상수도 간 비상 연계 관로 구축 공사를 완공하여 단수 때도 일부 고지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³³⁾

해방 이후 목포 상수도 개발의 연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목포시 상수도 개발 연혁(2016년 현재)

수원지	구분	위 치	급수개시일	시설용량* (m ³ /일)	거리 (km)	비 고
나주 계통		나주시 삼도동	1964. 11.	20,000	54	폐쇄
나주호계통		나주시 봉황면 송연리	1978. 11.	30,000	67	폐쇄
대동 수원지		함평군 용성리	1981. 10.	35,000	32.5	2006. 09. 가동 중지 2013. 09. 함평군에 매각 (호소수)
영산호 청수취수장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1987. 07.	132,000	18.6	1996년 이후 비상급수원
주암댐		순천시 주암면	1996. 01.	120,000	113.6	광역 상수도(호소수)
장흥댐		장흥군 부산면	2006. 09.	25,600	65.7	전남 남부권 광역 상수도

주: * 시설 용량은 폐쇄 직전 또는 최근의 상황이다.

UN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수자원의 질과 양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세계 8위였다. 이를 우리들은 예상 밖의 결과로 받아들였다.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짧은 기간에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해 온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환경 보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는 풍족해서 함부로 쓸 때 ‘물 쓰듯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물이 흔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 물 부족은 아니지만, 물 부족으로 압박받는 37개의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

31) 『조선일보』 2006. 06. 08. 「장흥다목적댐 10년 대역사 마무리」.

32) 『조선일보』 2006. 09. 14. 「“깨끗한 물 보내준 주민께 감사” 목포시, 장흥댐 인근 마을과 결연」.

33) 『조선일보』 2008. 10. 28. 「목포 수도물 내달 5~6일 급수 중단」.

‘물 쓰듯 한다’는 말도 옛말이 되어버렸다. 누군가는 ‘물을 향수 쓰듯이 아껴 쓰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도 하였다.³⁴⁾

주암댐과 장흥댐의 물 공급 이후 목포는 ‘물 기근 도시’가 아니라 ‘물 낭비 도시’가 되어 버렸다. 1999년 당시 1인당 수도물 사용량이 453ℓ에 이르렀다. 다행이도 그 후 줄어들어 2016년 현재 348ℓ 정도에 이르렀다. 전국 평균 335ℓ 보다 여전히 많다. 특히 스페인(176ℓ), 네덜란드(151ℓ), 독일(150ℓ), 벨기에(109ℓ), 오스트리아(135ℓ) 등등의 국가에 비한다면 우리나라는 두 배에 이르는 양을 사용하고 있다. ‘물지게 한 번 안 져 본 사람이 없다’던 1960년대에 살던 목포의 시민들의 물 사정을 생각하면서 물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을 때이다. 물 때문에 각박했던 인심도 함께 풀어나갈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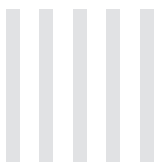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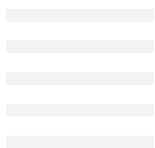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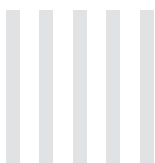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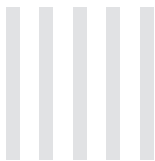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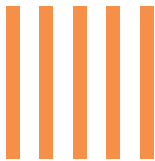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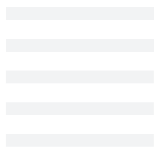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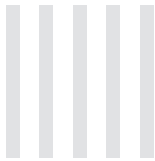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고석규 |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34) 『조선일보』 2003. 03. 10. 「[내 생각은] ‘수자원 세계8위’ 빛과 그림자」.



제5편

목포의 문화유산



제1절 개관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2절 선사 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3절 수군진 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4절 근대 문화 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5절 일제강점기 수탈 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6절 종교 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7절 자연환경 유적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제1장 역사 유적

| 일러두기 |

- 문화유산의 구분은 목포의 특성에 맞게 성격별로 구분함.
- 일제강점기는 식민지 지배와 관련 된 수탈 유적 중심으로 수록.
- 근대 생활사 유적은 목포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한국인 유적을 중심으로 수록함.
- 기념비는 1950년 6·25전쟁 이전에 건립된 유적까지를 수록.
- 조성 연대가 6·25전쟁 이후라도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념물은 포함.
- 건축 유적은 건축 편에서 별도로 서술되어 중복을 피함.
- 비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은 원문(한자)을 먼저 표기하고 ‘()’에 독음을 표시함.
- 기념비의 명칭은 인명과 비의 성격을 제시하여 작성. 예) 정병조 영세불망비
- 지정 명칭이 있는 경우는 지정된 명칭에 따름. 예) 만호 방대령 선정비
- 무형 문화재와 근대 건축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됨.
- 본고 설명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목포대 박물관·목포시, 『목포시의 문화유적』, 1995.
 - 목포대 박물관·목포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목포시』, 2007.
 - 목포문화원, 『목포 근현대 표상』, 2011.
 - 목포시문화유산위원회, 『목포시 문화유산 조사보고서』, 2012
 - 최성환 외, 『다시 보는 유달산』, 목포문화원, 1999.
 - 최성환 외, 『목포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 100선』, 목포시, 2009.
 - 최성환, 『목포의 심장, 목원동 이야기』, 목포시, 2016.
 - 최성환, 『고하도 문화유적 학술조사 보고서』, 목포시, 2016.
 - 김수진, 『지질·광물 문화재 자원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1.
 - 김보성 외, 「압해도 육식 공룡알 동지 화석 발굴 조사보고」, 『2010년도 한국고생물학회 추계 답사 학술자료집』, 한국고생물학회, 2010.
 - 김영희, 「금용 일섭(1900~1975)의 불상조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제1절 개관

목포는 무안반도 남단에 자리한 항구 도시이다. 동쪽에 입암산(121m), 서쪽에 유달산(228m), 북쪽에 양을산(156m)·대박산(156m)·지적봉(189m) 등이 있고, 남쪽은 영산강 하구에 면해 있다. 목포항 앞바다에는 고하도가 자연 방파제 구실을 하여 천연적인 양항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목포(木浦)’라는 지명 자체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목에 위치한 포구’라는 의미를 지닌 곳이다. 1439년에 목포진(木浦鎭)이 설치되어 수군의 요충지로 역사적 기능을 해왔고, 1897년에 국내에서 네 번째 통상항으로 문을 열면서 항구 도시로 발전해 왔다. 그러한 흐름에 맞게 다양한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

먼저 목포시 문화 유적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총 57종이다.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목포시 문화재 현황(2017년 12월 현재)

합계	국가지정						도지정					등록	시지정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무형	계	유형	무형	기념물	문화재자료	유형	유형(무)
57	4			1	2	1	13	3	4	3	3	12	28(1)

이 통계는 국가 지정, 도 지정, 등록 문화재 그리고 목포시 자체 조례로 만든 목포시 문화유산을 포함한 숫자이다. 이중 국가 지정 문화재는 <표 2>와 같이 총 4건이다.

표 2 목포시 국가지정 문화재 목록

번호	지정종별	문화재명	시대	수량	소재지	지정일자
1	사적 제289호	구 목포일본 영사관	근대	1동	영산로 29번길 6	1981. 09. 25.
2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장주원	-	-	노송길 32-5	1996. 02. 01.
3	천연기념물 제500호	목포 갯바위	-	-	용해동 산 86-24 인근	2009. 04. 27.
4	천연기념물 제535호	신안입해도 수각류 공룡알 동지화석	-	-	남농로 135(자연사박물관)	2012. 06. 27.

현재까지 목포시 관내에 국가 지정 국보와 보물은 없고, 국가 사적이 한 곳 있다. 1900년에 건립된 구 일본 영사관이다. 개항 이후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유산이지만, 한국근대사의 흐름과 목포 역사에서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을 보여주는 장소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광복 후 목포시청, 시립도서관 등으로 사용되면서 비록 일제강점기의 유산이지만 더 오랜 시기를 목포 시민들이 사용하고 가꿔온 근대건축물이기도 하다. 예항 목포를 대표하는 옥공예 장주원 명인이 중요 무형 문화재 100호로 지정되어 있다. 기존에는 승무와 살풀이 두 분야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5년 이매방 명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해지되었다. 천연기념물이 두 개나 지정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영산강 하구에 침식과 풍화 작용으로 형성된 갯바위, 한반도가 지형적으로 중국 대륙과 분리되기 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알 동지화석 등은 목포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다음은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황이다. 총 13건이 지정되어 있다. <표 3>과 같다. 유형 문화재 3건, 무형 문화재 4건, 기념물 3건, 문화재 자료 3건이다. 수군진 관련 유적,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형성된 근대유적, 판소리와 관련 된 무형 문화재가 주류이다.

표 3 목포시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현황

번호	지정종별	문화재명	시대	수량	소재지	지정일자
1	유형문화재 제39호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조선	비1기	달동 산 230-2번지	1974. 09.24.
2	유형문화재 제228호	달성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상	조선	1점	유달로 173	2000. 12. 13.
3	유형문화재 제229호	달성사 목조 지장보살반가상	조선	1점	유달로 173	2000. 12. 13.
4	무형문화재 제29-2호	판소리 인부덕(동편제「춘향가」)	-	-	영산로 676-7	2002. 04. 20.
5	무형문화재 제29-4호	판소리 박방금(판소리「수궁가」)	-	-	산정로 155	2008. 12. 26.
6	무형문화재 제29-5호	판소리 김순자(판소리「흥보가」)	-	-	동부로 18번길 8	2009. 03. 20.
7	무형문화재 제50호	조선장(심정후)	-	-	서산동 23	2013. 08. 05.
8	기념물 제10호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조선	비각1 삼문1	달동 산 230번지	1974. 09. 24.
9	기념물 제21호	목포시사	조선	1동	유달로 165	1975. 10. 11.
10	기념물 제174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근대	1동	번화로 16	1999. 11. 20.
11	자료 제137호	목포진지	조선	비 1기	만호동 1-56번지	1986. 11. 08.
12	자료 제138호	목포오포대	근대	1점	온금동 산 1번지	1986. 11. 08.
13	자료 제165호	이훈동 정원	근대	정원 1	유동로 63	1988. 03. 16.

정유재란 후 이순신이 고하도에 머물며 삼도수군을 통제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고하진성의 흔적이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이라는 이름으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고하도 시절 이순신의 활동상을 기록으로 기념하기 위해 1722년 건립한 기념비가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고하도 이순신 관

런 유적은 목포시 문화재 가운데 최초로 지정된 사례이며, 목포항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더불어 수군진이 설치되어 있었던 ‘목포진지’가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식민지 시설의 유적 중에는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건물, 시간을 알리는 대포로 사용된 ‘오포대’, 일본인 우찌다니 만베이가 살았던 정원, 목포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교류하던 ‘목포시사’가 지정되어 있다. 개항 이후 유달산 자락에는 여러 불교 사찰들이 형성되었는데 그중 1915년에 창건된 달성사에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목조지장보살반가상’과 ‘목조아미타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다. 둘 다 조성 연대가 분명하게 밝혀진 불교 유적으로서 가치가 높고 특히 ‘목조지장보살반가상’의 경우는 임진왜란 이전인 1565년에 조성되었으며, 시왕상과 권속, 판관이 일괄 보존되어 있어 국가 지정 보물로 승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요한 유적이다. 목포는 예향(禮鄕)의 원조이며, 특히 남도의 상징인 판소리 명창을 많이 배출한 곳이다. 판소리와 관련하여 안부덕, 박방금, 김순자 세분의 명창이 전라남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항구 도시이자 수많은 도서와 연결되는 중심도시답게 전통 배를 만드는 장인(심정후)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은 등록 문화재 부분이다. 목포가 가장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 해당한다. 등록 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의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건조물·시설물·문학예술 작품·생활문화 자산·산업·과학·기술 분야·동산문화재·역사 유적 등이 주 대상이다. 주로 근대 건축물이 등록되어 있다. 목포시의 경우는 총 12건이 등록 문화재로 이름을 올렸다.

표 4 목포시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 현황

번호	지정종별	문화재명	수량	소재지	지정일자
1	제29호	호남은행 목포지점	1동	해안로 249번길 34	2002. 05. 31.
2	제30호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1동	영산로 10번길 10	2002. 05. 31.
3	제43호	목포 구 청년회관	1동	차범석길 35번길 6-1	2002. 09. 13.
4	제62호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1동	삼일로 45	2003. 06. 30.
5	제114호	목포양동교회	1동	호남로 15	2004. 12. 31.
6	제239호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1동	송림로 41번길 11	2006. 03. 02.
7	제340호	구 동본원사목포병원	1동	영산로 75번길 5	2007. 07. 03.
8	제513호	목포천주교 구 교구청	1동	노송길 35	2012. 10. 17.
9	제588호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	1동, 1기	영산로 29번길 6	2014. 04. 29.
10	제640호	목포문태고등학교 본관	1동	용당로 138	2014. 10. 30.
11	제696호	목포 정광정혜원	1동	노적봉길 26	2017. 10. 23.
12	제707호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건물5동, 굴뚝3기, 설비물5기	해안로 57번길 24	2017. 12. 05.

목포시 문화재 중 등록 문화재가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1897년 목포 개항 이후 일제의 식민지 수탈항이라는 측면과 함께 근대문화의 전파가 가장 빠른 도시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개항 이후 항구 도시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근대 건축물들이 형성되었고, 원도심에 당시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걸어 다니는 근대 건축 박물관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는 곳이 ‘목포’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 관련 근대 건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본인 자녀들의 교육 시설이었던 공립심상고등소학교의 강당 건물, 목포대학의 뿌리인 목포사범학교 본관 건물, 일제강점기 설립된 문태학원 건물, 전남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인 정명여학교의 선교사 사택 건물 등이 남아 있다. 또한 목포는 개항 이후 은행 관련 근대 건물들이 많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아쉽게도 1990년대 후반에 대부분 철거되었는데, 현재는 조선인들의 은행이었던 호남은행 목포지점이 보존되어 있다. 목포에 남아 있는 등록 문화재 중 가장 의미 있는 건물 중 하나는 1925년 완공된 ‘목포청년회관’이다. 이 건물은 목포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자발적으로 건립한 목포 최초의 시민 회관 성격을 지녔고, 일제하 목포 민족 운동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사적지이다.

신흥 종교와 외래 종교 관련 건축물도 인상적이다. 전남 최초의 교회, 성당 관련 유적이 등록되어 있고, 1930년대 초반 석조로 지어진 일본 사찰 건물 동본원사 목포 별원도 보존되어 있다. 대부분 목조로 된 사찰 건물이 많은데 동본원사 목포 별원의 경우는 근대 건축을 상징하는 석조로 된 사찰이라는 점이 이색적이다. 이외에 일제가 패망 직전에 한국인 강제 징병자들을 동원해 만든 방공호 시설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목포부청 시절 조성한 방공호가 대표적인 유적이다.

다음은 목포시 자체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목포시 문화유산 관련이다. 목포시는 2001년 당시 강성희 목포시의원의 발의로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한 후 목포의 역사와 사회상을 반영한 시 문화유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향토성이 반영된 유적들이 중심을 이룬다. 현재 목포시 문화유산은 28건이다. 당초 30건이 지정되었는데 이 중 2건(문태고등학교 본관, 구 목포부청 서고)은 등록 문화재로 승격되었다. ‘목포시 문화유산’ 지정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목포시 문화유산 지정 현황

번호	명 칭	소재지	지정일자
1	수군절도사 신광익 선정비	만호동 1-56	2012. 05. 21.
2	만호 방대령 선정비	만호동 1-56	
3	유달산 산왕대성전터	죽교동 산 42-2 일원	
4	온금동 큰샘과 비군	온금동 209	
5	총순 구종명 영세 불망비	죽동 96-2	
6	고하도 조선 육지면 발상지비	달동 780	
7	유달산 마애불	죽교동 산 42-2 일원	
8	보광사 석조석가여래좌상과 짓샘	죽교동 280	2012. 05. 21.
9	유달산 마륵불 암각	죽교동 317-3	
10	경상도우회기념회장 암각	온금동 산 12-1	
11	이로면 임성시장 기념비	석현동 1176	
12	목포북교초등학교 오충석탑	수문로 83	
13	목포북교초등학교 느티나무	수문로 83	
14	목포 도룡지석묘군	석현동 896번지 일원	
15	목포 석현지석묘군 Ⅱ	석현동 430번지 일원	
16	옥암동 초당산 고분	옥암동 219 일원	
17	공생원 사무실	해안대로 28번길	
18	정광 정혜원	노적봉길 26	
19	약사사	목포진길 5-1	2013. 07. 08.
20	천주교 경동성당	해안로 165번길 33	
21	심복주 가옥	불종대길 15-4	
22	구 춘화당 한약방	영산로 59번길 35-6	
23	석장 손양동	녹색로 31	2014. 03. 26.
24	구 무안군청 서고	차범석길 35번길 9	
25	목포의 눈물 노래비	죽교동 산 44	2016. 07. 28.
26	마인게터 골목길	마인게터로 28, 38, 40번길	
27	보리마당 골목길	보리마당로 28-7·해안로 127번길 15-2	
28	77계단과 송도골목길	송도길 10, 12, 20번 길	

‘목포시 문화유산’은 선사 시대 유적부터 수군진 유적, 근대 사회상 관련 유적들이 망라되어 있다. 일반적인 지정 문화재에서 주목받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성이 강하고, 목포라는 도시의 사회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목포에도 고대부터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지석묘군도 두 곳과 고분 1기가 포함되어 있다. 목포진 만호와 수군절도사 관련 선정비는 개항 이전 수군진 시절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고하도에서 최초로 육지면 재배가 시작됨을 기념하기 위해 1936년 건립한 ‘고하도 조선육지면 발상지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항 이후 목포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조선인 관련 유적들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목포시 문화유산’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일제강점기 목포에 거주했던 경상도 출신들의 기념암각 등 목포 지역만의 독특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유적들도 많다. 비록 건립 연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1969년 유달산 자락에 조성된 ‘목포의 눈물 노래비’ 같은 경우도 상징성과 지역민의 애정이 담긴 유적으로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근대 시기 목포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대표 골목길 세 곳도 지정됨으로서 기존 문화재가 지닌 고정 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 되지 않은 유적들도 다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화 유적을 망라하여 대표적인 유적들을 수록하였다. 일반적인 분류법과는 다르게 목포시 문화유적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사 시대 유적’, ‘수군진 유적’, ‘개항 이후 형성된 근대 문화 유적’, ‘일제강점기 수탈 유적’, ‘유달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교와 종교 유적’, 그리고 ‘자연 환경과 관련된 유적’으로 크게 6개로 구분하였다. 무형 문화재와 근대 건축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선사유적의 경우 목포시 행정 구역이 과거 무안 땅의 일부 석현동, 옥암동 등이 포함됨에 따라 지석묘와 고분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인 갯바위 일대에는 패총의 흔적도 남아 있다. 비록 목포가 개항장으로 성장한 근대도시지만 서남해 사람들의 역사적 뿌리와 함께 해운 공간임을 보여준다. 시대적으로 목포시 문화 유적은 고려 시대와 관련 된 직접적인 유적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지만, 조선 시대 수군진 관련 유적과 개항이후 근대 시기 유적이 다양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군진 유적은 만호동에 500년간 존재했던 목포진, 이순신이 정유재란 시기 고하도에 설치한 고하진성, 유달산에 설치된 봉수대 등이 중심을 이룬다. 근대 문화 유적은 개항 이후 도시화과정에서 형성된 교육, 종교, 산업 등과 관련 된 유적들, 수탈 유적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식민지 지배 정책의 결과물로 만든 유적, 일본인 거류지에 남아 있는 흔적들이 중심이다. 종교 유적의 경우는 유달산 자락에 형성된 불교 사찰, 일본인들 관련된 일본 불교와 신사, 토착 신앙인 산신제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연환경 관련 유적은 목포의 천연기념물, 독특한 지질 자원, 보호수 등을 포함하였다.

제2절 선사 유적

1. 성자동 패총

- 소재지: 용해동 산 86-1
- 시 대: 철기

목포 문화의 거리 입암산 끝자락에 해당하는 갯바위를 중심으로 길이 30m, 너비 10m 정도의 범위에 패각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의 북쪽에는 암반으로 형성된 산이 있으며, 패총은 이 산 남쪽 경사면에 있다. 이곳은 영산강 하구언이 조성되기 전 내륙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되는 곳으로 위치상 나불도 패총과 마주하는 곳이다. 패총 주변에는 ‘湖隱利川徐氏墓(호은이천서씨묘)’가 있다. 목포대 박물관에서 1995년 조사 당시 점토대토기편, 경질무문토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패총 주변에 등산로가 개설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져서 현재는 그 패각의 흔적만 일부 남아 있다.

그림 1 성자동 패총



2. 목포 도롱지석묘군

- 소재지: 석현동 896 일원
- 시 대: 청동기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14호(2012. 05. 21.)

도롱마을에 위치한 목포가톨릭대학에서 남서쪽으로 100m정도 떨어진 구릉상에 위치한다. 목포대 박물관의 1995년 조사한 보고서에는 총 5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1년 12월 목포시 문화유산 조사 보고 당시에는 지석묘 중 일부는 밭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상석을 옮겨 포개어 쌓은 상태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잡초들이 우거져 있어 3기 정도만 확인된 바 있다. 지석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은 얇은 경사를 이루고 있다. 목포가톨릭대학에서 남동쪽으로 440m 떨어져 위치한 석현동 새방주교회 담 옆에 목포 석현동 지석묘군Ⅰ이 위치한다. 본래 2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교회 건립 공사 도중 2호는 파괴되었으며, 1호는 현재 자리로 이동되어 상당 부분 땅 속에 묻혀 있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 지석묘의 군집 방향은 남-서 방향이다. 원형은 많이 파괴되었으나, 목포에서는 희소성이 있는 선사 유적 현장이다.

그림 2 도롱지석묘군 전경(좌)과 지석묘(우)



3. 목포 석현지석묘군

- 소재지: 석현동 82-2 일원
- 시 대: 청동기
- 지 정: 목포시 문화유산 15호(2012. 05. 21.)

석현마을과 신지마을의 경계에 해당하는 고개 마루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1995년 목포대 박물관 조사 보고서에는 이 고개마루 정상부를 중심으로 밭과 대나무 숲, 집 안에 8기의 지석묘가 군집되어 있었다. 고개마루에서 확인된 3기는 가장 큰 지석묘(4호)를 중심으로 서쪽에 5호, 동쪽에 3호가 동-서 방향으로 군집되어 있다. 8호 지석묘는 석현마을길 97번지 박유복·김경란 씨 집 마당에 위치하는데 지석묘 하부는 전체적으로 시멘트가 발라져 있어 하부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가장 큰 지석묘(4호)는 장방형 상석에 남-북 방향이며, 상석 크기는 장축 500cm, 단축 270cm, 두께 140cm이다. 원형은 많이 파괴되었으나, 목포에서는 희소성이 있는 선사 유적 현장이다.

그림 3 석현지석묘군 전경(좌)과 지석묘 3호(우)



4. 옥암동 초당산(草堂山) 고분

- 소재지: 옥암동 234 일원
- 시 대: 삼국 시대

초당산 마을 뒤편의 야산 정상부(해발 56.3m)에 '말무덤'이라 불리는 고분이다. 북동쪽으로 약 150m 지점에는 옥남초등학교가 있다. 과거에는 고분에서 약 200m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봉분을 계단식으로 깎아 감나무를 심어 놓았으나 원래의 형태는 유지되고 있다. 봉분의 크기는 장축 20m, 단축 18m, 높이 4m로 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주변에 석재가 많이 흩어져 있어 석실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포 옥암동 초당산 고분은 삼국 시대에 해당되는 고분이다. 목포 지역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이 고분은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입지상 영산강 하류 즉 전남 내륙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해상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의 주변에서 수습 유물이나 유구를 확인할 수 없어 고분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서남해안과 남해안 지역의 해로상에서 당시의 활발한 대외 교류와 관련된 고분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과 연관 있는 고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4 옥암동 초산당 고분 전경



제3절 수군진 유적

1. 목포진지(木浦鎭址)

- 소재지: 만호동 1-56 목포진역사공원
- 시 대: 조선시대
- 지 정: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37호(1986. 11. 08.)

목포진(木浦鎭)은 목포에 설치되었던 조선 시대 수군의 진영이다. 책임자로 ‘만호(萬戶)’라는 관직이 배치되어 일명 ‘만호진’이라 부르기도 한다. 목포진이 처음 설치된 시기는 1439년(세종 21)이다. 『세종실록』에 “이 일대가 왜적이 드나드는 요해지(要害地)임으로 병선을 설치하고 만호를 임명하여 보내라.”는 기록이 있다. 지리상으로 볼 때 목포는 영산강 하구에 해당되며,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요충지이다. 특히 호남과 경상남부 지역으로 통하는 ‘세곡 운반로’의 길목이라는 중요성이 있어 그 곳을 침략하는 왜적을 경계하기 위해 목포진의 설치가 지시되었다.

목포진 설치 초기에 만호는 병선을 이끌고 바다 위를 왕래하며 방어와 수색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수군진에는 군량과 군기를 쌓아두었다. 이후 현실적으로 선상 방어만으로 해상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해당 지역에 성을 축조하는데, 목포진에 성이 완성된 것은 1501년(연산군 7)의 일이다.

목포진에 대한 기록은 1702년에 발생한 큰 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실되어서 정확한 변천 상황을 알 수는 없다. 다만 기타 자료로 추정해볼 때 성의 둘레는 약 400m 정도이고, 성벽의 높이는 2m가 조금 넘었다. 목포진의 형태와 구조는 1872년 제작된 ‘무안현목포진지도’를 통해 확인된다. 출구가 동서남북 사방에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 객사와 관아 건물을 비롯해서 성안에 감옥과 우물이 있었다. 운영을 위해 책임자인 만호(무관 종6품) 1인 외에 군관(軍官) 6인, 진무(鎭撫) 7인, 사부(射夫) 2인, 사령(使令) 5인의 관원이 있었다. 만호는 인근 지역의 해상 경계 경비 등 병



그림 5 「무안목포진지도」(1872년)



그림 6 2015년 1월 목포진 역사공원 개관 당시 모습



그림 7 목포진 객사

사 업무의 수행 이외에 진영 소재지 인근 마을의 일반 행정까지도 관할하였다. 목포진은 1895년 7월 16일 칙령 제141호로 폐진 되었다.

목포진은 한반도 서남해 방어지이자 개항이전 목포 역사를 실증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옛 흔적은 사라졌으나 2014년 객사 건물이 복원되었고, 2015년 1월부터 ‘목포진역사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유달산 봉수

- 소재지: 유달산 정상부 일등봉(추정)
- 시 대: 조선시대

‘봉수(烽燧)’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높은 지역에 봉수대를 설치하고,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로써 변방의 지역 정세를 중앙에 급히 전달하는 군사 통신 조직을 말한다. 흔히 왜적이 침입하거나 하는 경우 봉화를 올려 한양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목포에도 예부터 유달산 정상 부근에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유달봉수에 대한 기록을 문헌자료상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세종대왕 때부터이다. 『세종실록지리지』 「무안조」에 “무안현에는 봉화가 둘 있는데 하나는 유달봉화로 현의 남쪽에 있으며 남으로는 해남 황원봉화와 연결되고 북으로는 나주 군산봉화와 연결된다.”라 기록되어 있다. 유달산 봉수는 ‘황원봉화→유달봉화→군산봉화→고림산봉화’로 연결되는 봉수로에 속하고 있었다. 『호남 봉대장졸총록』에 따르면 무안유달산봉수는 별장 6인, 군 25명, 보인 48명 등 대략 100여 명의 군졸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현재 유달산 내에서 봉수대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는 비정되지

못했다. 다만 가장 높고, 주변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일등봉 정상부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72년에 만들어진 「무안현목포진지도」에도 유달산 정상부에 봉수가 표시되어 있다.

3. 고하도진성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高下島李忠武公遺蹟)

- 소재지: 고하도 달동 산 230 일대
- 시 대: 조선시대
- 지 정: 전라남도 기념물 제10호(1974.09.24.)

고하도는 1597년 이순신이 울돌목(명량)에서 승리를 거둔 후 그 해 10월 29일 고하도에 진을 설치하고 이듬해 2월 17일 진을 옮길 때 까지 머물렀던 역사의 현장이다. 당시 이 고하도진은 조선 수군 병력과 각도 수사와 삼도수군통제사가 주둔하는 수군사령부 역할을 했다. 고하도진에서 이순신은 손실된 조선 수군의 전력을 보강하여 재건하는 데 노력했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병선을 건조하고, 군량을 조달하여 무기를 제조하는 일들을 통해 수군을 재건했다. 당시 사용했던 성곽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1974년 문화재 지정 당시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으로 명명되었다. 흔히 ‘고하도진성(高下島鎭城)’으로 부르고 있다.

진성은 전체 길이 약 1,225m 가운데 1,105m 가량만 성벽을 쌓았고, 나머지는 성벽을 축조하지 않거나 바위 등을 성벽으로 이용했다. 큰덕골저수지의 제방 구간을 제외한 골짜기와 60~80m 정도의 그리 높지 않은 큰 산-칼바위-말바위로 이어지는 능선을 이용하여 포곡식(包谷式)으로 산성(山城)을 쌓았다. 고하도진성은 기본적으로 큰덕골 골짜기를 감싸고 있는 산성 형태의 수군진성으로서, 일반적인 수군진성(水軍鎭城)의 입지 구조와는 다른 특이한 성곽 양식을 보여준다.

고하도진성 대부분의 성벽은 경사가 급한 바깥쪽 사면을 이용하여 바깥쪽에만 돌로 쌓은 방식인



그림 8 고하도에 현존하고 있는 성벽 모습

내탁식(內托式)으로 축조하고 있는 반면에, 큰덕골저수지 동쪽 부분에서 큰 산 정상까지의 남벽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는 안쪽과 바깥쪽 모두 돌로 쌓는 방식인 협축식(夾築式)으로 축조하고 있어 지형 조건에 따라 축조 기법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고하도진성의 경우는 지대석이 없고, 위쪽과 아래쪽 성돌 간의 크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조선 시대의 성곽의 양상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바다와 접하고 있는 서쪽 만입부의 큰덕골저수지 제방 부분은 일부러 성벽을 쌓지 않고 병선의 출입과 정박 및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선소(船所)를 배치하였다. 건물지로는 큰덕골저수지 주변에 건물의 기단과 담장이 확인되고 있다.

4.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高下島李忠武公紀念碑)

- 소재지: 목포시 고하도길 175(달동)
- 시 대: 조선시대(1722년)
- 지 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9호(1974. 09. 24.)

이충무공기념비는 고하도 선착장에서 300m정도 떨어진 위치에 세워져 있으며, 고하도 주민들이 ‘당산’이라 부르는 지역의 동산 위에 자리하고 있다. 산록 초입에 홍살문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삼문(三門)을 들어서면 그 안에 모충각(慕忠閣)이 있다. 모충각은 광복 이후 시민들의 모금으로 지어졌



그림 9 고하도 모충각 전경

고, 현 건물은 1963년 11월에 중수(重修) 한 것이다. 모충각 내부에 ‘고하도이충무공기념비’가 있다. 1722년 이순신의 5세손인 이봉상(李鳳祥)이 건립한 것이다. 비문에는 정유재란 때 이순신의 고하도 행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은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전진 기지로 고하도를 선정하게 된 과정, 고하도진이 1647년에 당곶진으로 이동한 사실, 고하도진이 폐진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통제사 오중주(吳重周)가 유허비 건립을 주도한 사실, 전쟁 때 군량미 비축의 중요성 등이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비문은 17행 48자로, 남구만이 찬(撰)하고, 조태구의 글씨를 이광좌가 새긴 것이다. 비의 규모는 높이 227cm, 너비 112cm, 두께 36cm이다. 비의 이수부분에 용이 승천하는 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모충각 내부에 후세 사람들에 의해 제작된 42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대부분 추모시이며, 추모사와 비 내력, 모충각 중수기가 있다. 이 현판은 대부분 1960년대에 조성된 것이다. 특히 1960년에 전 무안교육감이 작성한 현판에 유허비와 유허비각의 건립 연혁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1963년 전 목포시장 송석용이 작성한 ‘고하도 이충무공 비각 중수기’에는 이충무공의 업적과 비각중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목포문화원에서 발간한 『목포 근현대 표상』(2011)에 수록된 국역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이충무공기념비

· 비문 내용

유명(有明) 조선국(朝鮮國) 고(故)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증(贈) 좌의정(左議政) 충무(忠武) 이공(李公) 유허기사지비(遺墟記事之碑)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치사(致仕) 봉조하(奉朝賀) 남구만(南九萬)이 글을 짓다.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제사(議政府領議政 兼弘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弟師) 조태구(趙泰喬)가 글씨를 쓰다.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 겸 지경연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사 세제좌부빈객(兵曹判書兼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世弟左副賓客) 이광자(李光佐)가 새기다.

옛날 선조 정유년에 통제사 이충무공이 병란을 맞이하여 병사들과 함께 하였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량미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군량미를 비축할 수 있고 전선을 정비할 만한 곳을 찾던 중 얻은 것이 나주 고하도이다. 곳곳의 전진(戰陣)에 남은 곡식을 이곳에 쌓게 한 다음 군사를 모집하여 둔(屯)에 들게 하고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관리 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이 섬은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바다의 길목에 위치하여 오른편으로 영남에 연하고, 왼편으로 서울로 연결된다. 가깝게는 군사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어 승리를 기약함이요. 멀리는 행재소(行在所, 선조의 피난처)에 곡식을 제공하는데 궁색하지 않음이라. 이러한 국가를 위하는 지략과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이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진영이 이진(移鎭)되어 그 행적이 무너지고 그 규모가 축소되어 비록 별장이라고는 하나 옛날의 명칭에 불과하다. 군사와 백성이 이미 흩어지고, 근년에 진영(鎭營)이 당곳(唐串)으로 이진(移建)하니, 호령하던 관세는 없어졌다. 재물과 곡식의 비축이 줄어들더니 여기 남아 있는 백성들은 분개하고 탄식함이 오래되었다. 통제사 오중주(吳重周)가 군사와 백성의 뜻을 비석에 새겨 진(鎭)터에 세우고 충무공의 옛 제도를 되살리려고 하였다. 겨우 비석을 다듬었을 뿐인데, 임기가 끝나 돌아가니, 군사와 백성들의 애석한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 공사(工事)의 남은 재물로 능히 비석을 새기는 비용으로 충당할 만하나, 부족한 것은 이 일을 기록할 글이다. 이 때문에 나를 찾아와 내 옷깃을 잡고 탄식한 까닭이 여기에 있음이라. 충무공의 원대한 경륜이 여기 있도다.

예로부터 위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투에서 승리한 까닭이 섬에서 비축한 식량에 힘입지 아니함이 없었다. 조영평(趙營平)이 금성(金城)의 오랑캐를 물리친 것도 황중(惶中)의 둔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당(唐)나라 덕종(德宗)이 봉천(奉天)에서 주립을 면하게 된 것도 한황(韓滉)이 실어온 곡식에 있었으니, 공이 여기에 진을 설치한 것도 진실로 이 두 가지에 있었음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공이 적과 싸우며 군량이 날로 부족할 때를 당하여 곡식을 모아 군사를 먹이려 했다 함은 누구나 짐작

할 바 이거니와 조정에 바치려는 뜻이었다 함은 얼핏 깨닫지 못할 일이거늘, 지금 그 이유를 궁금해 한다면, 나는 말하리라. 어찌 그렇지 않으랴. 공이 한 일을 보면 계획한 바가 다만 눈 앞의 일 만을 위함이 아니었다.

공이 처음 전라좌수영 절도사가 되었을 적에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파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따로 쌀 500섬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상감께서 용만(龍灣, 의주)로 옮겨 계시니 만약(箕城, 평양)의 적이 또 서쪽으로 나타난다면 대가(大駕)가 장차 다시 압록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내 말은 직분으로 마땅히 바다로 나가 대가를 보호하여 나라를 회복하도록 도모할 것이요. 만일 불행하게도 임금과 신하가 함께 이 땅에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가히 좋다 하였다 하니, 공이 이렇게 말 한 것만 보더라도 공의 충성과 지략이 어찌 군량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데만 급급하였으며, 구차하게 직책이나 지키려고 하였겠는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한산도나 고금도 사이에 설치한 지휘소만 돌보면서 둔전을 열고 양식을 쌓아도 족히 급한 때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거늘, 하물며 우수영에서 멀리 떨어지고 서쪽 바다에 치우친 이곳에 서울을 바라보며 진을 설치하였겠는가. 통제사 오중주가 임기가 끝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이 끼친 유풍(遺風)을 다시 일으키고 공의 뜻을 밝히려는 것은 후임으로 부임하는 통제사로 하여금 거듭 이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고, 지금 이 진의 백성들도 길이 사모할 바를 얻게 함이니, 그 또한 가상한 일이다.

승정 기원(崇禎紀元)후 95년 임인(壬寅) 8월에 오대손 봉상(鳳祥)이 외람되어 자리하고, 통제사가 감독하여 이 비석을 세운다.

5. 수군절도사 신광익 선정비

- 소재지: 만호동 1-56(목포진 객사 내)
- 시 대: 조선시대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1호(2012. 05. 21.)

목포진역사공원 객사 내에 만호 방대령 선정비와 나란히 수군절도사 신광익 선정비가 함께 서있다. 비 전면에는 ‘行水軍節度使申侯○○○善政碑(행수군절도사신후○○○선정비)’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癸未 三月(계미 3월)’이라 새겨져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67cm, 너비 51cm이다. 비문 중 절도사의 이름 부분이 마모되었으나, 『전라우수영지』 등의 기록을 통해 계미년에 신씨(申氏)성을 가진 인물 중 수군절도사로 활동했던 ‘신광익(申光翼)’이 비의 주인공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하면 비의 건립 시기는 1763년이다. 비의 앞면 오른쪽에 ‘周粟來浦 飢卒回○(주속래포 기졸회○)’ 왼쪽에 ‘仁波隆治 德海不枯(인파옹흡 덕해불고)’라 새겨져 있다. 문맥상 ‘진흙곡을 가지고 목포에 와서 베풀어 굶주린 군졸의 기운을 돌아오게 하사, 어짐이 파도처럼 널리 퍼지니 베풀 덕은 바닷물이 마르지 않듯 오래 오래 잊지 않으리’로 해석된다. 전라우도의 수군절도사가 목포 만호진의 굶주린 군졸을 진흙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비를 건립한 것이다.

한편 이 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수 부분에 장식된 문양이다. 선정비의 머릿돌 부분에는 목포 사람들의 소박함과 추상적인 예술미를 느낄 수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다른 지역의 선정비나 공덕 비에는 용이나 봉황 등의 문양을 매우 화려하게 조각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이 비에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그려 놓은 듯한 추상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유적 속의 문양 하나가 예향 목포 사람들의 조선 시대 미적 감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 비석은 일제강점기 현 근대역사관 본관 뒤뜰에 묻혀 있었다. 1950년 건물 중수 때 발견되어 그 앞쪽에 세워 보관하다가 목포진역사공원이 조성되면서 객사 내로 이전되었다.



그림 11 수군절도사 신광익 선정비

6. 만호 방대령 선정비

- 소재지: 만호동 1-56(목포진 객사 내)
- 시 대: 조선시대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2호(2012. 05. 21.)

목포진역사공원 객사 내에 보존되어 있다. 이 비는 조선시대 수군진이었던 목포진(木浦鎭)에 근무하던 만호(萬戶) 방대령(方大寧)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진휼을 베풀어서 그 은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비의 전면에 ‘行萬戶方公大〇〇德賑率善政碑(행만호방공대 〇〇덕진솔선정비)’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乙未年九月(을미년 9월)’이라 새겨져 있다. 온양 방씨 문중 자료를 토대로 이 비의 주인공이 1714년에 목포 만호로 임명된 ‘방대령’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49cm, 너비 50cm이다.

목포에서는 가장 오래된 조선 시대 유적에 해당하는 이 비석은 일제강점기 현 근대역사관 본관 뒤뜰에 묻혀 있었다. 1950년 건물 중수 때 발견되어 그 앞쪽에 세워 보관하다가 목포진역사공원이 조성되면서 객사 내로 이전되었다. 목포진 책임자인 만호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적이며, 목포 개항 이전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념비이다.



그림 12 만호 방대령 선정비

제4절 근대 문화 유적

1. 사적

1) 무안감리서 터

- 소재지: 북교동 178-1(구 신안군청)
- 시 대: 개항기

현재 참사랑 요양병원(구 신안군청)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무안감리서(務安監理署)는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개항장 내에서의 외국 영사관과의 원활한 외교 및 통상 사무를 위해 설치되었다. 당시까지 목포는 무안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안감리서'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목포가 개항 되기 직전인 1897년 9월 12일에 무안감리서의 신설이 확정 공포되었으며, 1905년 일본의 을사조약(乙巳條約) 강제 체결로 인해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1906년 10월 폐지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무안감리서의 청사는 처음에는 목포진(木浦鎭), 현 만호동 지역에 남아 있던 옛 수군진의 빈 건물을 수리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다가, 1902년 지금의 자리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무안감리서가 폐지된 이후 무안군청, 신안군청 등의 사용되면서 옛 무안감리서 시절의 흔적은 사라졌다. 그러나 개항 후 목포 최초의 행정 기관이 설치되었던 곳이고, 목포·무안·신안의 행정관청이 이곳을 거쳐 갔다는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1903년 일본 낭인들의 무안감리서 습격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으로서 사적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림 13 무안감리서터(일제강점기 모습)



그림 14 신안군청 시절 정면 모습

2) 목포시사(木浦詩社)

- 소재지: 죽교동 330-3
- 지 정: 전라남도 기념물 제21호(1975. 10. 11.)

‘시사(詩社)’는 서로 뜻이 통하는 선비들이 모여서 계절에 따라 자연을 노래하고, 시를 읊었던 풍류의 개념에서 출발했다. 이것이 발전되어 조선 후기 중인층 지식인들의 문학 결사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 목포시사는 1920년에 결성된 ‘유산시사(儒山詩社)’에서 출발했다. 유산시사는 1920년 4월 29일에 창립되었다. 무안감리를 지낸 김성규가 주도하였고, 목포 유림인들과 목포와의 왕래가 많았던 진도·강진 지역의 문인들이 참여하였다. 현 건물은 1933년 3월에 낙성되었고, 명칭은 ‘유산정(儒山亭)’이라 하였다. 1961년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던 또 다른 시사인 ‘보인시사(輔仁詩社)’와 통합하면서, 명칭을 ‘목포시사’로 변경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목포시사의 건물은 1976년 9월 30일자로 전라남도 기념물 21호로 지정되었으며, 건물의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으로 지붕은 팔작지붕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일단으로 다듬은 돌

그림 15 목포시사 유산정의 현재 모습



기단위에 반듯한 기초를 놓고 민흘림의 원형 기둥을 세웠다. 원래의 건물은 좌우로 후면의 중앙이 벽돌로 된 것을 1979년, 1984년 2회에 걸쳐 벽돌을 제거하고 지붕을 보수하였으며, 붕괴 위험이 있어 1995년 완전 해체하여 복원하였다. 목포시사 건물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목포에 세워져 있는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현재 목포시사 건물 내부에는 유산정 상량문, 유산정 중수기 등 목포시사의 연혁과 관련된 글과, 문인들의 작품 등 36개의 편액이 걸려 있다.

2. 기념물(비갈)

1) 총순 구종명 영세불망비

- 소재지: 죽동 96-2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5호(2012. 05. 21.)

대한제국 시기 목포 조선인 경찰이었던, 총순 구종명을 기념하기 위한 비이다. 구종명(具鍾鳴)은 경무서(警務署) 소속 경찰로 당시 직책이 총순(總巡)이었다. 경무서는 1897년 목포가 개항되고 나서 개항장의 통상 업무와 지방 행정을 위해 설치된 경찰서이다. 총순은 경무서의 책임자였던 경무관 바로 아래의 직급에 해당된다. 구종명은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법원 측에 자료 제출을 통해 조선인들의 권익 보호에 많은 공을 세웠다. 비의 앞면 가운데에는 ‘總巡具公鍾鳴永世不忘碑(총순구공종명영세불망비)’라 새겨져 있고 아래쪽 양옆으로 공적 내용이 한자로 적혀있다. 사각형 기둥 형태이며, 높이 160cm, 너비 40cm, 폭 19cm 규모이다. 개항기에서 식민지시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세워진 대한제국의 마지막 경찰 관련 유적으로서 희소성이 있다. 또한 개항 이후 목포사회상을 보여주는 유적이기도 하다. 한편 구종명은 이후 일제강점기 군수를 지낸 행적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림 16 총순 구종명 영세불망비

2) 경상도우회기념회장 암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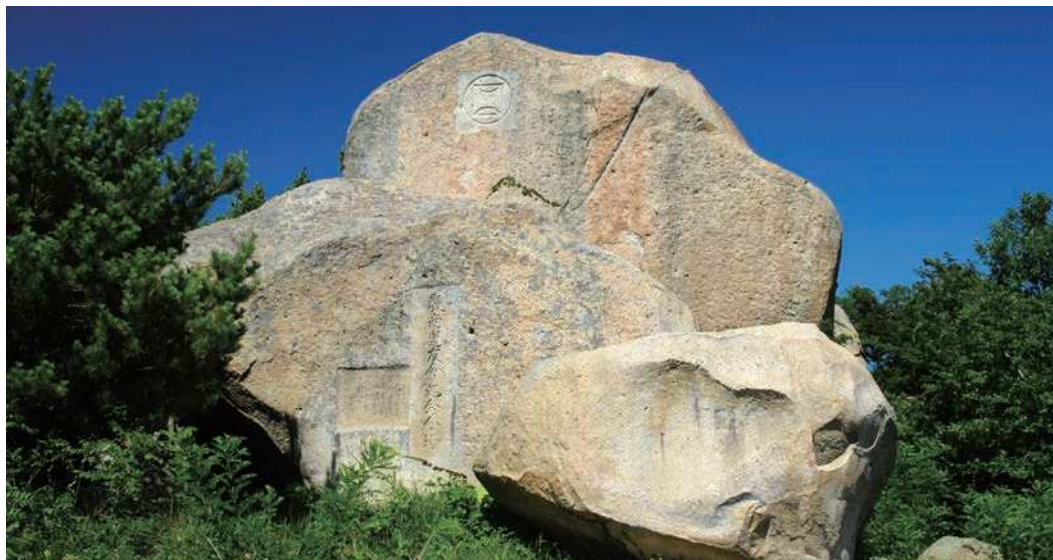
- 소재지: 온금동 뒷편 유달산 등산로 중턱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10호(2012. 05. 21.)

유달산 자락으로 옆으로 길게 뻗은 온금동 마을 뒷산의 가운데쯤 자리하고 있다. 원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장사바위로 불리던 커다란 바위에 글씨를 새겨놓은 것이다. 바위의 정면에 ‘慶尙道友會紀念會場(경상도우회기념회장)’이라 새겨져 있고, 그 왼편에 ‘大正十年六月日(대정16년 6월 일)’이라는 1921년 조성 연대와 함께 주요 임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주요 임원으로 회장 이근창, 부회장 최수봉, 총무 김봉로, 재무 배화옥, 평의원 김영섭임을 알 수 있고, 회장 기증자로 ‘홍양균’, ‘김영수’의 이름이 있다. 1921년에 조성된 이 유적은 당시 목포에서 활동하던 경상도 출신들이 이 일대에서 기념회를 치른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다. 목포는 1897년 통상항으로 문을 연 이후 이미 개항장으로서 전례가 있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출신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살았는데, 이 바위 암각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유적이다.



그림 17 경상도우회기념회장 암각

그림 18 경상도우회장 기념 암각이 있는 바위



3) 멜라콩 다리 기념비

● 소재지: 호남동 1-1 목포역 담장

● 시 대: 1964년

목포역에서 화물 취급소로 돌아가는 우측 길목의 목포역 담장에 박혀진 채로 남아 있다. 비의 전면에 ‘멜라콩 다리’라고 새겨져 있고, 우측에 ‘목포역 정모 박길수’라는 이름과 좌측에 ‘서기 一九六四年 四月 二十日’이라는 건립일이 새겨져 있다. 멜라콩 다리 기념비는 박길수(朴吉洙, 1928~1989)가 목포역 주변에 세운 다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박길수는 1928년 전남 장흥군에서 박권섭의 3남으로 태어났다. ‘멜



그림 19 목포역 담장 멜라콩 다리 기념비

라콩’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미 장애의 몸을 지녔고 체격까지 작았던 박길수를 주변 사람들이 부르던 별명이다.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극중 이름인데, 그 배역의 모습과 박길수의 허약한 몸집과 하는 짓이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박길수는 목포역 소화물 취급소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48년을 한결같이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서, 목포의 명물이자 자랑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1960년대 초까지도 목포역 안쪽까지 물이 들어왔고, 목포역 옆길은 복개되지 않은 넓고 긴 하천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천 건너편 사람들이 기차를 타려면 동명동 어물 시장에서 팔고 산 생선들을 머리에 이고 상당히 먼 길을 돌아서 다녀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박길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리를 세울 것을 결심한다. 장애인의 몸으로 주변사람들을 하나 둘 설득하고 성금을 모아서 드디어 1964년에 목포역 주변으로 흐르는 하천 위에 다리를 세우는 일에 성공했다. 그 때문에 목포사람들은 그 다리를 ‘멜라콩 다리’라고 불렀다. 가난한 장애자의 힘으로 생각지도 못하던 다리가 놓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 KBS에서는 그의 봉사적인 삶을 기리기 위해 1989년 멜라콩 박길수의 생애를 극화한 「멜라콩을 아시나요?」를 제작하여, 전국에 방영하기도 하였다. 비록 지금은 다리가 사라지고 초라한 비석만이 목포역 담장에 남아 있지만 목포의 도시발달 과정과 목포 시민들이 살아온 과정에 대한 향수가 어린 문화 유적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비석은 하단 일부가 땅속에 묻혀있고, 목포역 담장에 박혀 있어 뒷면은 확인할 수 없다.

4) 이근창 시혜불망비

- 소재지: 용해동 26
- 시 대: 일제강점기

목포제일중학교에서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들어가는 도로변 우측(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별관 건너편)에 세워져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로면장 겸 전남도 평의회 의원과 1936년부터 1945년까지 목포부협의회 의원을 지낸 이근창과 관련된 기념비이다. 비의 전면 중앙에 ‘面長兼評議會員李根彰施惠不忘碑(면장겸평의회원이근창시혜불망비)’라 새겨져 있다. 그 좌우로 이근창의 공로를 칭송하는 글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公來何暮 均布潤德 修墓當費 設校盡力 無給視務 治道省役 千有餘戶 頌口勒石(공래하모 균포윤덕 수묘당비 설교진력 무급시무 치도성역 천유여호 송구록석)’. 비문의 내용은 ‘공께서 늦게나마 오셔서 고르게 베풀고 덕망이 넘쳤으며 사재를 털어서 인근에 방치된 묘들을 정비하시고 교학 사업에 혼신의 열정을 다 쏟으셨다. 공무에 임하여서는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도 행정의 다스림에 그 힘이 두루 미치어 먼 민들이 생활에 여유를 갖게 하였다. 이에 공적을 칭송하여 비석에 이를 아로 새긴다’이다. 건립연대는 1921년 3월이고, 건립주체는 이로면민이다[大正十年三月 日 二老面中 堅立]. 비의 규모는 높이 155cm, 너비 50cm, 두께 21cm이다. 이근창은 이로면장 재직 시 본인 소유의 토지를 현재의 이로초등학교 부지로 기증하였다.



그림 20 이근창 시혜불망비

5) 정인호 시혜불망비

- 소재지: 울피나루길 11번길 7-4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4호(2012. 05. 21)

온금동 마을 중앙에 있는 ‘큰샘’ 바로 뒤편에 ‘김영수시은불망비’와 나란히 서 있다. 옛 충무동사무소 입구에 있었던 것이 서산초등학교에서 유달산으로 오르는 도로 오른쪽 바위 언덕 위로 옮겨져 오랫동안 있었고, 다시 해당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가뭄으로 온금동 주민들이 식수난에 허덕이자 정인호가 돈을 내어 마을 우물을 파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비의 전면에 ‘幼學鄭麟浩施惠不忘碑(유학정인호시혜불망비)’가 새겨져 있고, 그의 공을 칭송하는 글이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唯公治井 渴水源長 捐千金額 護一里方 旱亭甘雨 陰谷太陽 頌德銘石 芳名遠揚(유공치정 갈수원장 손천금액 호일리방 한정감우 음곡태양 송덕명석 방명원제)’. 다음과 같은 뜻으로 풀이된다. ‘공께서 마을 우물을 관리하였는데, 가뭄이 심해 물이 마르게 되자 천금을 기부하여 일리사방을 보호하니 목마른 마을에 단비요 그늘진 골짜기에 해가 돋는 것과 같다 그 덕을 기려 돌에 새기니 그 이름 먼 후세까지 칭송되리라.’ 건립주체는 ‘木浦府溫錦洞中一同(목포부온금동중일동)’이다. 건립 연대는 1922년 5월[大正十一年 五月 日 建立]이고, 규모는 높이 91cm, 너비 34cm이다. 2012년 ‘온금동 큰샘과 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목포시 문화유산 제4호로 지정되었다.



그림 21 김영수(좌)와 정인호(우)의 시혜불망비

6) 김영수 시혜불망비

- 소재지: 울피나루길 11번길 7-4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4호(2012. 05. 21)

온금동 ‘큰샘’ 바로 뒤편에 ‘정인호시혜불망비’와 나란히 서있다. 원래 옛 충무동사무소 입구에 있었던 것이 서산초등학교에서 유달산으로 오르는 길 오른쪽 바위 언덕 위로 옮겨져 오랫동안 있었으나, 해당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오위장을 지낸 ‘김영수’란 사람이 온금동 주민에게 공훈을 베풀자 이를 기념하여 주민들이 세운 것이다. 비의 전면에는 ‘前五衛將行○長金公英守施惠不忘碑(전오위장행○장김공영수시혜불망비)’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大正十一年五月 日 洞中(대정 11년 5월 일 동중)’이라는 건립 연도가 새겨져 있어 1922년 온금동 일대 마을 주민들이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02cm, 너비 42cm이다. 2012년 ‘온금동 큰샘과 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목포시 문화유산 제4호로 지정되었다.

7) 최여장 송덕비

- 소재지: 죽교동 161-1
- 시 대: 1928년 8월

북교동 성당 정문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난 샛길을 따라 100m 정도 들어가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비의 전면에는 ‘前主事崔公汝章頌德碑(전주사최공여장송덕비)’라 새겨져 있고, 양옆으로 건립 내력을 담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최여장이 값비싼 땅을 저렴하게 우물터로 공급하여 준 것에 대한 당시 100여 호 주민들의 고마움이 담겨있다. 뒷면에는 1928년 건립 연도와 비를 세운 죽교리 주민대표 ‘金京述(김경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문에 빨간색이 덧입혀진 것이 특색이며, 뒤쪽 년도의 경우는 당초에는 일제강점기 소화연호를 사용해서 새겼으나 후에 단기 연호로 고쳐서 다시 새겨놓은 흔적이 보인다. 비의 규모높이 147cm, 너비 31cm, 폭 14.5cm이다. 목포 원도심인 북교동 사람들의 과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향토유적이다.



그림 22 최여장 송덕비



그림 23 최유권 영세송덕비

8) 최유권 영세송덕비

- 소재지: 충무동 어민동산 건너편 주차장 뒤
- 시 대: 1933년 6월

어민동산 부근의 마을 봉후동에 남아 있다. 어민동산 주차장 뒤편에 해당한다. 봉후동은 유달산 이 등봉의 뒤흘이라고 해서 봉후동이라 불렀는데, 구전에는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최씨가 많은 땅을 개간하고 갯벌을 간척하여 부자로 살면서 이웃에게 많이 나누어주고 살아서 최 부자 골짜기 또는 최 부자 동네라 하였다.”고 전한다. 그와 관련된 기념비가 남아 있다.

비의 전면에는 ‘崔公有權永世頌德碑(최공유권영세송덕비)’라 새겨져 있고, 양옆에 칭송한 글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恤孤救貧 賑衣貸食 人樂爲業 村賴安息(홀고구빈 진의대금 인락위업 촌뢰안식)’, ‘외로운 사람을 돌보고 가난을 구제하며, 마을이 평안하니, 사람들이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건립연대와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昭和八年癸酉六月 日 洞中代表人 吳子俊(소화 8년 계유 6월 일 동중대표인 오자준).’ 1933년 6월에 세웠고, 마을 대표는 오자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35cm, 너비 45cm, 두께 16cm이다.

9) 윤봉진 청덕불망비

- 소재지: 울도동 56-78
- 시 대: 1946년

목포시 관내에 해당하는 섬 마을 울도에 세워져있다. 비는 울도 선착장에서 마을 회관으로 가는 길의 중간 지점에서 왼편으로 연결된 길의 초입에 자리하고 있다. 바로 인근에 1959년 건립된 이복철 훈도비가 있다. 이 비의 전면에는 ‘前章陵參奉海南尹奉珍清德不忘碑(전장릉참봉해남윤봉진청덕불망비)’라 새겨져 있다. 장릉참봉을 지낸 윤봉진이 마을 주민들에게 베푼 공을 잊지 않기 위해 세운 것이다. 비의 뒷면에 ‘檀紀四千二百七十九年丙戌三月(단기 4279년 병술 3월)’이라는 건립 연대(1946년)와 발기인(發起人) 최성태(崔成泰), 박한호(朴漢浩), 이덕봉(李德奉), 이상봉(李相奉), 간사인(幹事人) 정문환(鄭文煥), 정공민(鄭共璫), 이복근(李福根)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88cm, 너비 35cm, 두께 16cm이다.



그림 24 윤봉진 청덕불망비

10) 이로면 임성시장 기념비

- 소재지: 석현동 1176
- 시 대: 1933년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11호(2012. 05. 21.)



그림 25 이로면 임성시장 기념비

일제강점기 무안군에 속했던 이로면 임성시장의 건립을 기념하여 조성된 기념비이다. 원래 석현동 목포문화산업지원센터 옆 삼향천 다리 부근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도로 확장 후 현 위치로 옮겨 세워졌다. 비의 전면 중앙에 ‘二老面任城市場紀念碑(이로면임성시장기념비)’가 새겨져 있고, 그 좌우로 건립 내역이 새겨져 있다. 뒷면 상단에는 ‘기부방명’ 아래로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새겨져 있다. 옆면에 건립 연대와 주체가 ‘昭和八年七月十日 務安郡二老面任城市場設置期成會 堅立(소화 8년 7월 10일 무안군 이로면 임성시장설치기성회 건립)’으로 새겨져 있다. 1933년 7월 10일 무안군 이로면 임성시장 설치기성회가 이 비를 세웠다.

11) 위령탑

- 소재지: 부주산
- 시 대: 1973년

1973년 11월 15일 재일교포인 권수용(2003년 작고)씨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자의 넋을 위하고자 개인의 사재를 들여 일본에 산재한 유골 240위(탄광 등 징용사망자 71위, 원폭사망자 169위)를 모아 부주산에 안장



그림 26 부주산 위령탑

하고 세운 위령탑이다. 1985년 10월 10일 이곳에 안장된 유골이 모두 충남 천안시 소재 ‘망향의 동산’으로 이장함에 따라 현재는 위령탑만 남아있다.

이곳에 안장되었던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은 일본 사키토 탄광촌 희생자들로 알려져 있다. 사키토 탄광에서는 가혹한 노동과 매질로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죽어갔는데, 유해들은 그대로 내버려지는 상황이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인근 ‘신령사’ 사찰의 승려가 일부 유골을 수집하여 절에 보관해 오다가, 1973년 한국으로 이송하여 목포 부주산에 위치한 강제 징용 위령탑에 봉안되기에 이르렀다. 이 위령탑은 일제강점기 슬픈 역사와 일제의 만행을 증거하는 유적으로서 큰 가치를 지녔다.

12) 목포의 눈물 노래비

- 소재지: 죽교동 산 44(유달산)
- 시 대: 1969년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27호(2016. 07. 28.)

목포 유달산 달선각 아래 바위 자락에 세워져 있다. 1969년 박오주의 기금을 토대로 1935년 발표된 국민가요 「목포의 눈물」과 가수 이난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이난영이 세상을 떠난 지 4



그림 27 목포의 눈물 노래비

년 후에 해당하며, 대중가요비로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금을 제공한 박 오주씨는 평생을 목포 시내에서 음반가게를 하면서 살았다. 그는 자신이 목포에서 음반을 팔면서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목포의 눈물 노래비를 건립을 추진하였다. 노래비의 정면 상단부에 「목포의 눈물」 노래 가사가 새겨져 있고, 하단부에는 “살아있는 보석은 눈물입니다. 남쪽 하늘 아래 꿈과 사랑의 열매를 여기 심습니다. 이난영의 노래가 문일석 가사 손목인 작곡으로 여기 청호의 낮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라는 추모의 글귀가 적어져 있다. 건립 연대는 1969년 6월 10일이고, 규모는 높이 230cm, 너비 120cm이다. 설계는 강동문, 글은 차재석, 글씨는 박정식, 시공은 이현팔이 하였다. 건립 연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가요 「목포의 눈물」이 지닌 가치와 전국 최초 대중가요비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13) 국도 1, 2호선 원점기념비

- 소재지: 대의동 2가 1(유달우체국 화단 왼편)
- 시 대: 일제강점기

목포는 한반도의 끝이 아니라 출발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 국도 1호선 도로 원표와 기념비이다. 도로 원표는 현 목포시 대의동 유달 우체국 주차장 좌측 화단에 조성



그림 28 국도 1, 2호선 원점기념비

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근대적인 도로망이 개설될 당시 목포는 국도 1호선과 2호선의 기점이 된 곳이다. 국도 1호선은 1906년에 착공하여 1911년 개통된 도로로 목포에서 신의주까지(939.1km)이며, 2호선은 부산까지의 도로(353.6km)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도로망으로 목포에서 출발한 것이다. 원표는 이를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 현 도로 원표는 2000년 9월 18일에 조성된 것이다. 도로 원표의 바로 뒤에는 이곳이 대한민국 근대 도로망의 출발지임을 기념하기 위한 국도 1호선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다. 이 기념비는 사회 활동을 하는 라이온스 클럽에서 기금을 모아 건립한 것으로, 영 호남의 문화 교류 차원에서 추진되어 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식수(수원지 및 우물)

1) 목포 제1수원지

- 소재지: 상동 목포실내체육관 아래
- 시 대: 1911년

현 목포실내체육관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목포 최초의 상수도 시설로 평가되는 제1수원지이다. 1908년 11월 착공하여 1910년 5월 급수를 시작하였다. 1976년 1월 급수가 중단되었고,



그림 29 목포 제1수원지(목포실내체육관 아래)

1981년에 폐쇄되었다. 현재 담수된 형태로 보존되고 있고, 인근에 있는 목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의 해상수련 활동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 수원지는 목포 도시 발달과정의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는 물 문제 해결 노력과 관련된 유적지로서 일제강점기 사회상을 반영하기도 하는 목포만의 독특한 역사 현장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목포 제2수원지 예비지 및 배수지

- 소재지: 온금동 6-2(구 제일여고 뒤편)
- 시 대: 일제강점기

목포 제2수원지와 관련된 유적은 구 목포 제일여자고등학교 운동장 바로 뒤쪽으로 이어진 유달산 자락에 남아 있다. 제2수원지는 1911년 9월 착공하여 1912년 5월에 완공하였다. 1977년 8월 급수가 중단되었으며, 1985년 함평 대동제(大同堤) 준공으로 폐쇄되었다. 조성 당시 일본인 거주지 구역의 중요한 급수원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 저수지를 ‘옥지[玉の池, 다마노이끼]’라 불렀다. 저수지와 여과지, 배수지 등의 시설이 만들어 졌다. 현재는 예비지로 사용되었던 곳의 담수 시설물과 예비



그림 30 목포 제2수원지 예비지

지 석축 정면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돌계단이 남아 있다. 예비지로부터 약 150m 아래지역에 제2수원지의 배수지 시설이 남아있다. 출입구 모양의 석조 건물이며, 중앙에 빨간색 철문이 남아 있다. 철문의 위쪽 석판에 ‘龍淵(용연)’이라 새겨져 있고, 좌측에 ‘乙未初秋 石胡(을미초추 석호)’라 새겨져 있다. 이 배수지 시설물은 1955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2수원지의 여러 시설물은 일제 시기에 신사의 신축지로 이 일대가 지정되면서 중요 시설물이 매몰되었다가 광복 후 예비지를 복구하고 여과지와 배수지를 신설하여 다시 이용하였다. 이 때 명칭을 ‘용연’이라 붙인 것으로 보인다.

3) 보광사 짓샘

● 소재지: 죽교동 유달산 보광사 대웅전 내

유달산 보광사 대웅전 내 석조미륵불좌상 아래에 있는 샘이다. 대웅전의 마룻바닥 뒤편을 열면 짓샘의 모습이 드러난다. 약 2~3m 정도 깊이의 소규모의 우물이나 산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샘으로 물이 귀한 목포와 유달산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생활유적이다. 이 샘을 지역민들은 ‘짓샘’이라고 하였다. 전라도 말로 ‘지사샘(제사샘)’의 의미로 해석된다. ‘짓샘’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이 일대에서 산신제가 행해졌음을 보여준다. 이 샘물은 특히 여성이 산고(産苦)가 들었을 때 효험이 있다고 하여 일제강점기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주민들은 산고가 들면 짓샘에서 물을 길어다 미역국을 끓여 산모에게 먹였고, 또한 산모의 젖이 부족할 경우 옹기 두 개에 끈을 매서 짓샘에 띄우고 젖을 많이 태워 달라고 기원한 다음 그 옹기에 샘물을 채워서 집으로 가져와 조양신에게도 소망하였다 한다.



그림 31 짓샘이 있는 보광사 법당 바닥



그림 32 보광사 짓샘

4) 달성사 옥정(玉井)

- 소재지: 죽교동 317 달성사 경내

달성사 경내 극락보전 좌측에 자리하고 있다. 이 우물은 불전에 감로수로 사용하기 위해 1923년에 조성한 것이다. 당시 달성사에 많은 시주를 하고 있던 영암출신 현기봉이 자신의 아들 현준호를 위해 암굴 30척을 굴착하여 완성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목포 사람들에게 ‘옥정(玉井)’이라 알려진 달성사 우물은 ‘부정한 사람이 음수 또는 몸에 사용 급수하면 옥정물이 일시에 없어지고’, ‘극심한 한발에도 수원이 마르지 않고 많이 음수하여도 복통이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온다.



그림 33 달성사 옥정

5) 온금동 큰샘

- 소재지: 올피나루길 11번길 7-4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4호(2012. 05. 21.)

조선내화 공장 뒤편 온금동 마을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동네 주민들이 ‘큰 샘’이라고 부르고 있다. ‘정인호 불망비’, ‘김영수 불망비’와 같은 장소에 있다. 온금동에 조선인 마을이 형성되면서 중요한 식수원 역할을 한 곳이다. 정인호가 이 우물을 관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목포가 개항된 후 도

시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 사항이 식수의 부족이었는데, 이 우물은 당시의 그러한 사회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민속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현재는 뚜껑을 덮어놓은 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규모는 가로 150cm, 세로 135cm로 완벽한 우물 ‘정(井)’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34 온금동 큰샘

4. 근대 골목길

1) 만인계터 골목길

- 소재지: 목포시 마인계터로 28, 38, 40번길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28호(2016. 07. 28.)

유달산 아래에 자리 잡은 조선인 마을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골목길이다. 오거리 상권, 일본인 거류지와 소통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위치이다. 목포 원도심 차없는거리 구 목포극장 일대와 죽동을 연결하는 일대에 ‘마인계터로’라는 주소명이 있다. ‘마인계’는 ‘만인계(萬人契)’라는 일종의 복권계에서 유래한 말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목포에만 지명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마인계터로는 28번길을 중심으로 목포 개항 이후 형성된 근대 도시 목포의 발달과정을 엿볼 수 있는 골목길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죽동 38번길 송영이담에서 쌍새암거리를 지나 마인계터길 38번길에서 마인계터길 28번길로 들어가 마인계터 잔등으로 나오는 골목길이 대표적인이다.

28번길에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붉은 벽돌집, 38번길과 40번길은 옛 남농선생의 화실터, 죽동육거리, 개항장의 우체사 터, 마방골 터, 만인계터 등에서는 역사성이 있다. 골목길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남농이 활동했던 골목에서 마인계터 잔등으로 연결되는 28번길을 중심으로 38번길, 40번길이 구성되어 있다. 개항 이후 일본인 거류지는 자동차 도로가 잘 개설된 기획도시였던 반면 조선인 마을은 골목길로 소통되는 자연 발생적 취락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조선인 마을의 근대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대표공간이다.



그림 35 만인계터 골목길

2) 보리마당 골목길

- 소재지: 보리마당로 28-7~해안로 127번길 15-2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29호(2016. 07. 28.)

보리마당은 목포 고유의 해안마을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뛰어난 조망권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서산동 마을로 연결되는 가파른 골목길은 가장 목포다운 골목길 경관을 지니고 있다. ‘해안로 127번길’과 ‘보리마당로’로 연결되는 오르막길은 목포 해안가 마을 골목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개항 이후 한국인 서민들이 유달산 산기슭 비탈진 언덕에 모여 들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동네이다. 길이 좁고 경사도 가파르다. 주택은 목조와 벽돌조가 혼재되어 있고 각 세대의 대지 필지도 작다. 서산동쪽 골목길의 오르막 바로 옆길에는 일제강점기 사쿠라마찌[櫻町] 유곽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한편 보리마당 위에서는 목포 앞바다와 서산동 마을 경관이 한눈에 조망된다. 최근 목포 인문도시 사업 프로그램 중 이 일대가 서산동 시화 골목으로 활용되면서 현재 골목 곳곳에 목포의 예술인들이 만든 시화가 걸려 있다. 오르막길 계단 왼쪽 면에 시멘트를 발라서 경사면을 조성하여 변경된 부분이



그림 36 보리마당 골목길

일부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 언덕일대에 살던 사람들이 뽕비누(일화유지에서 나오는 면실유를 정제하고 생기는 찌꺼기를 가져다가 쌀겨를 섞어서 만든 새까만 비누)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애뜻한 사연이 담겨 있다.

3) 77계단과 송도 골목길

- 소재지: 송도길 20번길, 10번길, 12번길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30호(2016. 07. 28.)

일제강점기 송도신사가 있던 현 동명동 언덕으로 올라가는 곳에 당시의 계단이 남아 있다. 일명 77계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77계단은 일본인들에게는 신사에 오르는 성스러운 계단이었고, 나라를 뺏기고 신사 참배를 강요당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굴욕의 계단으로 인식되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행사 때는 이곳 계단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의무였다고 회상하기도 한다. 계단은 2007년 3월에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으며, 이때 세운 77계단 기념비가 입구 쪽에 세워져 있다. 광복 후에 일제강점기의 송도신사(松島神社)와 공원이 철거되고

외국(일본, 만주등지)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터를 잡았다. 6·25전쟁기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복잡한 골목길들이 지금도 미로처럼 남아 있다. 신사를 오르기 위해 조성된 계단도 외형이 변했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마을 내의 골목길은 미로같이 형성되어 있고 주택들은 단층 목조 내지는 최근에 시멘트 등으로 보수한 조적조 건물이 대부분이다. 일본 신사가 있었던 서글픈 현장이지만 근대기 목포 사회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37 77계단의 변형 전 모습



그림 38 현재 77계단의 모습

제5절 일제강점기 수탈 유적

1. 고하도 조선육지면 발상지비

- 소재지: 고하도 달동 780
- 시 대: 일제강점기(1936년)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6호(2012. 05. 21.)

고하도 원마을의 동구태와 모충각 사이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모충각으로 가는 입구에 조금 못 미치는 지역의 언덕에 해당한다. 비의 앞면에는 ‘朝鮮陸地綿發祥之地(조선육지면발상지)’라 새겨져 있다. 앞면의 하단 좌측에는 ‘朝鮮總督宇垣一成書(조선총독우원일성서)’라 새겨져 있다. 비의 우측면에는 ‘昭和十一年 八月建設(소화십일년팔월건설) 棉花獎勵三十年紀念會(면화장려삼십년기념회)’라 기록되어 있다. 비의 뒷면에는 “명치(明治) 37년(1904)에 목포주재 대일본제국 영사 와카마츠 도사부로(若松兎三郎) 씨가 이곳에 처음으로 육지면 재배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비의 조성 년대는 1936년이며, 규모는 높이 187cm, 너비 62cm, 두께 33cm이다. 비문의 정면 글씨는 당시 6대 조선총독이었던 우가키 카즈시게(督宇垣一, 1868~1956)가 쓴 것이다. 비의 뒷면 조성 내력 부분의 글씨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쪼아 내어 훼손시킨 흔적이 남아 있다. 시험 재배는 1904년이지만, 통감부 권업모범장이 설치되어 목화 재배 사업이 본격화 된 것은 1906년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30주년을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지면의 최초 시험 재배 내력은 다음과 같다. 1902년 일본의 목포영사로 부임한 와카마츠 도사부로(若松兎三郎)는 미국의 육지면이 한국의 기후와 토질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1904년 고하도에 처음으로 미국산 육지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1930년에 발간된 『목포사적』에 따르면 ‘최초의 시작지는 고하도 주민 김치민이라는 사람의 밭 2두였다. 이순신 유허비로부터 좀 떨어진 서쪽에 있는 갈고 남은 밭’이 있었다. 고하도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현재 비가 건립되어 있는 장소가 최초 시험재배를 했던 곳이라고 한다.

고하도의 육지면 재배 성공은 목포항이 발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897년 목포는 호남의 곡창 지대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가는 전초 기지로서 주목되었으나, 2년 뒤 군산이 개항되면서 그 역할의 비중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반전시키고, 목포항이 일제강점기 서남권을 대표하는 항구도시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고하도 육지면 시험 재배 성공이 있다. 반면 육지면의 재배는 전형적인 식민지 지배 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식민지 조선을 일본 산

업화에 필요한 원료 공급지로 육성한 것이다. 일제는 조선을 방적업 발달을 위한 원면의 공급지로 만들고, 면화 수입을 위해 유출되는 외화를 줄여 해외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보통 면화 생산지는 기후풍토, 저렴한 토착 노동력, 신속한 운송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남부 지방이 중부 지방보다 면화 재배와 면화 생산에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권업모범장이 남부 지방 특히 전남의 섬 일대에 집중 설치되었다. 생산지가 섬과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포는 자연스럽게 면화의 항구로 발달했다. 고하도에 현존하는 조선육지면 발상지비는 목포가 일제강점기 ‘면화의 항구’로 번성하게 된 계기를 보여주는 유물이며,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탈의 현상이기도 하다.



그림 39 '고하도 조선육지면 발상지' 기념비 전면(좌)과 후면(우)

2. 이훈동 정원

- 소재지: 유달동 4-1
- 시 대: 일제강점기
- 지 정: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65호(1988. 03. 16.)

유달산 남동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1930년대에 목포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우찌다니 만페이[内谷萬平]가 조성한 것이다. 광복 후 해군헌병대에서 관리하다가 해남 출신 국회의원 박기배의 소유물

이 되었다고, 1950년대에 이르러 목포 향토기업인 조선내화 이훈동 회장의 소유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라남도 문화재 등록 당시 면적이 1,365평(4,512㎡)이었으나, 그 후 대지를 확장하여 지금은 실제 평수가 더 늘었다. 일제강점기 목포에 조성되었던 저택과 정원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저택의 경우 내부는 한국적 거실과 서양식 응접실로 개조되었지만 외형은 일본식을 잘 유지하고 있고, 정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보수를 거듭하여 현재 입구 부분과 앞뜰 부분이 변형되었지만 상당 부분이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조경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원은 입구정원, 앞뜰정원, 임천정원,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원은 호남 지방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나무의 종류도 113여 종에 이르기 때문에 난대지방 식물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주목되고 있다. 400여 그루의 관수목을 비롯하여 흑사리나무와 씨앗이 떨어져 자연적으로 성장했다고 전해오는 암수 향나무 등 희귀종의 수종들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정원 안에는 다양한 일본식 석등과 한국식 석탑들도 조경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식 다원정(茶園庭)의 필수 요소인 ‘연못 분수’도 배치되어 있다.



그림 40 이훈동 정원 내부



그림 41 이훈동 정원 조경 모습

3. 오포대

- 소재지: 유달산 내 대학루 옆
- 시 대: 일제강점기
- 지 정: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138호(1987. 01. 15.)

오포대는 유달산 등산로 정자 중 가장 아래 부분에 세워진 대학루 옆에 자리하고 있다. 오포는 ‘정 오포’의 준말로써, 시민들에게 정오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 1909년 4월 1일에 옛 측후소(일명 천기산) 동산에 설치되었다. 당시 목포부청 직원이 정오가 되면 오포를 터트렸다. 오포가 설치되었던 시



그림 42 오포대 현재 모습(대학루 앞)

기에 목포에서는 점심 때면 “오포뒀다 밥 먹으로 가자.”하는 노동자들의 소리와 “오포뒀어 밥줘.”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유행했으며, 시간을 알려면 “오포뒀냐?”라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였다. 나중에 오포가 사이렌소리에 그 기능을 넘겼는데도 여전히 “오포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조선식 선입포가 설치되었다가 1913년에 일본식 대포를 새로 배치하였다. 신·구형 모두 일제강점기 후반에 공출되었고, 오포의 기능은 사이렌이 대신하게 되었다. 현재의 오포는 1988년 목포에 향협회의회의 주관하에 현충사에 있는 천자총통(1609년 제작)과 후대의 차륜식포가를 모방하여 복원한 것이다. 복원된 오포의 규모는 길이 136.5cm, 무게 420kg, 전단구경 120mm, 외경 240mm이다.

4. 목포 감화원 터

- 소재지: 고하도 유달동 262
- 시 대: 일제강점기

감화원(感化院)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소년 범죄자들의 교육을 위한 갱생 시설이다. ‘국립목포학원’으로 불렸다. 고하도 감화원은 국내 두 번째로 인가되어 1938년에 신축 개원하였다. 최근까지 사용된 공생재활원의 일부 시설들이 감화원 부지였으며, 위치상 고하도 용머리 서쪽해안의 목포대교 아래 부분에 해당한다. 감화원 전용 부두로 조성된 부두 시설의 흔적이 있고, 부두 입구에 ‘國立木浦學院(국립목포학원)’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돌기둥이 남아있다. 감화원의 교문과 같은 역할을 한 것

이다. 교문 바로 안쪽에는 석조저수탱크로 추정되는 건물 1동이 남아 있다. 건물지의 내부에는 공생 재활원 건물 우측 뒤편에 일제강점기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폐건물이 남아 있고, 감화원 터 입구 쪽과 마당 쪽에 당시부터 사용했다고 알려지는 우물 2기가 현존한다. 고하도 감화원의 초기 규모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39년 6월 13일자 기사에 상세히 실려 있다. 감화원의 규모는 5만 4천 평, 건물은 4백 평에 교실, 작업장, 기숙사 등을 갖췄다. 아이들은 8세에서 16세까지로 구성되었다. 개원 당시에 수용 인원이 33명인데, 직원이 18명이나 배치 된 것이 독특하다. 명목상은 갱생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 광복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1967년에 공식 폐지되었다. 이후 그 부지에 공생재활원의 일부 시설이 자리하게 되어 2016년까지 이용되었다.



그림 43 목포 감화원 터

5. 유달초등학교 한국호랑이 박제

- 소재지: 유달동 8
- 시 대: 1908년

유달초등학교 본관 복도에 한국산 호랑이 박제가 보존되어 있다.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호랑이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유물로서 가치가 크다. 이 한국호랑이는 1908년 영광군



그림 44 유달초등학교 호랑이 박제

불갑산 기슭에서 한 농부가 사로잡은 것으로 생존지역과 연대가 확실하게 기록된 남한 최후의 호랑이다. 이 호랑이는 몸무게 180kg, 가슴에서 엉덩이까지가 160cm, 앞 발 뒤꿈치에서 머리까지 95cm의 당당한 체구와 황갈색 바탕의 털에 왕(王)자 무늬가 선명한 전형적인 한국호랑이의 특징을 모두 간직하고 있다. 불갑산에서 생포 뒤 당시 논 50마지기 값(200원)에 일본인 하라구치가 사들여 동경 시마츠 제작소에서 표본 박제한 후 당시 일본인들이 다니던 유달초등학교에 기증한 것이다.

6. 목포형무소 합장비

- 소재지: 산정동 산58-2 일원
- 시 대: 일제강점기

산정동 중앙하이츠 후문 위쪽에서 창조교회 뒤편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에 자리하고 있다. ‘독산’으로 불리는 이곳은 일제강점기 목포형무소(일제강점기 목포교도소의 명칭)의 수감자들이 돌을 캐서 석재를 생산하던 채석장이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돌을 흔히 ‘형무소 돌’이라고 하였다. 독산의 서쪽에 목포형무소 시절 합장비가 남아있다. 비의 전면에 ‘합장비(合葬碑)’라고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합장연월(合葬年月)’이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1. 대정 6년 9월 24일(一, 大正 六年 九月 二十四日).
2. 동 9년 9월 24일(二, 同 九年 九月 二十四日).
3. 소화 2년 3월 10일(三, 昭和 二年 三月 十日).
4. 동 8년 4월 30일(四, 同 八年 四月 三十日).

이를 통해 네 차례의 합장한 시기가 1917년 1920년 1927년 1933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합장비 주변에는 묘의 번호를 새겨 놓은 작은 비가 곳곳에 널려 있다. 비 하나하나에는 ‘제35총(第三五塚)’과 같은 형태로 무덤의 번호가 새겨져 있다. 일제강점기에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사망

한 사람들을 화장하여 합장한 흔적이다. 목포교도소가 무안군 일로읍으로 이전해(1989년 11월 26일) 간 이후 옛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합장비의 규모는 높이 105cm, 너비 48cm이다. 아래에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축대가 남아 있다. 가장 상층에 합장비가 있고, 올라가는 길 좌우로 번호가 새겨진 묘비가 좌우 3개씩 세워져 있다. 현재 확인되는 묘비 번호는 10층이 가장 빠르고, 35층까지 있다. 19개가 산재되어 있다.



그림 45 목포형무소 합장비

7. 구 목포부청 방공호

- 소재지: 대의동 2-1 외
- 시 대: 일제강점기
- 지 정: 등록문화재 제588호(2014. 04. 29.)



그림 46 구 목포부청 방공호

방공호(防空壕)는 항공 폭격 등에 대비에 만든 인공동굴이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중요 요지마다 방공호를 만들어 대비하였다. 목포에도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구 일본 영사관 건물 뒤편에 있는 방공호이다. 목포부청으로 사용되던 1940년대 중반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공호를 만드는 작업에는 주로 징병된 한국인들이 동원되었다. 이 방공호는 유달산 노적봉의 뒷자락을 뚫어서 만들었으며, 가운데 출입구 외에도 좌우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 동굴 내부에 해당하는 전체길이는 약 72m정도이며, 중앙통로가 49m 왼쪽이 22m, 오른쪽 통로가 10.8m정도이다. 높이는 2m이고, 폭은 넓은 곳이 3m 30cm가량이다. 2014년 목포부청 시절 건축된 서고와 함께 등록 문화재(지정명칭: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가 되었다.

8. 고하도 방공호 I

- 소재지: 유달동 195-22(고하도)
- 시 대: 일제강점기(1940년대 중엽)

고하도 뒷도랑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그리스도교회 건물 뒤편에 조성되어 있다. 방공호는 전쟁 때 군속에 대피하기 위하여 만든 인공 석굴로 일제강점기 때 징병된 한국인을 동원하여 만들어졌다.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2008년에 조사 보고한 『일제 시기 조선 내 군사 시설 조사』에 수록되어 있는 구술 자료에 의하면 전남 서남해안 군사 시설 구축에 강제동원된 군인들이 이러한 고하도의 방공호를 조성하는데 투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당시 목포에 주둔했던 일본군 병력 가운데 제409특설경비공병대 및 육상근무182중대의 경우 고하도 및 신안 여러 섬들로 파견되어 굴 도착 작업에 직접 혹은 간접 투입되었다. 고하도교회 뒤편 방공호의 규모는 높이 352cm 내외, 넓이 250cm 내외, 길이 약 51m이다. 방공호는 자연 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서쪽에 위치한 방공호Ⅱ와 약 200m정도 떨어져 있다. 이 방공호는 산을 관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반대쪽은 인근 도로 공사 과정에서 매몰되어 현재는 막혀있다. 들어가는 입구는 통로가 작고 내부로 들어가면 훨씬 넓어지는 형태이다. 진입로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 작게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방공호를 기도터로 사용하기도 했었고,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내부에 불을 켤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별다른 용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목포권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조성 방공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그림 47 고하도 방공호 I 의 입구(좌)와 내부(우) 모습

9. 고하도 방공호 II

- 소재지: 유달동 195-21(고하도)
- 시 대: 일제강점기(1940년대 중엽)

고하도 뒷도랑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구 그리스도교회 기도원 전면부 뒤편에 조성되어 있다. 현재 기도원이 사용되지 않고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어 사람 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입구가 1m이내의 높이로 사람이 머리를 숙여서 진입해야 할 정도로 입구 부분을 작게 조성하여 동굴의 위치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입구 바닥에 시멘트를 바른 흔적이 남아있다. 입구에서 10m정도 들어가서 우측으로 급회전하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규모는 높이 340cm 내외, 넓이 220cm 내외, 길이 약 17m 이다. 이 방공호 역시 자연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동쪽에 위치한 방공호 I 과 약 200m정도 떨어져 있다. 군수 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이자 공중 폭격에 대비하기 위한 전시 공간으로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8 고하도 방공호 II 의 입구(좌)와 내부(우) 모습

10. 고하도 군사용 해안동굴 1~14

- 소재지: 달동 산 210-1 외 고하도 해안가 일원
- 시 대: 1940년대 중반

고하도 해안가에는 일제 말엽 군사 작전용으로 조성한 인공 동굴이 남아있다. 현재 총 14곳의 위치가 확인된다. 그 중 11곳은 원형대로 현존하고, 3곳은 상부가 무너져 내려 입구가 막힌 상태이다. 그 외 1곳은 목포대교 건설로 인해 흔적이 사라졌다. 군사용 해안 동굴의 위치는 주로 세 곳에 밀집해 있다. 영산강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고하도 선착장 인근 해안 주변에 9곳이 있고, 나머지 5곳은 용머리 서쪽의 해안가에서 공생재활원 부지 일대에 6곳이 있다.

대부분 ‘ㄷ’자형 형태로 일본 해군의 특공정을 감출 수 있는 위장 시설(병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규모는 전체적으로 폭 5m, 높이 3m 내외이고, 길이는 동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가장 긴 곳이 18m, 짧은 곳이 6m 80cm 정도이다.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고하도 군사용 해안 동굴은 조성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 말기 일본의 군사 작전 지역으로 전남 서해안 일대가 활용되었다. 목포의 고하도, 신안의 자은도와 비금도, 해남의 어불도 일대가 일본에 의해 일본 해군 진지와 군사 시설이 구축되었다. 일제가 전남 서남해안 일대를 전쟁 말기 거점 지역으로 조성한 이유는 필리핀전선과 태평양전선의 연합군이 일본 본토로 진격하는 길목에 제주와 함께 전남 서남해안 일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하도 해안 주변에는 소규모의 갑과 만이 발달해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다. 이런 지리적 특징에 의해 일제 말기 군사 시설이 들어섰고, 일본군의 서해 항로의 군사 요충지 거점 방어와 연합군 군함 등에 대한 자살특공정을 매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2008년에 조사 보고한 『일제 시기 조선 내 군사 시설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전남 서남해안 군사 시설 구축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군인들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체계적인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포나 여수의 큰 학교에 집합되어 7~10일정도 대기하다가 곧바로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적들은 일제 말기 일본이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서남해안을 군사 요충지로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패망 직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시 상황을 상징하는 유적이다. 또한 한국인을 강제 징용하여 군사 시설 구축에 동원한 구체적 실증 유물로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림 49 고하도 군사용 해안동굴

11. 송도신사 터

- 소재지: 송도길 10(동명동 언덕)
- 시 대: 일제강점기

동명동 언덕은 1911년 일본인들이 목포에 조성한 대표적인 신사(神社)인 송도신사와 송도공원이 있던 곳이다. 송도신사는 한일병합 후 일본인들이 그들의 거점 도시 중 하나인 목포에 성대한 규모를 갖추고 조성한 신사로 1911년에 건립된 것이다. 송도는 원래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송도(松島)라고 불리던 작은 섬이었다. 표주박 모양의 작은 섬으로 주변에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1910년부터 일본인들이 이곳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뱃나무를 심은 뒤 정상부에 송도신사(松島神社)를 만들어 조선인들에게 강제 신사 참배를 하게 했던 곳이다. 신사와 공원이 만들어 진 후 점차 주변이 매립되면서 현재는 육지가 되었고, 신사가 있었던 곳에는 현재 민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광복과 동시에 신사



그림 50 송도신사 옛 석조기둥 흔적

와 관련된 유적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건물 1동(종무소)과 계단, 돌기둥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 신사 관련 건물 1동은 광복 후 고 최마룡(일명 최병인, 당시 북교성결교회 집사)이 인수하여 교회 건물로 사용하였다. 현 상락교회 전신에 해당하며, 당시에는 동명동 교회로 불렸다.



그림 51 일제강점기 송도신사 풍경



그림 52 송도신사 터 일본식 건물

12. 도하신사 위패

- 소재지: 유달산 일등봉 손가락 바위 아래
- 시 대: 일제강점기

유달산 마당바위의 우측 아래에 남아 있다. 바위 면에 위패모양이 조각되어 있고, 가운데 8자의 글씨가 ‘墨一祭〇〇大明神(묵일제〇〇대명신)’ 새겨져 있다. 그 아래에 ‘昭和 六年 二月初(소화 6년 2월 초)’라는 건립시기가 새겨져 있어 1931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주변에는 이 위패를 시주한 사람의 출신 지역과 이름이 적혀있다. 윗부분 조각상이 파손되어 있고, 가운데 글씨 부분에는 훼손되어 있다. 도하신사(稻荷神祀)는 곡식을 관장하는 신으로 모신 것이며, 여우를 제신으로 모시는 신사로 알려져 있다.



그림 53 도하신사 위패

13. 유달산신사 위패 암각

- 소재지: 유달산 일등봉 아래(부동명왕상 우측)
- 시 대: 일제강점기

유달산 일등봉 경사면 홍법대사상과 부동명왕상 사이 ‘儒達山神(유달산신)’이라는 글자가 암각되어 있다. 일본인들이 1931년 무렵 유달산 일등봉 아래에 설치한 도하신사와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원래는 ‘儒達山神社(유달산신사)’ 다섯 글자였는데 마지막 ‘사(社)’자가 지워진 채로 남아 있다. 광복 후 한국인들에게 의해 마지막 글자가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1932년에 발간된 『목포사진첩』에 실린 사진에도 마지막 글자가 지워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유는 알 수 없으나, 광복 이전에 지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4 유달산신사 위패 암각

제6절 종교 유적

1. 석탑

1) 북교초등학교 5층석탑

- 소재지: 수문로 83
- 지 정: 목포시 문화유산 13호(2012. 5. 21.)

목포북교초등학교 본관 건물 뒤편 교정 내에 자리하고 있다. 목포북교초등학교는 1897년 무안읍 향교 양사재를 토대로 ‘무안공립소학교’로 창설 개교했고, 1901년에 목포의 현 위치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본관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5층 석탑은 조성 연대와 유래는 명확하지 않으나 학교의 역사 이상으로 오래된 문화 유적으로 보인다. 현재 석탑은 기단부인 상·하지대석, 4층의 옥개석, 상륜부의 노반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기단부와 탑신, 그리고 상륜부가 균형이 없으며, 여기저기 시멘트로 접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흩어져 있던 탑재를 비례에 맞추어 조립해 놓은 듯하다. 석재는 지대석 일부가 탑신과 약간 차이가 있다. 기단부는 하대저석이 2개의 돌로 되어 있고, 길이는 가로 136cm, 두께는 15cm이다. 하대저석 위에 하대갑석과 하대중석이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형태만 양각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대갑석의 크기는 107cm, 두께는 23cm이며, 하대중석에는 우주(隅柱, 모퉁이 기둥) 2개와 탕주(撐柱, 버팀목)가 양각되어 있다.



그림 55 북교5층석탑

2) 이훈동 정원 석탑

● 소재지: 유달동 4-1

이훈동 정원 내 출입구 우측 옆에 자리하고 있다. 이 석탑의 조성 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구전에는 무안군의 어느 암자에서 옮겨왔다고 전해온다. 외형상 3층 석탑이다. 원래 석탑의 소재는 기단부와 1층 탑신, 1층 옥개석이 해당되고, 나머지 2층과 3층 탑신과 상륜부는 다른 자재를 혼합하여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 석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부는 두 개의 갑석(상대갑석과 하대갑석)과 갑석부연(甲石副椽), 2개의 우주(隅柱)가 장식되어 있다. 석탑의 규모는 지대석의 너비 210cm, 두께 152cm, 기단부는 넓이 173cm, 두께 15cm, 1층 탑신은 너비 65cm, 두께 60cm이다.



그림 56 이훈동정원석탑

2. 불상

1) 달성사 목조 지장보살반가상(地藏菩薩半跏象)

● 소재지: 유달로 173(달성사 명부전)

● 지 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29호(2000. 12. 13.)

유달산 달성사 명부전 안에 본존으로 모셔져 있으며, 반가의 좌형을 취한 목조 지장보살상 좌우에 시왕과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시왕상의 복장에서 조성발원문 및 중수발원문이 발견되었다. 이 기록을 통해 1565년(명종 20)에 전라도 나주 운흥사에서 조성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1950년대 6·25의 혼란기에 운흥사에서 현 위치로 옮겨왔다고 한다. 달성사의 지장보살상은 나무를 재료로 만들어 졌으며, 우측 다리를 밑으로 내리고 좌측 다리만 가부좌를 한 반가 상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고려 말로 추정되는 광양 중흥사 석조지장보살상과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불 중 우측 지장보살 등의 몇몇 예에서만 볼 수 있는 드문 경우이다. 지장보살상의 실측크기는 총 높이 141cm, 좌상고 110cm, 두고 23cm이다.

달성사의 목조지장보살상과 목조시왕권속상 등은 각부의 조각이 세련되고 단아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조성 연대가 뚜렷하게 전해 오고 있음이 주목된다. 목조로 된 지장보살로서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예를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조선 시대 전기의 조각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목불이라 할 수 있고, 더욱이 10명의 시왕상과 판관, 사자상이 모두 일괄로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 현재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 제229호 지정되었다.



그림 57 달성사 목조 지장보살반가상

2) 달성사 목조 아미타삼존불(阿彌陀三尊佛)

- 소재지: 유달로 173(달성사 극락보전)
- 지 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28호(2000. 12. 13.)



그림 58 달성사 목조 아미타삼존불

유달산 달성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다. 중앙에 아미타여래좌상을 모시고 그 좌우에 관음보살좌상(觀音菩薩坐像)과 대세지보살좌상(大勢至菩薩坐像)을 배치한 삼존불(三尊像)이다. 대세지보살의 복장에서 1958년 개금불사와 이 삼존불에 대한 이동 경위가 상세하게 기록된 기문(記文)이 발견되었다. 이 복장기에 의해 1678년(숙종 4)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삼존불은 고려 시대 후반 백련결사를 일으켰던 만덕사 백련사에서 조성된 것이며, 개금불사기문에 따르면 1946년 백련사에서 완도군 고금면 옥천사(玉泉寺)로 옮겨갔다가 그 뒤 당시 달성사 주지 상봉스님의 발원에 의해 옥천사에서 옮겨온 뒤 1958년에 개금불사를 마치고 현 위치에 봉안한 것이다.

이 삼존불은 목조로 조성되었으며, 본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은 결가부좌하고 동체가 단정하다. 본존불의 실측 크기는 총 높이 124cm, 두고 43cm, 어깨폭 57cm이다. 달성사의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은 각부의 조각이 완전하며 흔하지 않은 목조불상으로 조성 연대가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어 조선 후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 불상은 연대와 조성 장소가 명확하게 들어나는 17세기 후반의 목

조 불상으로 전라남도 내에서 몇 안 되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아 현재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 제228호로 지정되었다.

3) 보광사 석조미륵불좌상

- 소재지: 죽교동 280(보광사 대웅전)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8호(2012. 05. 21.)



그림 59 보광사 석조미륵불좌상

보광사는 유달산 달성공원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1930년에 발간된 『목포부사』 기록에 의하면 1928년 10월 30일 박운계(朴雲溪)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 석조미륵불좌상은 보광사 법당 안에 석조 원각불 형태의 주 존으로 봉안되어 있다. 유달산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바위를 깎아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목포 원로들에게 전해오는 구전에 따르면 난포(다이너마이트)를 터서 바위를 깎은 후 불상을 조각해 나간 것이라고 한다. 암반을 그대로 이용해 불상을 조성한 독특한 사례로 가치가 있으며, 유달산에 남아 있는 불교 유적 중 목포 신도들에 의해 조성된 사례로 주목된다.

보광사 석조미륵불좌상은 금용(金蓉) 일섭(日燮, 1900~1975)에 의해 1949년에 제작한 것이다. 일섭은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불교 미술의 대가로 불화·불상·단청 등 각 분야에 매우 뛰어났고, 전국의

사찰에 수많은 작품을 남겨 현대 불교 미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남긴 인물이다. 일섭은 자신의 평생 작업 일지를 일기 형식의 『연보(年譜)』로 남겼는데, 이 기록에 목포 보광사 석조미륵불좌상을 1949년에 만든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4월부터 5월 중 전남 목포 보광사에 돌로 6척 높이의 미륵좌상을 만들다. 주지는 만성스님이고 화주는 차보살이며 석공은 2인이다.” 미륵불이 봉안했기 때문에 법당의 명칭이 오랫동안 ‘용화전’이었다. 현재는 현판이 ‘대웅전’으로 교체되어 있다. 광복 이후 조성된 것이지만 기법상 조선 후기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석조 불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유달산팔십팔소영장(儒達山八十八所靈場)

- 소재지: 유달산 일원
- 시 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유달산에 88개의 불상을 세우고, 이를 ‘儒達山八十八所靈場(유달산팔십팔소영장)’이라 불렀다. 이는 흥법대사의 생애와 관련이 있다. 그는 중국유학 후 일본 시코쿠 지역을 순례하며 88개의 사찰을 세우거나 중흥시켰는데, 이곳은 지금도 일본 불교신자들의 수행코스이자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목포에 살던 일본인들은 이를 축소 재현하여, 사찰대신 88개의 불상을 유달산에 조성한 것이다. 유달산 등구에서 일등봉 이등봉 일대까지 고르게 불상을 배치하였다.

유달산에 세워진 88개 불상의 크기는 1m 내외이다. 받침 부분에 일일이 번호를 새겨 놓았고, 번호 밑에 그 불상을 시주한 일본인의 이름과 현재 거주지, 일본 내 출신지를 표기하였다. 시주자 이름을 보면 목포에 살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강진 영암 해남을 비롯해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이름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불상은 외부에서 제작한 후 유달산 바위 위에 고정시켜는 형태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목포에 세워진 불상들의 석재는 일본의 잣돌(화산석)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유달산의 88개 불상을 순례하고, 맨 마지막에 흥법대사상을 참배하였다. 1932년 발간된 목포 사진첩에 관련 사진이 실려 있다. 이 88개의 불상들은 광복 후에 종교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모두 파괴되거나 도굴되었다. 현재는 불상이 세워져 있던 터만 유달산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유달산에 조성된 88불 가운데 일부가 타 지역 사찰이나 개인 사찰 등에 보존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광복 후 일제 잔재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유달산 마당바위 아래에서 수습한 22번 불상이 목포문화원에 보관되어 있다.



그림 60 팔십팔영장비



그림 61 유달산 팔십팔소영장 중 일부

3. 암각

1) 홍법대사상

- 소재지: 유달산 일등봉 손가락 바위 아래
- 시 대: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의 상징인 홍법대사상은 유달산 일등봉 손가락 바위 아래쪽 경사면에 조각되어 있다. 우측으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부동명왕상이 있다. 조성 시기는 1931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개항 이후 목포에는 전통적인 한국불교보다 일본 불교가 더 빠른 시기에 다수 유입되었는데, 그 중 하나로 ‘진언종’이다. 유달산에 새겨진 홍법대사는 일본 진언종의 개조로 이름은 공해(空海), 홍법(弘法)은 법명이다. 774년에 태어나 835년에 열반하였는데, 20세에 출가하여 중이 되었으며 804년 30세 되던 해에 중국 당나라에 건너가 수행하였다. 806년에 귀국하여 불법을 전해 일본 불교의 선각자로 칭송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 서민들에게 특히 친숙하고 존경받는 승려이다. 바위 면에 조각되어 있는 모습은 홍법대사가 의자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홍법대사 좌측에 ‘홍법(弘法)’, 우측에 ‘대사(大師)’라고 새겨져 있으며, 의자의 아래 부분에 신발, 병 등이 조각되어 있다. 오른손에 금강오고저(밀교의 일반적인 법구)를 왼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다.



그림 62 홍법대사상

2) 부동명왕상

- 소재지: 유달산 일등봉 손가락 바위 아래
- 시 대: 일제강점기

부동명왕상(不動明王像)은 유달산 일등봉 손가락 바위 바로 아래 경사면에 조각되어 있다. 철퇴를 들고 있는 모습 위에 ‘不動明王(부동명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조성 시기는 1931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부동명왕은 밀교의 중심적 부처이다. 홍법대사가 안치된 곳에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홍법대사가 중국에서 유학하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이 부동명왕이 대사의 항해 안전을 지켜줬다는 설화가 전한다. 이로 인해 홍법대사가 모셔져 있는 곳에는 부동명왕상이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63 부동명왕상

3) 유달산 미륵불 암각

- 소재지: 죽교동 317-3(유달산)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9호(2012. 05. 21.)

미륵불은 달성사에서 유선각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중간의 바위에 조성되어 있다.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13m의 바위 절벽에 조성되어 있다. ‘彌勒佛(미륵불)’ 글자를 양각으로 새겨 놓았다. 미륵불 좌측에는 ‘大勢至菩薩(대세지보살) 南無阿彌陀佛(나무아미타불)’, 우측에는 ‘觀音菩薩(관음보살) 世尊應化 二九五二年乙丑四月(세존응화 2952년 을축 4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달성사 극락보존에 모셔진 아미타삼존불을 글씨로 새겨놓은 형태이며, 조성 시기는 1925년 을축년 4월이다. 이때는 달성사가 창건(1915년 4월)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달성사의 창건 주지인 노대련 선사가 창건 1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쪽 바위 면 좌측에 ‘創建主坐禪臺大蓮(창건주좌선대대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노대련 창건주가 좌선하던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미륵불 하단에 ‘만(卍)’이 좌우방향이 바뀌어 새겨져 있는 것이다. 한편 미륵불로 올라가는 바로 아래쪽 등산로 바위 면에는 ‘心本(심본)’이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4) 유달산 마애불

- 소재지: 죽교동 산 42-2(유달산)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7호(2012. 05. 21.)

마애불(磨崖佛)이라 불리는 이 유적은 마당바위 밑에서 소요정으로 가는 오솔길의 중간 정도에 자리하고 있다. 소요정 아래 첫 번째 내리막길에서 마당바위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야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이 다니는 오솔길 옆에 딱하니 버티고 있는 커다란 바위에 높이 370cm, 너비 160cm 크기로 조각되어 있다. 부드러운 미소에 머리에는 관을 쓰고 손에는 구슬을 들고 있다. 유달산에 남아 있는 불교 관련 유적 중에 가장 한국적인 느낌의 유적이다. 유달산이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바위산이라 대부분의 등산로도 바위로 되어 있고, 때문에 그 느낌이 조금은 날카롭다. 반면 마애불은 한적하고 고요한 오솔길에 자리하여 편안한 느낌을 전다. 다만 조성 시기가 정확치 않다. 고 손양동의 증언에 의하면 광복 이후 석공들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전한다.



그림 64 유달산 미륵불 암각



그림 65 유달산 마애불

4. 사찰

1) 달성사(達聖寺)

● 소재지: 죽교동 317

달성사는 목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유달산의 동남쪽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양산 통도사 출신으로 알려진 노대련(盧大蓮) 선사(禪師)에 의해 1915년 4월 8일 세워졌다. 본래 해남 대흥사(大興寺)의 포교당으로 창건되었다.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인 목조지장보살상과 목조아미타삼존불 등 많은 불교 문화재를 지니고 있는 한국 전통사찰 69호이다.



그림 66 달성사 극락보전

2) 반야사(般若寺)

● 소재지: 열린길 25(죽교동 193-1)

유달산 아래 죽교3동 주민센터의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의 명칭은 백양사포교당(白羊寺布教堂)이고, 일명 영명사(永明寺)라 했다. 1918년 10월 6일 영광불갑사(靈光佛甲寺)의 주지 송혜은(宋慧恩)이 개설했던 곳이다. 그 후 대한불교 조계종(曹溪宗)에 속하게 되었으며 사호(寺號)를 '반야사'라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부전에 근현대 불교 미술의 대가인 일섭이 1946년 제작한 지장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그림 67 반야사 대웅전

3) 관음사(觀音寺)

● 소재지: 죽교동 189(조각공원 내)

조각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이다. 관음사는 원래 1855년 무렵 산신당(山神堂)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그 후 김파월(金把月) 주지에 의해 사찰(寺刹)의 면모를 갖추고 관음사로 칭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다.



그림 68 관음사 대웅보전

4) 학암사(鶴庵寺)

● 소재지: 유달로 101번길 12(온금동 산2)

유달로 둘레길에 속한 유달로101번 길에 자리하고 있다. 1946년 진(陳)씨가 토굴(土窟)로 창건했다고 전해온다. 이후 1971년 문수암(文洙庵) 문연(文蓮) 스님이 대웅전을 신축하면서 사찰로 자리를 잡았다. 대한불교 법화종(法華宗) 72호(1963년 7월 1일)로 등록되었다. 사찰 입구에 ‘창건공덕비(創建功德碑)’, ‘고창설주진씨법화행비(故創設主陳氏法華行碑)’, ‘관옥대화상공비(官旭大和尚功德碑)’가 세워져 있다. 유달산 둘레길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수원지 뚝방길을 지나 유달산 휴게소로 가는 도중에 학암사가 있다.



그림 69 학암사 대웅전



그림 70 해봉사 전경

5) 해봉사(海峯寺)

● 소재지: 온금동 1

유달로에서 노적봉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의 좌측 언덕위에 자리하고 있다. 목포항을 바라보고 있는 해봉사는 1940년 3월20일 최학송(崔鶴松) 스님이 창건하였다. 최학송 스님은 장성백양사(長城白羊寺)의 승려로 동안거(冬安居)에 정진하고 있던 중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밝아지면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목포 유달산 중턱에 법당을 창건하고 포교하면 많은 불자가 운집하고 또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목포 시민이 액운을 면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계시가 있어 즉시 백양사를 떠나 목포로 옮겨와 현재의 위치에 해봉사를 세웠다.

5. 민속신앙

1) 고하도 탕건바위

- 소재지: 유달동 산 2145 임내 중턱
- 시 대: 조선시대

탕건바위는 고하도 사람들이 가뭄에 비가 내리기를 소원하며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던 곳이다. 그 생김새가 사람 머리위에 쓰는 탕건을 닮았다고 해서 ‘탕건바위’라고 불리게 되었다. 고하도에서 언제부터 기우제를 지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충무공 이순신이 고하도에 수군진을 축조하였던 1597년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고하도 탕건바위 기우제는 1970년대 민속학자 최덕원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기우제라는 특성상 마을 주민의 민속 의례로서는 그 전승은 단절되었으나, 목포문화원에 의하여 1993년 10월 민속 예술 놀이로 재현되면서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탕건바위는 옛 고하도 기도원 건물(유달동 195-21) 우측으로 나와 있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산 중턱으로 5분~10분 정도 올라가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폐건물들이 있는 사이 조그마한 오솔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개인 무덤이 있는 공터가 나온다. 이 무덤의 좌측 상부에 탕건바위가 자리하고 있다. 탕건바위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규모는 둘레 512cm, 가로 176cm, 최대 높이 175cm, 세로 120cm이다. 고하도 탕건바위는 목포 지역 민속 의례의 실제 현장을 보여주는 매우 희소성 있는 유적이다.



그림 71 고하도 탕건바위

2) 다순구미 산제당 터 및 축대불망비

● 소재지: 온금동 산7-1 일원

유달산 자락에 형성된 온금동(溫錦洞) 일대에는 다순구미 산제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다순구미’란 따뜻한 지역이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로 온금동 지명의 유래이기도 하다. 다순구미 산제는 유달산 산신을 제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산제를 모시는 곳은 마을 뒤 산제당이었다. 현재는 그 터와 축대만 남아 있고, 축대 아래에는 축대 중수와 관련된 2기의 작은 비가 세워져 있다. 이 중 우측의 비는 축대를 세운 온금동 주민 송옥산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전면에 ‘宋玉山築台不忘碑(송옥산축대불망비)’라고 새겨져 있고, 좌측의 비에는 ‘特別贊助者芳名碑(특별찬조자방명비)’라는 제목과 관련 인물 5인의 이름(姜重益, 李萬實, 李勳東, 金日涉, 金朱△)이 새겨져 있다. 비에 건립 년대가 ‘丁酉 六月 告日(정유 6월 고일)’이라고 새겨져 있어 1957년 6월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木浦市 溫錦洞 山祭堂 改築 推進委員 一同 建立(목포시 온금동 산제당 개축 추진위원 일동 건립)’이라고 새겨져 있다. 산제당이 1957년에 개축된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는 적어도 산신제가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구전에 의하면 1970년대 말경 미신타파의 이유로 제당이 헐리고 산제가 중단되었다.



그림 72 다순구미 산제당 터 및 축대불망비

6. 기타

1) 달성사 범종(梵鐘)

달성사 극락보전에 보존되어 있다. 종에 새겨진 각명(刻名)을 통해 이 종의 조성된 시기와 목적을 알 수 있다. 한쪽 면에 ‘乾隆五三丙午七月〇日 海南大屯寺挽日庵 中鍾一百斤(건륭53병오7월〇일 해남 대둔사 만일암 중종1백근)’이라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主上殿下 壽萬歲(주상전하 수만세)’라 새겨져 있다. 1788년(정조 12)에 정조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 대흥사 만일암에 시주된 것이다. 범종을 만든 사람은 백흥적(白興積), 김중명(金重明)이라 되어 있다. 정상에는 용모양과 음통(音筒)이 정교하게 조각되었으며, 용의 입에는 여의주를 머금고 있고, 그 뒤쪽에는 역린(逆鱗)이 선명하게 표현되었다. 실측크기는 총 높이 74cm, 종신고 58cm, 직경51cm이다. 이 범종은 달성사의 창건주였던 노대련 선사가 해남 대흥사의 만일암(挽日庵)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온다. 또한 이 종은 목포팔경(木浦八景) 중 하나인 ‘달사모종(達寺暮鐘)’과 관련되어 있는 유서 깊은 유물로서 그 보존가치가 높다.



그림 73 달성사 범종

2) 달성사 나무아미타불비

달성사(達聖寺) 아래에는 변형된 삼층석탑(三層石塔) 형태의 기념물이 하나 서 있는데, 구도(求道)를 목적으로 1921년에 세워졌으며 일명 ‘미타탑’이라 불린다. 탑의 측면에는 달성사를 지을 때 부지를 기부하고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비면에는 ‘南無阿彌陀佛(나무아미타불)’이라 새겨져 있다. 규모는 높이 187cm·너비 93cm 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석탑이라기보다는 시주한 사람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의미의 기념물 성격이 강하다.



그림 74 달성사 나무아미타불비



그림 75 달성사 노대련 대선사 창공비

3) 달성사 노대련 대선사 창공비

- 소재지: 죽교동 317 달성사 경내
- 시 대: 1946년

달성사 극락보전의 왼편 빈터에 옮겨 세워져 있다. 달성사 창건주인 노대련 선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로 1946년 10월 15일 세운 이 비에는 ‘創建主盧大蓮大禪師彰功碑(창건주노대련대선사 창공비)’라 새겨져 있다. 비의 높이는 291cm, 너비 60cm이다.

4) 현기봉 영세불망비

- 소재지: 죽교동 317 달성사 경내
- 시 대: 1923년

달성사 경내로 들어가는 초입 계단의 왼쪽에 ‘달성사중수공덕비’와 함께 나란히 세워져 있다. 비의 앞면 위쪽에 ‘七星閣 獨建築(칠성각 독건축)’ 정중앙에 ‘玄基奉永世不忘碑(현기봉영세불망비)’ 왼쪽에 ‘子 俊鎬(자 준호)’라 새겨져 있다. 비의 뒷면 중앙에 ‘世尊降生二九五癸亥四月八日(세존강생 295 계해 4월 초8일)’, 아래에 ‘化主 盧大蓮 同參信徒(화주 노대련 동참신도)’라 새겨져 있다. 달성사를 후원했던 현기봉이 칠성각을 건립해준 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당시 달성사 주지 노대련과 신도들이 세운 것이다. 비문 중 ‘世尊降生二九五(세존강생295)’는 ‘世尊降生二九五十(세존강생2950)’의 잘못으로 보인다. 비의 규모는 높이 100cm, 너비 39cm이다.



그림 76 현기봉 영세불망비와 달성사 중수공덕비

5) 달성사 중수공덕비

- 소재지: 죽교동 317 달성사 경내
- 시 대: 1947년

달성사 경내로 오르는 초입계단의 왼쪽에 ‘현기봉영세불망비’와 나란히 서있다. 비의 정면에 ‘達成寺重修功德碑(달성사중수공덕비)’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시주자들의 명단이 기록돼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13cm, 너비 36cm, 두께 14cm이다.

6) 도현화상 송덕비

- 소재지: 죽동 226-1 정광정혜원 내

1917년 일본인들이 세운 ‘흥선사’ 초대 주지 도현화상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송덕비이다. 비에 ‘當山一世道賢和尚頌德碑(당산일세도현화상송덕비)’라 새겨져 있다. 흥선사는 현재 정광정혜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77 도현화상 송덕비

7) 유달산 산왕대성전터

- 소재지: 죽교동 산 42-2 일원(유달산 일등봉 아래)
- 지 정: 목포시문화유산 제3호(2012. 05. 21.)

유달산 일등봉쪽에서 이등봉쪽으로 내려가다가 왼편으로 나있는 셋길로부터 30여미터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고하도와 목포 해양대를 바라볼 수 있는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형태의 작은 공터이다. 흔히 ‘대성전 터’라고 불리는 이곳의 바닥면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던 주춧돌의 흔적이 남아 있다. 두 개의 암각상과 3개의 암각 글씨가 있다. 정면 중앙부 바위 면에 ‘山王 大聖殿(산왕 대성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있고, 왼편 바위면 두 곳에는 그 내력이 알려지지 않은 암각상들이 새겨져 있다. 얼굴 부분이 훼손되어 전체적인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신상의 모습으로, 도교적인 색채와 민간 신앙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암벽 한쪽에는 ‘五方神位(오방신위)’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인근 바위에 는 기자성혈의 흔적들이 보인다. ‘산왕 대성전’이라고 새겨진 바위의 우측 중앙에는 ‘南無此山局內恒住大聖(나무차 산국내항주대성)’이라 새겨져 있고, 글씨의 좌우로 ‘山王 大神(산왕 대신)’이 새겨져 있다. 이 글귀는 산신청(山神請)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산왕 대신은 불교에서 절이 있는 산을 지키는 신장(神將)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흔적을 보면 유달산에서 산신제를 지내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산왕 대성전 터의 좌측 암벽에는 목포에 드나드는 배들이 지나는 목포 앞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암각상이 있어 바다 생활과 관련하여 안전과 풍어를 비는



그림 78 산왕대성전터 암각



그림 79 산왕대성전터 전경

신앙처 기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 도교, 민속 신앙의 흔적이 혼합되어 있는 장소 성격이다. 다만 일본인들이 1931년 무렵 유달산에 조성한 도하신사(稻荷神社)와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곳이다. 산신제와 관련된 민간 신앙의 장소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신앙행위가 접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우측 지면에는 아래로 연결되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래쪽에 ‘향천정(香泉井)’이라는 샘이 조성되어 있다. 향천정이 조성된 장소는 작은 동굴의 형태를 나타내며, 동굴 상부를 받치는 형태의 기둥 2기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세워져 있다. 누군가 수도하는 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왕 대성전 터로 넘어오는 바위 위에는 자연적인 바위 덩어리를 해태상처럼 조각해 놓은 것이 있다. 입구 수호신 역할을 하는 조형물로 판단된다.

제7절 자연환경 유적

1. 목포 갯바위

- 소재지: 용해동 86-24번지 인접해역
- 지 정: 천연기념물 제500호(2009. 04. 27.)

목포 갯바위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영산강 하구에 위치해 풍화 작용과 해식 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풍화혈(風化穴, tafoni)의 일종이다. 사람이 갯을 쓰고 있는 형태이며, 약 5m정도 되는 타원형 모양이다. 갯바위는 해식 작용과 풍화 작용의 영향으로 암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를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크다. 표면의 모자 모양의 덮개와 벌집 모양의 홈들은 바닷물에 의한 침식의 결과이다. 갯바위가 있는 곳은 응회암이 영산강 하구와 맞닿은 위치에 있다. 이곳의 물은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곳으로서 물의 성질은 바닷물이나 다름없다.

그림 80 목포 갯바위



갯바위에 파도가 치거나 안개가 끼게 되면 그 표면이 염분을 함유한 수분에 젖었다가 마르게 되고, 수분에 용해된 일부 성분 중 실리카 성분이 암석 표면으로 이동된 후 거기에 침전되면서 딱딱한 표피가 형성되었다. 용해된 부분은 조직이 이완되어 강도가 낮아지면서 쉽게 풍화되어 구멍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작용이 오래 계속 반복되어 현재와 같이 바위 위쪽의 모자 모양의 경질부와 그 아래쪽의 움푹 패인 벌집 모양의 풍화혈이 형성되었다. 바위 위쪽 갯 모양의 부위가 동쪽 내지 남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이것의 형성 과정에 햇빛이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지시한다. 목포 해안 갯바위는 인위적 요인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해역의 풍화환경에서 자연적인 과정으로 빚어진 풍화혈 상태의 자연 조각품이며 다른 지역 풍화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갯바위에는 ‘효성스런 청년’과 관련된 아름다운 전설이 담겨있어 지역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문화자원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

2.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동지화석

- 소재지: 남농로 135(목포자연사박물관)
- 지 정: 천연기념물 제535호(2012. 06. 27.)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룡알동지 화석으로 2009년에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도의 압해대교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2012년 6월 27일에 천연기념물 제535호로 지정되었으며,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옮겨져 보존처리 및 정밀 복원된 후 지금은 상설 전시되고 있다. 규모는 동지 지름이 2.3m, 높이 60cm, 무게 3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알동지 화석이다. 동지 안에 공룡알 19개가 있으며, 알 개체의 크기는 지름 385~430mm에 이르러 알의 크기도 국내 최대로 평가되고 있다. 두 개의 알 화석이 쌍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어미 공룡으로부터 나온 점액에 의해 알이 달라 붙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화석은 백악기 후반부 육식공룡의 고생물 지리적 분포 특성, 산란 습성, 서식 환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당시 이 지역은 공룡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던 호수 환경이었는데 호수 퇴적층 내에 공룡의 흔적 화석이 잔존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형성 당시 이 지역은 중국과 육지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식하는 공룡의 종류 역시 비슷하여 다른 지역보다 중국의 공룡알 화석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

3. 고하도 송지암 구릉지

● 소재지: 달동(고하도길 91) 충무분교 구릉지

충무분교 인근 구릉은 송지암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송지암은 흑갈색에서 흑색을 지니고 수지상(樹脂狀) 광택을 보이는 유리질 암석이다. 색과 조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흔히 흑요석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고하도 송지암 생성원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만 년 전후하여 함수층을 관입하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주의 함수층으로부터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 특수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수지상 광택을 보이는 송지암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출 양상으로는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노출된 평면 면적으로 가정할 경우 약 2,000㎡ 미만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노출된 송지암 표면은 수목으로 덮여져 있기도 하고, 수목 없이 노출된 면적은 오랜 풍화에 의해 흑갈색 수지상 표면이 지의류 등에 의해 멀리서 육안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근접해서 볼 경우 송지암의 특성이 확인이 된다.

고하도 송지암은 중생대 백악기 이후 조산 활동 등 지구조 변동에 대한 중요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구석기 시대 인류의 석재 활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도구를 사용되었으므로 그 산지 또한 매우 인문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영암 삼호읍 방면에서 2개소 정도가 단지 맥상으로 산출되거나 경계부가 변성되어 있어 송지암 특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반면에 목포시 고하도 송지암은 구릉지를 이루며 옥천 습곡대를 따라 중생대 백악기 후기와 제3기 초기에 걸쳐 화성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고하도 송지암은 독특한 수지상 광택 특징과 전형적인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낸다. 국내적으로도 송지암이 구릉지를 이루며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대규모로 위와 같은 특징으로 산출되는 곳이 매우 드물다. 고하도 송지암은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큰 자연 유산이다.

4. 목포북교초등학교 느티나무

- 소재지: 수문로 83(북교 교정)
- 지 정: 목포시 문화유산 12호(2012. 05. 21.)

목포 북교초등학교 본관 좌측에 자리하고 있는 느티나무이다. 목포북교초등학교는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1901년에 현 위치로 이전해 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북교초등학교의 교목이자 상징이다. 목포 북교동은 남교동과 함께 '쌍교촌'으로 불리며, 목포가 개항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이다. 북교초등학교의 나무는 북교동 사람들의 당나무와 같은 존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포북교초등학교는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교육 기관이고, 조선인을 위한 교육 기관을 목포 개항과 함께 설립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 등을 배출한 목포 교육사의 산실이다. 현재 학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은 이 느티나무가 유일하다. 수령은 약 150년 내외, 수고 14m, 흉고직경은 장축 110cm, 단축 70cm이다. 수령에 대한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림 81 목포북교초등학교 느티나무

5. 반야사 느티나무

- 소재지: 열린길 25(죽교동 193-1)
- 지 정: 목포시 보호수 15-01-13-01(2015. 07. 24.)

유달산 아래 열린길 25번길에 자리잡고 있는 반야사 경내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반야사는 백양사 포교당(白羊寺布教堂), 일명 영명사(永明寺)로 1908년 문을 연 목포 최초의 사찰이다. 이 느티나무는 반야사 경내 담장에 자리하고 있다. 수령은 2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며, 수고는 16m, 나무둘레는 3.0m이다. 2015년 7월 24일 목포시 보호수로 지정되어있다.



그림 82 반야사 느티나무

6. 달리도 팽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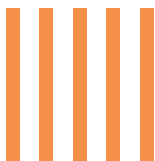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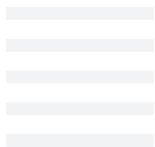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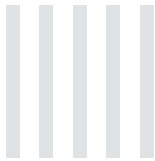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 소재지: 달동 514(달리도)
- 지 정: 목포시 보호수 15-1-12-01(2015. 07. 24.)

달리도(達里島)는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1962년 11월 21일 공포)로 무안군 이로면에서 목포시에 편입되면서 허사도, 달리도, 외달도, 눌도, 장좌도와 함께 충무동에 편성되었다. 이후 행정 구역 개편을 거쳐 2006년부터는 유달동에 속해있다. 섬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섬 모양이 반달모양과 같다하여 달도라는 설이 있으며, 유달산의 달자를 따서 달리도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14세기에 청주한씨(淸州韓氏)가 달리도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400여 년을 살다가 떠나고 이후에 영양천씨(潁陽千氏), 김해김씨(金海金氏), 광산이씨(光山李氏), 전주이씨(全州李氏) 등이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달리도 팽나무는 마을의 오래된 역사를 상징하는 노거수로 달리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당산 나무로 모셔왔다. 현재는 당제가 중단되어 주민들의 쉼터 및 피서지 역할을 하고 있다. 수령은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수고 15m, 흉고둘레 3.5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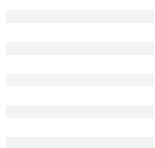
그림 83 달리도 팽나무

최성환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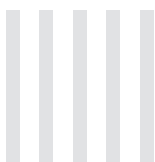
제1절 목포 근대건축의 성립과 발전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2절 주거 건축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3절 공공 건축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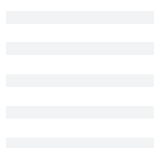
제4절 학교 건축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5절 종교 건축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6절 금융·상업 건축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2장 근대 건축

제1절 목포 근대건축의 성립과 발전

1. 개항과 근대건축

서구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8세기 중엽 이후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새로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수공업 체제의 산업이 대량 공장생산의 체제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1851년의 영국 만국박람회, 1889년의 프랑스 만국박람회, 1893년 미국 시카고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각 나라가 새로운 공산품과 신기술을 홍보하는 등 확고한 근대 산업사회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즉 19세기 세계 주요 국가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한 과정에서 건축에도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했고 철과 유리 같은 재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영국 박람회의 주 전시관이었던 수정궁,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운 파리의 에펠탑, 그리고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등은 당시 신건축과 근대화를 상징하는 시대적 산물이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 열강은 조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세 나라 중 특히 일본은 1867년 메이지[明治]정부 출범 이후 국가 주도로 구미의 경제 제도,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산업 및 도시 근대화를 시작했다. 반면에 조선은 1866년 프랑스(병인양요), 1871년 미국(신미양요) 등 외국의 지속적인 문호 개방을 요구했으나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강행하였고 그로 인해 전 근대적인 봉건사회가 지속되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문호 개방을 요구했고 결국은 1876년(고종 13)에 강압에 의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1882년 미국과도 통상조약을 맺고 연이어 영국 등 유럽 국가와도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각국과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부산(1876년), 원산(1880년), 인천(1883년), 목포(1897년) 등이 개항이 되면서 외국의

신기술과 문화가 유입되었고 마침내 조선도 개항장을 중심으로 ‘근대’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개항을 계기로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 침략의 욕망을 드러냈다.

개항 이후부터 계속된 외국과의 수교는 결국 그들의 문화가 이 땅에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중 가장 뚜렷한 현상은 바로 그들이 지은 건물이었다. 그들은 우선 자신들의 거주지에 살림집을 마련한 후 공무를 위한 영사관이나 공사관(1877년 부산 일본 관리청, 1892년 서울 영국 영사관, 1895년 서울 러시아 공사관, 1897년 서울 프랑스 공사관 등)을 지었다. 선교 목적의 외국인들은 성당 등 예배당(1891년 서울 약현성당, 1898년 서울 명동성당, 1898년 서울 정동교회 등)을 지었고 이와 더불어 학교와 병원 등도 건립했다. 이러한 건축물에는 벽돌, 콘크리트, 유리 등을 사용하였고 축조 기술도 그간 조선의 땅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것이었다. 즉 극히 목조건축으로 한정되었던 조선의 건축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건축 양식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가장 극명한 근대 표현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목포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2. 목포 근대건축의 유입과 특징

한반도 서남쪽 끝에 자리한 목포는 1897년 10월 1일에 개항을 계기로 발전된 근대도시다. 개항 전 목포에는 전라 우수영 소속의 목포진(木浦鎭)이 있었으나 이는 일반인과 거리가 먼 군영시설이었다. 즉 개항 전 목포는 무안현 소속으로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어촌이었다. 1914년에 편찬된 『목포지』에 의하면 당시 약 40여 호가 목포진 동쪽과 유달산 기슭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던 다소 황량한 곳으로 기술하고 있다.

개항 이후 목포의 개발과 도시 확장은 오직 해안가 매립을 통해 이루어 졌고 결국은 1980년대 하당까지 이어졌다. 즉 목포는 지형적으로 고작 유달산 주변의 비탈진 경사지가 전부였다. 매립의 시작은 일본영사관 전면부터 시작되어 만호진 주변과 역전 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도시 확장으로 주택, 상가,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구축됐고 1935년에는 인구 6만 명의 전국 6대 도시로 성장하기도 했다. 지금도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이 특히 선창가 주변에 거의 원 모습으로 많이 남아 있다.

개항 이후 목포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철저히 이분화 된 공간 구조 속에서 생활했다. 거주 지역도 달랐고 각자 사는 살림집도 우리는 한옥이고 그들은 다다미방이 있는 일식집에서 살았다. 학교도 한국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로 이분화됐다. 심지어 종교 시설인 사찰과 교회도 각자 세웠다.

도로망 등 도시의 구조가 갖추어진 새로 난 길가에는 어김없이 전에 보지 못한 건물들이 들어섰고 각양각색의 간판이 걸렸다. 방울 모양의 등이 5개 달린 멋진 가로등이 저녁에도 거리를 밝게 비췄다.

즉 모던건축과 함께 모던도시가 탄생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 인근 무안, 해남 등에서 보이왔던 도읍의 존재 방식 즉, 성곽이 있고 굽어진 길을 따라 단층의 한옥이 있는 그러한 구조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목포의 근대건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 등장했다.

첫째, 1900년대 초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선교의 목적으로 목포를 찾으면서 교회와 학교, 살림집 등을 지으면서 근대 건축이 유입됐다. 당시 선교사 들은 개항장과는 거리가 먼 현 양동 일대의 구릉성 야산을 아주 싸게 구입하여 학교와 교회, 사택 등을 지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영역이 쉽게 넓혀져 갔고 특히 시민들은 서양의 근대 교육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일본이 이 땅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지배 목적과 관리를 위해 공공성 건물을 지으면서이다. 개항 후 3년 만에 유달산 남쪽 기슭의 제일 좋은 터에 영사관을 지었고, 이외 은행과 그들만의 학교, 사원, 교회 등도 건립했다. 주택도 일식으로 지었다.

셋째,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가져다 준 근린 상업 시설의 등장이다. 현 행복동, 대의동 일대의 폭 6~8m의 도로 변에 주로 2층 상가가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1층은 식당, 술집, 생필품 가게 등이 자리했고 2층은 주거 시설로 사용했다. 대지가 넓은 곳은 후면에 작은 마당이 있는 살림집을 짓기도 했다. 현 갑자옥 모자점 주변이 그 중심이 된다.

건축에 나타난 근대성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한옥이 시대에 맞게 평면과 구조 등이 변했다. ‘— 자형’ 일색이었던 곳에 ‘ㄱ 자형’ 한옥이 등장했고 일부에 벽돌도 사용하고 유리창도 달았다. 즉 근대 한옥의 등장이다. 두 번째는 석재나 벽돌, 타일 등 건축 재료 사용의 다양성이다. 특히 상가 외부 마감을 모래와 시멘트를 사용하여 석판 모양으로 시공하는 다양한 기법이 널리 유행했다. 목재에만 의존했던 이 지역 건축에 획기적인 변화다. 세 번째는 준 르네상스 형식 등 다양한 서구 건축 양식이 건축에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식민제국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 속에서 목포가 근대 도시로 성장하는 필연적인 도시 역사의 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목포 근대건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석조 건축이다. 현재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12건 중 무려 7건이 석조 건물이다. 즉 개항 이후부터 목포에는 다양한 유형의 석조 건물이 건립됐는데 이는 인근에 풍부한 퇴적암(응회암) 석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포에는 채석장이 크게 2곳이 있었다. 하나는 ‘유달산돌’이라고 하는 유달산 주변의 채석장(뒷개 화장터 부근, 대반동 부근, 이훈동 주택 후면 등)이고 다른 하나는 ‘형무소돌’이라고 하는 산정동 뒤쪽(현 중앙하이츠 아파트 후면)의 야산이다. 일반적으로 유달산 돌이 형무소 돌 보다 질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00년대 초에 지은 선교사 사택과 양동교회가 유달산 돌로 지은 대표적 건물이다. 산정동 채석장은 일제강점기 목포형무소 죄수들의 노역으로 개발이 됐고 해방 후까지도 이곳 돌이 목포 석조 건축에 광범위하게 쓰였다. 그 대표적 건물이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이다. 한편 일제강

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목포 지역에서 활약한 대표적 석조 기술자로 손양동⁰¹⁾이 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한 조적조 건축도 목포 근대건축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벽돌조 건축은 개항 이후 서양식 건물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했다. 즉 형태를 떠나 건축에 근대성을 가장 빨리 전해준 재료가 벽돌이었다. 서울의 영국영사관(1892년), 벨기에 영사관(1905년) 등 각국의 영사관은 물론 특히 교회와 학교에 벽돌건축이 많이 등장했다. 서울의 약현성당(1891년), 명동성당(1898년), 배재학당 본관(1887년), 이화학당 본관(1899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목포에도 일본영사관 건축을 시작으로 목포심상고등소학교 강당, 목포공립고등여학교, 목포공립 상업학교, 목포공립보통학교 등 대형 학교 건물도 벽돌로 건립됐다. 기타 소규모 2층 상가, 보광동 창고, 대안동 전남 정미소 등도 벽돌을 사용한 조적조 건축이다. 한편 구조(벽체)만 벽돌로 하고 외부는 다른 재료로 마감한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지점(1921년),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1929년), 목포심상고등소학교 강당(1929년) 등도 있다.



그림 1 서쪽 해안가 일대의 매립이 거의 완성 된 모습(은금동). 배 몇 척이 정박해 있는 '째보선창'이 보이고 우측 유달산 비탈에는 초가집이 밀집해 있다.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⁰¹⁾ 손양동(孫良銅, 1916~2016): 신안 비금 출신으로 주로 목포에서 토건업을 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판본길삼랑(坂本吉三郎)에게서 건축 기술을 배운 이후 주로 석조 공사를 많이 했다. 해방 후 그의 대표작으로는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1950년)외에 목포경동천주교회(1954년), 완도수산고등학교 본관(1954년), 일로 천주교회(1956년), 무안 천주교회(1957년), 목포 북교동 천주교회(1958년), 목포 산정동 천주교회(1961년) 등이 있다.



그림 2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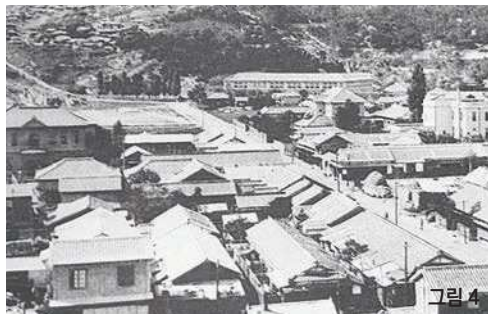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2 보광동 수원지(1909년 완공)쪽에서 바라 본 목포진 전경. 중앙의 매립지 부근이 영사관 전면 쪽으로 장차 중앙척식 건물 등이 들어서는 일제강점기의 중심 시가지가 된다.

그림 3 일제강점기 동쪽 해안가 전경. 위 쪽 섬이 삼학도

그림 4 1920년대 영사관 전면 시가지 모습. 우측 2층 건물이 중앙척식주식회사 건물(1920년)이고 상단의 긴 건물이 심상 소학교 교사동이다. 이 학교 강당(2층)은 1929년에 신축되어 아직 사진 상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 5 1920~1930년대(추정) 유달산과 목포진 사이의 시가지 전경. 중앙의 2층 큰 건물이 영사관이고 그 바로 아래 편 건물이 우체국이다. 위쪽에 삼학도가 보이고 목포진 동편으로도 상당히 시 경역이 뻗어 있다.

그림 6 1930년대 촬영된 것으로 여겨지는 현 오거리 일대 전경. 좌측 원내가 동본원사 목포별원이고 우측 원내 건물은 호남은행 목포지점.

자료: 그림1~그림6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7 일제강점기 옛 중소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목포역 방향의 신작로. 도로 폭이 넓고 길가 건물도 제법 세련되어 있다.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3. 목포 근대건축의 가치

건축물은 시간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다. 즉 건축에는 예술성, 장소성, 시대성이라는 요소가 있어 한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한다. 또한 실체가 있어 시각 및 감각적으로 쉽게 의미 전달이 되고 장소성에 의해 지역의 고유 문화도 간직한다. 특히 근대 건축은 100여 년 전 시기의 건축이기 때문에 현대건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목포의 근대건축은 목포의 역사와 도시 발전, 그리고 목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목포는 개항 도시답게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주택, 공공 청사, 교육, 종교, 상업, 유통 시설(부둣가 창고 등)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이 아직도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온금동의 조선내화 구 목포공장은 전국에서 보기 힘든 근대 산업 시설로서 주목이 간다. 한편 유달산 특유의 응회암을 사용한 석조 건축도 매우 매력적인 건축이다. 현재 목포에는 근대 건축물 총 15곳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학교나 은행, 공공 건축 등 큰 규모의 근대건축이 많이 사라졌다. 2000년 이후만 해도 죽동교회(석조, 1935년), 정명여학교 초기 교장 사택(붉은벽돌조, 1900년대 초),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장 관사(일식 목조, 1920년대), 목포상업고등학교 관사(일식 목조, 1936년) 등이 헐렸다. 이 모든 것이 건축주, 시민, 관계부처등의 가치 공감 부재에서 나온 결과다. 향후 이러한 일은 지속될 수 있다.

한편 남아 있는 것도 노후화와 함께 점차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상가 건물은 빈집이 많고 이

는 도시 미관에 저해요소가 된다. 이제 제도권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존 및 활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목포의 근대 건축은 목포 원 도심에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어 원 도심 활성화의 촉매 역할이 될 수 있다. 점 단위의 공간을 면과 거리 공간으로 확대하여 신도시 못지않게 사람이 물리는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 100여년간 목포 역사의 산 증인으로 자리를 지켰던 건축물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제 도심 재생의 거점으로 근대건축이 나서야 하고 역사가 경쟁력이 되는 목포가 올 것이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근대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 시기에 형성된 건축 유산 역시 마찬가지다. 문화재청에 근대건축에 관련된 조직이 생겨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제 근대 문화유산이 지니는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 역사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지역 단위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목포시의 근대 건축 편 서술은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목포시의 근대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아울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 제공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4. 목포의 근대건축

목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오거리 주변과 선창가, 역 앞 목원동 일대가 도시의 중심축이었다. 이와 함께 3호 광장으로 이어지는 대로변도 도시 성장에 한 몫을 했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약 100만 평 규모의 하당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원도심은 인구가 줄고 상권이 쇠퇴하면서 이 지역은 더 이상 관심 지역에서 멀어졌다. 1970년대 새로운 부도심으로 개발된 3호 광장도 1980년대 중반 목포대학교의 무안 이전으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로 모습도 1980년대 모습으로 멈췄고 건축물 역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

〈표 1〉은 본서 근대건축 편에 실린 근대건축 목록이다. 건축물 선정은 모두 5가지 유형(주거, 공공, 학교, 종교, 금융, 상업)으로 분류, 다음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 된 건축물.

둘째, 목포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 된 건축물.

셋째, 위 두 가지 요건에 들지 않으나 시대적 특성이 드러나고 건축 양식이 해당 유형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축물.

선정된 개개 건축물은 해설과 함께 사진을 첨부했다. 한편 개항 이후 건립되었다가 훼손된 주요 건축물은 각 건축물 개설년에 사진을 제시하고 간략하게 건축 특징을 설명하였다.

표 1 목포 근대건축물 목록

유형	건축물 명	건립 연도	소재지	문화재 지정	
				종목	지정 일자
주거건축	01 북교동 문익수 가옥	1908년	목포시 북교동 137		
	02 북교동 심복주 가옥	1913년	목포시 북교동 131	목포시 문화유산 23호	2013. 07. 08.
	03 북교동 이돈채 가옥	1920년대	목포시 북교동 71-1		
	04 구 춘화당 한약방	1929년	목포시	목포시 문화유산 24호	2013. 07. 08.
	05 죽교동 2층 붉은 벽돌집	일제강점기	목포시 죽교동 377-1, 374		
	06 창평동 남진 가옥	1936년	목포시 창평동 7-3		
	07 목포 정명여자 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1)	1900년대 초	목포시 양동 86-1	등록 문화재 제62호	2003. 06. 30.
	08 목포 정명여자 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2)	1900년대 초	목포시 양동 86-1		
	09 중앙동 무역업자 가옥	1920년	목포시 중앙동 3가 1-3		
	10 중앙동 2층 일식 가옥	일제강점기 초	목포시 중앙동 3가 5		
공공건축	01 구 목포 일본영사관	1900년	목포시 대의동 2가 1-5	사적 제289호	1981. 09. 25.
	02 구 목포 부청 서고	1932년	목포시 대의동 2가 1-5	등록 문화재 제588호	2012. 05. 21.
	03 구 무안군청 서고	일제강점기	목포시 북교동 178-1	목포시 문화유산 26호	2014. 03. 26.
	04 목포 구 청년회관	1924년	목포시 남교동 80-1	등록 문화재 제43호	2002. 09. 13.
	05 공생원 윤치호·윤학자 기념관	일제강점기	목포시 죽교동 473	목포시 문화유산 19호	2012. 05. 21.
	06 목포시사	1907년	목포시 죽동 330-3	시도 기념물 제21호	1975. 10. 11.
학교건축	01 목포 정명여자 고등학교 교사	1920년대	목포시 양동 86-1		
	02 구 목포 공립심상소학교 강당	1929년	목포시 유달동 8	등록 문화재 제30호	2002. 05. 31.
	03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1953년	목포시 용당동 183	등록 문화재 제640호	2014. 10. 30.
	04 구 목포 사범학교 본관	1950년	목포시 용해동 산43	등록 문화재 제239호	2006. 03. 02.
종교건축	01 목포 양동교회	1900년	목포시 양동 127	등록 문화재 제115호	2004. 12. 31.
	02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	1933년	목포시 차범석길 35-13		
	03 목포 북교동성당	1958년	목포시 북교동 160		
	04 목포 경동성당	1954년	목포시 경동 2가 2-1	목포시 문화유산 22호	2012. 05. 21.
	05 목포기독교교회	1922년	목포시 해안로 165번길 50		
	06 목포 달성사	1915년	목포시 죽교동 317		
	07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1930년대 초	목포시 영산로 75번길 5	등록 문화재 제114호	2007. 07. 03.
	08 정광 정혜원	1918년	전남 목포시 죽동 226-1	등록 문화재 제696호	2017. 10. 23.
	09 약사사	1927년	만호동 1-24	목포시 문화유산 제21호	2012. 05. 21.
	10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1945년경	목포시 노송길 35-0	등록 문화재 제513호	2012. 10. 17.
금융상업건축	01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1921년	목포시 중앙동 2가 6	시도기념물 제174호	1999. 11. 20.
	02 구 화남은행 목포지점	1929년	목포시 상락동 1가 10-2	등록 문화재 제29호	2002. 05. 31.
	03 구 광생의원	1936년	목포시 남교동 61-1		
	04 구 목포화신백화점	일제강점기	목포시 상락동 1가 11-8		
	05 구 화랑여관	일제강점기	목포시 행복동 1가 4-2		
	06 구 이라장 여인숙	일제강점기	목포시 호남동 12-13		
	07 중앙동 2가 2층 상가	일제강점기	목포시 중앙동 2가 8-4		
	08 구 남양아망 영업소	일제강점기	목포시 행복동 9		
	09 창작센터 나무숲	일제강점기	목포시 행복동 9		
	10 구 해태의류 상가	일제강점기	목포시 북만동 13동		
	11 남해 선구점	일제강점기	목포시 영해동 1가 6		
	12 대광전자 상가	일제강점기	목포시 영해동 1가 3-5		
	13 구 보광동 객주집	일제강점기	목포시 보광동 1가 4		
	14 구 목포 유곽	일제강점기	목포시 금화동		
	15 구 전남 정미소	일제강점기	목포시 대안동 2-1		
	16 구 보광동 창고	일제강점기	목포시 보광동 5-4, 5-10		
	17 조선내화 주식회사 구 목포 공장	1938년	목포시 온금동 122-6번지 외	등록 문화재 제707호	2017. 12. 05.

제2절 주거 건축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는 근대화가 시작되는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인구의 집중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도시가 산업화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근 농어촌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인구의 집중은 우선적으로 주택의 부족을 불러왔고 이는 도시문제로 번지게 됐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시가지 중심부를 차지하고 자기들 위주로 주택 정책을 펼쳤고 한국인은 도시 변두리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의 한국인 마을이었던 북촌과 서촌이다. 목포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개항 당시 한국인 주거는 목포진 동쪽 주변에 40여 호, 그리고 쌍교촌(雙驕村)이라고 부르는 현재의 북교동 일대에 50여 호가 있었던 다른 해안가 촌락과 다름이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인근 농어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목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유달산 인근의 기존 한국인 마을과 새로운 주거지인 현재의 죽동과 목원동 일대에 정착하게 됐다. 그곳은 북교동과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둔 인접지였고 일본인 거류지와도 가까워 새로운 주거지로는 비교적 괜찮은 곳이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지역으로 발전되어 1980년대 하당과 북항 등 신도시 개발 이전까지 목포의 원도심(原都心)이었던 곳이다. 한편 서산동과 온금동 지역도 일제강점기 이후 꾸준히 한국인 마을이 조성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 마을은 유달산 기슭의 경사지에 조성되어 길이 좁고 굴곡이 많은 골목길 마을이었고 식수도 전통 우물에 의존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당시 경사지에 조밀하게 형성된 그러한 구조는 지금도 비교적 잘 남아있다.

반면에 일본인 주거지는 그들의 조계지인 현재의 중앙동과 유달동 부근의 평지였다. 그곳은 근대적 단지 계획에 의거 반듯한 도로망과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 시설을 갖추었고 관청과 학교, 은행 등이 근접해 있어 생활에도 매우 편리했다. 이러한 일본인과 한국인 마을의 대비는 목포 근대화 과정의 양면성이 잘 드러난 사례로 여겨진다.

목포의 근대 주택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특징을 보인다.

첫째, 근대 한옥의 등장이다. 당시 한국의 부유층들은 북교동 일대에 규모가 큰 한옥을 건립했는데 기존의 남부 지방 한옥 형식을 크게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한옥을 지었다. 즉 지붕틀과 기와 등만이 전통을 따랐고 평면과 부재 사용 등은 전통에서 벗어났다. 한편 목포에는 붉은 시멘트 기와가 올려 50~80㎡ 규모의 ‘ㄱ’자 한옥이 근·현대기에 널리 유행했고 지금도 시내 곳곳에 그러한 한옥이 많이 남아있다. 1970년대 용당·용해동 택지 개발까지도 민간 업자가 그와 유사한 형태의 한옥을 수백 채 보급했다. 당시 한옥은 두 세대가 생활할 수 있도록 부엌 2개에 방을 4개 두었다.

둘째, 1900년대 초 양동 일대에 정착한 미국 선교사들이 지은 석조 주택이다. 현재 정명여학교 구

내에 당시에 지어진 주택이 2채가 있다.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온 석조 건축은 그 후 교회, 학교, 상가 등에도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목포 건축 구조의 한 유형으로 정착했다. 당시 석조 건축이 유행했던 이유는 유달산 및 그 주변에 채석이 용이한 응회암 석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인들이 그들의 살림집으로 지은 일명 '적산가옥'이다. 일본식 목조 주택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적산가옥은 비록 일본인의 주택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목포 도시 주거 역사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현장이 되고 있다.



그림 8 한국인의 거주 지역이었던 1910년경 북교동 일대 모습. 초가가 밀집해 있고 군데군데 기와집도 보인다. 상단 제방 건너편이 1900년대 초에 선교사들이 정착하여 마을을 이룬 양동(현 정명여 학교)일대.

자료: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정명100년사(1903~2003)』, 2003, 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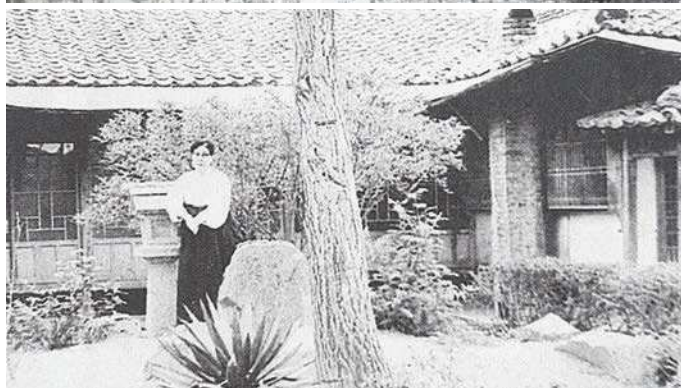


그림 9 박화성 가옥 전경. 사진 속 인물이 박화성. 1930년대 그의 남편 천득근이 경영하는 직물 공장의 사택으로 건립한 것이다. 박화성은 1937년부터 1962년까지 이곳에서 지냈다. 건물은 우진각 지붕의 'ㄷ'자형이다. 1990년대 중반에 도로 신설로 한 문학가의 역사적 현장이 사라졌다(1994년 가옥거실에 걸려 있었던 사진을 필자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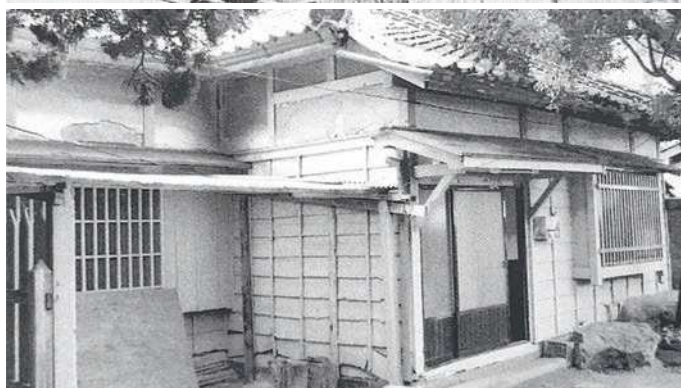


그림 10 동양척식주식회사 지점장 관사(1920년대 초 건립). 개인 소유 살림집으로 오랜 동안 사용하다가 2007년경에 헐렸다(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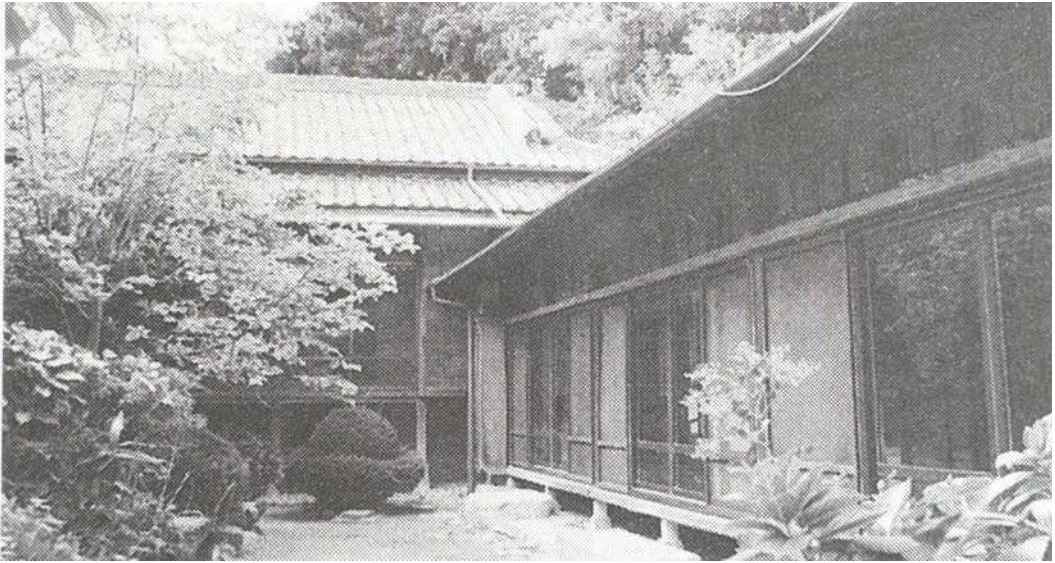


그림 11 유달산 남쪽 기슭에 있었던 일본 기업가 소유의 일식 가옥. 규모가 매우 크고 긴 복도, 미닫이 창호, '오시레'(받침) 설치 등 일식 가옥의 특징이 잘 드러난 가옥이었다. 1970년대 이후 오랫동안 시장 관사로도 사용했으며 2000년경에 헐렸다(1994년 필자 조사).

1. 북교동 문익수 가옥

-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137
- 건립: 1908년

북교동에는 1900년대 초에서 중반 무렵에 지은 비교적 규모가 큰 여러 채의 근대 한옥이 있다. 이 한옥들은 당시 목포에 기반을 둔 대지주 내지는 부유층의 주도로 지어졌으며 일부 가옥은 한일 절충식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본 가옥은 문익수의 조부 문재철이 지은 집인데 그는 당시 암태도(岩泰島)에 많은 농지를 보유한 대지주로서 본 가옥의 건립 역시 그러한 경제적 배경이 된다. 한편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암태도 소작쟁의(1922~1924)사건은 바로 문지주와 그의 소작인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따라서 본 가옥은 이 지역 농촌 근대사의 한 현상이 된다.

건립 연도는 안채에 ‘용 대한융희이년무신삼월병진십칠일임인정미시입주상량 구(龍 大韓隆熙貳年 戊申三月丙辰十七日壬寅丁未時立柱上樑 龜)’이란 상량문이 있어 1908년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본 가옥에는 안채와 행랑채만이 있으나 1988년 이전에는 안채 자리 바로 아래에 사랑채도 있었다. 현재 그 터에는 3층 연립주택(북교빌라)이 들어서 있다. 사랑채는 안채와 비슷한 ‘ㄱ’자형의 근대 한옥이었다.

안채는 ‘ㄱ’자형 한식주택으로 방 3개, 대청 1개, 부엌 1개로 꾸며진 규모가 꽤 큰 가옥이다. 꺾어진 구석에 배치된 안방은 뒷퇴까지 둔 3칸 크기이다. 전면으로는 약 120cm 폭으로 모두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툇마루와 대청 사이에는 미닫이 유리문이 달려있어 구한말 변해 가는 전통 한옥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구조는 정교하게 가공한 장대석 기단위에 방주(12×12cm)를 세운 장혀 받침 납도리집이며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으로 꾸며져 있다. 지붕은 아쉽게도 1985년경 번와(燐瓦)시에 한식 기와 형을 본 딴 시멘트 기와를 사용하여 한옥으로서의 격이 떨어진다. 당시 처마 서까래도 너무 길어 끝 일부를 잘라내었다. 안채는 전체적인 건물 규모에 비해 기둥의 크기가 너무 빈약하다.

안채와 마주보고 있는 행랑채는 안채와 같은 ‘ㄱ’자형 납도리집이다. 평면 구성은 한쪽 날개는 거주 공간으로, 나머지는 곡간으로 꾸며져 있다. 4칸 규모의 넓은 곡간은 옛 대지주 가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한 단면이 된다. 곡간 옆의 1칸은 옛 사랑채로 통하던 문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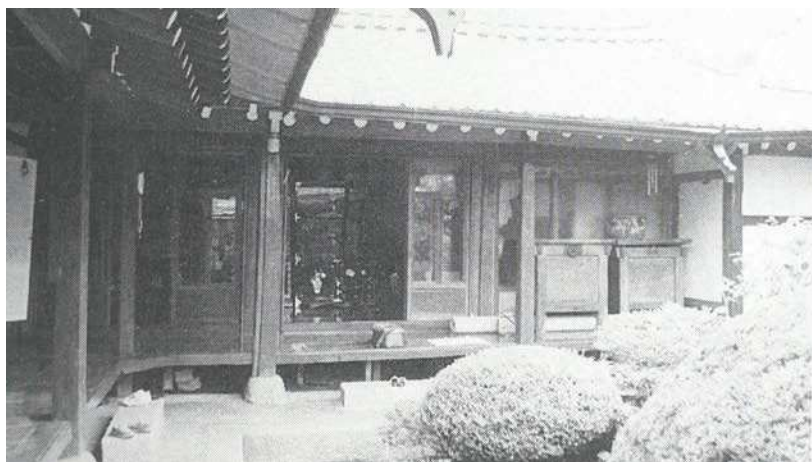


그림 12 안채 정면



그림 13 안채 지붕

2. 북교동 심복주 가옥

●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131

● 건 립: 1913년

이 가옥은 문익수 가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근대한옥이다. 이 가옥은 문씨 일가와 관련된 가옥으로 건립은 문익수 부친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기는 안채 상량문에 의해 1913년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고(故) 심복주가 매입하였고 현재는 그의 아내 이영애가 거주하고 있다. 심복주는 목포에서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 가옥은 ‘ㄱ’자형인 안채와 역시 ‘ㄱ’자형인 문간 겸 아래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 사이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안채는 방 3개와 대청,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청과 각 실 전면으로는 툇마루가 설치됐다. 툇마루 전면으로는 미단이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복도식 개념이다. 현재 큰방 부분은 내부가 크게 개조되어 옛 모습을 보기 어렵다. 기단은 장대석 1벌대 구조이며 주초는 4각 초석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14×14cm의 방주를 썼다. 도리는 장혀받침을 둔 납도리를 걸었으며 그 아래로는 불발기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처마는 부연 없는 흘처마다.

아래채는 도로에서 바로 가옥으로 진입할 수 있는 1칸 문간을 비롯하여 방 3개와 대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는 안채와 거의 비슷한 팔작집이다. 도로변의 벽체는 화방장으로 처리하였다. 지붕 기와는 본래 한식 기와였으나 2010년경에 안채와 함께 한식기와 모양의 강판으로 교체했다.



그림 14 가옥 상부 전경. 앞쪽이 문간 겸 사랑채이고 뒤쪽이 안채이다.



그림 15 문간채 정면



그림 16 안채 정면

3. 북교동 이돈채 가옥

-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71-1
- 건립: 1920년경

북교동 입구 안길 변에 위치하고 있는 가옥으로 약 360㎡의 대지에 ‘ㄱ’자형의 안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립 연도는 주인과 인근 노인들의 고증에 의하면 192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목포 북교동 지역에 지어진 한옥은 조선 시대 이 지방의 전통 한옥에서 다소 벗어난 소위 ‘도시형 개량한옥’의 성격으로 자리하고 있다. 가령 평면구조에서도 당시 서울 지방에서와 같은 ‘ㄱ’자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ㅡ’자형으로 일관된 이 지방 한옥과 크게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대청의 거실화 및 툇마루의 복도화 등도 변화된 일면이다. 입면에서도 장혀 아래의 불발기 유리창 설치나 벽체의 방화장 구조, 미서기문 설치 등도 주목되는 구조의 사례이다.

본 가옥은 대청을 기준으로 한 실의 분화가 어느 가옥보다 돋보인다. 이 역시 개량 한옥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가령 대청이나 큰 방에 비해 규모가 의외로 큰 머리방 설치나 건너 방 뒤쪽에 또 하나의 마루방 배치 등이다. 구조는 전면에만 두리기둥과 굴도리를 사용하여 집의 고급화를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인다. 도리 아래로는 장혀받침을 두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처마는 흘처마로 꾸몄다. 기와는 본래 한식 기와였으나 최근에 검은색 강판으로 교체했다.

2017년에 게스트 하우스로 개보수 하는 과정에서 창호를 새로 교체했고 도로변 측면에 구조물을 덧댔다.



그림 17 안채 정면



그림 18 도로변 측면 개보수 모습

4. 구 춘화당 한약방

- 소재지: 목포시 영산로 59번길 35-6
- 건립: 1929년

춘화당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근대 한옥이다. 이 한옥이 들어선 목원동 지역은 지리적으로 개항장과 가깝고 유달산 끝자락의 경사진 곳이어서 매립을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조선인이 들어와 마을을 일군 곳이다. 본 한옥은 비교적 규모도 크고 건물의 내력도 잘 드러나 있어 주거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건립은 '기사(己巳)'로 된 상량문이 있어 1929년에 지은 한옥임을 알 수 있다.

이 한옥의 최초 주인과 성격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한때 미국 선교사가 세운 부란취병원과 제중의원(현 한옥 입구 바로 우측에 있는 '봄' 카페 자리에 있었음) 원장 등을 지낸 의사 최섭이 거주했다. 미 군정기 초대 목포 부윤, 정명여중 교장 등을 지낸 인사가 이 집의 주인이었다. 1980년대에는 이 한옥이 '춘화당'이란 한의원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목포에서는 춘화당으로 더 알려진 건물이다. 최근에 '목포 1935'란 상호로 한옥 호텔로 활용하고 있다.

문간을 들어서면 바로 안마당이 있고 한옥은 'ㄱ'자형으로 대지 가장자리에 앉혔다. 규모는 본채와 날개 부분 각각 정면 3칸이며 측면도 3칸이다. 전퇴에는 모두 뒷마루가 놓여있고 모퉁이에 대청, 나머지는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은 잘 다듬어진 장대석 일벌대 형식이며 기둥은 방주를 사용했다. 가구는 전통 5량 가구로 전반적으로 보와 도리 등 모든 부재가 크다. 자연스럽게 흰 큰 보와 원형 대공이 인상적이다. 전면 뒷마루에 미서기 유리문이 있고 곳곳에 유리창이 설치되는 등 근대풍의 요소가 곳곳에 있다. 지붕은 흙처마 팔작지붕이다.



그림 19 가옥 정면



그림 20 대청 상부 지붕틀 가구

5. 죽교동 2층 붉은벽돌집

- 소재지: 목포시 죽교동 377-1, 374
- 건립: 일제강점기

이 가옥은 죽교동 비탈진 언덕의 상단부에 위치하는 2층 붉은벽돌 가옥으로 건립 시기는 일제강점기 초 내지는 중반기 정도로 여겨진다. 이 지역은 당시 한국인 거주 마을로 주변은 모두 목조 단층 가옥들로 형성됐던 곳이다. 따라서 유독 이 가옥만 2층이고 더구나 붉은벽돌을 건축 주 재료로 사용했다는 점이 매우 주목을 끈다. 건축주가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 이었고 용도도 순수한 주택 용도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일종의 유곽 건물이었다는 구전도 있어 더욱 흥미가 가는 건물이다. 현 건축주는 1980년대 중반에 이 건물을 매입했고 2010년에 내부를 현재의 모습으로 크게 리모델링했다.

건물은 장방형 평면의 2층 조적조 건물로 지붕은 우진각 지붕이다. 사용된 벽돌은 길이 170mm, 높이 58mm, 폭 110mm크기의 붉은 벽돌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벽돌보다 길이가 좀 짧은 편이다. 전면 중앙으로는 폭 2100mm, 깊이 1500mm 규모의 돌출 현관 포치를 두었고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바로 그 앞에 있었는데 현재는 우측 측면으로 옮겨져 있다. 2층은 방과 거실 등이 있는데 본래는 모두 일본식 다다미 방 구조였다.

창은 1층과 2층 모두에 세로로 긴 수직 창을 두었는데 2층만은 상부에 아치를 두었다. 창대와 아치에는 시멘트 몰탈로 돌출 장식을 두었다. 멀리서 보면 석재처럼 보인다. 본 건물은 비록 내부는 크게 변형이 되었지만 외부만큼은 건립 당시의 원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일제강점기에 지은 유일한 현존 2층 벽돌조 주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림 21 가옥 정면



그림 22 가옥 2층 후면

6. 창평동 남진 가옥

- 소재지: 목포시 창평동 7-3
- 건립: 1936년

이 가옥은 목포세무서 뒤쪽 도로변 모퉁이에 위치한다. 일제강점기 미곡상(米穀商)이었던 김문옥(金文玉)이 1936년에 지은 주택이다. 1897년 목포가 개항된 이후 미국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를 통해 지역 유지로 성장한 인물들이 많았다. 이 주택을 지은 김문옥이 그중 가장 크게 성공한 조선인이었으며 그가 당시에 운영했던 붉은 벽돌로 지은 ‘전남정미소(全南淸米所)’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다. 광복 후에는 호남신문과 목포일보 사장, 5대 국회의원 등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바로 유명 가수 남진(본명: 김남진)의 부친이다. 1963년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가 1972년 남진이 다시 사들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옥은 약 660㎡ 대지에 ‘ㄱ’자형으로 지어진 규모가 꽤 큰 일본식 가옥(우측 일부는 2층)이다. 내부는 많이 개보수가 되어 건립 당시의 모습을 보기 어려우나 곳곳에 일식 가옥의 구조는 남아 있다. 한편 가옥 건립 시에 함께 축조된 것으로 여겨지는 돌담장과 정원(연못, 석조물 등)만큼은 지금도 잘 남아 있다. 전면 돌담은 모두 6켜로 쌓았는데 지대석과 상부 두겹은 잔다듬, 중간은 거친 흑두기로 되어있다. 한편 측면담은 5켜로 모두 거친 흑두기 마감으로 되어있다. 근대기 목포 주택 담장은 대부분 유달산 인근의 응회암으로 축조하였는데 현재도 북교동, 죽동 등 한국인 마을 가옥에 원형 돌담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본 가옥의 담장은 규모, 구조, 쌓기 방식 등 여러 면에서 가옥 못지않은 가치를 지닌다.

이 가옥은 건너편 정미소 건물과 함께 근대기 목포 한국인 재력가의 삶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그림 23 가옥 전경



그림 24 전면 담장

7. 목포 정명여자 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1)

- 소재지: 목포시 양동 86-1
- 건립: 1900년대 초

목포 정명여자학교 경내에는 2동의 구 선교사 사택이 있다. 2동은 29m의 거리를 두고 하나는 중학교 도서관으로, 다른 하나는 정명여자학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선교사 사택의 건립 연도는 1905년에서 10년경으로 여겨진다. 이는 당시의 여러 여건상 제1진이었던 배유지 선교사보다는 2진격인 하위럼 선교사들을 위해 마련한 집이 아닌가 한다. 1898년에 건립된 최초 예배당은 당시 배유지 선교사의 사택을 겸하고 있었다. 한편 현 도서관 건물은 양동교회 제5대 하위럼 목사(Harrison, 1908~1909)의 사택으로, 100주년 기념관은 1910년경에 하딩선교사가 이 건물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910년에 일본 엽서 제작국에서 발행한 사진 상에도 2동의 석조 건물이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상황으로 보아 선교사 사택의 건립 시기는 1910년 이전쯤으로 여겨진다.

구 선교사 사택(1)은 1990년 2월 28일 화재로 전소되어 석조 벽체만이 남아 있던 것을 2001년에 지붕과 창, 그리고 내부까지 전면 보수를 단행하였다. 이 건물은 화재 직전 몇 개월을 제외하고 교장 사택으로 계속 사용해 왔다.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석조 건물이다. 지하층은 경사 지형을 이용해 우측 일부만 꾸몄기 때문에 지상 층 반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 평면형은 X축으로 약간 긴 단순한 장방형(1:1.35)이며 후면에는 텃댄 것처럼 보이는 작은 돌출부가 있다. 전면 중앙으로는 2층까지 2개의 기둥을 돌출시킨 출입 포치가 있다. 1, 2층 내부는 2001년 보수 시 각각 음악실과 기념관 용도에 맞게 모두 통 칸으로

처리하였다. 보수 이전의 내부는 1층에 방 2개, 응접실, 주방 및 식당, 세탁실이 있고 2층에는 방 4개와 화장실이 있었다. 지하층은 보일러실과 창고로 사용했다.

사택 외형은 벽체의 변화나 차양 등의 시설물 없이 전체적으로 단순하다. 이는 단순한 장방형 평면의 형태를 그대로 입면화하였기 때문이다. 외부는 거친 흑두기(rustication)로 처리하여 비교적 장중한 느낌이 든다. 사용된 석재는 응회암이며 크기는 건물 전후, 좌우면 모두 높이 300mm, 폭(깊이)은 240mm로 같으나 길이만큼은 400mm내외(380, 400, 420, 440 등)의 크기를 사용하였다. 쌓기 방식은 바른 층 쌓기며 줄눈은 25mm정도로 거의 일정하다. 창문 위·아래로는 창틀 폭보다 약 90mm 정도 좌우로 각각 돌출되게 화강석 통돌로 인방을 설치했고 높이는 약 300mm정도다. 인방의 마감 처리는 잔다듬으로 되어있다.

본 건물은 2001년 대수선 시 건물 벽면 4귀퉁이 안쪽에 철골기둥을 세우고 각층에 철판으로 바닥판을 만들었다. 철골기둥은 현재 인테리어로 마감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지붕틀은 철판 박공식 구조이며 지붕 재료는 밤색 아트팔트 싱글로 마감했다.



그림 25 건립 초기 선교사 사택 전경. 좌측이 현 100주년기념관이고 오른쪽은 도서관
자료: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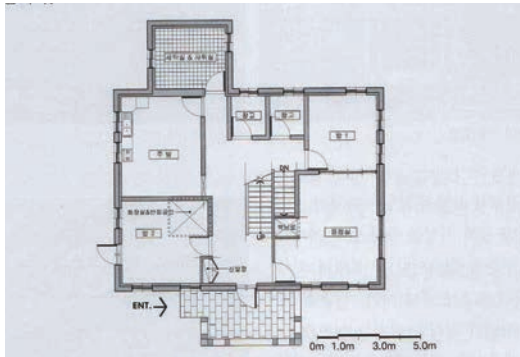


그림 26 1층 평면도(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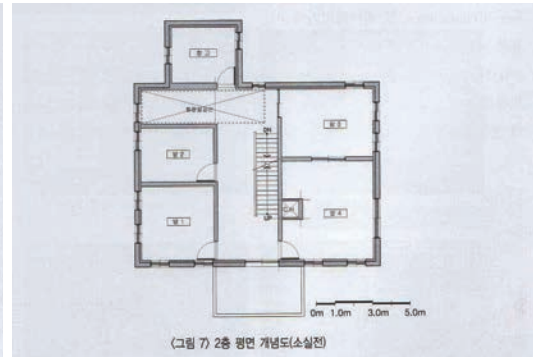


그림 27 2층 평면도(추정)

이 도면은 1990년 화재 전의 내부 구조로 학교 관계자의 고증으로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건립 초기의 모습으로 여겨진다.



그림 28 사택 정면



그림 29 사택 정-우측면



그림 30 사택 정-좌측면

8. 목포 정명여자 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2)

● 소재지: 목포시 양동 86-1

● 건 립: 1900년대 초

구 선교사 사택(2)은 정명여자 중학교 본관(교사동) 바로 앞에 위치하며, 현재 정명여중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지상 2층의 석조 건물로 면적은 1층 247.12㎡, 2층 147.95㎡이다. 현재 본관과 2층에서 연결되어 있고 북쪽으로도 철근 콘크리트조로 증축이 되어 있어 본래의 전체 모습을 추정하기 어렵다. 사용된 석재나 쌓기 방식 등은 구 선교사 사택(1)과 거의 같다.



그림 31 사택 배면



그림 32 사택 정면

9. 중앙동 무역업자 가옥

● 소재지: 목포시 중앙동 3가 1-3

● 건 립: 1920년

이 가옥은 일본식 주택으로 구 동양척식 목포지점 맞은편 네거리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은 1913년에 터를 잡기 시작하여 1920년에 완공된 집으로 당시 무역업(건축 자재, 농약 등)을 하는 일본인이 직영으로 지은 집이다(건축물 대장에는 사용 일자가 1935년 입). 대지 면적은 약 561㎡이다. 이 가옥은 건물의 규모나 형식면에서 일식 가옥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이 건물은 건립 이후 오랫동안 본래의 모습을 유지해 오다가 2006년에 내부를 전면 개수 하여 현재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 장식 창, 서까래 등 본래의 모습도 일부에서 볼 수 있다.

본래의 건축 모습(1994년 필자 조사)을 보면 1층에는 방 3개와 거실, 서재, 부엌, 욕실, 변소 등을 두었고 남측 전면으로는 미서기 유리창을 단 복도식 마루를 두었다. 거실과 전면 복도, 그리고 서재로 가는 전실은 모두 장마루 깔기로 되어 있고 천장은 ‘井자’ 띠를 댄 널빤지 마감으로 되어 있다.

2층은 2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하나는 ‘다다미’ 방으로 되어 있다. 2층 전면에는 발코니 형식의 마루를 설치하고 유리문을 달았다. 지붕은 일식 기와가 얹혀진 팔작 형태이며 거실 쪽은 이중처마로 되어있다. 벽체 마감은 1층은 회반죽 마감이나 2층은 가로비늘 판벽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33 가옥 전경



그림 34 보수 전 가옥 전경(1994년 필자 촬영)

10. 중앙동 2층 일식 가옥

- 소재지: 목포시 중앙동 3가 5
- 건립: 일제강점기 초

본 가옥은 현 유달초등학교 앞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2층 구조의 일본식 가옥이다. 건립연대는 바로 근방에 있는 일본인 심상소학교 설립과 주변의 거리 조성 시기 등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초쯤으로 여겨진다.

평면구조는 정방형 형태로 도로변에 바로 난 출입구를 들어서면 작은방과 부엌이 배치되고 좌측으로는 거실과 큰방이 연결된다. 이 가옥은 규모가 작은 관계로 다른 일식 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도가 없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중앙에 두었고 2층은 모두 통간으로 방하나만 두었다. 출입구 상부의 삼각형 차양 등 건립 초기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그림 35 가옥 정면



그림 36 가옥 2층 배면

제3절 공공 건축

공공 건축은 관공서나 공공 단체의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건립된 공공성(公共性)이 있는 건축물을 지칭한다. 조선 시대 지방의 공공 건축으로는 객사와 동헌, 이청, 작청 등 다양한 목조 한옥이 주로 읍성 내에 있었다. 이러한 조선의 관아 건물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훼손되고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된 일부만 남아 있다. 목포는 조선 시대 무안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건물들은 당초부터 건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목포에는 수군의 진영인 목포진이 1439년(세종 21)에 설치되어 1895년까지 지속되었고 일부 건물과 성벽은 개항 무렵까지 있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외국의 여러 나라가 영사관 등 공공 건축을 우리나라에 건립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은 서양 각국에 비해 개항장 중심으로 빠르게 청사를 마련했다. 개항 초기인 1880년대까지는 청사 건축이 어려웠던 관계로 대개 한옥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는데, 목포 역시 목포진의 한옥⁰²⁾을 임시 영사관으로 사용했다.



그림 37 1898년 2월에 건립한 세 번째 일본영사관
자료: 김정섭, 『국역 목포지』, 향토문화사, 1991, 66쪽.

02) 이 건물은 목포진 내에 있었던 정면 5칸 규모(중앙에 대청, 양측에 온돌방)의 동헌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초대 영사 구수삼랑(久水三郎)이 목포에 온 1897년 12월 당시 이 건물은 목포진의 기능이 거의 없어진 터라 건물 역시 몹시 훼손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건물 상황이 『목포지』(1914, 김정섭 역)에 자세히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중앙에 약 5평의 판자 칸막이가 있고 좌우로 2, 3의 온돌방이 있었으나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낡은 집으로 벽은 허물어지고 기와는 무너져 거의 폐가에 가까우니 흡사 사람이 없는 산중의 폐사에 들어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더구나 사무실, 응접실, 식당, 취사장 또는 침실을 겸했던 마루는 사방에 벽이 없어 판자를 대고 거적을 둘러 겨우 눈비를 막고, 그 가운데는 서너 장의 돗자리를 깔고 큰 책상을 하나 놓아 사무용으로도 쓰고 식탁으로도 쓰였다. 화로는 조선의 질화로로 숯불을 피워놓고 관원은 앉아서 사무를 보았으니 곁에는 물통이 있고 솔과 냄비가 있고 숲섬과 쌍교리의 농민이 갖다 준 무가 있고 일장기는 적당한 계양대가 없어 청죽으로 대용했으며 밤에 잠 잘 때는 창문이나 출입문에는 배를 둘러쳐서 겨우 눈비를 가렸으나 바람이 세게 불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맡에 눈이 하얗게 쌓이는 일까지 있었다.”

목포항이 개항되자 영국, 일본, 러시아 등은 목포에 조계지를 확보하였고 그 중 일본이 제일 먼저 목포진 한옥에서 첫 영사 업무를 개시했다. 그곳에서 한 달 정도 지낸 후 두 번째로 당시 일본인이 지은 5칸 정도의 바라크집을 빌려 청사로 사용하였으나(1897년 11월 18일) 이 또한 몹시 낡고 불편하여 세 번째로 청사를 옮기게 된다(1898년 2월). 이 건물은 당시 목포에 처음 등장한 규모가 비교적 컸던 일본식 기와가 올려진 2층 목조 집으로 우체국과 경찰서 기능을 함께 갖춘 일종의 종합청사였다.

세 번째 청사에서 3년 정도를 지낸 후 일본 정부에서는 전라도 지역을 관할하는 목포 영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영사관 건축을 계획하였는데, 그게 바로 현재 유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목포 근대역사관이다. 즉, 개항 이후 불과 3년 여 만에 호남 일대 식민통치의 총본산 건물을 지었다. 당시 제대로 도시 구조가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상당히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청사를 지은 것은 목포를 기점으로 영원히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영사관 이외에 목포경찰서도 1907년 5월에 신축 청사를 마련하였고(구 초원호텔 자리) 이어서 목포우체국, 부산세관 목포지서, 목포역 등 여러 공공 기관이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였다. 현재 목포에 남아있는 공공청사로는 구 일본영사관 외 5동 정도만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단체가 지은 건물로 현존하는 대표적 건물로는 목포 구 청년회관이 있다. 192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민족계몽운동이 일어났는데 목포에서도 청년회를 조직하였고 그 활동의 공간으로 1925년에 건물을 마련했다. 이외 사회봉사 기관인 공생원, 천주교에서도 목포에 청사를 지었다. 두 건물 모두 현존하며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은 2012년 10월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림 38 일제강점기 일본영사관(중앙 건물)과 전면 중앙가로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39 목포경찰서.(1983년에 촬영)
자료: 김정섭, 『완역 목포부사』, 목포문화원, 2011, 235쪽.



그림 40 영사관 바로 아래에 있었던 구 목포우체국
자료: 김정섭, 앞의 책, 242쪽.



그림 41 중앙 2층 건물이 十八은행(현 영란회집 주차장)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42 부산세관 목포지점
자료: 김정섭, 앞의 책, 264쪽.



그림 43 전남 수산시험장(1991년에 촬영)
자료: 김정섭, 앞의 책, 3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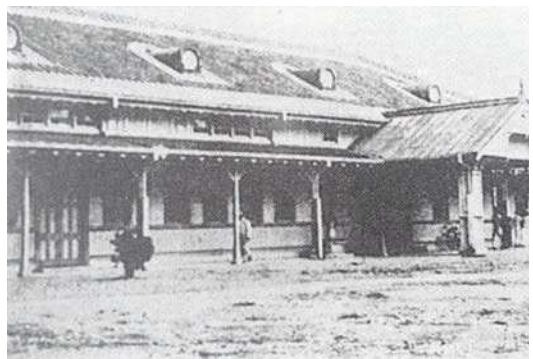


그림 44 구 목포역(1979년에 철거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자료: 김정섭, 앞의 책, 284쪽.



그림 45 구 남교파출소



그림 46 구 산정파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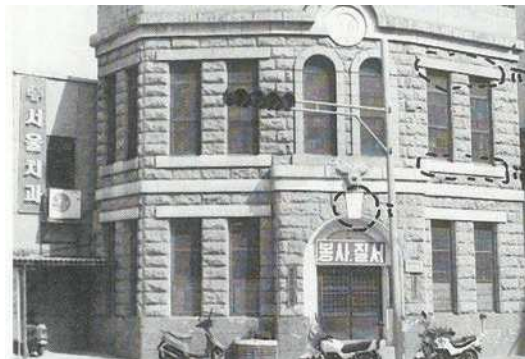


그림 47 구 역전파출소



그림 48 구 대성파출소

1910년 10월 일본의 총독정치 시작으로 경찰 제도로 변하여 목포경찰서 관할구역에 파출소(派出所)와 주재소(駐在所)등을 설치했다. 사진 상의 4곳(남교, 산정, 역전, 대성)파출소는 원형, 마름모 등의 독특한 형상으로 설계된 석조 건물로 1990년대에 모두 헐렸다. 건립은 일제강점기로 추정된다(사진: 1994년 필자 촬영).

1. 구 목포 일본영사관

- 소재지: 목포시 대의동 2가 1-5
- 건 립: 1900년

구 목포 일본영사관은 1900년 1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에 완공된 건물이다. 『목포지』(1914)에 의하면 당시 개항장 영사관 중에서 최고로 공을 들여 지었으며 중국 샤먼(廈門, 복건성 소재)의 영사관과 쌍벽을 이룬 건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건물은 근대 일본 침략의 상징성, 독특한 건축 조형성 등이 인정되어 일찍이(1981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건물은 영사관으로 시작하여 1906년 2월 1일부터 목포이사청, 1910년에는 목포부청, 그리고 해방 후인 1947년부터는 목포시청, 1974년에는 시립도서관, 1990년부터는 목포문화원으로 사용되다가 2015년부터는 목포근대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구조는 2층 조적조 건물이다. 평면은 중앙으로 홀 및 계단실을 두고 좌우로 실을 꾸민 대칭성 장방형이며, 중앙 전면부에는 돌출된 목조 포치(Porch)를 두었다. 중앙 홀 후면과 우측 끝으로는 단층 텃댄 구조로 각각 화장실과 창고를 두었다.

건물의 정면은 대칭성의 평면에 맞게 좌우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벽의 두께는 1층 외벽 48cm, 2층 내·외벽은 39cm로 모두 공간 쌓기를 하였다. 1층과 2층 사이에는 벽돌로 허리돌림띠를 두어 층간의 구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띠는 2층 상단부 지붕 처마선 아래에도 있다. 한편 1, 2층 창호 상하 단에는 백색벽돌로 수평 띠를 둘러 붉은색 바탕 벽체에 포인트를 두었다. 본 건물에 사용된 붉은 벽돌은 1984년 화장실 보수시 ‘대판(大板)’이라고 새겨진 벽돌을 발견함으로써 당시 일본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벽돌 크기는 길이 225mm, 너비 103mm, 두께 60mm이다.

창은 수직 창으로 그 외부 형태는 1층은 결원아치, 2층은 반원아치로 되었고 창대와 아치의 이맞돌과 아치받이 등은 석재로 마감하였다. 또한 아치 벽돌 중에는 흰색이 번갈아 끼워져 있어 벽면의 흰색 수평 띠 벽돌과 함께 전체적으로 장식의 효과를 갖는다.

지붕 중앙부에는 그리스 양식의 우뚝 솟은 목조 박공 장식을 주어 파사드를 시각적으로 강하게 유도하였다. 지붕은 일본식 기와가 올려진 우진각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르네상스 형식에 절충주의가 가미된 상당히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건축으로 여겨진다. 또한 실내 각 방에 설치된 대리석 벽난로와 정교한 천정 몰딩도 주목을 끈다.



그림 49 1909년 영사관 전경(우측의 부속 건물은 현재 없음)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50 현재 정면 모습



그림 51 좌·후측면

그림 52 좌측면 창호 처양

그림 53 2층 천장과 창호 몰딩

그림 54 영사관 각 실에는 모두 9개의 벽난로가 있었다. 2층에 있는 본 난로와 거울이 그 중에서 가장 원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2. 구 목포부청 서고

- 소재지: 목포시 대의동 2가 1-5
- 건립: 1932년

이 건물은 구 목포 일본영사관 부지 내 후면 좌측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은 건립 당시 구 목포 일본영사관 건물이 목포부청(1910년 10월 1일 개청)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서고를 지은 것이다. 근대기 일본에서는 석조 창고가 유행했는데 본 건물도 그 영향의 하나로 여겨진다. 건립 시기는 '상량식소화칠년팔월길일목포부청시공자목포형무소(上梁式昭和七年八月吉日木浦府廳施工者木浦刑務所)'로 기록된 상량문이 있어, 1932년에 공사는 목포형무소에서 맡았음을 알 수 있다. 판재에 쓴 상량문은 지붕틀 포스트 대공에 걸려있다. 현재 목포 문화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형, 지붕 트러스 구조 등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건축 구조는 박공지붕의 2층 석조 건물이다. 정면과 측면비가 1:2 정도로 종으로 매우 길며 2층은 우측 외벽에 설치된 계단(폭 950mm)으로 오르게 되어있다. 석재는 처마까지 모두 22켜로 쌓여져 있으며 상부 박공 면까지 석재로 마감되어 있다. 돌 표면은 모두 거친 흑두기로 되어 있으나 전면만은 수직으로 일부 잔다듬처리를 하였고 양측 모서리도 둥글게 잔다듬을 하였다. 석재 규격은 높이가



그림 55 건물 정 우측면



그림 56 건물 정·좌측면



그림 57 지붕목조 트러스

250mm으로 같으나 길이는 520, 800, 1,320, 1,860, 1,980, 2,350mm 등 다양하다. 전반적으로 석재 가공 및 쌓기 등이 매우 우수하다.

지붕틀은 목조 ‘스자형’ 트러스 구조다. 보는 1,800mm 간격으로 5개가 단변에 걸려있고 규격은 폭 120mm, 춤 150mm, 길이 5,770mm이다. 포스트대공의 규격은 120×120×1,420mm이다.

3. 구 무안군청 서고

-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178-1
- 건 립: 일제강점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무안군청 서고로 지어진 건물로 현재 옛 신안군청 자리(현 요양원)우측 가 장자리 쪽에 위치한다. 이 자리는 목포개항 무렵 무안감리서가 있던 곳이다. 감리서는 개항장에서 발 생하는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정부의 관청으로 1897년 개항 초기에는 목포진 내 일부 한옥이 감 리서로 사용됐고 1899년 6월에 이쪽으로 단독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감리서 건물이 언제 헐 렸는지는 알 수 없다.

무안군은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 시 지도군 전역과 진도, 완도군 일부까지 포함하여 새롭게 신설 된 군이다. 무안군청 청사는 2층 목조건물이었으나 1970년대 신안군청 신청사(철근콘크리트조)가 같은자리에 들어오면서 없어졌다. 신안군 청사는 2011년 4월에 압해도로 이전했다.

건물은 목포부청 서고와 비슷한 Y축으로 긴 장방형이며 돌 쌓기 등 형식은 비슷하다. 규모는 단층 이다. 현재 이 건물은 내부만 리모델링하여 참사랑요양원의 건강 회복실(소금치료)로 사용되고 있다. 구조는 박공지붕의 단층 석조이며 지붕처마까지 모두 13켜로 쌓여져 있다. 석재는 긴 장방형이며 마 감은 거친 흑두기로 되어있다. 잔다듬 석재도 창호 둘레와 박공의 페디먼트 둘레, 상·하부 돌림띠 등



그림 58 정면(목재로 가설 출입부를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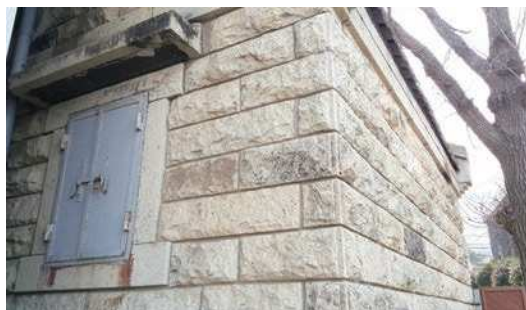


그림 59 후·좌측면과 외부 철제 창

에 들어가 있다.

이 서고는 비록 규모도 작고 단순하지만 목포부청 서고와 함께 국내 얼마 안 되는 근대기의 서고 건축으로서 가치가 높다.

4. 목포 구 청년회관

- 소재지: 목포시 남교동 80-1
- 건 립: 1924년

목포 구 청년회관은 ‘목포청년회’ 활동을 위해 건립된 공공건물이다. 목포청년회는 1920년 5월에 목포청년들이 민족운동을 위해 창립한 단체로 주로 강연 및 토론회, 잡지 간행, 교육 등을 하였다. 1927년 신간회 목포지부 창립식이 이곳에서 개최 됐고, 1943년 팔봉 김기진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조선청년』이란 잡지 창간호에 박화성의 ‘헐어진 청년회관’이란 단편소설이 실렸다가 전문 삭제되는 사건도 있었다.

현 건물은 1924년 9월 16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0일에 마쳤는데 당시 신축 공사비는 목포부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충당했다. 당시 건물 준공에 대해 신문에서도 기사를 냈다.⁰³⁾ 건물 위치는 유달산 북동쪽 산록의 거의 끝 부분 평지에 위치한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마을이었다.

이 건물은 해방 이후 어떻게 사유화 됐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한때 화장품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도

03) 『동아일보』 1925. 01. 09. “木浦青年會館竣工 / 昨年 五月頃 木浦青年會 幹部 諸氏の 活動으로 各 人士의 熱烈 同情이 八千餘圓의 基金을 造成하였으므로 昨年九月初에 府內 南嶺洞 中央에 基地를 擇定하고 石材平家 五十七坪의 大建物を 新築중이던 바 지난 十二月三十日에 竣工하였다고(木浦).” 목포문화원, 『목포근현대신문자료집성』, 2000, 293쪽.

한다. 그 후 1954년 8월부터 2010년경까지 임마누엘 예수교에서 인수하여 목포제일교회로 오랫동안 사용하였다. 1994년 3월에는 교회 측에서 외부 석조 벽체만 남겨놓고 대수선을 하였는데 당시 내부와 지붕 구조 등 건립 당시의 원 모습을 크게 변형시켰다. 이 건물은 목포시에서 인수하여 2011년에 공연 예술 공간인 '남교소극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건물은 단순한 장방형 평면의 1층 석조다. 당시 집회 시설로 건립된 건물답게 단변 대 장변의 비가 1:1.76이다. 외벽은 석조였던 관계로 비교적 건립 당시의 원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사용된 석재는 응회암으로 규격은 폭과 높이가 300mm내외이고 길이는 320mm에서 560mm사이로 일정치 않다. 현재 지반에서 벽체 상부까지 정면과 우측면에서는 16단, 좌측과 후면에서는 17단이 보인다. 외부 석재 마감은 거친 흑두기다.

출입구는 정면 중앙과 양 측면에 모두 3개의 아치형 출입구를 두었다. 창호는 단순한 장방형의 수직창으로 정면에 2개, 좌우측에 각각 5개, 후면에 2개를 설치했다. 지붕 구조는 본래 전통 목조 한옥 형식(3량가)이었으나 지금은 철재 트러스로 개수가 됐고 지붕 재료도 기와가 올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강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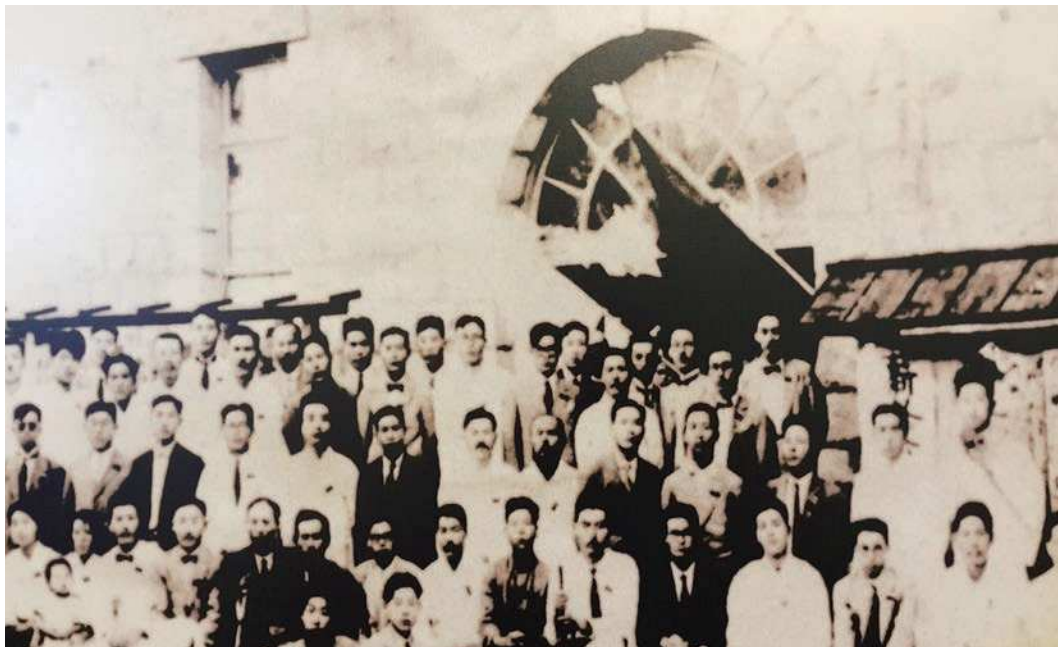


그림 60 1927년 6월28일 청년회관 배경으로 신간회 창립대회 기념 촬영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61



그림 64



그림 62



그림 63



그림 65

그림 61 정면
그림 62 우측면
그림 63 정면 출입구
그림 64 1994년 대수선 시 벽체만 남은 모습
자료: 제일교회.
그림 65 대수선 전 본당 내부
자료: 제일교회.

5. 공생원 윤치호·윤학자 기념관

- 소재지: 목포시 죽교동 473
- 건 립: 일제강점기

목포 공생원은 사회복지 시설이다. 발단은 1928년 ‘거지대장’으로 불렸던 윤치호가 7명의 부모 잃은 아이들과 함께 현재의 유달산 후면 끝자락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공생원의 시작이다. 그는 1938년 봉사정신이 각별했던 일본인 여성 다우치 치즈코(田内千鶴子, 윤학자)⁰⁴⁾와 결혼하여 평생동안 부인과 함께 공생원을 국내 최고의 복지 시설로 키웠다. 해방 이후 1951년에 광주에 식량을 구하러 갔던 윤치호가 행방불명되었으나 윤학자는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공생원을 맡아 원생들을 보살폈다. 그 공로로 1962년 문화훈장을 받고 1965년 제1회 목포 시민상을, 1968년 일본 황실에서 남수포장을 받는 등 민간대사로서 한일가교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생원은 한국 사회 복지의 뿌리가 되어 현재까지 4천여 명의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랐다.

본 건물은 공생원 설립 초기에 지어진 건물 중 현재 유일하게 전체가 남아 있는 건물이다. 그간 아동숙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 2012년부터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횡으로 긴 단순한 방형의 단층 석조 단층 건물로 외부 석조 벽체 만큼은 건립 초기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사용된 석재는 옹회암으로 규격은 높이 380mm에 길이는 300, 420, 520, 560mm 등으로 다양하다. 처마까지는 모두 11단으로 쌓았고 마감은 거친 흑두기로 되어 있으나 창대와 상인방, 그리고 하부와 상부의 각각 2열은 잔다듬으로 하여 입면에 변화를 주었다. 창은 단순한 방형의 수직 창을 설치했다. 지붕은 우진각 형으로 본래 일식기와가 올려져 있었으나 근래에 그와 유사한 강판으로 교체하였다.

04) 윤학자(1912~1968): 1912년 일본 고치현에서 태어나 7살 때 조선총독부 관리로 근무하던 아버지를 따라 목포에 왔다. 그는 목포고등여학교를 졸업 후 정명여학교 음악 교사로 3년여를 근무하기도 했다. 그 후 스승의 권유로 공생원에 자원 봉사자로 갔다가 평생 공생원 아이들의 어머니가 됐다. 그의 장례는 목포시민장으로 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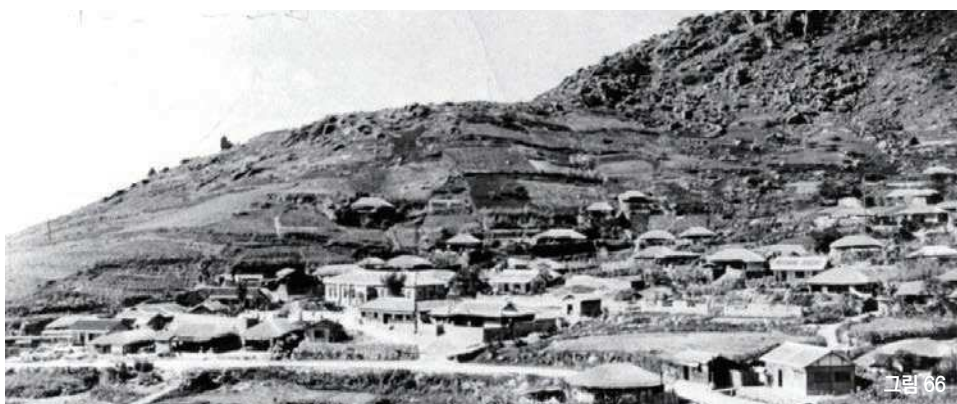


그림 66



그림 67



그림 68

그림 66 공생원 설립 초기 유달산 동쪽 기슭 전경. 좌측 편 중앙 큰 건물은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공생원 교회다. 현재의 기념관 건물은 그 후에 지어졌다.

그림 67 일제강점기 말에서 50년대 사이에 촬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생원 전경. 우측 큰 건물이 아동숙사였던 현 기념관 건물이다. 벽체 구조와 창호 위치 등은 현재와 같으나 처마선 부분에서 현재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

그림 68 일제강점기 말에서 50년대 사이에 촬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생원 전경. 좌측 우진각 지붕 큰 건물이 교회. 그 우측의 기와집들은 아동숙사다.

자료: 그림 66~68, 공생원.



그림 69



그림 70



그림 71

그림 69 기념관 정면

그림 70 본래의 석조 아치(현관 포치)를 살려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현 교회 모습

그림 71 기념관 배면

6. 목포시사

● 소재지: 목포시 죽교동 330-3

● 건립: 1907년

시사(詩社)란 시를 짓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인 단체를 일컫는다. 1920년에 초정 김성규, 무정 정만조 등이 참여하여 ‘유산시사’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고 1933년에 ‘유산정’이라는 건물을 지었다. 1961년 ‘보인시사’라는 또 다른 단체와 통합하여 ‘목포시사’가 되었다.



그림 72 목포시사 전경

목포시사는 전국 각처에서 200여 명이 매년 춘추로 2회 걸쳐 백일장을 개최하여 한시의 명맥을 오늘에까지 전수해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시사이다. 이곳 시사에는 무정의 문집을 비롯하여 구한말의 전적과 많은 한시 현판 등을 소장하고 있다.

건물은 1933년에 건립된 정면 4칸, 측면 1칸 반으로 단순한 일자형 한옥이다. 내부는 중앙 2칸은 우물마루를 깔 대청이며 그 양 측면은 온돌방으로 꾸몄다. 전퇴에는 모두 마루를 깔았다. 구조는 원형기둥을 세운 민도리집 형식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제4절 학교 건축

조선 시대 지방의 교육기관으로는 공립인 향교와 사립인 서당, 서원 등이 있었다. 이 교육 기관은 19세기 말부터 점차 그 기능이 쇠퇴되고 새로운 근대 학교가 서울, 평양, 인천 등 큰 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근대 학교는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과 함께 건립된 기독교계의 학교가 처음에는 주류를 이루었고 이어서 관제, 지방 유지가 세운 사학 등이 있다. 1885년에 세운 서울의 배재학당(감리회)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학이며 다음해에는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도 설립됐다.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목포의 근대 학교로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가 있다. 이 두 학교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목포선교부에 의해 1903년에 설립됐다. 개항 무렵 목포에 정착하기 시작한 선교사들은 선교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교육 사업도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남녀를 분리하여 여학생을 위한 정명학교, 남학생을 위해서는 영흥학교를 세웠다. 영흥학교는 선교사들이 세운 양동교회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었고 정명학교도 양동교회와 가까운 곳에 설립했다. 개항 후 얼마 되지 않은, 아직도 어촌의 때를 벗지 않은 시골에 서양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운 것이다. 현재 정명여학교 교정에는 선교사 사택으로 쓰였던 석조 건물 2동과 교사 일부가 남아 있다.

영흥학교는 1903년 9월 9일에 선교사 배유지가 유래춘, 임성옥 성도 등과 함께 ‘영흥서당’ 설립을 계기로 발전을 한 남학교다. 당시 유래춘을 교원으로 하여 한문, 국어, 성경 과목을 가르쳤다. 이 학교는 1980년에 목포시 상동으로 학교 전체가 이주하였다. 교정에 있던 교사는 모두 이주하여 현재는 사진상으로만 옛 교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옛 교정에는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그림 73 정명여학교 고등과 1회 졸업생 일동(1914년). 중앙이 유애나 교장.
자료: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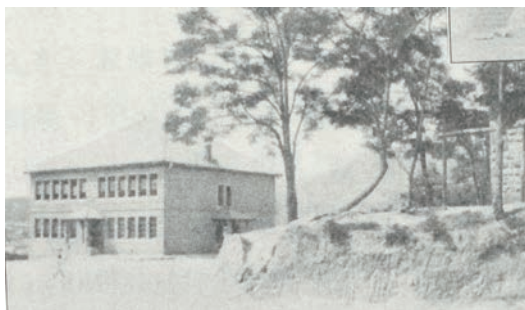


그림 74 일제강점기 영흥학교 교사 전경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411쪽.



그림 75 영흥학교 조례 모습. 1950~1965년 사이 촬영. 좌측 건물
이 교사동. 상단 중앙 건물이 양동교회.
자료: 영흥학교 홈페이지.

한국인과 일본인의 주도로도 학교가 설립됐다. 위치는 각국 주민이 주로 거주했던 북교동과 유달동이다. 한국인 주도로 설립 된 최초의 학교는 목포공립보통학교(현 북교초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본래 1897년 개항이 되던 해에 무안읍 무안향교 내에 설립됐던 무안공립학교를 당시 목포의 유지 김봉규의 노력으로 1901년에 목포로 이전한 것이다. 『목포부사』(1930)의 기록에 의하면 1930년 4월 말 당시 학생 수는 1,449명(남 1,071명, 여 387명)이었고 건물은 교사(벽돌조 2층, 단층 목조)와 단층 벽돌조 강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학생 수와 시설 규모로 보아 당시 학교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이 학교는 해방 이후 북교초등학교로 역사가 이어졌으나 당시에 지어진 건물은 모두 철거되고 없다.

일본인은 개항 직후부터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고민하였는데 당시 영사관이나 거류민들은 학교를 세울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부산, 인천, 경성, 원산 등 기 개항지의 선례에 따라 불교 사원이 거류민 자녀의 교육을 맡았다. 마침 목포에는 1898년 4월에 설립한 자국의 동본원사 목포지원이 있어 초대 주지 서산각유사(西山覺流師) 주도로 1898년 11월에 목포심상고등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1901년 12월까지 동본원사 목포별원에서 관리하였고 그 이후로는 거류민회에서, 다시 1914년 4월부터는 목포부에서 학교를 경영하였다.

학교 설립 초기 42명이었던 학생 수가 일제강점기 중기인 1930년에는 조선인 30명을 포함하여 모두 1261명(남 680, 여 583)으로 학교가 커졌다. 이는 당시 목포공립보통학교와 학생 수는 거의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해방이후 유달초등학교가 된 이 학교에는 옛 교사는 모두 없어지고 1929년에 건립된 2층 조적조 강당만 남아 있다.

일본인은 공립고등여학교도 1920년 5월 15일에 설립했다. 이 학교는 실과 고등여학교로 출발했으나 1921년 4월에 고등여학교로 승격이 되었다. 위치는 당시 경동 2정목 2번지(현 경동)로 현재 목포여자중학교 자리다. 목포여자중학교는 1946년 9월1일에 공립으로 개교한 학교로 과거 일본인이

세운 학교에서 새롭게 재탄생한 것이다.

한편 처음으로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이 정식으로 함께 수업 받는 학교도 1920년 6월 1일에 설립 됐다. 설립 목적은 당시 중등 교육을 받기 위하여 일본이나 경성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함도 있었으나 한편으로 한일 융합의 한 방편이기도 했다. 당시 교명은 목포공립상업학교였고 위치는 대성동 40번지(현 목포여고 자리)였으며 학생 수는 1930년 당시 5학급 228명(한국인 91명, 일본인 137명)이었다. 이 학교는 1939년 7월에 대성동에서 현 용당동 옛 목포상업고등학교로 자리로 옮겼다. 해방 이후 1946년 9월에 목포공립상업중학교, 1953년 4월에 목포상업고등학교로 변경이 된 후 2011년 3월부터는 인문계인 전남제일고등학교로 새로 태어났고, 다시 2014년 목상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해방 후인 1953년과 54년에 근대성이 잘 드러나 있는 두 동의 대형 교사가 각각 건립 됐다. 즉 문태고등학교 본관과 목포사범학교 본관이다. 둘 다 석조 건축인 두 건물은 역사와 조형성이 돋보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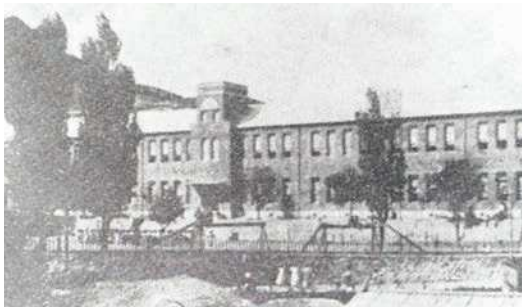


그림 76 구 목포공립보통학교 교사(현 목포북초등학교 자리)
자료: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시의 문화유적』, 1995, 303쪽.



그림 77 구 목포공립상업학교 교사(현 목포여고 자리)
자료: 김정섭, 앞의책(2011), 403쪽.



그림 78 구 목포공립상업학교 교사 정면
자료: 목포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303쪽.



그림 79 구 목포공립고등여학교 교사(현 목포여중 자리)
자료: 김정섭, 앞의책(2011), 400쪽.

1.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 교사

- 소재지: 목포시 양동 86-1
- 건 립: 1920년대

목포 정명여학교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목포 선교부에 의해 1903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초대 교장으로는 여선교사인 서여사(Miss F.E.Straeffer)가 취임하였다. 1904년 3월 초대 교장 서여사가 사임한 후 약 2년간 휴교 상태에 있다가 1906년 4월 변여사(Preston)가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학교의 운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본격적인 학교의 발전은 1912년 1월 약 8천 원의 공사비로 석조 2층(현재 없음) 건물을 신축한 이후부터였다. 1912년에 이어 1922년에도 석조 교사 1동이 신축되었고 광복 후인 1961년에 그 옆으로 또 다른 석조 교사 1동이 지어졌다. 이 두 건물은 1966년에 함께 해체되어 현재와 같은 3층 규모의 큰 건물로 다시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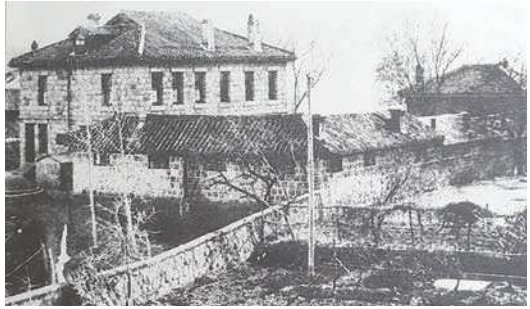


그림 80 정명여학교 초기 학교 전경. 좌측 큰 건물이 1912년에 지은 교사동이고 우측 일부 보이는 건물이 유애나관(교장 사택)이다. 중앙의 단층 기와 지붕 건물은 기숙사다.

자료: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4쪽.



그림 81 현 체육관 자리에 있었던 붉은벽돌 2층 구조의 제5대 (1911.3~1919.3)유애나 교장 사택. 2003년에 헐렸다.

자료: 1995년 필자 촬영.



그림 82 1965년까지의 학교 모습. 오른쪽 건물은 이봉환 교장 재임 시(1956.11~1965.2)인 1961년에 지은 교사다. 두 건물은 해체되어 1966년에 아래 모습(현)으로 새로 건축됐다.

자료: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24쪽.



그림 83 1966년 새롭게 건축된 교사 전경
자료: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24쪽.



그림 84 현 교사 전경

어났다(석재는 옛 건물 것을 그대로 사용). 현재 이 건물 좌측 편으로는 석조 건물과 연결된 철근콘크리트조 출입구와 계단실을 두었다. 건물에 사용된 석재는 방형으로 가공한 응회암이며 쌓기 방식은 선교사 사택과 거의 유사한 바른 층 쌓기로 되어있다.

현 정명여자학교 교정에는 옛 건물로 본 교사 1동과 선교사 사택 2동만 남아 있다.

2.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 소재지: 목포시 유달동 8
- 건 립: 1929년

목포공립심상소학교는 개항 다음해인 1898년에 일본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초등 교육시설이다. 동본원사 목포지원 주도로 설립된 이 학교는 초기에는 사원의 법당 일부를 교사로 사용하였다. 그 후 거류민 자녀 수가 늘어나면서 1899년 현 위치에 약 103㎡ 교사 신축을 시작으로 학교의 규모가 커지게 됐고 현재의 강당은 1929년 건립되었다. 해방 이후 현재 목포 유달초등학교가 된 이곳에는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교사는 모두 훼손되고 본 강당 건물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건물은 장방형 평면의 2층 철근콘크리트다. 1층은 중앙에 복도를 둔 교실로, 2층은 전체가 강당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주출 입구는 장변 쪽 중앙에 있었고 현재도 본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다. 보통 강당 건축에서 주 출입구를 단변 쪽에 두는 것과 큰 대조가 된다. 2층은 복도 끝에 있는 목조 계단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

정면과 좌측면 일부 외부는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1.5m높이 석재로 마감처리 했다. 지붕 구조는 목조 트러스로 되어있고 천장은 격자 줄눈이 있는 판자를 사용했다. 지붕 형태는 우진각

형으로 함석으로 마감했다. 창호는 각층에 쌍으로 긴 수직 창을 설치했는데 특히 2층 상부에는 반원 아치를 두었다. 1층의 경우는 쌍으로 된 수직창 사이의 벽을 없애고 크게 하나의 장방형 창호로 새로 교체한 흔적이 있다.



그림 85



그림 86



그림 87



그림 88



그림 89

그림 85 동본원사 별원 내 일본인 소학교와 생도들(1899년 촬영)
자료: 김정섭, 앞의 책(1991), 155쪽.

그림 86 일제강점기 목포공립심상소학교 전경. 우측 2층 건물이 현존하는 강당이다. 학교 뒤편 유달산 기슭의 좁은 터에 규모가 큰 일본인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87 강당 정·좌측면
그림 88 강당 정·우측면
그림 89 배면

3.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 소재지: 목포시 용당동 183

● 건립연도: 1953년

목포 문태고등학교는 1941년 4월 28일 재단법인 문태학원(5년제 문태중학교)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문태고 설립은 1951년 8월 31일이며 본 건물은 머릿돌에 새겨진 연대로 보아 1953년에 완공된 것으로 여겨진다. 설계자는 강봉진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는 당시 문재근 교장과 미 육군 대령이 주도하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설계 전체 도면(청사진)이 현재 학교에 보존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국내의 근대건축 중 도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 특히 주목이 된다.

건물 구조는 2층 석조이다, 이 건물은 1998년 화재로 외부 벽체만 남겨두고 내부와 목조지붕틀이 완전 전소되었다. 그 후 2001년 6월에 내부를 크게 개보수를 하여 현재는 사무실과 특수교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평면은 후면으로 3개의 돌출부를 둔 E형이다. 정면 중앙부와 양 측면에는 위로 돌출된 삼각형의 박공지붕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대칭성 균형감이 있다. 또한 창과 창 사이에는 일정 간격으로 돌출된 수직부를 두어 건물의 수직성이 잘 드러나 있다. 정면부 석재 쌓기 형식은 기단부 격인 4단까지는 큰 흑두기로, 그 위로는 잔다듬 바른 층 쌓기로 되어 있다. 정면 중앙에는 2개의 원주로 받쳐진 출입 포치가 있다.



그림 90



그림 91



그림 92



그림 93

그림 90 건립 초기 본관 전경. 전면에 아직 조경이 안 되어 있다.
자료: 문태고 행정실.

그림 91 화재 후 본관 전경
자료: 문태고 행정실.

그림 92 본관 정면

그림 93 본관 후면

4.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 소재지: 목포시 용해동 산43
- 건립연도: 1950년

목포사범학교는 1947년 4월에 첫 신입생을 모집한 이후 목포교육대학(1964년 3월)을 거쳐 1979년부터 목포대학이 되었다. 초창기 사범학교는 현 목포여중 앞에 있었던 구 조선면화 창고를 개조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등 환경이 열악하였다. 그 후 학교 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 지자 현 용해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1950년에 본 건물을 짓게 됐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3단계 증축을 거치면서 길이가 105.6m가 되는 긴 건물이 됐다. 1단계는 중앙 홀을 포함하여 서편으로 1950년 이전 당시 건립됐고 다음 2단계는 1954년에 동편을 대청으로 완공했다. 현재의 모습이 되는 마지막 3단계는 1962년에 역시 동편으로 증축이 됐다. 1단계 석조 공사는 손양동⁰⁵⁾이 하였다. 이 공사는 1949년 봄부터 시작하여 약 1년이 걸렸고 석재는 학교에서 약 3.5km 떨어진 산정동 석산에서 마차를 이용하여 큰 원석을 옮겨와 현장에서 가공하여 축조했다.⁰⁶⁾

건물의 전체 형태는 중앙 부분에 주 출입구를 둔 ‘一’자형 2층 석조건물이다. 평면 및 입면이 좌·우 대칭으로 구성되어 균형감이 있고 아울러 석조건물로서 중후함도 있다. 건물 평면은 정 중앙에 출입 홀이 있고 홀의 끝에 좌·우로 복도를 두고 남쪽으로 교실을 배치하였다. 출입 홀은 전면 벽체로부터 1.7m정도 앞쪽으로 돌출시켜 내부가 비교적 넓고(7×8m) 상부도 2층 부분까지 오픈시켜 개방감이 있도록 하였다. 현관 앞쪽 4.3m 지점에 2개의 원형 기둥을 세우고 지붕 처리를 한 출입 캐노피를 두었다. 출입 홀 좌·우로는 각각 4Bay 구조를 적용하여 1, 2층 모두에 각각 8개의 실(크기 8.7×6.9m)을 두었다.

벽체는 외부를 돌로 쌓았고 2층 바닥은 철근콘크리트 보를 걸고 콘크리트 슬라브로 처리하였다. 보는 복도와 교실 모두에 현치를 두어 구조적 안전성을 최대한 배려하였다. 보 간격은 약 2.3m로 매우 좁으며 복도 쪽은 중간에 하나씩을 줄여 4.6m간격으로 하였다. 외부 돌 쌓기는 총 22켜로 되어 있는데 수직 줄눈은 일정하지는 않다. 석재는 밝은 회색빛을 띠는 화강암 계열(응회암)이며 석재 표면은 거친 흑두기로 되어 있는데 많이 돌출된 부분은 10cm정도가 된다.

우측(동편)의 증축 부분은 본래 1, 2층이 각각 큰 교실(강당)이었던 것을 1980년경에 현재의 모습

05) 「제1절 목포 근대건축의 성립과 발전」 주1) 참조.

06) 2009년 손양동 고증.

으로 다시 개수한 것이다. 즉 중앙에 폭 1.7m의 중 복도를 두고 1, 2층에 각각 4개씩의 작은 실 (4.0 × 4.2m)을 두었다. 외부는 전면만 본 건물과 같은 석재로 거친 흑두기 마감을 하였고 후면은 4켜까지만 돌로 쌓고 그 상부는 시멘트 몰탈 뽕칠로 처리하였다.

지붕 트러스는 1.7m간격으로 총 57개를 설치했다. 구조는 육송을 사용한 왕대공 트러스 구조이며 가로 평보 길이는 10.9m, 왕대공 높이는 3.07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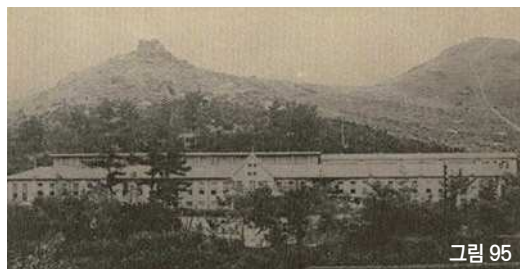


그림 94 1950년 신축 당시 목포 사범학교 본관(서쪽면 1/2만 건축)
자료: 문화재청,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9, 54쪽.

그림 95 동측까지 모두 완성된 목포사범 학교 본관
자료: 문화재청, 앞의 책, 55쪽.

그림 96 본관 정면 전경



그림 97



그림 98



그림 99

그림 97 본관 배면
그림 98 1층 중앙 홀
그림 99 지붕 왕대공 트러스

제5절 종교 건축

목포가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종교도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개항 초기부터 목포에 온 미국 선교사들은 우선 선교에 열정을 쏟았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식 학교와 병원, 주택 등을 지어 목포 근대건축의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전남 지역에 선교 사업이 시작된것은 1896년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나주를 선교지로 하면서이다. 1897년 이른 봄 벨(한국명: 배유지) 선교사⁰⁷⁾와 해리슨(한국명: 하



그림 100 전도 여행길에 나서는 배유지 선교사(우측)와 하위럼 선교사. 한옥 건물이 눈에 띈다.

자료: 김수진, 『양동제일교회 100년사(1897~1997)』, 양동제일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97, 3쪽.

위럼) 선교사가 나주에 파견되었고 그들은 나주에 머물며 선교를 시작했다. 그러나 나주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가 강한 보수 고장으로 기독교 문화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결국 다음해 6월에 나주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고 이때 나주 이외의 유리한 선교 지역으로 떠오른 곳이 목포였다. 목포는 1897년 10월 1일 개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개항장으로서 장차 발전 가능성이 확실한 곳이었다. 벨 목사 일행은 1898년 8월에 목포에 사택을 마련하고 전라도 선교의 본거지가 되는 목포스테이션(Mokpo Station)을 설치하였다. 그 후 목포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바로 양동교회다.

한편 일본인도 목포에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자국민을 위해 1911년부터 전도를 시작했고 제대로 격식을 갖춘 예배당을 현 대의동 큰길가에 신축했다.

불교는 개항 초기부터 일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포교를 했다. 일본 불교는 사회 밀착형으로 서민들 가정에 까지 불교문화가 깊숙이 침투했고 승려들은 결혼도 하고 육식도 하는 등 한국 불교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개항 초기부터 얼마 안 되는 자국민을 위하여 목포에도 불교 사원을 세운 것이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1911년 6월 3일자로 사찰령을 발령하여 적극적으로 한국 불교에 대항하는 한편 종교 차원에서 그들의 문화적 지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본인이 목포에 세운 최초 사원은 1898년 4월에 세운 동본원사 목포별원(東本願寺木浦別院)이다. 이어 진언종 지산파 목포교회소(眞言宗智山派木浦敎會所, 1901), 정토사(淨土寺, 1910), 서본원

07) Rev. Eugene bell(1868~1925, 한국명: 배유지(裴裕祉)): 1891년 미국 캔터키 주의 Central대학 졸업, 1894년 캔터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896년 봄 28세의 나이로 서울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왔다. 1898년 목포에 온 그는 의사이며 목사인 오웬 선교사, 부녀자와 어린이의 전도를 주로 맡은 스트래퍼 양 등과 함께 초기 목포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림 101 1935년 한국인 마을 죽동 언덕에 건립됐던 구 죽동교회. 아치 창호가 있는 아담한 단층 석조 건물이었다. 2000년 초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자료: 1995년 필자 촬영.



그림 102 1901년 죽후동에 건립된 일본인 사찰 정토종(淨土宗) 정토사(淨土寺). 훼손 시기는 미상. 본당의 건축 양식, 요사채 일체형 등 현존하는 정혜원(구 흥선사)건축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자료: 목포신보사, 『개항 만 35년 기념 목포사진첩』, 1932, 38쪽.

사(西本願寺, 1912), 흥선사(興禪寺, 1918), 약사사(藥師寺, 1927) 등이 연이어 설립됐다. 당시 일본인이 세운 사찰로 현재 건물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 사찰로는 정광정혜원(구 흥선사)과 약사사 2곳이 있다.

일본보다 조금 늦게 한국인들도 사찰을 건립했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유달산 주변에 집중적으로 한국불교사원이 자리했다. 1915년 4월 해남 대흥사 포교소로 시작한 달성사(達成寺), 1928년 10월 장성 백양사 말사로 시작한 보광사(普光寺), 관음사(觀音寺)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세운 사찰은 전통적으로 내려 온 산지형인데 반해 일본인은 접근이 쉬운 도심형 위주로 사찰을 세웠다. 한편 한국인 사찰의 현 전각들은 최근에 중창 형식으로 새롭게 지어진 것이 많아 건축사적 가치는 거의 없다.

1. 양동교회

- 소재지: 목포시 양동 127
- 건립: 1900년

양동교회의 본격적인 선교 역사는 1898년 가을에 현재의 양동 86번지에 포교소 겸 선교사 사택을 건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도 수 20여 명, 수세례자는 7명이었고 초대목사는 배유지 목사였다. 그 후 신도 수가 늘어나 1900년 가을에 46㎡ 규모의 한옥 교회당을 신축했으며 2년 후에도 한차례 증축이 있었다.

양동교회는 1909년에 조선인 최초로 윤식명(평양신학교 2회 졸업생)목사가 초빙되어 교회 설립 10여년 만에 조선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되었다. 당시의 신도 수는 약 300명이 되어 새로운 예배당의 신축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 양동교회 건물은 윤식명 목사 부임 이후 교회의 성장기에 새로 신축한 의미 있는 건물이다. 규모는 약 350㎡였고 건립비는 약 1000여 원이 들어갔다. 착공은 1910년이며 준공은 1911년 겨울이다. 건물 좌측면 상부 아치에 ‘대한 융희4(大韓 隆熙四)’라는 음각 글이 있는데 이는 공사 중인 1910년에 해당된다.

양동교회는 구릉지의 비교적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구 선교사 사택 자리도 구릉성 언덕 위에 자리했는데 당시 목포는 구조적으로 평지가 없고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구릉형 산지가 주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곳은 경관이 좋고 당시 목포 중심에서 먼 곳이었기 때문에 땅값도 저렴했다.

교회는 가파른 경사를 오르면 바로 교회 본당이 있고 좌측으로는 바로 1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한 현대식 건물의 교육문화센터가 있다. 본당 건물은 어느 교회처럼 단순한 장방형(20.07m×18.85m) 평면의 모습이다. 내부는 통간으로 넓게 강당형으로 되어 있고 전면부에는 중층을 두었다. 그리고 지형차를 이용하여 전면부에는 작은 지하 예배실도 마련하였다. 한편 1982년에 정면 중앙으로 본 구조에 바로 맞댄 4층 구조의 종탑부를 설치하여 정면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구조는 응회암을 사용한 단층 석조 건물로 외부 마감은 거친 흑두기로 되어있다. 지붕은 본래 목조 트러스를 걸은 팔작지붕이었으나 전면부는 현재 전면 종탑부 증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박공으로 고쳐졌다. 지붕 재료는 건립 당시 함석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에는 지붕의 구조 보강을 위해 전체를 해체하여 기존 트러스 사이에 같은 규격의 트러스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지붕 재료도 강판으로 교체했다. 창호는 수직 창을 사용하였고 창 상·하로는 석조 수평인방을 걸었다. 그리고 건물 양 측면 중앙의 출입구 위로는 석재 아치를 두었다.

본 교회는 아래 옛 사진에서 보듯이 건립 당시 옥외에 별도의 종탑을 세웠다. 초기는 목조 종탑이었고 그 후에 다시 같은 위치에 조적조 종탑을 새로 건립했다. 일제강점기 교회 종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기념비적인 유적이다.



그림 103



그림 104



그림 105



그림 106



그림 107



그림 108



그림 109

그림 103 초기 한옥교회와 교인 일동

자료: 김수진, 앞의 책, 5쪽.

그림 104 1930년 간행한 『목포부사』에 실린 양동교회 우측면 사진. 현존하는 양동교회 사진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사진으로 여겨진다. 좌측에 목구조의 종탑이 있다.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381쪽.

그림 105 영흥학교 교정에서 바라 본 양동교회 모습(중앙 상단). 팔작지붕, 벽체, 조적조 종탑 등 건물 전체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뒤에 보이는 산은 유달산이다(1950~1965년 촬영).

자료: 영흥학교 홈페이지.

그림 106 목구조 종탑 철거 후 새로 세워진 독특한 디자인의 조적조 종탑. 위치는 이전 종탑과 같다. 1980년대 중반에 철거 됐다.

자료: 1983년 여름, 필자 촬영.

그림 107 건물 좌측면과 종탑부

그림 108 건물 우측면

그림 109 건물 좌측면 출입구 아치. 중앙에 태극문양과 함께 대한유회 4년이란 음각의 글이 있다.

2.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

-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160-1
- 건 립: 1933년

북교동 교회의 발단은 1924년 5월 초순 몇몇 사람들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됐고 그 후 점차 그 수가 늘어나자 남교동 초가집에서 정기 기도회를 갖게 됨으로써 북교동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 다음 해인 1925년에는 서울 성결교회 총회본부에서 장석초(張錫初) 전도사의 파견을 계기로 비로소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다. 당시 처음 자리한 곳은 죽동 131번지로 큰 초가를 전세로 얻어 내부를 예배당으로 개조하였다. 당시 이 예배당은 장 전도사의 살림집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1928년에 다시 북교동 191번지로 셋집을 옮기는데 이때부터 북교동 일대가 전도 구역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교동 교회는 1931년 이성봉 목사(1931~1936년 재임)의 부임으로 일대 전환기를 갖게 되었다. 현 북교동 160번지에 대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48평 규모의 석조 건물을 1933년에 신축하였다. 그간 제대로 된 성전이 없었는데 본 건물의 신축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정착의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현재의 본당 모태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신축 본당은 단순한 장방형 평면의 맞배지붕 단층 건물이었다.

그 후 신도 수가 늘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자 1955년에 본당을 단층에서 2층으로, 전면도 3층으로 증축을 시작하여 그 전과 전혀 다른 성전이 되었다. 당시 공사는 10여 년이 걸린 어려운 공사였다.

증축 공사 이후 30여 년 가까이 사용 했던 성전이 1992년에 화재로 내부가 전소되어 같은 해 바로 우측에 신축 중이었던 선교 센터가 대신 본당이 되었고 본당이었던 현재의 건물은 내부를 수선하여 현재 교육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화재 당시 석조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다.

건물은 장방형 평면의 2층 석조 건물이다. 전면부에 계단실이 있는 홀이 있고 본당은 2층에 두었다. 계단은 본래 목조였으나 화재 후 콘크리트 구조로 개수가 됐다. 석재는 인근 유달산에서 채석한 응회암이며 크기는 높이 290mm에 길이는 300mm, 420mm 등 방형에 가까운 석재를 사용했다. 마감은 중간 정도의 흑두기 마감이다. 측면에는 7개의 수직 창을 냈고 창대돌과 인방돌은 잔다듬으로 마감했다. 전면 파사드는 3층으로 상부 양측을 고딕형식으로 중앙부보다 높게 했고 2층 창호는 단순한 방형이나 3층만은 상부에 아치를 두어 입면에 변화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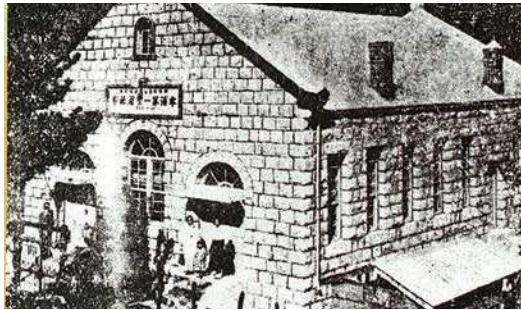


그림 110 1933년 신축된 본당모습
자료: 북교동교회, 『북교동교회 80년사(1924~2004)』, 2004, 12쪽.



그림 111 본당을 배경으로 한 목포지방 제1회 성경학교 기념사진.
이우영목사 재임 시(1939.11.~1943.12.).
자료: 북교동교회, 앞의 책, 119쪽.



그림 112 건물 정면



그림 113 건물 후면과 좌측면

3. 목포 북교동 성당

- 소재지: 목포시 북교동 46
- 건립: 1958년

북교동 성당은 1956년 5월에 건축을 시작하여 1958년 9월에 완공된 천주교 건물이다. 목포의 산정동, 경동에 이은 3번째로 세워진 성당이다. 경내에는 같은 해에 건립 한 붉은 벽돌집인 사제관(112㎡)과 교실(132㎡)도 있다. 성당 부지는 천재 극작가 김우진(1897~1926)의 생가 터로 이곳은 1903년 무안감리를 지낸 김성규가 기증한 것이다. 김우진은 '사의찬미'로 유명한 한국 최초의 여성 성악가 윤심덕과 함께 현해탄에 몸을 던져 자살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성당은 종으로 긴 단순한 장방형이며 중앙양쪽에는 약간 돌출시켜 고해실을 두었다. 구조는 맞배지붕 단층 석조 건물로 벽체는 장방형의 응회암으로 축조되어 있다. 쌓기는 특별한 장식 없이 단순하다. 정면에는 아치 구조로 된 돌출된 방형의 출입 포치를 두었고 그 위로는 성 비오 10세 교황상과 4개의 기둥으로 축조된 종탑이 있다.

측면 창호는 상부에 반원 아치를 둔 수직창이며 유리는 스테인드글라스다.



그림 114 건물 정면



그림 115 건물 좌측면



그림 116 성당 완공 기념 사진
자료: 북교동 성당

4. 목포 경동성당

- 소재지: 목포시 경동 2가 2-1
- 건립: 1954년

경동성당은 광주지목구장 대리였던 헨리 신부가 건축비를 미국에서 모금 운동으로 충당하여 지은 성당이다. 이 성당은 1953년 한국천주교회 최초로 ‘레지오 마리아’⁰⁸⁾가 도입된 성당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동양척식목포지점 후면 쪽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성당 경내에는 현재 본당과 근래에 새로 지은 사무실과 사제관 등이 있다. 성당 공사는 1951년 5월에 대지 약 1,970㎡를 목포시로부터 매입해 1952년 11월에 본당 및 사제관 공사를 시작하였다. 사제관이 1953년 1월에 먼저 준공되었고 본

08) 성모님의 표양을 본받으려는 가톨릭 평신도 단체의 하나. 1921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20대의 젊은 여성 15명이 빈민원의 환자 방문 계획을 세우려고 첫 모임을 갖고 시작했다. ‘자비의 모후회’로 불리다가 ‘마리아의 군단’이라는 뜻의 레지오 마리아로 명칭이 바뀌었다.

당은 1954년 7월 7일에 완공되었다. 1966년 3월에는 본당 정면이 지반침하로 균열이 가 조적구조로 전면 보수하여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석공사는 당시 목포에서 많은 석조 건물을 지은 경험이 있는 손양동이 맡았다.

본당은 단순한 장방형 평면의 석조 2층 건물이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다. 석재는 바른 층 쌓기로 되어 있고 면은 흑두기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며 석조술이 정교하고 균형감이 있다. 창은 측면 1, 2층에 각각 9개의 수직 창을 설치하였고 창문 위아래로는 잔다듬한 인방을 걸었다.



그림 117



그림 118



그림 119

그림 117 1954년 7월7일 준공 기념사진. 중앙에 큰 아치 구조가 있는 본당 본래의 정면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측에서 3번째 인물이 시공자 손양동이다.

자료: 경동성당.

그림 118 건물 정·좌측면

그림 119 건물 후면과 좌측면

5. 목포기독교회

- 소재지: 목포시 해안로 165번길 50
- 건 립: 1922년

목포기독교회는 일제강점기 초기 일본인이 자국민을 위해 설립 한 교회다. 이 교회는 1911년 3월에 일본 동경 전도국에서 전도를 시작한 것을 시초로 하여 1912년 8월에 안동에서 온 죽내호야(竹内虎也) 목사가 정식으로 부임하면서 교회가 설립 되었다. 당시 집회는 유정 1번지(현 유동 수산시험장 앞)의 가옥을 임대하여 교회로 사용하였고 그 후 교세가 늘어나자 1914년 7월에 수정 2정목 3번지(현 수강동)로 교회를 이전하였다. 당시 신도 수는 40명이 넘었고 목사는 영산포와 광주에도 출장 전도를 나갔다. 1919년 11월에는 교회가 침체되어 죽내목사가 일본으로 돌아갔고 교회도 문을 닫게 됐다. 그러나 교회 철폐 후에 자체적으로 신도들이 더욱 열심히 집회를 계속하고 신도가 늘어나자 동경 전도국에서는 축자익인(筑紫益人)을 다시 상주 목사로 파견하였다. 목사 부임이후 일요학교 출석자가 50명이 넘는 등 교회가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게 되자 1922년 9월에 대화정(현 대의동)에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게 됐다. 목포에서 전도를 시작한 후 11년 6개월 만에 주택 교회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예배당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건물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앞 사거리에서 유달산 방향 약 50m 거리의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다. 건립 당시는 사진 상에서 보듯이 2층이었으나 현재는 1층만 남아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주로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전면 7.5m 폭의 단순한 장방형이나 정 중앙으로는 마름모형의 1.2m 돌출부를 2층까지 두는 모던한 디자인을 하였다. 입면 등은 간결하고 창문은 장식이 없는 수직 창을 설치했다. 외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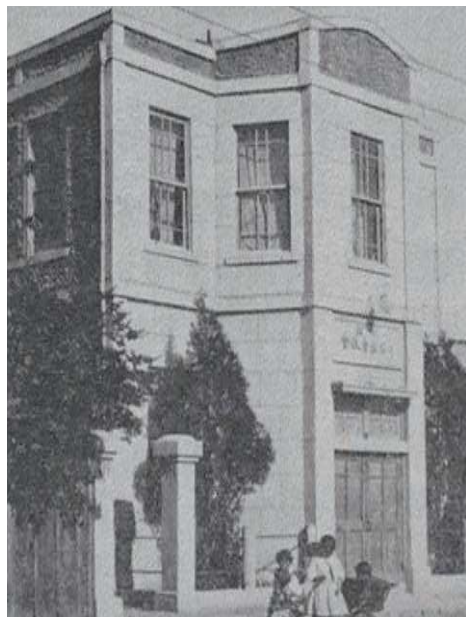


그림 120 현재 1층만 남아있는 건물 정면

그림 121 1920년대 목포기독교회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379쪽.

모래와 시멘트로 현장에서 시공하였는데 마치 석재판을 붙인 것처럼 보인다.

본 건물은 비록 원형을 많이 상실했지만 일본인 유일의 기독교 건축이 현재도 남아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층 중앙에는 한자로 ‘목포기독교교회(木浦基督教會)’란 양각 간판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본래 교회 후면에 일본식 목조 2층의 목사 사택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없다.

6. 달성사

- 소재지: 목포시 죽교동 317
- 건 립: 1915년

달성사(達城寺)는 목포 원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유달산의 동남쪽(죽교동)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이다. 양산 통도사 출신으로 알려진 노대련(盧大蓮) 선사(禪師)에 의해 1915년 4월 8월 해남 대흥사(大興寺)의 포교당으로 창건되었다. 당시 이 사찰은 주변에서도 많은 신도들이 모인 한국인 중심 사찰이었다. 경내 전각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석조로 건립된 법당들이 있었으나 2000년도에 현재와 같은 목조 양식으로 극락보전, 명부전, 삼성각 등을 새롭게 중창하였다. 성보 문화재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반가상 등이 있다.

경내 주 법당인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다포집이다. 극락보전 전면 좌측에 위치한 명부전은 정면 3칸의 맞배집이고 삼성각 역시 정면 3칸의 맞배집이다.



그림 122 달성사 전경



그림 123 국락보전



그림 124 명부전

7.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 소재지: 목포시 영산로 75번길 5(무안동)
- 건립: 1930년대 초

동본원사(東本願寺)는 일본 사찰로 본원은 일본 교토에 있다. 목포에 처음 사원이 세워진 것은 개항 다음해인 1898년 4월이며 당시 사원은 포교소 형식으로 현 대의동 부근의 초라한 목조 가건물이었다. 그 후 신도 수가 늘어나자 1905년 10월 무안통 4정목에 종루까지 갖춘 목조 법당을 신축하였으며 1907년 12월에는 지원이 별원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현재의 석조 법당이 1930년 초에 새로 건립된다. 왜 지은 지 30여 년도 안 돼, 그것도 석조로 새로 지은 지는 알 수 없다. 위치는 1905년에 지은 목조 법당이 있었던 곳으로 여겨진다. 목조 사원은 본당과 요사체가 서로 연결된 일체형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형식은 당시 목포에 건립된 정토사, 흥선사(현 정광정혜원)등과 같은 유형이다.

본당은 석조 단층 건물로 평면은 종으로 긴 장방형에다 전면 중앙으로 포치식의 돌출된 현관을 두었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경사도가 무려 37도로 매우 가파르다. 지붕틀에 사용된 목재는 잣나무, 가문비나무, 육송 등 의외로 국내산을 사용했다. 기와는 모두 일식 기와가 사용되었는데 용마루 좌우측의 14개 조각이 한조가 되어 설치된 장식기와가 매우 돋보인다. 벽체는 모두 정교하게 다듬어진 응회암을 사용하여 구축했고 모서리에도 목구조 같이 원형 기둥을 두고 상부에는 독특한 형상의 주두까지 두었다.

이 건물은 석조 벽체에 일본 목조 불당의 건축의장 요소를 표현한 국내 유일의 사찰 건물로 주목이 간다. 이 건물은 해방 후 정광사의 관리하에 있다가 1957년 7월부터 목포 중앙교회로 50여 년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불자의 공간이 기독교인의 공간으로 대체된 특별한 인연이다. 이 건물은 2007년 등록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현재는 강연, 공연, 전시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25



그림 126



그림 127

그림 125 건물 정면

그림 126 건물 좌측면

그림 127 1905년에 건립 한 목조 법당. 좌측으로 요사채가 연결되어 있다.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365쪽.

8. 정광 정혜원

● 소재지: 목포시 죽동 226-1

● 건립: 1918년

목포 정광정혜원(淨光定慧院)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세운 사찰이다. 2017년 10월 23일자로 등록 문화재 제696호로 지정되었다. 사찰은 1912년 9월 24일에 당시 목포부 대화정 2번지에서 일본 조동종 대본산(曹洞宗 大本山)의 허가로 포교소로 시작하였다. 당시 주임 포교사는 조선 유학생 다라

미도현(多羅尾道賢)이었다. 설립 이후 나날이 신도가 늘어 교당의 확장을 위해 1916년 7월에 향정 4번지로 포교소를 이전하였다. 그 후 1917년 5월에 현 죽동 226번지에 사찰 신축을 시작하여 1918년 3월에 현재의 건물을 완공하였고,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포교소가 아닌 흥선사(興禪寺)가 되었다. 초대 주지는 그간 포교소를 맡아 왔던 다라미도현(多羅尾道賢)였다.

1924년 7월에 중명에 의하여 초대 주지는 대구로 전임되고 후임 2대 주지로 역시 일본인 좌하현(佐賀縣)출신의 광산각음(光山覺音)이 취임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까지 주지로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다. 한편 그의 손자 광산수도(光山修道)도 현재 일본 의왕사(醫王寺) 주지로 재임 중이다.

이 사찰은 광복 후 조계종에서 인수하여 한때 선학원으로 이용했으며, 정광정혜원(淨光定慧院)이란 명칭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고 백양사 방장을 역임한 만암 스님에 의해 붙여진 사명이라고 한다.

법당의 중앙 불단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고, 좌우에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를 이루고 있다. 2개의 원주 뒷편에 위치한 불단의 좌우에는 작은 불단이 설치되어 독성도와 산신도, 칠성도가 모셔져 있고, 원주의 좌우에는 신중탱과 지장탱이 모셔져 있다. 경내에는 1917년에 조성된 보현보살상과 석탑이 남아 있다.

정광정혜원은 크게 법당과 요사채로 구성되어 있고 두 건물은 횡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예불 공간(법당)과 생활 공간(요사채)이 중앙에 중정을 두고 일체로 되어 있다. 이 중정 앞뒤에 복도가 있어 두 건물을 쉽게 오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법당, 요사 연결형은 한국 전통 사찰에서는 한곳도 볼 수 없는 일본식 사찰 구성 형식이다. 현재 이러한 구조의 일본식 사찰로는 군산의 동국사(東國寺)가 있다. 이 사찰 역시 조동종 계열의 사찰로 1909년에 정혜원과 같이 포교소로 시작하여 1916년에 정식 사원이 되었다. 건축 양식은 일본 에도(江戸)시대의 양식을 잘 따르고 있는데 정혜원 역시 같은 양식이다.

법당은 종축으로 긴 장방형 평면에 중앙으로 현관 포치를 둔 전형적인 일본 에도 시대 건축양식을 취하고 있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7칸이며 여칸 내부에는 불단 쪽으로 내부기둥을 두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기와 면이 포치 위에까지 그대로 내려왔고 물매는 급한 편이다. 앞으로 나온 현관 포치는 전면 기둥 위로만 공포가 있고 법당 외부에는 어떠한 장식적 요소도 없다. 이상과 같은 구조와 포치식 현관 형태는 정혜원 보다 다소 빠른 시기에 정혜원 인근에 건립된 정토사(淨土寺)와 매우 흡사하다. 건물 외벽은 특별한 장식 처리가 없고 뒤편에 일부 목재 비늘판벽으로 마감되어 있다. 처마, 서까래 등에서 일식 목조 주택의 수법이 잘 나타나 있다.

요사채도 전체적인 평면구조나 외형은 건립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진입은 우측 전면의 포치식 현관을 통해 드나들게 되어 있다. 현관 앞에는 폭이 좁은 복도가 있는데 이 복도를 통해

우측의 법당과 연결된다. 전체 평면 구성은 우측으로 거실(마루구조)을 두고 전면과 좌측으로 침실과 주방 등을 두었다. 요사채 후면에는 후면 복도에서 연결된 다소 독립적인 아담한 2층 목조(1층: 창고, 2층: 침실)구조이다.



그림 128



그림 129



그림 130



그림 131



그림 132

그림 128 일제강점기 정광정혜원 전경. 단청이 없다.

자료: 일본 예왕사(医王寺).

그림 129 일제강점기 정혜원 불단 모습

자료: 일본 예왕사(医王寺).

그림 130 일제강점기 법당 정면에서 촬영한 사찰 관계자. 중앙이 2대 주지 광산각음(光山覺音).

자료: 일본 예왕사(医王寺).

그림 131 법당 전경

그림 132 요사채 전경

9. 약사사

● 소재지: 목포시 만호동 1-24

● 건 립: 1927년

약사사(藥師寺)는 일제강점기 ‘임제종 동복사파 목포포교소(臨濟宗 東福寺派 木浦布敎所)’로 시작된 일본식 사찰이다. 처음 임시 포교소는 1926년 11월 2일에 남교동 138번지에서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31일에 다시 행정 2정목 3번지(현 행복동)로 이전하였다. 그 후 신도가 늘어나자 1927년 9월에 현 목포진 후면 언덕진 곳에 본 건물을 건립하였다. 당시 건축비는 2,500원으로 교토 동복사의 보조와 신도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 사찰 경내에는 현재 대웅전과 칠성각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경내가 협소하다. 건립 당시 이곳은 목포진 후면의 경사 지형으로서 경관은 좋으나 평지는 거의 없는 곳이었다.

대웅전은 1927년 건립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면 3칸 규모의 2층 목조집이다.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1층은 좌측으로 일부를 덧달아 낸 곳과 함께 요사채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당은 2층에 있다. 법당의 출입은 우측에 경사 지형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 구조는 방주를 사용한 홑벽 모임지붕 구조다.

칠성각은 정면 3칸이며, 팔작집으로 합각 면 쪽이 정면으로 되어 있다. 두 건물 모두 2000년 초에 일식 기와에서 검은색 강판으로 교체되었다. 경내에는 1935년에 건립된 불상과 1930년에 건립된 물을 담는 석조가 있다.



그림 133 대웅전 정면, 그림 134 칠성각, 그림 135 대웅전 후면

10.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 소재지: 목포시 노송길 35-0(산정동)
- 건립: 1945년 무렵

이 건물은 1937년 광주지목구가 설립된 후 최초로 광주·전남지역(당시 제주지역 포함) 선교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신축연도는 1945년부터 1956년까지 목포교구청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1945년경으로 여겨진다. 이후 2002년까지 병원 및 간호대학으로 사용한 후 비워 두다가 2012년 등록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2016년에 전면 보수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구청이 입지한 곳은 평지가 아닌 높은 큰 동산이다. 이곳은 목포 개항과 더불어 이 지역에 유입된 천주교 성지로서 성당과 함께 의료 시설인 골롬반병원이 한데 있었던 곳이다.

구교구청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 벽돌 조적식 건물로 전체적으로 횡으로 긴 장방형 건물이다. 정면 중앙에는 돌출된 출입 포치를 두었고 내부는 중앙에 복도를 두고 그 양측에 실들을 꾸몄다. 지하 층 외벽은 석조로, 1~3층 외벽은 적벽돌로 마감하였다. 구조적으로 조적조 형식인 까닭에 내부의 실 구획을 위한 벽체는 상하층 동일한 위치에 있고 특히 중앙 복도는 지붕의 트러스 밑에까지 이어진 형식이어서 실 내부 구획을 쉽사리 바꾸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사용된 벽돌의 크기는 220×107×57mm이다

창호는 세로로 긴 장방형의 목재 오르내리창호이며 창대석은 벽돌과 석재로 되어있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여 마감하였다. 2층 바닥은 바닥보 위에 바닥 널을 깔아 마감하였으며, 천정은 바닥보 아래로 줄대를 설치하고 석고플라스터를 바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지붕틀은 길이 11.4m의 왕대공 트러스 형식으로 중앙 포스트를 중심으로 좌우에 달대공이 2개씩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후 지붕면마다 환기를 위하여 돌출창이 일정 간격으로 4개씩 설치되어 있다. 지붕은 왕대공위에 지붕널을 깔고 석면 슬레이트로 마감되어 있다.



그림 136



그림 137



그림 138



그림 139



그림 140

그림 136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전경(우측 건물)

자료: 천주교 광주교구청.

그림 137 중앙 현관 포치에서 기념 촬영(1960년대 촬영)

자료: 천주교 광주교구청.

그림 138 건물 정면

그림 139 우·후측면

그림 140 정면 출입구

제6절 금융·상업 건축

목포가 개항이 되면서 목포의 부두는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고 물자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게 되었다. 부두 노동자가 급격히 늘었고 일본인들도 무역 등의 이유로 꽤 많이 목포에 거주하게 되었다. 개항 무렵 몇백 명에 불과 하였던 목포 인구가 1910년에는 무려 10,000여 명이 되었고 이후 계속 도시가 성장하여 1930년대 초에는 인구가 약 50,000명이나 되는 당시로는 큰 항구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무엇보다도 상업에 관계되는 건축물이 도시에 증가하게 된 것과 관계가 있다.

개항 당시 상업은 조계지의 일본인과 조계지 밖의 조선인 상인에 의해 영위되었다. 일본 상인은 처음에는 행상인이 주었다. 행상인은 주로 옥양목, 석유, 성냥, 명태 등을 팔았고 쌀, 해조류 등을 사들였다. 이어서 상업이 더욱 번성해지자 무역상, 잡화상, 소매상 등으로 다변화 됐다. 무역상은 쌀, 면화, 잡곡, 소가죽, 해초 등을 수출하고 포목, 석유, 성냥 등을 조선인에게 도소매하였다.

조선 상인은 객주가 있었다. 객주는 상인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아 주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중간 업자다. 객주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개항장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그들은 숙박, 금융, 창고, 운송 등으로도 수익을 올렸다. 당시 목포부에서 70명으로 객주의 수를 제한했으나 그 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목포가 점차 커지면서 근대적인 금융기관도 목포에 설립되기 시작했다. 목포의 최초 금융기관은 개항 1년 후인 1898년 10월 1일에 설립한 일본 제일은행 목포출장소다. 설립 당시는 자체 건물 없이 가옥 일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다 1906년에 단독 은행 건물을 마련했다. 그 후 1909년 10월 한국은행 목포지점이 설립되면서 제일은행 목포출장소는 그쪽으로 위양 됐다. 이어 한일합병 이후 일본이 본격적인 경제 침략을 위한 금융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1911년 2월 조선은행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8월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개칭하자 목포지점도 조선은행 목포지점으로 개칭되었다. 아쉽게도 당시의 건물들은 모두 철거되고 없다. 국내에 현존하는 당시의 제일은행 건물로는 구 인천 일본제일은행 지점(현 인천개항박물관)이 있다.

한국인이 설립한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은 현재 유일하게 목포에 남아 있는 근대 은행 건물로서 지방 근대금융사 및 건축사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은행 이외 금융사로서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도 일제강점기 목포 경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다. 건축적으로도 부산과 대전의 건물보다 구조나 조형성에서 완성도가 높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우선적으로 거리에는 상가가 형성된다. 상가는 도시민의 생활상을 가장 기층에서 볼 수 있는 생활 유산으로서 목포의 근대 상가 역시 목포의 근대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현대건축 틈 사이에 군데군데 끼어있는 건물(2층의 목조 내지는 벽돌조)도 있으나 줄지어 연립 형

태로 남아 있는 건물도 의외로 많다(일명 갑자옥 거리 등)·내부는 비록 일부가 개조되기도 했으나 외형만큼은 현대 상가와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벽돌조 구조에 외부를 시멘트와 가는 모래를 현장 배합하여 붙인 독특한 시공법이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근대 상가는 원 도심 재생의 핵심 자원으로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위락 시설인 극장도 목포에 들어섰다. 1926년 11월에 조선인 사업가에 의해 죽동에 목포극장이 세워졌고 다음해에는 무안동 현 오거리 대로변에 평화관이 세워졌다. 두 극장은 모두 목조 2층 구조로 외부는 현대식으로 입면을 다양하게 꾸몄다. 두 건물 모두 1990년대까지 있었으나 그 후에 헐렸다.



그림 141



그림 142



그림 143

그림 141 목포에 처음 건립된 단독 은행 건물. 제일은행 목포출장소를 거쳐 1924년 수강동에 신축 건물을 세울 때까지 조선은행 목포지점으로 사용했다.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23쪽.

그림 142 1924년에 신축한 조선은행 목포지점. 이 건물은 해방 후 한국은행 목포지점으로 사용하다가 1988년 목포역 앞에 현 건물을 신축하면서 철거됐다. 건물은 규모도 크고 장중하며 특히 정면 중앙의 도릭 양식을 취한 4개의 기둥이 매우 인상적이다. 상부 처마 부분의 정교한 수평 장식도 주목이 된다. 이 건물은 서구 고전주의와 르네상스 양식이 혼용된 건물로 당시 목포가 근대도시로 향하는 상징적인 건물이었다.

자료: 필자 촬영.

그림 143 식산은행 건물로 1997년에 헐렸다. 외부를 흰색 타일로 마감한 상당 규모의 세련된 현대풍의 건물이었다. 해철 전까지 제일은행 목포지점으로 사용했다.

자료: 필자 촬영.



그림 144 1917년에 개설된 조선축산은행 목포지점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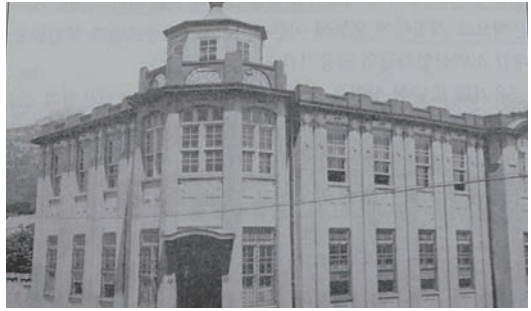


그림 145 1906년에 개설된 신파은행 목포지점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24쪽.



그림 146 1922년에 설립된 목포무진주식회사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30쪽.



그림 147 목포곡물상조합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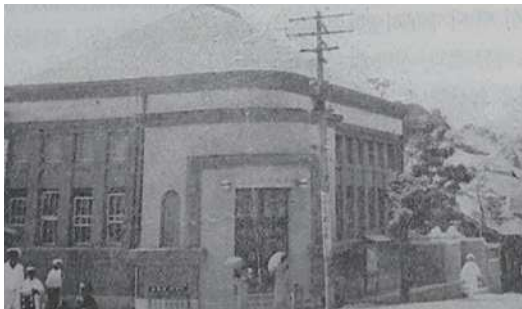


그림 148 목포금융조합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36쪽.



그림 149 무안금융조합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37쪽.



그림 150 목포극장
자료: 목포신보사, 앞의 책, 36쪽.



그림 151 평화극장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800쪽.



그림 152 일본인이 경영한 서양식 카페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804쪽.



그림 153 해안 가 창고 전경
자료: 목포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300쪽.



그림 154 일제강점기 거리 모습(현 갑자옥에서 북만동 방향)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155



그림 156



그림 157

그림 155 일제강점기 거리 모습. 옛 중소기업은행 4거리에서 선창 쪽 방향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156 일제강점기 죽동거리(목포극장 길) 모습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그림 157 일제강점기 거리 모습. 현 갑자옥 4거리에서 선창쪽 방향
자료: 목포근대역사관.

1.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 소재지: 목포시 중앙동 2가 6
- 건 립: 1921년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이 한국 경제를 독점 착취하기 위해 1908년에 설립한 특수 국책 회사로 전국 주요 도시에 지점을 설립했다. 업무는 주로 토지 매입, 농업, 토지 개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주로 했으며 직접 토지를 매수하고 사들인 토지는 다시 한국인에게 높은 소작료를 받고 임대도 하였다. 호남 지역에는 처음 나주 영산포에 설립(1909년 8월 출장소 개설, 1920년 4월 지점 승격)되었으나 1920년 6월 1일자로 목포로 이전했다.

본 건물의 신축연도는 1921년 11월 7일로 추정된다. 건물은 본동과 단층 부속 건물이 있었으나 부속 건물은 1999년에 철거되고 현재는 본동만 있다. 뒤쪽으로 본동에 연결되었던 1층 부속건물(식당, 화장실, 숙직실 등)도 1999년에 철거됐다가 다시 2006년에 복원됐다. 이 건물은 2006년도에 내·외부를 개보수하였고 현재는 목포근대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내부는 역사관으로 개조하여 원형이 거의 사라졌으나 외부만큼은 건축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형식은 뒤쪽의 계단실 부분이 돌출된 장방형 평면의 2층 조적조 건물로써 후기 르네상스 양식을 띄고 있다. 1층 평면은 현재의 시중 은행모습과 같이 영업장과 객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다만 영업장이 객장보다 배 이상 넓었다.⁰⁹⁾ 2층은 주로 사무실이었는데 이곳 역시 역사관으로 바꾸면서 개조가 됐다.

건물 외부 하단에는 거칠게 마감된 4단의 석조 기반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첫 단은 잔다듬마감이고 그 윗단은 거친 다듬이다. 1층과 2층 사이의 외벽에는 방형판 위에 양각(陽刻)의 원형 장식을 창호 사이에 두었다. 이 원형 장식은 일본을 상징하는 태양 문양이다. 정면과 우측면의 상부 지붕에는 정교한 몰딩이 있는 박공장식을 두었고 상부의 처마선 아래에는 몰딩한 코르니스(cornice)를 두었다. 본 건물의 정중앙에는 석조아치로 출입 현관을 꾸몄는데 그 세부 조각이 매우 정교하고 특히 상단부의 타원형 양각물이 인상적이다. 외벽 마감은 깊은 줄눈이 있는 현장 시공 석판으로 되어 있어 석조 건물 같은 느낌을 준다. 창호는 1~2층 모두 같은 위치에 수직 창이 설치되어 있어 건물의 수직성이 크게 드러나 있고 창문은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다. 1~2층 내부 벽은 회반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천장의 갓 둘레에는 몰딩 한 장식 띠가 여러 겹으로 둘러져 있다.

09) 1995년 필자 조사.



그림 158 건물 정·우측면



그림 159 건물 좌·후면



그림 160 건물 정면 출입구



그림 161 일제강점기 건물 전경
자료: 김정선, 앞의 책(2011), 629쪽.

2.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 소재지: 목포시 상락동 1가 10-2
- 건립: 1929년

구 호남은행은 목포지점 건물은 개항 이후 근대기에 건립된 많은 은행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물이다. 한편 호남은행은 당시 일본계 은행만이 있었던 상황에서 한국인이 자본을 대고 한국인만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순수 한국인계 은행이었다는 점은 이 은행의 특징이다. 설립은 1920년 2월 9일이며 설립 주체는 당시 호남의 부호이며 유지인 현준호(玄俊鎬), 김상섭(金商燮), 김병노(金炳魯) 등이었다. 본점은 광주에 두었고 목포지점은 1920년 10월 2일에 당시 무안통 6번지에 설립했으며 현재의 건물은 자리를 옮겨 1929년 11월 현 위치에 건립되었다.

당시 호남은행이 자리한 곳은 상당히 도시 구조가 갖추어진 조계지 지역과 신 개발지라 할 수 있었던 목포역 부근 사이로 은행 입지로는 최고의 자리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건물은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3면이 도로에 접해 있다.

본관 내부는 그간 여러 차례 개보수 과정에서 변형이 됐으나 외형만큼은 건립 당시의 본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구조는 장변 18.3m, 단변 14.75m(우측 기준)인 장방형 평면의 2층 조적조 건물이다. 1층 내부는 홀 형식으로 넓게 영업장이 들어서 있고 후면 1/3쯤은 좌측부터 계단실, 상담실, 금고 등이 들어서 있다. 상담실과 금고 사이에는 별관과 연결되는 짧은 복도가 나 있다. 2층은 1층 영업장 부분 위로만 드러져 있다.

입면은 크게 기단부, 몸체부, 지붕부로 구성되어 있다. 몸체 정면에는 1, 2층 같은 위치에 수직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벽면에서 안쪽으로 2단 접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벽면이 입체적으로 잘 드러난다. 후면만 제외하고 양 측면도 같은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당시로써는 상당히 모던한 디자인으로 목포 근대건축의 이슈가 됐을 것이다.

벽돌쌓기는 1, 2층 외벽 모두 1.5B 영식쌓기 구조로 되어있다. 외부 마감타일은 110×60×10mm 규격의 평타일을 주로 사용하였고 기타 60×60×10mm, 그리고 창문 하부에 60×130×10mm도 사용하였다. 타일색은 약간 어두운 붉은색이다.

지붕틀은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구조는 육송을 사용한 왕대공 트리스 구조이며 2층 바닥도 목조틀이다. 트리스 가로(평보)길이는 11,130mm이며 왕대공 높이는 3,000mm이다. 트리스는 중앙에 1,650mm 간격으로 5개가 설치되어 있다.

별관은 1982년에 같은 자리에 있던 옛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장변 17.8m, 단변 11m인 장방형 평면의 단층 조적조 건물이다. 외부는 본관과 유사한 타일로 마감되어 있다.

구 호남은행 건물은 서양 조적조의 건축에 근거한 근대 절충 양식을 취하고 있는 귀중한 목포지역의 근대건축이다. 특히, 아직까지 줄눈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교하게 붙여진 외부 타일과 현대건축에 서도 보기 드문 ‘ㄱ’자형 모서리 타일 사용도 매우 인상적이다.

이 건물은 해방 이후 조흥은행, 신한은행으로 사용하다가 2009년부터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목포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162



그림 163



그림 164



그림 165



그림 166

그림 162 건물 정·좌측면

그림 163 지붕틀 구조

그림 164 건물 정면

그림 165 현 오거리에서 바라본 일제강점기 호남은행 앞 거리. 좌측 큰 건물이 호남은행.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716쪽.

그림 166 일제강점기 건물 전경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625쪽.

3. 구 광생의원

● 소재지: 목포시 남교동 61-1

● 건립: 1936년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거주했던 북교동 근처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다. 건립연도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이다. 건립 당시부터 병원 전용 용도로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더욱 주목되는 건물이다. 건물은 전면에서 보면 2층인데 거리에 면한 앞쪽만 2층이고 그 뒷면은 1층이다. 2층 전체를 병원으로 사용하였고 이와 연결된 후면 1층은 주거용이다.

병원은 단순한 장방형 평면의 조적조 구조다. 1층은 거친 흑두기로 마감한 석조이며 2층은 석재 대신 붉은 벽돌을 사용하였다. 2층 전면만은 시멘트 뿔칠로 마감하여 1층 석조와 조화를 꾀했다. 전면에는 수직 창을 설치했는데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계 당시부터 내부 기능에 충실하게 디자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도 오르내림 형식의 목창호 부재가 잘 남아 있다. 이 건물은 외부 재료 선택이나 창호 설계, 포치 설치 등 건립 당시 상당히 모던한 건축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면 출입구 전면에는 폭 2.1m, 깊이 1.6m의 내민 출입 포치를 두어 병원 건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전면 2개의 포치 기둥은 높이가 2.3m인데 단일 석재를 사용했다. 지붕은 우진각지붕에 일식 기와가 얹혀져 있었으나 최근에 유사한 모양의 강판으로 교체하였다.

이 병원은 오래 전부터 진료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도 ‘광생의원’이란 간판이 그대로 걸려있고 가족은 후면의 1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림 167 건물 정면



그림 168 건물 현관 포치

4. 구 목포 화신백화점

- 소재지: 목포시 상락동 1가 11-8
- 건 립: 일제강점기

본 건물은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아래쪽(선창가 방향)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당초 서울 화신백화점 연쇄점으로 건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후 조선운수주식회사 목포지점으로 사용했다. 당시 '마루보시'로 불리었던 이 회사는 주로 쌀과 면화 등 물자운송 및 하역을 취급하였다. 당시 200여 평 규모의 큰 창고가 6~8개가 현 KT사옥 근방에 있었다. 해방 후 관영기업이었던 대한통운이 이 건물을 취득하여 1999년까지 목포지점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개인이 임대해 한때는 화실(김영자 갤러리)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건물은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벽체는 붉은 벽돌로 쌓았다. 사거리 코너 부분을 원형을 처리하였고, 코너 2층 상부에는 반원아치창을 연속으로 3개를 내었다. 특히 코너 부분의 파라페트를 양측면보다 높게 처리하여 정면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현재 건물 외부가 모두 흰색으로 도장되어 있어 적벽돌 건축의 이미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사거리 코너의 입지에 맞게 정면을 곡선으로 처리하고 거기에 포인트로 아치창을 내는 등 당시로는 상당히 세련된 모던건축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69 건물 정면



그림 170 2층 창호

5. 구 화랑여관

- 소재지: 목포시 행복동 1가 4-2
- 건 립: 일제강점기

이 건물은 여관 전용으로 지은 숙박용 건물이다. 건물은 1970년대 후반까지 ‘화랑여관’이란 상호로 영업을 했고 그 후로는 현 주인이 매입을 하여 해산물 도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입 후에도 2층만은 한동안 ‘완도여인숙’으로 사용하였다. 건립 연도는 일제강점기 중후반 정도로 추정된다. 현 주인이 매입 당시 50여 년 된 건물로 알려져 있었고 당시 이 지역의 도시 개발 상황 등으로 보아 대략 그쯤 정도로 여겨진다. 현재 건물은 전면 파사드만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고 내부는 상업 용도에 맞게 수리가 되어 있다. 1층은 본래 전면에 점포 하나가 있었고 안쪽은 여관으로 중앙 복도를 사이로 해서 객실이 양쪽에 있었다. 2층도 여관으로 중앙 복도 양측으로 8개 정도의 객실이 있었고 화장실은 1, 2층 모두 우측 끝에 두었다. 후면으로 역시 객실이 있는 3층(31.41㎡)도 있었으나 현재는 철거되고 없다. 객실은 모두 다다미 구조였다.

구조는 조적조이며 지붕틀은 트러스 형식이나 상당히 변형된 구조다. 빗대공 없이 도리에서 바로 보로 각각 연결되어 있고 보도 단일 부재가 아니고 2개의 부재를 덧댐 형식으로 연결하였다. 보 직경은 150~200mm 정도의 거친 마감 원형이다.

정면 2층 외관은 건립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특히 2층에 설치한 가로 750mm, 높이 170mm 규격의 4개 반원 아치창이 매우 돋보인다. 아치창을 낸 상업용 건물로는 현재 목포에서 이 건물이 유일하다. 외부 마감은 일제강점기 상업용 건물에 널리 사용했던 바른 줄눈 현장시공석판(시멘트)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은 비록 내부는 변형이 되었으나 근대기 목포의 숙박 시설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현장이다. 모던한 정면 디자인도 눈에 띈다.



그림 171 건물 정면



그림 172 2층 지붕틀 도리와 지붕널판

6. 구 이리장 여인숙

● 소재지: 목포시 호남동 12-13

● 건 립: 일제강점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건립한 일본식 2층 목조 와가로 위치는 목포역 서쪽편(해안가 방향)에 있는 건어물 시장 끝 부분의 삼거리 코너에 자리한다. 건립 당시 이 지역은 현 목포역 부근이 상당히 개발이 되었고 특히 신사와도 가까운 곳이였기 때문에 입지 여건은 상당히 좋았던 곳이다. 건립 당시 는 일본인 상가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1970년 무렵에 여인숙으로 개조하여 2004년 무렵까지 ‘이리장 여인숙’이란 간판으로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목포에서는 여인숙 건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관리인만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2층으로 오르는 목조 계단과 2층의 방 3개가 건립 당시의 원 모습을 갖추고 있고, 1층은 안내실이 있는 등 여인숙 용도에 맞게 부분적으로 개수가 되어 있다.

본 건물은 중앙의 일부분만 2층이고 전면 부는 1층이다. 2층은 우진각 지붕이나 1층은 합각 면이 나란히 2개가 보이는 팔작지붕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입면과 지붕 구조가 흥미롭다. 지붕에는 본래 일식 기와가 올려져 있었는데 현재는 일부가 검은색 강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층 외부는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여겨지는 목재 가로판벽, 오르내림 형식의 목재 창호 등 옛 모습이 잘 남아 있다.

이 건물은 입체감 있는 지붕 형태와 구조 등도 흥미롭고 특히 근현대기 30여 년간 서민들이 즐겨 찾았던 여인숙이란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주목이 간다.



그림 173 건물 전경



그림 174 정면 박공 및 2층 정면

7. 중앙동 2가 2층 상가

- 소재지: 목포시 중앙동 2가 8-4
- 건 립: 일제강점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중심거리인 구 일본영사관 앞쪽의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구조는 2층 목조 건물이며 건립 당시 1층은 일본 신발 ‘게다’를 파는 상가였고, 2층은 주거용이었다. 상점 안쪽에서 2층으로 오르는 65cm 폭의 좁은 목조계단이 있고, 2층은 일본식 반침이 있는 방 2개로 꾸며져 있다. 외관은 줄눈을 둔 석분 뿔칠로 마감하였다. 2층 창문은 세로로 길고 좁은 오르내리창이며 아래에는 약간 돌출된 창대를 두었다.



그림 175 상가 전경



그림 176 1995년 무렵 상가 모습(필자 촬영)

8. 구 남양어망 영업소

- 소재지: 목포시 행복동 96
- 건 립: 일제강점기

행복동 사거리 코너에 건립된 상가다. 이 지역은 특히 광복 이후에 크게 변창한 상가 밀집지역이다. 건립은 일제강점기 말경으로 여겨지며 해방 후부터 2006년까지 ‘남양어망’ 사옥으로 쓰고 있다. 2007년에 내부를 개수하여 현재는 건어물 가게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조적조 2층 평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사거리 대지를 감안하여 코너 부분을 사선 처리했고 출입구도 코너에 두었다. 외부 마감은 현장시공석판(시멘트)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창호 등 건립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그림 177 건물 전경



그림 178 2층 창호

9. 창작센터 나무숲

- 소재지: 목포시 행복동 96
- 건립: 일제강점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상업 거리로 제일 변화했던 일명 갑자옥 거리 중앙쯤에 위치한다. 건립연도는 구 건축물 대장에 1935년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건립된 건물일 수도 있다. 건물 용도는 백화점 성격의 종합 판매점으로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구전에 의하면 '동아부인상회'란 백화점이었다고도 한다. 해방 후 제일 동아부인상회, 냉장고 만드는 회사, 샤론 어린이집(1995년) 등으로 사용하다 2016년부터 목포 예술인들이 모여 전시와 창작의 공간인 '창작센터 나무숲'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지는 종으로 긴 장방형으로 8m 전면 도로에 바로 면해 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ㄴ'자 형 평면의 2층 목조다. 도로에 면한 1, 2층은 약간 가로로 긴 장방형이며, 여기에 후면 좌측으로 길게 역시 1, 2층이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이 당시 살림집이었는데 현재도 복도와 창호 등 건립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다. 2층 바닥은 목구조로 횡으로 1,505×60mm 목재 3개를 걸고 그 사이에 1,202×30mm 부재를 900mm 간격으로 걸었다.

상가 후면에는 작은 마당도 있다. 기와는 건립 시 올려진 일식 기와 그대로이며 도로면 2층 창호와 마감 등도 본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건물은 건립 배경과 건축 구조 등 여러 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그림 179 건물 전경



그림 180 2층 복도

10. 구 해태의류

- 소재지: 목포시 복만동 13
- 건 립: 일제강점기

갑자옥 거리 중간쯤에 위치하는 2층 상가로 건립은 일제강점기 중반쯤으로 여겨진다. 최근까지 옷 가게(해태의류)로 사용했으며 현재는 비어있다. 내부는 개조가 됐으나 구조와 정면 파사드는 건립 초기의 본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평면은 약간 좌측이 사선으로 된 장방형으로 측면부가 길다. 구조는 목구조이나 좌측면만은 1.0B 쌓기 조적조로 되어 있다. 벽돌은 붉은 벽돌이며 조적은 박공 면까지 올라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인근 가로 변 상가 건물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일종의 방화벽이다.

건물 전면 외부는 돌 형상의 시멘트 판으로 되어 있으며 2층 처마 밑으로는 몰딩 장식을 두었다. 2층 바닥틀은 100×270mm, 장선을 900mm 간격으로 걸고 그 위에 판재를 깔았다.



그림 181 건물 정면



그림 182 2층 바닥 틀

11. 남해 선구점

- 소재지: 목포시 영해동 1가 6(해안로 229번길 2-2)
- 건 립: 일제강점기

본 건물이 위치한 영해동 거리는 광복 이후인 1950~1960년대 크게 상권이 형성된 거리이다. 이곳은 ‘영해잔교’라고 부르는 당시 완도, 진도 등에서 오는 배가 닿는 곳과 바로 인접해 있어 상권이 번창했던 곳이다. 본 건물의 건립 시기는 일제강점기 말엽으로 여겨진다.

건물은 2층 조적조 건물로 영해동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외부는 2층 창호까지 건립 당시의 모습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1층 상가는 곡물집, 기름집, 시민약방, 완도선구점 등을 거쳐 1983년 무렵부터 남해선구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물의 전면 외관은 시멘트와 가는 모래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시공한 일종의 석판마감으로 방형의 줄눈이 들어가 있다. 평면은 방형이나 모서리는 가로 코너에 맞추어 사선으로 처리하였다. 2층 바닥 판은 목재틀로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림 183 2층 창호



그림 184 남해 선구점 전경

12. 대광전자 상가

- 소재지: 목포시 영해동 1가 3-5(해안로 229번길 4)
- 건 립: 일제강점기



그림 185 상가 전경



그림 186 2층 창호

영해동 사거리 코너 남해선구점 바로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2층 건물이다. 건립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남해선구점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평면은 코너 입지에 맞게 모서리를 사선으로 처리한 방형이며 구조는 조적조로 되어 있다. 외부 벽체는 일정 간격으로 줄눈을 넣고 시멘트와 가는 모래를 혼합하여 발라 석판을 댄 것처럼 보인다.

창호는 1층은 개조가 됐으나 2층 만큼은 건립 당시의 목재 오르내림 수직창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13. 구 보광동 객주집

- 소재지: 목포시 보광동 1가 4
- 건립: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말경에 건축된 것으로 여겨지는 2층 석조 건물로 당시 ‘객주’집이었다고 한다. 이 상가는 내항 가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이곳은 섬과의 교류가 크게 늘면서 상업 거리로 크게 번창했던 곳이다.

평면은 측면이 긴 단순한 장방형으로 1층은 상가로, 2층은 본래 침실로 ‘다다미방’이었다. 건축 구조는 조적조로 양 측면은 붉은 벽돌로, 전면은 거친 흑두기가 있는 방형 석재로 되어 있다. 2층 수직창 상하 인방은 잔다듬 마감으로 거친 벽체와 대조가 된다. 2층 바닥은 목재 틀로 건립 당시의 원 모습 그대로 잘 남아 있다.

현재 1층은 건어물 가게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이제 몇 남지 않은 목포의 근대 석조상가 건물 중 하나이다.



그림 187 전면 전경



그림 188 2층 바닥 구조

14. 구 목포 유곽

- 소재지: 목포시 해안로 105번길 7-1. 11
- 건립: 1910년대

유곽(遊廓)은 개항 후 일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성매매가 공식화되면서 자기들 거류지에 설치한 근대적인 집단 성매매 지역을 말한다. 유곽은 개항장에 우선적으로 설치됐는데 1902년 부산을 시작으로 1903년에 원산, 그리고 목포에는 1905년에 처음 설치됐다. 설립 초기에는 일본 여성만 참여하였으나 점차 한국인 여성도 유곽에 발을 디디게 됐다.

목포 유곽은 처음에는 죽동 흥선사와 통조사 사이의 좁은 지역에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목포역의 개통과 시가지의 확산 등으로 인구가 늘고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유곽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1913년 여름에 현재의 금화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지역은 당시 부의 서쪽 끝 바닷가 부근으로 기존 시가지와 동떨어져 있고 전망도 매우 좋은 곳이었다. 1930년 발행 『목포부사』에 의하면 당시 일본인이 경영한 유곽은 일곡루(一谷樓), 주길정(住吉亭), 현해루(玄海樓), 만직지루(萬直誌樓), 삼교루(三橋樓) 등 5곳이 있었고, 한국인 경영의 유곽은 일출정(日出亭), 명월정(明月亭), 영춘정(永春亭) 등 3곳이 있었다.

현재 금화동 유곽 거리에는 2층 유곽 건물이 4채 정도가 있다. 이중 2채는 개보수가 되어 옛 모습을 유추하기가 힘든데 2채는 목구조 처마와 창호, 2층 실내 등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현재 1층에서만 살림집으로 부분 사용하고 있다.

군산, 부산 등 이미 건물은 커녕 거리조차 모두 사라졌는데, 목포 유곽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다. 과거 식민지의 기억은 모두를 지워도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의도적으로 외면한다고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목포 유곽도 그중의 하나다.



그림 189 목포 유곽 전경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806쪽.



그림 190 목포유곽 전경(1913년)
자료: 김정섭, 앞의 책(2011), 228쪽.



그림 191 건물 전경(7-1번)



그림 192 건물 전경(11번)

15. 구 전남정미소

- 소재지: 목포시 대안동 2-1
- 건 립: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목포를 대표하는 한국인 미곡상이었던 김문옥(金文玉)이 운영하던 ‘전남정미소(全南淸米所)’ 건물이다. 1897년 목포 개항 이후 목포항을 중심으로 미곡 상인들의 활동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여러 곳에 정미소가 생겨났다. 그 중 전남정미소는 전남에서 제일 규모가 컸으며 특히 한국인이 운영했던 정미소로 잘 알려진 곳이다. 본 건물에 대한 구 건축물대장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 중반쯤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은 남쪽으로 큰 마당(현 독천식당 주차장)을 두고 주로 북쪽과 서쪽의 도로변을 따라 ‘ㄷ’자형으로 지어졌다. 또한 이 건물과 이어져 북측과 동측에도 비슷한 규모의 벽돌조 건물이 있는데 당시 규모가 커지면서 증축으로 공장이 넓혀진 것 같다.

정미소는 2층 규모로 높게 쌓은 조적조이며 지붕은 박공 형이다. 벽돌은 붉은 벽돌을 사용했는데 크기는 220×100×60mm와 230×110×60mm의 두 종류가 사용됐다. 2층 바닥 틀은 모두 목구조



그림 193 북동 측 코너 전경



그림 194 남측 전경



그림 195 북동 측 2층 바닥 트 받침기둥



그림 196 북동 측 2층 바닥 구조

로서 그 구조가 매우 특이하다.

현재 이 건물은 상가 등으로 내부가 개조되어 있으나 외벽만큼은 옛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이 건물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근대기 정미소 건물로 보존 가치가 있다. 건물 바로 맞은편에는 정미소 주인이었던 김문옥의 주택이 있다.

16. 구 보광동 창고

- 소재지: 목포시 보광동 5-4, 5-10(수강로 12번길 23-6)
- 건 립: 일제강점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비교적 원형을 잘 갖추고 있는 붉은 벽돌 부두 창고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하나처럼 보이나 내부는 종으로 벽이 있고 문도 앞쪽에 3개가 있어 별도의 3개 창고가 된다. 입면 구성도 정면 상부에 박공면 3개가 따로 연결되어 있다. 창고 하나의 크기는 가로가 7.4m이고 세로가 15.4m이며 높이는 목조 트러스 하단 부까지 4m이다. 상부 지붕 구조는 왕대공 목조 트러스로 되어 있다. 목포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부두창고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197 창고 전경



그림 198 정면 출입문

17.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 소재지: 목포시 온금동 122-6
- 건립: 1938년

조선내화(주) 목포공장은 주로 제철 공장에서 사용하는 내화(耐火)벽돌을 생산하던 옛 공장이다. 조선내화는 1938년 7월 20일 일본인 사토 등에 의해 설립된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가 그 시초이며 해방 후 목포 재벌 손용기 등이 미군정으로부터 불하받아 1947년 5월 15일에 '조선내화화학공업주식회사'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그 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공장의 80%가 파괴된 상황에서 이훈동(1917~2010)이 1953년 7월 25일에 이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국내 최고의 내화 제품 생산 회사가 되었다. 이훈동은 1948년에 이 회사의 상무로 경영에 참여한 바 있고, 특히 그는 해방 후 내화벽돌의 주원료인 납석 광산(해남 성산과 완도 노화)을 직접 운영하였다.

1997년에 광양으로 주 공장이 옮겨가면서 목포공장은 가동을 중단했다. 구 공장은 부지면적이 약 29,320㎡, 건물 면적은 11,024㎡로 규모가 매우 크다.

공장 건물은 공장 설립 초기에 건립한 목조트러스 건물(각가마용)과 1960년대 초에 지은 철재트러스 건물(터널식 가마용)이 규모도 크고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외 사무동과 공장장 사택도 있다. 굴뚝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3기 중 2기는 콘크리트 원형 구조이며 1기는 역시 원형으로 적벽돌로 축조되어 있다. 특히 적벽돌 굴뚝은 2단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각종 설비(각가마 1기, 길이 70m의 터널식 가마 2기, 건조기, 고압프레스 등)도 비교적 사용 당시 원 모습으로 잘 남아 있다.

조선내화 구 목포공장은 해방 후 목포 경제와 한국 내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근대 산업유산으로 보존가치가 크다. 최근 외국에서는 옛 산업 시설을 전시, 공연, 교육 등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2017년 12월 5일자로 등록문화재 제707호로 지정되었다.



그림 199 일제강점기 조선내화공장 전경
자료: 『조선내화 50년사』, 1997, 화보판.



그림 200 1990년대 조선내화공장 전경
자료: 조선내화 구 목포공장 자료실.



그림 201 굴뚝 전경



그림 202 각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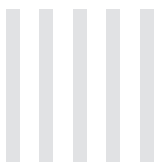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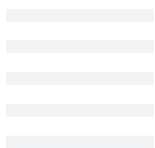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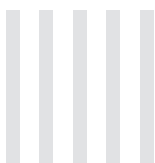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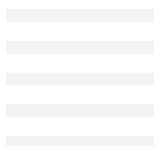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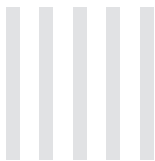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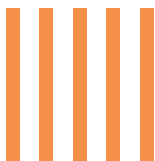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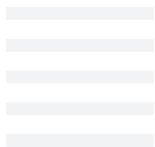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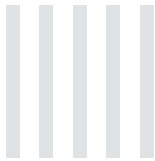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그림 203 터널식 가마(좌우)와 공장 내부 모습



그림 204 고압 프레스

김지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1절 무형문화재 개관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2절 옥장 장주원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3절 조선장 김정후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4절 판소리 「춘향가」 안부덕(애란)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5절 판소리 「수궁가」 박방금(금희)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6절 판소리 「흥보가」 김순자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3장 무형문화재

제1절 무형문화재 개관

이 글과 관련된 전라남도 목포시 무형문화재는 국가 지정의 무형문화재 한 가지, 도지정의 무형문화재 네 가지이다.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玉匠) 장주원이 있고,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조선장 심정후, 판소리 안부덕(동편제 「적벽가」)·박방금(동편제 「수궁가」)·김순자(동편제 「흥보가」) 등이 있다.⁰¹⁾ 이렇게 판소리 관련 문화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명창이 어려서부터 국악인의 길을 밟은 탓이다. 그리고 목포의 신치선, 안기선, 장월중선(후에 경주로) 명창과 목포를 거쳐 간 성우향, 한농선, 오정숙 명창이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필자가 옥장(장주원), 조선장(심정후), 판소리(안부덕, 박방금, 김순자) 등을 대상으로 인물별 생애(출생과 성장), 해당 분야 입문 과정과 사사 관계, 문화재 지정 사유와 전승 활동, 판소리 기능보유자의 특징 등을 신상(성명, 주소), 가치관(태도, 지식, 기술), 업적과 계획(과거, 현재, 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살폈다.

여기에서 주로 인용된 참고 문헌은 전라남도 목포시의 옥장, 판소리와 관련된 자료, 저서, 논문, 비도서 등이다. 특히 자료는 문헌 조사 자료,⁰²⁾ 현지 조사 자료⁰³⁾ 등이고, 비자료는 공연(영상), 음반 등

01) 목포여행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이외에 국악 분야에서 활약한 전라남도 목포시 관련 장월중선, 신치선, 김상용, 안기선, 안향련 등은 「목포시사」 4권의 「주요인물」에서 이윤선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02) 사전, 정부·지자체의 문화재(위원회, 위원 포함), 신문·방송, 잡지 등.

03) 장동기·안부덕(애란)·박방금(금희), 김순자 제보, 「장주원·안부덕·박방금·김순자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 홍순일 조사, 심정후 제보, 〈심정후의 생애, 사진〉, 대전→목포(통화), 2018.02.09.

이다. 서술할 때는 우선 옥장, 다음에 조선장, 그 다음 판소리를 서술하되,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제보자를 소개할 때는 성명의 우측에 가능한 한 성별, 나이, 출생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하는데, 이때 나이는 채록 당시의 나이로 한다. 그리고 판소리의 경우 필요시 원문에 ‘/’, ‘//’ 표시를 가하여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제2절 옥장 장주원



그림 1 옥장 장주원의 모습(장주원 제공).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장주원이 있다.⁰⁴⁾ 지정종별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문화재명은 ‘옥장 장주원’, 소재지는 목포시 대성동, 지정일자는 1996년 2월 1일이다. 현주소는 대성동 74-209번지이다.

장주원(張周元, 남, 1937)⁰⁵⁾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다. 장주원은 20살 때 옥공예를 시작해 현

04) 목포 여행 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05) 장동기 제보, 「장주원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동안 옥공예 종주국 중국과 중국인들을 놀라게 했다.⁰⁶⁾ 녹옥 매화다기 주전자, 용 봉황껍, 청옥매화관통형 주전자·잔, 청옥입식희전관통매화 주전자⁰⁷⁾ 등이 있다.

옥은 동양 문화권에서 금·은과 함께 쓰여진 대표적인 보석이고, 음양오행의 다섯 가지 덕인 인(仁)·의(義)·지(智)·용(勇)·각(角)을 상징하는 상류층의 장신구로 사용되었다.⁰⁸⁾

“군자의 덕(德)은 옥(玉)에 비할 수 있으니 부드럽고 따사롭고 광채가 나는 것은 인(仁)이요, 짜임새가 고르면서 굳은 것은 지(智)요, 깨끗하면서 깎이지 않음은 의(義)요, 몸에 드리워 떨어질 듯함은 예(禮)요, 두들기면 그 소리가 맑고 은은하게 뻗어 슬쩍 감추는 것은 낙(樂)이다(『예기(禮記)』).”⁰⁹⁾ 성질은 끈기와 온유, 은은함 등을 상징한다.¹⁰⁾

옥장(玉匠)은 옥으로 생활용품이나 장신구를 제작하는 장인이다.¹¹⁾ 옥장은 전통 공예 기술의 장인으로 고가의 원석을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며 정교한 조각 기능뿐만 아니라 고도의 예술성이 요구된다.¹²⁾ 국가에서 옥공예를 다루는 공인의 수를 제한하여 그 수가 극히 적었다.¹³⁾

장주원은 공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도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옥이었다. 귀금속을 다루는 손재주가 남다르다는 소문을 듣고 깨진 옥향로를 수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으나 처음으로 막막함을 느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옥공예에 승부를 걸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¹⁴⁾

장주원은 옥에 매료된 이유에 대해 “당시 고리가 부서진 중국산 옥 향로 제품의 수리를 의뢰받았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막했다.”며 “그때 옥공예를 해 보겠다고 맘 먹었고 그 후 2주간 접신한 무당처럼 밥도 못 먹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신열에 시달렸다.”고 회상했다. 옥공예에 흠뻑 빠져든 것이다.¹⁵⁾

1964년 27세 되던 해에 종로 2가에 있는 보석 전문 공예사인 보공사로 옮겨 옥공예를 주로 다루었으며 새로운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65년도에 귀향하여 죽교 2동 19번지에

06)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2016. 12. 20), 「장주원」.

07) 한국문화재단(<http://www.chf.or.kr/>), 「[문화유산정보] 문화유산 이야기 -옥장 장주원」(2014. 01. 06.)

08) 문화재청(<http://www.cha.go.kr>, 2016. 12. 20.) 「옥장」.

09) 한국문화재단(<http://www.chf.or.kr/>), 「[문화유산정보] 문화유산 이야기 -옥장 장주원」(2014. 01. 06.)

10) 『한겨레』 2014. 12. 02. 「용의 입안에 구르는 옥구슬…옥공예 종주국 중국도 인정」.

11) 『한겨레』 2014. 12. 02. 「용의 입안에 구르는 옥구슬…옥공예 종주국 중국도 인정」.

12) 문화재청(<http://www.cha.go.kr>, 2016. 12. 20.) 「옥장」.

13) 문화재청(<http://www.cha.go.kr>, 2016. 12. 20.) 「옥장」.

14) 한국문화재단(<http://www.chf.or.kr/>), 「[문화유산정보] 문화유산 이야기 -옥장 장주원」(2014. 01. 06.)

15) 『서울신문』 2015. 10. 25. 「[명인·명물을 찾아서] 중요무형문화재 100호 옥장 장주원 선생」.

옥공예 공방을 설립하여 행상을 상대로 상업 상품인 옥공예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다.¹⁶⁾

장주원은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에서 살다가 할아버지 규강(일명 대진, 1884~1970)때에 목포에 정착했다. 아버지 장중현(1915~1970)이 목포에서 금은 세공과 보석 가공을 했으며 그 제자인 정길택을 통해 전수된 기능이 장주원에게 이어진 것이다. 장남인 장장석(1960년생)이 가업을 위해 이를 전수받았다.¹⁷⁾ 현재 차남 장동기(1965년생)와 손자 장우경(1998년생)도 참여 중이다.¹⁸⁾

옥공예의 가공에 있어서도 동공예 제조 기술과는 판이하게 달라 정으로 쪼아 다듬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갈아 만든다.¹⁹⁾ 옥제작 공정은 대략 6단계로 나누어진다. ‘채석→디자인→절단→성형→세부 조각(구멍뚫기·홈파기)→광택’의 과정을 거쳐 옥작품이 완성되는데 각 공정에 따라 절단 공구인 쇠톱, 구멍을 뚫는 활비비, 연마 공구인 갈이틀, 물레 등 여러 공구들이 사용된다.

장주원의 옥공예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술이 발휘된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을 만들 때, 용의 입안에 옥구슬이 굴러다닌다. 여의주를 따로 입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옥 하나를 붙임 없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이 ‘환주기법’이다. 쇠사슬 모양의 옥 목걸이 역시 붙임 없이 하나의 옥으로 만들어 냈다. 하나의 원석에서 실을 뽑듯이 둥근 고리를 끊어지는 것이 없이 연결했다. 옥공예가 오랜 전통인 중국에서는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 사슬을 만들지만 그가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고리 연결 기법’을 이용하면 끊어짐 없이 옥 사슬을 만들 수 있다.

옥을 다루는 장주원의 옥공예 기술은 ‘회전 관통 기법’에서 절정을 이룬다. 물과 술을 담은 주전자를 옥으로 깎아 만드는데, 좁은 구멍을 뚫어 옥의 내부를 파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옥의 내부 곡면을 따라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치 내시경 없이 수술하는 형국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몸통이로 갈수록 구멍을 넓게 파기도 하고, 주전자 주둥이와 몸체 사이에 차를 거르는 체도 조각했다. 보이지 않는 주전자 속에 촘촘한 망을 만든 것이다.²⁰⁾

장주원은 2015년 “대량 생산되는 중국 옥공예품의 품질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감성을 불어 넣는 수공예로 종주국인 중국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일본의 모리 미술관이나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에서 한국 옥공예의 진수를 보여 주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말했다.²¹⁾

16) 한국문화재단(http://www.chf.or.kr/), 「[문화유산정보] 문화유산 이야기 -옥장 장주원」(2014. 01. 06.)

17) 목포 여행 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18) 장동기 제보, 「장주원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19) 문화재청(http://www.cha.go.kr, 2016. 12. 20) 「옥장」.

20) 『한겨레신문』 2014. 12. 02. 「용의 입안에 구르는 옥구슬...옥공예 종주국 중국도 인정」.

21) 『서울신문』 2015. 10. 25. 「[명인·명물을 찾아서] 중요무형문화재 100호 옥장 장주원 선생」.

제3절 조선장 심정후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무형문화재 조선장 심정후가 있다.²²⁾ 지정 종별은 무형문화재 제50호, 문화재명은 조선장(造船匠), 소재지는 전남 신안군, 목포시, 완도군, 지정일자는 2013년 8월 5일이다. 목포시 심정후는 신안군 조일옥, 완도군 마광남과 함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인데, 이것은 지방 무형문화재 중에서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의미한다.

‘조선장’은 ‘신안씻김굿’ 등 5개 종목과 함께 2013년 8월 5일에 무형문화재로 새로 지정되었다.²³⁾ 당시에 새로 지정키로 한 종목은 기능분야의 경우 ‘조선장(造船匠)’, ‘목조각장’, 예능분야의 경우 ‘신안씻김굿’, ‘화순 우봉리 들소리’, ‘영암 갈곡리 들소리’, ‘화순 도장리 발노래’였다.²⁴⁾

심정후의 자택은 전남 목포시 유달로 4 한일포차(서산동 23번지 15통 4반)인데, 벽돌을 만드는 옥금동 어업조합과 신안비치호텔 사이의 중간에 있다. 부인이 가게 한일포차를 운영하고 있고,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심정후(남, 67세)²⁵⁾는 살기가 어려웠던 1960년대 후반 군 제대 전후에 배 만들기를 시작했다. 16~17살 때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조선(造船)을 시작했다. 비 오면 놀고, 배를 짓거나 비를 수리하는 등 일이(수주할 사람이) 없으면 놀게 되어 후회하는 때도 있지만, 무형문화재 50호 조선장으로 지정된 후 배를 건조해서 내릴 때, 선주가 고기 부자가 될 때, 어부가 고기를 자기에게 갖다 줄 때 등에서 보람을 느낀다.

심정후는 목선이 없어진 지금이지만 그동안 자신의 기술을 쓴 경우가 여럿이다. 전통선박, 판옥선, 세곡선(稅穀船), 통신사선 등에서다. 심정후는 30~40억을 투자해 조선소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배를 만드는 기술로 조선장의 길을 찾아 나가고 있다.

심정후는 1968년부터 고 김성호 씨, 고 주호섭 씨로부터 조선기술을 배웠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배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다가 혼자 터득하는 것이므로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즉 조선소 밑에 있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여럿’이란 합쳐 7~10명이었고, 조선소에 있는 사람들은 총 20~50명이었다. 심정후는 40대 때 혼자 터득했다.

선주가 배 만들기를 조선장에게 주문한다. 당시에 배를 만드는 설계도가 없었다. 높이, 너비, 깊이,

22) 목포 여행 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23) 『전남타임스』2013. 01. 10. 「조선장-신안 씻김굿 등 7종 무형문화재 지정」.

24) 『전남타임스』2013. 01. 10. 「조선장-신안 씻김굿 등 7종 무형문화재 지정」.

25) 홍순일 조사, 심정후 제보, 「심정후의 생애, 사진」, 2018. 02. 09. 조사.



그림 2 거북선 용모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심정후 제공)



그림 3 임진란거북선 진수식 모습(심정후 제공)

길이 등 치수를 확인하고 손수 그렸다. '선도 친다'는 말은 배 도면을 그린다는 뜻이다. 현재 제자가 없다. 목선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장(造船匠)이란 우리나라 전통 배인 한선(韓船)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²⁶⁾ 전남은 서남해 양면이 바다로 일찍부터 어업이 발달하고 어로 기술이 뛰어 났는데, 동력선이 일반화되면서 전통 배만들기 기술이 사라져 가고 있어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하게 된 것이다.²⁷⁾ 특히 지역에 따라 해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배 제작 기술이나 용도가 달랐다. 목포시의 심정후(沈正厚, 62세)는 새우잡이를 해온 전통 어선인 멩팅구리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인정하고, 이외에 신안군의 조일옥(趙日玉, 70세)은 가거도 멸치잡이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완도군의 마광남(馬光男, 71세)은 소형 화물선 전용인 뗏마배 제작 기술을 보유한 자로 인정하기로 하였다.²⁸⁾

근대 한선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강이나 바다에 떠다니던 배를 말하는데, 거룻배, 나룻배, 야거리배, 당두리 등이 있었다. 배를 만들 때는 주로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 함께 일하며, 큰 배는 2~3명, 작은 배는 1~2명이 배의 종류에 따라 일주일에서 한 달 걸려 제작한다.²⁹⁾ 현재 만들어지는 배는 주로 항포돛배, 놀이배, 기관선, 메생이(그물배나 낚시배) 등이다.³⁰⁾

조선배의 특징은 물 깊이가 무릎밖에 안되는 강 상류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배 밑바닥이 넓고 평평

26) 시도무형문화재 제6호 조선장(서울 강서구), 제11호 조선장(경남 하남시), 제25호 하단돛배 조선장(부산 사하구), 시도무형문화재, 문화재 검색, 문화유산정보, 문화재청.

27) 『전남바른신문』, 2013. 07. 29. 「무형문화재 5종목 새로 지정」.

28) 『전남바른신문』, 2013. 07. 29. 「무형문화재 5종목 새로 지정」.

29) 정진각, 「조선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0) 시도무형문화재 제6호 조선장(서울 강서구), 제11호 조선장(경남 하남시), 제25호 하단돛배 조선장(부산 사하구), 시도무형문화재, 문화재 검색, 문화유산정보, 문화재청.

하며 탄력있게 만들어지는 점이다.³¹⁾ 목포시가 지난 4월 28~29일 고하도 및 유달산 노적봉 일원에 서 2017년 처음으로 개최한 ‘목포 이순신 수군 문화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목포시는 문화제를 열고 학술 대회, 수군 행진 등 목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조명했다. 특히 이충무공이 고하도에서 군량미를 비축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노적쌓기 체험 프로그램, 도(道)지정 무형문화재 조선장의 거북선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판옥선, 안택선 비교 전시도 호응을 얻었다.³²⁾

목포시의 조선장 심정후(2013년 당시 62세)의 특징은 신안군의 조일옥(趙日玉, 2013년 당시 70세)은 가거도 멸치잡이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완도군의 마광남(馬光男, 2013년 당시 71세)은 소형 화물선 전용인 뗏마배 제작 기술을 보유한 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새우잡이를 해온 전통어선인 멩텅구리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인정된³³⁾ 것이 특징이다. 심정후는 지금도 모형선을 만들어서 자신이 조선장임을 보여 주는 일을 계속 한다. 목포시에서 행사를 할 때 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심정후는 황토돛단배, 해태채취선, 뽕배(분노배) 등의 제작을 의뢰받은 상태이다. 뽕배는 거름을 실어 나르되 작고 소박한 배이다. 2018년인 올해 이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4절 판소리 「춘향가」 안부덕(애란)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무형문화재 판소리 안부덕(동편제 「춘향가」)이 있다.³⁴⁾ 지정 종별은 무형문화재 제29-2호, 문화재명은 ‘판소리 안부덕(동편제 「춘향가」)’, 소재지는 목포시 석현동, 지정 일자는 2002년 4월 20일이다.

안부덕의 자택은 전남 목포시 석현동이지만, 전수관은 전남 목포시 용해동 안애란 판소리 전수관이다. 본명은 안부덕이고 예명은 안애란이다. 안애란은 22살~24살 때 목포의 남자국극단에서 활동할 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한 이름이다.

안부덕(여, 1943~)³⁵⁾은 1943년 나주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에 목포로 이주하여 목포서부초등학교(구 목포서부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목포에 살면서 신치선, 정응민, 김상용, 성우향 선생에게 판소리를 수련하였다. 1986년부터 6년간 성우향 선생에게 동편제 「춘향가」를 배웠다. 1994년에는 전

31) 시도무형문화재 제6호 조선장(서울 강서구), 제11호 조선장(경남 하남시), 제25호 하단돛배 조선장(부산 사하구), 시도무형문화재, 문화재 검색, 문화유산정보, 문화재청.

32) 『무등일보』 2017. 05. 01. 「『목포 이순신 수군 문화제』 성료」.

33) 『전남바른신문』 2013. 07. 29. 「무형문화재 5종목 새로 지정」.

34) 목포 여행 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35) 안부덕 제보, 「명창 안부덕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안부덕의 성장, 제작발표회」, 홍순일 조사, 2017. 09. 06.



그림 4 안부덕(애란)과 제자들의 모습(2017년 4월 28일)

국 판소리 명창 경연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안부덕은 후술할 박방금, 김순자와 함께 김세종판 동편제 「춘향가」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상량과 막힘없는 시김새의 구사는 선생의 부단한 노력과 쌓인 공력을 짐작케 하며 기교가 많고 화려한 김세종판 동편제 「춘향가」를 제대로 소화해내고 있다.³⁶⁾ 특히 안부덕은 각종 대회에서 심사를 맡아 활약하기도 했다.

안부덕은 2015년 11월 28일, ‘2015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상설공연 팔도무형유람 상설공연’에 초대되었다. 이 무대에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 판소리 동편제 「춘향가」’를 잘 보여주었다.³⁷⁾

이 무대에 선 판소리 명창과 제자들은 섬진강을 기준으로 서편 지역 출신이고 모두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안부덕은 이 무대에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2호 판소리 동편제 「춘향가」 보유자로서, ‘춘향과 몽룡 이별하는 대목’, ‘어사와 월매 상봉하는 대목’을 불렀다.

판소리는 1996년 10월 14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1996년에 동편제 「홍보가」(박정례), 2002년에 동편제 「춘향가」(안부덕)와 고법(추정남)을 보유 종별로 인정하여 보존 전승하면서 관

36) 문화재청(<http://www.cha.go.kr>)의 문화유산정보, 「판소리 「춘향가」 안부덕」.

37) 2015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상설공연 팔도무형유람(2015. 11. 28.).

리해 왔다. 그러다가 기존에 지정된 유파는 그대로 일련 번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제29-1호 등)하여 부여하고 앞으로 인정되는 유파별로 그 이후 번호를 추가(제29-4호 등)로 부여하기로 했다. 제29-1호 판소리 동편제 「흥보가」(당초 예능보유자 박정례, 순천, 1996년 10월 14일 인정, 2004년 03월 11일 해제[사망]), 제29-2호 판소리 동편제 「춘향가」(예능보유자 안부덕, 목포, 2002년 04월 20일 인정), 그리고 제29-3호 판소리 고법(예능보유자 추정남, 해남, 2002년 04월 20일 인정) 등이다.³⁸⁾ 즉 안부덕의 판소리는 2002년에 동편제 「춘향가」(안부덕)가 제29-2호 판소리 동편제 「춘향가」(예능보유자 안부덕, 목포, 2002년 04월 20일 인정)로 변경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안부덕은 나이를 먹어서 앞으로 몇 년 더 소리를 가르칠지 모르나 몸은 늙었어도 마음이 젊다고 말한다.³⁹⁾ 현재 초등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1:1로 1주일에 두 번 소리 수업을 하고 있다. 소리를 잘 받으면 30~40분 정도, 소리를 못 받으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업 요일은 초등부가 토요일, 일요일, 일반인이 수요일, 목요일이다. 「춘향가」, 「심청가」등이 있지만 주로 「춘향가」를 전수시킨다.

또한 안부덕은 1년에 한 번 전라남도(목포시) 제자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발표회는 2015년 예술회관, 2016~2017년 오거리문화센터 등에서 개최되었다. 배출된 많은 제자들은 현재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제5절 판소리 「수궁가」 박방금(금희)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판소리 박방금(동편제 「수궁가」)이 있다.⁴⁰⁾ 지정 종별은 무형문화재 제29-4호, 문화재명은 ‘판소리 박방금(동편제 「수궁가」)’, 소재지는 목포시 산정동, 지정 일자는 2008년 12월 26일이다.

박방금(여, 1949~)⁴¹⁾은 본명이고, 예명은 박금희이다. 박방금은 목포에서 여러 선생들로부터 판소리 다섯 바탕을 공부했다. 그러다가 1986년, 서울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할 때 박금희라는 예명으로 한동안 불려졌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주로 본명으로, 서울에서는 예명으로 불려졌던 것이다. 박방금의 자택은 전남 목포시 용당동이다. 산정동에서 용당동으로 이사한 것이다. 전수관은 전남 목포시 용해동 284번지 박금희 판소리 전수교육관이다.

38) 전라남도 고시 제2006-175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인정, 해제) 행정예고시」, 2006. 12. 05.

39) 안부덕 제보, 「명창 안부덕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40) 목포 여행 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41) 박방금 제보, 「명창 박방금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그림 5 박방금(금희)과 제자들의 모습(2017년 4월 28일)

박방금은 1949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1960년 목포 국악원 김상용 선생 문하에서 「심청가」를 사사하였고, 그 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보유자인 오정숙 명창으로부터 「홍보가」완판 사사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예능보유자인 성우향 명창에게 「춘향가」완판 사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예능 보유자 정철호 명창에게는 「적벽가」, 「수궁가」, 「심청가」를 완판 사사 받았다. 이후 1988년에 박양덕 명창에게 유성준 바디 「수궁가」 완판을 사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가 되었다.

또한 박방금은 제1회 정읍사 전국명창대회 대명창부 대통령상을 받았고, 국립창극단 단원 활동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으며, 후학들을 양성하면서도 2007년 3월 2일 「수궁가」 완창발표회를 하는 등 전통 국악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²⁾

박방금은 전술한 안부덕과 후술할 김숙자와 함께 2015년 11월 28일, 2015 국립무형유산원 토요 상설공연 팔도무형유람 상설공연에 초대되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 판소리 동편제 「수궁

42) 문화재청(<http://www.cha.go.kr>)의 문화유산정보, 「판소리 「수궁가」 박방금」.

가」를 무대에서 잘 보여주었다.⁴³⁾

박방금은 이 무대에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4호 판소리 동편제 「수궁가」보유자로서, ‘계면 양류~인적 없는 녹수청산’, ‘별주부 토끼 팔란(八亂) 이르는 대목’을 불렀다.

박방금의 판소리 「수궁가」는 병이 든 용왕이 토끼 간이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자라더러 토끼를 꺾어 용궁으로 데려오게 하나, 토끼는 꺾을 내어 용왕을 속이고 세상으로 살아나간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다. 토끼타령, 별주부타령, 토별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니리〉

여보시오 별주부 하 수궁 흥미가 좀 어떠시오.

하 우리 수궁 흥미 좋지요.

아 우리 수궁 흥미 반겨듣고 가자 허면 마다 할 수 없고,

가기로 허면 내 이 적은 덕으로 한 덩집 할 수도 없으니

애당초 듣지도 마시오.

아따 내가 가자고 허면 시아들놈인게 이리시 한번 들어봅시다.

〈중중모리〉

우리 수궁 별천지라…….⁴⁴⁾

박방금의 판소리 「수궁가」는 박초월 바디로 유성준-박초월-박양덕-박방금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유성준 「수궁가」는 정광수, 임방울, 김연수 등에게 전해져 현재 가장 널리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박초월이 유성준에게 「수궁가」를 배운 시기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고, 같은 계열의 소리에 비해 박초월의 「수궁가」는 계면조의 애원성이 많이 가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⁵⁾

그런데 박방금은 이러한 박초월 명창의 소리를 따르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동편제는 원래 계면조가 들어 있지 않다. 유성준은 계면조로 소리를 하지 않았으나 박초월은 이쁜 목이어서 계면조로 소리를 했다. 박방금은 박초월의 이쁜 목대로 소리를 내지 못했다. 박방금은 남성적인 음이어서 성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43) 2015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상설공연 팔도무형유람, 2015. 11. 28.

44) 전라북도 한국전통소리문화(<http://www.sori.jeonbuk.kr/>), 「2005 토요예인전 박방금 명창의 「수궁가」」.

45) 국악정보(<http://arirangs.com>, 2016.12.20.), 「박방금-판소리(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박방금은 어린이, 어른을 대상으로 1:1로 1주일에 두 번 소리 수업을 하고 있다. 박방금은 좋은 판소리꾼이 배출되려면 좋은 배심, 타고난 목소리, 부단한 노력이 조건이라고 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1~2년, 장기적으로 10~20년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소리를 배워 대학교 국악과까지 진학해야 한다고 했다. 박금희 판소리 전수교육관에는 전수 조교가 없고 전수생이 있다. 전수 조교의 자격은 이수자, 이수 후 지역에서 5년 거주자인데 아직 이에 해당되는 전수생이 없기 때문이다. 박방금은 1년에 한 번 전라남도(목포시) 제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제6절 판소리 「흥보가」 김순자

전라남도 목포시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의 무형 1가지, 도지정의 무형 4가지이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판소리 본문은 동편제 「춘향가」안부덕, 동편제 「수궁가」박방금에 이어서 김순자 동편제 「흥보가」가 있다.⁴⁶⁾ 김순자의 지정종 별은 무형문화재 제29-5호, 문화재명은 ‘판소리 김순자(동편제 「흥보가」)’, 소재지는 목포시 용당1동, 지정 일자는 2009년 3월 20일이다.

김순자(여, 1945~)⁴⁷⁾의 자택은 전남 목포시 동부로 18번지(구 용당1동 962-68번지)이고, 같은 곳에 있는 전수관은 (사)한국판소리보존회 목포지부 김순자 국악원(구 유달 판소리 교습소)이다.

김순자는 판소리의 고장 진도에서 1945년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판소리를 수학하여 왔으며, 1967년 김홍남 선생에게 흥부가를 사사받아 판소리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전북 중요무형문화재 2호인 최란수 선생에게 「수궁가」, 「흥보가」, 「춘향가」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조상현 선생에게 「심청가」, 「춘향가」를 사사받았다. 또한 제1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차상, 1996년 광주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1994년 서울판소리 유파 발표회, 1998년 판소리 「흥보가」완창, 2005년 서울판소리 유파 발표회 등 수 차례의 판소리 발표회를 해왔다.

김순자의 부모는 음악을 좋아했지만 자식이 판소리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순자는 국악에 일찍 전적으로 뛰어들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늦게 국악에 전념한 편에 속한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전 (사)한국판소리보존연구회 목포지부에서 지부장을 역임했고, 2008~2015년에 대회장으로서 제8회 유달전국국악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⁴⁹⁾ 특히 목에 구

46) 목포 여행 가이드(<http://ggulinfo.com/>)의 「문화재현황」.

47) 김순자 제보, 「명창 김순자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48) 국악음반박물관(<http://www.hearkorea.com/>), 「진도 바다같은 김순자 명창, 잘 석힌 흥여 맛나는 「수궁가」」(2010. 11. 10.).

49) 김순자 제보, 「명창 김순자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그림 6 김순자와 제자들의 모습(2017년 4월 28일)

수하고 다정한 성음이 들어가 있는 김순자는 목포문화원, 목포해양대학교, 한라대학교, 전남도청, 전남예술고, 제주 목관아 등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소리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학 양성, 지역의 전통문화 및 예술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⁵⁰⁾

김순자는 전술한 안부덕, 박방금과 함께 2015년 11월 28일, 2015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상설공연 팔도무형유람 상설공연에 초대되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 판소리 동편제 「홍부가」를 무대에서 잘 보여주었다.⁵¹⁾ 김순자는 이 무대에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5호 판소리 동편제 「홍부가」 보유자로서, ‘홍부 매품 파는 대목’, ‘홍부 형님 덕에 양식 빌러가는 대목’을 불렀다.

김순자는 “무서운 선생 밑에서 사사를 받았고, 스스로 소리를 알려고 노력했다고 하면서 소리의 계보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거듭 말한다.⁵²⁾ 소리를 제대로 가르쳐 인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세밀하게 교육해야 한단다. 특히 진도군 조도면 출신의 김순자는 판소리에 굽하는 소

50) 문화재청(<http://www.cha.go.kr>)의 문화유산정보, 「판소리 「홍부가」 김순자」; 국악음반박물관(<http://www.hearkorea.com/>), 「진도 바다같은 김순자 명창, 잘 삭힌 흥어 맛나는 「수궁가」」(2010. 11. 10.).

51) 2015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상설공연 팔도무형유람, 2015. 11.28.

52) 김순자 제보, 「명창 김순자의 신상, 관점, 계획」, 홍순일 조사, 2017. 02. 13.

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슬퍼서 안되므로 가려서 가르친다.

김순자는 학생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1:1로 1주일 두 번 소리 수업을 한다. 토요일, 일요일은 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김순자가 소리를 가르치면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일반인은 월요일, 목요일이다.

또한 김순자는 1년에 한 번 전라남도(목포시) 제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2015년 예술회관, 2016~2017년 오거리문화센터 등에서 개최되었다.

홍순일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다섯 마당 『목포시사』

1권 향도 목포

집필위원 (가나다순)

강 봉 룡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 석 규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곽 재 구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김 성 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김 재 은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 정 섭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김 지 민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 계 각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박 성 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박 준 형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양 효 식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오 강 호

전남대학교 강의교수

오 홍 일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 기 훈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이 진 규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장 진 호

목포대학교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정 철 환

전남대학교 강의교수

최 성 환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홍 선 기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홍 순 일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다섯 마당 목포시사

1권 향도 목포

발행처	목포시·목포시사편찬위원회
편저	목포시사편찬위원회(고석규 외 19명)
총괄	목포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고석규
기획·편집	고석규, 나선희, 조미은
교정·교열	나선희, 조미은
행정지원	임진택, 정혜림
발행일	2017. 12. 31
디자인·편집·인쇄	이문
	(전남 나주시 북망문길 20 / 061-333-991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422 / 062-225-9913

다섯 마당 목포시사 ISBN 979-11-87136-00-2(전5권)

1권 향도 목포 ISBN 979-11-87136-01-9

〈비매품〉

다섯 마당 목포시사 전5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목포시와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木浦市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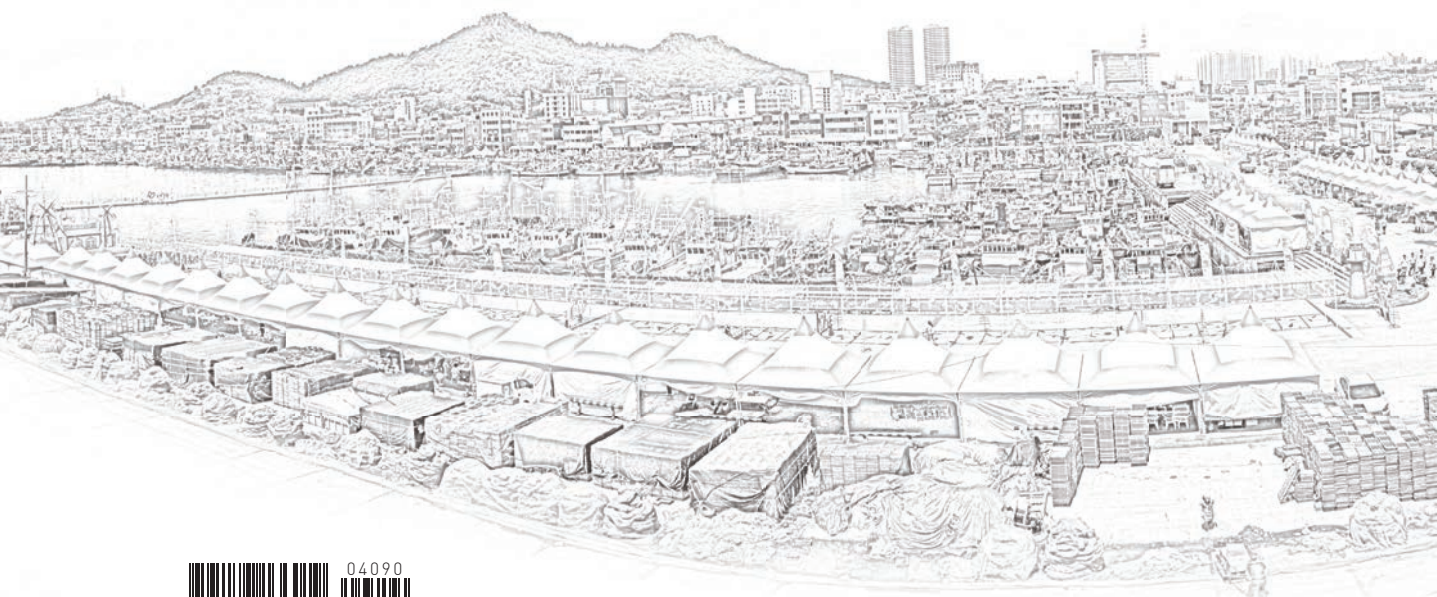
제1권 항도 목포

제2권 예향 목포

제3권 일등 목포

제4권 터전 목포

제5권 기록 목포



04090

9 791187 136019

ISBN 979-11-87136-01-9
ISBN 979-11-87136-00-2 (세트)